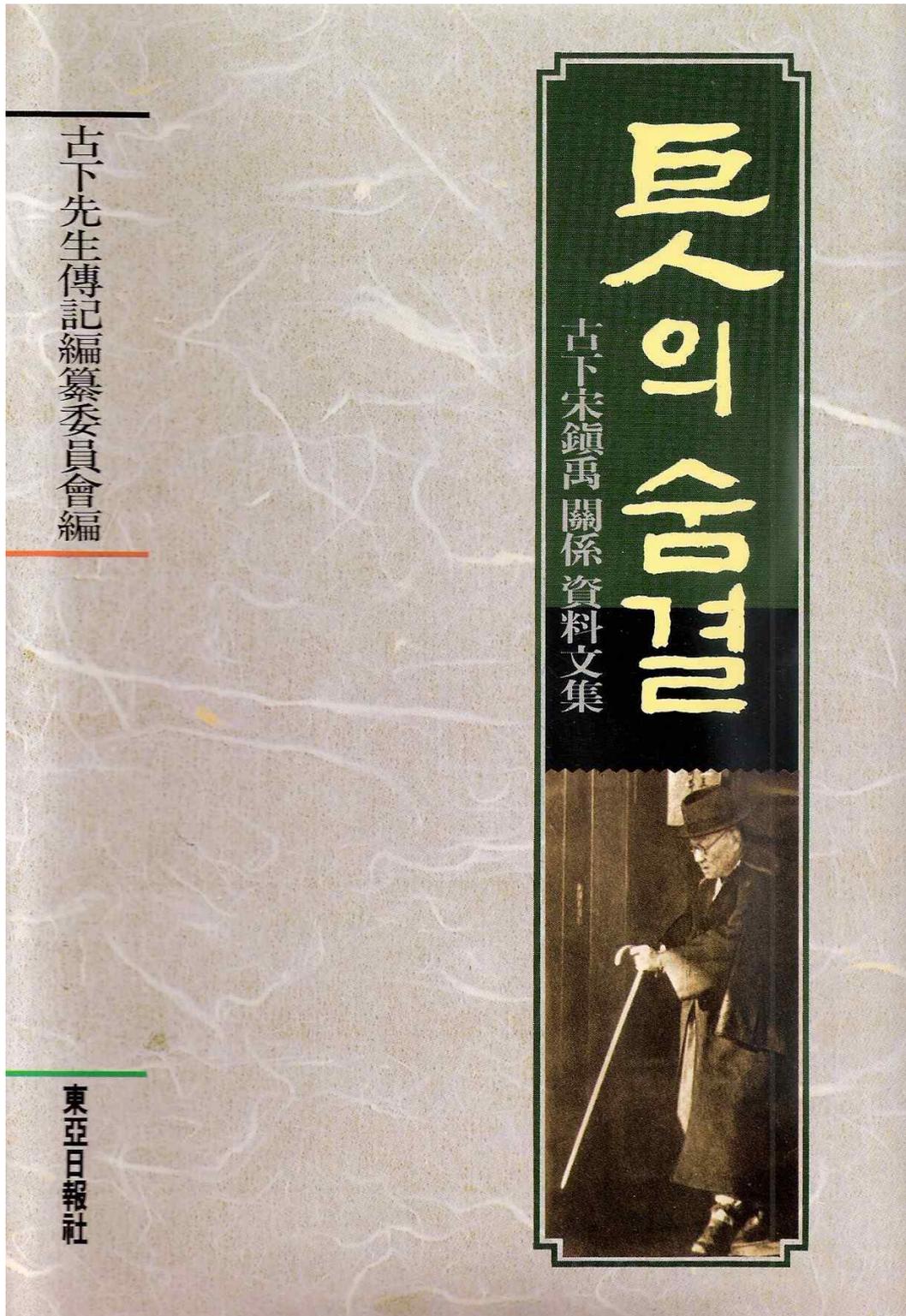


古下宋鎮禹 關係 資料文集 巨人的 숨결

Volume Two: The Writings and Biographical Materials
of Mr. Chinwoo Song



序 文

우리나라의 近代와 現代의 역사에 있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업적을 남기신 人物들의 생애와 사상을 담은 傳記나 回顧錄이 많이 出刊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헌은 주관적인 서술이거나 일정한 관점에서 시대순에 따른 활동상황을 후학들이 선별적으로 기록한 것인 경우가 많아 한 인물의 사상과 인품을 정확하게 알아내기에는 적당치 아니한 경우가 있다. 그러나 本人이 직접 집필한 글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그 人物의 思想과 人生觀과 時代觀을 좀더 잘 이해할 수가 있다.

이번에 동아일보사 창립 70주년 기념행사의 하나로 펴내게 된 古下 宋鎭禹선생의 文集은 先生의 탄신 100주년을 축하함과 동시에 독립운동가요 교육자요 언론인이며 정치가인 선생의 심오한 사상의 흐름을 그분이 직접 남기신 글로부터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매편이라고 할 수 있는 古下傳記 및 古下評傳과 함께 짝지어 출간하게 된 귀중한 기록이다.

古下선생은 일찍이 동경유학시절의 20대에서부터 당시로서는 첨단을 걷는 새로운 사상과 구습 타파를 위한 과감한 주장을 글로써 발표하기 시작하여 변천하는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세계정세에 관한 정확한 분석과 명쾌한 판단을 내리는 논문을 여러차례 집필한 바 있다. 1915년 《學之光》에 기고한 〈思想改革論〉, 1925년의 〈世界大勢와 朝鮮의 將來〉, 1931년의 〈萬寶山事件에 대하여〉 등이 그 예이다. 이중에서 몇편의 논문은 뒷날 韓國近代名論說 66편 중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가 전혀 없던 일제 암흑기에서 때로는 삭제되고 때로는 발표가 금지된 경우도 허다하다. 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망실된 글도 많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주로 일제 시대의 신문과 잡지로부터 발굴해 낸 상당수의 논문과 동아일보에 사설로서 게재된 바 있는 글들을 토대로 하고 그 외에 대담 인물평 일화 기타 관련자료를 한데 묶어서 단행본으로 출간할 수 있게 되었으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古下文集에 수록된 글들은 대부분 漢字와 한문식 문체로 되어 있어서 어려운 대목도 있으나 선생이 직접 집필하신 글의 경우에는 대체로 원본에 충실하고자 하였으며 제3자가 집필한 자료의 경우에는 가능한 한 한글로 고쳐서 읽기 쉽게 편찬하고자 노력하였다.

본 문집은 古下선생이 직접 쓰신 글과 기타 관련자료로 나누어서 각각 발표시대순에 따라 편집하였으므로 傳記나 評傳에 묘사된 당시의 시대배경을 염두에 두고 대조하여 읽어가면 조국의 독립과 민주국가의 수립과정에 위대한 업적을 남기신 古下선생이 생전에 품으셨던 선각자적 안목, 웅장한 포부, 예리한 판단력 그리고 고결한 인품의 일단을 좀더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과 해방후의 건국과정에 관한 연구에 귀중한 문헌이 될 것이므로 널리 一讀을 권하고자 한다.

1990. 4

編 者

文集

1. 물레방아 - 漢詩 2首

(註: 古下가 7세때 물레방아를 두고 지은 漢詩)

低尾噴白水 (꼬리를 나지막하게 하고는 흰 물을 쏟고)
舉頭撐青天 (머리를 들고는 푸른 하늘을 끈다)

(註: 古下가 7세때 물레방아를 두고 지은 漢詩)

欲知滄海量 (창해의 물이 얼마나 되는가를 알고자)
斗送小溪水 (작은 시냇물을 말로 되어 보내누나)

2. 人生의 價値

<學界報> 제1권 제1호 (1912년 4월 1일)

대개 物이 有하매 價値가 有함은 自然界의 一 大 眞理라 謂할지로다. 大抵 糞矢는 極히 汚穢한 者로대 利用하면 肥料를 供하며 砂石은 極히 陋賤한 者로대 磨琢하면 寶玉을 成하며 灰炭은 極히 粗末한 者로대 和浸하면 瀚濯에 資하나니 由此 觀之컨대 價値가 無한 物은 이 人間社會에 要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元來 造物主가 그 存在함을 不許한 所以로다.

嗟하다. 우리 人生이 廣漠한 宇宙間에 介在함이 滄海의 粟과 等하도다. 如何한 方法으로 如何히 做去하면 相當한 價値를 發揮할까. 先哲이 云하되 我는 未免爲鄉人으로 爲愛라 하였으니 是는 實로 우리의 注意地며 期圖處라 하노라. 然하나 原是 人類는 賣買品이 아니라 金錢上 價値는 論할 바 無하거니와 飛走는 鳥獻에 不及하며 潛躍은 魚龍에 不及하며 堅固는 木石만 不如하거늘 何故로 萬物의 靈長이라 稱하는지 或 自許에 過度치 아니한가 자못 稱할 뿐이라. 實地로 地球를 區分하며 萬物을 支配하여 隱默히 宇宙間 主人翁을 作함은 他가 아니라 元來 皇天이 萬物을 創造하실새 或 技能만 與한 者도 有하며 或 勇力만 與한 者도 有하며 或 強氣만 與한 者도 有하니 卽 語에 云한 바 角을 與한 者는 齒를 與치 아니함이라. 如此히 偏方的으로 賦與하시었거늘 우리 人類에게는 不照하여 良知 良能을 與하시며 聰明을 與하시며 言語를 與하시며 도한 相當히 活用할 機關되는 四肢百骸를 與하사 具體的으로 完全無缺한 資格을 賦與하매 原因함이로다.

大抵 天이 吾人에게 賦與하심이 如此히 厚重하시고 吾人이 天에게 受함이 如此히 廣大하거늘 어찌 暴棄에 自流하며 依賴를 是好하여 一價値없는 物을 作하리오. 或 蓬戶 蕪門에 一生을 虛送타가 萬疊青山에 一杯土物을 作한 者도 有하며 或 朱閣青樓에 百年을 自誤하여 一般 社會界에 一索米沃을 作한 者도 有하며 或 吳市越會에 片利를 是逐하여 萬衆會場에 一壟斷夫를 作한 者도 有하니 嗚呼라 人生의 至悲至慘한 境遇가 此外에 過할 者 無하도다. 是以로 人類의 進取를 論하매 孔曰 仁이라 하며 孟曰 義라 하였으니 至哉라, 此言이여 富貴가 能히 淫치 못하며 貪賤이 能히 移키 難하도다. 殷湯은 萬乘의 帝王이로대 桑林에 祈하고 伯夷는 百世의 師表로대 首陽에 餓하니 是皆 人生의 價値를 發揮하기 爲하여 然함이로다.

우리 人生은 마땅히 至高至健한 良心의 指揮를 從하여 千人이 阻防하되 我獨往之하며 滿人이 沮毀하되 我獨爲之란 氣概로 天賦한 價値를 發揮할지로다.

顏賢曰 有爲者赤 若是라 하였으니 爲할지니 那帝曰 無不可能이라 하였으니 能할지니 吾人이 此世에 生치 아니하면 已어니와 만일 生할진대 어찌 自然界의 眞理를 背馳케 하며 天賦한 價値를 拋棄하여 禽獸不若의 歎을 作하리오.

3. 思想改革論

<學之光> 제3권 1호 (총5호 1915년 5월 2일)

思想은 生活의 標準이니 萬一 吾人으로 하여금 過去의 思想을 是認하며 現在의 生活에 滿足한 다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아니하고 慣習의 權威를 打破하며 遺德의 奴隸를 解放하여 眞生命의 領地를 展開하며 新生活의 源泉을 啓發코자 할진대 第一 要緊하고 急切한 問題는 思想界革命이라 하노니 荒蕪한 基礎에는 華麗한 樓閣을 建築키 難하며 汚穢된 牆壁에는 燦爛한 彩畫를 添加키 不能하도다.

是以로 新時代에는 新生活을 要求하고 新生活은 新思想에 胚胎되나니 換言하면 倉廩의 富가 社會發展의 標準이 아니며 兵甲의 銳가 民族保護의 機械가 아니라 다만 隱微한 思想의 線路가 隆替의 運命을 支配하며 文野의 區別을 判定함은 人事界의 一大 原則이요 歷史上에 明瞭한 事實이라. 爾今에도 闊袖曲學이 上古戀慕에 繫戀이 尙存하고 高襟新派는 邊幅修飾에 餘醉가 未醒하니 散漫한 思索은 時代風潮와 合流할 수 없으며 衰頹한 想華는 文明理想에 共鳴되기 難하도다. 於是에 暗淡한 地獄이 現世에 來臨하고 窮極한 慘劇이 到處에 演出됨은 目下의 實況이라. 이 어찌 危急의 機가 아니며 存亡의 秋가 아니리오. 이에 林隱의 譏와 井觀의 嘲를 不拘하고 暗黑面과 寂寞界를 向하여 一筆로 論究코자 한다.

第一 孔教打破와 國粹發揮

孔教는 打破될 時代도 到來하였거니와 打破도 하여야 하겠도다. 勿論 孔丘氏는 偉人傳中의 一人이라 氏의 事蹟을 參考할 必要가 自在하며 敬愛할 感情도 不無하도다. 然하나 吾人은 沐冠猴가 아니라 自己의 處地를 沒却하고 그 言行을 模倣할 수 없으며 吾人은 蓄音機가 아니라 時代의 利害를 不拘하고, 그 思想을 傳播하기 難하도다. 換言하면 四億萬族의 血肉系統이 吾人과 連鎖가 無하며 二千年前의 思想權威가 現代를 支配키 難하도다.

茲에 概論하면 孔教는 慕古思想의 源泉이니 祖述堯舜하고 憲章文武가 孔教가 中樞思想이라 於是에 土階三等과 茅茨不翦의 半蠻生活을 讚美하며 禮儀三百과 威儀三千의 牧畜道德을 準繩하게 되니 社會는 停滯하여 發展의 希望이 杜塞되고 民氣는 鎖索하여 進取의 氣象이 缺乏한지라 是以로 無窮한 眞理를 闡明하며 無限한 幸福을 增加케 하는 人文進步의 原理에 背馳될지며 孔教는 專制思想의 端緒니 民은 可使由之요 不可使以知之라는 論法으로 賢者政治를 唱導하니 吾人 人類가 政治的 動物이 되는 原理에 背馳될 뿐아니라 이른바 賢者가 代代 繼承될 理由도 萬無하도다. 於是에 治日이 極小하고 亂日이 恒多하여 社會가 塗炭의 坑을 幻成하고 人民이 覺醒의 機가 絶乏됨은 東西歷史의 一一示明하는 바라. 是以로 民主思想이 澎漲하여 自治權利의 平等政治를 實現하는 現代潮流에 不適할지며 孔教는 排他思想의 表現이니 外族은 蠻夷로 待遇하며 他學은 異端으로 看倣하여 獨斷論評과 妄大思想으로 部落社會를 幻成하며 暗黑時代를 再現하려 하니 是以로 人類平等의 眞理를 高調하며 思想自由의 特色을 發揮케 하는 文明思想에 反對될지라도.

우리 社會는 孔教를 輸入한 以後로 處處에 傳染病院 '鄉校'이오, 人人이 食傷患者라, 神嚴한 民族精神은 是로 以하여 破壞되었으며 壯烈한 武勇思想은 是로 以하여 鎖沈되었으며 燦爛한 美術工藝는 是로 以하여 殘滅되었도다. 噫라 一矢를 不拔하며 半箭을 不費하고 幾行文, 數片語로 他族을 戕害하는 孔氏의 勢力도 惡極하러니와 우리 民族의 中毒된 程度도 窮極하였도다. 然하면 孔教打破는 自我保護의 正當防衛요 時代要求의 緊急事務라.

是以로 茲에 國粹發揮를 急叫코자 하노니 吾人의 生命은 太白山 檀木下에서 神聖出現하신 大皇祖께서 創造하셨나니 皇組께옵서는 領土家屋을 開創하셨으며 禮樂文物을 制定하셨으며 血肉精靈

을 分布하셨으니 吾人의 生命을 集合하면 四千年前의 渾全한 一體가 될지요 分布하면 二天萬族의 分派된 支流가 될지라도. 庭間一株樹를 試觀하라. 千枝萬葉의 生命이 一帶莖根에 起源된 者 아닌가. 由來로 蒙被한 恩澤은 泰山이 猶輕하고 密接된 關係는 一髮을 難容이로다. 然하면 吾人이 大皇祖를 崇奉하며 尊祀함은 事光追遠의 至極한 精誠이오 啓後開來의 當然한 義務가 될지며

第二, 家族制의 打破와 個人自立

社會制度는 人文進歩와 時代發展을 隨하여 變遷되며 改革됨은 人事界의 事實이라, 元來 家族制度는 部落社會의 産物이며 專制時代의 餘波니 一은 人文이 未關하고 知識이 幼稚하여 共同生活의 原則을 未解하고 猜忌爭奪의 野心이 劇烈함을 隨하여 族屬을 團結하며 部落을 成立하고 防衛의 道를 謨하며 抵抗의 力을 作함에 起源되고 一은 刑政이 未備하고 法令이 解弛하여 國家의 統治機關이 周密한 警察과 絶對한 權威를 發揮치 못함을 因하여 狡猾한 專制家가 夷族의 法을 制定하고 家族의 制를 利用하여 社會를 拘束하고 地位를 確保코자 함에 發達되었나니 是以로 個人權利가 尊重되고 國家威力이 澎漲한 現代에 對하여는 家族制의 存在를 容認키 難하도다. 茲에 概論하면

家族制는 社會發展에 障害物이 될지니 青年英才로 萬里에 壯志가 有하고 一生의 經論을 抱하여 法律의 制裁를 不拘하며 慣習의 科臼에 超越하여 快舉雄圖의 氣概가 有하여도 活動의 方面과 進行의 經路에 家長의 承諾을 要求하게 되니 偉大한 理想은 凡夫의 理解키 不能하고 危險한 事業은 俗翁의 妨沮되기 容易하도다. 是以로 社會는 進取氣象이 缺乏하고 保守思想이 溢萬될지며 家族制는 懶惰性의 源流가 될지니 一人이 耕之하고 十人이 食之라 함은 家族制의 眞相을 說明한 句語라, 大개 勤勉은 奮鬪에서 生하고 奮鬪는 生活에 基因되나니 青年健骨이 蠢蠢한 寄生蟲으로 化作되고 紅顏幼婦가 無用한 新有物로 幼出되매 財産에 恒心이 無하고 生活이 依賴가 自甚하도다. 是以로 勢殊事異하면 桑海의 變이 斷至될지요 溝壑의 禍가 難免될지며

家族制는 人材擢用에 擠陷穿이 될지니 門閥을 尊尙하여 貴賤을 判定하며 系統을 是觀하여 班常을 區別하니 於是에 祖先이 顯著하고 族親이 繁昌하면 瘋癲白痴와 酒囊飯袋라도 依例厚待하며 瞠然 仰視하고 門地가 寒微하고 系統이 未詳하면 偉貌健骨과 逸足良材라도 互相排斥하며 睨然侮視하니 是以로 社會는 冷酷殘忍하여 和氣가 喪失되고 民族은 支離滅裂하여 怨聲이 漲滿하였도다. 勿論 民族을 爲하여 血肉을 犧牲하며 精靈을 盡瘁하는 人物에게 對하여 그 勳績을 讚頌하며 敬慕함은 社會의 義務며 因果의 報應이라. 그러나 後裔近族이 遺風을 誇張하며 白骨을 利用하여 投機的으로 漁功을 坐收하며 無條件으로 門閥을 樹立함은 社會가 決斷코 容認키 難할 뿐 아니라 어찌 先哲에 對한 累及이 아니며 後進에 關한 恥辱이 아니리오. 噫라 王侯將相이 元來 種字가 無하며 偉功勳名이 特別한 限界가 無하나니 疾足者 先得이오 熱心家 所有됨은 自然界의 形勢요 歷史上의 徵擧하는 바로다.

試觀하라. 家族制의 胎毒이 如何하며 社會界에 被損이 如何한가. 勿論 皮相의 觀과 近視의 眼으로 批評하면 家族制度는 骨肉連鎖의 機關이며 愛情發露의 結果라 할지나 吾人으로 하여금 眞正한 骨肉連鎖의 必要를 感覺할진대 二千萬族의 精力을 團合할지요, 純潔한 愛情發露의 精誠을 披瀝코자 할진대 四千年來의 歷史를 光輝케 할지라도. 何者로 吾人의 肉體에는 同一한 檀君血液이 循環되며 吾人의 頭腦에는 同一한 權域思想이 留宿되며 吾人의 活動에는 密接한 利害問題가 關係됨이로다. 腐敗한 制度와 偏狹한 觀念은 門戶를 對立하여 賢能을 戕害케 하였으며 私利에 熱烈하여 公事에 冷淡케 하였으며 家譜는 重視하되 歷史는 無視케 하였으며 私墳은 修築하되 宗祠는 荒蕪케 하였으며 閥松은 長養하되 公山은 赭秃케 하였도다. 然하면 家族打破는 大和樂을 挽回하는 張本이며 大發展을 要求하는 所以라.

是以로 茲에 個人의 自立을 切叫하노니 支人 張某의 九世 同居를 美事로 稱道하며 好例로 看做하나 此는 主觀이 아니오 客觀이며 實質이 아니오 形式이니 그 經過狀態는 忍字의 百으로 說明되었나니 到此에 裏面의 衝突과 内幕의 苦痛을 想像할지라도. 然하면 不和를 引致하며 苦痛을 忍耐

하여 九世를 同居하는 것보다 一時에 別居하여 和平을 共樂하며 幸福을 相增하는 것이 智者의 能事요 達人의 觀察이라. 是以로 複雜한 親等을 減縮하여 負擔을 輕損하며 獨立의 生活을 完成하여 自由로 發展케 할지니 換言하면 個人은 家族線을 經由하여 社會에 到着할 것이 아니라 直線으로 社會를 貫通하게 할 것이니 如此하면 萬里獨治하여도 家政의 顧가 無하여 事業을 完就할 지요 一力直進하여도 交老의 阻가 無하여 社會가 發展될지로다. 噫라 家族을 周圍하여 固着된 重農主義는 過去에 歸屬하였고 個人을 中心하여 流動하는 通商時代는 現在에 到來하였으며

第三, 强制戀愛의 打破와 自由戀愛의 鼓吹

戀愛는 至誠이며 事實이니 人生 一代에 苦樂의 源泉이오 社會 萬般에 盛衰의 關鍵이라. 이 어찌 靜思沈究하며 重視詳論할 大問題가 아니리오. 由來로 不告而娶는 成人之戒라 하여 盆垢堆積하고 荒唐無稽한 一片空文으로 青年男女의 肉體自由를 束縛하며 人類社會의 愛情發露를 塞源하여 萬端苦痛을 招致하며 一般風化를 損傷케 하나니 茲에 概論하면

强制戀愛는 階級結婚의 惡果를 發生케 하나니 青年男女가 心契가 相合하며 情愛가 殊切하여 夢中에 人이 되고 相思의 病이 될지라도 貴賤이 不適하고 貧富가 不均하면 家親의 不許와 慣習의 制裁를 因하여 巫山佳約을 虛負케 하나니 是以로 精力과 血液이 一定한 族屬에 循環不通하여 生理上에 不良한 兆徵이 胚胎될지며

强制戀愛는 早婚의 末弊를 發生케 하나니 鄉黨父老와 村閭老婆가 身後의 種을 豫慮하며 眼前의 花를 玩樂코자 하여 幼子稚女를 載車負馬하고 華燭의 典을 舉行하게 되니 知覺은 尙早하고 骨格이 未成한지라, 往往히 白地健兒는 黃泉의 客을 作하고 青春孀婦가 素縞의 服을 裝하니 於是에 愁雲이 漠漠하고 冷風이 蕭瑟하는 人生悲劇이 演出될지며 强制戀愛는 作妾의 惡習을 招致케 하나니 夢寐에 不見하고 鬼神도 未知하는 人事間에 一片의 紙와 數匹의 帛으로 百年을 期約하니 鴛鴦의 樂과 琴瑟의 和를 得한 者 辰星이며 僥倖이라. 性格의 異同이 水油의 關係요 或은 容貌의 醜美가 玉石의 差別이 生하니 男男이 君子人이 아니며 事事에 道德家가 아니라 於是에 心神의 慰安과 戀愛의 快樂을 別途로 求하니 是以로 芳年紅頰이 破鏡의 身勢를 自歎하고 春閨 青春은 薄命의 長恨을 泣訴하는도다. 百樂天의 詩에 '後世莫作女子身, 一生苦樂由他人'이란 一句는 어찌 强制戀愛의 黑幕一面을 畫出한 者 아니리오.

由此觀之컨대 强制戀愛는 弊毒이 窮天極地로다. 不自然한 早婚의 弊風은 人世의 悲哀를 化成케 하였으며 非人道된 作妾의 惡例는 婦女의 怨恨을 發生케 하였으며 沒常識한 階級の 結婚은 生理의 發達을 妨阻케 하였나니 然하면 强制戀愛를 打破함은 自然的의 眞理요 人事上의 正路라.

是以로 吾人은 茲에 自由戀愛를 鼓吹코자 하나니 元來 戀愛는 理論이 아니오 情熱이며, 客觀이 아니오 主觀이란 由是로 貧富의 限界가 無하며 貴賤의 階級이 無하며 土地의 遠近在 無하며 知識의 比較가 無하나니 換言하면 萬金의 富가 戀愛를 橫斷할 수 없으며 三軍의 威가 戀愛를 爭奪할 수 없으며 白屋의 貧이 戀愛를 變改할 수 없으며 千里의 遠이 戀愛를 疏隔할 수 없으며 知識의 力이 戀愛를 解剖할 수 없나니 此는 宇宙의 神秘요 人情의 機微라 萬一 食飮을 強效치 못할 進대 戀愛도 强制치 못할지며

第四, 虛榮教育의 打破와 實利教育의 主張

由來로 우리 社會는 官吏萬能과 民者一流라는 沃學思想이 青年의 頭腦에 浸染되고 社會의 習慣을 化成하여 十年의 苦讀은 標準이 馬頭의 榮에 在하고 一生의 守道는 目的이 豹皮의 名에 終하니 是以로 全體 事業은 衰頹가 窮極하고 一般 思潮가 虛榮에 浮敗되었도다. 茲에 概論하면

虛榮教育은 勞動虐待의 結果가 生하나니 勞動은 神聖이라 他人의 汗血을 不食하고 自力의 勤勉을 是資하여 運命을 開拓하며 生活을 維持하니 天賦의 能力이오 人生의 要務라, 高壯한 城壁은 礎石이 無하고 特立키 難하며 偉大한 民族은 勞動이 乏하고 雄飛키 難할지며 虛榮教育은 物質研

究를 疏略케 하나니 窮思覓得하고 緻密周到치 아니하면 自然界의 法則을 解悟키 難하고 物理上의 變化를 覺得키 不能하나니 是以로 虛榮教育은 規則을 是準하여 腦力을 鍊鍛하며 分業을 是隨하여 能力을 發揮키 難할지며 虛榮教育은 名利的 奴隸가 되나니 生産을 不事하고 澤及萬民을 希望하며 山林에 隱遁하여 名傳千秋를 夢想하니 事業에 階級이 分明하며 窮達이 途程을 要求하매 躡等하여 到達키 難하며 不勞하고 成就키 不能하나니 是以로 實體를 未解하고 形式을 是主하며 事理를 不拘하고 榮華를 渴望하게 될지라.

勿論 名문민輩出이 吾人의 希望이오 賢相繼至가 現代의 要求라. 然하나 吾人이 眞正한 政治를 實行코자 할진대 먼저 虛榮的 思潮를 打破할지오 深遠한 學術을 研究코자 할진대 먼저 固陋한 偏見을 打破할지로다.

是以로 茲에 實利教育을 急調코자 하나니 人生이 此世에 來하매 宇宙間 森羅萬象이 一般 研究 資料요, 社會上 大小百事가 俱是 活動方面이라. 官吏의 寄生職이 唯一한 目的되기 難하며 文者의 釣名業이 高尚한 事實되기 不能하도다. 다만 天意에 適合하고 民生에 必要하면 才能과 職分을 隨하여 心血을 傾盡하며 努力을 極盡케 하는 것이 人類의 義務요 社會의 理想이라. 然하면 煙突事業도 可할지며 肥料生活도 可할지며 珠盤活動도 可할지며 航海研究도 可할지라. 現代는 實利文明이니 英雄은 團體로 幼出되고 政治는 生活로 變形되었도다. 是以로 杜翁은 文豪로되 農園에 投足하고 厚公은 偉傑이로대 工場에 出身되었으며

第五, 常識實業의 打破와 科學實業의 喚興

進步發展의 使命을 帶한 吾人 人類의 生活狀態는 時代의 變換됨과 人文의 繁昌함을 隨하여 華美하게 되며 精巧하게 되나니 是以로 綿布의 服이 護身의 着이 아니며 茅茨의 屋이 容膝의 處가 아니며 蔬菜의 飯이 充腹의 物이 아니며 連朮의 草가 病治의 藥이 아니 될지로다. 茲에 概論하면

常識實業은 産業의 發達을 沮防케 하나니 物理의 研究가 乏絶하며 機械의 使用을 未究하여 努力만 是賴하고 經驗을 標準하니 完全한 設備와 一定한 準繩이 無한지라. 是以로 到處에 原始의 觀이 有하며 製品에 斧鑿의 痕이 無키 難할지며 常識實業은 外處의 物貨를 招致케 하나니 精拙이 不同하고 遲速이 懸殊하매 同價면 紅裳이오 疾足에 先得이라. 是以로 風雨行商이 地盤을 奪하고 盡夜製工은 職業을 失하여 歐品米貨가 漁貫輻湊하니 經濟界에 鳩居의 患과 狐借의 禍가 繼至하게 될지며

常識實業은 社會信用을 墮落케 하나니 貯蓄의 機關이 未備하고 簿記의 方式이 不明하며 損得의 證據가 未確하고 投機的 事業이 勵行되니 是以로 甲者를 疑하며 乙某를 忌하고 東隣에 得하고 西市에 失하게 되니 太倉紅腐는 活用の 途가 塞하고 寒村白屋은 流通의 路가 能하게 될지로다.

競爭은 生活에 起因되고 生活은 實業에 基礎되나니 吾人이 木石이 아니며 幽靈이 아니라. 食飮치 아니하면 飢渴할지오, 衣着치 아니하면 凍寒할지니 歲入 歲出이 權衡을 失하며 供給需要가 機關이 無하여 天産原料는 他地에 流出되고 人製外品은 到處에 發見하게 되니 이 어찌 生活의 危機가 아니리오.

是以로 茲에 科學實業의 急務를 喚興하노니 現代의 産業은 科學의 發達됨을 因하여 革命되었나니 視觀하라, 鐵線이 縱橫하며 電信이 連絡하여 貨物의 交換을 敏活케 하는 것이 蒸氣電氣의 作用이며 時笛이 四起하고 烟突이 林立하여 製品의 精巧를 窮極케 하는 것이 化學工藝의 發達이며 肥料가 山積하고 山野가 盍蒼하여 林果의 供給을 豐饒케 하는 것이 物質推理의 餘波며 內外를 科分하며 骨節을 解剖하여 生命의 苦痛을 輕減케 하는 것이 生理應用의 結果가 될지니 是以로 科學實業은 學術應用의 活動이며 分業發達의 關鍵이라 消極的으로 土産을 保護하여 自衛의 道를 謀하며 積極的으로 科學을 引用하여 發展의 策을 計劃하는 것이 生活維持의 方便이 될지며 産業發展의 基因이 될지로다.

結論

紙面の 不許함과境遇의 難用됨을 因하여 結構의 體가 疏略이 多하고 論評의 鋒이 自由를 失하여 管蠡의 見과 衣上의 感이 不無하도다. 然하나 누구던지 朝鮮民族史를 讀하다가 掩卷長觀할 處는 思想界의 墮落이라 할지니 試觀하라. 社會는 依賴의 風이 彌滿하며 民族은 自立의 道를 不求하여 士林은 孔教를 依賴하며 青年은 老年을 依賴하며 女子는 男丁을 依賴하며 實業은 常識을 依賴하며 教育은 過去를 依賴하며 國內는 海外를 依賴하게 되니 元氣가 沮喪되고 神經이 虛弱하여 風聲鶴唳에 一嘸一笑하고 點兩片雲에 是望是翹하며 投機事業에 耳目을 傾盡하고 僥倖運數에 心神을 馳驅하니 於是에 訛言이 百出하고 群妖가 橫行하는도다.

噫라, 天은 自助하는 者를 助하나니 誰某誰某하여도 依賴心을 打破한 以前人이며 曰何曰何하여도 自立力을 確立한 然後事라. 是以로 吾人의 今日은 改革을 要하는 時代며 內省을 求하는 時代라 하노라.

4. 男女交際에 對한 名士의 意見

<青年> (1921년 3월 12일 창간)

男子나 女子나 同一한 사람이라, 사람과 사람의 交際하는 것이 正當한 事實이다. 그러나 우리 社會에는 習慣의 制裁가 嚴切하였으므로 그 錯誤된 思想을 들어 確論하려 한다.

(1) 兩性の 調和=男女交際를 反對하는 理由는 흔히 風紀의 紊亂이니 異性の 相求함은 生理上 原則이라 握手 交話하는 것이 戀慕의 情과 亂倫의 變을 引致하겠다 함이다. 그러나 이는 心中有 妓者流의 近視皮觀이다. 紳士 淑女의 交際는 淫婦蕩子の 遊戲가 아니라 知識을 相資하며 善惡을 相戒하여 理性으로 交하고 信念으로 接하나니 도리어 男의 強과 女의 柔가 서로 感化를 及하며 和氣를 發하여 圓滿한 社會가 現出될 것이며

(2) 文化의 速進=個性의 發展은 人類의 重大한 問題다. 女子를 料理具나 裁縫針이나 娼母車로만 看做하던 陋習은 論할 바 無하거니와 至今까지 男子만 專橫하던 社會運動을 그 範圍를 擴大하여 共同協力하면 文化의 發展이 倍나 速할 것이니 萬一 共同協力이 必要하다 하면 그 前提로 男女交際를 肯定할 것이다.

要컨대 男女交際를 反對하는 論據는 倫理上 原則이 아니요, 性慾的 關係이다. 人類의 原始狀態를 追想하면 無知蒙昧한 男女가 交雜 共處하였으므로 淫奔이 流行하고 嫉妬가 爭起하여 風紀가 亂하고 寧日이 小한지라 哲人 聖者가 이에 鑑하여 男女七歲어든 不同席이라 하는 嚴法을 制定하게 된 것도 그 時代 그 社會에는 適應한 方法이었다. 그러나 道德의 發展이 進步하고 文化의 範圍가 擴大된 現代에 處하여는 成人이 復起하셔도 男女交際를 正論이라 할 것이다.

5. 本報의 過去를 論하여 讀者 諸氏에게 一言을 寄하노라

<東亞日報> (1921년 10월 15일)

(註 : 동아일보 제3대 사장 취임시 취임사)

本社에 就任한지 月로 計하여 三朔에 跨하고, 日로 數하여 百日에 達하도다.

그러나 殘務의 整理와 餘冗의 收拾으로 因하여 一沫의 例辭가 無하게 됨은 어찌 遺憾이 아니라. 本報의 創設이 一年이요 七個月이라. 그 동안 障害도 많았으며 困乏도 많았도다. 그러나 이에

不拘하고 讀者의 數가 幾萬에 達하며 社員의 數가 百名에 及하니 蕭條한 우리 社會에 있어서는 浩大한 機關이요 一種의 光明이라 하겠도다. 그 所由來와 그 所以然이 如何한가. 本社の 發展을 企圖하는 우리는 冷靜한 態度로 思考할 必要가 有하도다.

第一은 時代의 產物이니 越在 數年에 歐洲의 大亂이 方熄하고 平和의 曙光이 發現하여 改造의 精神과 解放의 思潮가 全世界의 洋溢한지라 沈鬱에 沈鬱을 積하고 苦悶에 苦悶을 加하여 暗中에서 摸索하고 迷路에서 彷徨하던 우리 民族의 思想界가 衰弱한 元氣를 更張하려 하며 疲困한 神經을 亢進하려 하니, 此에 順應하여 民族의 表現機關으로 本報가 誕生된지라 이 곧 天下의 同情이 集中된 所以이며,

第二 株主 各位의 熱誠이니 本報가 創立된지 幾月을 不過하여 財界의 恐慌이 掩襲하매 林立叢生하든 各種會社가 破産이 頻頻할 뿐만 아니라, 個人間 貸借도 困難한 時期를 際하여 求利의 道가 薄하고 經營의 難을 覺悟하면서도 그 信用을 盡하며 囊橐을 傾하여 經濟界 大勢의 逆流를 不拘하고 本사가 株式會社로 成立되었나니, 이것은 다 株主諸氏의 公에 厚하고 私에 薄하여 義를 慕하고 利를 輕히 여기는 熱誠中으로 出來한 것이라, 余는 讀者諸氏로 더불어 敬意를 表하는 것이다.

第三 幹部諸氏의 努力이니 基督曰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심과 같이 世上事는 金錢으로만 計算하는 것이 아니외다.

本報가 三大綱領을 提唱하여 侃侃諤諤한 論旨와 正正堂堂한 筆法으로 世路의 險峻을 突破하며 大勢의 歸趨를 洞察하여 眞理를 闡明하고 虛僞를 排斥하며, 是非를 較判하여 善惡을 褒貶하며, 美는 鑑賞하고 醜는 厭避하니 於是에 社會가 正論을 得하고 人衆이 歸向을 定하였도다. 이것은 大學識과 經驗이 豊厚하고 品性이 高潔한 幹部諸氏에게 所負한 바 多大하도다.

그러나 良馬가 過하여도 伯樂이 不顧하면 驚馬에 等하고, 棟梁이 立하여도 良工이 衰乏하면 樗櫟과 無異하나니, 如何히 時代의 潮流가 急動하고, 經濟의 狀況이 良好하고, 幹部의 努力이 勇壯하다 할지라도 讀者諸氏가 一年 一日과 같이 愛讀하신 誠力이 缺하였으면 어찌 過去의 良積을 期하였으리까. 元來 本報는 一黨一派의 政略上 施設이 아니라, 十三道를 網羅한 四百餘 株主의 共同經營이며, 一人一家의 私論偏見이 아니라 二千萬 民衆의 公議 公論을 表現하는 機關이외다. 勿論 個人과 個人間에는 利害의 背馳도 有하겠고, 感情의 差別도 有하겠고, 地方에 따라서 習慣의 相違도 有하겠으나, 同一한 歷史와 同一한 言語와 同一한 地境에 處한 우리는 반드시 共通된 利害點이 有하리로다. 이 곧 二千萬民衆의 公利며 公害라 本報의 使命은 公利는 어디까지든지 주장하며 保護할지요, 公害는 어디까지든지 排斥하며 防禦할지니, 이러한 意味에 있어서 本報는 二千萬 民衆의 公有物이외다. 그러므로 本報를 愛護함은 卽 自己를 愛護함이요, 本報를 排斥함은 卽 自己를 排斥한다 하여도 過言이 아니라 하나이다. 그러므로 本報가 讀者 諸氏에게 對하여 愛護와 同情을 求함은 義務뿐 아니라 權利이며, 또한 讀者 諸氏가 本報의 錯誤된 點에 對하여 批評을 下하여 忠告를 發하는 것도, 權利뿐 아니라 義務라 하노라. 다만 前路가 險峻하고 群妖가 縱橫하는 이 社會이 時代에 處하여 如何히 하였으면 本報의 使命을 완전히 할까, 이 곧 株主諸氏와 社員一同과 讀者諸氏와 같이 協調 共鳴하여 討究하고 努力할 바외다. 余는 知識이라면 空疎뿐이요, 經驗이라면 失敗뿐이외다. 그러나 二千萬民衆으로 같이 立하며, 같이 起하며, 같이 怒하며, 같이 喜하며, 같이 哀하며, 같이 樂하려 하는 一片의 微誠만 가지고 本社の 美良한 從僕이 되려 하오니 諒察하소서.

6. 南岡 李昇薰 先生 回甲 紀念文

(註 : 남강 이승훈선생의 회갑을 축하하기 위하여 만든 書畫帖의 첫머리에 실린 축사)

거짓을 모르고, 게으름을 모르고, 몸과 집을 모르고, 오직 나라와 의를 위하여 생각하고, 다니고, 말하고, 일하고, 옥에 들어가기에 늙으신 남강선생은 우리 민족의 은인이요, 모범이시다. 이 어른을 기념하기야 우리 동포의 가슴의 새김에 있거니와, 이번 육십일수를 축하함을 기회로 하여, 사모하고, 오래 살아 일하소서 하는 참뜻을 표하고저, 이것을 받들어 드린다.

救主降生 1924年 2月 18日
東亞日報社長 宋 鎮 禹 謹書

7. 무엇보다도 '힘'(最近의 感)

<開 闢> 제5권 4호(총46호 1924년 4월 1일)

왜 오늘날 우리가 弱者가 되었는가 하면 누구든지 그 答案에는 甚히 簡單하고도 明瞭하게 하리라. 다못 힘이 없으니가 弱者가 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우리로 하여금 弱者가 되는 것을 가장 光榮으로 생각하고 또한 幸福으로 생각한다면 두말할 것도 없거니와 萬一 그렇지 아니하고 弱者가 되는 것이 人生의 苦痛이며 또한 社會의 한 悲劇이라 하면 우리는 하루라도 弱者가 되지 아니하기를 맹세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그 方法을 研究하여야 할 것이다.

果然 우리에게는 힘이 없다. 모든 事物의 原動力이 될만한 힘이 없는 것이 事實이다. 勿論 힘에는 腕力도 있겠고 金力도 있겠지만 우리의 오늘날 要求하는 힘은 團結力이다. 團結力이 없으므로 弱者가 된 것이다.

보라! 倭少한 大和種이 어찌하여 巨大한 歐米人과 競爭하며, 또한 無產者만으로 組織된 勞農露國이 어찌하여 資本主義의 列強을 能히 對抗하는가? 勿論 個人으로는 軀殼의 大小를 따라 腕力의 優劣도 있을 것이며 또한 社會의 制度에 依하여 金力の 有無도 懸殊할 것이다.

그러나 團體的으로서 能히 競爭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凌駕하려 하며 能히 對抗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征服하려 하는 것이 그 무슨 까닭인가. 오직 그네에게 團結力이 있을 뿐이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무슨 主義니 思想이니 하여 如何히 宣傳하며 如何히 鼓吹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主義와 思想을 實現할만한 團結力이 없어서는 貧僧의 空念佛에 不過할 것이다.

우리가 지나간 3.1運動의 實際的 經驗을 考察하여 보아도 明瞭할 것이다. 宣傳이 不足한 것도 아니며 思想이 薄弱한 것도 아니건마는 最後의 功을 奏치 못한 것은 勿論 大勢의 關係도 不無할 것이나 이 運動을 統一 繼續할 만한 中心的 團結力이 不足하였던 것이 不誣할 事實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主張하고 싶다. 무엇보다도 모든 主義와 思想의 實現에 土臺가 되고 根底가 될만한 '힘', 곧 團結力을 準備하지 아니하면 아니될 것이라고 본다.

보라. 大戰以後의 露獨 兩國이 無前한 變亂과 改革을 繼續하면서도 依然히 自體의 生存權을 維持하는 것은 兩民族의 團體的 訓練이 무엇보다도 偉大한 것을 看破할 수 있으며 中國과 墨國이 今日까지 慢性的 革命病에 걸려서 온갖 醜態를 演出하는 것도 個中の 消息을 傳하는 것이 아닌가.

要컨대 問題는 團結力이다. 換言하면 團結力은 各個人의 心力이다. 心力, 곧 奉公心이 發達된 民族은 强者가 되어 優者가 되고, 奉公心이 薄弱한 民衆은 弱者가 되며 賤者가 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缺陷은 奉公의 不足이다. 奉公이 不足하므로 紛糾가 生하며 猜忌가 起하여 모든 惡을 行하게 된다. 이리하여 團結을 破壞하게 된다. 結局 우리를 弱하게 한 者는 우리요, 다른 사람은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弱하여 自滅할까, 強하여 自立할까. 이것이 곧 우리가 우리의 運命을 自決하는 分岐點이다.

萬一 强者가 되자면 힘이 있어야 되겠고, 힘이 있자면 團結하여야 되겠고, 團結하자면 各個人의 奉公心을 喚起하지 아니하면 아니될 것을 더욱 實感하는 바이다.

8. 朝鮮社會運動에 관한 說問應答

<開 關> 1925년 6월호(총60호)

朝鮮에의 治安維持法の 實施(大正14年 5月 12日)와

今後의 朝鮮社會運動에 關한 說問

1. 朝鮮社會運動의 今後 勢 如何.
2. 朝鮮社會運動의 今後 方針 如何.
3. 社會運動과 民族運動과의 今後 關聯如何.

이 설문에 응답해 온 인사는

朝鮮農總同盟 權五尙	서울青年會 李廷允	東亞日報社 宋鎮禹
朝鮮青年總同盟 李 英	火曜會 金 燦	時代日報社 洪命憲
新興青年同盟 曹奉岩	北風會 辛 鐵	京城青年會 宋奉瑀
社會主義同盟 金解光	辯護士 李 仁	朝鮮日報社 辛日鎔

<宋鎮禹의 答>

1. 첫째는 表面運動보다 裏面運動이 烈하여 갈 것이며, 둘째는 在來의 紛糾 混雜하였든 運動線이 外團의 壓迫으로 因하여 各國의 反省을 促하는 同時에 統一 團結의 氣分을 釀成할 것이다.
2. 外部宣傳보다 內部の 組織을 緊着케 하여 實際的 勢力을 樹立하는 것이 必要치 아니할까.
3. 外來의 共通된 壓迫과 現下의 共通된 生活不安으로 因하여 더욱 더욱 提携協調의 關係가 發生할 것이다.

(以上 說問에 對한 回答이 宋鎮禹의 回答과 大部分 大同小異한데 특히 第3 說問에는 曹奉岩, 李英의 意見이 同一하였다)

9. 漢詩 1首

(註 : 古下가 동아일보 주필로서 1925년 6월 20일경 신흥우·유억겸·서재필·김활란 등과 함께 하와이에서 열린 범태평양 민족회의에 참가하기 위하여 선박편으로 태평양을 가로지르면서 船上에서 얻은 漢詩)

南北東西不見洲(사방을 바라보아도 물은 안 보이는데)
連天水色閑行舟(하늘과 맞닿은 물빛속에 뱃길만 한가롭구나)
安將眼下太平洋(언제러나 눈아래 태평양 물로)
滌盡人間萬古愁(만고에 쌓이고 쌓인 인간의 수심을 깨끗이 씻어 볼까)

10. 世界大勢와 朝鮮의 將來

<東亞日報> (1925년

(註 : 이 논문은 古下가 하와이 범태평양 민족회의에 참석하고 귀국한 후 20세기가 진전함에 따라 펼쳐질 세계의 대세와 우리나라의 장래에 관하여 심사숙고한 글이다.

이 논문은 근대 한국 명논설 66편중의 하나로 선정되어 1967년 <新東亞>誌 신년호 별책부록으로 간행되었다)

1

우리는 朝鮮사람이다. 그러므로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과 같이, 새가 樹林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과 같이 到底히 朝鮮을 떠나서는 또한 朝鮮을 잊어버리고서는 一刻一秒라도 설 수가 없고 살 수가 없다. 이리하여 자거나 깨거나 듣거나 보거나, 잊으려 하여도 잊을 수 없는 것이 現下 우리 同胞의 心理的 狀態인가 한다. 그러면 朝鮮을 위하여 웃을 사람도 우리 同胞요, 또한 朝鮮을 위하여 웃할 사람도 우리 兄弟일 것은 물론이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朝鮮 過去의 興替的 史實을 追究하며 또한 朝鮮이 世界 構成의 一部인 以上에는, 現下의 世界와 朝鮮과의 影響 關係의 現狀을 그대로 冷靜하고 嚴肅하게 觀察하여서 朝鮮民族의 當來의 運路를 開拓 努力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緊且切한 問題일 것이다.

2

勿論 朝鮮의 將來를 論究하는데 있어서는 外部的으로 重要的인 影響 波動이 關係를 가진 世界的 大勢도 要緊한 材料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보다도 더욱 重且大한 關係를 包含한 것은 內部的으로 朝鮮民族 自體의 過去 歷史上 興替盛衰의 因果關係이다. 이러한 意味에 있어서 우리는 먼저 過去 四千年間 興替盛衰의 史實을 概括적으로 一論하려고 하는 바이다.

勿論 過去의 朝鮮에는 表面的으로 觀察하면 檀君大皇祖의 登極肇判하신 以後로 箕子.箕準의 朝鮮도 있었고 衛滿의 朝鮮도 있었고 또한 辰韓, 弁韓, 馬韓과 高句麗, 新羅, 百濟의 分裂된 朝鮮도 있었다. 이리하여 이를 統一組織하였던 新羅의 朝鮮과 또한 이를 統一繼承하여 온 高麗의 朝鮮과 李朝의 朝鮮이 있었던 것도 歷史的 事實이었다.

3

그래서 四千年을 通하여 歷史的 變遷과 政治的 興替가 反覆無常하였다. 그러나 언제든지 朝鮮人의 朝鮮이라는 觀念은 없어서 본 일이 없었으며, 또한 實體的으로 想像할 수도 없었던 것은 嚴肅한 史實이다. 換言하면 三國의 分裂은 그 當時 政治 當路者의 分裂이며 新羅.高麗.李朝의 滅亡도 또한 그 當時의 王位交代의 興亡變遷에 不過하였던 것은 昭昭한 史實이 아닌가. 어찌 그러나 하면, 歷代 王朝의 變遷 興替에 따라서 萬一 朝鮮이 滅亡하였다 하면, 어찌하여 四千年來로 朝鮮民族의 文化가 依然히 保全할 수 있었으며, 또한 朝鮮民族의 血統이 儼然히 存在할 수가 있는가. 更히 一例를 舉하면, 美國의 民主.共和 兩黨이 競爭 交替하여 美國의 政權을 接受相傳하는 동안에 或은 共和黨이 勝利를 得하며 或은 民主黨이 失敗에 歸하여도 누구든지 決코 美國 自體의 動搖興替로는 보지 아니할 것이 아닌가. 이러한 意味에서 歷代 王朝 自體의 政治的 興亡에 不過한 것이고 決코 朝鮮民族 自體의 全體的 滅亡, 根本的 滅亡을 意味하는 것이 아닌 것을 이에서 굳게 斷言하는 바이다.

4

우리는 前欄에서 歷代 王朝의 興廢는 政權爭鬪의 手段方法에 不過하였고, 朝鮮民族 全體의 文化 및 生活에 들어서는 直接의 變化와 影響이 없었던 것을 說破하였다. 이것은 歷代 王朝가 恒常

民族生活의 土臺에서, 또는 民衆文化의 發展에서 政權을 運用하며 經綸을 施設하는 것보다, 王家 自體의 發展 또는 政權 維持의 目標에서 政治的 理想이 局限되었던 事實이었다. 그러므로 歷代 王朝의 興廢에 對하여 그 當時 王朝의 特殊的 恩寵을 받는 特權階級을 除하여 놓고는 一般的 民衆은 그다지 直接으로 生活上 利害의 感受性이 稀薄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어떤 王朝에 對하여는 그 暴虐無道의 政治的 變革을 期待하였던 적도 없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歷代의 事實에도 特히 吾人의 注意를 促하는 것은 過去 無常한 政治的 變革에 언제든지 異民族의 勢力으로 오랜 동안 干涉 或은 統治하는 것은 絶對적으로 拒絶하여온 事實이다. 이것은 元來부터 朝鮮民族의 血統이 極히 純粹하고 또한 言語와 禮俗이 異民族의 그것에 比하여 恒常 卓越優秀하였던 關係인가 한다. 回顧하여 보라. 李世民의 精銳로도, 隋楊廣의 强暴로도, 或은 安市城의 隻影이 되며 或은 淸川江의 孤魂이 되지 아니하였느냐.

5

그러면 最近의 政治變革의 史實은 如何한가. 半島의 政權이 李朝에 歸한 以後 壬辰.丙子의 兩大戰役이 있었다. 이리하여 民力의 疲弊가 極度에 達하였었다. 그러나 이를 改革濟度할 巨腕의 政治家가 없었던 것도 事實이어나와 世界의 大勢는 帝國主義의 勃興과 東洋航路의 發見으로 因하여 西力東漸의 大勢를 馴致하였었다. 이리하여 隱士國의 朝鮮은 漸次로 世界的 朝鮮이 되어가며 閉鎖하였던 半島는 猝地에 列強의 角逐場으로 化하려 하는 形勢가 顯著하였었다. 이러한 氣運을 看破하고 四千年來의 新機軸을 展開하여 一大變革을 試하려 하였던 것이 距今 三十年前의 甲申政變이었다. 그러나 時運이 不至한지라 우리들의 先覺 金玉均 一派는 千秋의 恨을 抱하고 畢竟 殊邦異域에서 不歸의 客이 된 것은 아직도 우리들의 記憶이 尙新치 아니한가. 그러나 이것도 또한 極少數의 覺醒으로써 四千年來의 굳어온 民族 全體의 思想을 根本적으로 一時에 改革하려 하였던 것이니, 어찌 無理가 아니라. 爾後의 形勢는 如何하였던가. 繼續된 李朝의 虐政과 澎湃한 西勢의 東漸은, 或은 宗教로, 或은 商船으로 滔天의 勢를 示하였다. 이리하여 東學黨을 中心으로 한 民衆의 叛亂이 起하였었다.

그러나 이 또한 鎖國攘夷의 舊思想에서 그 運動의 胚胎가 生한 結果 한갓 日淸戰役의 大事端을 惹起하였을 뿐이오, 民衆 自體에 對하여는 何等의 收穫이 없었던 것이 事實이었다. 이 곧 甲午東亂이 아닌가.

6

그러면 그 後 形勢는 如何하였는가.

累千年間 被活의 地位에서 服從과 壓制에 굳어온 民族의 頭腦는 新文化에 對한 覺醒이 遲鈍할 뿐 아니라, 所謂 導率儀範의 地位에 處한 貴族階級은 私利와 黨爭이 奔汨沈溺한 結果 四千年來의 祖傳父授하여 온 政治的 權力은 日露戰役의 終焉으로 因하여 異民族의 手中에 移轉하게 되었다. 이 곧 庚戌의 合併이 아닌가. 그러나 이에서 瞠若寒膽이 된 朝鮮民衆은 更히 現代의 文明에 對하여 驚異의 眼을 開한 同時에 民族的意識을 또다시 發見하게 된 것이 아닌가. 이 곧 1919年 3.1運動의 發端인가 한다.

7

적어도 一九一九年의 三.一運動은 朝鮮民族에 對하여 四千年 以來 輪回 反覆하여 오던 東洋의 生活樣式을 精神上으로나 文化上으로나 政治上으로나, 根本적으로 民衆적으로, 破壞 建設하려 하는 內在的 生命의 爆發이었다. 그러므로 朝鮮歷史에 있어서 처음 보는 運動인만큼 그 意義가 深長하고 그 關係와 影響이 重且大한 것도 勿論일 것이다. 어찌 그러냐 하면 過去 幾千年間의 歷史上으로만 表現된 幾多의 改革과 戰亂이 있었으나, 그 內容과 實質에 있어서는 少數階級の 政權

爭奪의 變革이 아니면 尊周攘夷의 思想에서 胚胎되며 出發하였던 것은 不誣할 史實이었다. 그러나 最近 三.一運動의 一件에 至하여는 그 內容과 形式을 一變하여 적어도 思想의 根抵가 世界의 大輿論인 民族的 自尊과 人類的 共榮의 正義 人道의 觀念下에서 全國的으로도 民衆의 으로 刀劍裡 鐵鎖間에서도 毅然히 立하며 泰然히 動하였던 것은 어찌 朝鮮民族의 革新運動 史에 一大奇蹟이 아니며 一大偉觀이 아니라.

8

그러면 이러한 奇蹟 偉觀을 演出케 한 그 原因이 那邊에 在할까. 이곳 一論을 試코자 하는 바이다. 勿論 朝鮮의 革新運動은 그 起源을 甲申政亂에서 求하는 것이 正當한 經路일 것이다. 어찌 그러나 하면 甲申政亂의 思想의 根抵가 在來의 政權與奪과 尊周攘夷의 思想과는 그 範疇를 달리 하여 적어도 現代文明을 肯定하여서 民族的 福利를 企圖하는 點에서 起因된 까닭이라 한다.

勿論 그 運動의 土臺가 極少數階級の 覺醒에 出發하였으므로, 桑榆의 功을 收치 못한 것은 千秋의 恨事라 할지라도, 그 開國尊民의 大理想에 至하여는 岩壁으로부터 落下된 物體가 그 目的地에 達하기 前까지는 沮止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이, 爾來 三十餘年을 通하여 一波가 萬波가 되며, 私語가 輿論이 되며, 或은 獨立協會가 되며, 或은 自強會가 되며, 或은 大韓協會가 되며, 或은 學校와 學會가 되어 一進一退 一縮一張의 無數한 變動과 許多한 試鍊을 經過한 것이 過去의 事實이었다. 그러나 더욱이 朝鮮民族의 急激한 衝動을 起케 하고 加速의 覺醒을 促進케 하였던 것은 庚戌의 大變이다.

9

이리하여 朝鮮民族은 會心反省의 機會를 作하였으며, 또한 舊文化의 反抗을 試하였었다. 村塾이 學校로 變하며, 道院님이 生徒로 變하며, 爾來 十年間을 社會的 細胞인 個性의 變化를 惹起하게 되었다. 또한 同時에 寺內總督의 舊文化群의 武力的 反抗思想의 轉換策으로 盛히 同化主義의 新式教育을 勵行하였었다. 그러나 寺內的 無理한 同化政策은 四千年동안의 訓練된 民族的 精神을 破壞하기에 너무나 微弱할 뿐만아니라 도리어 民族的 感情을 刺激하는데 있어서 그 功效가 莫大하였던 것을 이에 忌憚없이 斷言하는 바이다.

그리하여 그 所謂 同化政策은 도리어 民族意識을 喚起하는 一方으로 一般的으로 普及된 新式教育은 新文明의 肯定과 民衆의 覺醒을 非常하게 促進하였었다. 그러면 無數한 細胞의 變化가 起하는 同時에 全體의 變動이 生하는 것과 같이 社會組織의 土臺가 되는 許多한 個性이 根本的으로 改革 覺醒이 되는 同時에 어찌 全體 社會의 大變革이 없으랴. 이 곧 三.一運動의 起源이다. 或은 三.一運動을 美國 宣教師의 教唆라고도 하며 或은 天道教一派의 煽動이라 하나, 이것은 朝鮮民族의 精神과 또한 朝鮮社會의 事情을 沒覺한 短見者流의 囁語에 不過한 것이요, 그 實은 朝鮮民族의 內在的 生命이 世界의 新文化에 接觸되어 爆發된 一大 覺醒의 소리인 것을 斷言하는 바이다.

10

過去 三十年間을 通觀하면 民衆의 運動을 三期로 分할 수 있으니, 第一期는 宗教的 排他運動의 甲午의 東亂이요, 第二期는 政治的 勤王思想의 義兵運動이요, 第三期는 民族自由의 三.一運動이다. 그러나 宗教的 排他運動과 政治的 勤王思想이 實際上으로 失敗에 歸하였을 뿐만아니라 思想上으로도 民衆의 輿論을 作치 못하고 繼續的 勝利를 得치 못한 것은 그 政治的 理想과 論理的 價値가 到底히 現代의 新思潮에 對照하여 그 思想의 根抵와 土臺가 너무도 薄弱하고 背馳되었던 까닭이 아닌가 한다.

11

그러나 民族 自由의 三.一運動만은 前欄에서 紹介한 바와 같이 그 動機와 思想이 內的으로 民族的 福利를 企圖하는 점에서 外的으로 世界的 思潮에 順應하는 點에서 設令 一時的으로 完璧의 功을 收치 못하였다 할지라도 朝鮮民族의 良心的 發動으로 보아서 또한 世界人類의 思想上 共鳴으로 보아서 確實히 道德的 勝利인 것은 不誣할 事實이다. 그러면 現下의 情態는 如何한가.

過去를 回顧하면 朝鮮社會가 甲申의 革新運動을 筆頭로 하여 十年만큼 社會的 大變動을 惹起케 하는 것은 本來의 常例이다. 試思하여 보라. 甲申政亂에서 甲午東亂까지, 甲午東亂에서 甲辰.乙巳의 義舉에서 庚戌의 合邦까지, 庚戌의 合邦에서 己未의 三.一運動까지, 마치 豫定的 行動과 같이 社會的 變動이 發生된 것이 昭然한 事實이 아니냐. 이것은 決코 異常야릇한 運命의 魔術이 아니라 現代의 어느 社會와 어느 民族을 勿論하고 舊時代에서 新時代에로 趨移過渡하는 途程에 있어서 恒見例有한 史實인가 한다.

보라, 일본의 維新時代에 尊王攘夷의 論爭과 西南衝突의 戰亂이 어찌하여 생겼으며, 美國에는 獨立戰爭 後에도 왜 南北戰爭이 있었으며 現下의 中國에 어찌하여 團匪의 亂과 革命의 戰과 奉.直의 爭이 繼續 不絶하는가를. 그 理由는 舊勢力의 破壞와 新文化 樹立의 接觸點에 處한 社會의 不可避할 現狀인가 한다.

12

하물며 半萬年 歷史的 背景을 가지고 東洋 全局의 樞要地에 處한, 아니 歐亞美 三大陸의 世界 道路의 中心點에 있는 朝鮮民族의 社會가 政治上으로나, 文化上으로나, 思想上으로나, 經濟上으로나, 時時刻刻으로 外勢의 刺戟을 받고 內部的 衝動을 惹起함이라. 元來 朝鮮民族에게는 固有 特殊한 先入的 文化가 있었다. 이리하여 한참 동안 新舊取舍의 苦悶이 있었던 것도 事實이었다. 그러므로 新舊取舍의 煩悶時代에는 自主的 變革보다 他力的 變動이 頻數하였었다. 이 곧 日淸.日露의 兩大戰役이 그것이며 庚戌의 大變動 그것이다.

그러나 朝鮮民族은 一九一九年の 三.一運動을 新機軸으로 하여 民衆의으로 새 기운을 댔고 새 빛을 보았다. 그 表證으로, 첫째는 教育的 覺醒이요 둘째는 經濟的 意識이다.

보라. 三.一運動 以後로 아무리 僻鄉窮村의 農老炊媪이라 할지라도 子弟教育에 對한 渴仰追求의 熱이 如何히 亢進하였으며, 또한 在來의 歷史的 感情으로만 訓練되었던 民族運動은, 그 內容을 一變하여 經濟的 意識 곧 生活의 土臺 위에서 그 根抵를 發見하게 된 것은 確實히 一大 進步인 것을 斷言하는 바이다. 이에서 過去 庚戌事變 以來의 十年間 普通教育의 普及으로 三.一事件의 自主的 大變動을 惹起하였다 하면 이로부터 三.四年을 不過하여 또한 社會組織의 一大 變動이 發生될 것도 先知卓見이 아니라 할지라도 누구나 豫測할 바가 아닌가. 그 理由는 民衆의 知識程度가 더욱 進步될수록 더욱 普及될수록 社會組織의 變化가 더욱 頻數하여 갈 것은 進化의 法則인 까닭이다.

13

吾人은 前欄에서 朝鮮民族의 內部的 進化로 因한 社會組織의 自然的 變化를 論하였다. 그러나 朝鮮半島가 世界構成의 一部分이며, 또한 朝鮮民族이 人類 全體의 一部分인 以上에는 世界大勢의 趨移가 直接 間接으로 朝鮮社會에 波及이 될 것은 勿論이며, 따라서 朝鮮社會의 變動도 世界大勢의 趨移에 莫大한 影響이 될 것도 想像할 수 있다. 回顧컨대 朝鮮問題로 因하여 發端한 西南戰爭은 日本政界의 變革을 如何히 惹起하였으며 또한 朝鮮問題로 因하여 突發된 日淸.日露의 兩大戰役이 東洋全體의 風雲과 國際政局의 波瀾을 如何히 惹起하였는가.

이리하여 近因에 있어서는 淸朝의 敗亡을 招하였고, 遠因에 있어서는 슬라브族의 受侮로 因하여 歐洲大戰의 發端을 作치 아니하였는가.

最近에 있어서도 美大統領이 提唱한 民族自決問題가 如何히 朝鮮民族의 新興氣分을 助長하였으며, 또한 이로 因하여 日本政界의 視聽을 如何히 聳動케 하였는가. 이로 보면 朝鮮問題는 東洋의 難關이며 世界의 論點인 것은 勿論일 것이다.

吾人は 이에서 更히 世界大勢의 趨移上으로 觀察한 朝鮮問題의 經過를 먼저 一論코자 하는 바이다. 元來 朝鮮問題는 前欄에서 詳述한 바와 같이 朝鮮民族 自體가 現代文明에 對한 理解와 覺醒이 遲鈍한 點에서 無慘한 犧牲을 當하게 된 것은 勿論이다. 그러나 이것도 또한 過去의 形勢를 追求하여 보면 우리 民族 自體의 責任뿐만 아닌 것도 想像할 수가 있다. 試思하여보라. 東洋 全體의 地理的 關係로 보아서 朝鮮半島는 中.日 兩國間에 介在한 中立地帶가 아니냐. 그러므로 大陸로부터 輸入된 歐洲의 文明은 中國 固有文化의 抵抗으로 因하여 傳播의 力이 薄弱하였고, 海洋으로부터 流出된 美大陸의 文化도 日本의 維新大業을 促進하였을 뿐이 아닌가. 이리하여 그 中間에 介在한 우리 民族은 徒然히 鎖國의 長夢에 處하였던 것이다. 萬一 그 當時의 日本의 爲政家로 하여금 東洋 全局의 百年大計에 着眼하고 또한 先進者의 責任을 自覺하여서 誠心誠意로 東洋 各民族의 共存共榮을 圖하게 되었던들 결코 朝鮮과 中國에 今日과 같은 無慘한 現狀이 없을 뿐만 아니라 日本自體도 今日과 같은 世界的 孤立의 危地에 立치 하니하였을 것은 勿論일 것이다.

그러면 爾來 日本의 東洋 全局에 對한 態度와 政策은 如何하였던가. 두말할 것 없이 日.英同盟을 國際外交의 中樞로 하여 東洋平和의 保障이라는 美名下에서 文化上으로 恩寵이 殊深한 朝鮮의 合併을 斷行하고, 一步를 進하여 英國과의 協調下에서 中國의 利權을 雙分壟斷하려 하던 것이 過去의 政策上 大本이 아니었던가. 이리하여 袖手酸目이 되어있던 美國으로 하여금 機會均等과 門戶開放主義의 提唱을 하게 되지 아니하였던가. 萬一 現下 美國의 排日의 感情을 解剖하여 본다면 深刻한 印象과 動機는 그 當時 日本의 傍若無人한 侵略政策이 그 累를 及치 아니하였는가 한다.

勿論 그 當時의 侵略的 帝國主義는 日本에만 限하였던 것은 아니다. 十九世紀로부터 二十世紀 劈頭에 이르기까지는 果然 侵略的 帝國主義의 全盛時代이었던 것도 不誣할 事實이었다. 아프리카 大陸에 있어서 列強의 任意的 分割이 斷行되었었고, 太平洋에 있어서 群島의 爭奪合併이 極烈하였었고, 露西亞에 있어서는 핀란드合併을 斷行하던 時期가 아니었던가. 이로 보면 朝鮮問題도 그 當時 世界大勢의 犧牲이 되었던 것도 一面의 觀察일 것이다. 그러나 日本의 立地에 있어서 東洋 全局의 百年大計를 爲하여 歷史 文化의 特殊的 關係를 爲하여, 또한 到來하는 世界的 人類問題를 爲하여, 朝鮮問題의 犧牲이 果然 得策이었을까 할 뿐이다.

十九世紀 劈頭로부터 二十世紀 劈頭에 至하기까지 約 一世紀間에 巨하여 激烈 辛辣하던 列強의 侵略的 帝國主義는 乾坤一擲의 歐洲大戰으로 因하여 急轉의 破綻이 生하였고, 또한 最後의 末路를 告하게 되었다. 大戰의 責任에 對하여 聯合國側과 同盟國側의 是非의 論爭이 不一하였던 것도 事實이었다. 그러나 萬一 春秋에 無義戰이라는 筆法으로 嚴正한 批判을 내린다 하면 그 實은 暴力으로 暴力을 對峙하는 데 不過하였던 것이 大戰의 真相일 것이다. 如何間 이와 같은 不合理的 殺戮的 戰爭이 四.五年을 繼續한 結果 幾百億의 戰費와 累百萬의 生命을 水泡와 같이, 草芥와 같이 雲消霧散하여버린 歐洲의 文明은 最後의 破綻을 告하게 된 것이 過去의 事實이 아니었던가.

이에서 世界의 人類는 煩悶.悔悟.憂愁의 機會를 作하였었다. 이리하여 一面에 있어서는 暴露의 崩壞로 因하여 經濟的으로 레닌의 社會主義가 實現되었고, 他面에 있어서는 強獨의 屈從으로부터

人道的 見地에서 일손의 民族自決主義가 提唱되었던 것이 아닌가. 그러나 이와 같은 急激한 變化는 歷史上 實例로 보아서 依例히 反動的 氣分을 惹起하는 것이 常事이었다. 이것은 物理學上으로도 實證할 수가 있다. 急轉直下하는 物體가 도리어 空氣의 波動을 受하여 最後의 搖動을 惹起하는 것과 何異가 有하랴.

이른바 世界改造의 國際聯盟의 最後의 龜裂이 生한 것도 事實이며, 또한 新興의 赤露를 敵對하기 爲하여 露領의 西伯利亞方面에서 聯合의 軍隊가 出動하였던 것도 事實이 아닌가. 그러나 世界人類의 大輿論.大理想에 基礎한 主義와 實現은 決코 時間的 反動으로 沮止할 수 없으며, 또한 武力的 制裁로 抑壓할 수 없는 것이 歷代의 史實이다. 이것은 지나간 十八世紀의 佛國의 革命史와 美國의 獨立戰이 吾人에게 昭昭한 實證을 例示한 바가 아닌가. 戰後의 四.五年 동안에 殘燭復明의 反動的 氣勢의 擡頭를 不拘하고 人類의 大理想에 至하여는 조금도 沮止할 바를 모르고 風船의 順路와 같이 進展하여 가는 것이 現下의 大勢가 아닌가.

18

보라, 民族運動에 있어서는 巴爾幹半島의 多少諸國의 獨立을 비롯하여 波蘭의 獨立, 芬蘭의 獨立, 埃及의 獨立, 愛蘭의 分立이 繼續 完成되었고 또한 印度의 非協同運動과 比島의 獨立運動도 비록 運動의 途程에 있으나 그 氣運과 形勢가 갈수록 猛烈하고 擴大되는 것은 不誣할 事實이며, 勞動運動에 있어서도 大戰亂을 一經한 後 赤露의 完成은 勿論이어나와 國際的으로나 國內的으로 勞動問題가 中心의 論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實際的으로 各國의 政界가 漸次로 勞動問題를 中心으로 하여 回轉할 兆徵이 顯著한 것은 現下의 大勢가 아닌가. 그러므로 現下의 反動的 氣分은 各國政界를 通하여 特權階級의 因襲的 惰力의 最後 發作에 不過한 것이요 결코 世界大衆의 理想과 輿論이 아닌 것을 이에서 斷言하는 바이다.

19

萬一 歐洲의 戰亂으로 하여금 世界人類에게 對하여 寄贈한 바가 있다 하면 이것은 侵略的 軍國主義 崩壞일 것이다. 이로 因하여 軍國主義의 雙壁인 暴獨 強露의 崩壞를 完成한 것이 事實이었다. 그러면 軍國主義의 新參見習으로 東洋方面에 있어서 이르는 곳마다 爪牙를 現露하던 日本의 形勢는 如何하였던가.

歐洲大戰 當時로부터 巴里講和會議의 前後에 이르기까지는, 實로 日本의 全盛時代이며 또한 得意의 秋이였었다. 內政에 있어서는 戰時貿易의 盛況으로 因하여 輸入된 金貨는 넉넉히 積年의 舊債를 報償하기에 그 餘裕가 綽綽하였고, 外交에 있어서도 聯合 同盟 兩側의 念不及他的 機會에 處하여 東洋方面의 勢力扶植에 自由自在한 活動을 得하였던 것이 事實이었다. 하물며 戰勝國의 一員으로 五大強國의 班列에 參加하여 從來로 東洋方面에만 局限되었던 實際的 勢力이 猝地에 歐洲政局에까지 有力한 發言權을 得하게 된 것은, 極東의 一小國으로 그 光榮과 得意를 누구나 想像할 바가 아니냐.

20

그러나 興盡悲來하고 樂極生哀는 人世의 常事이다. 大戰當時의 二十一個條의 對中外交는 다만 中國人으로 하여금 切齒의 恨을 품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世界 列強의 猜忌 嫉視의 焦點이 되었던 것이 아니냐. 또한 西伯利亞 出兵은 다만 莫大한 國費의 消盡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日本의 軍國主義의 宣傳을 제물에 完成하였던 것이 아니냐. 이리하여 英.美의 提携로 華盛頓會議가 開催되었고, 華盛頓會議의 結果로 一面에 있어서는 國際外交의 金科玉條이던 日.英同盟이 破壞되었으며, 他面에 있어서는 軍費制限으로 軍國主義의 手足을 切斷하게 된 것이 아닌가. 게다가 空前의 大震災는 日本으로 하여금 極度の 致命傷을 與하였다. 近百億의 財貨와 幾十萬의 生命이 焦土의

烏有에 歸하였던 것이 아닌가. 이에 對하여 表面으로 同情을 宣하고, 裏面으로 微笑를 發하였던 것이 果然 그 누구이었던가. 震災後 半個年을 不過하여 峻烈한 排日法案을 通過하고 繼續하여 海軍大練習의 高壓의 示威運動을 演出한 것은 平素부터 極東方面에 虎視眈眈하고 있던 美國이 아니냐. 過去의 全盛을 回顧하고 現下의 孤危를 想起할 時에 果然 日本國民의 올분이 如何하였을까.

21

그러나 日本의 內政은 如何한가. 在來로 軍國主義를 唯一한 信條로 信奉하는 日本社會는 世界的으로 軍國主義가 崩壞되는 同時에 一大 恐慌이 起하였으며 一大 颶風이 襲하였었다. 하물며 軍閥派의 對中外交와 露領出兵의 連次 失敗로 因하여 國威 國財를 아울러 世界的으로 損失케 한 兩大事件에 對하여 積年憤抑되었던 一般社會에는 反抗의 氣勢가 日熾하고 또한 資本主義의 勃興으로 因하여 社會主義의 輸入이 加速度로 增加되어가는 것도 事實이다. 이리하여 中樞를 잃은 日本의 思想界는 日을 逐하여 惡化 激化해 가는 것이 現下의 情態가 아닌가. 이에서 思想的 緩和策으로 '普選'의 斷行이 된 것이다. 그러나 普選의 斷行으로 因하여 果然 어느 程度까지 社會의 安定을 得할 것인가, 이 곧 吾人의 一括目하는 바이며, 또한 普選의 實施後 日本의 政界에 赤露의 社會主義의 色彩가 濃厚하여질 것인가, 或은 美國의 資本主義가 그대로 適用될 것인가, 이 곧 日本의 運命을 決定할 分岐點이 될 것이다. 如何間 이로부터 三, 四年을 不過하여 政治的으로나 社會的으로나 一大變革이 생길 것은 吾人의 想像하는 바가 아닌가.

22

世界大勢의 潮流는 確實히 地中海에서 大西洋으로, 大西洋에서 太平洋方面으로 移動하여 오는 것이 過去의 史乘에 照하여 昭昭歷歷한 事實이다. 萬一 十九世紀를 佛蘭西文化의 擴充時期라고 하면, 二十世紀는 赤露思想의 發展時代라는 것이 正當한 見解일 것이다. 資本主義의 模範인 美國과 社會主義의 代表的인 赤露가 太平洋을 隔하여 兩兩相對하여 勃興되는 것은 果然 不遠한 將來에 그 무엇을 暗示하고 있는가. 協調할까. 衝突할까. 이 곧 太平洋上의 一沫의 疑雲이 되어 있는 것은 不誣할 事實이다. 世界大勢의 運命이 이에서 決定될 것이며 또한 人類의 文化上 總決算이 이에서 勘定될 것은 想像키 不難할 바가 아닌가.

23

그 中間에 處하여 第一 딱하고 애처로운 경우는 日本의 現狀이다. 두말할 것 없이 日本은 國際的 中產階級이다. 巨大한 資本을 抱擁한 美國과 競爭 發展하는 것도 實力이 不許하는 바이며, 그렇다고 赤裸裸하게 世界的으로 난봉行世를 하는 赤露와 提携協調하는 것도 一層 危險을 感하는 바가 아닌가. 이에서 左顧右眄 悔悟煩悶하는 것이 日本 現下의 情態인가 한다. 하물며 一面에 있어서는 美國의 資本的 帝國主義는 日을 逐하고 年을 隨하여, 或은 移民問題로 或은 中國問題로 反目的 度가 加하며 衝突의 機가 促進되는 것이 事實이며, 他面에 있어서는 日露條約이 成立된 以來 敬遠의 態度로 外交的 辭令이 互相交換되나, 立國의 基礎와 主義가 根本的으로 不相容할 關係가 있는 以上에는 衝突의 危險性은 또한 不避할 形勢가 아닌가. 이로 보면 思想的으로 資本的으로 左右挾攻을 當하고 있는 日本의 形勢는 實로 危卵의 感이 不無하다.

24

그러면 歐洲列強의 東洋政局에 對한 態度는 如何한가. 무어라고 하든지 歐洲의 中樞勢力은 獨佛兩國일 것이다. 兩國의 歷代的 感情과 戰後의 形勢가 相互牽制와 現狀維持에 汲汲한 以上에는 東洋方面에 對하여 어느 時期까지는 闊大進取의 活動을 取치 못할 것은 皮할 수 없는 情態일 것이다. 그러나 英國에 至하여는 特殊的 立場에 處하여 獨佛兩國에 比하여 戰後의 瘡痕가 그다지

甚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항상 傳統的 漸進政策으로 東洋方面에 對하여 不斷한 注意와 視監을 行하는 것이 昭然한 事實이 아닌가. 大戰後에 바로 美國과 提携하여 日.英同盟을 破壞하는 동시에 美國의 新興氣銳의 勢力을 아무쪼록 太平洋方面에 集注케 하여, 日本의 衝突을 促한 後, 途途이 漁夫의 利를 取하려 하는 것이 英國의 老猾한 極東政策이 아닌가. 이것은 太平洋上의 風雲을 豫期하여 新嘉坡 軍港建設의 一件으로만 보아서도 個中の 消息을 窺할 것이다.

25

이렇게 觀來하면 美.露 衝突의 途程에 있어서 日.美 衝突이 前提가 될 것은 想像키 不難하다. 그러면 果然 衝突의 導化線은 那邊에 在할까. 이 곧 中國問題이다. 萬一 巴爾幹半島가 過去 歐洲의 謎訛라 하면 二十世紀의 中國問題는 確實히 東洋政局의 一大危險일 것이다. 그러나 巴爾幹半島問題는 歐洲大戰으로 因하여 不完全하나마 그 解決을 告하였거니와 中國問題는 아직까지도 疑問이며 危險하다. 如何間 中國은 一大 美人이다. 그러므로 世界列強의 懷腸의 戀과 秋波의 情을 받는 것이다. 元來 美人 自體가 主動的 能力이 없는만큼 이를 玩弄阿隨하려는 淫夫 蕩子도 많을 것은 事實이다.

이리하여 嫉妬도 생기며 鬪爭도 생기는 것이 아닌가. 이와 같이 中國의 無限한 富源과 許多한 利權은 列強의 好投資處며 大發展地이다. 이리하여 英國의 秋波가 되며 日本의 威脅이 되며 美國의 垂涎이 되며 赤露의 援助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中國의 現狀은 如何한가. 아직도 民衆의 覺醒이 徹底치 못한 現下에 있어서 張.憑 兩派의 勢力接觸點에 立한 段祺瑞政府는 實로 風燈의 感이 不無하다. 그러나 民衆에 따라서 自主排外의 運動이 날로 熾烈하여 갈 것은 確的한 事實일 것이다. 今番의 上海事件은 그 무엇을 意味하는 것이며 日英의 排斥에 對하여 美國의 同情과 露國의 暗助는 벌써부터 列國의 縱橫暗鬪의 序幕이 始作된 것이 아닌가. 이로부터 三.四年을 經過하면 赤露의 內部的 實力이 充溢하여 外部的 活動이 活潑할 때에, 美國海軍의 擴張計劃이 完成될 때에, 英國의 軍港計劃이 確立될 때에, 中國政界가 動搖될 때에, 中國方面의 一點暗雲이 太平洋上의 風雨를 大作케 할 것을 그 누가 保證하라.

26

吾人は 以上에서 朝鮮內部的 社會的 變革과 世界大勢의 趨移와 東洋政局의 危機로 보아서 四.五年을 不過하여 太平洋을 中心으로 한 世界的 風雲이 惹起될 것을 論斷하였다. 勿論 主觀的 速斷일지는 알 수가 없으나 萬一 過去의 歷史가 現下大勢의 產母며 未來의 大勢가 또한 現在 事實의 播種이라 하면 결코 牽強附會의 空論이 아니될 것을 確信하는 바이다. 그러나 다만 論點은 時間問題일 것이다. 어찌하여 複雜多端한 世界問題가 何時 四~五年을 前後로하여 惹起될 것인가 하는 點일 것이다. 그러나 吾人이 四~五年 前後를 豫言하는 것도 決코 荒唐無稽한 空想에서 立論한 것은 아니다. 대개 人間社會의 十年이라 하는 時期는 個人으로나 國家로서나 一大計劃을 立하여 準備와 組織을 完成하는데 있어서 比較的 最要한 長期이다. 그러므로 越王 勾踐은 十年의 成聚로 因하여 會稽의 恥를 雪하였고 宜朝祖의 李文成은 外敵의 侵入을 遠慮하여 十年의 義兵을 主張치 아니하였던가. 이러한 意味에 있어서 一九一九年의 世界的 大戰의 終熄으로 一九二九年까지 곧 이로부터 四.五年만 經過하면 十年의 滿期가 될 것은 勿論이다. 그러면 大戰의 終熄으로부터 그 동안 十年間에 그 社會 그 民族의 努力 如何에 依하여는, 疲弊된 國力도 復活될 것이며 消沈된 元氣도 振作될 것은 勿論일 것이다. 하물며 現下의 交通機關의 發達과 思想傳播의 影響이 過去의 時代에 比하여 加一層 迅速해지고 敏活하여 時刻으로 急轉 激化하는 것이 現代의 特色이 됨에라.

27

그러면 이와 같은 不遠한 將來의 世界大勢의 變動을 豫想하고 또한 東洋政局의 禍亂을 推斷할 때에 가장 特殊한 事情을 가진 日本과 朝鮮의 關係는 如何히 進展될 것인가. 이 곧 吾人의 中夜 耿耿에 長吁太息하는 바다. 過去의 日本이 白種의 英國과 提携하여 東洋의 同色民族을 或은 壓迫 或은 威脅함으로써 能事を 作하였던 것이 現下 東洋政局의 禍機가 아닌가. 萬一 過去의 日本으로 하여금 當初부터 東洋 各民族의 共存共榮의 遠대한 計劃을 策케 하였던들, 결코 現下의 日本自體가 孤立의 危機에 處치 아니하였을 뿐아니라, 歐洲大戰으로 因하여 破綻된 殺伐的 文明과 疲弊된 白色民族을 誘導啓發하여 世界改造의 人類의 大偉業을 東洋民族의 導率下에서 完成할 것이 아닌가. 이 어찌 千古의 恨事가 아니라. 그러나 過去는 過去인지라 追窮할 必要가 없거니와, 現下에 있어서 日本人士의 感想이 如何하며 所見이 如何한지 吾人의 切聞코자 하는 바이다.

적어도 朝鮮問題의 解決은 東洋 全體問題 解決의 前提가 되며 또한 要件이 될 것은 勿論이다. 왜 그러나 하면 가장 民族的 關係가 密接하고 文化的 恩澤이 莫甚한 朝鮮民族을 蹂躪壓迫하는 것은 아무리 日本民族의 全體意思가 아니요 秀吉.寺內輩의 軍閥一派의 背恩沒義의 行動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半萬年 歷史的 背景과 二千萬 民衆의 聰明을 가진 朝鮮民族으로서는 徹骨의 恨이 될 것은 勿論이 아닌가. 특히 日本人士中에는 이러한 말을 한다. 李朝虐政下에서 지내던 朝鮮民族이 總督政治의 生命 財産의 安全保障으로 因하여 滿足할 것은 勿論이라 한다. 이것이 果然 日本人士의 朝鮮民族에 對한 心理的 觀察이라 하면 吾人は 寧히 그 愚痴를 憫憐히 여길 뿐이다.

現代의 朝鮮인이 過去의 朝鮮인이 아닌 것도 勿論이거니와, 設令 李朝의 虐政이 現代에 再現된다 할지라도 朝鮮人は 그 改革을 絶叫할 것이 아닌가. 하물며 總督政治와 李朝政治가 民族的 感情에 있어서 그 根底가 懸殊함이라. 이것은 現下의 日本人民이 過去의 專制政治에 對하여 反抗하던 經路를 回憶하면 反省할 바가 아닌가. 둘째는 日本의 爲政家로 하여금 朝鮮問題 云謂할 때는 반드시 國境警備問題와 師團增設의 必要를 力說하는 것이다. 果然 君等의 所見과 같다 하면 어찌 하여 暴露.強獨이 一戰의 破滅에 不堪하였던가. 如何間 朝鮮問題를 그대로 두고는 中.日親善도 空念佛이며 東洋平和도 口頭禪에 不過할 것을 斷言하는 바이다. 적어도 二千萬 民衆의 銳利한 心刃이 日本의 弱處急所를 隨하여 機會대로 現露될 것은 現下의 情態가 아닌가. 이 곧 日本人士의 反省을 促하는 바이다.

28

그러면 우리 民族의 世界大勢에 處하는 抱負와 朝鮮의 將來에 對한 經綸은 如何할 것인가. 客觀적으로 朝鮮의 將來가 如何히 되리라 하는 것보다, 一步를 進하여 主觀적으로 朝鮮의 將來를 如何히 할까 하는 것이 注意의 焦點이며 問題의 目標가 아닌가. 一言으로 蔽하면 朝鮮民族의 抱負는 어디까지든지 雄偉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어디까지든지 遠大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 祖先의 東洋 各民族에 對한 傳統的主義와 方針이었으며 또한 우리 兄弟와 人道와 文化를 愛好하는 遺傳的 天性인가 한다. 回顧하여 보라. 北으로 中國의 隣誼를 尊重히 하고 東으로 日本의 文化를 啓發하여 恒常 東洋平和의 先驅가 되며 또한 東洋文化의 導率이 되었던 것은 歷史的 史實이 吾人에게 例證하는 바가 아닌가.

往往히 隋.唐의 劫運과 日.淸의 惡夢이 있었으나 이것도 또한 朝鮮民族의 自主的 殺伐이 아니요, 外敵의 蠻性 發作에 對한 正義的 制裁이며 人道的 防衛였던 것은 正確한 事實이다.

29

우리는 歐美의 自由精神과 科學文明을 愛好하는 바이다. 그러나 隣國을 盜奪하고 人血을 吸取하는 獸性蠻行은 어디까지든지 排斥하고 驅逐하지 않으면 아니될 것이다. 萬一 이러한 獸性蠻習을 그대로 肯定한다면 人類社會는 結局에 強盜의 跋扈에 不堪할 것이며, 平和의 祭壇은 畢竟은 牧畜의 蹂躪에 不過할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우리는 民族的 正義와 人道的 平和의 維持發展에

對하여는 어디까지든지 民族的 義血을 不辭하여야 할 것이며 全國的 動員을 行치 아니하면 아니 될 것이다. 이러한 意味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設令 日本을 排斥한다 하면 日本의 軍閥一派의 侵略的 軍國主義를 排斥하는 바이며, 또한 赤露를 親近한다 하면 赤露의 平等의 精神을 愛好하는 바가 아닌가. 或은 萬一 東亞의 風雲이 起하고 이리하여 日.美의 衝突이 生할 때에는 美國의 勢力 下에서 朝鮮의 解放을 希望하며, 或은 日露.日中의 衝突을 豫期하여 露.中 兩國의 援助下에서 民族의 自由를 嚮望하나 이것은 決코 朝鮮民族의 傳統的 精神에 背馳될 뿐 아니라 우리의 良心이 또한 不許하는 바이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에게는 自主的 精神이 있는 까닭이다. 自由는 어디까지든지 自主的 行動이며 自力的 解決이 될 것이다. 決斷코 他力的 援助와 事大的 思想의 支配와 容認을 不許하는 바가 아닌가.

30

勿論 우리는 他民族의 人道的 同情과 正義的 援助를 不辭하는 바이다. 그 뿐만 아니라 現下의 日本으로도 昨非今是의 眞理를 驟然히 悔悟하고 自進하여 朝鮮問題의 人道的 解決을 斷行한다면 우리는 決코 歷史的 感情에 拘泥하여 排斥할 必要가 없을 것이 아닌가. 우리의 主義와 目標은 언제든지 民族的으로 自由.生存.平和의 三大理想에서 그 出發點을 作할 것이요, 決코 憎惡.排斥.侵略的 觀念에 支配될 것은 아니다. 이러한 意味에서 우리는 첫째로 民族的 自由를 解決할 것이요, 둘째는 社會的 生存權을 保障할 것이요, 셋째로 世界的 平和에 努力할 것이 아닌가. 이 곧 朝鮮民族의 雄偉한 抱負가 될 것이며 또한 遠大한 經綸이 될 것이다. 遽然히 小強을 持하고 同色民族을 迫害하며 私利를 弄하여 人類의 平和를 攪亂하려 하다가 最後의 破滅을 自招하던 露.獨 兩國의 前轍에 鑑하여 또한 이를 見習 模倣하던 日本 文明의 破綻에 證하여 反省自悟할 바가 아닌가.

31

우리가 이러한 抱負와 經綸을 가지고 當來할 世界的 變局에 處하여, 어떠한 修鍊을 加하여 어떠한 準備를 行할 것인가. 두말 할 것도 없이 思想的 修鍊과 民族的 團結이다. 첫째로 우리의 思想界는 複雜한 것이 事實이다. 이를 整理하여 統一하는 데 있어서는 調査와 比較와 研究가 必要한 것은 勿論이며, 둘째로 이렇게 整理統一이 된 思想下에서 中心的 團結을 作成하여서 우리의 一嘖.一笑와 一動.一靜이 團結의 背景에 依하여 發하며 行하게 되는 것이 現下 急務가 아닌가. 如何한 名俳優라 할지라도 舞臺가 없으면 巧技絶藝를 演出치 못하는 것과 같이 人類는 團體的 背景과 社會的 土臺가 없으면 그 天才와 才能을 發揮치 못할 뿐만 아니라, 如何히 雄偉한 抱負와 遠大한 經綸을 가졌다 할지라도 活用의 路가 絶할 것이며 實現의 日이 無할 것이다.

이러한 意味에 있어서 吾人은 外勢의 波動보다 他力的 援助보다, 中心勢力의 確立과 自體勢力의 解決을 絶叫力說하는 바이다. 要컨대 朝鮮問題는 民族自體의 團合이 確立하는 그날로부터 解決될 것을 確信하는 바이다.

11. 農村問題를 가지고 걱정하는 이들의 意見

<朝鮮農民> (총3호 1926년 2월 12일)

<設 問>

- 一. 農村青年에게 간절히 期待하고 싶은 일.
- 二. 農村青年을 위하여 實行하고 싶은 일.

三. 農村青年의 現代的 修養上 勸하고 싶은 圖書 及 雜誌.

<應 答>

東亞日報 主筆 宋鎮禹

一. 농촌청년에게 기대하고 싶은 일은 옛날과 같이 임군에게 충성해라, 부모에게 효도해라 하는 것과 같은 일이 아니고 종래에 우리가 알아오던 것과는 도리어 반대 되는 관념을 가져달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는 과거에 일을 아니하고 놀고 먹는 사람을 양반이라, 잘난 사람이라 하여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안될 일이다.

우리가 가장 더럽게 생각하는 절도나 강도와 같은 일이다. 이제부터는 노동신성(勞動神聖)이라는 관념을 꼭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제일 못난 사람이니까 농사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함은 아주 못생긴 생각입니다. 일하는 사람이래야 귀한 사람이요, 일 안하고 먹는 사람은 도적 사람이라고 생각하여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이 다 노동을 신성하게 알고 놀고 먹는 사람을 도적과 같이 사갈시하게 되는 날 이 세상은 고쳐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농촌 청년으로 하여금 노동하는 것을 최고도덕(最高道德)으로 여기는 사람이 되어달라고 하고 싶습니다.

二. 농촌청년을 위하여 하고 싶은 일은 그네들에게 어떠한 새로운 사상을 고취하여 갑자기 고상한 운동자가 되도록 하는 것보다 대체로 그네는 무지하여 전후 분별이 선명하지 못한 터인즉 우선 간이한 국문을 가르치며 쉬운 숫자(數字)부터 알게 하여 농촌청년은 물론 농민 전부에게 다 소라도 스스로 무엇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비판을 가지도록 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三. 내가 권하고 싶은 책은 유감이지만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잡지는 더욱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구태여 권한다면 경제독본(經濟讀本-日文), 자조론(自助論-六堂 著)을 보라고 권할까요.

12. 最善의 努力과 方法을 講究하자.

<新 民> 제2권 11호 (1926년 11월호)
(註: 한글날 제정을 주장한 글)

우리의 자랑거리고 첫 손가락을 꼽을 것은 우리의 글이다. 배우기 쉽고 쓰기 쉬운 우리 祖上이 創作한 訓民正音이야말로 文字로서의 모든 條件을 具備한 完全한 文字이다.

이 民族的 자랑거리를 頒布한 것이 距今 四百八十年前 陰九月 二十九日이라 한다. 이 날을 우리 民族이 紀念치 않고 돌아볼 者 누구이라. 우리의 손으로 이 날을 永遠히 紀念하기에 우리는 아울러 最善의 方法과 努力을 다하여야 하겠다.

13. 獄門의 送迎

<新 民> 제2권 12호 (1926년 12월호)

눈발을 부르는 무악재 바람이 쌀쌀히 불어온다. 그 바람 고지에서 떨고 있는 시커먼 西大門刑務所 앞에서 우리 不自由한 言論의 犧牲者 두 同志를 送迎하게 되었다. 하나는 朝鮮日報 筆禍事件의 犧牲者인 同紙 印刷人이었던 金炯元君의 刑期四個月을 마친 出監이오, 또 하나는 東亞日報

筆禍事件의 犧牲者인 同紙主筆 宋鎮禹君의 六個月의 體刑을 받은 入監이다. 우리는 그 出監을 慶賀하여야 할는지 그 入監을 慰勞하여야 할는지 나의 鈍筆을 옮기기에 자못 躊躇치 않을 수 없다. 그러면 犧牲者 自身들은 出監을 기쁘다 하는가 入監을 慰勞하여야 할는지 나의 鈍筆(鈍筆)을 옮기기에 자못 躊躇치 않을 수 없다. 그러면 犧牲者 自身들은 出監을 기쁘다 하는가 入監을 싫다하는가 그 또한 알아보아야 할 일이다. 이제 나오고 들어가는 이들의 忌憚없는 感想을 紹介하여 보자.

監獄으로 들어가면서

宋 鎮 禹

勞農 露西亞로부터 朝鮮民衆에게 보내는 電文을 東亞日報에 譯載한 것이 내가今回 入監하게 된 筆禍事件인 것은 世上이 周知하는 일이라 이제 새삼스러히 說明할 必要도 없을 것입니다.

該電文의 原意가 目下나 또는 未來를 云謂하는 것이 아니라 過去를 意味하는 것이므로 別로 拘碍될 것이 아닐 줄 믿고 다만 信實히 報道할 뿐이었는데 그것이 所謂 保安法 違反이라는 罪가 되어 司法處分을 받게 된 것은 아무리 생각하여 보아도 首肯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편에서도 어디까지나 法에 依하여 다루어 보았으나 結局 上告審에서까지 敗訴를 當하였으니 이제는 抗拒無路라, 刑을 受치 아니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일찍이 二十四個月의 監獄 經驗이 있으니까 이제 새삼스러히 獄苦를 놀랄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監獄을 刑務所라 改稱한 以後 內部에도 많은 改善을 하였다니까 曾往보다도 오히려 지내기는 낫겠지요. 囚人生活의 第一 어려운 冬期에 入監케 된 것은 肉體를 위하여 좀 不幸한 일이나 그亦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는 더 싸워볼 餘地 없이 그만 囚人生活에 들어가려고 覺悟를 하고나니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나에게서 多幸한 點도 있습니다. 한동안 險惡한 世波에 부대끼고 난 心身을 그윽히 慰勞할 機會라고 생각합니다. 散漫한 情神을 收拾하여 修養함에는 人間事會와 別交涉이 없는 獄舍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 어느 社會가 안 그러리까마는 우리 社會에는 너무도 紛糾와 反目이 많습니다. 同族끼리는 勿論 甚하면 同志間에도 서로 中傷과 批難을 일삼는 例가 또한 적지않은 것은 참으로 寒心한 일입니다. 이런 點에서 그 높디높은 붉은 牆壁너머의 別려있을 此生地獄의 光景을 생각하면 몸서리가 나지마는 한편으로 생각하면 골머리 아픈 우리 社會로부터 그윽한 避難處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도 없지 않습니다.

萬一 내가 우리 社會의 어떤 一部에서 무슨 批難을 받고 있었다면 이번 入監은 그 非難을 緩和或은 消滅케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心身修養期 또는 어떤 意味로의 隱居期인 半年이라는 受刑期를 가장 意味깊게 보내고 나오려 합니다.

14. 仁村에게 보낸 옥중 서한

사(社)를 떠난지가 벌써 한달이요, 나흘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건강이 여전하시며 사내의 모든 형제들도 다름없이 건강한 몸으로 꾸준히 분투하옵니까.

새 집 이사는 예정과 같이 11일에 아무 고장없이 순성되었는지 해를 거듭하여 깨어진 창과 무너진 벽만 남은 낡은 집에서 고생을 하다가 아름답고 깨끗하고 튼튼하고 쓸모좋은 새 집으로 옮겨간 쾌감과 기분이 과연 어떠합니까.

동고(同苦)하던 사내 여러 형제의 즐거워할 광경을 상상하니, 그윽히 적막한 중에도 저는 기꺼운 웃음을 웃게 되나이다. 이것이 모두 형님께서 평소에 땀 흘리고 애쓰시던 보상을 생각하옵고 더욱 건강과 행복을 비웁니다.

저는 절대한 운명의 지배 아래서 외로운 그림자를 벗삼아 엄한(嚴寒)의 폭위(暴威)에 저항을 계속할 뿐이오나 다행히 별고 없아오니 안심하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시키는 일을 하고, 먹고 자던 나머지, 한 두시간을 이용할 수 있아오니 책이나 많이 보내 주십시오. 그전에 보낸 것은 다 받았아오니, 윤리학(倫理學), 동서철학사(東西哲學史), 서양역사(西洋歷史), 서양문명사(西洋文明史), 철학개론(哲學概論) 등으로 대개는 우리집 책상에 있아오니 그중 페이지 수효가 많은 놈으로 보내 주시옵소서. (下略)

1926년 12월 16일 상오 11시

西大門刑務所에서 宋 鎮 禹

15. 獄中 漢詩 1首

獄中夜夜不成眠 (옥중에 갇힌 몸이 밤마다 잠 못이루나니)
憂國傷心幾積年 (나라 근심에 상한 마음 몇몇해나 쌓였던고.)
(以下 逸失)

16. 月南先生을 위한 輓章

(註: 古下가 月南선생 영전에 바친 輓章으로 <月南 李商在 先生 實記> 173面に 收錄한 것을 轉載)

諷世詼諧倒曼倩 세상을 풍자하는 해학은 東方朔을 앞섰고,
哀時憔悴憶靈均 슬플 때는 초체하기 屈原을 생각해 하네.

歲寒殘柏堪凋落 시절이 차니 쇠잔한 잣잎새도 시들어 떨어지니,
蒲柳臨風總忘神 냇버들처럼 못난 이몸 바람에 임해 모두 정신을 잊네.

先生憂國不憂身 선생은 나라를 근심하고 일신은 근심치 않으시어,
頭白心丹老益眞 머리는 희고 마음은 붉어 늙을수록 더욱 참되었네.

今日翳然棄我去 오늘날 조용히 나를 버리고 가시니,
鯨濤鱉浪自迷津 고래 물결 악어 물결에 스스로 갈길을 모르네.

17. 興味와 通俗化

<東 光> (1927년 5월호)

(註: 이 글은 東光誌가 東亞日報社를 스스로 批判해 달라고 要請한데 대한 寄稿임)

興味와 通俗化에 좀 主力하였으면, 새 社會를 建設하는데 基礎가 될 만한 모든 斬新한 道德的

觀念과 科學問議에 對한 새로운 智識을 每號에 連載함을 볼 때에 항상 紙面을 通하여 嚴肅한 氣分이었습니다. 그 中에도 더욱 山翁先生이 一般 同胞 青年에게 對하여 教訓한 文章에 對하여는 特히 數十年間 先生의 實踐한 誠忠을 披瀝한 것으로 昐니다. 그래서 더욱 言論界에서 一種 異彩를 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 愚見으로는 너무도 嚴肅한 氣分에만 偏重되어 一種의 教科書 비슷한 感이 있고 興味方面이 缺如한 듯합니다. 이제부터는 從來의 氣分에 興味를 끝만한 文章이 添加되고 좀 더 一般讀者가 잘 알아보게 通俗化하였으면 더욱 좋지 않을까 합니다.

18. 三個의 當面한 急務

<朝鮮之光> (1928년 1월호)

(註: 朝鮮之光社가 要請한 '當面問題에 對한 題見解'란 題目의 앙케이트에 대한 論文임)

現下 朝鮮의 모든 實狀은 次第로 發展하고 있는 것이 事實이나 그러나 吾人의 보는 바 當面의 問題로서 더욱 緊迫한 問題는

첫째 民族의 總力量의 集中問題이다. 只今 新幹會는 곧 이러한 使命을 가지고 誕生하였고 또 많은 努力을 하는 바이나 아직도 그 使命을 完全히 達하였다고는 말할 수 없다. 이는 卽 全朝鮮 民族의 各階級이 完全히 이에 結成되지 못한 까닭으로.

그러므로 今後의 問題는 곧 어떻게 하여야 全民族의 結成을 할 수 있겠느냐 함이다. 이에 對하여 吾人의 보는 바로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忠實한 指導者가 있어야 할 것과 地方 地方에 있는 從來의 健實한 指導者들의 糾束을 圖하는 것이 先行問題일까 한다. 今次 本社가 失行中에 있는 現代인물 의 投票計劃도 이러한 一義가 없는 것이 아니어나와 우리 的 當面한 必要는 實로 充實한 指導者를 구함에 있는 것이다.

둘째 우리 的 經驗生活 問題이니 危機에 陷한 우리 的 經濟的 生活을 어떻게 救濟하겠느냐! 하는 것은 刻下의 切迫한 大 問題일 것이다. 이에 對하여는 勿論 여러 가지의 議論이 있을 것이다. 또 그 根本問題를 떠나 當面한 一, 二 問題를 論함은 오직 枝葉問題일 뿐이다. 그러나 우리가 從來에 이러한 現狀을 볼 때에 그 原因을 오직 客觀的 情勢에만 돌리고 그 自體에 있는 內在的 原因을 等閑視하는 傾向이 많았으니 이는 우리 的 重大한 錯誤일 것이다.

吾人은 朝鮮人의 經濟的 生活의 萎縮原因이 그 客觀的 條件에 依하여 決定되는 바 大 것을 否認함이 아니다. 勿論 그것이 무엇보다도 大 것을 안다. 그러나 우리 的 努力不足도 또한 一原因이 되는 것을 我們은 看過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이제 저 中國人의 實狀을 보자. 저들은 經濟的 生活에 있어 下等의 ○○의 庇護를 받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一面에는 國際的 資本主義의 ○○ ○○고 있다. 그러나 저들은 能히 그 個人的으로 그에 對抗하고 있으며 國外流浪하는 個人個人도 只今 朝鮮에서도 到處에서 보는 바이어나와 能히 自立한 生活을 營爲하고 있다. 이는 要件대 저들의 牽乎한 個性과 不斷한 動勞의 結果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只今 우리 的 經濟的 生活의 萎縮되는 原因이 客觀的 條件에 依하여 決定된다 할지라도 一面에는 自體의 無力이라는 責任이 또하 적지 아니하니 이 實로 우리가 反省하여야 할 問題이다.

셋째 朝鮮人의 教育問題를 들 수 있으니 우리 的 教育上 刻下의 必要한 問題는 어떠한 方法이나 形式으로든지 義務教育의 실행이다. 이는 實로 人道적으로 大 問題일 것이다. 그리고 한가지는 近來에 流行하는 學生의 盟休問題이니 이러한 問題는 結局 우리 的 文化發展上 重大한 支障이 될 뿐

이다. 우리가 一日的 學業을 게을리하는 그만큼의 文化는 뒤지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우리는 盟休의 原因과 動機를 慎重히 檢討考察하여 防微杜漸의 實을 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取할 方針이라 할 것이다.

19. 平和裡에 合同될 것이다.

<新 民> (1928년 7월호)

(註: 滿洲 東三省을 統治하던 大元師 張作霖이 1928年 今月 日本軍에 依하여 爆死한 後 그 歸趨에 대한 說問에 答한 글)

今後의 東三省이라면 卽 張作霖 死後의 東三省이라는 말이다. 그것은 疑心할 것도 없이 國民政府와 合同될 것이다.

東三省 自體로 보아도 國民政府를 背景으로 하여 모든 解決을 짓는 것이 適合할 것이오, 國民政府나 또는 一部 東三省 當局者의 利害로 보아도 合同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一部에서 宣傳되는 張學良을 推戴하여 東三省 獨立 云云하는 것은 처음부터 問題가 되지 않나니 大部分이 漢族인 東三省의 民衆이 反對할 것이며 張學良 自身도 그 頭腦가 張作霖과는 다를 것이니까 언제까지나 東三省이 張氏의 것일 것이라는 迷夢에서 헤멜 理는 없을 것이다.

그 合同하는 經路는 吾人의 豫想보다는 꼭 平和와 妥協裡에 進行될 것이다. 郭松齡을 犧牲하던 그 經路에 비추어 奉天軍이 對南軍과는 絶對로 戰爭을 避할 것이오, 國民軍도 亦是 對奉天軍 挑戰으로서 問題의 解決을 바라지 않을 點에서 兩方이 戰火의 不利만은 깨달았을 것이니까..... 그리고 東三省의 今後에 對하여 列國의 態度는 如何할까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나 이것도 그들이 平和裡에 合同하는 데 대하여는 다시 干涉의 餘地가 없을 것이며 干涉해 본대야 別수가 없을 것이다. 東三省이 國民政府에 合同하는데 影響을 가장 많이 받는다면 東三省에 가장 많은 關係를 가지고 있는 日本일 것이다. 日本이 이것을 考慮하여 合同에 대한 直接 或은 間接으로 中止 或은 妨害를 할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日本도 亦是 大勢에 背馳하여 이런 일을 할 理도 없을 것이오 日本으로서도 滿洲에 概說한 特殊 利權만 保障되는 限度에서 彼此 好意로서 合同을 贊成하는 것이 良策일 것이다.

萬一 日本이 合同을 妨害하기 위하여 어떤 干涉을 取한다면 그것은 도리어 東三省 當局者로 하여금 日本 때문에 合同을 促進하는 奇現象을 볼 것을 日本은 覺悟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20. 小作立法의 必要

<朝鮮之光> (1929년 1월호)

現下 朝鮮의 小作問題는 地方에 따라서 各其 事情이 相異하므로 一律로써 論기 難한 바 있으나 이를 大體로써 論하면 첫째 制度의 改善이오, 둘째는 地主의 覺醒이라고 하겠다. 元來 小作制度란 것이 地方 地方이 서로 같지 아니하고 或은 地主와 地主에 따라서도 그 事情이 不一하여 甚히 複雜하다. 그러므로 이렇게 複雜한 制度를 法律이나 或은 社會的으로서 어떤 規範下에 統一케 하는 것이 極히 必要한 問題라 할 것이오, 小作人에 대하여는 그 地位를 法律 或은 其他 必要한 方法으로서 保障하여야 하겠다. 只今과 같이 小作人의 地位가 恒常 不安에 陷하여 可謂 安堵할 수 없

는 때에는 이 問題의 解決은 到底히 期待할 수 없으며 同時に 生産上에도 莫大한 損失이라 할 것이다.

生産者인 小作人이 恒常 그 堵에 安치 못하고 있는 以上 어찌 그의 最善의 努力을 期待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므로 特히 小作人의 地位를 保障할 만한 어떤 方法을 세워야 할 것이다. 小作法과 같은 것이 極히 必要한 方法이라 하겠는데 이에 對하여는 或 이렇게 말할 것이다. 法理上으로 보아 所有權과 衝突되는 點이 있는 것인즉 不可하다고..... 그러나 그것은 解釋하기에 있다고 본다. 元來 土地의 所有權이란 絶對性을 가졌다고 하나 決코 絶對的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境遇가 多하니 土地의 收用令과 같은 것은 이의 一例라고 하겠다.

土地의 收用令이란 것이 結局 그 國家的 利益이나 또 社會的 利益을 위하여 하는 것인 以上 小作法이란 것이 그 國家的 或은 社會的 利益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하면 決코 不可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或은 말하되 小作法이란 小作人이라는 그 私人的 利益을 위하는 것이로, 決코 國家的 또는 社會的 利益을 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小作問題가 漸漸 深刻化하여 그 影響이 農業生産의 消長을 左右하게 된다면 이는 國家적 견지로 보아서 그대로 방임할 수 없는 일이오, 社會的으로 보아서도 어떻게나 解決치 아니하면 안될 것이 아닌가!

이러한 議論은 專門家에게 맡길 것이지만 吾人의 보는 바로써 하면 極히 必要한 問題라고 생각하므로 이를 提論하는 바이다. 그리고 다음은 地主의 覺醒이 必要하다. 地主가 부질없이 目前의 利害에만 拘泥되어 永遠한 將來를 보지 못함은 甚히 寒心한 일이다. 그러므로 地主는 무엇보다도 共存共榮이라는 생각으로써 小作人의 地位를 保障하고 小作人을 指導하여서 農業의 보다 더한 發展을 期하여야 할 것이다.

地主中에는 間或 覺醒한 사람들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大多數는 頑強하여 苛斂誅求를 是事로 하는 者이니 萬一 지금 現狀과 같이 推進되는 때는 農村의 疲弊는 더욱 深刻化하여 實로 重大한 影響을 招致케 할 것이다.

21. 平生에 仰慕하는 鄭圃隱先生

<別乾坤> (1929년 1월호)

新年이라고 特別히 생각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나는 언제든지 高麗의 鄭圃隱先生을 仰慕하는 까닭에 新年을 當하여도 또한 그를 생각하게 됩니다.

鄭圃隱先生은 누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政治家로나 外交家로나 또는 學問으로 忠義로 그 모든 것이 高麗 四百七十年間에 第一人으로 생각합니다. 옛사람의 松都 懷古詩에 '山河氣盡 姜邯贊이오 日月光明 鄭夢周'라고 云云한 것과 같이 高麗의 全歷史를 通하여 武臣으로는 姜邯贊, 文臣으로는 鄭圃隱을 더할 人物이 없을 것입니다. 그가 있음으로 因하여 高麗가 保存되고 그가 죽음으로 因하여 高麗가 亡한 것이 아닙니까.

當時 高麗의 國勢가 이미 기울어짐에 不拘하고 그가 政界에 있어서 上으로 昏君을 教誨輔弼하고 下로 武臣의 跋扈와 佛教의 淫靡를 抑制하여 外로 倭寇를 擊退하는 同時に 或은 日本 或은 元明의 國際舞臺에 活躍하여 高麗를 儼然히 復興하는 道程에 立케 한 것을 보면 그의 人物이 如何한 것을 足히 想知할 것입니다.

그가 外國으로 많이 來往하는 機會에 李太祖가 國政을 干涉하게 되고 또 不幸히 太宗의 陰謀로 善竹橋上에서 趙英珪의 兇椎에 忠血을 흘렸기에 그렇지 만일에 그가 外出을 하지않고 항상 國內에 있었으면 決코 政權을 李太祖에 주지 않았을 터이오 따라서 李太祖의 王業도 그다지 容易하게 成功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의 成敗 如何는 別問題이어나와 그의 人物에 對하여 나는 眞心으

로 仰慕하고 敬服합니다.

新年에 새 생각을 할 때에 더욱 그러한 偉大한 人物의 생각이 간절합니다.

22. 家族婦人 教育에

<權友> (1929년 5월 창간호)

(註: 權友社가 同誌의 創刊 特輯으로 請託한 '權友運動에 對한 各方面 人士의 期待'라는 題目的 앙케이트에 대한 答文)

현재 조선에 있어서는 모든 것에 질서적으로 그 어느 것을 먼저 할 것이며 어느 것을 나중에 하여야 된다고 할 수 없으며 많은 지장은 각방면으로 적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되니 그 실현에 있어 매우 곤란한 것도 사실이다.

동서양을 물론하고 일어나는 운동은 각기 그 나라와 경우를 따라서 방침이 다를 것이니 조선에 있어 여성운동도 환경이 특수하니 만큼 그 방침도 다를 줄 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다하여야겠지 만 무엇보다도 근우회의 사명은 일반 아매한 구가정 여성으로 하여금 세상의 일을 깨닫기에 필요한 교양사업을 주로 하기를 바라며 또는 그리 해야 되겠다.

여기에는 먼저 선각여성의 책임과 실현이 충실하여 근우회가 조선여성의 이익을 도모함에 표현 기관이 되기를 바란다.

23. 하루 바빠 '開關' 時代

<別乾坤> (1929년 7월호)

(註: 이 글은 <別乾坤> 創刊 十週年 紀念 祝辭임)

나는 이즈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여 드릴 形便이 못되어 매우 遺憾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분이 가진 풍파와 마주 싸워 十年間을 꾸준히 奮鬪努力하셨다는 것을..... 그리하여 十週年 紀念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을 感祝하며 앞으로는 한시라도 바빠 '開關' 時代와 같이 되기를 바라마지 아니합니다. (나보다도 勿論 여러분이 더욱 기다리고 계시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일상 앞서서 雜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면 開關社에 대한 다른 이야기도 이야기려니와 開關社에 여러분의 不屈하고 꾸준히 싸워나가는 努力이며 紙面이 넘치는 誠意를 感歎치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탁할 것은 앞으로도 前보다 더한 努力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24. 京城便覽

<別乾坤> (1929년 9월호)

京城도 近代都市의 特色을 每日 發揮하여 간다. 形式에 있어서도 그러하거니와 裏面生活에 있

어서도 더욱 그러하다.

畸形의 發展, 人爲의 淘汰 等 모든 點에 있어서 그렇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나 첫째 京城은 建設의 京城이나, 破壞의 京城이나, 破壞와 建設의 交響樂에 行進하는 것이 京城의 現實이다. 建設되는 勢力과 破壞되는 勢力의 相衝은 在來의 모든 形骸 위에다 罪惡의 金子塔을 세우고 있다. 이것이 京城의 象徴이다. 우리는 항상 이 象徴化하는 特殊한 都市의 空氣를 呼吸할 때마다 어떠한 窒息을 느낀다. 窒息에서 벗어나려는 것이 京城人의 叫呼이다.

25. 教育의 施設과 貧民窟에

<別乾坤> (1929년
10월호)

(註: 別乾坤社가 要請한 “京城에 와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란 題目的 앙케이트에 대한 答文임)

나도 시골사람으로 서울에 와 있으면서 이런 말을 하기는 未安하지마는 나는 언제나 根本적으로 시골사람이 서울 오는 것을 不贊成한다. 시골 사람이라도 무슨 特別한 일이라든지 主義가 있어서 서울을 구경한다면 已어니와 그렇지 않고 다만 風潮에 달려서 外形의 繁華한 것이라든지 奢侈한 것만 取하여 구경한다면 그야말로 盲者丹青 구경 以上으로 所用이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虛榮心 奢侈心만 늘어서 如干한 惡影響을 입지 않을 것이다.

實際에 시골사람들이 都會에 誘惑되어 자꾸 都會로 集中하려 하고 또 近來에는 農村의 生活困難, 其他 어떠한 一時的 機會로 因하여 一個月에 몇千 몇萬의 시골사람들이 서울로 온대도 누가 막을 수 있으랴. 그런데 既往 서울을 오게 되면 나는 이러한 말을 부탁하고 싶다. 卽 京城은 道路의 開通, 市街의 櫛比, 建築의 宏大 그러한 모든 施設이 完備하고 外面이 변화한 反面에는 참으로 形言할 수 없는 貧民窟이 있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只今 朝鮮에 있어서 어느 地方에 貧民窟이 없는 곳이 없지마는 서울의 貧民처럼 慘酷한 現狀은 없을 것이다.

진고개와 鍾路같은 繁華地를 보는 同時에 新堂里 孔德里 같은 貧民窟을 보아 어찌하면 저런 사람들도 잘 살게 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하고 또 다른 施設보다도 朝鮮人의 一般 教育施設을 잘 살펴서 教育의 必要를 確信하는 同時에 子弟를 많이 學校에 보내서 有爲人物을 많이 養成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까 한다.

26. 科學普及과 宗教選擇

<朝鮮農民> 제5권 6호(총36호 1929년 10월)

農民을 속여먹는 幽靈輩를 退治함에는 農民自體의 覺醒을 일으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急務라도 생각합니다. 農民自體의 覺醒을 일으킴에는 먼저 簡易한 科學的 知識을 普及케 하여서 一般 農民이 事物에 對할 때에 科學的 頭腦를 가지고 對하도록 되게 하는 것이 農民을 속여먹는 幽靈輩를 退治하는 積極策인 同時에 農村에 橫行하면서 現下의 農民이 不安한 가운데 있음을 利用하여 함부로 農民을 속여먹는 幽靈輩를 社會的으로 攻擊하여 現社會에서는 擡頭치 못하게 하는 것은 消極策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現下의 朝鮮農民은 經濟的으로나 政治的으로나 依支한 곳 없이 가장 不安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렇게 不安한 가운데에서는 依支하고 慰安을 얻기 위하여 宗教를 찾

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弱點을 利用하여 幽靈輩들은 農村에 橫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農村에 宗教를 選擇하여 卽 世界的으로 公認되는 宗教를 紹介하는 것이 農民을 속여 먹는 幽靈輩를 退治함에 對하여 補助手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7. 大協同機關組織의 必要와 可能 如何?

<彗 星> 제1권 1호 (1931년
3월호)

그러한 것은 나는 아무 必要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全民族의 協同機關이라 하면 外面으로는 勿論 좋고 多數人의 結合이니까 힘이 强할 것 같지마는 실상은 아무 힘도 없고 그냥 또 시시부지하고 말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무슨 俱樂部모양으로 1년에 몇번씩 모여서 閑談이나 서로 하고 意思나 交換하는 그런 일을 한다면 已어니와 적어도 民族的으로 무슨 運動을 한다면 그 團體의 構成分子가 徹底한 意識과 主義가 서고 生命과 財産을 거기에 犧牲하겠다는 覺悟를 가진 人物들이 아니면 아니 되겠습니까. 過去에 우리 朝鮮 사람의 모든 團體와 事業은 그 趣旨나 綱領이 좋지 못하여 成功을 못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奮鬪하는 勇氣와 誠力이 없는 까닭으로 失敗를 한 것입니다. 只今도 萬一 誠心誠意로 朝鮮을 爲하고 朝鮮民族을 爲하여 일할 생각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다만 同志 몇 사람끼리라도 서로 힘을 合하여 旗幟를 鮮明하게 들고나서 實質있게 일을 한다면 거기에 뜻이 있는 사람은 嚮應하여 그 團體의 努力이 커지고 일도 힘있게 잘 할 수가 있지마는 다만 漠然하게 우리가 같이 團結하여야 되겠다고 하여 누가 發起하여 勸誘人會를 하게 한다면 그것은 個人本位の 結合이나 團體本位の 結合이나 結局은 아무 實力이 없이 第二 新幹會가 되고 말 것입니다. 대단히 未安한 말이지마는 어떤 會습이든지 우리 朝鮮사람은 적어도 權利主張하는 사람은 많은 것 같습니다. 會를 할 때 보면 會長 또는 委員長같은 幹部運動에는 누구나 激烈한 것 같고 또 무엇을 하느니 하고 案은 많이 내놓고 떠들기는 다 잘하지마는 實施에 金錢辨出할 方法이라든지 犧牲的으로 할 人物을 討議하는 마당에 가서는 그저 面面相顧하고 아무 소리가 없으니 그래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는가. 只今에 만일 무슨 運動을 한다면 社會主義者고 民族主義者고 먼저 義務履行 잘 할 사람으로만 그 團體를 組織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요 人物에 있어서도 人格으로나 學識으로나 무엇으로나 한 地方하면 其 地方에서 信賴하는 人物을 움직이게 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最初 일어날 때에도 決코 量을 取할 것이 아니요 質을 取할 것입니다. 中國의 國民黨이 只今은 저렇게 勢力이 크지마는 本來에야 孫文을 中心하여 몇 個人의 同志로 糾合된 것이 아닙니까. 其外 다른 民族들도 대개는 그리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8. 朝鮮의 世界的 地位

<批 判> (1931년 5월호)

(註: 批判社의 要請에 依하여 '朝鮮의 世界的 地位'란 題目의 論文을 寄稿하였으나 數個處가 削除되어 있다)

朝鮮의 世界的 地位는 經濟的으로는 植民地요, 政治的으로는 弱小民族의 地位에 있다. 萬一 朝鮮을 世界 다른 弱小民族에 比較하여 말한다면 英國의 깃발 아래에 있는 모든 弱小民族과 近似點

을 發見할 수 있다.

文化와 民族을 말한다면 愛蘭 그것과 近似하며, 經濟적으로 말한다면 印度 그것과 (此間 十四字 削除) 近似하다. (此間 七十字 削除) 그러나 東洋의 大勢로 보아서 朝鮮의 世界적 地位가 將來에 있어서 더욱 重大性を 包藏하고 있을뿐더러 現在の 東洋大勢로 보아서도 朝鮮의 世界的 地位는 實로 世界 어떠한 弱小民族의 地位 그것보다도 더욱 重大性を 占有하고 있다. (此間 六十八字 削除)

一例를 最近에서 든다면 저 間島에서 接踵 續出하는 共產黨 問題가 中國과 日本間에 있어서 重要性을 가진 國際問題를 일으킨 것을 볼지라도 朝鮮이 얼마나 重大한 地位에 있다는 것을 넉넉히 알 수가 있지 않으나.

地理上으로 말할지라도 朝鮮은 世界交通의 中心路가 되어 있다. 저 아메리카, 亞細亞大陸, 歐羅巴等 世界通路의 樞要地帶가 되어가고 있다. 통틀어 말한다면 政治적으로나 地理上으로나 朝鮮은 世界 어떠한 弱小民族의 그것보다도 가장 重要한 地位를 占領하고 있다.

朝鮮問題 如何가 東洋大局을 左右 如何로 料理하게 된다. 東洋에 있어서 萬一의 變局을 일으킨다면 朝鮮問題가 가장 干要한 形勢를 일으키게 된다.

過去의 歷史가 이를 證明하고 있지 않으나. 日淸, 日露 兩大戰役의 原因은 朝鮮問題 그것이 核心이 되고 있지 아니했느냐. 다시말하면 朝鮮問題가 없었다면 兩大戰役이 發生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萬一에 太平洋問題라는 것이 日, 美, 中 三國間의 重要問題가 되어가지고 있다면 이것이 國際的 問題가 되고, 滿蒙問題가 將來 太平洋問題를 惹起하는 導火線이 된다고 하면, 그 中에도 滿洲問題라는 것이 將來 太平洋問題를 일으키는데 出發點이 된다고 하면 더욱 朝鮮問題의 重要性이 느끼어지는 바이다. 이 點에 있어서 朝鮮의 世界的 地位는 어떠한 方面으로 보든지 世界의 어떠한 弱小民族 그것보다도 가장 重大한 關係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바이다.

將來 日露, 日中, 日美 間에 있어서 如何한 問題가 發生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國際적으로 如何한 問題로 展開된다면 朝鮮의 世界的 地位는 實로 重大하다고 느끼어진다. 朝鮮의 世界的 地位는 過去에도 重要하였거니와 現在에도 未來에도 더욱 重大하다. 世界 어떠한 弱小民族의 그것은 朝鮮의 世界적 地位에 미치지 못한다.

29. 世界大勢와 朝鮮의 將來

<東 光> 제3권 6호 (1931년 6월)

萬一 오늘날 朝鮮의 將來를 議論하고자 할 것 같으면 오늘날의 朝鮮이 過去의 朝鮮과 달라서 모든 情勢가 世界的 朝鮮이 된 이상 먼저 世界의 大勢 또는 思潮의 動向이 어떠한 方面으로 趨移하는가 하는 것을 明確히 把持치 아니하면 朝鮮의 將來를 豫測할 수 없을 것은 勿論일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一步를 進하여는 朝鮮民族이라는 自體가 過去 文化的 生活에 있어서, 民族的으로 어느 程度까지 그 能力을 發揮하였는가 하는 것에 對하여 歷史를 參照하여 正確한 觀念과 自信을 把持치 아니하면 또한 그 將來를 論斷하기는 不可能한 일이다. 이러한 意味에 있어서 먼저 朝鮮民族의 文化的 能力을 歷史적으로 溯究하고 또한 朝鮮과 不可離한 環境, 情勢를 世界的으로 通觀치 아니하면 朝鮮의 將來가 如何히 進展될가 하는 結論을 斷案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朝鮮民族이 過去 歷史적으로 보아서 完全한 文化的 能力을 가졌다 하는 것은 世界의 學者가 公認하는 바 다시 贅言을 不要할 것이다. 그러나 高句麗, 新羅, 高麗로부터 李朝의 末葉에 이르기까지는 모든 文化가 特殊한 一變化를 일으키지 못하였으니 元來 東洋文化 自體가 家族制度主義와 封建制度의 思想의 領域內에서 脫出치 못한 것이 그 重大한 原因이다. 그러므로 吾人은 過去 同

一한 規範으로 歷代王朝가 變遷하게 된 事實에 있어서는 特別히 쓸 것이 없다. 한번 文藝復興과 佛國의 大革命으로 因하여 民權自由의 世界的 思潮가 滔滔히 東洋政局을 氾濫하게 됨을 따라서 朝鮮半島도 政治的으로 文化的으로 數千年以來的 大變動과 大改革을 일으키게 된 것은 不誣할 事實이다.

그러나 世界的 文化에 뒤떨어진 感이 있는 것은 現下 世界文化의 源泉인 歐美的 東洋에 對한 地理的 干係가 重大한 原因을 作하게 한 것이다. 海洋的으로 輸入된 歐美的 文化는 日本의 維新을 作하였고 大陸的으로 輸入된 歐洲의 文化는 中華大陸의 遮斷으로 因하여 近代에 있어서도 朝鮮의 世界文化에 接觸이 가장 遲鈍하였던 것이다. 이것이 곧 지금부터 六十年前的 甲申政變의 改革運動을 일으키게 한 것이다. 勿論 甲申政變의 改革運動이 特殊階級에 局限되었고 또는 失敗에 歸하였지만은 朝鮮社會에 重大한 波動과 影響을 일으킨 것만은 確實한 事實이다. 이 思潮가 韓末 六十年을 通하여 或은 獨立運動이 되고, 或은 憲政運動이 되고, 或은 社會改革運動이 되고, 或은 新教育 普及運動이 되어서 一進一退의 形勢를 일으키게 된 것도 過去의 事實이다. 이것은 獨立協會, 自強會, 大韓協會, 各地方學會의 勃興 等等으로 보아서 이것을 證明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運動이 暫起暫滅의 形勢에 그치게 된 것은 民衆의 完全한 覺醒을 土臺로 한 것보다 一部 知識階級の 運動에 起因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庚戌의 大變革으로 因하여 潛在되었던 民族的 意識이 더욱 尖銳化하게 되고 또는 普通教育의 普及으로 因하여 民衆的으로 世界的 文化와 思潮를 完全히 普及感受하였다. 이것이 곧 己未運動의 發端이 된 것이다. (以下 省略).

30. 佛陀의 根本情神에 歸依하라

<佛 教> (1931년 7월호)

나는 平素부터 佛敎에 對하여서는 다만 好意 가졌을 뿐으로서 그 根本義에 깊이 들어가서까지 蘊奧한 敎理를 안다고는 할 수 없으나 그러나 또한 일찍이 興味를 가지고 보아오던 敎團이었던 만큼 노상 거기에 對한 希望과 私見이 없지도 않다. 그러므로 而下에 비록 概括的이나마 敎團에 對하여서나 敎政에 對하여서나 社會事業에 對하여서의 나의 管見을 大綱 말하여 보겠다.

첫째=敎團에 對하여 나의 생각하는 바를 말하여 볼 것 같으면 原始佛敎 時代에 있어서도 元來佛敎는 二重敎團으로서 僧家耶衆이라 하면 四大部衆이라고 하여 比丘 比丘尼 優婆塞 優婆尼로 나누어가지고 比丘 比丘尼로 말하면 반드시 獨身生活者로서 佛敎의 情神과 學理만을 研究하여 敎團의 體가 되어가지고 宗風을 舉揚한다. 一般 信徒를 敎化한다 하여 法供養으로써 自己네들의 使命이라 하였고 優婆塞 優婆尼는 곧 佛敎의 情神下에 社會의 實生活裡에 들어가서 士農工商의 諸機關內에서 生活를 하는 이들로 比丘 比丘尼들에게 法供養을 받는 代身에 그네들에게 物質로써 供養具를 바치게 되어 敎團의 用이 되어가지고 理論을 實際化하는 이들이었다. 그러므로 在來에 우리도 佛敎라 하면 곧 山間에서만 隱居하여 超現實的 宗教로만 알았더니 내가 監獄에 있으면서 佛敎에 對한 書籍을 읽어보는 동안에 佛敎가 그렇게 超現實的 宗教가 아니요, 도리어 卽實主義의 宗教인 것을 切實하게 깨달았다. 그러므로 우리 일반 社會人으로도 過去의 佛敎를 排斥하여 山間 宗教로만 알고 一般的 誤解를 가졌던 陳舊한 觀念만은 비우고 보아야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同時에 佛敎 敎團 自體에서도 스스로 處決할 問題는 在來의 僧侶團을 分裂시켜서 斷乎히 理事 兩判의 僧侶의 行爲까지라도 明白히 하지 아니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理判僧侶는 어디까지든지 戒行이라든지 知德을 兼修하여서 一般 信徒들에게도 儀範이 되도록 되어야 할 것이며 事判僧侶에 있어서도 亦是 個人問題이지만은 宗教人으로서 忌避할 만한 것은 될 수 있는대로 勤慎하여 社會

에 誤解가 없도록 努力하지 아니하면 또한 안될 것이다.

둘째=敎政에 對하여서는 亦是 事判이라 하여 一端 事務에만 注目할 것이 아니라 敎界가 어떻게 해야 振興 發展이 될까를 觀察하여 첫째 高僧大德을 極力으로 擁護해서 敎界의 情神集中에 努力하며 法脈을 繼承하는 點도 크게 憂慮하여 慧命을 이을 積極的 方針을 取하지 아니하면 될 수 없을 것이다.

셋째=社會事業에 關하여서는 方今 學校를 經營한다, 布敎所를 設置한다, 幼稚園을 經營한다 하여 많은 努力을 다함은 고맙게 생각하는 바이나 元來 社會事業에 對하여서는 他敎의 하는 方針을 많이 參酌함이 좋을 것이다. 決코 남의 模倣이 아니라 그밖에 길이 따로 없다면 비록 남이 먼저 行하였다고 그길을 아니 갈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都大體 크게 우리 朝鮮의 諸方面을 觀察한다면 너무도 宗教的 修養이 不足한 것이 우리 民族의 全般的 缺陷인 것이야 識者면 다 首肯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信仰心은 모든 것을 이기고 남는 것이기 때문에 乃終에는 生死問題까지라도 그리 어렵게 보지를 않는다. 그러므로 功利的 方面으로만 보아서도 宗教的 信心이 그 얼마나 社會的 惠義를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 過去에 우리 朝鮮은 儒學思想에 너무 그릇 中毒이 된 所以로 죽음이라 하면 그만 暗黑에 돌아가고 마는 것 같이 생각하여 死에 對한 恐怖心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根氣와 意志를 여간 弱하게 하지 않았다. 그러나 宗教로 因하여 自己使命에 殉死하면 天堂이나 或은 極樂世界에 꼭 간다는 信心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사람의 殉節하는 美德을 培養시키는지 모른다. 이 點은 哲學이나 道德이나 法律이 宗教에 미치지 못함이 크다.

나는 그만큼 宗教에 對한 期待가 많고 또 特히 佛敎에 對하여서는 以上の 몇몇가지 條件에 對한 嚮望이 크다는 것을 말하여 둔다.

31. 萬寶山 事件에 對하여

<동아일보> (1931년 7월 5일)

(註: 이 글은 韓國近代名論說 66편중의 하나로 선정되어 1967년 《新東亞》誌 신년호 별책부록으로 간행되었다)

1

萬寶山衝突事件을 單純하게 中國人의 朝鮮民 壓迫이라고 떠들어대는 것은 淺慮의 甚한 者다. 좀더 冷靜沈着하게 事態의 眞相을 捕捉하고 그 裏面에 潛在한 種種의 微妙한 關係를 靜觀한 뒤에 判斷을 내려야 한다. 하물며 이 事件을 曲解하고 無辜한 中國 在留民에게 暴行을 加하는 등의 일이라.

百步를 讓하여 일의 非가 쏘혀 彼에 있다고 假定하더라도 그것을 契機로 하여 朝鮮 在留의 中國人에게 報復的 暴行을 加하는 것은 一方 民族的 襟度の 缺如를 暴露하는 것인 同時에 一方으로 事態를 더욱 紛糾케 하고 自他的 損失을 擴大하는 것뿐이다. 在外의 同胞가 危難에 있다는 報道를 듣고 이를 念慮하고 그들을 위하여 돕고자 하는 생각이 있음은 同胞의 뜨거운 사랑을 表現한 것이라 할 것이나, 그 方途를 잘못하고 그 目標을 어그러뜨린다 하면, 本來의 目的을 達치 못할 것이니 어찌 삼가지 아니하라.

昨今間에 仁川과 京城 등 各地에서 생긴 不祥事는 實로 痛嘆할 일이다. 同胞 諸位의 冷靜하고 賢明한 態度를 재촉코자 한다.

滿洲 朝鮮人の問題は 奥地와 滿鐵沿線과를 區分하여 두 가지로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가 屢言한 바다. 다시 말하면 奥地の 農民問題가 單純히 朝鮮農民 對 中國官民의 問題인 것의 反對로, 鐵道沿線의 問題는 여기다가 日本警察力까지 加合한 三角問題가 되는 것이다. 이번 萬寶山問題로 말하면 바로 이 둘째의 境遇가 分明하다. 이미 日.中 兩警官隊의 衝突이 있는 것을 보아 疑心없는 길ियो, 따라서 今日에 와서는 問題의 中心이 中國人の 朝鮮農民壓迫에 있다는 것보다도 日.中 警官의 衝突이라는 事實로 移轉되었다 함이 事實일 것이다.

詳報가 없으며 確斷을 내리기 어렵지마는 今日까지의 報道에 依하여 보건대, 原來 萬寶山開墾事業은 傳하는 바에 依하면, 日.朝.中.露 四個民族의 合資로서 中國人 地主와 契約하여 水田開拓을 目的으로 생긴 一大 企業이라 한다. 이 企業家들의 손으로 二百餘의 朝鮮農民을 移住케 하고 灌溉를 위하여 水路를 開拓한 것인데, 水路開拓時에 中國人の 土地를 侵犯한 것이 紛糾의 시작이라 한다. 그리하여 結局 抗爭의 對象은 中國人 地主對 企業家間에 일어날 것이나, 現場에서 水路開墾에 從事하고 있는 것이 農民이매 自然의 形勢로 朝.中 兩農民이 對峙하게 된 모양이다.

이 點에 있어서 먼저 우리는 中國의 當路者에게 抗議할 것은, 移住 農民 二百은 事實上으로 애매하다고 하는 것이다.

문제는 單純히 企業家 對 中國官廳의 問題일 것이요, 小作農인 朝鮮農民은 何等의 直接 責任이 없는 것이다. 事態가 惡化하게 되매 日本領事館의 保護를 願한 것도 물론 彼等 企業家일 것이며, 그리하여 마침내 兩 警官隊의 正面 衝突까지 보게 된 것이다. 至於 兩方 農民의 衝突은 그 餘波에 不過하다고 볼 것이며, 事態에 對한 理解가 不充分한 盲目的 行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微妙한 關係를 가지고 있는 이 事件에 對하여, 輕率히 事態를 誇張하고 抗爭을 擴大케 하는 듯한 言辭를 弄함은 雙方의 感情을 挑發할 뿐으로 何等의 利益이 없는 일이다.

우리의 關心處는 오직 二百의 農民同胞다. 一, 二 企業家の 無謀한 行動으로 因하여 애매히 被害를 받는 그들의 애매함을 徹底히 主張할 것 뿐이다. 이에 대하여 朝鮮人は 朝鮮人の 立場에 있어서 慎重한 對策을 樹立할 必要가 있거니와, 오직 크게 삼갈 것은 事件의 真相을 알기도 前에 輕率히 行動한다거나 또는 問題의 正鵠을 混同誤認하여 火근을 將來에 남기지 않도록 크게 注意할 바다.

32. 二천만 동포에게 고합니다.

민족적 이해를 타산하여 허무한 선전에 속지 말라.

<동아일보> (1931년 7월 7일)

(註: 이 글도 앞의 '萬寶山事件에 대하여'와 한 묶음으로 韓國近代名論說로 선정되었음.)

만보산 二백명 동포는 안전하고 평안합니다. 지금, 만주와 그밖의 중국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은 무사하고 편안합니다. 중국 백성들은 지금 우리 동포들에게 손을 댄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주 기타 중국에 있는 우리 동포들의 가장 간절한 소원은,

“국내에 있는 동포들이 중국 사람들에게 폭행을 말아 달라” (작일 상해 특전 참조) 하는 것입니다.

동포여, 우리가 조선에 와 있는 중국사람 八만명에게 하는 일은, 곧 중국에 있는 백만명 우리 동포에게 돌아움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즉시로 중국사람을 미워하고 그들에게 폭행을 가하는 일을 단연히 중지하십시오.

2

동포 여러분은 만보산에 있는 二백명 동포의 생명이 위경에 든 것처럼 생각하고, 또 어떤 악의를 가진 자의 생각인지는 모르거니와, 그 二백명 동포가 학살을 당한 것처럼 아는 이도 있는 모양이나, 이것은 전혀 무근지설입니다. 무뢰배의 유언비어입니다.

또 조선 안에서도 조선 동포가 중국인에게 학살을 당하였다는 풍설을 돌리는 자가 있다고 하거니와, 이것은 더구나 말도 되지 아니하는 허설입니다.

이 모양으로 무근한 유언비어를 돌려 이웃한 두 민족 사이에 틈을 내며 또 성군작당하여 아무 죄도 없는 이웃나라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파괴하는 것은 진실로 민족을 해치는 폭민이오 난민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무리를 민족의 죄인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중국은 현재 백만의 조선 동포가 우접해 사는 나라요, 또 이 앞에도 그와 가장 밀접하고 친선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조선 민족 백년의 복리를 위한 것이어든 무책임하고 일을 좋아하는 자의 헛된 선전에 미혹하여 인천·경성·평양 등지의 대참극을 일으킨 것은 조선민족의 명예에 영원히 씻기 어려운 누명이 될뿐더러 중국에 있는 백만 동포의 목에 칼을 얹는 것이니 이런 통탄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동포여! 정신을 차려 앞뒷일을 헤아리십시오. 악의를 가진 무리의 헛된 선전을 믿어 여러분이 생명보다도 더 사랑하는 민족의 전도에 칼과 화약을 묻는 일을 하지 말으십시오.

3

비록 백보를 사양하여 만주에 있는 동포가 중국 사람들에게 폭행을 당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우리가 조선에 와 있는 중국 사람들에게 보복함으로 조금도 이로움이 없을 뿐더러, 도리어 핍박 받는 동포의 처지를 더욱 곤란하게 할 것이 아닙니까. 중국 땅에 있는 조선 동포가 핍박을 당한다는 소문을 듣고 우리가 이렇게 분개할진댄, 우리 조선 사람이 조선에 있는 중국 사람에게 폭행한 소문을 들으면 중국 사람들이 중국에 있는 조선 동포들에게 얼마나 분한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또 인도상으로 보더라도 호떡장수, 노동자 같은 중국 사람이 무슨 죄이길래 우리가 그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겠습니까. 이것은 도무지 불합리한 일이요 민족의 전도에 크게 해를 주는 일이니, 거듭 말하거니와 이러한 선전을 하고 폭동을 하는 이는 조선 민족의 적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동포의 뜨거운 민족애와 굳센 민족의식을 이용하려는 검은 손이 여러 가지 탈을 쓰고 각 도시에 횡행하는 모양이니 선량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동포여! 삼가고 서로 경계하십시오.

33. 己未年과 그 以前

<東光> 제3권 10호 (총26호 1931년 10월호)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말할 수 없소. 天道教와 耶蘇教 사이에 서서요. 그것도 어떻게 되어서 세상에 어떻게 전하여진 것이라고 진상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소? (하고 옛날의 활동을 추억하고 악착한 현실에서는 현실에서는 말 못하겠다는 듯한 氏의 심사는 기자의 상상뿐이 아닐 것이다. 기자는 자연히 말머리를 돌릴 수밖에 없었다) 그때 나는 中央學校에 先生(校長)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더구나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때의 일반민중의 人心이요? (묻는 기자가 실수다. 그때야 조선이 합방된지 불과 십년, 두사람이 만나도 새나 쥐가 없나 하여 음성을 낮추던 시절이다) 그때는 천지가 음울하고 음산한 기운이 들고 있었습니다. 思想의 統一, 思想의 통일이 그때의 가장 重要的 條件이었지요. 思想의 統一. (하고 다시금 입에 놓이는 그 思想의 統一이라는 것은 온 조선사람이 조선을 사랑한다는 民族主義思想을 가르침이다 - 記者註)

現在 나로서는 이 問題에 對하여 더 말할 수 없소. 다른 이 보고 부분적으로 물어서 종합해 보시오.(記者는 方向을 全然 轉換하여 氏의 學生時代를 물었다. 만세이전의 추억이 능히 만세당시의 氏의 활동을 추측하는 데 한 재료가 될 줄 안 까닭이다)

우리가 처음에 東京에 留學을 하던 때는 留學生이 한 百名이나 되었을까, 좀 더 되던 것 같습니다. 大韓興學會라는 것이 있었지요. 그 '韓'字가 합방이 없어지고 七, 八年後에 學友會라는 것이 생겼소. 《學之光》은 누구지요? 처음에 우리가 시작하고 金炳魯氏가 編輯兼 發行人이었던 것 같습니다. 創刊辭도 내가 썼지요. 一, 二號 난 후에 學友會로 넘겼다고 記憶됩니다 (이런 것을 쓰지 말라는 것을 다 쓴 文責은 勿論 記者에게 있다)

34. 《新東亞》 창간사

<新東亞> (1931년 11월호)

朝鮮民族은 바야흐로 大覺醒, 大團結, 大活動의 曉頭에 섰다. 事業的 大活動의 前驅는, 思想의 大醞釀은 民族이 包含한 特色있는 모든 思想家 經綸家의 意見을 民族 大衆의 앞에 提示하여 活潑하게 批判하고 吸收케 함에 있다. 이러한 속에서 民族大衆이 共認하는 가장 有力한 民族的 經綸이 發生되는 것이니 月刊《新東亞》의 使命은 正히 이것에 있는 것이다. 《新東亞》는 朝鮮民族의 前途의 大經綸을 提示하는 展覽會요, 討論場이요, 醞釀所다.

그러므로 《新東亞》는 어느 一黨 一派의 宣傳機關이 아니다. 名實이 다같은 朝鮮의 公器다. (下略)

35. 各界人士들의 멘탈테스트(說問)

<東光> 제4권 제1호 (총27호 1932년 1월)

應答 東亞日報社長 宋鎮禹

1. 世界的 錢慌 回復 -- 經濟狀況이 너무 混雜하니 推測할 수 없소. 回復되는 날 回復되겠지요.
2. 中國의 完全統一 -- 中國國民이 完全히 覺醒하고 民族的으로 決死的 態度를 가지는 날에.
3. 朝鮮사람 잘 살 날 -- 朝鮮이 完全히 自覺하는 날이겠지요.
4. 戀愛와 相對者 -- 別로 없습니다.
5. 運動과 娛樂 -- 運動은 別로 없소. 娛樂은 散步, 談話, 新聞, 雜誌.
6. 漢藥과 洋藥 -- 漢藥은 數十年 經驗方이니까 어느 程度까지 믿고, 洋藥은 學理的으로 된 것이니까 勿論 믿습니다.
7. (不得已하여) 略함.

8. 나의 할 遺言 --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9. 祕密 한가지 -- 말하면 벌써 祕密이 아니겠으니 祕密을 어떻게 말하오?
10. 來生과 因果應報 -- 現世도 믿기 어려운데 어떻게 來世를 믿습니까. 그러나 現世에 있어서 因果應報를 믿습니다.

36. 努力前進 更一步

<동아일보> (1932년 1월 1일)

1

새해가 온다 疾走하는 時間은 새로이 다시 우리네 二千萬을 喚起하는구나. 世界를 震憾하는 怒濤의 속에 動搖. 困弊. 驚愕. 難境의 一年은 豫期와 希望의 새날에게 자리를 사양하고 물러앉는다.

오는 한 해는 果然 世界人의 渴望하는 解決과 安定의 新時代를 가지고 오는가. 그렇지 아니면 難境은 다시 難境을 낳고 風雲은 다시 風雲을 吐하여 沮止할 바를 모르는 歷史의 轉換이 奔馬的 速力으로 進展하려는가. 人類社會는 자칫하면 文明의 고삐를 졸라 잡지 못하고 大波紋의 局面에까지 단숨에 굴러들지 아니할까. 이것이 現代人의 疑懼요, 苦悶이요, 恐怖다. 이것은 그러하러니와 돌이켜 우리의 苦悶은 그 무엇일 것이며, 그들의 希望은 또한 그 어디서 求할 것이냐. 思想의 激浪이 四面으로 우리 心境을 두드리고 隣人들의 제각기 살려는 活動이 우리의 眼界를 活氣 띠게 할 이때에 우리는 무엇으로써 새해의 부름에 應하여야 할까.

2

우리가 元氣 없으니 元氣를 振作함도 좋다. 우리가 勇力이 不足하니 勇力을 鍛鍊함도 可할 것이다. 우리가 團結力이 弱하니 團結을 굳게 함도 必要하다. 우리가 消極的이라면 좀더 積極的이 되자. 우리가 鎖沈하였으면 좀더 能動的으로 움직이자. 우리가 信念이 엷었으면 좀 더 確固한 信念을 把握하자.

그리하여 이 모든 것을 統括하고 이 모든 것의 前提로서 한마디로써 新年의 決心을 나타내자 하건대 오직 '一步'의 高貴한 價値를 把持하자 한다. 이 무엇을 말함이나. 退하여 지키며 一步를 辭讓치 아니하며, 나아가 取하며 一步를 全心으로서 取하자는 것이다. 窒息하는 退嬰的 零圍氣 속에 惡戰苦鬪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一步의 價値의 正當한 把持야말로 萬世 盤石의 強壘며 이 一步 又 一步의 不屈的 進取야말로 바위를 가르는 나무 '엄'의 偉大한 힘이다.

3

그렇다. 世界는 한 걸음씩 前進한다. 모든 動搖와 反動에도 不拘하고 그 行步는 能히 沮止할 者가 없을 것이다.

經濟的 困難은 一層 그 酷甚度を 加하고 있다. 모든 爲政家들의 '國民的', '舉國一致的', '緊急的' 必死努力에도 不拘하고 失業은 增加하고 通商은 減縮되며 個人의 貧困과 國家財政의 艱難은 아직도 그 復活의 前途가 渺然할 뿐이다. 마치 酷鞭下에 千里를 달린 驛馬와 같이 어떤 者는 이미 困疲하였고 어떤 者는 바로 困疲의 瞬間에 到達한 듯하다. 이 餘波는 本來부터 困窮한 朝鮮의 農村이 아니라 農村의 朝鮮을 掩襲하여 거의 復活의 餘地를 疑心하리만치 大衆的 生活을 困勞하게 하였다. 이것이야말로 再去年의 世界問題며, 去年의 世界問題며, 今年의 世界問題다. 이야말로 朝鮮의 當面한 모든 問題中에 가장 重要한 問題인 同時에 加一層 우리의 努力 精進으로써 局面의 打開을 要求하는 바이다.

4

政治的 葛藤과 産業의 停止狀態로 呻吟하는 歐洲의 白色人이나, 內亂과 飢饉에 苦楚를 겪는 亞細亞의 黃色人이나 世界 어느 구석을 勿論하고 人類 스스로 다스리지 못하는 文明의 痼疾은 白日下에 그 醜態를 暴露하고 있다. 黃金國 아메리카에도 失職者가 거리를 메우며 貧困의 印度가 殉教的 受難에 淪락거린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다. 이 時代는 努力 奮闘에 依하여 進展한다는 것을. 人類가 하루 한해 한 世紀에 進取하는 一步의 前進이야말로 歷史上 永久한 紀念塔으로 남는 것이다. 세계는 確實히 나아간다. 朝鮮도 確實히 나아간다. 一躍 九天의 野慾을 가지고 볼 때는 焦燥도 하려니와 꾸준한 努力으로 百年의 大計를 내다보는 者 一步의 無雙한 價値를 大覺할 것이다.

5

果然 우리는 지나간 한 해에 一步를 前進하였는가. 그렇다. 確實히 우리는 나아갔다. 受難中에 있으되 그 受難과 그 忍耐를 通하여 우리의 意識은 一層 堅固하여졌으며, 그 難中에 있어서 大衆의 覺醒은 一層 徹底하다. 嚴冬의 氷雪이 두터워져 새로이 움트는 生命의 씨를 자라고 있나니 그 나아감이 더디다하여 이를 근심할 것이냐. 오직 한 걸음 한 치의 걸음이 곧 人類社會의 大行進曲에 있어서도 그 歷史的 使命을 忠實히 하는 所以인 것을 알 뿐이다. 우리는 한 걸음을 귀히 여기자. 한 걸음의 진취를 今日의 의무로 하여 새로 맞는 한 해에다 努力 前進 또 한 걸음 地步를 꾸준히 쌓아 나아가자.

37. 經濟封鎖 實現 可能性

<東光> 제4권 3호 (총31호 1932년 3월)

(設問)

1. 對日本經濟封鎖는 實現될까?
2. 米國이 單獨으로 할까. 列國이 聯合으로 될까?
3. 萬一 實現된다면 그 實行方法 如何
4. 日本의 對策 如何
5. 그 效果 又是 影響 如何
6. 朝鮮에 미치는 影響 如何

列國이 聯合하여 日本에 對해서 經濟封鎖를 斷行하겠단가요? 그것은 그렇게 않습니다. 여러가지 理由가 있겠지만 萬一 經濟封鎖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日本이 받는 損害가 오직 큼니까. 日本이 그 損害를 豫想하고 列國이 聯合하여 聯盟規約 第16條를 適用하기까지 行動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東亞日報社長 宋鎮禹 談)

38. 國民黨 政府 依然繼續

<東光> 제4권 4호 (총32호 1932년 4월)

1. 中國은 이번 滿洲事件과 上海事變으로 因하여 人命과 財政上 其他 여러 가지로 巨大한 損失

을 보았지마는 精神上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中國은 國民黨과 廣東派, 共產黨과의 對立, 軍閥間的 軋轢 其他 여러가지로 內爭이 많고 統一上 큰 問題였었는데 이번 事件으로 말미암아 一層 緊張한 自覺을 일으키고 따라서 中國進路에 많은 影響을 주리라고 믿습니다.

2. 中國은 中國 自身の 힘으로야 그 基礎를 鞏固히 할 수 있겠지요. 政治上으로보면 亦是 親米, 親英의 傾向을 가질 것입니다.

3. 國民黨政府가 繼續될 것입니다. 왜 그런고하면 만일 共產黨이 成立된다면 그것은 資本主義國家 全部의 敵이니까 그렇게 되게 두지 않을 것이오, 國家主義黨이 갑자기 權力을 쥐게 되리라고도 생각되지 않습니다. 亦是 四, 五十年의 歷史를 가진 國民黨政府가 繼續될 것이오, 그것이 國家主義黨의 色彩를 띠게 될지도 모릅니다.

4. 中國國民의 態度如何에 依하여 決定될 問題입니다. 中國國民이 自覺하고 一致團結하여 善處하면 國際管理나 分割이 안될 것이오, 그렇지 않으면 如何한 運命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宋鎮禹 談, 文責在記者)

39. 無風的인 現下 局面打開策

- 文化運動과 消費運動에 注力

<三千里> 제4권 4호 (총25호 1932년 4월)

記者=오늘날과 같이 沈滯된 民族運動의 局面을 새로이 健全하고 活潑하게 打開하자면 어떠한 方略을 取하여야 하겠습니까. 勿論 우리들이 論議하자는 範圍는 合法運動에 限할 것이오, 그 方略도 現在 이 段階에 있어 必要한 그 點만을 取扱하자는 것이올시다.

宋=沈滯된 局面을 打開할 方略이 꼭 있지요. 그것은 第1着으로 또한 基準的으로 먼저 全民族의 力量을 한곳에 뭉쳤다 할 強力한 中心團體부터 結成시켜 놓는데 있지요. 그것이 없이는 政治運動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느 個人 個人끼리 백날 애쓰대야 그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오직 全民族의 意思를 代表한 큰 團體를 통한 運動이 없이는 龐大한 政治運動이란 일어날 수 없는 것이외다. 그런데 現在 우리 社會에는 이런 種類의 政治運動團體가 아직 없다고 봅니다

記者=그러면 그 中心團體의 結成이 可望이 없다고 보십니까?

宋=至難한 일로 압니다. 只今 現狀으로는 中心團體가 만들어지기가 썩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政治運動이 容易히 있어지리라고 觀測할 수 없습니다.

記者= 그 理由로는?

宋=中心團體가 이루어질 可能性이 없는 첫 理由로 조선사람의 理想이 統一되지 못하고 分裂되어있는 點이외다. 한쪽에는 民族主義가 盛하고 한쪽에서는 社會主義가 있고 또 한쪽에는 무슨 主義 무슨 主義하여 大小, 長短, 正反, 離合이 도무지 雜然 不一致합니다.

그러니까 비록 結社를 이루어 놓았다 할지라도 그는 必然的으로 分裂될 素因부터 內包하고 억지로 된 것이지요. 그래서 밤낮 內訌이 일고 成長이 없다가 畢竟에는 그 壽命이 길지 못하고 말지요.

記者=어찌해서 반드시 그러리라고 觀察하십니까.

宋=新幹會가 最近에 우리에게 보여준 가장 좋은 예이지요.(中略)... 자 보시오, 무슨 일을 하자면 우리들에게는 強力한 어떤 한 편이 嚴然히 臨迫하여 있지 않습니까. 그에 對한 對策에 우리의 智慧와 힘을 다 부여야 할 터인데 이와같이 內紛이 일어서야 오히려 그 內治하기에 바빠서 무슨일이 이루어질 틈이 생기겠습니까. 누가 무슨 일을 한다면 그것을 싸고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벌써 檢事나 判事와 같이 條目條目 치켜들고 批判하고 追窮하고 質問하고 檢討하기에 奔走합니다. 이

것은 전혀 思想이 不一致한데서 나오는 弊害이지요.

記者=그러면 그 思想의 不一致를 除去하려면?

宋=오직 民衆의 自覺과 文化程度가 向上되어야 하지요.

記者=다음으로 中心團體가 이뤄지지 못하는 둘째 理由로는?

宋=有志 有力한 人士들이 自重不動하는데 理由도 있겠지요.

記者=彈壓이 무서워서일까요.

宋=아니지요, 아직 無用한 犧牲을 避하기 爲해서지요. 즉 現下의 紛糾된 思想關係와 또는 複雜한 周圍環境의 事情이 많겠지요.

記者=그러면 民族運動의 今後의 코-쓰는 어떠하여야 하겠습니까?

宋=政治運動의 基本運動을 함에 있지요, 그 準備運動으로 文化運動을 不得已 일으켜야 하겠지요.

記者=文化運動이라면?

宋=教育機關을 充實히 하고 新聞 雜誌 講習會를 통하여 智識을 啓蒙시키고 또 消費組合, 協同組合運動을 일으켜서 經濟적으로 支撐하여 나갈 길을 열어주어 그래서 文化的, 經濟적으로 實際的 訓練을 하여야 되겠지요.

記者=그밖에는 또 길이 없겠습니까?

宋=現下의 環境에 있어서는 더 할말이 없습니다.

記者=무슨 運動을 일으키는데도 그렇겠고 무슨 局面을 打開하는데도 그렇겠지만 첫째 團體, 둘째 指導者, 셋째 돈이 必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團體結成에는 先生의 뜻을 알았습니다만은 둘째의 指導者 問題는 어떻게 보십니까. 最高統制機關에서 民立大學같은 것을 하루속히 再建하여 劃一的 人材부터 養成하여 내놓는 것이 急務가 아니겠습니까?

宋=勿論 必要하지요, 그렇지만 民立大學이 容易히 되겠습니까.

記者=金性洙氏가 다시 한번 鐵石같은 決心을 갖고 蹶起하여 준다면 밖에서도 그 事業을 能力 聲援하여 完成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宋=金性洙氏도 그런 생각이야 있겠지요, 그러나 그의 생각이 아직 公表되지 아니한 이상 나로서 무어라 말할 수 없습니다.

記者=셋째로 資金은? 지금 이렇게 假想할 수 있을 줄 압니다. 金性洙, 崔昌學, 朴榮喆 等 諸氏가 數百萬圓의 信託會社를 만들어서 金融組合, 殖銀, 東拓, 其他 資金業者의 손으로부터 全鮮 各處의 土地가 싼값으로 마구 放賣되어가는 이판에 그 땅들을 前記 信託會社에서 사들이거나 救助 方法을 열어주어서 그 農作物을 통하여 恒久的 돈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朝鮮農民의 經濟破滅을 막아주기도 하고.

宋=資本家の 利害가 一致한다면 그도 可能하겠지요. 그렇지만 돈있는 사람들도 서로 立場이 다르고 利害가 不一致하니까 實現되기 어려울걸요.

記者=北米 李承晚博士는 돈을 얻기 위하여 年前에 큰 商船 여러 隻을 사들여가지고 世界 各地로 돌아다니며 通商을 하고싶다는 計劃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만은 어쨌던 特異한 方策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愛蘭서는 科學者를 시켜서 金鑛을 많이 發見 採鑛하여 그것으로 資金을 썼다고 하지 않습니까.

宋=그러나 그 點이 그렇게 杞憂할 거리가 아니리라고 보여집니다.

40. 自由權과 生存權

<三千里> (1932년 4월호)

自由權과 博愛平等

人類文化의 進歩는 自由權 發展時代로부터 生存權 擴充時期에 入하였다. 하나는 十八世紀의 佛蘭西革命을 中心으로 世紀劈頭의 露西亞革命을 비롯하여 점차로 그 潮流가 波及케 한다. 要컨대 十九世紀를 自由權發展의 全盛時代라면 二十世紀의 劈頭 지금부터는 生存權 擴充의 專力時期라 할 것이다.

대개 人類로서 自由權이 없으면 徹底히 個性의 能力을 發展할 수 없으며 또한 生存權이 없으면 協同的 最高文化를 完成할 수 없을 것이다. 이 兩大權利의 擴充發展에 依하여 於是乎 人類社會에 平和의 曙光이 照臨될 것이며 또한 最高의 文化가 完成될 것이다. 언제든지 人類의 歷史는 循環이 아니라 進化이다. 過去 十九世紀의 極端的으로 發展된 自由權이 政治的으로는 모든 改革을 斷行하였으나 經濟的으로는 生活上 機會均等を 破壞하였으며 階級的 觀念을 挑發케 한 것이 事實이었다. 이곳 自由發展權의 餘弊를 匡救하기 위하여 自然的으로 社會 最後의 生存權이 絶叫되게 된 것이다.

그렇다고 兩大思想이 互相衝突되고 撞着이 되는 것은 아니다. 當初에 政治的으로만 機會均等を 絶叫하던 世界人類는 一轉하여 經濟的으로도 그 社會均等の 必要를 覺醒한 까닭이다. 그러므로 이 兩大思想은 鳥의 兩翼과 車의 兩輪과 같이 互相提携가 되어 發展하여야 될 것이다. 自由權이 없는 곳에 個性을 擴充할 수 없으며 生存權이 없는 곳에 平等的 文化를 完成할 수 없을 것이다. 要컨대 問題는 自由權의 病的 發展, 곧 不合理 無節制한 資本主義를 咀呪할 뿐이다. 換言하면 過去 封建時代에 特權階級인 武士貴族의 手中에 掌握되었던 政治的 權利가 自由權 發展에 依하여 一般 民衆에게 均布된 것 같이 現代의 資本階級の 獨占된 經濟的 權利가 生存權의 覺醒에 依하여 平等的으로 分配될 것도 必至의 運命이다. 일로보면 自由權은 政治的 生存權이며 生存權의 經濟的 自由權이다.

封建時代에 있어서 生存權이 없고는 經濟的 自由를 保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吾人이 自由權에 있어서 排斥코자 하는 點은 博愛平等의 大理想을 無視하는 不合理 放縱的인 所有慾이며 또한 生存權에 있어서도 相互扶助의 原則을 離脫하는 壟斷的 利己心인 怠慢性을 廢棄치 아니하면 아니될 것이다. 封建時代의 無理한 神權說이 政治的 自由思想의 發展을 阻害한 것과 같이 現代人의 錯誤된 所有慾의 觀念이 얼마나 經濟的으로 生存權의 擴充을 防止하게 된 것을 알 것이다.

그러므로 吾人은 博愛平等의 前提下에서는 自由權과 生存權이 表裏가 될지언정 背馳는 되지 아니할 것이며 並行이 될지언정 相悖가 되지 아니할 것을 斷言코자 한다.

吾人은 前欄에서 自由權과 生存權이 그 關係가 表裏가 되고 그 發端이 先後가 될지언정 人文發達의 途程에 있어서 또한 博愛平等의 理想에 있어서 그 出發點이 同一한 것을 斷言하였다. 그러나 現下의 實際的 事情에 對照하여 보면 自由權의 極端的 發展이 經濟上으로는 世界大衆의 生存權을 威脅하는 同時에 모처럼 얻었던 政治的 自由權까지 蹂躪하게 된 奇現象을 發見하였다. 이것이 果然 어떠한 矛盾이며 어떠한 撞着인가를 徹底히 檢討할 必要가 있는 줄로 믿는다.

元來 自由權이라면 言論自由, 出版自由, 集會自由, 信教自由 이 모든 自由를 意味하는 것이다. 이것이 다 佛蘭西革命 當時의 人權宣言書에 依하여 闡明되었고 또한 그 後 續出된 各國의 憲法으로 確保되었다. 그러나 博愛平等의 大理想은 다못 政治的 自由 곧 形式的 自由에만 表現되었고 그 裏面에 있어서 實際的 自由 곧 經濟的 方面에는 何等の 徹底的 保障이 없었던 것이 事實이었다. 이것은 博愛平等의 大理想의 自體的 缺陷보다는 佛蘭西革命 當時에 이 理想을 高調하였던 革命群이 그 立場과 環境이 中産階級の 井底에 潛在된 까닭이었다. 이리하여 過去의 特權階級에 附屬되었던 모든 自由를 社會的으로 政治的으로 解放되며 保障하면서도 經濟方面에 至하여는 依然히 自己네의 立場과 環境에 便利하도록 努力하였었다. 이곳 所有權 保障은 곧 資本의 擁護이다.

資本과 勞働이 對立된 社會에서 自由의 競爭을 許하면 資本主義가 그 勢力을 專橫할 것은 勿論이다. 어찌 그러나 하면 資本은 先天的이오 勞働은 後天的이다. 그러므로 競爭의 出發地가 벌써 水平線에 立치 아니할 것은 智者를 不得하여도 可知할 것이 아닌가?

어찌하여 出版, 言論, 集會의 모든 自由가 私的 權利가 아니오, 公的 權利인 以上에 何特 所有 權만이 私的 權利에 附屬할 理由가 있는가? 이 地球는 人類의 共有物이다. 共有物인 以上에는 共同이 開拓하여야 할 것이며 共同히 管理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區劃하며 이를 私有하는 것은 正義의 悖戾며 人道며 反逆이다. 하물며 現在의 文化의 總和는 全人類의 共作이다. 그러므로 그 文化의 享樂은 共受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서 社會의 連帶的 責任感이 生하며 平等的 觀念이 發하며 勞働崇拜의 眞理가 存할 것이다. 그리고 보면 個人으로 社會에 對하여 最少限度에 있어서 最後의 生存權을 主張할 理由가 自任하며 社會에서도 各個의 生存을 確保할 義務가 固有할 것이다. 於是乎 博愛平等의 大理想이 實現될 것이다. 精神的으로 各個의 自由權을 保障하는 것과 物質的으로 各個의 生存權을 保障하는 것이 그 原理에 있어서 何等の 差異가 있으랴!

民族運動과 社會運動

그러면 民族運動과 社會運動의 關係는 如何한가. 近代史를 按하면 前者는 自由權運動으로 그 序幕을 開하였고 後者는 生存權運動으로 그 端緒를 發하였다. 그러므로 그 對抗하는 方面이 武力或은 資本, 精神 或은 物質의 差異는 있으나 그 解放의 精神에 있어서는 모두다 自由權과 生存權의 發動인 것은 不誣할 事實이다. 그러나 吾人은 自由權을 要求하는 民族運動이 生存權을 아울러 主張하게 되고 또한 生存權을 主張하는 社會運動이 아울러 自由權을 主張하게 된 것을 看破치 아니하면 아니될 것이다. 어찌 그러나 하면 最初의 民族運動은 強大民族의 武力征服에 依하여 그 傳統과 自由를 蹂躪하며 無視한 結果 그 征服에 反抗하며 敵對하는 것이었었다. 그러므로 古代의 征服은 '誅其君吊其民'한다는 것이 政略이었었으나 近代에 入하여 所謂 先進國家의 資本主義의 成熟됨을 따라서 그 政略이 一變하여 一層 巧妙하고 惡辣하게 된 것이 事實이다.

이리하여 征服보다 懷柔며 威壓보다 搾取이다. 換言하면 搾取하기 위하여 征服하는 것이며 懷柔하기 위하여 威壓하는 것이다. 이것이 武力的 政治的 征服이 經濟的 資本的 征服으로 變幻된 것이 아닌가. 보라, 現代의 征服된 弱少民族으로 自由의 苦痛보다 生存의 威脅이 얼마나 悲絶慘絶한가. 印度의 國產運動과 支那의 關稅問題가 모두 그 무엇을 意味하는 것인가?

或은 征服國家의 食糧問題를 위하여 或은 資本國家의 商工業의 販路와 原料를 위하여 弱少民族의 膏血은 거의 極端의 貧血症에 걸리게 된 것이다. 이리하여 弱少民族들은 大部分이 無產群이며 그 中에 極小數의 資本主義의 三大支柱인 自由 交通 金融의 保護가 없는 資本階級도 早晚間 無產群의 運命에 沒入될 것은 明瞭한 事實이다. 이에서 征服의 怨恨에서 自由를 부르짖던 民族運動도 遽然히 生存權까지 絶叫하게 된 것이 아닌가.

弱少民族이 반드시 民族的 感情을 가진 것이 아니라 多民族으로 壓迫과 搾取를 當한 까닭이다.

그다음에 現代資本主義의 發展을 따라 大規模의 産業機關이 成立되었다. 幾萬 幾千萬의 男女老弱이 牛馬的 勞役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繼續하여 그 縲命을 僅保하는 中에서 그 生産의 大部分의 利潤이 高襟遊手의 小數階級の 橫領이 되는 同時에 生死疾病에 自己들의 生存的 保障이 없는 無常한 運命을 自覺하게 되었다. 이에서 多數로써 小數를 對抗하며 團結로써 專橫을 牽制하려 하는 것이 이 곧 先進社會의 運動의 現狀이다. 이리하여 或은 組合運動으로 或은 同盟罷業으로 或은 暴力으로 그 鋒銳을 露出하게 되었다. 勿論 暴力으로써 最後의 勝利를 得하여 全世界를 驚異케 하였던 勞農 露西亞도 없지는 아니하나 機會와 環境이 다르며 또한 그 社會의 文化程度에 따라서

合理的 運動의 傾向이 流行하는 것도 不誣할 事實이다. 英의 勞動黨 內閣과 日의 無産政黨의 出現은 다 이것을 意味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보면 合理的 運動에는 團結이 必要하고 團結의 完成에는 組織이 必要할 것이다.

이어서 그 團結을 計劃하고 그 組織을 完成하는 前提로 또한 自由權이 必要할 것도 勿論이다. 換言하면 生存權을 主張할 만한 自由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社會運動에 있어서도 自由權을 아울러 主張치 아니하면 아니될 것이다. 하물며 人性的 根本에 있어서 自由와 生存이 아울러 必要한 것이라.

現代의 生存權의 保障을 得한 赤露大衆의 不平이 아니고 무엇인가. 理想實現의 過渡時機에 있어서 獨裁와 專制가 不可避할 現象이나 그 組織을 完成할 때에 大衆의 自由保障이 또한 問題가 될 것이다. 이로 보면 自由思想에서 出發된 民族運動이 生存權化하여 가고 生存意識에서 社會運動이 自由權化하여 가는 것이 現下의 大勢라 한다.

우리는 猛省하자

사람으로서 自由權이 없으면 偶像이며 奴隸다. 換言하면 人格의 內容은 自由意思가 重要な 要素이다. 보라! 이 地球 위에는 세가지 現象이 있다. 한가지는 無意識的으로 被動的으로 東移西轉하는 木石이 있으며 또 한가지는 意識은 있으나 目的이 없이 他力の 發動에 依하여 左牽右引되는 禽獸가 있다. 그 다음에는 意識的으로 自動的으로 어떠한 目的을 向하여 自己의 運命을 自己가 開拓하려는 人類가 있다. 이곳 人類가 萬物의 支配者가 되며 宇宙의 主人公이 된 까닭이다. 그러면 우리는 無意識的으로 移轉되는 木石이 아니며 또한 他力에만 依하여 蠢動하는 禽獸도 아니다. 적어도 피가 있고 눈물이 있고 또한 그 中에도 가장 靈妙한 自由的 心理를 가진 사람이다.

어찌하여 사람으로서 無意識의 存生을 許하며 또한 他力的 蠢動을 自認하라. 차라리 自由를 求하여 얻지 못하면 죽음을 求하여 얻을 것이다. 이 곧 사람이 사람된 本領을 發揮하는 것이 아닌가. 自由없는 곳에 幸福이 없으며 歡喜가 없으며 向上이 없으며 發展이 없는 것이다.

아! 自由, 自由, 오직 이 人類의 神象이며 우리의 生命인 것을 徹底히 猛省하자. 그러나 不合理的 自由는 往往히 平等을 破壞하며 正義를 無視한다. 그러므로 生存權의 保障을 基調로 하고 內容으로 하는 自由가 아니면 特殊階級の 專橫放縱을 助長할 뿐이다.

獨哲 칸트는云하였다. 東洋에 있어서 가장 完全한 人格의 所有者는 君主뿐이라고. 이것은 古代의 君主가 獨裁와 專斷으로 萬人の 自由를 蹂躪하여 써 一個人의 橫暴放縱을 如何히 自矜하였던 것을 可知할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完全한 自由는 平等에 있고 平等의 基調는 生存權 保障에 있을 것이다. 生存權이야말로 平民文化의 土臺가 될 것이며 核子가 될 것이다.

生存權의 保障없는 곳에 餓孥가 生하며 竊盜가 起한다. 人類社會에 餓孥와 竊盜가 繼續되는 날까지는 萬人平等의 自由와 平和를 保持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보면 우리가 새 生命을 開拓하고 새 文化를 樹立하는 前提로 徹底히 生存權의 保障을 絶叫치 아니하면 안될 것이다.

兄弟여, 우리는 現代文明에 뒤진 사람들이다. 이따므로 深刻的 悲哀가 있고 深刻的 悲哀가 있으므로 徹底히 奮發하여야 하겠다. 過去 十八世紀로부터 二十世紀 劈頭에 이르기까지 佛蘭西를 비롯하여 全世界에 波動되는 自由의 理想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一場의 幻夢이며 二十世紀 劈頭的 露西亞를 비롯하여 提唱된 生存問題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직도 觀念의 遊戲에 不過하다.

自由가 없고 生存의 保障까지 없는 우리가 어찌하여 살잔 말인가. 우리의 앞에는 危壓의 泰山이 屹立되었고 우리의 뒤에는 餓孥의 深淵이 展開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다. 사람인 까닭에 鑿山通道도 할 수 있고 碧海桑田도 變할 수가 있을 것이다. 美人 에머슨은云하였다. 人類의 文明은 心力의 發展이라고. 果然 그렇다. 우리의 다 못가진 바는 心力뿐이다. 心의 力を 確立하고 心의 力を 結合하여 써 二千萬心을 一心으로 하여 우리의 目的을 達하기까지 努力하자. 이에 人間

味が 있고 또한 人生의 價値가 發揮된다.

41. 《新家庭》 創刊辭

<新家庭> (1933년 1월 창간호)

(註:오늘날 《女性東亞》誌의 전신인 《新家庭》의 창간사이다.)

우리는 진실한 의미에서 가정생활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리고도 이 사실에 관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가정이란 것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의의와 가치가 있는 것인 줄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 가정문제를 중대시 아니할 수가 없게 됩니다.

가정생활의 불완전이란 것은 그 결과가 단순히 가정생활 그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불행의 남은 물결이 그대로 사회생활에까지 밀려 점점 견잡을 수 없는 큰 현상을 지어내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사회가 남의 앞에서 떨쳐나지 못하고 남보다 기름지지 못한 것을 생각할 때에는 하나 둘이 아닌 여러가지 연유를 말하게 될 것이지만 그 위에 무엇보다도 사회의 기초를 지어 있는 이 '가정'의 모든 문제를 제시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새 사회를 만들자, 광명한 사회를 짓자 하는 것이 우리의 다시없는 이상이라 할 것이면 먼저 그 근본적 방법인 점에서 새가정을 만들고 광명한 가정을 지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가정을 새롭고 광명하게 만드는 것일까? 이것이 우리의 긴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인격문제, 교육문제, 경제문제, 취미문제 등 여러가지 세분할 이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아 각각 그 책임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만은 거듭 말할 필요가 없는 일인 줄 압니다. 그런데 가정문제의 모든 책임이야 그 가정의 전원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그중에도 특별히 주부된 이가 가장 그 무거운 짐을 많이 지고 있느니 만큼 우리는 가정 문제를 생각할 때 누구보다도 먼저 주부된 이를 목표로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혹 세상이 가정주부의 지위와 그 사회적 가치를 잘못 인식하여 남자에 대한 한개의 종속적 존재로만 말하는 이가 있으나 그는 결코 그렇지 아니합니다. 만일 '조선'이라는 사회를 二千萬이라는 개인 분자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 하면 꼭 같은 이론으로 四百五十萬이라는 가정분자를 떠나서도 설명할 길이 없을 것이 물론입니다. 한 가정이 새롭고 광명하고 정돈되고 기름지다고 하면 그것은 그 개인 그 가정만의 행복이 아니라 그대로 조선사회 조선민족의 행복으로 볼 것입니다. 그렇거늘 어찌 주부의 지위와 그 가치를 예사로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조선사회의 새로운 건설을 꾀하는 그 방법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동시에 이 가정문제라는 것을 중대시하는 의미에서 이 <신가정>을 발간케 된 것입니다.

내용에 있어 가정의 실제문제와 그 상식, 자녀의 교육과 그 방법 등 가정주부의 필수 지식을 전하는 것이야 물론 그밖에도 각방면의 상식을 구비케 하고자 하는 이 모든 의도가 필경은 지식적, 실제적으로 가정을 향상시키려 하는 한 뜻에 있을 따름입니다.

사회에 대한 본지 발행의 미충이 얼마만큼 클지 적을지는 우리의 지금 점칠 일이 아니요, 다만 이 충심에서 주저없이 첫 발걸음을 내딛을 뿐입니다. 이에 임하여 만천하 여러분의 도움과 바로잡음이 끊이지 말아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42. 역센 朝鮮, 굳건한 民族

〈新東亞〉 卷頭言(1934년 3월호)

쏘쿨 運動은 체코슬로바키아 民族을 살려 낸 基礎가 되고 原動力이 되었다. 肉體적으로 衰弱한 民族은 精神적으로 健全하기를 바랄 수 없으며 偉대한 文化를 創造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다.

朝鮮民族도 옛날 그 威名을 中外에 날리던 時節에는 朝鮮民衆의 體格 또한 健壯했었음을 볼 수 있다. 不幸히도 李朝 五百年의 文弱과 沈滯는 朝鮮民族으로 하여금 肉體적으로 退殘케 하는 同時에 그 不可避的 結果로는 民族文化 全般에 巨할 退步를 보게 만들어 놓았다. 이것을 생각할 때에는 實로 痛嘆을 마지 아니하는 바이다.

朝鮮에서 새로히 스포츠熱이 旺盛히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實로 最近 數十年間의 일이다. 이 짧은 동안의 努力이나마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이 兩 三年間에 이르러서는 그 結實을 나타내기 시작하여 朝鮮人 스포츠界도 그 方面에 있어서 國際的 活躍을 보기에 이르른 것은 實로 慶賀할 일이고 또 기뻐할 일이다. 그러나 아직도 한가지 유감인 것은 朝鮮 스포츠界가 二, 三의 國際的 選手를 내놓았음에 不拘하고 一般的 民衆保健體育의 普及은 아직도 前途遼遠한 感이 있는 것이다. 이 點은 特히 朝鮮 스포츠界에 從事하는 先覺者 諸位들의 覺醒을 促하는 바이다. 二, 三人의 國際的 選手도 貴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難하지 않은 것이 아니지마는 民族 無窮의 繁榮을 꾀하는 데는 그것보다도 大衆의 保健問題가 더한층 時急한 것이다.

民族的 保健體育의 普及을 促進하는 原動力을 얻기 爲하여는 무엇보다도 먼저 全朝鮮 體育團體의 統一을 渴望하는 바이다. 全朝鮮을 돌아보아 거의 洞里마다 體育을 獎勵함으로 目的을 삼은 體育團體들이 임의 組織되어 活動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유감된 일로는 그들 團體가 아직도 모두 分散되어 있어서 아무런 統一, 아무런 連結도 서로 없는 일이다. 國際的 選手까지 낸 社會에서 한개의 統一된 體育團體조차 없다는 것은 實로 부끄러운 일이다.

〈新東亞〉는 이번 스포츠 特輯을 發行함에 際하여 朝鮮體育團體 統一案을 提案하는 바이니 三千里에 널린 各體育團體로부터의 共鳴이 있어지기를 바라는 바이다.

끝으로 二千三百萬 民衆 앞에 삼가 올리고자 하는 말은 體育界뿐 아니라 우리 民族의 生活 全般에 있어서 오직 스포츠맨십 精神을 굳게 把握하고 스포츠맨십으로써 生活의 指標를 삼기를 바라는 일이다. 個人的으로나 民族的으로나 스포츠맨십을 잃지 않아야 그 將來가 囑望되는 것이다.

역세계, 굳세게, 快活하게, 남보다 나으려고, 이기려고, 그러나 스포츠맨답게, ...이러한 健實한 生活를 目標로 다같이 突進하기를 切望하는 바이다.

43. 이 江山 이 民族

〈新東亞〉 卷頭言 제4권 7호(1934년 7월호)

人類文化의 發源이 山岳과 江河에 있음은 다시 말할 것이 없거니와 朝鮮의 上下 半萬載에 巨한 長長한 民族文化史를 開闢하러 할진대 또한 域內의 山川을 먼저 알아야 하고 또 그것이 곧 文化史 그것임을 볼 것이다.

檀君으로부터 扶餘로, 韓으로, 肅愼으로 高句麗로, 新羅로, 伽倻로, 百濟로, 靺鞨로, 渤海로, 高麗로, 金으로, 女眞으로, 滿洲로, 朝鮮으로, 朝鮮民族에 關係된 모든 歷史가 다 山岳과 江流를 根據로 하고 胎盤으로 하고 또한 同時에 舞臺로 하고 거기서 發展하지 아니한 것이 없다.

古代뿐만이 아니라 歷史를 통하여 今日에 至하기까지 실상 따져보면 山岳과 江河 그것이 一切의 樞機가 되고 一切의 要素가 되고 一切의 生分이 되어 文化的 大 덩어리를 運行시키고 發育시키로 蘇潤시켜 온 것이다.

實로 山岳은 朝鮮民族의 信仰的 大願佛이요 江河는 朝鮮文化의 知識的 大師匠이라고도 볼 것이다.

風雨에 꺾인 나무 山上에 쓰러진 거기 그 밑에서도 嚴肅한 朝鮮文化의 部分 部分을 確實히 보는 것이요, 波浪의 파낸 흙이 河邊에 밀린 거기 그 속에서도 久遠한 朝鮮精神의 句節 句節을 分明히 듣는 것이다. 그러므로 山이 다만 山이 아니며 江이 오직 江이 아니어서 그것은 그대로 歷史의 出發點이자 祕機요, 文化의 入門이자 寶庫이다. 그리하여 朝鮮의 山岳과 江流를 더듬지 않고서는 거기 끼쳐진 朝鮮民族의 信仰 習尙 乃至 學問 藝術 政治 等 一切의 文化的 本源 및 特質을 알 길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現代의 朝鮮人은 山川巡禮 또는 山川研究의 熱과 誠이 끊기어 저절로 民族의 歷史와 文化를 蕪雜 속에 그냥 버리며 晦冥한 채 그 發闡할 期約이 아득해지고 말았다. 이렇게도 이에 對한 用意가 없고 關心이 끊긴 것은 그 結果를 적은대로 멈추지 아니하고 自家의 精神과 現實 그 生活의 全體에 影響을 波及한 것임을 본다. 스스로 不忠不義하고 不親不實함이 이에서 더할 수 있으랴.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朝鮮本來의 文化를 整頓樹立한 然後에야야 正明한 認識을 얻어 그 나아갈 길을 찾으리라고 보는 것이다.

이제 庚炎을 당하여 學窓과 其他 業務를 잠깐 버리고 休養하는 때에 親히 이 山岳을 踏破하고 이 江河를 涉盡함으로써 朝鮮文化의 根基와 色態를 體認하기를 希願하는 本意에서 우리는 朝鮮山水 特輯號를 刊行케 된 것이다.

이것이 雜誌인 만큼 그 全貌를 說盡키 어려움은 母論이나 簡單한 紹介中에서도 所得이 있을진댄 그로써 幸을 삼고자 한다.

44. 蔣介石장군이 大統領됨이 ‘東洋大勢’에 좋을까?

<三千里> (1936년 4월호)

<設問>

最近 南京의 蔣介石 政權을 一地方政權으로 見做하려는 傾向이 있는 反面에 蔣政權이야말로 西南, 東北까지 實質에 있어 號令하고 있다고 보는 傾向도 있다. 統一政權이나 地方政權이나 蔣將軍을 싸고도는 中國 統一問題도 注目거리거니와 果然 蔣介石氏가 軍事, 行政의 兩大 權限을 完全히 手中에 넣어 一國의 元首인 大統領에 오르느냐 하는 것도 몹시 注目을 끈다. 萬一 大統領이 된다면 東洋大勢에 어떠한 利 不利를 끼치는가. 이것은 隣接한 우리네들 東洋 諸人民의 한번의 檢討거리가 아니될 수 없다.

(中 略)

東洋政局에 別無變動<應答>

蔣介石氏가 大統領으로 就任한다고 하더라도 그 勢力이 猝地에 增進될 것은 아닌 故로 中國自體나 東洋政局에 別로 큰 變動이 있으리라고 생각할 수는 없겠습니다.

45. 讀書雜記

讀書은 人生의 糧食이다.

讀書을 모르는 사람은 오늘의 세상에서는 아무런 存在조차도 없을 것이다.

나는 人生의 糧食으로서의 讀書도 껍이나 즐겨하지만 그저 어쩐지 ‘책’이라면 無條件하고 사랑하고 싶어하는 根性을 本來부터 가지고 있는 듯싶다.

책을 사랑하는 마음, 책에 愛着을 두는 마음은 내 머리에서 언제든지 떠날 듯싶지 않다. 그러나 내가 타고난 이 天性은 자주 周圍에 벌어지는 많은 障害에 부딪치는 때가 많이 있다. 이럴 때마다 나는 더한층 讀書에 대한 愛着을 느끼게 된다. 나는 어려서부터 책과 씨름하여온 몸이다. 아직도 별거숭이 六, 七歲에 嚴父의 膝下에 두 무릎을 꿇고 앉아 종아리를 맞아 가면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는 한시도 ‘책’과 멀리한 때가 없다.

책과 사귀이기 五十年間, 나로서는 比較的 廣範圍의 書籍을 뒤적여 보았었다. 在學時에는 원체 法律科를 專攻하였더니 만치 法學에 大部分의 힘을 기울였던 것은 사실이나 自然科學 修養書籍등에 이르기까지 이모 저모로 여러 方面의 책을 보아온 셈이다. 그중에는 머리속에 아직까지 남아 있는 뜻깊은 句節도 많이 있고 내 心琴을 울리던 위대한 어른의 말도 많이 있었다.

이제 조용히 앉아 讀書 五十年間을 돌이켜보면 대체 네 갈래로 區分해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 어려 漢文學을 工夫하던 때일 것이다. 이때에는 孔孟의 儒敎思想과 史略 等 支那史에 關한 것들을 읽었으나 한마디로 말하자면 沒批判的 無咀嚼的 讀書方法이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의 모든 部門의 讀書는 이 漢學修業의 첫 課程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고 原動力이 되었다는 것은 지금도 가끔 새삼스러우리 만치 깨닫게 됨이 사실이다.

둘째 = 學校時代인데 中學時代부터 나는 特히 歷史學에 많은 關心을 갖게 되어 學校에서 배우는 歷史時間도 있지만 敎科書 以外의 歷史書籍에 많은 힘을 기울였었고 大學시절에는 法學을 專攻했던 관계로 法律書籍을 주로 보아 왔지만 史學에도 늘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밖에도 文藝書籍을 또한 熟讀하게 되어 톨스토이의 <人生>, <戰爭과 平和> 등은 아직도 熟讀하던 그때의 일이 記憶에 새로운 바가 많다.

셋째 = 在監時代를 말하게 될 것이다.

이 時期가 나에게 가장 조용히 讀書에만 마음을 쏟릴 수 있던 時期였다. 또한 머리를 가다듬고 思索과 熟考를 거듭해 볼 수 있었던 때도 이 在監時代라고 하겠다. 이때에 나는 비로소 커다란 공부를 할 수 있었다. 宗教에 아무런 知識도 못가졌던 나는 처음으로 基督教과 佛敎가 어떠한 것인가를 알게 될 機會를 얻게 되었었다.

佛經을 通讀하였고 舊約全書와 新約全書를 모조리 읽을 수 있었다. 나는 여기에서 아직까지 밟아보지 못한 未開의 땅을 비로소 開拓하는 듯하였다.

넷째 = 그뒤로부터 最近에 이르기까지인데 역시 현재의 생활이 생활이니 만치 여러 方面의 書籍을 많이 보게 되지만 주위의 바쁜 일로 말미암아 讀書할 틈을 比較的 많이 얻지 못하는 것이 最近의 사정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틈만 있으면 修養書籍도 자주 뒤져보지만 史學도 펼쳐보게 된다. 그밖에 月刊 雜誌와 新聞 等은 朝鮮에서 나오는 것이나 東京方面에서 나오는 것은 대강 題目만이라도 훑어보게 되고, <中央公論> <改造> 等은 比較的 每月 손에 쥐어보게 된다. 나는 오늘날까지 책과 벗삼아오는 동안 知識의 無窮함을 깨닫는 동시에 ‘책’이란 얼마나 우리 人類文明에 커다란 存在인가 함을 느끼게 된다. 모든 책(書籍)은 文明의 母胎이다.

文明으로 한걸음씩 달음질치는 오늘의 人類로서 어느 누가 讀書를 멀리할 것인가? 책을 사랑하는 마음, 이는 人類生活에 있어서 가장 가륙하고 아름다운 必源일 것이다.

46. 漢詩 1首

詩欲驚人恒固癖 (시는 사람을 놀라게 하려고 항상 고집하는 버릇이 있으나)
酒雖病我更多情 (술은 비록 나를 병들게 하여도 다시 다정하구나)

47. 臨時政府 歡迎辭

<東亞日報> (1945년 12월 19일)

오늘 大韓民國 臨時政府 諸位를 맞이하여 歡迎會를 開催하게 된 것은 우리 三千萬 民衆의 無限한 感激으로 여기는 바이며 또한 이자리에서 歡迎의 辭를 올리는 本人의 無雙한 光榮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생각컨대 庚戌以來 倭敵은 이 땅을 유린하고 이 百姓을 苛虐할지라 政府 諸位는 死線을 뚫고 怨淚를 머금은 채 海外로 亡命한지 三十六個 星霜, 雨慘風中에도 一意初一念을 굽히지 않고 오직 祖國의 光復을 爲하여 毅然히 血鬪勇戰하여 왔습니다. 特히 一九一九年 民族自決의 時局에 따라서 三千里 坊坊曲曲에 充溢한 獨立萬歲소리에 呼應하여 李承晚博士를 初代 大統領으로 推戴한 大韓民國 臨時政府의 樹立은 世界에 우리 民族의 存立을 宣揚하였고 一九三二年 四月 二十八日 上海事變이 終局을 告할 즈음 金九主席의 用意周到한 指導下에 義士 尹奉吉先生의 舉事는 倭將 白川을 爲始하여 文武 巨頭를 爆死 或은 重傷케 함으로써 우리 民族의 聲價를 天下에 周知시켰습니다. 어찌 그것뿐이겠습니까. 勇略 無比한 義血團의 活動을 비롯하여 許多한 革命的 事實은 마디마디 民族鬪爭의 歷史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點들을 想起할 때 金九主席 李承晚博士를 爲始하여 政府 諸位의 우리에게 준 貢獻이야말로 實로 絶大하다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오늘 三千萬 民衆이 政府 諸位를 맞아 歡呼하는 것은 決코 偶然한 일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內外情勢를 環視하건대 우리나라는 八月 解放된 以來 獨立이 約束된 채 疆土는 斷絶되고 思想은 分裂하여 容易히 統一되고 獨立될 氣運이 看取되지 않을 뿐더러 聯合國의 分割 軍政은 國際적으로 微妙한 動向을 示하여 完全한 自主獨立의 達成에는 아직도 前途가 요원한 感이 없지 않나니 政府 諸位를 맞이하여 歡迎하는 이날에 있어서 이러한 報告를 하지 아니할 수 없는 우리는 眞實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事態는 時急한 解決을 要하니 그 解決方法은 오직 한가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一九一九年 以來 우리 民族의 政治力의 本流로서 信念해 왔던 臨時政府가 中核이 되어서 모든 亞流 支派를 求心的으로 凝集함으로써 國內統一에 絶對의 領導를 發揮하는 동시에 우리의 自主獨立의 能力을 國外에 宣示하여 急速히 聯合國의 承認을 要請하지 않으면 아니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政府 諸位의 政治的 力量과 手腕에 期待하는 바 크다 하겠거니와 우리도 政府 諸位의 賢명한 指導에 協力함으로써 國民으로서 擔負하여야 할 實務에 絶對로 忠實할 것을 盟誓하는 바입니다. 燕辭로서 歡迎辭에 대신합니다.

大韓民國 二十七年 十二月 十九日

48. 最後까지 鬪爭하자

<東亞日報> (1945년 12월 29일)

國民大會準備會 委員長 宋鎮禹氏談

우리가 가진 半萬年 歷史와 지나온 半世紀동안 民族 解放을 위한 血鬪는 世界 政局에 대하여 朝鮮民族을 完全 解放하여 自主獨立시키지 않으면 東洋의 眞正한 和平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敎訓하였고 따라서 朝鮮民族은 他民族의 支配나 託治 又は 國際公管을 받을 民族이 아니라는 것도 天下가 周知하게 된 事實이다.

그러므로 카이로 포츠담 國際會議에서도 朝鮮獨立을 宣言케 된 것이다.

如斯한 國際信義를 無視하고 世界史的 發展을 阻害하는 朝鮮의 託治云云은 斷然코 排擊치 않으면 안된다. 우리는 男女老幼를 莫論하고 三千萬이 一人도 빠짐없이 一大 國民運動을 展開하여 反對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우리의 正當한 主張을 爲하여 이 疆土 위에 있는 同志는 피한방울이 남지 않도록 決死的 勇鬪로서 우리가 當當히 가져야 할 民族主權을 찾아야 할 것이다.

資 料

1. 中央學校訪問記

<靑 春> 제8호 (1917년 9월호)

五月 十九日 土曜는 今年에 春服을 처음 입은 날이라 새 裝束한 새 精神을 무엇으로 값을 할고 하다가 새 氣韻 새 希望에 둘러있는 教育界의 寧馨兒 中央氏를 찾아뵈을 양으로 진술 두루마기 바삭거리는 소리에 싸여 安洞 막바지로 활개치다.

安峴에서 別宮 西垣을 끼고 쪽 올라가다가 이마가 거의 막다른데 마주뜨릴번하기로 문득 精神을 차려 눈을 오른편으로 굴리니 검정칠한 板牆이 돌리고 幾百年 春風秋雨를 겪은 國風老屋 몇채의 琉璃窓 저고리를 입고 있는 것이 있으니 어딘지 모르게 예쁜 털이 박혀서 보는 이로 하여금 반가운 생각을 내게 하는 이 집이야말로 雖云舊校 其命維新의 中央學校 大人이라 문턱이 닳도록 다녔다 할만 하건마는 오늘 걸음에는 새삼스럽게 반갑고 새삼스럽게 情다움이 어찌함인지...(中略)

校監은 茫茫深遠에 不可端倪할 宋鎮禹君, 幹事는 韞玉藏珠를 不許輕示하는 白寬洙君, 四時에 長春이오, 八面이 具圓한 李重華君, 溫容을 可掬이나 機鋒이 還銳한 劉泰魯君, 重厚其德이오 篤摯其誠의 金聲集君, 精彩가 內蓄에 英華가 外著하는 李熙俊君, 둘러보니 모두 熟面이라 골고루 寒暄하고 만나중 溫藉하긴 珠玉같고, 玲瓏하긴 琉璃같은 校長 金性洙君을 北窓下 淨几傍에 發見하여 늘 보아도 늘 반가운 溫容에 제물에 慙慙한 一禮를 베풀고 麥茶 一碗에 목을 축여 가면서 새삼스러운 節次로 이말씀 저말씀 꼬집어낸다.

君의 態는 前같이 謙虛하고 君의 言은 前같이 謹約하다. 물부어 새지 아니하는 整齊한 論理와 바람불어도 흔들리지 아니할 듯한 堅實한 語趣는 용하게 사람으로 하여금 要領을 얻게 한다. 새로 制定하는 듯한 諸種 運動服 胸背며 帽子記章 等 圖案을 點檢하다가 不惶不忙히 薰陶의 宗旨를 말하며 校風의 指歸를 말하며 現代青年의 長處短處와 그 助長又矯正의 見識을 吐露한다. 透徹한 所說에 저절로 首肯의 意를 表하겠다.

簿書하고 씨름하는 李君의 球板소리는 우리 問答에 長短을 쳐주는듯 또닥또닥 또두락.

“訓育의 宗旨를 文字로 써 만들어 놓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一言으로 蔽하자면 사람 - 쓸 사람 - 아무 데 내놓아도 所用있을 사람 만드는 것이 우리 教育方針의 根本義를 삼는 바외다. 그릇이 되기만 하면 무엇을 담아 언잡으리까.

첫째 사람만 만들어 놓으면 公私大小 隨時隨處에 쓸모 잡힐 손이 無往不可할 것이므로 全科程 諸指歸를 總히 이 點으로 出發하여 또 다시 이 點으로 注集하게 합니다. 가필드의 말인가 합니다 마는 먼저 사람으로 成功하라 한 것은 과연 千古의 旨言이니 中等程度 以下の 教育要旨는 要컨대 먼저 사람으로 成功시키밀까 합니다. 사람으로 成功이 모든 成功인줄 압니다.”

“웁습니다.”(中略)

校長의 先導로 各教室을 돌아보았다.

理科教室을 橫奪한 第一學年 乙班은 좁은 房에 죽덱개로 달개를 달아 간신히 敎場모양을 만든 곳인데 約七十名의 가장 前程많은 俊髦가 豁然한 天庭은 古仙人을 빚는 듯하고 茸然한 顧下物은 胡髯主簿란 말 듣기도 괴이치 아니한 李奎榮先生의 朝鮮語敎授를 받는다. 일긋알긋한 一種 特色 있는 字體가 漆板에 소나기 퍼부은 것은 時文의 敎案인데

“先生님 紫霞洞이 어디예요, 景致가 좋습니까?”

“仙人橋는 仙人이 다니던 다리오니까”

하는 文義 質問이 四方으로서 失集하는 것을 流暢히 詳細히 答辯함은 鍊達의 功인가 하다.

石階를 내려와 첫 教室은 같은 學年의 甲班인데 때문은 試驗服입은 羅景錫先生이 一小隊나 됨직한 藥瓶을 앞에 거느리고 長短圓曲의 許多한 琉璃筒 武器로 한참 化學實驗의 十八般武藝를 다 하시는 中

“콜타르란 것은 石炭깨스를 만들 때에 副生하는 검은 물반죽인데 요사이 물감이란 것은 대개 이것으로 만드는 것이야. 猩猩이 피처럼 빨간 물감도 거기서 나오고 하늘 빛 같은 파란 물감도 거기서 나오는 것이야. 감해서 보기만 해도 속이 답답한 콜타르란 놈이 물감 만들어 내는 데에는 千變萬化 神出鬼沒하는 諸葛亮 노릇을 하는 것이야”

하고 琉璃筒을 위로 흔들고 아래로 두른다.

여기서 ㄱ자로 꺾여 가장 큰 教室은 第二學年, 넓은 房이나 좁은 틈도 없이 그득그득한 盛況, 번듯하고 질편하여 富貴氣가 一面에 가득한 白寬洙先生의 商業時間, 商法 第몇 條 몇 條를 연방 引用하면서 株式會社는 發起人 七人以上을 가져야 組織한다는 節次를 說明하시기에 口角이 奔走 하시며 다시 한모를 돌아서면 第三學年 教室인데 渾身이 都是 XY인 崔奎東先生의 代數時間이나 공교히 時間이 끝나는 어림이라 明快銳利한 先生 獨特의 講說을 듣지 못함이 섭섭하며 여기서 들을 건너 舊事務室을 변통한 것이 最高級인 第四學年 教室인데 宋校監의 西洋史時間, 民族遷徙의 西史上 大段落을 바야흐로 委曲說盡하시는 참인데 無慘한 時間鍾이 先生의 大蘊蓄 接할 機會를 주지 아니한다.

教室마다 充溢한 眞摯한 空氣와 生徒마다 生動하는 新銳한 意思는 暫時 보는 이의 快感도 이리 하려거든 늘 데리고 薰陶하시는 이의 즐거움이야 오죽할까 하다. 이 집에 들어오는 족족 가장 기꺼운 것은 이이 저이 할 것 없이 다 하려는 빛이오 이것저것 할 것 없이 다 하려는 자취임이라.

隆熙二年에 畿湖學校로 創立되고 同四年 冬에 興士團의 隆熙學校를 合併하고 因하여 中央學校란 이름으로 一大 躍進을 遂하여 여러 名士의 協力下에 偉大할 效績을 振新舞臺上 보였지마는 돌아보건대 三, 四年前의 否厄은 이 意義있는 學舍로 하여금 거의 거의 末如何의 狂瀾에 沈淪케 함이 몇번이든지 우리도 남처럼 딱하게 보면서도 어찌하지 못하는 한사람이러니 하늘이 學校와 아울러 金祺中 曠中 兩氏에게 厚眷을 주사 斯校 - 斯人을 의지하고 斯人이 斯校를 붙들게 되니 此好一段因緣이야말로 진실로 斯人 斯校로 하여금 永遠히 斯界의 華表柱가 되게 하는 關節이며 그 斷斷無他한 後進啓導의 誠意야말로 絶大한 倚信을 天下 父兄에게 博得하여 지난 學期의 中學入門者로 하여금 爭頭奔波에 唯患不及케 한 所以라 닐 感祝하다 아니하랴. 誠意가 언젠는 보람 없더냐, 努力이 어디서 값이 없더냐.

이제 漢城의 有數한 形勝地인 桂山一局을 占得하여 萬戶長安을 一眸에 吐呑할 新校舍가 바야흐로 柱礎를 놓는 중인즉 巍然한 廣廈가 城北에 屹立할 날이 아마 머지 아니하리라 하노니 그리로서 나오는 '흘러 흘러 흘러서 쉬움이 없는' 文明의 長江과 거기다 자리잡고 '숫아 숫아 숫아서 그 지에 없을' 德業의 高塔을 想像할 때에 그 집이 하루바빠 이루이고 그리하여 많은 造化가 그 안에 담기기를 간절히 바라는 者 어찌 우리뿐이랴.

늘 健旺하거라, 내 사람 中央氏여....

2. 三.一運動 勃發의 概要

<思想界> (1963년 3월호 -- 舊稿)

玄 相 允

一九一〇年 나라를 빼앗긴 韓國民은 暴虐한 日政下에서 눈물을 머금고 亡國의 悲哀를 맛보면서 오직 그 羈絆을 벗어날 기회가 오기를 고대하고 있었다.

一九一八年에 第一次 世界戰爭이 끝나고 그 翌年 봄에 파리에서 講和會議가 열리게 되었는데 그 때에 그 會議의 議長이 되는 美國大統領 윌슨氏가 休戰條約이 체결되기 전에 즉 一九一八年

一月에 講和의 기본원칙으로 하여 소위 十四條의 원칙을 제정한 것이 있었다. 그 중에 모든 民族의 통치는 그 민족의 自決에 맡길 것이라는 조항이 들어 있었다.

이 보도를 들은 韓國民은 國內外에 있음을 不問하고 歡喜雀躍하여 우리도 이 기회에 그 適用을 받자고 하여 到處에서 비밀리에 운동이 시작되게 되었다. 그리하여 美國에서는 李承晚氏外 二名이 韓族代表로 파리를 향하게 되고 上海에서도 金奎植氏가 在美代表團에 참가키 위하여 역시 파리로 향하고 日本東京에 있는 유학생들도 獨立要求의 宣言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다 國外에 있는 동포들의 하는 일이므로 그 세력에 있어서 미약하고 그 영향에 있어서 크지 못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國內에서 대규모의 운동이 일어난 후에야 비로소 全民族의 강력한 獨立運動이 될 수 있었다. 이때에 나는 金性洙, 宋鎮禹 兩氏와 中央學校 構内の 宿舍에 동거하고 있었던 관계로 朝夕으로 時事를 말하는 동안에 말이 여기에 미치면 三人이 다같이 초조하였었다.

그리하여 國內에서 큰 운동을 일으키려면 먼저 團結力이 있는 天道教를 움직이는 것이 上策이라는 의견이 일치하였다. 그때에 나는 天道教에서 경영하는 普成中學을 졸업한 관계로 同校長 崔麟氏를 가깝게 從遊하던 터라 수차 崔氏를 찾아 天道教의 동향을 타진한 즉 用力할만도 하고 또 崔氏의 의견도 반대하는 기색은 적으므로 그때부터는 宋氏와 동반하여 崔氏를 찾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一九一八年 十一月경부터 시작하여 이후 數個月 동안에 巨하여 의견교환과 謀議를 거듭한 결과 舉事를 결행하기로 하고 一邊 同志를 구하는 의미로 崔南善氏의 참가를 구하는 동시에 他一邊으로는 天道教의 重鎮 吳世昌, 權東鎮 兩氏와 연락하여 孫秉熙氏의 蹶起를 愆憑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나는 崔南善氏를 수차에 巨하여 방문하였다. 그러나 崔氏는 용이하게 動하지 아니하였다. 이때 一九一九年 一月初旬頃 日本留學生 宋繼白君이 장차 日本에서 발표하려는 日本留學生들의 獨立要求宣言書 草稿(李光洙作)를 휴대하고 秘密裡에 入京하여 나에게 그것을 제시하였다. 宋氏와 나는 그것을 가지고 먼저 때마침 中央學校를 來訪하였던 崔南善氏에게 보이니 崔氏도 금후로 國內의 獨立運動에 참가할 것을 승낙하고 또한 國內運動의 宣言書는 자기가 짓겠다고 쾌락하였다.

그때 나는 다시 그 草稿를 가지고 崔麟氏를 經由하여 孫秉熙氏에게 제시하였다. 그러한즉 孫氏曰 '어린 兒들이 저렇게 운동을 한다 하니 우리로서 어찌 앉아서 보기만 할 수 있겠느냐'하여 그 날로 天道教의 最高幹部會議를 열어 토의를 하고 드디어 天道教의 蹶起를 결정하게 되었다.

그날 저녁 崔麟, 宋鎮禹, 崔南善과 나는 齊洞의 崔麟氏집 內室에 비밀히 회합하였는데 이날 저녁에 四人은 기뻐서 祝盃를 들고 밤깊도록 獨立運動의 實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계획과 방안을 토의하였다. 그러한 결과 먼저 民族代表者의 名義로 朝鮮獨立을 中外에 宣言하고 그 宣言書를 인쇄하여 이것을 朝鮮 全道에 배포하고 또 국민을 總動員시켜 크게 朝鮮獨立의 시위운동을 행하여 韓民族이 一九一〇年の 소위 合併을 힘있게 否認하고 또 그들이 어떻게 독립을 열망하고 있는가를 內外에 표시케 하며 또 一邊으로 日本政府와 그 貴衆 兩院과 朝鮮總督과 또 파리 講和會議에 列席한 각국 대표에게 朝鮮獨立에 관한 意見書를 제출하며 또 美國大統領 윌슨氏에게 朝鮮獨立에 관하여 진력하기를 비는 請願書를 제출하기로 결정하고 宣言書와 기타 서류는 崔南善氏가 제작하기로 하고 우선 民族代表者로 하여 제一후보자로 孫秉熙氏 以外에 朴泳孝, 李商在, 尹致昊 諸氏의 승낙을 얻기로 하고, 朴氏의 교섭은 宋鎮禹氏가 李, 尹 兩氏의 교섭은 崔南善氏가 各各 分擔하기로 하였다.

수일후에 전기 四人은 다시 桂洞 中央學校 宿舍에 회동하여 그동안 교섭의 경과를 보고하였는데 그 내용은 朴, 李, 尹 三氏가 다 교섭을 거절하였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前記 四人은 다시 第二候補者로 韓圭高, 尹用求 兩氏에게 교섭하기로 하고 韓氏에게는 宋鎮禹氏가 兪鎮泰氏를 통하여, 尹用求氏에게는 崔南善氏가 尹弘燮氏를 통하여 각각 교섭하기로 하였다.

二, 三日을 경과하여 또 다시 桂洞 中央學校 構內 畝宅에 전기 四人이 會晤하여 그동안의 경과를 들었는데 韓氏는 처음에는 승낙하였으나 尹氏가 승낙치 않으므로 韓氏도 승낙을 철회하였다는 것이었다. 그러한즉 崔麟氏가 民族代表를 다른데 구할 것 없이 孫氏를 先頭로 하고 우리 四人이 자진 참가하자고 하여 먼저 崔南善氏에게 의향을 물으니 崔氏는 家業關係로 하여 승낙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 다음에 宋鎭禹氏의 의향을 물었는데 宋氏는 하겠다고 대답하였다. 그러한즉 崔麟氏는 다시 崔南善氏를 향하여 崔氏(南善)가 승낙치 않으면 자기도 참가할 수 없고, 또 天道敎만으로는 이 운동을 進行할 수도 없으니 전부 이 운동을 중지하자고 提議하여 부득이 중지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만큼 진전된 운동을 중지하고 만다는 것은 심히 유감되는 일이므로 그 후 四, 五日을 경과하여 나는 崔南善氏를 자택으로 往訪하였다. 그리하여 崔氏에게 '基督敎를 天道敎와 연결시키는 것이 어떠하나, 그리하자면 定州의 李昇薰氏를 上京케 함이 어떠하나'하는 의견을 말하였다. 그러한즉 崔氏 曰 '좋다, 그리하자' 하는지라 나는 그 길로 水下洞 鄭魯湜氏의 宿所에 들어서 鄭氏더러 同所에 止宿하는 金道泰君을 定州에 파송하여 李昇薰氏의 來京을 求할 것을 言託하였다. 그리하였더니 二月 十一日에 李氏는 急遽히 상경하였다.

그러나 崔南善氏는 官憲의 주목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은 李氏와 會見치 아니하고 宋鎭禹氏와 나더러 회견하라 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兩人과 金性洙氏는 桂洞 金性洙氏 別宅에서 李氏를 회견하고 그동안 在京同志의 계획과 天道敎의 동향을 말하고 基督敎側의 참가와 同志 糾束의 일을 청하니 李昇薰氏는 즉석에서 그것을 쾌락하고 金性洙氏로부터 數千圓의 운동비를 받아가지고 그날로 關西地方을 향하여 출발하였다.

李昇薰氏는 疾風雷雨와 같이 平南北을 巡行하여 長老派의 吉善宙, 梁甸伯, 李明龍, 劉如大, 金秉祚 諸氏와 監理派의 申洪植氏 等과 회견하고 그들의 민족대표자의 승낙을 얻고 또 그 印章을 모아 가지고 그 중의 申洪植氏와 동반하여 다시 京城으로 왔다. 그리하여 곧 宋鎭禹氏에게 來京의 뜻을 통지하였다. 그러나 그때에 官憲의 주목이 있을까 하여 關係各人이 행동을 삼가던 때라 宋氏는 수차 李氏를 비밀히 昭格洞旅館으로 往訪하였으나 하등 명쾌한 회답이 없고 또 교섭의 本人인 崔南善氏는 용이히 一次도 면회치 아니하므로 李氏는 심중에 대단히 疑訝하여 天道敎와의 連繫를 단념하고 基督敎徒 單獨으로 獨立運動을 전개할 것을 결심하였다. 그러는 때에 中央青年會 幹事 朴熙道氏를 路中에서 만나니 京城에서도 기독교도들 사이에 독립운동에 관하여 人心이 암암리에 동요하고 있다 하므로 李氏는 곧 그들과의 회견을 청하여 二十日夜에 監理派의 吳華英, 鄭春洙, 申錫九, 崔聖模, 朴東完, 李弼柱, 吳基善, 申洪植 諸氏와 회담하여 閏기의 계획과 운동방법을 협의하고 또 李昇薰氏는 그날 밤에 계속하여 별개로 南門外 咸台永氏집에서 李甲成, 安世桓, 玄楯, 吳祥根氏等의 長老派 人士들과 회합하여 역시 獨立運動에 대하여 基督敎側 單獨의 계획을 협의하였다.

그러는 중인 二月 二十一日에 崔南善氏가 비로소 李昇薰氏를 그 宿所로 방문하고 李氏와 同道하여 齊洞 崔麟氏를 찾아 서로 회견케 하였다. 이때에 李昇薰氏는 崔麟氏에게 基督敎徒만으로 독립운동을 단독 진행하고 있다는 뜻을 고하니 崔麟氏는 독립운동은 韓國民族 全體에 관한 문제이니 宗教의 異同을 불문하고 마땅히 합동하여 추진시킬 것인 즉 基督敎와 天道敎가 합동하자고 제의하였다. 그러한즉 李氏는 同志들과 상의한 후에 회답할 것을 약속하고 또 만일 합동하는 경우에는 운동비를 얼마만큼 빌려달라고 하였다.

李昇薰氏는 崔麟氏와의 회견이 있는 후에 곧 世富蘭僞 構內인 李甲成氏 집에서 朴熙道, 吳華英, 申洪植, 咸台永, 安世桓, 玄楯氏等과 회합하여 徹夜協議한 결과 天道敎側과 합동하는 문제의 가부는 먼저 天道敎側의 운동방법을 알아본 후에 결정하기로 하고 그 교섭은 李昇薰, 咸台永 兩氏에게 일임하기로 하였다. 그러므로 李, 咸 兩氏는 崔麟氏를 往訪하여 天道敎側의 구체적인 의견을 물었다. 그러한즉 天道敎側의 意見도 基督敎側의 그것과 다름이 없고 또 崔麟氏로부터 운동비 五

千圓도 그 전날에 李昇薰氏에게 貸與되어 왔으므로 李, 咸 兩氏는 다시 咸台永氏 집에서 基督教側의 동지들을 회합하고 협의한 결과 天道敎側과 합동하여 독립운동을 추진할 것을 결정하고 그 취지를 정식으로 二月 二十四日에 天道敎側에 통고하였다.

이때 天道敎側은 崔麟氏를 대표자로 하고 基督教側은 李昇薰, 咸台永氏를 대표자로 하여 수회에 걸쳐 협의한 결과 獨立宣言은 李太王 國葬日의 前前日인 三月 一日 正午 塔洞公園에서 행하기로 정하고 宣言書는 天道敎에서 경영하는 普成社에서 비밀히 인쇄하기로 하였다. 이때에 崔麟氏와 李昇薰, 咸台永 三氏는 佛敎團體에도 운동의 참가를 구하여 韓龍雲, 白龍成 兩氏의 승낙을 얻었다.

이보다 먼저 宋鎭禹氏와 나는 普成專門學校 卒業生 朱翼氏를 통하여 시내 專門學校 學生中에서 그 대표될만한 인물을 탐색하여 將來할 시위운동의 中核體를 구성하여 대기의 태세를 취하게 하였던 바가 있었는데 이때에 朴熙道, 李甲成 兩氏는 이것을 알고 此等 代表者들과 회견한 후에 三月 一日의 계획을 말하고 시위운동의 실시를 청한즉 此等 代表者들은 이것을 쾌락하고 二月 二十八日에 普成專門의 康基德君과 延禧專門의 金元璧君, 醫學專門의 韓偉健 三君은 승동예배당에서 市內 中等學校 代表者와 기타 男女專門學校 代表者 十數名을 소집하고 시위운동에 대한 구체적 지령을 授與하였다.

이때에 天道敎, 基督教, 佛敎 三派의 獨立宣言書에 서명하기로 작정한 民族代表者 一同은 서로 대면도 할겸 또한 최후의 회의를 행하기 위하여 二十八日夜 齊洞의 孫秉熙氏 宅에 회동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塔洞公園은 다수의 學生이 집합하니 紛擾가 염려된다 하여 三月 一日에 행할 獨立宣言의 장소를 仁寺洞 明月館支店으로 變更하였다. 그리고 崔南善, 咸台永, 宋鎭禹, 鄭廣朝, 玄相允 諸人은 殘留幹部로 하여 대표자들이 체포된 후의 제반 任務를 담당할 것을 결정하였다.

三月 一日 正午가 되자 獨立宣言書에 署名捺印한 민족대표자 三十三人中에서 吉善宙, 劉如大, 金秉祚, 鄭春洙 四氏를 제외한 나머지 二十九氏는 예정대로 明月館支店에 회참하여 엄숙하게 獨立宣言書 宣布式을 거행하고 韓龍雲氏의 선창으로 大韓獨立萬歲를 三唱하였다. 그리고 대표자 일등은 각각 식탁에 나아가 축배를 들었다.

이보다 수일 앞서서 上記 代表者들은 安世桓, 林圭 兩氏를 日本에 파송하여 三月 一日을 기하여 日本政府와 同 貴.衆 兩院에 독립에 관한 의견서를 전달케 하고 玄植氏를 上海에, 金智煥氏를 新義州에 파송하여 역시 三月 一日을 기하여 파리講和會議와 美國大統領에게 독립에 관한 請願書를 傳達케 하고 또 宣言書를 전국 각지에 밀송하여 三月 一日을 기하여 京城과 시각을 같이하여 선언서를 살포하고 또 독립에 관한 시위운동을 일제히 실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塔洞公園에서는 예정한 시각이 되자 京城市內의 男女中等以上の 各學校學生 四, 五千名은 각각 指定된 대표자의 명령에 따라 엄숙한 얼굴과 剛毅한 태도로 누구나 아무말도 없이 驅步로 일제히 南北門으로 구름같이 집합하였다. 집합이 끝나자 金元璧, 康基德, 韓偉健 諸名은 높이 八角亭에 올라 大韓獨立萬歲를 三唱한 후에 獨立宣言書를 살포하였다. 그것이 끝나자 학생들은 각각 예정한 部署에 의하여 즉각 시가로 나가 시위행렬을 하였다. 一團은 大漢門앞에 가서 獨立萬歲를 부르고, 一團은 京城郵便局 앞에, 一團은 남대문 정거장에, 一團은 義州街道를 지나 佛國領事館앞에, 一團은 昌德宮 앞에서 만세를 부르고, 一團은 美國領事館에, 一團은 總督府를 향하여 獨立萬歲를 목이 터져라 連呼하면서 시위행렬을 거행하니 만세소리는 全 市街가 떠나갈듯이 擾亂하고 행렬 때문에 일어나는 紅塵은 실로 千丈萬丈이었다. 그러나 이때에 日人憲兵과 경관들은 너무도 意外요, 너무도 行動이 기민하고 조직적인 때문에 어쩔줄을 모르고 一時는 좌우에서 입만 딱 벌리고 우두커니 서 있어서 무슨 上部의 命令이나 기다리는 듯 하였다. 하여간 운동은 우리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이날 午後에 孫秉熙氏 以下 民族代表들은 日本官憲에게 체포되었으나 殘留幹部와 學生 市民들은 일제히 撤市, 納稅拒絶, 官公吏의 辭職과 罷業, 盟休 등을 주요한 슬로간으로 하여 日本에 대

한 반항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지방에서는 전국 각처에서 시위행렬과 반항운동이 烽起하여 數月에 한하여 저지할 바를 몰랐다.

원래 이 운동은 非暴力, 非暴動을 표방한 것이나 군중의 激昂과 군대 및 경찰과의 충돌로 인하여 流血의 참극과 다수의 사상을 내게 되니 곧 南陽, 定州, 遂安, 成川, 江西 等の 諸事件이 그것이다.

이때에 上海에는 大韓臨時政府가 수립되고 上海, 滿洲, 美洲, 蘇領 各處의 憂國人士가 國內와 호응하여 혹은 武力로 혹은 외교로 혹은 宣傳 및 連絡으로 數年에 걸쳐서 獨立運動을 계속하였다.

그런데 이 운동에서 특별히 느끼는 것은 男女老少와 上下貴賤을 막론하고 종교와 사상과 직업을 초월하여 전 민족이 一心一體가 되어 오로지 祖國의 獨立을 위하여 정성스럽게 투쟁한 일이다. 이 까닭으로 數朔 或은 반년에 걸쳐 內外 各地에서 行하여진 謀議와 계획이 한가지도 官憲에게 비밀이 탄로되지 아니한 것이다. 즉 이것은 동포가 얼마나 祖國의 光復을 갈망하며 영원한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운동은 당시에 있어서 비록 獨立의 실현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 효과에 있어서는 一九一〇年의 소위 合併을 힘있게 부인하고 우리나라의 자주독립을 세계에 향하여 強硬하게 주장하는 국민의 의사표시가 되었다. 그리하여 運動勃發 이후에 세계각국의 통신원들은 上海, 北京, 日本 等地로부터 속속히 來朝하여 여러가지 상황을 널리 세계에 보도하였다.

그러므로 一九四五年 八月 十五日의 해방을 사다리의 최종계단이라 하면 이 一九一九年 三月 一日의 운동은 확실히 그 第一階段이 되는 것이니 八.一五의 해방을 결과라 하면 이 三.一運動은 그 원인이 되는 것이다.

3. 漢詩 1首

李承晚

一可亭前月 (일가정에 비친달 빛) (註= '一可亭'은 남강의 산정)
使人不得眠 (사람을 잠 못 이루게 하는구나)
徘徊還獨坐 (거닐다 다시 홀로 앉아)
無語仰青天 (말없이 푸른 하늘만 바라본다)

(註: 3.1운동의 동지이자 동아일보 제4대 사장을 역임한 후 오산학교(五山學校)경영을 맡고 있는 정주(定州)의 남강(南岡 李昇薰)은 고하가 1926년 영어(圀圀)의 몸이 된 기별을 전해 듣고 고하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하와이에 있는 우남(雲南 李承晚)에게 편을 얻어 알렸다. 우남은 다음의 한시(漢詩)를 써서 인편으로 남강에게 보내온 것을 남강은 이를 족자로 만들어서 고하를 위로하기 위하여 보내왔다.

4. 東亞日報에 대한 不平

<開闢> (1923년 7월호)

槩啞子

東亞日報 壹千號를 自祝하기 爲하여 天下에 廣告하고 論文을 募集하였으되 '政治에 對한 不平',

‘教育에 對한 不平’ 監獄에, 警察에, 專賣에 對한 萬般 不平을 忌憚없이 陳述하라고 天下에 公筆을 求하였었다. 그러나 크게 遺憾되는 것은 ‘東亞日報 自身에 對한 不平’이란 論文을 公募한다 함을 듣지 못하였다. 그러한 勇氣가 없었던지 그러한 생각이 없었던지 그 新聞에 대하여 天下에서 不平이 없으리라 하여서 그것을 빼어버렸는지는 알 수 없으나 局外者로 보아서는 그 모든 ‘不平’ 中에 ‘東亞日報에 對한 不平’이 더욱 重大問題가 되지 아니할까 한다. 個人이고 會社 或은 法人이 處世하는 術法으로 自己의 過失은 自訟하려 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設或 어떠한 機會에 그것이 暴露된다 하더라도 되도록 掩蔽하려는 것이 常例이다. (中略)

필자는 東亞日報의 創刊 以來로 始終如一한 愛讀者의 一人으로 元來 怨恩이 없는 故로 此를 批判할 時에 오직 公平한 態度를 嚴守하기로 自誓한다.

東亞日報가 最初 發生할 時에 決코 金錢이나 謀略으로만 成立된 것이 아니라 三一運動의 萬歲聲이 全國을 振動하여 五萬人의 大衆이 獄中에서 呻吟할 時에 獄外에 殘存한 全道の 憂國志士가 相呼하여 不日에 此를 成한 것이나 그 由來를 推究하면 五萬體의 血과 淚가 凝結되고 鄉村의 匹夫匹婦까지 聲援을 다하여 實로 偉大한 基礎를 確立케 한 것이오 決코 偶然한 八字로 橫財한 金錢이나 狡詐한 謀略으로 成立된 것이 아니었다.

現今 東亞日報의 所謂 幹部라는 것을 解剖하여 보라. 人格이 있어 그 地位에 自薦한 것이나, 衆望에 依하여 公選된 것이나, 또는 學識이 있어 文章을 잘하는 까닭이나 하면 그 三者의 一個에도 該當한 所以를 發見할 수 없다. 다만 顯著히 識別할 수 있는 事實은 돈좀 많이 낸 關係者의 印刷所가 되었을 뿐이다.

新聞은 天下의 公器이다. 輿論의 指針이다. 마땅히 天下의 公評에 依하여 人物을 全道에서 廣求하여 大衆의 公僕이 되게 할 것이 아닌가. 東亞日報의 所爲가 穩當한 일이라면 一個人이 出資하여 新聞을 經營하게 될 때는 能力 無能力을 不計하고 自己의 家族만으로 幹部로 組織하고 編輯도 하게 될 것이다. 金錢으로써 人造地位를 買收하여 名刺의 肩書도 圖得하고 利益도 收入되게 하고 名聲도 虛傳하려거든 高利貸金業을 하든지 요즘 흔히 하는 水利組合을 하여보는 것이 罪가 오히려 적을 것이다.

東亞日報社가 商法에 依한 株式會社인 故로 株主의 公薦에 隨하여 幹部가 된 것이라고 卑劣한 辯明을 하려면 더욱 그 心事를 推知키 容易하다. 一株에 一個의 議決權이 있는 東亞日報는 다른 營利會社와 다른없이 大株主의 三, 四個人이 結合하면 如何한 無理라도 通過되는 것이다. 高利貸金의 代表 營業主를 公薦함에는 必要한 方式일는지 모르지만 萬千人的 公器를 運用함에는 至極히 不公平한 結果를 招來하게 된다. (中略)

安昌男君의 飛行機事件은 이미 過去에 屬한 일이라 구태여 그 過失을 追究하자 함은 아니나 아직도 그 奇怪한 事件이 落着되지 못하여 그 地方黨의 鐵甲같은 堅實한 幹部에서도 意見이 相衝되어 四, 五日間을 連續 密議한 結果 畢竟 罪가 없는 一般 株主에게 損害負擔케 하였다 하니 그 模暴한 處斷은 可驚可畏하겠다. (中略)

東亞日報의 記事를 보면 新聞 全面이 安昌男 투성이이다. 少年時代의 安君의 事蹟으로부터 어떤 料理집에서 妓生에게 귀염받던 일까지 歷歷히 記載하기로 二週間을 하였으니 世事多端한 此時에 二週間の 다른 重要한 事件을 沒却하고 安昌男의 活動寫眞만 充實히 하였으니 이것으로만 判斷하더라도 東亞日報라는 것을 少數者가 我物視하여 傍若無人한 態度로 私的 行爲를 取한 것이다.

이 奇怪한 心事로써 後援한 費用이 七千圓 以上이 되었었다. 世上사람이란 比較的 公平한 判斷을 하는 模樣이라. 新聞紙上에 姓名을 列舉하는 맛에 飛行後援會란 것에 署名은 하였으나 필경 돈은 五百圓外에 지나지 아니하였다. 當初의 豫算인 즉 後援會를 組織하여 限貳萬圓 收入되면 費用을 除하고 飛行機 一臺를 安君에게 사서 주겠다는 自信이 있었던 까닭에 重役會議도 經由하지 아니하고 七千餘圓의 費用을 支出하였다.

今日을 當하여 此를 充當할 길은 둘이 있을 뿐이라. 誤算의 責任者인 當事者가 此를 辦出하든 지 株式會社 東亞日報의 負擔에 歸케 하든지 할 것이다. 그러나 株式會社에 出資한 株主는 모두 八朔童이가 아니어든 法理上으로 보든지 德義上으로 보든지 穩當치 못한 此事件에 七千圓을 擔當 할 理가 萬無하다. 此事를 責任지고 處斷한 勇敢하고 富饒한 最高幹部가 自辨할 줄 確信하나 아직 結末되지 못하여 祕密會議中에서 甲可乙否한다 하니 此를 如何히 處決하여 世上에 出現케 할는지 實로 可觀할 구경거리다.

金雲養의 社會葬 問題로 萎縮되었던 東亞日報가 金東成君의 新聞記者大會의 副議長 當選에 得意하여 그김에 在外同胞 慰安會 作成한지 于今 三年이라 昨年 十月內에 慰問講演을 畢할 때에 벌써 김빠진 麥酒와 같이 時期가 尙晚하였다. 昨夏에 南北滿洲 西伯里亞에서 大飢饉을 當하여 朝鮮 사람의 生活이 참담하였을 때에 우선 應急方案으로 各處에서 救濟를 要望하였었다. 東亞日報가 在外同胞 慰問會란 大看板을 高掛할 때에 멋도 모르고 海外에 있는 同胞들을 自己네 困窮한 處地 를 思하고 하루라도 速히 成就되어 在外子弟 教育費의 一部를 捐助케 하였으면 하고 실로 多大한 囑望을 하였었다.

在內 同胞는 한갓 在外 同胞의 慘狀을 同情하여 東亞日報의 義舉에 疾走하여 全國 人士의 貧乏 한 주머니를 털어 分分粒粒히 모은 것이 三萬餘圓에 至하였으니 東亞日報가 적으나 誠意가 있다 면 이를 速히 整理하여 生命이 朝夕에 臨迫한 在外 同胞를 잠시라도 慰安케 함이 全道の 義捐者 의 本意요, 東亞日報의 道理가 아닌가. 支局의 橫領挾雜에 放任하여 있다가 浪費하였는지 아직도 整理할 時日이 杳然하니 義捐者도 瞞著한 것이어니와 被義捐者 卽 在外同胞를 무슨 面目으로 對 하려는가?

이 모든 罪惡과 過失을 알고도 思量있는 世上사람이 짐짓 沈默을 嚴守한 것은 東亞日報 自體를 傷할 念慮 不無하고 我朝鮮人의 內訌으로 到處에서 諸般 事業이 朝鮮사람 自手로 絶滅케 한 前例 가 許多하므로 스스로 退盡할 것을 苦待하였었다. 보다가 볼 수가 없고 참다가 참을 수가 없어 危言苦辭를 進呈하게 되었으니 東亞日報의 讀者는 東亞日報의 株主는 東亞日報를 監視하여 最初 創刊時 本領으로 還元케 함을 至望하노라.

(1923.6.10. K.)

5. 동방의 빛이여, 너의 이름은 한국이다

<동아일보> (1929.4.3)

타 고 르

In the golden age of Asia,
Korea was one of its lamp-bearers,
And that lamp is waiting
To be lighted once again
For the illumination
In the East.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 시기에,
빛나던 등촉(燈燭)의 하나인 조선,
그 등불이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엔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6. 나만이 아는 秘密

-- 古下 宋鎮禹氏의 두가지 密令

<真相> (1959년 9월호)

徐 範 錫

<첫번째 密令> 駐日中國公使 汪榮寶씨에게 준 비밀쪽지

만보산사건! 이것은 일본의 간교한 수단으로 일어났던 사건이었다. 그러니까 만주에 있던 한국인 농민들과 중국인 농민들에게 싸움을 붙여 그것을 핑계로 야망하던 대륙침략의 발판을 튼튼히 하려고 배후에서 조정하였던 것이다.

어디까지나 음흉했던 일본 - 때는 1931년 봄이었다.

사건이 발생했던 만보산은 장춘현에 있었다. 그런데 일본은 사건이 일어나자 이것을 국내에 선동적으로 보도시키기 위하여 갖은 수단을 다했다. 이용가치가 가장 있는 신문은 민족지인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였다. 이 두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케 하여 국내 한국민들을 자극시켜 한국인과 중국인간의 반목을 꾀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그러한 형세에 그들 일본에게는 다행히도 長春에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두 지국이 다 있었는데 그 지국장이라는 자가 일본관헌에 아부하는 작자였다.

金利三 -- 이것이 그의 이름인데金利三은 평소부터 일본 영사관에서까지 적극적인 후원을 받고 있는 터라 그들의 노리개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일본이 시키는 대로 사건을 침소봉대하여 본사에 기사를 보냈다. 그러나 동아일보에서는 사건 자체가 중대함을 직감하고 어디까지나 신중을 기하는 뜻에서 우선 만보산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정도로 보도하고 자세한 것은 현지에 특파원을 파견하여 취재하기로 하였다.

한편 조선일보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중대사건이라고 호외까지 발간하여 대대적으로 보도하게 되었으니 실로 일본의 흥계는 예정대로 척척 들어맞게 되었다.

만주에 있는 한.중 농민들 사이는 계속해서 험악해져 갔다. 국내 민심도 점차 동요되었다. 만주에 있는 동포들이 중국관민에게 부당한 박해를 받는다니 이것이 될 말이나? 라는 것이었다.

흥분된 민심은 그대로 가라앉지를 못하였다. 급기야는 새로운 사태가 발생하고야 말았다. 즉 平壤과 仁川을 비롯한 여러 지방에서 만주 동포들의 분풀이를 한다고 소리 높여 외치면서 중국인들을 집단폭행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던 것이다.

이 순간 일본의 침략괴수들은 회심의 웃음을 짓고 있었을 것이 아니겠는가? 국내에서 중국인들이 입은 피해는 결코 적은 것이 아니었다. 또한 중국 당국에서 그저 방관만 하고 있을 리가 만무했다. 드디어는 그 진상을 조사하기 위하여 주일공사 汪榮寶씨가 국민정부의 명으로 내한한다는 소문까지 떠돌게 되었었는데 바로 그 무렵이었다.

나는 그때 동아일보의 국경특파원으로(滿洲의 安東과 新義州일대) 근무하고 있었다. 하루는 사장인 古下 宋鎮禹씨로부터 속히 본사에 올라오라는 호출이 있었다. 무슨 영문인지 사전에 말하지 않으므로 펴이나 궁금한 노릇이었으나 여하간에 그날 밤 기차편으로 상경하였다.

나는 서울역에 도착하는 바로 그 길로 신문사에 직행했다. 여러 선배와 동료들을 오래간만에 만나게 되어 무척 반가웠으나 그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눌 겨를도 없이 사장실로 들어갔다.

사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宋鎭禹씨는 혼자 있었다. 그는 나의 귀사했다는 인사를 받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의자에 깊이 기대어 눈을 감은 채 무엇을 생각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순간 나는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저분이 원거리에서 있는 나를 불러 올라오게 하고서는 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을까?)

이렇게 혼자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득 한다는 말이 천만 뜻밖의 것이었다.

“우리 신문은 정부행세까지 해야겠어!”

어떻게 대답을 하였으면 좋을지 모를 말이었다. 잠시 후에

“주일중국공사 汪榮寶씨가 온다지?”

“예, 옵니다”

“폭행사건 조사를 온다니 그에게 꼭 전할 말이 있어. 徐군이 좀 해주어야겠네--”

이번 사건은 한국인들의 본의가 아니라 일제의 한.중간에 이간을 붙이려는 정략하에 일부 한국 사람들을 선동한 것이라는 내용을 汪씨에게 전하라는 것이었다. 나는 무의식중에

“글쎄요”

라고 대답하였다. 전혀 예기하지 않았던 지시이며 또한 어떻게 하라는 구체적인 설명도 하지 않았었다. 그저 어떠한 수단으로든지 국내 중국인에 대한 폭행사건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汪씨에게 알려 주어야 하겠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중대한 지시를 받기는 하였지만 그 방도가 막연하였다. 어떻게 하면 일본 관헌에게 발각되지 않고 알려줄 수 있을 것인가? 얼마 동안을 곰곰이 궁리하다가 다음날이면 釜山에 도착할 汪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좌우간 서울역을 출발하였다.

갈 때에 글로 쓴 쪽지를 미리 마련하였다. 만약 요행히 일경이 없는 틈을 이용할 기회가 생긴다 하더라도 말로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먼저번과 같은 말의 내용을 엮은 양지에 써서 그것을 담배처럼 말아서 간직하였던 것이다.

釜山에 내려가보니 일본 관헌의 감시는 상상하던 것보다도 더욱 엄격했다. 일본 관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까이 할 틈이란 도저히 없었다. 차중에서도 기회가 오기를 초조히 기다렸으나 모든 것이 허사였다. 기차는 서울에 도착하고 다시 新義州에 도착할 때까지도 기회를 포착할 수가 없었다.

중국 조사단 일행이 신의주에서 유숙한 곳은 2층에 자리잡은 철도호텔이었다. 그들은 여기에서 하루를 묵으면서 사건을 조사하였던 것인데 국경 도시라 그러했던지 이번에는 정복을 한 관헌까지 주위를 빙빙 도는 것이었다. 식당 복도 회석 기타 汪씨가 나돌아다닐 때이면 항상 기회를 노리었으나 틈이 없었다.

마음은 더욱 초조했다. 宋鎭禹씨는 나를 믿고 시킨 일인데 이 일을 실패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들 일행이 新義州에서 일을 마치고 서울쪽으로 되돌아 갈 때 나는 (끝내 실패하고 마는구나...)라고 낙심하였다.

그러나 기회는 드디어 오고야 말았다. 일행을 태운 기차가 바로 평북 定州를 지났을 무렵이었다.

그 때에 기회를 보느라고 汪공사가 탄 외교관 전용특별실 옆을 (당시 특별실에는 日警도 들어가서 못하였다) 지나다가 보니 어찌된 일인지 주위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일각도 주저할 수가 없었다. 무턱대고 문을 노크하였다. 또한 안에서의 회답을 기다릴 여가도 없었다. 노크와 함께 문을 열고 방안에 들어섰다. 들어서면서 미안하다는 말을 하였는데 汪씨는 벌써 내가 기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신의주에서 가졌던 기자회견 때에도 만나본 일이 있거니와 그 보다도 나는 그의 앞에서는 항시 동아일보기자라는 것을 알도록 행동을 취했던 것이다. 특별실에는 汪공사 외에 수행원 한사람뿐이었다. 기회는 더욱 좋았었다.

호주머니에서 준비했던 종이 쪽지를 내밀었다.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 종이쪽지에 적혀 있습니다”

라고 다급하게 말하고 목례를 하자 그도 알았다는 듯 한 표정을 지으면서 목례를 하는 것이었다. 말로는 긴 시간 같지만 불과 1, 2분의 순간이었다. 밖에 나와 보니 다행히도 아무도 없었다.

나는 바쁜 걸음으로 특별실과의 거리를 멀리 하였다. 이때까지의 긴장이 일시에 풀려지자 갑자기 온몸이 노곤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잔등에서는 땀이 비오듯이 흘러 내렸다.

그후 汪榮寶씨는 나에게 친필로 된 족자 한폭을 보내 왔었다. 나는 이것을 귀중히 간직하고 있다가 6.25사변 당시에 분실하였다. 그때의 허전한 마음 무엇에 비길 데가 없었다.

그렇지만 인연깊은 이 족자는 다시 찾게 되었다. 9.28 직후였다. 우연한 기회에 동대문 시장을 지나가는데 누가 나를 부르는 것이었다.

누굴까? 하고 뒤를 돌아보았더니 고서화상(古書畫商)을 하는 李相喆씨였다. 중국인 글씨인 고서가 하나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기증받은 사람의 이름이 나의 이름과 한자도 틀리지 않으니 한번 보라는 것이었다. 순간 혹시나 하고 가보았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것이 바로 몇달전에 분실되었던 문제의 족자였다. 나는 지금도 汪榮寶씨가 보내준 족자를 보관하고 있다.

<두번째 密命> 國際聯盟 中國代表에게 준 비밀쪽지

릿튼경을 단장으로 한 國際聯盟 滿洲現地調査委員團이 奉天에 도착한 것은 萬寶山사건이 발생한지 약 반년후였다. 萬寶山사건 후부터 일본은 허울쫑게도 만주에 있는 한국인들을 보호한다는 구실하에 만주의 각지방에 무장군을 주둔시켰었다.

이렇게 하여 제반 침략준비를 끝내게 되자 이번에는 정말 엉뚱한 사건을 날조하였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일본은 그 전부터 南滿洲철도 관할권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 한가닥을 폭파시켰던 것이다.

실지로 폭파시킨 것은 중국군인들로 가장한 일본이 돈으로 매수한 중국인 ‘쿠리’들이었는데 그들은 중국군인들이 일본재산을 침해하였다고 트집잡아 수많은 군인들을 투입하여 순식간에 전 만주를 섭권하여 버렸던 것이다. 그것이 1931년 9월 18일에 발생한 柳條溝사건 즉 滿洲사건 즉 滿洲사변의 발단이였다.

한편 억울한 침략을 당하게 된 중국은 가만히 있을리 만무했다.

이 문제를 국제연맹에 호소하여 이사회에서 일본군의 만주철병 권고안을 가결하였고 11월 16일에는 國際聯盟 滿洲現地調査委員會를 설치하고 그 실정을 파악하고자 릿튼경을 단장으로 하는 조사단을 만주로 파견하였던 것이다.

이런 즈음 동아일보 奉天특파원으로 가있던 나는 또다시 귀국 상경하라는 宋鎮禹사장의 명령을 받았다. 이번에도 그 영문을 전혀 몰랐다. 그당시 나는 특파원으로서 취재는 안하고 놀러만 다닌다는 중상모략을 받은 바 있었다. 그러므로 혹시 나에게 무슨 주의라도 시키려고 부르는 것이 아닐까? 라고 의심도 하여 보았다.

영문을 모른 채 부랴부랴 여장을 갖추고 본사로 돌아오니 宋鎮禹사장은 마침 春園 李光洙씨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언제 왔오?”

무뚝뚝한 표정으로 (본래부터 그러함) 이렇게 묻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제 막 오는 길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더니 李光洙씨는 사장과 나는 무슨 비밀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던지 곧 자리에서 일어났었다. 방안에 단 두사람만이 있게 되자 그는 얼굴에 웃음을 피우면서 나의 얼굴을 잠시 바라다보더니

“奉天에 조사단이 와 있지!”

“예, 와있습니다.”

“가끔 만나나?”

“공식회견 이외에는 도무지 기회가 없습니다. 조사단 관계 보도는 관동군 신문보도반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 것도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던 나는 순간 내가 취재에 불성실했다고 물어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의혹은 잠시 후에 일소되었다.

“또한번 수고해야 하겠는데 잘못하면 큰일 나! 조사단 중국대표로 와 있는 외교부장 顧維均씨에게 먼저 汪榮寶씨에게 하듯이 우리의 의사를 전달할 수 없을까?”

이와 같은 말을 들은 나는 대뜸 그 사명이 무엇이라는 것을 직감하였다. 만주를 침략한 일본은 만주에 있는 한국인들이 자기들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본군을 만주에 주둔케 하여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한 것처럼 허위조작을 하였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顧대표에게 전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자면 만주에 있는 한국인들의 진정서는 日本관헌이 허위조작한 것으로서 사실은 만주에 있는 한국인들은 그 진정서 내용과는 정반대의 견해를 갖고 있다는 것을 중국대표 顧維均씨에게 전하라는 것이었다.

얼마동안의 면담후 밖으로 나온 나는 무척 어려운 일임을 직감하였다. 그러나 누구에게 그 방법을 묻거나 조력을 요청할 수는 없었다. 이와같은 행동은 宋鎭禹사장과 나만이 간직해야 할 비밀이었기 때문이었다. 사명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완수해야 하였다. 宋사장은 그와같은 중대한 사명을 나를 신임하였기에 맡기었던 것이 아니겠는가?

사명을 맡고 보니 조금이라도 서울서 지체할 필요가 없었다. 그 이튿날 곧 奉天으로 되돌아가서 일에 착수하기 시작하였다.

국제연합 만주현지조사단이 목은 奉天에서 가장 큰 大和호텔의 제반 분위기를 내사하였다. 그랬더니 그 첫날에 대뜸 실망을 느끼지 않으면 안되었다.

왜냐하면 나는 奉天에서 동아일보 특파원으로 있었기에 大和호텔의 내용에 관해서는 비교적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서울에서 돌아와 보니 이때까지 보지 못하던 보이들이 많이 눈에 띄었다. 전부터 알고 지내던 종업원에게 어찌된 일이나고 물었더니 그는 긴장된 표정을 지으면서 좀처럼 말하려고 하지 않았다. 얼른 말하지 않는 눈치로 보아서 더욱 의심나는 일이었다. 사유를 알아내기 위해 그를 달래기 시작하였다. 너와 나와는 그러한 처지가 아닌데 그럴 것이 없지 않느냐고 반억박다짐으로 캐어물었더니 자기가 말한 것에 관하여 비밀을 지켜줄 것을 되풀이하면서 사연을 말하는 것이었다.

그의 입을 통하여 비로소 알게 된 것인데 새로 들어온 보이들은 전부가 일본의 첩보원이라는 것이었다. 현역 첩보장교나 하사관 중에서 행동이 민첩하고 영어를 잘 하는 자들을 엄선한 후 그들에게 사복을 입혀 조사단이 유숙중인 大和호텔에 배치하여 보이행세를 시켰었다.

일본은 자기들의 침략행위가 조사단에 발각될까봐 무척 두려워 하였다. 그리하여 조사단원이 외부사람과 접촉하는 것을 극력 감시하였다. 관동군 특무대원들이 눈을 부릅뜨고 항상 조사단원의 주위를 감시하고 있는데 어느 누가 감히 그들에게 접근하거나 묻는 말에 사실대로 대답할 수 있었겠는가?

호텔에서의 감시는 더욱 엄했다. 보이로 변장한 첩보원들은 의심나는 사람이 호텔에 들어서면 시치미를 떼고 미행하기도 하고 또한 다른 보이들에게 그 사람을 주의하라는 것같이 구석진 곳에서 귀속말을 주고 받곤하였다.

감시가 이와같이 삼엄한데 어떻게 하면 中國대표 顧維均씨를 비밀리에 만날 수 있을까? 나는 다행히 신문기자여서 비록 감시는 받았으나 호텔의 복도를 마음대로 왕래할 수는 있었다. 그러

다가 복도에서 조사단장인 릿튼경이나 중국대표 顧維均씨를 만날 기회는 각각 한두번 있기는 하였으나 보이로 변장한 관동군 첩보원이 눈을 부릅뜨고 노려보는 판국에서 어찌 하는 도리가 없었다.

기회를 엿보는 사이에 하루가 지나고 이들이 지났다. 그렇지만 그들의 감시는 여전히 심하여 좀처럼 틈이 없었다.

3일째 되던 날 -- 나는 이른 아침에 아침밥도 먹지 않고 호텔로 달려갔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다. 한낮과 밤이면 비교적 한산하였다. 또한 지난 이틀동안 살펴본 결과로 보아서 아침이면 감시를 다소 등한히 하는 경향이 있음을 눈치채게 되었던 것이다.

대표들의 방은 3층에 있었다. 엘리베이터로 3층에 올라오니 예상한대로 왕래하는 사람들이 드물었다. 물론 감시원들은 들락날락 하였지만..... 나는 주저없이 顧維均씨 방앞 복도에 놓여 있는 의자에 앉아 동태를 살피었다. 그러다가도 감시원들이 가까이오면 신문을 보거나 취재한 것을 메모하는 시늉을 하였다. 어떤 놈들은 나의 행동이 아무래도 의심하였던지 바싹 걸으며 다가오기도 하였는데 나는 그럴 때일수록 태연을 가장코 그들에게 웃음을 던졌다. 그러던중 내가 호텔에 도착한지 삼십분가량 경과하였을 무렵이었다.

돌연 도어가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분명히 顧維均씨 방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순간 나는 긴장되었다. 주위를 살펴보았다. 일은 제대로 되기 마련이었는지 다행히 감시원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에 顧씨는 내가 앉아 있는 앞을 뚜벅뚜벅 지나가고 있었다. 나는 무턱대고 뒤를 따랐다. 따라가노라면 무슨 기회가 생기겠지 하고..... 그는 때마침 4층에서 내려오는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이었다. 또다시 주위를 살펴보니 보는 사람은 없었다. 그리하여 나도 엘리베이터에 뛰어 들었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세 사람밖에 없었다. 顧維均씨와 나 그리고 중국인인 엘리베이터 운전사 뿐이었다.

두번 다시 없을 절호의 기회였다. 나는 낮은 소리로 먼저 동아일보의 특파원임을 밝혔다. 그랬더니 그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미소를 짓는 것이었다. 다음에 미리 준비한 쪽지를 주었더니 顧씨는 외교관인지라 그러한 눈치가 빨랐었다.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하면서 양복저고리 윗 호주머니에 재빨리 넣고 있었다. 쪽지에 쓰여진 내용을 대충 설명하려고 하였으나 엘리베이터는 벌써 1층에 닿아 문이 열리고 있었다. 하는 수없이 목례만 하고 헤어졌다.

7. 聲明書

<近代韓國名論說集> (1979년)

李忠武公遺蹟保存會

우리는 李忠武公의 유적을 영구보존하기 위하여 이제 이 모듬을 발기하는 것이다. 묘소, 祠廟, 位土로부터 친필, 일기, 상시 쓰시던 器物 미세한 것까지도 어느 것이나 다 민족적으로 寶重할 것은 이제 긴 말을 부칠 필요도 없거니와 근일 신문에 보도되는 바를 보건대 기약을 정한배 없이 勤促을 받은배 없이 時로 붓고 날로 커지는 성금은 참으로 忠武의 當日至誠을 느끼웁게 映寫하는 것 같다. 처음 걱정하던 問題로 말하면 이렇다 이 어른의 祠墓守護와 香火가 없이 황송스럽게 되어 一區荒涼으로써 우리의 心面을 미루어 볼 수 있지 아니할까 하였던 것인데 이제 저같은 열성으로써 차차 처음 걱정을 놓을만큼 되었으나 다시 또 걱정할바이 있으니 목전의 保存을 넘어 만세의 保存을 기하지 아니할 수 없으며 忠武의 祠墓이외 일체를 보존하는 문제가 지금으로는 忠武

한분의 大功, 盛熱을 받드는 것뿐 아니라 이 모든 유적에 전민중의 그칠줄 모르는 열성이 圍繞한 것이 더 한층 寶重에 寶重을 더하여 놓았나니 우리로서 더욱이 그 永保를 걱정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런즉 苟安에 그칠 수 없고 草率히 마말을 수 없고 肅條하던 前狀을 그대로 뒤에 끼칠 수가 없다.

債額辨濟의 걱정은 피어오르는 열성이 爐火에 燒爍될 것으로 본다. 忠武유적을 영구히 보존하고 장엄히 보존해야 法人의 조직으로써 祠墓는 祠墓다듬게 構飾하고 유물은 유물다듬게 陳列해야 bathtub 시설이 있고 두매 館宇가 있어야 할 것도 또한 우리의 淺誠이 곳곳내 大方의 阿瞽하심을 받을지라 所需는 圓으로 貳萬이상을 算하나 우리는 성금을 구한다 못하며 회원을 모른다 하지 않는다. 삼가 기다림에 그칠뿐이다. 오즉 이 어른의 유적이 朝鮮에 있어 거대한 光輝인 동시에 이제 全朝鮮의 열성까지 아울러 뭉치어 이 古今 希有의 故事를 이루은 것을 한걸음 더 나가 자손만대에 기리기리 燦爛炳期할 기초의 鞏固있어야 할 것을 互期하라 한다.

昭和6年(1932年) 5월 26일

李忠武公遺蹟保存會委員

尹致昊 南宮薰 宋鎮禹 安在鴻 朴勝彬 兪偵兼 崔奎東 曹晚植

鄭廣朝 金正佑 金炳魯 鄭寅普 韓龍雲 尹顯泰 兪鎮泰

8. 三大新聞의 巨頭

<鐵筆>

月 卅 生

앞으로는 朝鮮의 民間言論界가 얼마나 많은 발전을 보일지는 아직 의문이나 現今의 情勢로 보아서는 金屬으로 치면 展性和 延性を 함께 가지지 못한 朝鮮의 言論界이나 朝鮮.東亞.中外의 세 新聞이 朝鮮言論界의 主的이며 따라서 霸者들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三社 共히 朝鮮人 大衆의 表現機關으로 自處하고 各各 自稱 十萬의 讀者를 擁하여 朝鮮의 輿論은 一般에게 紹介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代辯도 한다. 그리고 그들 當路者의 眼中에서나 念頭에서 언제나 朝鮮이 사라지지 아니하는 것도 自己네의 辯明을 기다릴 것 없이 우리 스스로도 能히 짐작하는 바이다.

이리하여 이 3大新聞은 한 '저널리스트'로서 存在하는 그 以外의 意味깊은 役割을 맡아가지고 現實의 朝鮮에서 存在해 있는 것이다. 이런 意味에서 우리는 이 세 新聞을 一種 合法(?)의이나마 運動團體로 본다고 하여도 妄論은 아닐 것이다. 그러면 우리 2천3백만 民衆의 表現機關이며 代辯者이며 報道와 指導를 兼해 맡은 이 세 機關은 어떠한 사람들의 팔뚝을 빌어 키(舵)를 돌리는가를 알아둬도 매우 緊要한 일일 것이다.

- 女子라면 喪夫할 宋鎮禹氏 -

停刊中에 孤獨한 歲月을 보내고 있는 東亞日報社長 宋鎮禹氏부터 보자. 氏는 얼른 보면 內侍같이 되고 어깨가 올라가지 아니한 것을 보면 氏가 過去에 大闕 出入이 없었던 것만은 누구나 잘 諒解할 것이다. 그러나 그 平面이라도 過度히 平面的으로 된 氏의 얼굴과 女子로 되었던들 喪夫할 程度로 쑥 나온 兩頸骨 그리고 '離妻의 明'을 가진 사람이 顯微鏡 쓴 후에 죽집개를 들고 대들어도 찾아보기 어려운 수염 등으로 보면 推定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그 넓직한 이마(額) 軒昂한 氣像 거기에서 氏 獨特한 氣魄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氏의 넓직한 이마와 軒昂한 氣品을 看破하지 못하고 다른 點만을 보아 氏를 속속들이

짐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을 몰라보는 데도 分數가 없는 사람일 것이다. 氏는 얼굴의 大體로 보면 外華의 人은 아니다. 그대신 內實의 人이다. 韓日合邦 以後 世事가 自己의 뜻과 어긋어지매 몸을 庠序에 投하여 白墨가루를 마시며 聰俊子弟 教養에 一念이 孜孜하였으되 恒常 脫穎할 機會를 보아 오다가 己未 -- 一過한 후에 民衆의 움직임은 傾向이 前과 差를 보이고는 脫穎할 時機가 다다랐음을 看破하고 慨然히 일어나니 그때의 氏는 教壇의 人, 學究의 士를 벗어나 運動의 策士가 되었었다.

그러다가 東亞日報가 第一期 創刊者의 經營難이란 함정에 들었음을 보고 다시 氏는 平素에 交分이 두텁고 志氣가 相合하는 金性洙氏와 天下事를 共論하다가 드디어 이것을 지키어 定向없이 動하는 民衆의 指南이 되기를 決意하고 나선 것이 十年未滿이나 그동안 朝鮮으로 하여금 言論을 理解하고 大勢에 合流케 하는 한편 또다시 東亞日報 自體의 內容도 充實하여 宛然 한개의 王國을 이루게 하였으니 氏는 여태껏 지나온 바로 보아 能小能大하며 大勢의 歸趨를 알아 써 將來의 轍을 바를 아는 모양이다.

그러나 月杻子의 보는 바로는 氏는 政治家라기 보다는 策略家이다. 運籌帷幄의 謀士이다. 氏 自身으로서는 섭섭히 여길는지 모르지만 表面에 나설 政治家로는 外華에 무게가 적고, 演壇에 올라서 政治演說 한마디 하기는 聲量이 적다. 그리고 氏는 勿論 惚忙한 社務와 其他 여러가지로 精神을 너무 쓰는 탓이겠지만 健忘症이 있는 모양이다.

그리고 氏는 部下를 統制하는데 역시, 어떤 妙方을 가진 모양이다. 그리하여 그렇게 많은 部下 중에서도 不平을 吐하는 者가 없는 것을 보면 果然 氏가 部下統制를 잘하는 모양인지 수염 한개 없는 氏의 얼굴에 嬌態가 어떤 魅力을 가지고 部下를 箝制(箝制)하는지 알기 어렵다.(申錫兩, 安熙濟 記事는 省略)

9. 東亞日報社長 宋鎮禹氏 面影

<擘星> 제1권 제1호 (1931년 3월호)

白 菱

花洞 東亞日報 舊社屋 -- 때는 午後 2時. 하루일이 가장 바쁜 時間이다.

編輯局長자리 암체어에 큼직한 軀體를 폭신 잠그고 한팔로 뺨을 고인채 例에 依하여 눈을 감고 午睡(?) 冥想(?)을 하고 있던 宋鎮禹氏가 무슨 생각이 났는지 눈을 번쩍 뜨고 바로 그 옆에 있는 社會部를 바라본다.

午後 2시니까 社會部 外勤記者도 다 들어왔다. 日常 하는대로 나란히 앉은 高永翰君과 柳志永君도 雜念없이 原稿를 쓰고 있는 판이다.

그때에 宋鎮禹가 넙죽한 목소리로 '高志永氏-'하고 불러 놓았다. 이 서슬에 高永翰 志永 兩君이 다같이 한꺼번에

"네?"

"네?"

대답을 하고 이 편을 바라본다. 그러면서 社會部를 中心으로 웃음이 왁 터져나온다.

그때에 宋鎮禹氏가 高永翰君을 부르다가 高志永氏라고 했는지 柳志永君을 부르다가 高志永氏라고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으나 이것으로써 氏가 日常 '생각'을 골똘히 하다가 뜻밖에 그러한 망발을 잘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A社員이 설령탕을 먹으면 自己도 설령탕을 給仕더러 시키라고 해놓고 또다른 B社員이 모리를

시키면 먼저 시킨 설령탕은 잊어버리고서 모리를 시키라고 하고... 等等 絶唱이 많다.

氏は 全南潭陽 태생이다.

지금 事業에 있어 一身兩面이라고 할만한 金性洙씨와 한가지로 日本으로 건너간 것이 略 20年前인 듯하다(그때 下觀서 잘못 2等車를 타고 車掌에게 혼이 나서 東京驛(?)에 내려 人力車三等타기를 固執했다는 말도 有名한 逸話다)

東京서 明大法科를 마치고 歸國하여 金性洙와 한가지로 그때 바로 閉門의 悲運에 빠진 中央學校를 引繼하여 己未事件以前까지 처음에는 學監으로 나중에는 校長으로 教育事業에 從事하였다.

그때의 氏は 지금의 활달하고 때가 벗은 政治家的 人物임에 比하여 다만 한 教育者요 先生님일 따름이었다.

氏 自身 亦是 學生들에게 '나는 一生을 教育家로서 마치고'고 하였다. 그에 알맞게 -- 말하자면 若干 고릿하게 -- 試險問題를 塗板에 써 놓고 난로옆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果然 졸음만은 예나 지금이나 變함이 없으나 己未運動을 劃期로 氏は 堂堂히 政略家로써 나서게 되었다.

辯才도 그 當時는 그다지 神通스럽든가 싶지 않다. 그 固有한 語辟와 사투리는 그대로 있으나 '...그리 각고-는' 하며 꼭 쥐인 주먹으로 테이블을 땅 치고 눈을 한번 꿈벅 입을 움짖히고 聽衆을 내려보는 樣은 우습기는 하나 웃음은 나오지 못하고 귀와 눈이 번쩍 띄이는 무엇인가가 있다.

己未以後 氏は 다시 金性洙와 한가지로 東亞日報를 세우며 일을 하게 되었다.

金性洙氏의 말이 여러번 나오니 말이지 이 兩氏는 一身兩面이다.

무슨 일이든지 둘이서 같이 나선다. 그것은 마치 한쌍의 夫婦와도 같다.

勿論 두 性格은 全然 다른 點이 많다.

일을 着手 혹은 進行하는데 있어 金氏는 消極的인데 反하여 宋氏는 積極的이다.

金氏는 若干 性이 急한데 反하여 宋氏는 뱃심이 나온다.

金氏는 돈을 모으고 宋氏는 돈을 쓴다.

金氏는 쪽을 맞추고 쪽을 짓는데 反하여 宋氏는 떼어놓고 벌려 놓는다.

金氏는 君子的으로 安穩하며 살림꾼인데 反하여 宋氏는 外交的이요 水滸誌式이다.

金氏는 자자본하니 고요한데 反하여 宋氏는 거칠고 왕땡- 한다.

金氏는 君子的으로 公平한데 反하여 宋氏는 政治家的으로 多少 黨派的이다. 그러므로 그 手下의 人中에 氏가 한번 信任한 사람이면 그 杜護가 두터운 反面에 한 눈이 벗은 사람이면 포인트로 以下 떠 내려놓고 만다.

그것은 그렇다고 以上과 같이 宋 金 兩氏는 서로 反對되는 두 性格을 잘 綜合하여 가지고 오늘날의 事業을 이룬 것이다.

그러므로 金氏가 없었으면 오늘날의 宋氏와 그 事業이 없었을지도 모르는 것이요 宋氏가 없었더라면 오늘날의 金氏와 그 事業이 없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東亞日報는 初創期인 花洞 舊社屋時節이 가장 어려웠던 때다.

따라서 그를 背景삼아 오늘날까지 이르는 宋鎭禹氏도 그 時節이 가장 어려운 고비였을 것이다.

編輯局長으로 社長으로 한번은 一但 引退를 하였다가 다시 顧問으로 編輯局長으로 及其也 社長으로 --

그리하는 동안에 新聞 自體로도 아슬아슬한 경우를 많이 넘겼고 氏도 어려운 재주를 많이 넘었다. 筆禍事件으로 鐵窓에 들어간 것도 그때요 말쑥많은 社會團體의 沒 攻擊을 받던 때도 그때요 ○○○에게 시달림을 받던 때도 그때다.

○○○이라니 우스운 이야기가 생각난다. ○○○이는 部下를 데리고 어떠한 때는 피스톨까지 차고 온다.

마주 붙어 싸울 수도 없는 일이지, 그러자니 당하기가 창피하고 어쩔 수 없이 실컷 시달리고

나서 어떻게 쫓아보내고는 營業局으로 쪽--오면서 當時 營業局長(?)인 愼구범氏더러

“愼구범씨 총 갖다놓으시오. 총.....그 놈이 來日 또 오면 내 그 놈을 쏘아 죽일테야” 하며 분에 못이겨 하던 樣은 實地로 아니본 사람말이지 아니 웃을 수가 없었다.

困難이 있었을 뿐 아니라 많은 誘惑도 있었다. 이것은 確實하다고 斷言하기는 어려우나 ‘道知事’라는 미끼까지도 있었다고 한다.

어쨌거나 困難과 難關을 디디고 넘어 한층두층 東亞日報의 基礎가 굳어짐에 따라 宋氏의 地盤도 든든하여지고 可否間에 氏의 定體도 또한 鮮明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그것은 新社屋을 建築하고 다시 社長의 자리로 올라가 앉으면서부터이라 하겠다.

그러나 一般이 보기에는 宋鎮禹氏가 平生을 한 저널리스트로 보내리라고는 생각지 아니한다. 그리하기에는 氏는 너무도 政治的으로 頭腦가 생겨졌다.

언뜻 보기에는 둔한 것 같고 우물우물 하는 것도 같다. 손님을 앉혀놓고 혼자 줄기가 일쑤요 ‘하이 하이 와다구시가 소징구데스’하는 한심한 日語로 外交는 하건만 어데를 가든지 발을 척 개이고 앉았지 납작 엎드려 국궁하거나 반쯤 쪼그리고 앉거나 할 質이 아니다.

이만큼 버틴다. 그리고 그만큼 밝게 觀察을 하며 그 觀察을 實地에 利用할 手段을 부린다.

勿論 이것은 宋鎮禹氏가 現在 디디고 서서 있는 바 背景인 그 情勢 밑에서라는 前提로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萬一 그 背景이나 그 情勢를 ‘善’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람의 立場에 서서 論한다하면 그동안까지 써온中 宋氏의 公的生活에 대한 것은 全部 否認할지 모를 것이다. 그보다 더 그 全體까지도 否認할지 모를 일이다.

且說 氏는 앞으로 政治的 舞臺가 許與된다면 그때에 비로소 氏의 氏다운 活動과 面目이 나올 것이다. 그러므로 東亞日報社長으로의 宋鎮禹氏는 그 앞날로 보아 아직도 潛伏期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氏는 아직 42歲. 年齡으로 보아도 지금으로부터가 한창 일을 할 때다.

아침마다 花洞自宅에서 人力車에 몸을 싣고 例의 例대로 팔찌를 짝 끼고 입도 짝 다물고 눈을 짝 감지 않으면 무슨 소린지 흥얼흥얼 하면서 社로 향하여 出勤을 하고 있다. 그 큼직한 얼굴에 수염이 없는 것이 좀 섭섭하다.

몸은 比較的 펍 건강한 편이요 政客답지 않게 술에는 弱한 모양이다.

艷史를 조금만 썼으면 좋겠으나 先生님 匡중하실까봐 그만둔다. 가장 信任하기는 朱요한 薛義植 李光洙氏. 말이 났으니 말이지 前날 舊社屋에서 생긴 이야기이다.

李光洙가 病으로 나오지 못하고 그 代理겸 해서 그 夫人 許英肅氏가 學藝部 일을 잠시 맡아본 일이 있었는데 하루는 아침에 至誠으로 許英肅씨를 불러놓고는

‘春園 좀 어떻습니까?’ 하고 물었다.

‘아이구 웬일인지 어제오늘 熱이 더해요’

‘엥? 그거 안됐군! 저 저 許英肅씨를 春園한테서 隔離를 시켜야해 격리’

이런 意外의 농을 하고 모두들 웃은 일이 있었다.

子女間에 所生은 없다.

所生이 없다는 것보담 年前에 晩得으로 하나 얻은 애기를 앓차 잃어버리고 말았다.(暴言多謝)

10. 나의 八人觀

<三千里> 제4권 제4호 (총25호 1932.4.1)

朝鮮의 人物中에서 이미 完成된 權威者를 골라내려면, ×雄 安昌浩, 政客 宋鎮禹, 事業家 金性洙, ××家 金翰, 雄辯家 朴一秉, 外交家 金奎植, 文豪 李光洙, 好人物 安在鴻(後日의 好宰相?) 등이 될 것이다. 政客側 人物에는 申錫雨, 張德秀君 등이 있으나 申君은 좀 더 긴 時日의 現實履歷을 가져야 할 人物(그는 너무 빨리 隱退한 感이 없지 않다)이며 張德秀君은 議會政治家流의 人物이나 學界로 向해 가는 便(充實한 政治學者로서)이 더 좋은 길일까 한다. 此外에 또 빼어놓지 못할 人物로는 崔麟이 있으나 그는 새 時代 사람들의 信賴하는 支持를 받기에는 너무나 陰險하고 舊式人物인 듯싶다.

宋 鎮 禹(觀)

(前略)

氏は 理論家는 아니다. 그는 謀略縱橫의 가장 活動的인 政客이다. 朝鮮안의 人物로서는 政治家로의 그럴듯한 素質이 第一 豊富한 人物은 宋氏일 것이다. 그는 朝鮮안의 젊은 人物로서는 벌써 政治家로의 及第點 以上을 突破한 人物이다. 그러나 宋氏는 그 政客으로의 性格이 너무나 動的인 것에 많은 失敗와 또는 그에 따르는 많은 是非가 있을 것이다. 그는 그 앞날의 政治的 活動에 있어서 風雲이 자못 잦을 것이다.

張德秀君과 같은 忠實함과 굳센 骨이 없는 點이 그의 큰 缺點, 그러나 縱人御人之術에 있어서야 張君之比가 아니다. 張君은 그 點에 있어서는 宋氏의 발아래에 멀리 내려다보이는 純眞한 보이일 것이다.

11. 朝鮮新聞論

<東方評論> (1932년 5월호)

漢陽學人

現下 朝鮮의 新聞은 一大 危機에 逢着하고 있다. 지난 五月 한달동안에 '朝鮮' '中央' 兩紙는 畢竟 休刊의 悲運을 안고 生死의 岐路에서 彷徨하게 되었으니 '東亞' 홀로 굳은 磐石 위에서 太平樂을 울리고 있는 八字이다. 이로서 從來 鼎立之勢를 形成하여 오던 朝鮮의 民間 新聞界는 巨勢의 暴風 앞에서 戰兢하게 되었다.

過去를 溯古하면 朝鮮의 新聞은 決코 平坦한 길을 걸어왔다고 볼 수는 없다. 가시덤불 속에서 發生되고 成長되고 結實되었다. 結實 그나마 변변한 것은 못되나 今日의 '東亞' '朝鮮' '中央'의 三新聞이 朝鮮 社會에 있어서 民族的으로 重要的 使命을 띠운 機關임은 事實이다. 하여튼 以上の 三新聞은 民族的 覺醒의 餘勢의 產物이다. 合併 以前에 漢城日報, 獨立新聞, 皇城新聞, 帝國新聞, 大韓每日申報, 大韓民報, 萬歲報 등이 簇生하여 當時 기울어져가는 朝鮮의 運命을 얼싸안고 民族的 代言機關으로 自任하였던 것도 植民地 朝鮮에의 轉化와 함께 一朝에 潛影되어버려 朝鮮은 이로서 輿論의 暗黑時代를 現出하더니 三.一運動 이후 十餘年間 民族的 自覺의 產物로 '東亞'가 일어나고 '朝鮮'이 革新의 面目을 세우고 時代 -中外- 中央의 經路를 밟은 現在의 '中央'이 復興되어 貧弱한 朝鮮新聞界에서 角逐을 하여 온 것도 及其也 今日에 이르러서는 다시 昔日의 暗黑時代로

돌아가려는 前兆를 보이고 있으니 實로 崎嶇한 朝鮮의 新聞社會라 하겠다.

그러면 朝鮮의 新聞은 왜 이와같은 不振狀態에서 終始一貫하여 甚하면 隕命을 하고 設或 隕命까지는 이르지 않는다 하나 滿身瘡痍의 自身을 끌고 구구한 命脈을 지탱하여 가게 되는가.

新聞事業도 一種의 企業이다. 고무企業, 紡織企業만이 企業이 아니고 新聞도 資本主義 生産機關의 한구석을 차지하는 同時에 新聞紙는 一種의 商品일 것이다. 新聞紙가 商品이라 함에 一部에서는 新聞의 墮落을 부르짖을지도 알 수 없다. 新聞은 新聞으로서의 機能이 있으며 그 機能을 完全히 發揮함에는 그것의 商品化를 評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들의 主張하는 理論일 것이다.

여기에 參考로 世界 新聞企業界의 動向을 一瞥하기로 한다.

新聞은 初期에 個人企業에서 出發하여 會社企業으로 完全히 發展할 수는 없었다. 産業合理化라는 現代 高速度의 資本主義 經濟의 叫號가 新聞企業界에도 震動되자 新聞 企業家들은 그들의 尠大한 資本力을 가지고 大小 新聞의 合同에 着手하고 一新聞 發行會社로부터 無數한 新聞紙를 發行하게 된 것이다. 이는 不可抗力의 일이니 資本主義 經濟에 있어 獨占化하는 것은 반드시 新聞企業이라고 除外하지는 않는 것이다. 그래서 現在 世界의 新聞界는 大企業에의 躍進을 敢行하는 中에 있어 英國의 로더미어 베리, 美國의 허스트는 그 中에 代表的 企業家이다.

이렇듯 世界 新聞界는 小企業에서 大企業으로 躍進을 敢行하고 있다. 가까운 곳의 예로는 日本의 '大朝' '大每'만 하더라도 비록 英美와 같은 新聞 合同의 大規模에까지는 到達치 못하였으나 個人企業에서 會社企業으로 轉化하여 現在 日本內 다른 群少新聞 위에 君臨하는 二大 偉觀을 이루고 있는 것은 우리의 目睹하는 事實이다. 이로 보아 新聞 經營은 企業 形態를 갖추지 않을 수 없을 뿐 아니라 企業 形態는 資本主義의 高速度의 發展과 함께 獨占화한다는 傾向을 우리는 世界 新聞界의 動向으로부터 抽象할 수 있는 것이다.

上述한 바에 依하여 新聞은 決코 初期의 政黨, 團體, 個人에 從屬 管理되는 新聞(原始的 企業形態)으로서는 到底히 存續할 수 없는 것이요, 現代 資本主義 經濟의 高速度의 發展과 併行하여 自體의 大企業에서 躍進이 없으면 아니될 뿐더러 時와 所에 拘泥하지 않고 그것의 原則은 不變하는 것이다. 그러면 朝鮮의 新聞 事業은 그동안 어떠한 過程을 밟아 어떠한 企業 形態에까지 이르렀는가를 暫見하면 다음과 같다.

'東亞'는 1920년에 金性洙, 朴泳孝, 柳瑾 諸氏의 손으로 創刊되어 처음에는 純然히 個人 企業의 形態로서 生長되었으나 時代의 要求에 聽從하는 百퍼센트의 新聞機能을 發揮하는 熱誠의 나머지(此間略)

그러다가 그 後 金性洙氏의 發奮의 結果로 七十萬圓 株式會社가 成立되었으나 이때부터 同社는 會社 企業 形態로 完全히 轉化되는 한편으로 漸次 社運이 好轉하여 現在에는 朝鮮 新聞界에 王座를 占하고 있다.

다음에 '朝鮮'은 始初를 1920年 大正親睦會의 宋秉峻伯의 獨單 經營으로부터 出發하였으나 그 後 申錫雨, 曹俠鉉, 李相協 諸氏 등이 引繼하여 李商在氏를 社長으로 推戴하고 同社의 主義主張을 民衆的 欲望에 두고 大革新을 하였으니 이때부터 同紙는 旭日昇天의 氣勢를 가지고 當時 新聞 販賣市場에 霸王然하던 '東亞'에 肉薄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同社는 于今 九年間을 組合企業形態를 持續하여 前後 五十餘萬圓의 資本을 同經營에 投資하였다고 한다.

'中央'은 以上 兩紙와는 그 企業 形態가 不規則의 變轉하였으니 1923年 東明(雜誌)을 하던 崔南善氏가 '時代'를 처음으로 創刊하여 或時は 普天教로 或時は 洪命憲氏 등의 個人 形式으로 經營되었으나 그 後 '中外' 때에 내려와서 李相協, 安熙濟 諸氏 등을 中心으로 한 慶尙道 財閥이 會社企業 形態로 轉化시켜 十五萬圓의 株式會社를 創立하더니 이도 幽靈이 되어 休刊되었다가 昨年 末頃에 及其也 盧正一氏의 個人企業으로 現在의 '中央'이 出生된 것이다.

이를 다시 要約하여 말하면 '東亞'는 創刊 前後 幾多의 波瀾을 겪었을망정 그의 企業形態는 正當의 發展되어 今日의 健實을 보여주었다고 볼 수 있고 이와 反對로 '朝鮮'과 '中央'은 受難의

歷史를 거둬들이었으니 그의 企業 形態는 原始的임을 免치 못하는 한편으로 新聞 企業에는 敗北者가 되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면 朝鮮의 三新聞 中에 何必 '東亞'만은 今日의 隆盛을 보여주고 '朝鮮'과 '中央'은 昔日의 不振이 只今껏 繼續되어 結局 이꼴이 되었는가?

여기에는 朝鮮의 新聞企業이 外國과는 浬浬로 企業으로서의 特殊性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此間略) 이것이 恒時 新聞과는 不可分の 關係를 갖고 있기 때문에 '東亞' 비록 現在의 好成績을 보이고 있기는 하나 이로 하여 無限한 辛苦를 當하고 無數한 犧牲을 供한 것은 일일이 記憶으로 헤일 수 없는 일이며 '朝鮮' '中央'이 今日의 不運을 當한 것은 그 半分 以上이 여기에 由因하였다고 보는 것이다. 卽 이 特殊性이 從來 朝鮮의 新聞企業 不振의 第一 原因體가 된 것이다.

그러면 企業으로서의 發達을 阻害하는 特殊性 -- 그 內容은 무엇인가? 또한 이 特殊性和 아울러 朝鮮의 新聞으로 하여금 凋落의 運命을 지게 하는 第二 原因體는 무엇인가? 便宜上 前者를 外部的 條件이라 하고 後者를 內部的 條件이라 하여 다음에 究明한다.

外部的 條件이라 함은 企業形態로서의 新聞事業이 植民地 朝鮮에 있어서 發展되어나가는 途程의 모든 不利한 情勢를 意味한다. 다음에 逐條 說明하면

(1) 資本力の 貧弱

新聞 經營에는 重大한 要素가 資本力이다. 더욱이 新聞 企業의 傾向이 大企業에의 躍進으로 轉化하는 世界 新聞 企業界는 資本力의 大小 如何로 그의 制霸가 決定되는 今日에 있다. 그러나 朝鮮은 이와 달리 特殊한 情勢에 處하여 있으니 新聞에 對한 朝鮮人 企業의 關心과 注意가 아직껏 不足한 것이다. 從來 新聞紙의 不成績의 影響으로 大概是 新聞 企業에 對하여는 不安을 품고 있다. 勿論 가난한 民族의 탓도 있거니와 이 까닭으로 해서 自然히 新聞 經營에 血液과 같은 作用을 하는 資本의 投資熱이 稀少하고 그 結果로 一部の 投資가 既往에 있었다 하더라도 新聞 運營에 支障을 가져오지 않을 만한 程度의 後援이 없는 關係로 恒常 朝鮮의 新聞은 活潑한 活動을 하지 못한 것이다.

(2) 一般의 生活이 富裕치 못한 것

新聞 企業 收入의 二大源泉은 廣告와 販賣이다. 이 兩者로부터의 收入多寡로 新聞의 存續이 決定되는 것이니 이를 眼中에 두지않고 企業을 持續할 수는 없다. 그러면 朝鮮의 新聞은 이 兩者와 어떠한 關係를 맺어왔는가? 朝鮮의 新聞은 그동안 廣告보다 販賣에 置重하여 왔다. 最近의 '東亞'가 어떠한지는 몰라도 筆者의 推測으로는 販賣 收入이 廣告 收入을 超過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그 理由는 第一로 朝鮮人 中에 大廣告主가 없는 것과 第二로 日本의 東京, 大阪 廣告를 極히 廉價로 가져오기 때문에 外國이나 日本과 같이 自國內에서의 廣告 收入을 販賣 收入의 二倍로 努力한데다 그 數字에 더 達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朝鮮의 新聞은 自然히 販賣網 擴張에 必死의 努力을 하여 紙代의 增加를 期하는 現實에 있다. 그러면 이 紙代의 增加만을 가지고 新聞을 運營할 수 있을지는 또한 別問題에 屬하는 것이다.

이나마 一般의 生活이 大概是 窮貧한 탓으로 紙代의 收金도 好成績을 나타내지 못하는 한편으로 販賣網의 擴張도 如意치 못한 形便이니 이러한 理由로 朝鮮의 新聞 企業은 自體 存續에 一大 威脅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3) 當局의 方針

新聞의 效用은 그의 機能에 있다. 그래서 그의 機能을 完全히 發揮함에는 朝鮮의 現段階에 있어서는 對立的 社會意識(民族主義, 社會主義)을 表現시키는데 있으니 前期 三新聞이 그동안 이 機能을 發揮치 못하였다. 李如星, 金世鎔 兩氏의 '數字 朝鮮 研究' 第一輯에 依하면 當局의 新聞 取締는 一九二九年度의 '東亞' 削除 26, 押收 22, '朝鮮' 削除 22, 押收 24, '中外' 削除 24, 押收 17, 1930年度의 '東亞' 削除 30, 押收 19, '朝鮮' 削除 30, 押收 14, 1931年度의 '東亞' 削除 24, 押收

7, '朝鮮' 削除 15, 押收 5, 以上の數字는 從來 朝鮮의 新聞이 自體의 過多한 犧牲을 回避하려고 하는 最近 2, 3年の 것인 것을 보아 1928年 以前에 當局의 取締가 如何한 程度이었음을 미루어 생각할 수가 있다. 뿐만 아니라 停刊의 受難을 當하여 新聞運營에 一大 支障을 가져온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 이로 하여 朝鮮의 新聞은 以上에 列擧한 諸條件과 함께 陣痛의 歷史를 創造하고 한시라도 財政의 困難을 떠날 수가 없었다.

(4) 民衆의 新聞에 對한 期待의 過多

前述한 바와 같이 新聞은 그의 機能을 效用으로 한다. 新聞이 極度로 商品化한 外國과 日本은 몰라도 朝鮮은 新聞의 機能이 對立的 社會意識을 表現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一般 民衆은 新聞은 民族主義 社會主義의 表現機關으로만 觀念하여 新聞의 企業形態로서의 發展을 無視하는 傾向까지 있다. 그것의 例로는 廣告에 들 수 있다. 흔히 新聞에 花柳病, 化粧品 따위의 日本 廣告가 掲載되는 것을 朝鮮의 新聞이 墮落하는 것이라고 떠드는 것도 中の 하나이다.

그밖에 여러가지로 新聞 本然의 機能保全과 商品價値 增加와의 衝突로 新聞企業家는 岐路에 서게 되는 境遇가 종종 있으니 여기에도 新聞이 企業으로서의 活潑한 活動을 하지 못하는 原因이 있는 것이다.

다음에 內部條件이라 함은 新聞 企業 自體의 缺陷을 指稱한다. 이는 非但 朝鮮新聞에서만 摘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外國의 新聞에서도 그 許多한 例를 찾을 수 있으나 朝鮮은 上述의 情勢와 併行하여 互相 連鎖關係를 맺으면서 尤甚한 弊端을 일으키는 感이 있는 것이다. 紙數의 制限도 있고 더욱이 이에 限하여서는 그동안 市內의 '彗星' 그의 後身으로 '第一線', '別乾坤', '批判', '東光', '三千里' 등 外 種種의 雜誌에도 斷片的으로 或은 批判的으로 紹介 論難된 바 있음으로 冗長한 說明을 避하겠거니와 要約하여 그의 缺陷을 들추면 다음과 같다.

(1) 內部的 紛糾

朝鮮의 新聞은 舉皆가 派爭의 歷史로 一貫한 弊가 있다. '東亞'가 初期에 小派瀾을 겪은 일이 있으나 宋鎭禹氏 社長下에 統制가 된 뒤부터는 完全히 이 圈內에서 벗어나 安穩한 狀態에 들어갔음에 反하여 '朝鮮'은 革新後 얼마 안되어서부터 暗鬪가 시작되어 他派 勢力의 驅逐, 自派 勢力의 扶植으로 지금까지 내려왔다.

幹部等은 社의 運營보다 自己네들의 地位安全을 더욱 重視한 結果를 나타내어 結局 그 餘毒으로 社運에는 莫大한 影響을 끼쳤으며 資本主가 들고 날적마다 社의 人事行政은 亂麻狀態를 이루는 한편 社內에 不安을 일으켜 社의 行政은 同時에 無秩序 無統制에 빠지고 마는 醜態를 連續해 왔다. 只今の '朝鮮'이 저 지경이 된 것도 이러한 派爭에 決定的 原因이 있는 것이다.

(2) 資本運用의 失敗

'現代新聞紙의 盛衰 如何는 實로 機械中の 背景이 되는 資本과 資本을 運用하는 企業家의 能力에 基因한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라고 主張하는 사람이 있다. 卽, 巨大한 資本과 有爲한 企業家가 있는 然後에야 新聞企業을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에 依하면 新聞은 有爲한 企業者가 絶對 必要하다. 換言하면 資本運用의 妙理를 아는 사람이 絶對 必要하다는 말이다.

그러면 在來의 '朝鮮'과 其餘의 新聞은 어떠했나? 率直하게 말하면 '東亞'를 제쳐놓고는 果然 이렇다 할만한 企業家가 없었던 것이다. '朝鮮'은 前後 投資額이 50餘萬에 達한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의 現象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는 오로지 新幹部의 放漫政策의 結果와 그 餘波가 今日의 混亂을 가져온 것이다. 傳하는 말에 의하면 '朝鮮'은 革新後 分辨없이 그의 豊富한 資本을 憧憬거리고 썼다 한다. '中外'도 株式會社 當時에는 景氣가 좋았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알 것도 없는 빈털털이가 아니냐?

新聞을 經營하려면 別일이 다 많을 것이다. 資本主를 끌어들이는 方法으로 料亭出入과 美人計

와 私生活의 外華가 必要하고 이노릇 하기에 社財를 消費해야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方法을 取한 既往의 人物이 얼마나 新聞의 前程을 막아놓았는지도 모른다.

企業은 權謀術數가 아니다. 企業은 그 自體의 法則 밑에서 成長하는 것이다. 卽 資本을 運用하는 妙理를 把握하는 企業가가 아니고서는 新聞을 經營할 資格이 없는 것이다. 以上の '朝鮮' '中外'는 이 點에서 失敗하였다.

上述에 依하여 朝鮮의 新聞이 企業으로서 아직 幼稚한 狀態에 있는 것은 그의 過程이 外國과는 情勢를 달리한 植民地 朝鮮의 特殊性으로 말미암아 不活潑하고 無氣力한 發展을 하고 있다는 것을 指摘하고 아울러 이 問題의 特殊性和 併行하여 더욱 深刻히 朝鮮의 新聞으로 하여금 그 疲勞케 한 新聞 自體의 內部的 缺陷에까지 言及하였다. 卽 特殊性和 內部缺陷, 이 두가지가 朝鮮의 新聞이 或은 呻吟하고 或은 悲鳴을 지르게 된 原因 -- 不屈의 原因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朝鮮의 新聞이 앞으로 發展하여가려면 오직 한가지 길밖에 없는 것이다. 卽 可能的 範圍 안에서 最善의 努力을 다하여 新聞을 進歩된 企業으로 活潑히 發展시키는 同時에 新聞 自體의 內部 缺陷을 過去의 經驗을 거울삼아 一掃하는 것이다.

12. 徐載弼이 보낸 편지

徐 載 弼

宋鎮禹 先生 貴下

昨夏 호놀롤루에서 一瞥後에 每樣 글을 올리려 하였으나 오늘까지 時間이 없어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日前에 들은 즉 東亞日報가 停刊을 當하였다 하니 그 理由는 分明히 알 수 없으나 何如間 言論의 自由가 없는 社會의 어떠한 法律에 抵觸된 것인 줄 알고 不祥事에 對하여 痛憤을 禁치 못하던 바 이제 解除의 消息을 들으니 오히려 더 늦지 않은 것만 多幸입니다. 先生과 其他 諸位가 이같이 자주 困苦를 當하게 되는 것은 個人으로는 유감이지마는 民族全體에 對하여는 도리어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오직 이런 逆境의 敎訓을 받아야만 朝鮮民族은 自由와 正義의 價値를 解得하고 人類의 理想社會를 出現시키기에 努力할 것입니다. 우리는 過去에 自由와 正義를 위하여 努力하지 못하였으므로 지금 그것을 못가진 것이외다. 先生과 其他 諸位가 이런 試鍊을 當하는 것은 朝鮮民族의 過去의 허물을 報償하는 同時에 將來에 올 날을 위하여 길을 닦는 것인 줄 압니다. 先生은 마땅히 생각할지니 先生이 ○○된다 하면 이는 個人때문에 됨이 아니요 朝鮮의 言論의 自由를 爲하여 ○○됨인 것이외다. 言論의 自由를 爲하여는 偉大한 人物들이 自進하여 ○○되기를 躊躇하지 아니할지오. 따라서 朝鮮이 先生의 只今 苦楚받는 動機를 理解하고 感謝할 날이 올 것이외다. 現在의 言論界의 苦痛에서 將次 ○○○○할는지 누가 豫言하리까. 世界上에 어떠한 事實이든지 그를 爲하여 奮鬪하는 勇士가 없이 成功된 法이 없습니다. 言論의 自由를 爲하여 先行의 ○○로 因하여 ○○의 날이 올 것을 나는 確信합니다.

○에 있거나 社務를 보거나 先生은 朝鮮民族에게 合作的 精神을 鼓吹하며 物質及 精神上으로 奮鬪猛進해야 할 것을 알려주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民族은 아직 奮鬪의 일을 하기 前에는 吾族의 將來는 暗黑합니다. 우리는 일하여야 하겠습니까. 일하되 辱하여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오직 우리를 살리는 길이외다. 明年의 太平洋會議에 出席하게 되면 다시 거기서 對顔할 줄 압니다. 마지막으로 事件이 速히 解決되기를 바라며 回信을 苦待하면서 그칩니다.

(註: 1926년 6월 6.10 만세사건으로 국내가 뒤숭숭하던 때 미국에 살고 있는 서재필박사로부터 고하는 위안과 격려의 글월을 받았다. 영문으로 된 것인데 6월 12일부였다(당시 신동아 부록에

번역하여 실렸고, 총독부가 꺼려하는 부분은 삭제하였으나 대체의 뜻은 알 수 있겠다).

13. 所聞의 所聞 宋社長과 獨裁者

號外 (日刊誌; 1933년 12월호)

最近 東亞日報社에 入社한 一新入社員이 述懷하여 가로되

“나는 그전에 宋鎮禹氏라면 그저 고집투성이 獨裁者로만 알았더니 이번 東亞日報에 入社를 하여 보니까 아주 말과는 딴판입니다.

그야 新聞製作에 對하여서는 모든 點을 統率하는 關係上 自然 獨裁的으로 나가는 點도 없지 않지만 아침 아홉시면 벌써 出社하여 다른 社員이 거진 다 나간 午後 6.7시까지 編輯局에 혼자 떡 버티고 앉아서 새로 찍혀나온 新聞을 글자 한 자 빼어놓지 않고 살살이 주워읽는 熱誠에는 정말 感嘆치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까닭에 글자 한 자라도 잘 못 쓸래야 잘못 쓸 수가 있어야지요. 亦是 宋鎮禹氏는 부지런한 일꾼입니다....”

14. 挑戰하는 朝鮮日報, 應戰하는 東亞日報

<三千里> (1936년 2월호)

石兵丁記

(前略)

東亞日報의 對策 --

그러면 여기에 注目되는 것은 東亞日報의 對策이다. 싸울 칼이 잘라져 敗戰할 境遇면 捕虜되기 보다 차라리 自刎하여 버리는 勇士와 같이 萬一 資本力이나 人材配置에 있어 不足하여서 다른 新聞의 肩下에 서게 된다면 東亞日報는 스스로 廢門 停刊하여 버리기는 할지언정 屈辱的 地位에 서 있지 않을 것이 同社의 矜持요, 배짱이요, 世人도 또한 東亞日報의 眞價를 그러리라 評하여오는 터이다. 換言하면 東亞日報는 決코 第2位에 自甘할 新聞이 아니다. 第1位가 못되면 적어도 同位에 서야 滿足할 新聞이다. 萬一 돈을 내기 싫어서 株主側이 第2位에 서라 하더라도 宋社長의 氣骨이 그를 不肯할 것이요, 宋社長도 無可奈下라 할지라도 15年 親愛한 十數萬 讀者가 그를 不肯할 것이다.

그러므로 結局 應戰하는 東亞日報의 '大砲'가 時急히 發射될 것인데 그 彈丸은 어떤 것일고. 天機不可漏로 高級幹部 數人과 最高重役사이에 쉬쉬하여 人目を 避하여 가며 祕密히 銳磨되어가고 있는 중인데 이제 그 內容을 推想컨대 紙面을 12面 또는 그 以上으로 增面하여 놓을 것은 不可避의 既定 且 基本的 事實이 되리라. 萬一 10面紙를 不變한다면 事大思想에 젖은 新聞讀者는 단곳으로 가게 될 것이요, 그를 避하자면 東亞는 定價1圓하던 것을 90錢이나 80錢으로 低下해야 된다. 低下하는 날이면 東亞紙는 中央日報級에 編入되어 第2流紙에 自落할 밖에 길이 없는데 그러면 大新聞紙主義를 取하는 東京.大阪의 廣告量이 훨씬 줄어들 것이요, 讀者層도 都市에서 農村으로 옮겨진다. 이리되면 赫赫한 過去 東亞紙의 歷史는 塵土에 묻히고 그후 發展은 極히 消極的이 되어 一言以蔽之하면 自殺의 길에 오르게 된다. 東亞日報는 12面以上으로 增面해야 한다.

그러나 여기 한가지 스스로 파놓은 陷穽이 있다. 曰 廣告料 5割引上이다. 廣告料의 引上이란 말

은 紙面은 없고 廣告量은 輻輳하고 하니 不得已 廣告料金を 올리겠소 하는 것인데 이제 增面을 行한다면 現在 廣告料 單價를 維持하기조차 苦心焦思할 판인데 그 逆으로 도리어 紙面量은 늘었음에 不拘하고 稀少價値說을 否定하는 曠古未曾有의 語不成說 '로직'이 생긴다. 於是乎 여기에 東亞日報의 營業上 煩悶이 생긴다. 그러면 增面과 廣告料 引上關係에 對하여 朝鮮日報는 어떠한가. 마찬가지로 同社 역시 여기에 矛盾을 싸안고 있다. 그러나 朝鮮日報에는 定型이 없다. 新興하는 곳이니만치 體面과 傳統에 蒙개지 않을 것이니 무슨 길이든지 누이 좋고 매부 좋다 할 - 廣告主 좋고 新聞社 좋고, 體面은 體面대로 維持할 案을 發見키 그렇게 難事가 아닐 것이다. 말하자면 猪突的인 點에서 무슨 活路인가 엿보고 있을 것이다.

어쨌든 東亞日報가 12面으로 增面하는 것으로 應戰의 基本武器로 삼을 것은 既定의 事實이다. 그러나 世人의 눈은 살(肥)이 찼다. 12面쯤으로 '東亞日報' '東亞日報'하고 떠들 때는 이제는 벌써 지나갔다. 萬一 朝鮮보다 先手로 그를 着手하였던들 效果 百퍼센트였을 것을....

百戰百熱한 東亞當局者 이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 朝鮮日報에서 增面發表後 地方의 支局長으로부터 讀者地盤을 攻勢에 있는 朝鮮支局에 다 빼앗길 염려가 있으니 하루바삐 增面을 斷行하라고 抗議電報가 每日 多數히 들어오는 것을 보고있는 東亞幹部 胸中에는 百尺竿頭 更進一步할 길이 닳이고 있으리라. 여기에 '덤'으로 내놓는 第2案인 不可無의 그것이 무엇일꼬. 五人의 興味는 여기에 쏠린다.

想像컨대 極東問題의 重要한 一面을 보여주는 意味에서 南北中國에 讀賣가 室伏高信을, 大每가 松村을 보내듯이 主幹이나 編輯局長級 人物을 派하여 蔣介石, 張群等を 會見시켜 紙上을 찬란하게 裝飾치 않을까. 또 中國이 아니면 比律賓으로 또는 布哇나 南洋으로 視察團을 보내지 않을까. 이러한 案도 생각된다. 그렇지 않으면 人氣있는 外國思想家를 -- 胡漢民이나 胡適之나 혹은 타골, 아인슈타인級의 人物을 數萬金을 들리어 招聘하여오지 않을까, 讀賣新聞의 智慧를 빌어 美國서 野球團을, 佛蘭西에서 音樂家나 舞踊家를 빌어오지 않을까. 어쨌든 人氣를 한번 폭신 끌어놓을 案을 생각하고 있을 것 같다.

그리고 對外的으로 보아 社屋도 急하다. 서울장안 紳士淑女의 集會를 相敵 二町以內에 우뚝 선 '朝鮮日報 講堂'에 자꾸 빼앗기고 있는 것을 바라볼 때 人氣장사인 東亞는 電車속에서 달음박질하고 싶도록 焦燥한 생각과 熱湯을 마시는 듯한 苦惱를 맛보리라. 또 東京 大阪 廣告主앞에 남만 못한 社屋을 暴露시킬 때 斷腸의 괴로움이 생길 것이다. 그러니 急 且 緊한 이 社屋을 짓자면 現有 貯金 10萬圓 돈만으로는 不足하므로 結局 第 몇회 拂込을 새로 하여야 할 터인데 그러자면 大株主 金性洙氏의 現金出資가 1, 20萬圓 程度로 새로 있어야 할 터인즉 金氏 負擔이 커진다. 그러나 五人은 비록 外債를 얻어서라도 東亞는 增築計劃대로 今春에 社屋이 서는 것도 重要한 武器가 될 줄 안다. 이밖에 廣範圍로 讀者層에 서비스할 案으로 年定制의 '東亞賞' '東亞博覽會' '東亞圖書館' 등이 나오지 않을까....

兩社 財政, 人的關係, 戰略 等 --

요즘 巷間에 떠도는 말이 있다. 東亞日報는 새해부터 營業政策을 更新하였던 까닭에 公돈으로 年 3萬圓의 利益을 보게 되었는데 그 돈으로 큼직한 恒久的 事業을 하리라 한다. 즉 從來 鮮一紙物會社에서 쓰던 新聞卷紙를 이번에 東京附近에 있는 北越製紙會社에서 사 쓰기로 되었는데 東亞日報의 1年 卷紙使用量은 約 6천本으로 그 價格은 24萬圓에 及하는 바 이번 北越과의 半個年 契約에는 싼값으로 되기로 되어 종이값 3萬圓이 節約된다 함이다. 이와같이 公돈이 뜨는 것을 살핀 朝鮮日報에서는 東亞日報에 先着하여 突嗟的으로 12面을 斷行한 것이란 말도 있는데 다시 鮮一系도 들은 말에 依하면 北越종이는 鮮一보다 1連에 5錢程度로 쌀 뿐 諸般 費用을 넣으면 조금도 싸진 폭이 아니라 하며 東亞 宋社長의 말에는 直接間接으로 3萬圓이 浮한다고 한다.

어쨌든 이번 싸움의 始初는 이 新聞卷紙의 新契約에서 시작된 것으로, 싸우고 보니 그는 讀者會社에 利로운 것이라 이 싸움이 더 커지고 더 持續되기를 바라는 傾向이 있다. 今春 3월에는 副

社長 張德秀氏를 맞는 東亞日報은 人的陣容에 있어서도 좀더 充塡할 것이요, 이에따라 심파적 筆者網 擴大를 쓰는 朝報 또한 그 對案을 講究할 것이니 天下의 注視가 다시 이 新聞戰에 모일 것 같다.

15. 宋鎮禹氏의 '檀君'說

<三千里> (1936년 2월호)

어느날 東亞日報 社長室에서 普專校長 金用茂氏가 온 것을 붙잡고 宋鎮禹氏가 케케묵은 黃紙冊을 일부러 꺼내놓고

“檀君의 단字는 壇字가 分明한데 六堂이 잘못 檀字로 쓰기 시작했고...”

하면서 옛날 南原 梁誠之란 鴻儒의 著書 句節을 가리키면서 長時間 熱論, 宋鎮禹氏의 말솜에 의하면 通政大夫까지 지낸 梁誠之란 政治家는 벌써 四百年前에 檀君을 모셔야 한다고 立論하였더라고.

16. 東亞日報의 今後的 코스

<三千里> (1936년 4월호)

(前略)

나로 하여금 세 新聞의 思想的 系列을 評하라면 東亞는 民族主義, 朝鮮은 自由主義, 中央은 社會主義라 할 것이라. 勿論 이 말은 嚴格한 意味에서가 아니고 그저 가벼운 意味에서 그 態度도 行路가 총총한 夕陽過客이 沿道風光을 한두마디 指摘하고 가듯이 그러한 意味에서 하는 말이다.

中央을 左翼系라 함은 呂運亨, 裴成龍, 林元根, 安炳洙, 李天鎭, 洪憲裕, 金復鎭 等 過去의 色彩가 그러하였던 분이 여럿인 點으로도 首肯되며 朝鮮은 그 幹部層에 아주 強烈한 '社會主義' 아니면 못산다'하는 이도 많지 못한 代身, '民族主義' 아니면 못산다'하는 式의 굳센 民族意識을 가진 이도 많지 못하다. 그래서 一言으로 要約하면 가벼운 意味의 自由主義 傾向이 濃厚하다 할 것이오, 그에 反하여 東亞는 創刊初의 社是에도 '二千萬 民衆의 表現機關'이라 公言하여 比較的 純一한 民族主義系 人物이 中樞神經이 되어 社가 움직이고 있다.

宋社長の 信望도 이러한 意味로서의 信望이다. 이것이 東亞日報로서는 無形의 힘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東亞日報社 幹部가 墨守하는 이 傾向은 最近 激動하는 世界의 思潮와 步調가 맞추어져 가는가 함을 一部 急進層들은 憂慮한다. 같은 民族主義면서 너무 保守的이 아닌가 한다. 紙面에도 近日에는 昔日의 生氣를 잃는 듯한 感이 不無하다.

어쨌든 東亞日報의 近來의 큰 失手는 朝鮮日報에 先是하여 12面 斷行을 하지 못한 것이다. 東亞日報은 今年 正月 초하루부터 오늘까지 꼭 12面 以上을 增面할 覺悟가 있었던 以上, 어째서 正月初하룻날 萬目이 紙面에 모일 때 주먹같은 活字로 이 뜻을 公表하지 못했던고. 우물쭈물 一週日을 끌어오는 동안 他社에 機先을 주어 이 先驅者的, 霸者의 名譽를 빼앗기고 말았다. 이제 들리는 말에 中央日報은 3月中에 10면 80錢을 公言할 듯하다고 한다. 또 每日申報까지 現在의 8面을 朝鮮日報 以上으로 6面增, 14面으로 하기로 內定되어 그 工場擴張을 한달前부터 準備하고 있어 늦어도 6月부터는 發表 즉시 實行하리라 한다.

앞에는 '1圓 12面'의 朝鮮, 每申의 強敵이 있고 뒤에는 '80錢 10面'의 中央의 追擊이 있다. 東亞

紙는 前後左右의 狹擊에서 어디로 가려는고. 東亞에 對하여는 '1月 7日'이 歴史的 厄日이었다. 이 날 以前에 大勢를 살피고 增面社告할 것을 可惜 幹部層의 無氣力, 保守의 罪로 長蛇를 逸하고 말았다.

全鮮 3百의 分支局長은 이 때문에 悲憤의 暗淚를 흘리고 있다. 워털루의 大戰도 그 勝敗는 極히 짧은 一瞬間에 달린 것을 잊었던가. 宋社長은 이에 對하여 다만 不言之 實行이 있을 뿐이라 한다. 그러나 어떻게나 빛없는 不言之 實行인고!

그러나 亦是 東亞日報다! 이것을 다른 모로 解釋한다면 浩浩自適하고 浩浩蕩蕩하여 어디까지든지 自信있는 배짱의 表現인 듯도 하다. '떠들지마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는 듯한 氣壓도 感하여진다.

그래서 第1着으로 大社屋主義로 나가기로 되어 方今 現社屋에 3倍大 增築을 하기로 되어 그의 設計中인데 宋社長의 言明에는 앞으로 3個月內에 起工하여 明年 春3月에 落成하리라 한다. 또 紙面도 '必要에 應하여는' 12面을 하여 나가리라 한다. 公約한 말이 아니기에 이 말은 14~5面을 낼 날도 있는 代身, 옛날의 10面紙도 낼 수 있다는 말이 된다. 增資說도 있는데 이 增資가 되는 날이면 至極히 積極的인 方面에 躍進할 것 같이 觀測된. 그러나 東亞日報의 強味는 金城鐵壁같은 탄탄한 그 財政이라 社가 짊어진 빛이라곤 없다. 종이도 鮮一을 그만두고 北越 것을 갖다 쓰는 바람에 年 數三萬圓의 利를 보고 있다 하며 東京.大阪.名古屋의 廣告量은 점점 늘고있다 한다.

支局도 모두 5年, 10年, 搖之不動할 地盤이 다져지고 있는즉 무슨 必要있어 數萬金 거두자면 이 支局地盤을 通하여서도 一朝一夕에 可能하게 보여진다. 이것이 더 말할 수 없는 힘시오, 寶物이오, '強味'이다. 要컨대 大社屋이 完成되고 12面 斷行을 公約하는 날 東亞의 威勢는 다시 一世를 떨치리라.

그리고 나의 觀測으로는 10년을 社長의 한자리에 있어 心身이 疲勞하였을 宋社長은 한 1, 2年 작성하고 世界週遊에 오르지 않을까. 또 在美 張德秀를 맞아 勃勃한 새 氣概를 보이지 않을까.

(下 略)

17. 東亞日報 停刊 真相

孫選手 國旗抹消

社員10名 警察拘禁 取調中

<三千里> (1936년 10월호)

爲先 東亞日報가 停刊되기까지의 真相은 探聞한 바에 의하면 伯林으로 出征하였던 孫基禎選手가 優勝하여 全世界 絶讚하는 속에서 月桂冠을 받고 올림픽 壇上에 섰다. 이 좋은 뉴스의 앞에 東亞日報도 다른 僑紙 朝鮮日報나 中央日報와 마찬가지로 雀躍하여 每日 朝夕으로 센세이셔널하고 華麗한 紙面을 꾸미어 連日 發行하였다. 여기에는 히틀러가 孫에게 握手를 하여 주었느니 鄉里 平北에서는 提燈行列이 있었느니 어디서는 旗行列이 있었고 演說會가 있었느니 누구는 돈을 내었느니 하는 記事가 滿載하였다.

新聞에 이러한 報道있음에 따라 孫基禎은 漸次로 더욱 놀랐다. 그래서 宋鎮禹 方應模 呂運亨의 이름은 몰라도 孫基禎의 이름은 兒童走卒이라도 다 알게 되었다.

그러나 서울 있는 新聞들이 제 아무리 떠든다 할지라도 大阪新聞 以上으로는 못 떠들었고 서울의 新聞이 孫을 아무리 치켜든다 할지라도 東京放送局의 라디오 이상으로는 채 못 치켜들었으니 그것은 大每 大朝는 伯林 東京間에 直通 電送寫眞과 無線電話를 가지고서 孫의 一舉一動을 눈에

보이듯 連日 全面紙로 割充하여 感激的 寫眞과 記事로 萬人을 울게 하였으니 伯林 大每 特派記者가 孫選手가 快勝한 刹那에 滿場이 발을 구르며 歡呼하였고 邦人 應援團은 모두 울었노라 하는 類의 記事가 몇번이나 되풀이되었는지 이는 紙面이 證明하는 터이다. 大每 本社 編輯局長은 伯林 會場의 孫選手를 일부러 無電으로 불러내어 온갖 故國의 感激的 消息을 傳하고 그를 稱揚치 않았던가? 그런데 서울에 있는 돈없고 勢力이 가난한 우리 新聞들은 이런 멋진 일은 한가지도 못하고 他紙의 轉載로서 말하자면 大朝나 大每의 뒤를 따라가면서 孫選手 孫選手하고 불렀을 뿐이요, 또 東亞放送局 아나운서의 입을 좇아가며 다 들린 말을 되풀이하였다. 아무튼 報道에 있어서는 서울의 紙는 地理關係로 大阪 東京에 있는 諸新聞을 따르지 못했다.

어쨌든 孫選手의 優勝은 痛快하고도 感激한 일이었다. 赴任初의 南總督도 辭任하고 간 宇垣前總督도 모두 기뻐 祝杯드는 光景이 大阪每日에 실렸었고 閣議에선 內閣 諸大臣이 또한 '孫選手 자랑'에 한동안 좋아했다고 東京新聞은 報道하였다. 이와같이 上下人은 官民이든 老少든 모두 기뻐하였다. 그러나 여기에 問題가 생겼다. '朝鮮의 特殊性'이 이 祝杯를 民衆의 爲로 들기를 꺼리게 하였으니 孫 優勝의 感情이 民族的 어떤 感情으로 轉化하기 쉬운 것을 看取한 警務當局에서는 中途에 이르러 祝賀會도 禁止, 紀念體育館 設立 發起도 禁止, 演說會도 禁止로 孫選手 讚揚을 禁하였다. 따라서 警務局長과 圖書課長은 隔日에 한번쯤 新聞社長이나 編輯局長을 불러다가 孫 記事에 格別 注意하기를 當付하였다.

이런 즈음 8月 25日 東亞 夕刊紙가 押收를 當하였다. 孫選手 胸間에 있어야 할 日章旗를 抹消한 寫眞이 掲載되었던 까닭이라 그 뒤 곧 京畿道 警察部에서는 高等課員이 出動하여 新聞社로부터

社會部長 玄鎮健, 部員 張龍瑞 林炳哲

運動部員 李吉用 畫家 李象範, 寫眞班 4人

의 十氏를 檢擧하여 拘留 取調한 結果 故意로 日章旗를 抹消했던 事實이 綻露되어 27日夕에 이르러 停刊處分을 當한 것이다.

前記 十社員外에 同社 主筆 金俊淵氏도 一時는 檢擧되었으나 곧 釋放되었고 編輯局長 薛義植氏는 그 事件 前後하여 地方旅行中이었기에 何等 關聯이 없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날 紙面에 낼 寫眞을 同社에서는 大阪朝日로부터 轉載했는데 寫眞班員과 運動部員과 社會部員 몇사람이 흰 붓으로 胸間의 日章旗를 지워버려 若干 알려지게 한 것이었다고 한다.

'新東亞' 主幹 拘引

梁源模氏도 一時는 召喚

母紙 東亞日報가 이런 不祥事속에 끼어있을 즈음 불똥은 同社 經營의 月刊 雜誌 新東亞에도 飛火하여 同社 主幹 崔承萬氏도 京畿道 警察部에 檢擧取調中이오, 同誌 編輯 兼 發行人이자 東亞日報 營業局長 梁源模氏도 一時 檢擧되었으나 곧 釋放되었는 바 新東亞 九月號는 押收요, 10月號以後는 當局에서 可타 하는 指令이 있기까지 發行치 못하게 되었고, 新家庭은 部分 削除 處分을 當하였는데 新東亞가 處分된 까닭은 마찬가지로 卷頭그림으로 낸 寫眞의 日章旗를 同樣 抹消하여 非國民的 態度를 取한 데 있었다.

東亞日報 停刊 理由

警務局長談으로 發表

東亞日報는 今回 發行停止 處分을 當하였다.

前日 伯林에서 開催된 世界올림픽大會의 馬拉松競技에 朝鮮出身의 孫基禎君이 優勝의 月桂冠을 獲得한 것은 日本 全體의 名譽로 日本 內地와 朝鮮 共히 함께 祝賀할 것이며 또 日本內地와 朝鮮

融和의 資料로 할 것이지 此를 逆用하여 조금이라도 民族的 對立의 空氣를 誘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런데 事實은 新聞紙等の 記事는 자칫하면 對立的 感情을 刺戟함과 如한 筆致를 取하는 것이 있음은 一般으로 遺憾視하던 바이다.

東亞日報는 從來 屢次 當局의 注意가 있었음에도 不拘하고 8月 25日 紙上에 孫基禎君의 寫眞을 掲載하였는데 其 寫眞에 明瞭히 나타나야 할 日章旗의 마크가 故意로 抹消한 形跡이 있었으므로 卽時 差押處分에 附하고 其 實情을 調査하였는바 右는 八月 二十三日附 大阪朝日新聞에 掲載된 孫基禎君의 寫眞을 轉載함에 際하여 日章旗가 新聞紙上에 나타남을 忌避하여 故意로 技術을 使用하여 此를 抹消한 것이 判明되었으므로 마침내 其 新聞紙에 對하여 發行停止處分을 내리게 되었다. 如此한 非國民的 態度에 對하여는 將來에도 嚴重 取締를 加할 方針인데 一般도 過誤가 없도록 注意하기를 바란다.

金主筆, 薛局長 辭表

=宋社長 以下 社員 出勤 謹慎中=

이 停刊事變이 일어나자 同社 主筆 金俊淵과 編輯局長 薛義植氏는 宋社長에게 引責의 辭表를 提出하였는데 警察側 取調가 아직 一段落을 짓지않고 있으므로 事件의 發展성과 또 그 眞相을 明白히 알 수 없기에 아직은 同辭表를 受理치 않고 宋社長이 保留하고 있다고 傳한다. 더욱 社長 以下 社員一同은 謹慎의 意를 表하고 있으며 前과 같이 每日 社에 出勤하여 讀書에 熱心하는 中 이라고 傳한다.

損害 拾餘萬圓說

復舊에는 巨大한 힘이 들리라고

이번 停刊으로 東亞日報의 損害는 얼마나 될지고. 直接 損害額을 記하면 8月分 1個月 新聞代約 3萬圓中 未收를 三分之 二로 보아 約 2萬圓, 東京 大阪으로부터 들어오는 廣告料 約 1萬圓, 其他 雜收入等 月3~4萬圓의 收入이 전혀 없어지는 反面에 社員의 生活費 支給 其他 費用으로 적어도 每月 數萬圓의 直接 損害를 보고 있는 듯이 推測된다.

前者 卽 第3次停刊 當時 4月 17日부터 8月 末日까지 約 5個月동안 東亞日報社의 損害額이 15萬圓이라고 傳하여 9月 1日 새 紙面을 내보낼 때에는 겨우 殘額 3萬7千圓인가 하는 적은 돈을 가지고 續刊資本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로 미루어 보면 그 當時보다 只今은 廣告收入도 늘었고 讀者數도 많은 만큼 그 損害도 더 많을 것으로 觀測된다. 停刊中도 停刊中이러니와 續刊을 하게 되면 다 빼앗긴 讀者地盤을 復舊하기에 巨大한 人力과 資力이 들어야 할 것이요, 또 大阪 東京의 廣告地盤을 回復시키려면 到底히 短時日로 되어질 일이 아니다. 이일 저일에 想倒하면 東亞日報는 今番事故가 致命傷에 近한 重瘡인데 아마 復舊하자면 社主로 大株主人 金性洙氏의 財政的 大英斷이 있어야 할 것이요, 또한 海內海外의 人材 多數를 網羅하여 紙面을 他紙보다 精彩있게 꾸미지 않으면 昔日의 東亞日報에 돌아가지 힘들지 않을까?

□ 東亞日報 停刊史 □

今爲까지 東亞日報는 네번째나 停刊을 當했다. 이제 事件別로 보면 이러하다.

1. 第1次는 社說 '三種의 神器' 事件으로
大正 9年 9月부터 大正 10年 2月까지 約 6個月間
(當時 總督 齊藤實, 警務局長 丸山, 鶴光 圖書課長)
(當時 社長 朴泳孝, 編輯局長 張德秀)
2. 第二次는 '露西亞서 온 祝辭' 掲載事件으로
昭和 2年 3月부터 4月까지 四十日間

(當時 總督 齊藤實, 警務局長 三矢, 田中 圖書課長)

(當時 社長兼 主筆 宋鎮禹)

3. 第3次는 '10週年 記念祝辭' 掲載事件으로

昭和 6年 4月부터 9월까지 約 6個月間

(當時 總督 宇垣, 警務局長 淺利, 立田 圖書課長)

(當時 社長 宋鎮禹, 編輯局長 李光洙)

4. 第4次는 孫基禎胸間 國旗 抹消事件

昭和11年 8月 27日부터

(當時 總督 南, 警務局長 田中, 柳生 圖書課長)

(當時 社長 宋鎮禹, 主筆 金俊淵, 編輯局長 薛義植)

東亞日報의 解禁은?

强柔兩面의 觀測區區

8월 27일 停刊 以來 벌써 한달이 經過했다. 3百의 社員과 千餘의 그 家族生計를 앞에 둔 東亞日報의 焦燥는 하루바빠 解禁되기를 苦待하고 있다. 그런데 消息通의 觀測에 依하면 一은 長期化되리란 悲觀說인데 그것은 時局이 예전과 달라 國家非常時의 此際에 이와같은 非國民的 態度를 보였으며 더구나 過去에 皇室記事에 對한 態度와 總督政治에 對한 積極的 協助가 없었던 點으로 當局의 미움이 屢屢하였으니만치 이번에는 여간 謹慎치 않고는 解禁되지 않을 것이란 說이 있고 또는 解禁이 된다 할지라도 嚴重한 內諾條件이 붙을 터이며 極端으로 觀測하는 이는 上海事變 같은 것이 東亞政局 어느 곳에서든지 다시 터지는 날이면 아주 멀어져서 數個月로는 可望이 없으리라고 한다.

二는 短期에 解禁되리란 說이 있는데 그 根據는 이번 事件은 社의 上層部는 全然 몰랐고 그 아래 寫眞班員等 數人이 共謀하고 한 事件인 바 이 때문에 큰 機關을 長期的 制裁를 줌은 苛酷하다 함이오, 또 南 新總督은 恩威並行的 政治를 할 터이므로 停刊으로써 이미 十分 懲治를 하였은즉 新總督의 溫情이 不久하여 베풀어질듯 하며 警務局長 또한 新任即前의 事라 三橋 新局長의 方針이 아무쪼록 勢力있는 言論機關으로 하여금 하루속히 反省하여 時世에 背反함이 없도록 引導함에 있을 것이므로 充分히 戒飭을 加한 뒤 速히 解禁이 되리라고 함이다. 아지못할게라, 모든 것은 南 總督, 大野總監, 三橋局長, 柳生課長의 胸中에 있음인저....

一般輿論은 어떠한가.

'非國民的' 態度는 잘못이다

東亞日報의 今般 態度를 가장 痛罵한 것은 京城日報가 社說로 或은 記事로 連日 攻擊함이었고 東京서 發行하는 '新聞之新聞' '新聞之日本'도 모두 筆銖를 加하였으며 그밖에 甲子俱樂部, 國民協會, 大東民友會 등에서 或은 團體로 或은 個人으로 攻擊하는 文書及 言說이 있었다. 그런데 一輿論을 살피건대 國旗抹消한 行爲는 더 論議할 餘地없이 非國民的 行事라 한다. 이 一事에 對하여는 如何한 制裁를 加하여도 猶不足하다. 東亞日報, 中央日報 모두 이 一事에 對하여는 無言으로 모든 制裁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이 果然 社의 態度였을까? 警察에서의 檢舉範圍로 보아 이것은 數個 社員의 失行인 것이 判明되었다. 같은 孫選手가 寫眞을 紙面에 내기 시작한지 7, 8次, 늘 日章旗가 胸間에 붙은 寫眞을 내던 同社가 先何心 後何心으로 단 한번을 國旗抹消를 하자고 했으리오. 그러므로 이번 失行은 社의 全體 意思가 아니오, 오직 한두社員의 失行일 것이 分明하며 또는 東亞日報와 같이 有力한 民間紙가 아직도 排日色彩를 띠고 있다 함은 總督政治에도 影響있는 일인즉 今番은 今後의 態度를 十分 戒飭한 뒤 速히 解禁하여 움이 좋겠다고 一般은 希望하고 있다.

18. 宋鎮禹氏는 무엇하고 계신가.

= 前新聞社長の 그 뒤 消息 其二 =

<三千里> (1938년 5월호)

東亞日報社에 15年 가까이 계시던 先生이 新聞社를 그만두신지 이제 햇수로 2年, 그리 짧은 時日이 아니다. 그 짧지않은 동안 先生의 消息은 너무도 寂寞한 感이 있다.

‘朝鮮型的 紳士風’을 갖춘 先生이라 田園으로 돌다가 閑暇하게 계시는가? 그렇지 않으면 杜門不出, 讀書三昧境에 드셨는가? 또한 그렇지도 않을진대 전부터 몸에 있는 病患때문인가? 오라 오라! 昨年 가을 東京, 大阪으로 旅行하셨다지, 아마 틈있는데로 이곳 저곳 山水따라 돌아다니시지나 않을까?

이런 생각에 갈피를 잡지 못하는 채로 記者는 大寒의 고개를 갓 넘은 지난 스무 사흘날 이른 새벽 市內 苑西町 先生自宅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간밤에 내린 눈이 長安을 곱게 덮었고 昌慶苑內의 마른 나무에 白花가 滿發한 아침 아홉시 半이었다.

이宅 下人을 불러 물으니 先生은 舍廊방에 손님과 같이 계시다 한다. 첫새벽 추위를 참아가며 찾은 보람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적이 마음이 놓였다. 조그만 대나무 문을 열고 돌층계로 올라섰다. 높다란 돌층계 위에 우뚝이 서 있는 한채 집, 이집은 마치 어느 寺刹의 ‘堂宇’ 같은 感을 느끼게 한다.

방안에 들어서니 웬 젊은 靑年 두분이 先生과 자리를 같이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 중이었다.

“...李君은 이제 大學을 갓 나왔을 뿐이므로 社會에 對해서는 아직 아무런 經驗도 없습니다마는 先生께서 꼭 힘써주셔야 합지요...”

“글쎄 新聞社에서도 모든 것을 緊縮하는 때이니까 어디 쉬워야지. 더구나 나는 신문사와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내 힘있는데로는 힘 써 보겠지마는...”

簡單한 對話만 들어보아도 한분은 어느 中學校 校諭로서 先生을 전부터 親히 아는 사이요, 또 한분은 지금 新聞社(東亞日報社)에 職을 求하는 靑年임을 알 수 있다.

東亞日報와는 지금 어떤 關係인가? 내 舉動이 그리 速히 물러갈 것 같지 않은 것을 알았던지 두 靑年은 자리에서 일어서 나간다. 室內에는 先生과 記者 단 두 사람뿐이다.

“新聞社를 나오신 뒤, 先生이 댄 方面에 關係하시고 있는 일은 없으십니까?”

“아무데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렇게 집에 꼭 박혀있는 것이 일이지요.”

“세상에서는 先生의 그뒤 消息을 궁금히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 줄로 아는데 언제까지나 先生은 沈黙만 지키시렵니까?”

“허허.... 沈黙을 안지키면 무얼 합니까? 나이도 먹을대로 먹어서 이제는 아무런 일도 다 틀렸지요, 이 社會에 늙은 사람이 어디 所用이 있습니까?”

“先生이 新聞社를 그만 두실 때만 해도 健康이 좋지 못하다던가, 精力이 弱하다던가 하는 그런 點은 別般 느끼지 않으셨겠지요?”

“왜요, 그렇지도 않지요. 내가 新聞社에 15年 가까이 있었지만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奇蹟이 었지요. 꿈같이 지나온 셈이지요.... 그러나 이제 생각해보니 또다시 그런 奔走한 일을 감당해 나갈 것 같지가 않습니다.”

“先生이 萬一 新聞社로 다시 들어가실 環境에 이룬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新聞社로는 아주... 말도 마십시오”(무슨 굳은 決心이 있으신지 두세번 손을 내저으신다)

“先生님께서 지금은 新聞社와 어떤 關係가 있습니까?”

“아무런 關係도 없습니다. 다만 十餘年 넘어 新聞社에 있었던 關係로 社의 일에 대해서 간혹 물
어오면 參考될만한 點을 일러줄 뿐이지, 그밖에는 全然 相關이 없습니다”

“그러시면 亦是 間接으로는 많은 關心을 가지시고 늘 도우시는 보람입니까?”

“뭐 間接 云云할 것까지도 없습니다. 오랫동안 있던 데니까 情으로 보더라도 묻는 말쯤은 應答
해야지요.”

“新聞社에는 자주 出入하십니까?”

“자주 간다고 할 수야 없겠지요, 요새는 늘 閑暇하니까 間或 들러보곤 합니다”

“新聞社 말씀은 그만하고 先生께서 요즘 지내시는 生活狀態나 좀 말씀해 주십시오. 나날이 무얼
로 消日을 하십니까?”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습니다. 最近에는 病으로 因해서 藥도 먹었고, 틈있는대로 新聞, 雜誌나
뒤적이고 또 아침에는 일찍 散策하는 것 뿐이지요.”

“讀書는 어느 方面의 것을 주로 하십니까. 勿論 時期가 時期인만치 政治方面이나 時局에 關한
書籍을 많이 보시겠지요?”

“아니오. 인제 政治方面의 책은 尠혀 읽지 않습니다. 첫째 읽을 精力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읽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런 方面에는 아주 無關心 一貫主義로 나갈 作定입니다. 몸도 健康한 편이 못
되고 머리도 疲勞하고 해서 讀書를 그리 精力的으로 못하고 틈 나는대로 朝鮮 古代文獻類, 例를
들면 ‘東國寶鑑’같은 書籍을 比較的 많이 읽게 됩니다. 그밖에도 이것 저것 그때 그때에 必要하다
고 생각하는 것이면 어느 것이고 가리지 않고 읽습니다”(마침 先生의 책상을 살펴보니, 古代書類
가 가득히 쌓여있고 또 當山房版인 百科大辭典 30餘冊이 가지런히 놓여있다. 이것을 보아도 先生
의 讀書하시는 部類를 짐작할 수가 있다)

“讀書는 하루에 몇 時間쯤 하시며 어느 때쯤에 하십니까?”

“꼭 몇 時間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틈있는대로 두 時間이고 세 時間이고 繼續하게도 되고 몇
十分하다가 마는 때도 있습니다. 또 대개는 조용한 밤 자리에 누워서 읽는 것이 제일 편하더군요”

“圖書館에는 종종 다니시는지요?”

“별로 가지 않습니다. 한달에 겨우 두세번쯤 가는 쪽이지요”

“漢詩는 조용한 때에 한 두首 적어봄직도 한데 그동안 읊으신 것이 있으시면 하나 주십시오”

“허허, 내가 무슨 詩人입니까? 十餘歲 前後에 書堂에서 좀 지어보았으나 그 뒤 한번도 없습니
다. 나는 藝術과는 아주 因緣이 먼 사람입니다. 내게 多少라도 詩才가 있다면 지금의 心境을 詩로
써 읊을 만도 합니다마는...”

“요즘 先生께서 나다니시는 곳은 주로 어디이십니까?”

“어디라고 꼭 정해 놓고 다니는 곳은 없고 여러 親知들을 찾아다닙니다”

“先生께서는 무슨 일로 昨年에 東京엘 다녀오셨나요?”

“그저 東京, 大阪 等地를 두루 旅行했을 뿐입니다”

“接觸하신 人物들은 어떤 層입니까?”

“내가 新聞社에 十餘年 있었던 關係로 그동안 廣告 거래하던 廣告主들을 만나보는 것이 커다란
일이었으니까요”

“東京에 갔을 때의 感想은?”

“大阪에 약 1週日, 東京에서 약 1週日間 있었는데 그때가 이번 事變의 初期였던 만큼 모두 緊
張하여 역시 戰時氣分이더군요. 그밖에는 每年 다녀오는 關係로 해서 別다른 感想이 없습니다...”

“先生께서 이런 閑暇한 生活을 하실 바이면 안온한 田園으로 가시든지, 名山大刹을 찾아 조용한
生活을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런 생각까지는 아직 없고 서울에 있으면서 여러 곳을 旅行이나 할까 합니다. 十餘年の 新聞
社生活에서는 時間의 餘裕가 있었나요. 늘 바빴지요. 그러기에 朝鮮內만 해도 못 가본 곳이 많습

니다. 金剛山이나 扶餘같은 데도 아직 못 가보았습니다. 참 慶州는 中央高普時節에 生徒들을 데리고 修學旅行 다녀온 일이 있군요. 그중에도 南原의 廣寒樓는 한번 가볼만한 줄로 압니다. 어쨌든 차츰 따뜻해질 터이니 旅裝을 꾸려가지고 山중고 물좋은 데나 古跡으로 알려진데를 찾아볼 작정입니다”

“요즘은 어떤 方面의 사람들과 많이 接觸하시며 靑年들은 어떤 일로 先生宅을 찾습니까?”

“내가 찾는 이는 대개 中年以上 老年층이지마는 찾아오는 사람은 靑年층이 많습니다. 이제도 보셨지마는 대개는 求職靑年들입니다. 하루에도 몇 名씩 됩니다. 모두 專門, 大學을 나온 有爲의 靑年들인데 職業을 못 얻어 어깨가 축 처져 힘없이 다니는 것을 보면 寒心합니다. 그들은 모두가 眉目이 秀麗하고 씩씩하고 外貌가 양전한데 그렇게 절절매고 다니는 것을 보면 내 마음도 무거워 집니다. 實로 朝鮮社會는 寒心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靑年들을 모두 받아들일 만한 機關이 必要한데 어디 지금 現狀으로야 可能한 일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緊要하지않은 것이 없지마는 그중에서도 産業方面이나 企業方面으로 좀 더 활동무대를 넓혀서 有爲한 人材들은 모두 收容하도록 하는 것이 刻下의 急務가 아닌가 합니다. 나도 그런 靑年들이 가득히 쌓여있는 것을 볼 때 적지않은 責任感을 느낍니다마는 내게야 어디 힘이 있어야지요. 참으로 딱합니다”

“金俊淵氏와 자주 接觸하신다는데 그 분은 무슨 事業을 하십니까?”

“그분은 지금 全谷이라는 시골에 가 있습니다. 한 달에 3.4次 올라오는데 어디 자주 만나게 됩니까? 全谷에는 普成專門學校 農場이 있는데 그 農場 總監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金炳魯氏宅엔 자주 가십니까?”

“그분도 職業을 가진 이가 되어서 늘 바쁜 關係로 자주 만나지 못합니다”

“桂洞 金性洙氏宅엔 자주 가십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가봅니다마는 거기도 자주 가는 편은 아닙니다”(先生이 가장 많이 接觸하실 분이 몇 분 있으려면 좀체 確答을 避하신다. 아무리 날카로운 質問을 던져도 끝끝내 失敗다. 입이 무거운 터인지라)

“거리에 나가셨다가 점심은 어디서 잡수십니까?”

“요즘은 점심을 대개 안 먹습니다. 먹는다 해도 집에 들어와서 먹지요”

“요즘 極東風雲이 漸次 사나운데 거기에 대한 感想을 말씀해주십시오”

“아까도 말했지만 政治나 時事問題는 今後 全혀 無關心하렵니다. 그런 말씀은 물어주지 마십시오. 모릅니다”

“끝으로,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뭐, 지금 이 狀態대로 지내는 수밖에 없지요. 한 浪人이 된 셈입니다. 구태여 今後의 플랜을 말하라면 오랫동안 못 다닌 곳으로 旅行하려는 것이 될까요? 물론 오랜 앞날의 일은 말할 수 없고...”

긴 時間을 말씀해보아도 별로 新통한 資料를 얻지 못했다. 記者는 失禮를 謝禮하고 일어섰다. 宋社長의 배웅을 받으며 뜰아래 내려서니 건너편으로 보이는 昌慶苑內的 鳳凰閣이 꿈속에서 바라보는 듯하다.

19. 新聞出版界 人物論

<新世紀> (1939년 9월호)

愚愁散人

現今 朝鮮의 出版界는 名實 共に 活況을 呈하고있다. 量뿐 아니라 質에 있어서도 30年代 以前에 比하여 훨씬 發展하여 있는 것이 事實이다. 30年代 以前의 出版界는 定期的인 刊行物이 거의 全部였다. 無定期的인 單行本은 1年 1冊이 있는 일도 드물었다. 그러나 聲勢만은 宏壯하였다.

이와 反對로 現代의 出版界는 定期的인 刊行物은 적어지고 無定期的인 單行本의 刊行이 자못 盛況을 이루고 있다. 聲勢는 예전같이 宏壯하지 않으나 그대신 虛僞聲勢의 弊는 없다. 그러나 두 손을 들어서 大歡迎할 氣運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點이 적지않다. 왜그러냐?

現今의 單行本을 刊行하는 사람들은 세 部類로 나눌 수 있으니 其一은 自費로 出版하는 사람이 오, 其二는 商業으로 出版하는 사람이오, 其三은 純全히 文化向上 그것을 위하는 마음으로 出版하는 사람이다.

즉 其一은 大概가 現實에 絶望해서 이왕 文筆을 業으로 삼아왔던 길이니 이 機會에 紀念으로 무엇이든지 남겨두지 않으면 永永 遺業없이 終生할지도 모른다는 自抛 半 過去事에 對한 愛着 半의 心情에서 억지로 單行本 한권이나마 刊行하는 者이며

其二는 如上의 文化人의 心理를 利用하여 文化程度가 多少 높아진 大衆에게 冊을 팔아먹으려는 생각 爲主로 單行本을 發行하는 者이며

其三은 보다 더 意義있는 일은 하기가 極難하니 不足하나마 許與된 條件을 最大限 最善으로 利用하여 文化의 遲遲한 進歩를 庇護하는 同時에 過去가 남겨놓은 것이나 잘 整理해서 새로운 제네레이션에 遺産하자는 心算으로 利潤不計하고 單行本을 刊行하는 者이다.(中略)

먼저 新聞界를 보면 불행히도 朝鮮中央日報가 財難으로 破産한 뒤에 朝鮮人側 民間新聞은 東亞日報와 朝鮮日報 그리고 最近의 半民間化한 每日新報가 있을 뿐이다.

東亞日報는 數次의 秋霜에도 不拘하고 어찌어찌 延命은 해왔으나 昔日의 面貌는 그 影子도 볼 수 없게 變하여졌다. 朝鮮日報 亦是 그렇기는 하나 東亞日報가 더 甚하게 蒼白해진 것 같다. 時勢 關係도 있겠지만 人的 素材에도 多大한 原因이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 다른 사람들은 社長 白寬洙氏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나 내게는 宋鎮禹氏에 比肩할만한 人物로는 보여지지 않는다. 新聞에 依하면 宋鎮禹氏가 지금도 後援을 하는 모양인데 借力하고서도 그만한 힘밖에 發揮못하니 큰 人物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編輯局長以下 各部의 首級人物도 其人을 얻었다고 하기는 딱 어려우니 每日의 東亞紙를 펴서 읽어보면 그속에 역력히 顯現하고 있는 事實이 證明한다.

朝鮮日報는 社長 方應謨氏가 元來 俄成的 人物이라 奇妙한 風說도 더러 있는 모양이나 氏의 뜻이든지 아니든지 間에 現在에 있어서는 人的 素材를 東亞보다는 고르게 가진 편이다.

두 新聞社의 하루 바빠 고쳐야 할 惡習은 地方的 派閥이다. 現象으로 보아서는 白氏나 方氏가 그것을 是正할만한 人格을 가졌으리라고 하기는 어려우나 어쨌든 고치지 않아서는 안될 絶對 必要事이다.

每日新報는 社長과 副社長을 둘 다 異樣한 意外의 人物을 갖고 있다. 崔麟氏와 李相協氏의 過去事를 아는 사람은 누구나 이러한 생각을 할 것이다. 그러나 東亞와 朝鮮보다는 其人을 얻은 것만은 事實이다. 그리고 各部의 首級人物도 相當히 選配되어 있다. 人的 物的으로 東亞와 朝鮮보다 훨씬 優位에 있음은 누구든지 否認치 못할 것이다. (中略)

朝鮮日報社 出版部 發行的 '朝光', '女性', '少年'의 세 雜誌도 없는 것보다는 좋은 冊이다. 方應謨氏도 아주 생각없는 사람은 아닌 것 같다.

'三千里'誌의 金東煥氏는 꽤 끈덕진 사람이다. 어수선하게 벌려놓기 좋아하는 것이 좀 病이기는 하나.

'東洋之光'은 國語雜誌이다. 社長 朴熙道氏와 編輯擔當者 金龍濟氏와 客員 印貞植氏는 內鮮一體와 新東亞主義를 위하여 不休 活動하는 모양인데 基盤이 튼튼히 되기 前에는 무어라고 批評할 수 가 없다. (中略)

人文社에서는 새 雜誌를 發刊하고 徐椿氏는 무슨 出版社를 計劃한다니 朝鮮의 出版文化의 앞날은 아직도 多幸한 때문에 이러한 現象이 接踵 興起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작히나 좋으랴만 -- 悲觀이 無用이라면 樂觀은 尙무일 것이다.

20. 趣旨書

<韓國近代名論說集> (1979년)

國民大會準備會

천하의 公道와 인류의 정의는 마침내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의 기회를 약속하였으니 망국의 한을 품은 채 忍從과 굴욕의 악몽에 시달리던 우리에게 광명의 새날을 위하여 진군하라는 巨鍾은 드디어 울었다. 필경 울고야 말았다. 懊悶과 怨淚로 점철된 과거를 회고할 때 혹은 鐵窓에서 혹은 해외에서 동지의 義血은 얼마나 흘렸으며 선배의 苦鬪은 얼마나 쌓였던가. 우리에게 이 날이 있음은 진실로 苦節 三十有六年 동안 누적한 희생의 所産이며 전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싸우던 우방의 후의로 因함이니 우리는 이 날을 위하여 이 날을 同慶치 못할 우리 在天의 명령을 추도치 않을 수 없으며 聯合諸國의 의거에 대하여 滿腔의 사의를 표명치 않을 수 없다.

울적하고 압축되었던 潛力이 순간에 폭발되고 일시에 반발하는지라 衝天하는 意氣 저절로 常道와 正軌를 벗어나게 됨은 이 또한 자연이니 勢固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광복의 대중은 遙遠하고도 착잡한지라 그러므로 하여서 더욱이 先後緩急의 질서는 절대로 유지되어야 할 것이며 대의명분의 旗幟는 선명하여야 할 것이다.

강토는 잃었다 하더라도 삼천만 민중의 心中에 응집된 國魂의 表象은 庚戌國變 이래로 亡命志士의 氣魂과 함께 해외에 儼存하였던 바이나 오늘날 日本의 정권이 퇴각되는 이 순간에 있어서 이에 代位될 우리의 정부 우리의 국가대표는 己未獨立 이후로 具現된 大韓臨時政府가 최고요 유일의 존재일 것이다.

派黨과 色別을 초월하여서 이를 환영하고 이를 지지하고 이에 歸一함이 現下의 내외정세에 타당한 대의명분이니 舊政의 殘滓가 尙存한 작금에 있어서 우리 전국민의 당면한 관심사는 우선

국민의 總意로써 우리 在重慶 大韓臨時政府의 支持를 선서할 것.

국민의 總意로써 聯合 各國에 謝意를 표명할 것.

국민의 總意로써 民政수습의 방도를 강구할 것

등이다.

政體 政黨의 시비론도 이후의 일이며 정강정책의 가부론도 이후의 일이니 이리하여야 비로소 우리 大業의 巨步는 정정당당할 것이다.

이에 僭越하나마 同憂의 責을 自負하는 발기인 일동은 聯合軍의 정식주둔과 日軍의 무장해제를 위하여 국민 總意의 所在를 聲明할 필요를 느끼며 아울러 總意집결의 방법으로 國民大會의 發會를 준비하는 바이니 現下의 실정은 만사가 임시적 편법이라 名實이 相符할 최선의 방법이 있을 수 없거니와 우리의 意圖와 우리의 염원은 次善 三善일지라도 철두철미 대의명분의 지표를 고수하고 이를 구명코자 함에 있다.

滿天下의 동포여, 국가재건의 제일보를 위하여 國民總意의 기치하에 삼천만 민중의 心魂을 凝結하라. 그리하여 현재와 미래 永劫에 우리의 행복과 번영을 期하라.

1945년 9월 7일

21. 韓國民主黨 創黨大會

(1945.9.16)

決議案

- 一. 聯合軍 總司令官 맥아더元帥에게 感謝의 打電을 할 것.
- 二. 朝鮮이 北緯 三十八度線을 南北으로 美蘇 兩軍에게 分斷 占領된 것은 不便不幸한 일이니 速히 이것을 撤廢하여 行政的 統一을 期할 것.

宣 言

日本帝國主義의 鐵鎖는 끊어졌다. 血汗의 鬪爭 참으로 三十三年, 世界史의 大轉換과 함께 우리는 드디어 光復의 大業을 完成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우리는 半萬年의 빛나는 歷史를 도로 밝혀 完璧無缺한 自主獨立의 國家로서 久遠의 發展을 約束하게 되었다.

三千萬의 가슴에 뒤끓어 용솟음치는 오늘의 기쁨이여! 이 기쁨은 곧 革命同志들에게 바치는 感謝로 옮겨지고 더욱 抱恨終天하신 殉國 諸賢의 생각이 사무치매 도리어 못내 슬플 뿐이다. 참으로 이 크나큰 光復의 功勳은 海內海外의 高貴하고 감추어진 無數한 革命同志들의 血汗의 結晶이 아니고 무엇이라! 우리는 머지않아 海外의 凱旋同志들을 맞이하려고 한다. 더욱이 隣邦 重慶에서 苦戰 力鬪하던 大韓臨時政府를 中心으로 集結한 同志들을 鼓動하며, 밖으로 民族生脈을 國際間에 顯揚하면서 나중에 軍國主義 撲滅의 一翼으로 當當한 各分아래 盟邦 中.美.英.蘇등 聯合軍에 끼어 빛나는 武勳까지 세웠다.

오늘의 기꺼운 光復成就가 이 어찌 偶然한 것이라! 우리는 盟誓한다. 重慶의 大韓臨時政府는 光復劈頭의 우리 政府로서 맞이하려고 한다. 또 우리는 約束한다. 軍國主義 戰壘들을 爆滅하고 世界平和를 確立시키는 世紀的 建設期를 當하여 自主獨立을 恢復한 우리는 盟邦諸國에 最高의 謝意를 表하는 한편으로 國際平和의 大憲章을 끝까지 遵守擴充하려고 한다. 나아가서 우리 民族이 將來 할 世界의 文化建設에 뚜렷한 貢獻이 있기를 꾀할진대 무엇보다도 完璧 無缺한 自主獨立國家로서 힘차게 發展하여야 될 것이다. 이는 오직 專制와 拘束없는 大衆 本位의 民主主義 制度아래 皆勞 皆學으로써 國民의 生活과 教育을 향상시키며 特히 勤勞大衆의 福利를 增進시켜 毫末의 差別도 重壓도 없기를 期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全國民의 自由로운 發展을 保障하며 全民族의 團結된 總力을 기울여 새 國民의 基礎를 磐石위에 두고 世界 新文化 建設에 邁進하려고 한다.

綱 領

- 一. 朝鮮民族의 自主, 獨立國家 完成을 期함.
- 二. 民主主義 政體 樹立을 期함.
- 三. 勤勞大衆의 福利增進을 期함.
- 四. 民族文化를 昂揚하여 世界文化에 貢獻함.
- 五. 國際憲章을 遵守하여 世界平和의 確立을 期함.

政 策

- 一. 國民基本生活의 確保.
- 二. 互惠平等의 外交政策 樹立.

- 三. 言論, 出版, 集會, 結社, 信仰의 自由.
- 四. 教育 및 保健의 機會均等.
- 五. 重工業主義의 經濟政策 樹立.
- 六. 重要産業의 國營 또는 管制 管理.
- 七. 土地制度의 合理的 編成.
- 八. 國防軍의 創設.

22. - 主旨를 宣明함 -

<東亞日報> 重刊辭 (1945.12.1)

(一)

天道 - 無心치 않아 이 疆土에 解放의 瑞氣를 베푸시고 聖祖의 神意 無窮하시어 天民에게 自由의 活力을 다시 주시니 이는 오로지 國事에 殉節한 先烈의 功德을 가극타 하심시오, 東亞에 빛난 十字軍의 武勳을 거룩타 하심이다. 世界史的 變局의 必然性 一面이라 한들 이 何等の 感激이며 이 何等の 鴻福인가?.

日章旗 抹消事件에 트집을 잡은 侵略者 日本 僞政의 最後 發惡으로 廢刊의 極刑을 當하였던 東亞日報는 이제 이날을 期하여 主旨의 要綱을 다시금 宣明하여서 三千萬 兄弟와 더불어 同夏同慶의 血盟을 맺으려 하는 바이다.

創刊 以來로 二十餘年間 押收 削除의 亂杖이 千度を 넘었으며 發行停止의 惡刑이 四次에 이르러 滿身이 血痕이었으나 그러나 民族의 表現機關으로 自任하였던 東亞日報는 잦은 侮辱과 잦은 迫害를 받아가면서도 오히려 民族의 面目을 固守하기에 最後의 苦節을 다하였던 것이다.

敵은 執權者라 一九三八年 八月 十日 畢竟 殺害를 當하고 말았던 것이니 是日에 民族은 感覺을 잃었고, 知性을 잃었고, 情操를 잃어 이땅의 日月은 빛이 있은듯 없었으며 貪政의 行悖는 그 極에 달하여 이른바 供出은 ��와 雜草에 이르고 掠奪은 姓名과 言語에 이르렀으며 兼하여 魍魎의 助惡이 날로 더하매 天地는 진실로 暗黑한 바 었었으나 八月도 十五日, 霹靂이 一巡하자 蒼天은 한 고비 높아졌으며 大地는 그대로 넓어졌으니 이 何等の 壯觀이며 이 何等の 盛事였던가?

(二)

東亞日報는 創刊 劈頭에

- (1) 民族의 表現機關으로 自任하노라
- (2) 民主主義를 支持하노라
- (3) 文化主義를 提唱하노라

의 三大主旨를 宣明하여 言論報國의 大綱을 삼은바 있었거니와 이 主旨를 通하여 흐르는 一貫한 精神은 예나 이제나 다름이 없다. 時勢의 制約을 따라 用語의 限界가 있었음은 勢固不避라, 하는 수 없었거니와 耿耿一念이 오직 民權의 暢達을 主張하고 民生의 安堵를 希求하여서 民族全體의 永遠한 繁榮을 위하여 筆致의 全能을 傾注하려는 丹誠은 今昔의 別이 있을 理 없다. 이제 重刊에 臨하여 우리는 創刊 當初의 三大 主旨를 그대로 繼承함에 何等の 未洽을 느끼지 않거니와 現局에 處한 우리의 主旨를 具體的으로 敷衍한다고 하면 大概 다음과 같다.

一, 첫째로 우리는 時間 空間이 自別한 우리의 獨自性을 高調한다. 五千年동안 時間의 集積으로

育成된 우리의 傳統과 矜持, 亞細亞의 領域의 風土로 馴化된 우리의 理念과 香氣로써 民族의 完成, 民族文化의 完成을 扶翼코자 한다.

二, 둘째로 우리는 民主主義에 依한 輿論政治를 支持한다. 그리하여 民意에 依한, 民意를 위한, 人民의 政體를 大成하여서 國權의 尊嚴과 國運의 發揚을 위한 모든 建設을 協贊코자 한다.

三, 셋째로 우리는 勤勞大衆의 幸福을 保障하는 社會正義의 具現을 期約한다. 그리하여 機會均等の 公道에 依한 理想社會의 實現을 推進코자 한다.

四, 넷째로 우리는 徹頭徹尾한 自主互惠의 精神이 交隣의 原則됨을 信奉한다. 그리하여 領土의 大小, 國力의 強弱 等 差別을 超越한 國際民主主義의 確立에 寄與코자 한다.

(三)

欄을 달리하고 붓을 다시금 다듬어 逐條的으로 解明할 機會가 있음을 約束하거니와 우리는 以上과 같은 主旨로써 우리의 行動軌範을 規定하는 同時에 이 線을 沿하여 輿論을 喚起하여 衆議를 凝集하여서 大道를 開拓하고 正軌를 敷設하려는 것이다.

新聞道の 固有한 職能과 使命이 事象의 忠實한 報道에 있음은 勿論이려니와 그렇다 하여 單純한 傳達機關에 苟安하기에는 우리의 要請이 너무도 巨大하며 不偏不黨의 言論이라 하여 是非의 併列과 曲直의 混雜을 그대로 容認하기는 우리의 指標가 너무도 確然하며 우리의 情熱이 너무도 強烈한 바 있다.

우리는 이미 붓을 들었다. 이 붓이 꺾일지언정 이 붓에 連結된 우리의 血管에는 脈脈한 生血이 그대로 激流를 지으리니 矢 必야흐로 弦을 떠난지라 懷疑逡巡이 있을 수 없으며 左顧右眄이 있을 수 없다. 오직 우리는 人道와 正義에 則하고 大義와 名分에 殉하는 鋼鐵같은 意志로써 春秋의 正筆을 잡으려할 뿐이니 이리하여 우리의 이 붓이 王師의 前衛되기를 自勉하며, 破邪의 利劍되기를 自期한다.

(四)

滿天下의 同胞여! 兄弟여! 姊妹여!

우리의 念願을 바르다 하시고 우리의 丹誠을 믿쁘다 하시어 嚴酷한 鞭撻을 아끼지 말지며 絶對한 聲援을 늦추지 말아 光復의 鴻業을 大成하여서 우리 民族으로 하여금 未來 永劫에 빛나게 하라.

檀紀는 四千二百七十八年 十二月 一日, 東亞日報 同人一同은 삼가 이 一文을 草하여서 解放戰線에 義血을 뿌린 在天의 英靈께 奉告의 禮를 갖추며 아울러 三千萬 同胞의 心臟에 檄한다.

23. 瓦全보다 玉碎를

<東亞日報> 社說 (1945.12.29)

(一)

이른바 外相會議는 끝났다. 國際信義를 背叛하고 朝鮮民族을 侮辱하는 '信託統治'를 決定하였다. 도대체 '託治'의 主唱者는 어느 나라의 누구이냐? 美.英.蘇 三國의 어느 나라가 우리에게 不共戴天할 이 致命的 侮辱을 던지려 하였느냐?

自己의 自由를 主張하려는 者는 남의 自由도 尊重하여야 하며 自家의 主權을 擁護하려는 者는

남의 主權도 是認하여야 한다. 이것이 文明社會의 理想이오 文明人의 通念이다. 이 明白한 公理를 모를 理 없거늘 어찌하여서 이같은 非行을 敢行하였는가? 強盜의 掠奪을 當하여 赤手空拳이 되었다고 人權을 無視할 것인가? 一時 強盜의 侵害를 받았던 것은 事實이다. 그리하여 滿身瘡痕로 疲弊하였던 것도 事實이다. 그러나 우리는 俗談에 이른바 '물어도 준치요 썩어도 생雉'다. 五千年의 歷史와 文化를 가졌고 三千萬의 頭腦와 生血을 가졌다. 自立與否를 云云함도 無知와 不遜이려든 하물며 謀略的 意圖로 自作한 三八線을 口實삼아 投票不能을 云云함과 같음은 狡猾한 知能犯의 一種이니 이 知能犯이 三國中에 어느 國이냐?

(二)

首犯을 追窮하여 文이 여기에 이르렀으나 나타난 結果를 一瞥할 때 우리의 받은 傷處는 오직 하나다. '託治'라는 文句에 一擊된 深刻的 侮辱 하나뿐이다. 이 國辱을, 이 民辱을 어떻게 雪辱할 것인가? 他力依存이란 元來 이러한 것임을 三千萬 兄弟는 알았는가? 助力者의 助力은 順受해 無妨하리라. 그러나 助力은 어디까지 助力이오 主力은 -- 動力은 徹頭徹尾 自力の 如何에 있는 것이니 天은 自助者를 돕는다 함이 그것이다.

自力으로 이 傷處를 回復하자! 更生의 險路를 이 自力으로 打開하자. 光復의 巨役을 이 自力으로 建設하자. 피만 가지고 決戰하였던 己未當年을 回顧하라. 原子彈이 없더라도 이 生血이면 足하다.

'瓦全보다는 차라리 玉碎를' 이 氣魄이면 足하다. '外侮의 克服은 內部的 結束!' 이 努力이면 足하다. 連綿 五千年 悠久한 우리의 矜持를 다시금 가다듬고 亡國 四十年, 뼈에 사무친 痛恨을 그대로 爆彈삼아 三八障壁에 부딪혀 보자! 記治政權에 부딪혀 보자! 빛은 東方에서! 正義의 勝利는 畢竟 우리에게 있으리라.

24. 一柱를 잃다!

民族의 今日을 一哭

<東亞日報> 社說 (1945.12.31)

檀紀四千二百七十八年 十二月 三十일 早朝 古下 宋鎮禹先生은 苑洞 自宅에서 凶彈을 받고 遽然히 作故하였다.

解放의 曙光이 妖雲에 싸인채 저물어 가는 이해의 아주 막 前날이오 亡國의 痛恨을 풀지 못한채 託治의 悲報를 듣게 된 다음의 다음날 獨立戰線에 뿌려질 許多한 生血의 先頭를 가로막아 儼然히 殉國하였다.

憶라! 이 何等の 悲報인가? 이 何等の 痛事인가? 그러나 悲報라 하여서 痛事라 하여서 哭之痛之만 하기에는 이 巨人의 最後가 빛어놓은 國家的 民族的 表情이 너무나 壯嚴하고 너무나 尊貴한 바 있음을 直感하지 않을 수 없다.

下手者가 그 누구임을 查索할 必要가 없으리라. 暗害의 目的이 그 어디에 있음을 追窮할 必要도 없으리라. 다만 民族의 更生을 위하여 進軍하는 우리의 首途에 피를 보았다! 하면 그만일 것이다. 三千萬 民衆이 다같이 그 피를 뚜렷이 보았다! 하므로 足하다 할 것이다. 光復의 巨役을 위하여 苦鬪하려는 우리의 建設에 一個의 기둥(柱)을 잃었다는 事實을 直視하고 凝視하고 透視하고, 그리고 이로써 民族的 正氣를 다시금 다듬어 捲土重來의 進軍을 그대로 繼續한다고 하면 先生의 一死는 單純한 悲報가 아니라 警報다. 愛國의 警報요, 愛國의 信號다. 先生의 本懷 진실로 여기에

있었거니 生生한 이 血史의 一行을 읽는 者 다같이 信地의 一點에 凝集되어 自主의 獨立을 完成한다면 先生 彼世의 樂이 오히려 無窮할 것이다.

先生の 風도와 先生의 平生을 여기에 敘述할 餘裕 없음을 恨하거니와 一言으로 따지면 先生은 徹頭徹尾 意志의 人이며 信念의 人이었다. 나라를 걱정하고 民族을 사랑하되 所信을 不動하고 苦節을 固守하는 強革의 人이었다.

育英의 基를 닦았으나 樂이 있을 수 없었고, 報筆의 責을 맡았으나 快를 얻은 바 없었으니 僞政의 制壓下에 寧日이 없었던 까닭이었다. 이리하여 或은 獄窓의 苦를 겪고 或은 累縛의 痛을 當하되 轉轉一念은 오로지 國家民族의 再生에 있었고 世道民心의 刷新에 있었다.

때도 때인 이때 祖國은 光復未半에 先生을 中途에 잃게 되니 同志의 恨은 얼마나 깊을 것이며 民族의 損은 얼마나 클 것인가? 先生을 위하여 哭함이 아니라, 先生의 死를 위하여 哭함이 아니라, 이 겨레의 今日을 위하여, 이 겨레의 明日을 위하여 우리는 一哭을 禁할 수 없으니 三千萬 兄弟여! 이 巨人의 凶變을 機緣삼아 다같이 是日에 放聲大哭하자! 그리고 明日부터 다같이 放聲大呼하자! “各길로 한 信地, 完全한 自主獨立!”

25. 人物素描 - 宋鎮禹

<新天地> (1946.1. 창간호)

林炳哲

熱의 新聞人.

뱃심의 政客.

古下 宋鎮禹氏를 論하려면 이 두가지를 논하지 않을 수 없다.

여름날, 얽은 두루마기 밑으로 古下 先生의 옥색 조끼 그리고 옥색대님을 볼 수 있다.

어린 鄭夢周의 안은 붉고, 밝은 파란 저고리를 聯想케 하는데 그 옥색 조끼도 속의 情熱과 剛의 平和를 뜻함인가. 즐겨 입으신다.

그리고 손에는 언제나 종이 한장을 들고 종이를 치마 주름잡듯 접는 것이 古下 先生의 唯一한 娛樂이다.

그의 一生은 종기와 떠날 수 없다. 종이에 먹칠하는 것이 그의 一生 事業인 까닭에 언제나 종이를 놓을 수 없다. 그는 部下, 많은 記者들에게 언제나 입에 익어 저절로 나오는 付託은 ‘들고 쓰라’는 것이다. 들고 쓰라는 뜻은 언제나 붓과 종이를 땅에 놓치 말고 그 좋은 생각들을 熱로 써서 發表하라는 말씀이다.

그는 東京學生時代부터 學課보다 新聞읽는 것을 더 所重히 여겨서 每양 新聞을 읽고 研究를 하였다. 그의 머리속에 자라던 병아리 新聞은 마침내 東亞日報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나타났다. 어쩔 수 없는 그 가슴에서 뛰는 民族主義의 思想은 民族自決, 三.一運動의 큰 潮流에 뜻을 달고 花洞時代의 東亞日報때부터 자라기 始作했다. 東亞의 二十年 歷史는 이 民族의 記錄이요, 이 記錄이야말로 우리 民族의 受難記錄이요, 눈물의 記錄이요, 迫害의 記錄이라 하겠다.

勇士라기 보다 좋은 參謀라는 것이 더 適切하겠다. 그는 하루에 2시간의 睡眠밖에 取하지 않는다. 그밖의 時間은 오로지 思索과 政談뿐이다. 것처럼 다른 趣味를 가지지 않는 이도 흔치 않을 것이다. 단지 있다면 그가 崇拜하는 孫文傳 같은 것을 읽는 것이리라.

古下先生은 東亞의 參謀가 아니었다. 東亞日報는 當時 우리 民族의 依存할 곳이 없어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格으로 迫害받는 民族이 울며 달려오는 곳이 東亞이었다. 東

亞는 눈물을 씻어주는 어머니였다. 그 어머니 役이, 그 參謀役이 古下先生이었다. 여기에 한 예를 들면 五山中學校가 火災로 燒失되었을 때 朱校長이 먼저 東亞를 통하여 많은 復興금이 모여들어 災前보다 더 훌륭한 校舎를 지었다. 그 많은 水害, 旱災, 물려다니며 迫害받던 南北滿州의 罹災同胞救濟의 손, 李舜臣祠堂으로 이 百姓에게 民族心을 넣어주고, 孫選手의 壯舉를 報道하여 民族優越을 鼓吹하여 徹底한 民族主義의 本色을 여지없이 發揮하였다.

이 모든 일이 熱의 新聞人 古下先生을 중심으로 일어난 것이라 하겠다. 當時에도 社會主義의 넘치는 波濤는 커서 이 모든 事業도 同胞間에 적지 않은 反對가 그의 앞을 막았다. 그러나 古下先生의 曠心은 能히 이를 밀고 나갈 수 있었다.

그의 主張, 그의 事業中에 啓蒙運動을 뺄 수 없다. '이 民族에게 文字를 가르쳐 啓蒙을 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急先務라'고 하였다. 民度를 올리는데 가장 큰 努力을 아끼지 않았다.

그를 或 訪問하여 무슨 이야기를 하면 때로는 東問西答을 한다. 그의 머리속에는 언제나 딴 世界가 進展되고 있는 까닭이다. 그의 넓은 雅量과 深思와 分명한 判斷은 누구나 탄복하리라.

或 많은 질문을 품고 先生을 찾는 客이 나타날 때 先生은 熱에 넘치는 主見과 主觀을 高聲으로 흐르는 瀑布와 같이 퍼부으면 來客이 言權도 얻어보지 못하고 精神을 잃고 退陳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까닭에 先生의 獨斷이 여기에서 생긴다. 主張보다 조용히 傾聽하는 것이 더 좋은 때가 있다. 先生의 短點을 구태여 든다면 그 獨斷과 人材用法의 偏狹이라 하겠다. 조용히 듣는 것, 親戚보다 人材를 天下에 求하여 쓰는 法에 어둡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붓을 돌려 東京政界에 先生이 나타날 때 이야기를 쓰려 한다.

日官을 찾을 때 흔히 뒷짐을 짊고 玄關에 나타난다. 萬一 오래 應接室에 기다리게 하면 그냥 나와버리고, 主人이 速히 맞아주면 例의 '송진우데스'하고 人事를 하는 것이다.

1940년 東亞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二.三個月 帝國호텔에 投宿하면서 貴族院議員 宇佐美, 丸山, 拓務省 小磯 田中等과 相議하였다.

'너희들이 조선민족에게 준 唯一의 선물인 言論機關을 어느 때는 주고 지금은 빼앗고'

이렇게 工作하여 마침내 大野政務總監으로 하여금 貴族院 秋密會議席上에서 '強制로 朝鮮의 言論機關을 廢刊시키지는 않겠다'고 聲明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當時 毒種 南總督은 東京에서 이런 工作을 하고 돌아오는 古下先生을 그냥 둘 리는 없다. 豫想과 같이 留置場身勢를 끼치게 되었다. 바지춤을 잡고 그 더러운 監房속에서 척 덮인 눈꺼풀 밑으로 구르는 눈초리, 그 모든 現實에 무엇을 생각하는지 그 心中을 누가 알랴.

強弱이 不同이라 빼앗기고 넘어졌다. 그는 원동居士 杜門不出이었다. 世上은 싸움으로 물을 들었다. 銃 같이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戰爭協力에 춤추게 하였다.

그때 서슬에 總督府와 軍이 古下先生을 그대로 둘 리 없다. 一線에서 외쳐달리는 무서운 勸이 빗발친다. 그의 生命을 누가 保證하라. 그러나 그의 對答은 '내 입을 봉해 놓고 날더러 말하라면 내가 말할 수 있소?' 이 한 말로 모든 것을 拒絕했다. 先見의 明이 있는 先生이 이를 모를 리 없다. 昨年 겨울 어느 밤 先生을 찾았더니 반기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밤이 깊어 한시를 지나는데도 붙잡는다. 젊은이와 농담, 政談을 즐기는 선생.

'이제 獨立은 몇달 안 남았어' 하시던 그때 나는 '이 영감이' 하고 지나쳐 들었다. 그 後 五. 六個月뒤 解放의 날이 이 땅에 왔다.

八月 十五日後 어느날 원동에서 政談으로 목이 쉰 古下先生이

'그놈들이 政權을 준다고 내 손으로 받다니' 이 말의 속뜻을 그때에는 잘 理解못했다. 萬一 古下先生이 總督府로부터 그 바통을 받았다고 하면 古下先生의 政界出發은 落第였을는지 모른다. '國民大會, 臨時政府支持, 強力한 民主主義' 이것이 古下先生의 뜻이다. 비록 外見으로는 좋은 先生, 平凡한 아버지 같으나 그의 끊고 맺은 듯한 政見, 勇進하는 膽力은 우리 政界에 巨步를 내어

디딜 것으로 믿는다.

26. 宋 鎮 禹

<韓國近代人物百人選> (1979년)

孫 世 一

'혹 절조를 자랑할 수는 있어도 지략과 포부를 갖춘 이는 드문데 이를 겸해 갖춘 선비'(鄭寅普撰 碑銘) 宋鎮禹는 한국근대화과정에 있어 누구보다도 폭넓은 역할을 담당했던 인물의 하나일 뿐 아니라 그 추진세력의 집결에 이바지했다는 점에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언론인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는 獨立新聞 이래의 한국언론의 정통을 계승·발전시킨 이른바 대기자였고,抗日독립운동의 지도자로서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구미유학이나 中國대륙에의 망명을 하지 않고 국내에서 합법·비합법의 아슬아슬한 선에서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혹은 협박과 회유를 받으면서도 굽힘이 없이 민족운동을 전개해온 투사였다. 그러므로 해방후 국가건설의 단계에 이르러서는 어느 '혁명가'보다도 '정치가'로서의 경륜과 기반을 갖추었으며, 불행히도 그것이 그를 해방 4개월만에 정치테러의 첫 희생자로 만들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宋鎮禹의 민족주의자로서의 성장은 그의 가계와 유년기의 교육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1890년 5월 8일 全南 潭陽郡 古之面 巽谷里에서 아버지 堯, 어머니 梁씨 사이의 8남매중 다섯째로 태어났다. 아들로서는 막내였다. 兒名은 玉潤이었고, 채소밭에서 금빛의 가치를 딴 태몽에서 애칭을 '금가지'라 했다. 5대가 한 울안에서 사는 대가족 속에서 그는 자랐다. 세살 때부터 한학을 배우고 일곱살에는 성리학자이며 의병장이었던 奇參衍의 훈도를 받았다. 奇參衍의 영향은 컸던 것으로, '古下'라는 아호도 그가 동리 古比山의 곳곳함을 가리키며 지어준 것이었다. 열다섯살에 井畝의 柳씨와 결혼하고, 乙巳條約이 체결된 이듬해에는 長成의 白羊寺에 들어가 유학자 金直夫에게 수학했다.

宋鎮禹가 신학문을 접하게 된 것은 열일곱 나던 1907년 昌平의 英學塾에 들어가서였다. 英學塾은 昌平學校와 함께 奎章閣直閣 高鼎柱가 기우는 國運에 관직을 버리고 낙향하여 설립한 것으로 宋鎮禹는 이곳에서 高鼎柱의 아들 光駿, 사위 金性洙 등과 함께 英語 등 신학문을 깨우쳤다. 1908년 金性洙와 함께 가족들 몰래 日本 유학을 결심, 群山에서 머리를 깎고 두루마기 차림으로 渡日했다. 두사람은 먼저 正則英語學校와 錦城中學校를 거쳐 1910년 早稻田大學에 입학했지만 宋鎮禹는 이해의 韓日合邦에 충격을 받고 귀국, 이듬해 봄 다시 도일하여 明治大學法科로 전입학했다. 光復운동을 하려면 조직을 가져야 한다는 신념 아래 남과 별로 사귀는 일이 적었던 종래의 태도를 바꾸어 친구를 사귀기에 힘썼다. 留學生親睦會를 조직하고 그 총무 일을 맡는가 하면 다시 湖南留學生茶話會를 만들어 회장이 되기도 하고 金炳魯 등과 함께 유학생 기관지 <學之光>을 펴내기도 했다. 그가 <學之光>에 발표한 '孔敎打破論'은 전래의 尊華思想을 통렬히 비판한 것으로 국내의 일부 老儒들 사이에 말성이 되기도 했다. 26세 되던 1915년 明治大學을 졸업할 때까지 崔南善 張德秀 玄相允 曹晚植 申翼熙 金俊淵 玄俊鎬 趙素昂 등과 교우를 가졌고 이들의 대부분은 후일 오래도록 그의 활동에 동지가 되었다.

宋鎮禹와 金性洙가 東京유학동안 결심한 광복운동의 제일단계 사업은 교육이었다. 1916년 金性洙가 지사 柳瑾이 경영하다 운영난에 빠져 있던 中央學校를 인수하자 宋鎮禹는 27세의 젊은 나이로 교장이 되어 3.1운동이 터질 때까지 온 정열을 학생 훈육에 쏟았다.

그러나 宋鎮禹의 교육열은 단순한 교육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檀君과 世宗大王과 李舜臣을

강조하며 民族精氣를 고취했는데, 이 세 위인에 대해 宋鎮禹는 1917년 따로 三聖祠 건립기성회를 조직하고 南山에 三聖祠를 세우는 운동을 일으켰고, 당황한 총독부는 부랴부랴 南山에 神社를 세우고 말았다.

전민족의 에네르기가 집결되었던 3.1運動은 天道教.基督教.佛敎 등 종교계 인사들이 협력하여 주도한 것이었지만 그 직접적인 산실이 된 것은 宋鎮禹가 기거하던 中央學校 숙직실이었다. 1918년 10월 金性洙 玄相允 등과 민족의 의사표시 방법을 논의하던 宋鎮禹에게 上海로부터 張德秀가 특파되어 오고, 12월에는 美國의 李承晩으로부터도 밀사가 찾아 왔었으며 1919년 1월에는 東京유학생 宋繼白이 나타났다. 玄相允.崔麟.崔南善 등의 회합은 빈번해져 舊韓末 元老들과의 교섭은 실패했지만 2월에는 崔麟을 통하여 天道教, 李昇薰을 통하여 기독교의 궤기가 확정되어 나갔다. 처음 계획으로는 宋鎮禹는 계속적인 운동 추진을 위해 남기로 했었지만 곧 被檢되어 48인의 한사람으로 투옥되고 1년반의 未監생활 끝에 京城覆審法院판결에서 無罪로 출감했다. 그가 無罪가 된 것은 그동안 적용법이 모의의 처벌규정이 없는 보안법 및 출판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라 한다.

옥중에서 어머니를 여윈 宋鎮禹는 1920년 10월 출감 후 잠시 하향하여 정양하는 동안 지방유지들과 더불어 학교설립 기금운동을 벌이다가 高光駿과 함께 그해 겨울을 潭陽경찰서의 유치장에서 지냈다. 이 유치장 생활에서 그는 救國運動을 추진함에 있어 항상 국제정세와 連繫關係를 지닐 것과 해외에 망명한 독립운동자들과 긴밀한 연락을 취할 것을 결심했다고 하는데, 이 결심은 이후 그의 전 생애를 통해 행동으로 나타났다.

앞서 宋鎮禹가 옥중 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 金性洙는 柳瑾 秦學文 李相協 張德俊 등과 더불어 民間新聞 발행을 발기, 朴泳孝도 참가시켜 총독부로부터 허가를 얻고 1920년 4월 1일 마침내 民族主義, 民主主義, 文化主義의 三大社를 내걸고 <東亞日報>를 창간했다. 그러나 東亞日報는 창간과 더불어 가시밭길을 걸어야 했다. 時勢에 뒤진 腐儒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논설로 인해 유림을 중심으로 한 불매동맹운동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어 日本의 소위 三種神器 비판으로 황실을 모독했다 하여 창간 5개월만에는 무기정간처분을 당했다. 정간은 이듬해 1월에야 해제되었고 續刊을 하는 데는 자금난으로 한달 이상이 걸렸다. 이무렵 宋鎮禹는 金性洙의 再婚청첩장을 받았는데 이것이 그가 東亞日報와 생애를 같이하게 된 계기였다.

東亞日報운영을 통해 뜻을 펴기로 결심한 宋鎮禹는 곧 金性洙와 함께 주식회사 東亞日報社 설립을 위한 주식 공모 및 창립총회 준비 등을 위해 분주히 활동, 10월에 이르러 총주주 256인의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32세로 그 사장에 취임했다. 이로부터 20여년간 宋鎮禹는 상황에 따라 사장, 고문, 주필 등 직책은 달랐지만 실질적으로 東亞日報를 주도했으며, 그가 부득이 사장직을 물러나야 할 경우에는 金性洙가 그 자리를 맡거나 두 사람이 신뢰하는 동지에게 위촉했다.

宋鎮禹의 민족주의자로서의 정열과 패기는 그가 東亞日報를 운영하면서 벌인 각종 운동 및 사업에서도 약여하다. 1932년의 '安昌南故國訪問大飛行'주최와 物産獎勵운동 및 민립대학설립운동의 제창, 6.10만세 사건이 있던 1926년 隆熙皇帝 승하 때의 '遺勅'偽作 획책, 1931년 萬寶山 사건 때의 韓.中간의 보복중지를 위한 캠페인(이에 대해 후일 蔣介石으로부터 銀牌와 족자를 보내왔다), 1931년부터 4년간 계속된 브나로드 운동, 1931-2년의 李忠武公유적보존운동, 1934년의 江東檀君陵修築기금모집, 孫基禎선수의 가슴에 달린 일장기를 지우게 한 1936년의 日章旗말소사건 등을 그 대표적인 것으로 들 수 있겠지만, 그밖에도 가령 최초의 현상소설 모집이 <春香傳>의 개작이었고, 國歌격의 '朝鮮의 노래'를 제정 보급시켰으며, 金九의 어머니를 아들의 망명지로 건너가게 뒷받침하고 독립투사 金相玉의 아들을 東亞日報에 입사시킨 일 등도 그 예다.

이러한 그에게 일제의 탄압이 따를 것은 당연했다. 1924년 4월에는 金性洙와 함께 親日團體代表 朴春琴의 권총 협박을 받았으며, 또 사내의 내분도 있어 잠시 사임했다. 李昇薰이 사장에 취임하고 宋鎮禹는 10월 고문이 되었다. 주필이 된 1926년에는 국제농민본부에서 보내온 3.1기념사 '朝鮮農民에게'를 게재했다 하여 신문은 제2차 무기정간을 당하고 그는 11월에서 이듬해 2월까지

투옥되었다. 1927년 10월 다시 사장이 되어 36년까지 10년간 사장으로 있으면서 東亞日報의 기반을 굳혔다. 그러나 1936년 日章旗말소사건으로 신문은 제4차 무기정간을 당하고 宋鎮禹는 사장직을 白寬洙에게 맡기고 물러났다. 그동안 東亞日報는 1930년 창간 10주년 기념호에 게재한 美國 네이션誌 주간의 축사 '朝鮮現狀 밑에 貴報의 사명은 중대하다'가 문제되어 제5차 무기정간을 당하였다.

1937년 6월 다시 고문에 취임한 그는 40년 8월 10일 東亞日報가 朝鮮日報와 함께 日帝에 강제 폐간당할 때까지 있으면서 '파리를 잡자' '산보를 하자'는 등의 사설로 일제의 전쟁 협력강요를 끝까지 거부했다.

宋鎮禹의 지도자로서의 특성은 흔히 '세계대세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역사의 進運에 대한 예리한 先見'(高在旭記 <古下宋鎮禹先生傳> 序)으로 평해진다. 그가 남긴 그다지 많지 않은 문장중에서 1925년 6월 하와이에서 열린 제1회 범태평양회의에 申興雨등과 함께 한국대표로 참석하고 돌아와 東亞日報에 연재한 '세계의 대세와 朝鮮의 장래'라는 一文은 그의 豫言者적인 先見을 보여 준다.

'...만일 19세기를 프랑스문화의 확충시기라 하면 20세기는 赤露思想의 발전시대라 하는 것이 적당한 견해일 것이다. 자본주의의 모범인 美國과 사회주의의 대표적인 赤露가 태평양을 隔하여 兩兩相對하여 발흥되는 것은 과연 불원한 장래에 그 무엇을 암시하고 있는가. 협조할까, 충돌할까. 이 곧 太平洋上의 일말의 疑雲이 되어 있는 것은 不誣할 사실이다. 세계대세의 운명이 이에서 결정될 것이며 또한 인류의 문화상 총결산이 이에서 勘定될 것은 상상키 不難할 바가 아닌가'

라고 하여 20년대의 국제정치 안정기에 이미 2차대전 이후의 정황을 전망하고, '세계대세의 추이와 동양정국의 위기로 보아서 4,5년을 불과하여 태평양을 중심으로 한 세계적 풍운이 야기될 것'을 예언했다. 그리고 조국의 광복이 열강의 對日戰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지만 그러나 현실은 그의 경고를 적중시켰다.

이러한 日帝必亡의 신념에서 그는 일제말 적지않은 지식인들이 저들의 소위 '皇民化運動'에 협력 내지 동원된 것과는 달리 혹은 지방으로 나가 옛 東亞日報 주주들을 찾고 혹은 신병을 병자하고 자리에 누워 견디어 냈다.

1944년말 宋鎮禹는 東亞日報 폐간 후 광산에 종사하면서 단파 라디오를 들어온 薛義植으로부터 카이로 선언의 내용을 전해들었고, 45년 5월경에는 日本 외무성에 근무하던 張徹壽로부터 구미측 동향을 상세히 들었다. 그리하여 측근에게 日本의 항복이 몇 달 남지 않았음을 공언할 수 있었다. 8월 10일 마침내 총독부로부터 정권인수의 교섭을 받았지만 이를 거절했다. 聯合軍이 日本의 정식항복을 받은 다음 聯合國으로부터 3.1운동이후의 정통정부인 臨時政府가 인수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민중의 보복을 두려워한 총독부는 宋鎮禹와의 교섭을 단념하고 15일 새벽 呂運亨에게 교섭했다. 呂運亨은 즉석에서 이를 수락하고 8.15와 동시에 建國準備委員會를 조직하여 臨時政府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나서 미구에 공산당에게 이용당하는 바 되었다.

建準과 맞서 국민대회를 준비하던 宋鎮禹는 9월 민족주의 세력을 규합하여 韓國民主黨을 결성하고 首席總務가 되어 美軍政에 적극 협력하면서 뒤이어 환국한 李承晩 및 임시정부와 함께 政府樹立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12월 1일 속간된 東亞日報의 사장이 되었다.

12월 28일 모스크바 三相會議의 信託統治案이 전해지자 혼돈 속의 정국은 견잡을 수 없이 격앙되었다. 이날 임시정부 요인들과 反託의 방법을 논의하던 회의에서 宋鎮禹는 임정측과 의견이 다소 달랐다. 물론 託治에는 반대였지만 과격한 반탁운동으로 美軍政과 충돌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그는 주장했다.

암살자 韓賢宇의 흉탄에 쓰러진 것은 그 이틀 뒤인 30일 새벽이었다.

27. 宿草밑에 누운 故友 宋古下를 우노라

<蒼園時調集> (1948.2.9. 발행)

鄭寅普

(一)

어젯밤 '두곳'차니 미티느니 간 해 이때
겨울은 또 겨울이 버님고만 꿈이라니
스무해 유난턴 '사이' 알리 없어 하노라.

(二)

'화개동' 어느 '아침' 인사라고 한둥만둥
그냥 그랬던들 하마 아니 덜 '슬프'리
'정'이야 잇는다 할손 '의초'어이 하리오.

(三)

흰 갓1) 흰 옷으로 마지막들 '울'구'불'구
그 누구 어느 친구 님의 말을 전했것다
'한' 일2)에 '시여질'3) 마음 둘 없은 줄 아노라.

(四)

신문사 집을 짓고 '키'고 길러 몇몇해오
하면서 아니매어 '부세'4) '의'면 한 '방치'로
그 '호의' 나돌았던들 빈터 아니 됐으리

(五)

이 다음 뜻잇는 이 '계산골'5)을 잇을것가
막바지 종치는대 어디쯤이 '숙질실'터
십삼도 '만세' 아우성 '괴뉘'6) 예서 터진고

(六)

뜻깊고 괴운차고 '음응' '능청' 솜씨잇고
성권듯 주밀터니 몇'수' 넘어 내보더니
손발톱 다다를 때에 누으실 줄 알리오

(七)

'이궁안'7) 뜻밖 복새 하마트면 일8)이 컸다
돌팔매 들오거나 웨 모르고 이리저리
'놀' '자'고 물 맑어지니 님의 '공'이 비취라

(八)

'어름목'9) 충무 산소 님의 손에 높으셨다
그령성 겨레 '얼'을 한번숯귀 올리려고
'온천'서 떠들던 밤이 '알푹' '아득'하고녀

(九)

나무꾼 뉘시껏기 '을지공' 날 전했는고
듣기가 무서웁게 어느덧에 평양으로
'비' 셀날 가차웁건만 님은 멀리 설워라

(十)

한조각 깊은 마음 이 '겨레'뿐 자나깨나
단군 세종대왕 '예'쳐내친 이충무공
말씀이 구름될시면 하늘 가득 했으니

(十一)

'술' '거나' 날 붙들고 반을움에 뭐라셨다
'적'이라 우리의 '적' 알아알라 '부를' 떨어
스무해 장 그소리 뜻맨친 줄 아노라.

(十二)

내 '오할' 곱다 하고 님의 주정 좋다 했네.
'사날' 못만나면 그야말로 삼년인듯
'생초목'10) 불불다 해도 '생별'이면 하노라

(十三)

추란화(秋蘭花) 여원줄기 '댓옆'11)에서 '고닷'소라
내일 볼 작별에도 하시더니 '자중'하오
'까치놀'12) 더떠오르니 '키'13) 그리워 하노라

(十四)

멀리서 말로 듣고 님께 보내 물었더니
내 편지 받아들고 눈물날듯 반겼다고
보라던 그 새벽빛을 반못보고 가다니14)

(十五)

병패도 한돌아냐 님의 입을 보냈스니
자기말 자랑인듯 모를 것도 잘 아는듯
두어라 '턱' 보일수록 '옥' '갑' 더욱 높아라.

(十六)

'북문골' 후미진 때 날 보려고 돌아들어
들창문 똑똑하면 묻지 않고 님일터니
내 병은 예런듯 한데 찾아올 이 뉘온고

(十七)

작년 '섯달' 스무사흘 운동장서 나눴겠다
그제가 영결인줄 어느 누가 알았으리
한번 '더' 돌아나 볼걸 가슴 메어 하노라

(十八)

신문은 살아 '한돌' 님가심도 '또 한돌'이
설음이 고개고개 붓대 자주 가뿌구나
이 노래 남 못들리니 길어 무삼 하리오

註 1) 裕陵大喪때 第二次 獨立運動을 大規模로 일으키려고 하였었다.

2) 獨立運動

3) 死

4) 부시어 義일 것 같으면 한 방망이로 부시어버릴 마음을 가졌다는 말.

5) 中央學校 所在地

6) 國內 己未運動의 策源地는 中央學校 宿直室이었다. 이 때의 古下가 中央校長으로 있으면서 이를 주도했었다.

7) 校洞 병문에서 水標橋로 가는 골목, 中國商人들이 모여 사는 곳

8) 萬寶山 소문의 電報가 들어올 때 日本人의 中韓離間 謀略임을 모르고 華商들을 迫害하였다. 古下 혼자서 그렇지 아니함을 力說하여 報道로 辯破하고 社說로 明示하였다. 古下 아니면 在滿同胞의 危害는 물론 韓中の 感情이 다시 풀릴 수 없게 되었었을 것이다.

9) 氷項 李忠武公墓所

10) 우리 古歌에 '죽어서 영이별은 사람마다 하거니와 살아서 생이별은 생초목에 불붙는 다.'

11) 대나무옆

12) 海上에서 이 '놀'이 뜨면 큰 바람이 분다고 한다.

13) 타(柁)

14) 日皇隆伏 放送을 듣고 서울 일이 궁금하여 두어자를 적어 尹錫五君을 古下에게 보내고 말로 자세히 기별하라 하였다. 그 편지는 볼도 없이 새벽 달빛에 비추어 쓴 것이다. 글자도 되지 만지 하였다. 첫머리 말은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있다가 이 날을 보니 느끼움은 너 나가 없다 하였고 이어서 궁금한 말을 하고 끝으로 尹君을 보내니 무슨 말이든지 믿고 하라 하였다. 古下가 이 편지를 보고 울더란 말을 들었다. 편지로는 이것이 最後다. 이것을 가지고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만드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28. 古下 宋鎮禹先生 肖像贊

鳴臯 宋必滿

天生英豪 唯忠不離
氣蓋一世 唯義不戾
公之世路 悽風慘雨

無處置身 厄會不伸
空手單躬 抗倭之非
堂堂忠義 日月爭輝
遭難橫逝 天定命數
遺恨千秋 不要怨尤
遺像存嚴 可肅薄夫
公於祖國 萬古垂模

29. 古下를 위한 輓章

李承晩

義人自古席終稀 (의인은 옛부터 자기 명예 죽는 경우가 드물고)
一死尋常視若歸 (한번 죽는 것을 심상히 여겨 마치 제 집으로 돌아가듯 한다)
舉國悲傷妻子哭 (나라안이 모두 슬퍼하고 처자들도 우는데)
臘天憂里雪霏霏 (선달 그믐 망우리에는 눈만 부슬부슬 뿌리는가.)

30. 宋鎮禹先生 被禍實記

<새벽> (1957년 3월호)

朴相浩

저녁노을이 서쪽하늘을 수놓고 차츰 어둠의 장막이 물들이려 할 무렵, 오고가는 사람의 자취도 드문 淑明高女앞을 지나, 騎馬警察隊쪽으로 隨行인양싶은 젊은이 몇사람을 데리고 천천히 발길을 옮기고 있는 中年紳士가 있었다.

순간! 골목길에서 검은 중절모자에 검은 잠바, 곤색 海軍 바지를 입은 젊은이 한사람이 날세게 뛰어나갔다.

그의 손에는 시꺼먼 권총 - 狙擊犯이다. 차디찬 권총부리가 무심코 골목을 지나친 紳士의 뒷덜미에 겨누어지더니 불을 뿜는다.

탕! 탕!

조용한 저녁 空氣를 진동시키는 두방의 총소리 -

“응!”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머리가 푹 숙여지더니 두손을 허우적거리면서 비슬비슬 몇발자욱 옮겨진 그의 몸뚱이는 電柱를 안고 미끄러지듯 고꾸라졌다.

“앗! 저기다! 저놈이다!”

“잡아라!”

“뒤를 따라라!”

하고 同行하던 젊은이들이 제가끔 한마디씩 외치더니 壽松國民學校 正門쪽으로 쏜살같이 달리는 怪漢의 뒤를 따른다.

銃擊을 듣고 달려온 巡察警官이 怪漢의 뒤를 쫓는 젊은이의 뒤를 추격하였다. 光化門 郵遞局옆

개천가를 달리던 怪漢이 문득 걸음을 멈추고 핵 돌아서더니 어깨로 가쁜 숨을 거칠게 내면서 뒤따르는 警官과 젊은이를 향하여 拳銃을 겨눈다.

탕! 탕! 탕!

4278년 12월 12일 吳正邦을 狙擊한 申東雲이가 警察에 被檢되자 中國에서 藍衣社와 CC團을 轉轉하던 全柏의 指示로 韓賢宇, 劉根培, 白南錫, 金義賢, 崔某 鄭某 등과 새로 包攝된 金仁成, 李昌希, 李如松의 전원이 南山洞 어느 구석진 곳으로 옮겨갔다.

搜查의 손이 미치거나, 吳正邦이 領導하는 建國青年會員들의 報復이 두려워서이다.

그러나 죽었으리라 믿었던 吳正邦은 病院에서 소생하고 犯人の 완강한 否認으로 犯行은 單獨行爲로 斷定되었다. 南山으로 옮겨간 뒤에도 劉根培는 계속하여 古下先生을 狙擊할 機會를 노리고 있었으나 警護員들이 顔面있는 지난날의 同僚들이라 좀체로 下手할 겨를을 얻을 수 없어서 몹시 초조한 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날도 무거운 발길을 옮겨 어깨가 처져서 돌아오는 根培는 賢宇에게 다가갔으면서,

“韓先生! 오늘도 헛탕입니다. 方法을 달리 합시다. 苑西洞 宋鎮禹집 뒷담은 사람의 가슴 높이밖에 안됩니다. 이 담을 넘으면 바로 宋이 居處하는 山亭입니다. 그러나 山亭에서 銃소리가 나면 行랑房에 있는 警護員이 뛰어 나올 것이니 이 者들을 牽制할 人員만 潛伏해 두면 감쪽같이 해치울 수 있으니, 밤에 집을 습격합시다”

하고 勸했다. 그가 古下先生의 身邊警護員으로 있을 때,

“뒷담을 높이든지 鐵條網을 치든지 해야겠다”

고 先生의 身邊을 염려하던 그가 오늘날, 이곳이 先生을 害하는데 가장 손쉬운 侵入路라고 指摘하게 되니, 이 얼마나 알맞은 運命의 농간인가? 根培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앉았던 賢宇는 그 무엇을 決心한 것 같은 悲壯한 얼굴을 번쩍 들며 입을 열었다.

“종소! 내가 陣頭指揮하지요. 그렇지 않아도 路上 狙擊이란 申同志의 경우 吳正邦이를 놓치듯이 確實性이 희박해요. 그럼 나는 銃器를 준비할테니 劉同志는 그동안 配置할 人員이나 생각해 두시오”

다음날부터 곧 準備에 착수하여 不足한 拳銃, 刀劍等 兇器를 손에 넣었는데, 만일의 경우에 束手榴彈이 좀처럼 求해지지를 않았다.

생각던 끝에 火藥取扱에 自身이 있다고 自負하는 賢宇가 강동에다가 시멘트와 鐵片을 빚어 놓고 火藥을 裝置한 私製爆彈을 만들었는데, 實驗할 곳을 선택한 곳이 짓궂게도 그때의 昭和通(현退溪路)에 있던 ‘日本人世話會’이다.

꽃송이같은 함박눈이 펄펄 내리던 날이었다. 正午를 좀 지나서 자그마한 物件이 든 보자기를 들고 ‘日本人世話會’ 앞을 지나가던 젊은이가 걸음을 멈추더니 문득 피어물고 있던 담뱃불을 보자기에서 빠져나온 짧은 줄끝에 갖다댄다.

“지지지지!”

하는 이상한 소리와 함께 가느다란 연기를 뿜는 보자기가 핵하니 1層으로 던져졌다.

“광”

白晝의 거리를 震動시키는 爆音과 함께 아우성소리, 울부짖는 소리로 修羅場을 이룬 建物속에서 피투성이가 된 倭人男女들이 밖으로 뛰어 나와서는 눈위에 쓰러진다.

길 건너 街路樹 그늘에서 이 광경을 보고 있는 賢宇의 얼굴에는 불현듯 快哉의 웃음이 스치고 다음 순간 그는 소리없이 골목길로 사라졌다.

이렇게 私製手榴彈의 試驗에도 성공하고 모든 준비를 갖추어 갈 때, 마침 12월 28일의 反託騷動이 일어나자 세상이 어수선해서 그들의 兇計에 絶好의 機會를 주었다.

30일 새벽 決行하기로 決意한 賢宇는 根培를 시켜 29일 國民大會召集準備委員會를 정탐하게 하였다.

지난날의 同僚이던 警護員들을 먼저 찾아가서 그날도 古下先生이 苑西洞 自宅으로 돌아가리라는 것과 그날의 警護는 鄭鍾根이가 혼자 한다는 情報를 가지고, 根培가 南山洞으로 돌아오자 賢宇가 指名하는 白南錫, 金義賢, 李昌希, 金仁成, 李如松, 劉根培의 7인이 2層의 密室에 모였다. 根培가 그린 苑西洞 집의 略圖를 둘러싸고 熟議한 結果,

.下手는 賢宇와 根培가 하고

.警護員이 있는 行랑房앞 뒷문은 白南錫, 金義賢, 두사람이 지키고,

.李如松은 前面의 大門을 파수보아 외부와의 연락로를 차단하고

.金仁成은 안채 마당에서 가족들이 나오지 못하게 하고

.李昌希는 돌층계 위에서 온 집안을 망보기 하는 등 各者の 部署를 결정하였다. 그리고 소지할 무기는

.賢宇는 모젤 2호 권총

.根培는 5연발 24式 권총(두 세발의 달달 탄환이 섞여있었다)

.白南錫은 부로닝 2호 권총

.金義賢은 14式 권총

.金仁成은 부로닝 2호 권총

.李昌希, 李如松은 각각 刀劍(日本刀의 小刀)을 나누어 가졌다.

여기에서 특기할 것은 백남석, 김의현, 김인성에게 私製爆彈을 나누어 주면서, 만일 가족이나 경호원이 암살자의 정체를 눈치챘을 경우에는 서슴치 말고 폭탄을 던져 몰살하라는 소름끼치는 지령을 賢宇가 하였다는 사실이다. 신발은 輕便한 운동화로 통일하되 물러날 때에 시간의 여유가 있으면 거꾸로 돌려 신어서 눈위에 나간 발자국을 반대방향으로 남겨서 추격에 혼동을 일으키게 하고 복장과 복면을 임의로 하되 모자는 '도리우찌'로 통일하여 混戰이 있을 때 분별이 쉽게 한다는 등, 周密한 계획이 세워졌다.

“그럼 내일의 행동에 지장이 없도록 폭들 쉬시오”

賢宇가 이렇게 말하고 아래층으로 총총히 사라진 다음 그들은 자리를 깔고 누웠다.

이튿날 鐘時計가 찌르릉 다섯시를 알리자 무거운 몸을 가누어 자리에서 일어났다. 계란 몇개씩으로 아침요기를 하고 賢宇가 따워주는 위스키를 한잔씩 마시고 두패로 나누어 南山洞을 떠났다. 賢宇가 세명을 데리고 종로2가를 지나 齊洞쪽으로 해서 가고, 根培는 두명을 데리고 종로 3가 團成社앞을 지나 敦化門으로 해서 갔다.

5시 50분이 좀 지나서 그들은 약속하였던 苑西洞집뒤 언덕위에 섰는 古木밑에 모였다. 西北風이 휘 몰아치는 12월의 새벽은 아직도 어두웠다.

“땡! 땡!.....”

어디서인가 귀종이 여섯시를 치는 소리가 들린다. 정각 여섯시다.

根培는 정신을 차려서 날세게 뒷담을 뛰어넘어 집안의 動靜을 살핀 다음, 담밖을 향하여 조심스럽게 휘파람을 휴 - 불었다. 이상 없다는 신호다.

차례로 담을 넘은 그들이 허리춤에서 권총과 刀劍을 꺼내들고 앞을 겨누면서 각자 맡은 곳에 이르러 대기하자, 賢宇는 根培를 앞에 세우고 눈을 밟으며 山亭앞에 다가섰다.

이때, 안에서 기침소리가 나더니

“거 누구냐?” 하는 것이 先生의 목소리다.

(옳지, 있구나!)

이렇게 속으로 부르짖으면서 창문을 드르르 열고 마루에 올라서는데, 방안에서 또

“누구냐?”

하는 것이 몹시 초초한 목소리다.

根培가 狗肉의인 침착성으로 전등 스위치를 누르니 방안에 불이 화안하게 켜진다. 방문을 열고

들어서니 선생과 웬 노인이(新聞에서 그가 선생의 친척인 梁仲默老人임을 알았다)자리 위에 일어나 앉아 있다가, 이 不意侵入한 괴한들에 질겁을 하고 주춤 물러앉는다.

“어느 쪽이오?”

하고 賢宇가 초조히 물었다.

“이 쪽이오!”

하고 根培가 턱으로 가리키자 들었던 권총을 겨누어 마구 쏜다.

탕탕탕! 탕탕탕!

새벽의 적막을 뚫고 총소리가 요란히 울린다. 몇방의 兇彈을 맞은 선생은 방구석에 쓰러져 허우적거리면서

“응 --!” 하고 신음한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처참한 광경에 얼이 빠진 노인은 얼굴근육이 굳어졌는지 입을 실룩거리면서 방구석으로 기어들어간다.

“쏘지!”

賢宇의 호령에 정신을 차린 根培가 간신히 머리를 들고 兇漢들을 쏘아보고 있는 선생의 머리를 겨누어 방아쇠를 당겼다.

“탕! 탕!”

웁하니 앞으로 고꾸라진 선생은 다시 움직이지 않는다. 이때 겁에 질려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고있는 노인이

“사 사람 살류 --” 하고 소리치자

“떠들지 말어!” 하면서 根培의 총구에서 또 불이 터졌다.

“나가세!”

하고 밖으로 나가는 賢宇의 뒤를 따라서 마루에서 내려서는데

“꽁!”

하는 총성이 행랑방 쪽에서 나더니 총탄이 根培의 신발을 꿰 뚫었다.

“나오면 죽인다!” 하는 고함과 함께

“탕탕탕탕 탕탕탕탕”

콩볶듯 총성이 나는데, 金義賢과 白南錫이가 총소리에 놀라 잠을 깬 경호원이 발포하면서 뛰어 나오는 것을 견제하느라고 쏘는 총격이다. 이때 사랑방에서

“아버지!”

하는 울부짖음과 함께 문이 열리자

“꼼짝말아! 나오면 목숨이 없어질줄 알라!”

하고 일르는 소리와 함께 金仁成의 권총이 불을 뿜는다.

“그만!”

賢宇가 내 벨는 호령에 전원이 숨소리 발소리를 죽여가며 조용히 山亭앞에 모였다. 이곳에서 운동화를 거꾸로 고쳐신고 차례로 담을 뛰어 넘었다. 둘, 셋씩 작패하여 南山洞으로 돌아온 그들은 위스키를 병채로 들여마셨다. 술로 죄악감을 마취시켜 보려는 것이었으나 악몽에서 깨어난 사람들같이 신경은 날카로워지기만 하는 것이었다.

그날밤 어디인지 다녀온 賢宇는 창백해진 얼굴에 깊게 찌진 눈에는 독기가 서리고 분노로 몸을 떨면서

“嚴○○이란 놈은 죽일놈이야! 인제와서 꿈무늬를 빼다니..... 이놈 어디 두고 보자! 내가 네놈을 그냥 둘 줄 아느냐..... 배신자에게 돌아가는 무자비한 보복을 맛좀 봐라”

하고 노발대발 고함을 지르는 것이었다.

모든 언론이 이 저주할 테러 행위를 건국의 암, 망국의 줌이라고 비난하고 온겨레가 지도자를

없는 슬픔에 잠겨 끝없는 불안감에 떨고 있을 때, 그들은 쏘박의 지시로 38線을 넘었다.

<38以北同胞에게 反託運動을 선동한다>라는 것이 그들의 仮裝된 시행 목적이었으나 실은 古下先生을 살해 후, 한때 南韓땅에서 자취를 감추고 搜查當局의 수사망이 어느 각도로 퍼 지는지를 관망하자는 쏘박의 치밀한 계획에서이다.

이북땅에 잠입한 그들은 할일없는 날을 보내다가 2주일 뒤인 1월 15일쯤 서울로 다시 돌아왔다.

평안도 태생으로 창씨명을 箕山元律이라고 하고 있던 賢宇는 와세다大學 政經學部에 籍을 두고 있을 때, 일본의 국수주의자 나카노 세이고(中野正剛)를 欽慕하여 그가 領導하던 東方會에 가담했었다.

2.26事件의 主謀者로 極刑에 처해진 北一輝의 거사를 찬양하고 그를 추모하던 賢宇는 그당시 首相이며 軍閥의 元兇이던 東條英機를 죽여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여 보겠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이러던 때 東條의 橫暴가 날로 심해가서 일본 국민의 원성이 높아가자 東方會의 젊은 동료 몇 사람과 東條암살을 共謀하였으나, 선전적인 그의 성격이 화근이 되어 마침내 관헌에게 被檢되었다. 小兒病的 小英雄主義者의 賢宇는 乙酉年 봄에 執行猶豫라는 관대한 처분으로 방면되어서 서울, 春川 등지에 나타났다.

한국으로 돌아온 賢宇는 江原道警察部 橫山警視의 주선으로 春川에서 啓蒙義塾을 開講한다고 朴春琴, 伊坂和夫, 韓人, 黃海道警察部長 等 親日巨頭들을 찾아다니고 있었다.

해방이 되자 갈피를 못잡고 있던 賢宇는 東京留學 당시부터 呼兄呼弟로 지내던 古下先生의 秘書 鄭鍾根을 찾아서 여러차례 古下先生에게 추천해 달라고 졸랐으나 그때마다 鄭鍾根은 머리를 가로 흔들었다.

“저자는 미친개야! 미친 개는 주인도 물거든.....”

비열감에 실룩거리는 표정으로 돌아가는 賢宇의 뒷모습에 내 배알듯이 이렇게 중얼거리는 鄭鍾根이었다.

이때 筆者도 鄭鍾根이와 같이 古下先生을 모시고 있었으나 하찮은 言爭으로 國民大會召集準備委員會를 탈퇴하고 말았다. 얼마를 지내려니가 劉根培, 申東運, 白南錫, 金義賢이도 鄭鍾根이와의 감정대립으로 그와 결별하고는 賢宇와 같이 擊蒙義塾을 再建한다는 소식이 들렸다. 그러나 쏘박이와 결탁한 賢宇는 차차 테러리스트의 본성을 나타내더니 급기야는 申東雲에게는 吳正邦을 殺害하라고 종용하고 劉根培에게는 古下先生을 狙擊하라고 강요하였다.

“지금 내가 내라고 長安을 휩쓸고 돌아다니는 吳正邦이란 자는 日帝時 京畿道警察部 囑託을 지내면서 우리의 많은 先烈들을 감옥으로 몰아간 역도였오. 이놈이 日帝가 주고간 막대한 공작비와 무기로 不汗黨을 조직하여서는 혼란한 틈을 타서 장차 정부의 軍部大臣을 꿈꾸고 있으니 이어찌 默過할 수 있겠오. 한편 宋鎮禹, 呂運亨, 朴憲永의 무리는 파벌을 조장하여 민족통일을 방해하는 민족분열의 조작자이니 일찍 민족의 화근을 제거해야겠오”

이것이 賢宇의 살인 구실이었다. 물론 쏘박이나 賢宇를 조정하는 배후인물이 주는 살인구실의 녹음방송일 것이다.

건설적인 의견을 발표할만한 주변과 용기가 없는 자에게 불평이 있고, 불평이 지나친 곳에 테러의 고질이 있다. 청년들의 피를 賣名과 榮達의 값싼 걸음으로 자멸의 길을 재촉하는 테러 군상들!

목적에 위하여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공산당의 전매특허가 아니다. 이용가치가 있는 모든 사물과 현상을 100% 이용하라는 스탈린의 교훈(?)은 그들 테러 군상들에게도 행동신조가 되고 있는 것이다.

해방이 되자 해외에서 돌아오고 또는 자유를 찾아 월남한 젊은이들이 東家食 西家宿하는 질서없는 날을 보내면서 삶의 길을 찾아 헤매일 때 一宿一飯의 친절을 베풀어 이들을 낚아가지고는

조국에의 情熱에 테러至上의 그릇된 관념을 주입시켜 차례로 피의 제단에 장사지내고 있었다.

어느덧 따스한 봄이 다가왔다. 훈훈한 봄바람이 부는 3월말의 어느날 느닷없이 根培가 찾아왔다. 때가 궤죄죄 흐르는 한복에 중의 머리를 한 그의 모습은 처참하리만큼 초라했다.

“지금 포천에서 오는 길일세! 그러니 차님과 달포만에 만났네 그려”

하면서 방에 들어서자, 자리에 쓰러질듯이 들어눕는다. 핏기 하나 없는 그의 얼굴은 절망에 가까운 수심으로 일그러져 있다.

“차님! 일은 바로 제 코스를 찾아 들어가는 것 같으니”

하는 그의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오는 길에 義賢이를 만났는데 작자가 평안도 성미로 팔팔하기는 하나 뒤가 무르고 좀 우둔한 편이야”

하면서 밝히는 根培의 일이 제 코스를 찾아 들어갔다는 말은 이런 것이다.

며칠전 義賢이가 동대문 근처를 지나가는데 뜻밖에도 그때 軍事英語班에 다니고 있던 鄭鍾根이와 마주쳤다.

義賢의 앞으로 바싹 다가선 鄭鍾根이가 다짜고짜

“네가 宋先生을 죽였지?”

하고 다잡으니 그는 그만 얼김에

“아니, 내가 한짓은 아니야!”

하고 주춤 물러서는데 목소리가 떨려나오는 것을 감출 수는 없었다.

“이놈아! 네가 안했으면 누가 했단 말이나?”

鄭鍾根이가 먹살을 휘여잡고 어르니 그는 그만 겁이 나서 먹살을 잡힌 손을 뿌리치고 달아나고 말았다. 다음날 광화문 路上에서 崔某가 首都廳刑事에게 체포되고, 어제는 崔가 형사들을 데리고 짚차로 신당동 賢宇의 집인 그들의 숙소앞을 지나갔다는 것이다.

“鄭이 덜미를 쳐보는 수작에 작자가 감쪽같이 넘어가서 눈치를 보이고 말았네!”

하고는 몸을 일으키더니 다시 말을 이어 그동안의 회포와 마음의 변화를 이렇게 말한다.

“차님과 그날 헤어진 다음 얼마를 지내면서 생각해보니, 자신에 대한 회의와 환경에의 염증에서 차차 고민하게 되었네. 피와 鐵의 통일을 염불 외우듯 하고 있는 賢宇의 어처구니없는 시대착오의 궤변에 귀를 기울이고 이순신장군의 주리를 틀던 이 민족의 결함을 송두리채 지니고 있는 杻柏과 賢宇의 몸에서 풍기는 피비린내를 끝내 말지 못하고 정치야육에 눈멀은 테러리스트의 꼬임에 빠져 古下先生을 내 손으로 죽이고 말았네 그려! 망상의 휴탕 속에서 허덕이다가 청춘의 정열을 헛되게 한 유감은 고사하고 민족에게 다시 씻을 수 없는 죄악을 범했네.....”

말을 마치고 깊은 오뇌에 잠긴듯이 침울히 앉아있는 根培의 어깨는 힘없이 처지고 늘어진 여윈 목이 펴이나 애처롭게 보인다. 그러나 나는 반가웠다. 중학교 동기동창인 根培의 오늘있기를 나는 얼마나 바랐던가.

“劉兄! 반가워, 진정 반갑네, 劉兄은 이제 옛 根培로 돌아왔네, 杻柏, 賢宇의 무리야말로 살인이 생활화된 악성인 정신병자야. 더욱이 현우는 제거되어야 할 존재야! 得人이라야 得天下라고 하네, 멀지않아 그들은 그들이 저지른 죄의 값을 치르고 이땅에서 사라질 것이네!”

“고민하던 끝에 나는 呂運亨씨를 노리고 있던 현우와 결별하고 머리를 깎고 38이북의 포천 산속으로 들어가서 새끼도 꼬고 독서도 하는 날을 보냈다네. 그곳에서 번민과 오뇌의 날을 보내면서 나는 오늘의 시대성을 잘못본 어리석음을 깨달았네.....”

말을 채 맺지 못하고 얼굴을 두손으로 가리고 책상위에 엎드린다.

“劉兄! 우리는 아직 완전한 인간이 못되는 인간들이 아닌가. 과오도 있고 실수도 있는 것이야. 그러나 劉兄이 저지른 과오에 대한 뉘우침이 빠른 곳에 유형의 광명한 미래가 있지 않을까.....” 너무나 깊은 상처에 우는 그를 위로할 말이 이렇게 밖에 나오지 않았다.

“마비된 인간성에서 국가대사를 그려치고 윤리에 반기를 들었던 나에게 오직 한갈래 갈 길이 있다면 속죄의 길일세. 그릇된 私情에 눈이 어두어 大義를 저버린 자로서 악의 길을 걸어온 내가 아니었던가. 포천 산속에서 冥想의 날을 보내는데 이곳도 공산당 놈들의 등살에 배겨날 수가 있어야지. 머리를 깎은 나를 僧으로나 알었든지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라는 판에 박은 레닌의 말을 되풀이해 가면서 못견디게 굴더군.....”

하면서 쓴웃음을 짓는다.

“하기야 큰일을 저지른 나를 이나라 이땅이 받아줄 리가 있겠나. 한줌의 흙도 나의 무덤되기를 원치 않을 것일세. 朴兄! 고마워. 아직도 나를 친구로 알아준 朴兄의 우정이 눈물겨웁네. 나는 자수하겠네. 실은 건국하는 날 자수하려고 하였으나 지금의 마음에 魔가 들기 전에 자수하려고 포천을 떠난 것일세. 며칠동안 인천의 숙부집에 가서 부모님께 하직을 사리고 죄의 값을 치를 마음의 준비를 갖추겠네.....”

다음날 그는 발길을 옮겨 인천으로 떠났으나 며칠뒤 인천의 숙부집을 급습한 수도청형사대에 체포되어 자수하겠다고 그의 양심의 부르짖음과 마지막 소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말았다.

<筆者는 故宋鎮禹先生 警護員이었으며 共犯者 劉根培의 同窓生>

31. 古下와 朗山

<獨立路線> (1959)

金俊淵

(1) 政界回復 1년

- 解放과 政治運動의 出發-

<동아일보> (1946.8.15)

1

“공산혁명으로 一路 매진하겠소!”

이것이 建國準備委員會委員長 呂運亨씨가 작년(1945년) 8월 15일 오전 10시경 창덕궁 경찰서 앞에서 내게 선언한 말이었다.

“蘇聯軍이 곧 京城에 들어오고 우리가 곧 내각을 조직할 터인데 당신 후회하지 않겠소?”

이것이 建國準備委員會 조직부장 鄭栢군이 역시 작년 8월 15일 오후3시경에 내게 전화로 한 말이었다. 정계1년을 회고하는 데 있어서 이 呂, 鄭 양씨가 내게 한 말은 참으로 우리가 기억할 가치가 있는 말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내가 직접 들은 말은 아니지마는 세상에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또한 사람의 다음 말도 기억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작년 9월 8일 계동서 개최되었던 共產黨熱誠者大會 석상에서 책임비서 朴憲永군은

“朝鮮人民共和國 만드느라고 동무들 대하기가 늦어졌소!”

하고 말하였다.

建國準備委員會 人民共和國 人民黨 共產黨 民主主義民族戰線 이것이 좌익진영의 주요형태이고 거기서 중요한 활동을 한 것이 呂運亨 朴憲永씨이다. 이 두 사람의 자취를 살펴보면 좌익계열의 활동을 알 수 있는 것이다.

8월 6일에 廣島市에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9월 미명에 蘇聯軍이 조선 만주로 쳐들어오게 되니

일본은 손을 들고 만 것이다. 9일에 소련측은 정정당당하게 日本에 대하여 宣戰布告를 하고 전투를 개시하였으나 日本서는 그에 대해서 적대행동을 취하지 못하고 회의만 거듭하고 있었다. 벌써 무조건항복은 기정사실이었고 다만 그 절차에 관한 것이 논의되고 있었던 것이다. 중앙정부와의 연락으로 인하여 그 형세를 熟察한 朝鮮總督府 당국은 蒼皇失色하여 어찌할 줄 모르고 宋鎮禹씨에게 향하여 시국 담당을 요청하게 되었다.

총독부 보안과장 磯崎와 차석사무관 原田과 조선군참모神崎외 또 한 참모와 참모와 宋씨의 5인이 本町 某日의 사저에서 회합하게 되었다. 그때에 그들은 물론 일본이 무조건 항복한다는 말까지는 내지 못하였고 다만 형세가 급박 중대하다는 것을 말하고 行政委員會 같은 것을 조직하려고 권하고 독립준비까지를 하여도 좋다고 하였다. 그러나 宋씨는 應從하지 않고 佯醉하고 日本의 必勝을 말하고 그 자리를 파하여 버렸다.

그 이튿날 아침에 原田사무관이 또 와서 권유하고 경기도 보안과장 田中鳳德이도 와서 권하고 최종에는 경기도지사 生田이가 경찰부장 岡과 함께 적극적으로 권하였으나 宋씨는 여전히 거절하고 응치 아니하였으니 그것이 8월 13일의 일이었다.

그때에 岡경찰부장은 앉았다섰다 왔다갔다 하면서 어찌할 줄 모르고 형세가 절박하니 宋씨가 담당하지 아니하면 아니되겠다는 것을 협박적으로 말하였다. 총독부가 가진 권력의 4분의 3을 밀어줄 터이니 해달라고 말하였다. 신문.라디오.교통기관.헌병.경찰.검사국 등을 다 밀어주겠다고 하며 日本人の 居留를 인정하며 그 사유재산을 보호하여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며 당신이 응락하면 지금 당장에 정무총감 遠藤에게 함께 가서 결정을 짓자고 하였다.

그러나 宋씨는 여전히 거절하므로 岡경찰부장은

“당신이 그같이 固辭하면 金俊淵군으로 하여금 하여보게 하면 어떠한가?

金俊淵군을 만나게 하여달라”

고 하였다. 그래서 宋鎮禹씨는

“金俊淵군도 나와 동일한 의견일 줄 안다. 그러나 당신이 만나기를 원하니 연락은 취하겠다.”

고 대답하고 나에게 그 뜻을 전하였으므로 나는 경기도지사 生田을 만나게 되었다.

2

8월 14일 오전 9시경에 나는 경기도지사 生田을 경기도지사실에서 만나게 되었다. 岡경찰부장도 들랑날랑하였다. 이야기는 5-6시간 계속되게 되었다. 그날 처음으로 경성에 B29가 2차례나 날아와 나는 그들과 방공호에 들어가서 피난하고 점심까지 같이하고 이야기하였는데 조선내에서 폭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고 펍 염려하는 모양으로 더군다나 학생들의 동향에 대하여서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는 모양이었다. 그들이 무조건항복에 관한 의사를 표시치 아니한 이상 나는 물론 그 눈치도 보일 수 없는 것이고 그들이 듣기 좋게 위안될 만한 말을 하여주고 갈리게 되었는데 맨 끝에 生田지사는

“당신이 宋鎮禹씨를 만났는가?”

하고 묻기에 나는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조선총독부의 시국담당에 관한 宋鎮禹씨측에 대한 교섭은 이와같이 結末되고 말았는데 15일 아침에 들은즉 呂運亨씨가 오전 7시반에 정무총감 遠藤을 만나러 갔다고 하였다. 물론 宋鎮禹씨측에 대한 것과 동일한 문제인 줄을 짐작하였다.

그때 14일 밤 라디오 방송은 15일 정오에 중대방송이 있으리라는 것을 예고하였다. 그런데 나는 鄭栢군에게서 宋鎮禹씨와 呂運亨씨와의 제휴에 관하여 알선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鄭栢군 등의 의견에 의하면 宋鎮禹씨측과 呂運亨씨측이 제휴하면 국내에 있어서는 대항할 만한 세력이 없을 터이니 그 뜻을 宋鎮禹씨 金性洙씨에게 말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金性洙씨는 14일 오후에 漣川 떠나는 길에 잠깐 만났을 뿐으로 그 문제에 관하여서는 이야기할 기회가 없었고 宋鎮禹씨에게는 14일밤에 그 이야기를 하였더니 거절하고 응치 아니하였다. 총독부측으로부터 4차례나 교섭을 받았는데 그것을 거절하였은즉 지금 다시 응낙할 수도 없고 연합군이 들어오기

전에 일본사람의 손에서 정권을 받는다는 것은 불가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宋鎮禹씨는 中日戰爭(日支事變)이 일어나고 美日戰爭(大東亞戰爭)이 계속하여 일어나 일본이 혁혁한 승리를 얻어가는 동안에도 日本必亡의 신념을 굳게 가지고 있었다. 나는 宋鎮禹씨에게서 다음과 같은 말을 수백번 들었다.

“日本人이 亡하기는 꼭 亡한다. 그런데 그들이 형세가 궁하게 되면 우리 조선사람에게 自治를 준다고 할 것이고 형세가 아주 궁하게 되어서 진퇴유곡의 경우에 이르게 되면 그들은 조선사람에게 독립을 허여한다고 할 것이다. 우리가 자치를 준다고 할 때에 나서지 아니할 것은 물론이려니와 독립을 준다고 하는 때에도 결코 나서서는 안된다. 그때가 가장 우리에게 위험할 때다. 망해가는 놈의 손에서 정권을 받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불란서의 폐탕 정권을 보라. 중국의 汪兆銘 정권을 보라. 또 비올빈의 라우엘 정권을 보라. 그들이 필경 허수아비 정권밖에 되지 못할 것이고 民族反逆者의 이름을 듣게 된다.”

이와 같은 생각으로 總督府의 교섭도 거절하고 呂運亨씨의 제의도 거절한 것이었다. 이것은 宋鎮禹씨가 총독부측 제안을 거절한 이유가 되는 동시에 呂運亨씨의 제안을 거절한 이유도 되는 것이지만 呂씨측 제안을 거절한 것은 또다른 중대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呂運亨씨에게는 해외에 있는 在重慶 大韓臨時政府를 위시하여 여러 독립운동 선배들의 존재를 무시하는 경향이 농후하게 있고 또 공산주의적 색채가 농후한 것이 간취되었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되어서 최초의 합작시험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리하여 呂運亨씨는 15일 오전 7시반에 정무총감 遠藤을 만나고와서 建國準備委員會를 조직하여 가지고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였던 것이다.

3

8월 15일 정오에 과연 중대방송이 있었다. 그것은 일본 裕仁天皇의 무조건항복에 관한 것이었다. 呂運亨씨등은 바로 활동을 개시하였다. 建國準備委員會 운동이 대대적으로 전국적으로 전개되었다.

16일 오후 2시에는 소련군이 경성으로 들어온다고 하였다. 그래서 건국준비위원회측에서는 위원장 呂運亨씨를 선두에 세우고 수만군중을 동원하여 경성역으로 나갔었다. 그리하였으나 소련군은 한사람도 오지 아니하였다. 건국준비위원회 사무소가 있는 계동 입구에는 목총 가진 학생군이 있어서 조각본부로 가는 행인을 제지하고 있었다.

여기서 ‘組閣本部’를 설명하는 일화 하나를 소개하겠다. 14일에 연천으로 갔던 金性洙씨는 사태의 급변함을 듣고 17일에 경성으로 돌아왔는데 오후 9시경에 자기집이 있는 계동입구에 다달으니 목총든 학생군이 제지함으로 무슨 까닭이나? 물었더니 ‘組閣本部’가 있기 때문에 잡인의 통행을 금지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의 모자를 보니 자기 학교 학생들이었다고, 그러나 자기가 교장이란 말도 못하고 주저하고 있던 차에 다행히 普專 졸업생 趙中玉군의 알선으로 그곳을 통과하였다고. 그런데 趙군은 조각본부인 건국준비위원회 사무소에서 나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와같은 권력이 있었던 것이라고 하였다.

17일 아침에 평양서 宋鎮禹씨 댁으로 전화가 왔다. 이것이 남북 연계에 관한 중대한 사실이다. 그 전화의 내용인즉 이러하다.

“지금 曹晚植 吳胤善 金東元 세사람이 모여서 電話를 한다. 그런데 知事로부터 시국 담당의 교섭이 있는데 어찌하면 좋을까?”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宋鎮禹씨는

“治安維持 정도로 하는 것이 좋겠다!”

고 회답하였다.

20일경에 金炳魯, 白寬洙씨 등은 建國準備委員會를 방문하고

“정권을 정무총감에게서 받는 형식을 버리고 각계 유지를 총망라하여 그 자리에서 공론하여 치안을 유지하는 정도로 하여 명칭도 治安維持會 같은 것을 채택하라!”

고 제의하였었는데 찬성자도 많이 있었으나 건국준비위원회측에서 應從치 아니하여서 성립되지 못하고 만 것은 또한 기억할만한 사실이었다.

그래서 呂運亨씨 등은 그대로 나가서 9월 6일 밤에 경기여고 강당에 모여서 人民共和國을 만들고 13일에는 그 각원의 명부까지를 발표하여 그의 숙원이던 조각을 완성한 듯하였다.

宋鎮禹씨는 8월말에 와서야 겨우 활동을 개시하였다. 연합군이 9월 7일에 경성에 돌아온다는 것이 확실히 알려진 때문이다. 國民大會準備會를 발기하였다.

9월 7일에 그 결성식을 光化門通 東亞日報社 3층강당에서 거행하였는데 경향각지로부터 참집한 인사가 수백명에 달하는 대성황을 이루었다. 중경에 있는 大韓民國臨時政府를 지지하고 연합국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표하고 당면의 문제를 담당처리하기 위하여 간부를 선정하는 결정을 보게 되었다.

9월 16일에는 韓國民主黨이 結成式을 거행하였는데 宋鎮禹씨는 그 首席總務로 취임하게 되어서 國民大會準備委員長인 동시에 韓國民主黨 首席總務인 宋鎮禹씨는 두 단체를 영도하게 되어 建國準備委員會, 人民共和國에 대한 대항적 세력을 집결하게 되었던 것이다.

9월말에 安在鴻씨의 國民黨이 결성되고 또 任永信씨를 중심으로 한 朝鮮女子國民黨이 결성되어서 민족주의진영은 國民大會準備會, 韓國民主黨, 國民黨, 朝鮮女子國民黨 이와같은 4개단체로 두각을 나타내게 되었다.

10월 16일에 李承晚박사가 미국으로부터 미국 비행기를 타고 김포공항에 도착하였고 11월중에 중경에 있던 大韓民國臨時政府가 들어오게 되어서 民族主義陣營은 강화되게 되었다.

그동안에 民族統一, 政黨統一, 左右合作 등 많은 문제가 논의되고 試行도 되었으니 10월 5일에는 梁槿煥씨의 알선으로 좌우요인들이 昌信洞 白樂承씨 집에서 회합하였고 李承晚박사는 中央協議會를 중심으로 하여서 노력하여 보았고 重慶서 돌아온 臨時政府에서는 趙素昂 張建相씨등을 내세워서 합작을 도모하여 보았으나 다 성공하지 못하고 信託問題가 나오고 朴憲永군의 蘇聯邦 가 입론이 나오게 되어서 合同되지 못할 것이 명확하게 되었던 것이다.

4

경성서는 12월 30일에 宋鎮禹씨가 암살을 당하고 평양서는 미구에 曹晚植씨가 연금을 당하게 되었다. 民族主義陣營에 대한 반격이 남북에서 거의 동시에 시작된 것으로 보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었으니 이것은 일대 경종이었다.

建國準備委員會, 人民共和國의 지도자들 즉 人民黨, 朝鮮共產黨의 간부들 즉, 呂運亨, 朴憲永씨 등은 共產革命으로 일로매진하기를 주장하고 內閣을 즉시 조직할 것을 주장하여 그 결론으로 9월 6일에 人民共和國을 만들어서 13일에는 閣員까지 발표하고 信託을 支持하여 朝鮮의 絶對自主獨立을 否定하고 蘇聯邦 加入을 주장하여 4천년 문화민족을 노서아의 노예화하려고 한다. 그들이 이러한 태도를 固持하는 동안에는 도저히 합작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어느 편이든지 굴복이 있을 뿐일 것이다.

合作問題는 非常國民會議때에도 試驗되었고 民主議院 成立時에도 試驗되었다. 금년 2월 14일 民主議院 발회식때에도 呂運亨씨는 바로 회의장 앞에까지 왔다가 들어오지 않고 말아버린 일도 있었다. 美蘇共同委員會가 無期延期되게 되자 초조한 外賓들은 또 다시 合作問題를 끌어내어 권하여 보고있는 중이다. 中國에 있어서 마샬特使의 노력도 크려니와 조선에 있어서의 버취중위의 수고도 또한 적지 아니한 줄 생각된다. 苦熟을 무릅쓰고 동분서주하며 노력하여주는 그 勞를 나는 크다고 생각한다. 민족주의 진영에서는 民主議院 부의장 金奎植박사 이하 5인을 대표로 선정하여 성의있게 덕수궁에 가서 기다리자마는 좌익측 대표들은 단장 呂運亨씨의 병을 이유로 하여서 3,4차례나 회기를 徒過케하고 1장의 쪽지만 남기고 갔으니 이것이 소위 五原則이라는 것으로서 土地의 無償沒收를 주장하고 南朝鮮에 있어서도 北朝鮮에와 마찬가지로 政權을 모두 人民委員會로 넘기라는 것이다. 요컨대 남부조선도 북부조선과 꼭 同一하게 하여서 共產革命을 실시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국제 국내형세로 보아서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것이다. 거기 대하여 민주주의

진영에서는 合作基本對策 八個條를 작성하여 발표하였는데 이것은 누구나 적절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바이다. 그동안에 북조선에서는 共產黨과 新民黨이 合作하여 北朝鮮勞動黨을 만들었는데 평양에 가서 지령을 받고 돌아온 朴憲永군은 人民黨을 시켜서 제기케하여 남조선에서도 그와같이 실시하려고 한다. 그런데 그에 관련하여 공산당 내에 대파문이 일어나게 되어서 李廷允, 姜進, 徐重錫, 金鑣洙, 金槿, 文甲松의 六中委員이 反幹部聲明을 발표하여 朴憲永군의 당내 파벌성을 폭로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李廷允군은 제명처분을 당하게 되고 그외 5명은 무기정권처분을 당하게 되어서 사회의 주목을 끌고 있는 터이다.

6월중에 인천에 있는 공산당원 曹奉岩군은 성명서를 발표하여 無產階級獨裁를 否認하고 소련의 존주의를 청산하는 태도를 명백히 하였다.

朝鮮의 獨立은 국제적으로 이미 公約된 바이니 1941년 8월 중순에 美英間에 체결된 大西洋憲章 제3조 중에는 '主權과 自治를 강제적으로 탈취당한 제국민이 그 주권과 자치를 회복하는 것'을 희망한다고 하였고 1942년 11월 카이로 美英中 3국회담에서는 '전기3대국은 朝鮮人民의 奴隸狀態에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에 조선으로 하여금 自由와 獨立을 얻게 할 것을 결의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獨逸이 항복한 후에 개최된 포츠담회의에서는 美英蘇中 4국이 '카이로선언을 履行하고!'를 명시하여 조선독립을 재확인하였다.

사태가 이러하므로 우리는 국내에 있어서 조선의 독립을 최고목표로 두고 민족적 결합을 공고하게 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줄 안다. 그러므로 좌우합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呂運亨 朴憲永씨등의 종래의 태도로는 합작은 거의 불가능이라고 보여진다. 몇번 껌질을 벗겨내버리고 참으로 朝鮮民族을 사랑하고 참으로 朝鮮獨立을 염원하고 참으로 民主主義를 希求하는 새 세력이 나와야 될 줄 안다. 그 점에 있어서 나는 曹奉岩 李廷允군등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는 바이다.

8.15를 당하여 감개무량하다. 순국선열들에게 감사하고 연합국에 감사한다. 그리고 기뻐도 한다. 그러나 민생이 날로 곤란하여가고 정부는 수립못되고 더군다나 이북에 있는 동포들을 생각할 때에 가슴이 메여질 듯하다.

자! 조선사람들! 다같이 손잡고 나가 보지 않겠는가? ML黨 옛 同志들! 독립기 아래로 태극기 아래로 다같이 모이지 않겠는가?

(2) 國民大會準備會의 一年

<동아일보> (1946.9.7)

山高而秀雅하고 水深而清澄한 漢江의 上流, 勝地八堂에는 臥龍岡이 아닌지라 伏龍先生은 없었지만 人傑은 地靈이라 그래도 一個王佐之才를 包藏하고 있었다. 때는 소화20년 夏6월 어느날 이땅에는 漢室을 興復코저 하는 劉關張의 三人은 아니지만 日皇의 衰運을 만회코저 하는 朝鮮總督府 政務總監 遠藤 保護觀察所長 長崎와의 二人의 來訪을 보게 되었다.

泛彼中流 江上에 동실 떠나간다. 姜太公의 낚시배가? 渭水아닌 이 漢水에 같은 呂船이지만 閑雲野鶴을 벗삼아 悠悠自適하는 興周의 祕策을 낚시대에 부치는 것이 아니고 兵馬倥傯之際에 日皇의 殘命을 구하려는 奇計를 案出코저 개최된 군사회담이었던 것이다. 三千里江山에 三千萬大衆이 사는 터이라 별별 인물이 다 있게 되어 縛蔣獻上을 進言하는 妄動者도 있었고 日本을 위해 聯蘇攻美에 충성을 다하겠다는 인물도 튀어나오게 되었다. 이것이 그들의 수호책이라고 변명할는지 알 수는 없지만 事實은 史實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

遠藤 長崎의 二人은 이 八堂船上에서 呂運亨씨에게 延安行을 권하게 되었다. 그래서 呂씨는 그것을 담당하고 崔某와 함께 가기로 하였던 것이었다. 前者에 呂氏는 자기가 가면 延安의 毛澤東씨를 설득시켜서 日本 及 蘇聯과 연합하여 美英을 치게 할 수가 있다고 揚言한 일이 있었다. 잔뜩 궁한 판에 참 妙案이라고 생각하고 長崎는 呂씨를 遠藤에게 소개하여 총독 관저에서 모씨의

통역으로 만나게 되었고 또 다시 八堂會談까지 보게 된 것이었다. 또 그전에 小磯總督시대에도 眞鍋와 연락하여 총독의 알선하에 '民族維新會'라는 것을 모시는 계획해본 일이 있었던 것이었다.

呂運亨씨는 延安行을 수행치 못하고 8월 15일을 맞이하게 되어서 그날 오전 7시반에 政務總監을 만나서 결정을 짓고 '共產革命으로 一路邁進하겠다!'고 선언하고 建國準備委員會를 조직하여 전국적 활동을 개시하여 곧 조각에 착수하여 9월 6일 밤에는 벌써 人民共和國를 만들어서 13일에는 閣員의 명부까지 전부 발표하여 버리는 대활야성을 표시하였던 것이었다. 8월 16일에는 소련군이 꼭 경성으로 들어올 줄 알고 수만 군중을 동원하여 가지고 京城驛으로 환영나갔던 것은 유명한 이야기꺼리였다. 그들은 경성 이남까지도 전부 소련이 점령하게 될 줄 알고 '버스에 미처 못타서는 큰일이라!'고 생각하고 조선에다가 공산주의를 실시하여 소비에트 공화국을 만들려고 한 것이었으니 그들의 안중에는 아무 것도 보이는 것이 없었고 눈앞에 떨어진 全朝鮮의 政權이 보였을 뿐이었다.

이때에 결연히 일어나서 몹시와의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일부의 인사들이 있었으니 그는 故宋鎮禹씨를 중심으로 한 집단이어서 작년 9월 7월에 國民大會準備會라는 간판을 내걸게 되었다. 9월중에 韓國民主黨 國民黨 朝鮮女子國民黨도 나오게 되어서 建國準備委員會, 人民共和國과 그 배경이 되는 人民黨과 共產黨에 대립하게 되었다. 그러나 國民大會準備會가 최초로 간판을 내걸고 건국준비위원회, 인민공화국과 항쟁하여 나왔다는 것은 기록될만한 사실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나는 동아일보 지상에 누차 이 國民大會準備會에 관한 것을 발표하였고 더군다나 8월 15일의 기념논문에는 4회에 걸쳐서 해방후의 운동 전체에 관하여서 평론한 바 있었던 고로 여기서는 장황하게 논술하기를 피하고 몇가지 점만 들어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한다.

國民大會準備會 情報部에서는 작년 10월 14일부로 다음과 같은 문서를 발표하였는데 이것은 지금 와서 생각하여 보면 꽤 중대한 의미가 발견되는 것인 고로 冗長을 嫌避치 않고 전문을 인용하기로 한다.

共同聲明書

檀紀四二七八年 十月二十四日 午後二時 서울시光化門通 東亞日報社에서 韓國民主黨, 朝鮮共產黨, 國民黨의 三黨代表와 斡旋者인 國民大會準備會 代表가 連席하여 지난 十七日の 明月館會談을 繼續한 結果 滿場一致로 左와 如히 決意하였다.

檀紀四二七八年十月二十四日

△韓國民主黨代表 = 宋鎮禹 元世勳 金炳魯 白寬洙 洪性夏 白南薰

△國民黨代表 = 安在鴻 朴容羲 嚴雨龍 白泓均 金寅炫 蔡圭淵 閔大鎬

△朝鮮共產黨代表 = 李 英 崔益翰 黃 郁 朱鎮璟 徐丙寅

△國民大會準備會代表 = 金俊淵 薛義植 張澤相 徐相日 姜柄順

△個人資格 = 崔星煥 尹亨植

決 議

- 一. 우리는 在重慶大韓臨時政府의 政治的 外交的 活動을 全面的 積極的으로 支持함.
 - 一. 우리는 在外諸革命團體의 數十年間의 우리 民族解放鬪爭에 貢獻한 偉大한 業績을 支持함.
 - 一. 우리는 大韓臨時政府의 還國을 促進하여 國內國外的 反民族分子를 除外한 民主主義的인 各層各派와 提携連結하여 國民總意에 依한 正式政府의 急速한 樹立을 期함.
 - 一. 韓國民主黨 國民黨 朝鮮共產黨은 全朝鮮民族의 統一된 完全한 民主主義的 自主獨立的 正式政府 樹立을 爲한 準備로 國民의 總意가 反映되고 集結될 수 있는 國民大會準備委員會를 構成함.
- ◆附帶決議의 一. 우리는 獨立促成中央協議會의 強力한 發展을 爲하여 積極的으로 協力할 方法을 講究함.

◆附帶決議의 二. 國民大會準備委員會機構 構成研究委員 及 國民大會準備會와의 交渉委員會를 左와 如히 選定함.

金炳魯 金俊淵 白泓均 崔益翰 崔星煥

左右合作문제가 지금도 논의되고 있는 이때에 이 문서를 보니 감회가 깊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만한 양해가 전면적으로 되었더라면 우리 독립사업은 훨씬 더 진보되었을 줄 안다.

그러나 공산당에도 두가지가 있어서 李英 崔益翰 李廷允 徐重錫 등을 중심으로 한 작년 8월 15일에 성립된 共産黨이 있고 朴憲永군을 중심으로 하여 동년 9월 8일의 계동 熱誠者大會의 결정에 의하여 성립된 共産黨이 있어서 전자는 朝鮮獨立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열의를 가지는 파이고 後者는 소련방 가입론까지를 내세워서 조선독립을 부인하는 派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들은 합하였다가 이번에 또다시 분열을 보게 되어서 共産黨의 反幹部運動의 형식으로 李廷允, 徐重錫군 등은 朴憲永군 등 간부파를 배격하게 되었다. 呂運亨씨도 人民黨首를 사임하고 금년말까지는 정계에서 은퇴하겠다는 풍설도 들린다.

左右合作은 1년간을 두고 방황하다가 다시 옛길로 들어선 감이 없지않다. 세칭 長安派 共産黨이라고 하는 上記 共同聲明書에 서명한 李英, 崔益翰군 등의 제씨에 의하여 진보되지 아니할까 생각된다.

國民大會準備會에서는 금년 1월 10일을 기하여 國民大會를 소집하여 여러 가지 방책을 토의하려고 하였으나 위원장 古下 宋鎮禹선생의 작년 12월 30일의 흥변으로 인하여 실행을 보지못하고 금년 2월 1일의 非常國民會議는 國民大會와 유사한 성질의 것이었는 고로 그 사업은 실현완료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동인들은 1주년을 기념하면서 俱樂部로 개작하여서 창립 당시의 기분을 잃지않고 보전하여 가려고 하는 바이다.

(3) 古下 宋鎮禹先生 1周忌를 맞이하여

<동아일보> (1946.12.29)

古下先生! 선생께서 돌아가신지 벌써 1주년이 되었습나이다. 작년 12월 30일 오전 6시 15분에 흥한들에게 해를 당하신 후 蕭條하게 漢陽이 공허한듯한 느낌도 없지아니 하였습나이다.

선생께서 돌아가니 그때가 마치 우리 조선독립문제에 하자가 되는 莫府三相會議 결정중의 信託統治문제가 전해오던 그때이었나이다. 그때에 우리 삼천만 동포는 일치하였나이다. 민족주의진영에서 그에 대하여서 반대하였을 뿐 아니라, 共産黨과 人民黨 등 좌익진영에서도 그에 대하여 반대하는 태도를 취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미국 국무장관 번즈씨로 하여금 '조선사람이 원치 아니하면 신탁통치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고 성명케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古下先生! 작년 12월 28일의 일이었나이다. 막부삼상회의 결정이 알려지고 그중의 신탁통치 조항이 알려지자 노소남녀 할 것 없이 대경실색하여 서울 시중은 물끓듯이 되었나이다. 죽점정 임시정부요인 숙소에서는 밤에 들어가서 이 문제에 대한 토의가 개시되었던 것입니다. 金奎植박사가 하지장군과 만나서 이야기한 전말을 보고하였지요. 張澤相형도 선생과 함께 가서 하지장군을 만난 보고를 하였나이다. 趙素昂씨도 보고를 하였나이다. 요컨대 결론이 그 문제가 우리 독립과는 不相容이라는 것이었나이다.

28일 밤에 개시된 회의는 29일 새벽 2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새벽 2시경에 회의를 마치고 자동차로 돌아오는 도중에 자동차에 고장이 생겨서 1시간이나 지체하였던 일도 생각나나이다. 새벽 공기는 雪寒風에 몸을 찌르는 듯하였었나이다.

29일 오후에도 죽점정에서 또 회의가 있었지요. 선생과 함께 나도 또 그 회의에 참가하고 韓國

民主黨에 들렀다가 선생과 滄浪형과 同車하고 돌아가는 길에 나는 몸이 불편해서 선생께서 동행 하자고 누차 권하시는 것을 듣지않고 서소문 사위집에서 내렸었습니다. 그 전야 회의 때문에 냉기가 침입하여 복통이 심하였기 때문이었나이다. 그 당시 한 달에 25회는 선생택에 가서 동숙하던 나는 복통 때문에 29일 밤은 결석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였더니, 어찌 뜻하였으리! 그날밤에 遇害하실 줄이야? 30일 早朝起寢前에 나는 그 소식을 듣고 轉之倒之, 원동택을 달려간 것입니다. 松石菴에 들어가니, 선생께서는 벌써 완전불귀의 객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동안 1년간의 우리 獨立의 步度는 펍 지지부진의 상태에 있었나이다. 민생문제의 해결도 역시 그와 관련되어서 步度가 지지합니다. 그러나 부단히 진전되고 있다는 것을 나는 간취하고 있는 고로 희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삽나이다. 신탁문제는 우리 국민에게 振作의 機會를 주었던 것입니다. 작년말에 벌써 그 반대 大시위운동이 경성서 전개되었던 것입니다. 수십만의 군중이 신탁통치 절대반대를 부르짖고 경성시가에 大시위행렬을 하였던 것입니다. 공산당측에서도 곧 그뒤를 이어서 금년 1월 3일에 경성운동장에서 회합하여 신탁통치반대 시위운동을 전개하여 自黨의 기세를 보이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좌익측에 권유당한 군중들은 신탁통치에 반대하는 운동에 참가하기 위하여 반대표어의 기치를 가지고 참집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였는데 간부들의 태도가 돌변하여서 신탁통치 찬성으로 전환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의 깃발은 뿔뿔말아서 집어넣고 찬성의 깃발을 들고 시위행렬을 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일반대중의 앞에 그 신용을 추락하게 되어서 독립을 참으로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깊은 인상을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후에 신탁통치 반대운동은 일대국민운동을 전개하게 되어서 각지에 國民會의 발생을 보게 되고 북에서도 曹晚植씨가 그 문제로 최후까지 반항하여서 유폐의 몸이 되고 만 것입니다.

2월 14일 民主議院 發會式때에 李承晚박사는 특별히 이 문제에 언급하여서 '하지장군이아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장병은 모두 이 信託問題에 반대하고 있는 것을 안다!'고 하였습니다.

3월 20일에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리었는데 소련대표 스티코프 중장은 개회벽두에 이 문제를 끌어내어 '신탁통치에 찬성하는 정당이나 단체가 아니면 임시정부 수립에 참가시키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문제로 인하여 미소회의는 결렬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5월 8일에 결렬될 때에 미국측은 한국인의 언론자유를 제한할 수 없으니 信託統治에 반대한다고 하여서 임시정부 수립에서 제외할 수는 도저히 없다고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였는데 10월 7일에 左右合作의 七原則에 발표되어 그 제1조와 2조가 문제가 되어서 신탁통치문제에 대하여서 불분명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좌우합작위원회의 金奎植박사와 呂運亨씨가 10월 16일에 성명을 발하여 미소공동위원회의 속개를 요구하였나이다. 소련측에서는 금월 20일 막부방송에 있어서도 신탁통치에 대한 태도를 고집하고 있나이다. 그동안에 李承晚박사는 미소공동위원회는 믿을 수 없다고 하시고 미국 뉴욕에 가서서 국제연합을 상대로 하고 운동을 전개하셨습니다. 나는 금월 22일 동아일보 지상에 金奎植박사께 공개장을 발하여 신탁통치문제에 대한 태도를 명백히 하여 주시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 점에 관하여는 점차 명백하여질 줄 믿고 있삽나이다.

韓國民主黨측에서는 金性洙선생을 위원장으로 하고 신탁통치 반대노선에 따라서 활동하고 있삽나이다. 나는 지금 이 눈속에 망우리 묘지에 누워계신 선생을 생각하고 우리 독립문제를 생각하고 다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전진할 생각을 하고 있삽나이다.

(4) 古下 宋鎮禹先生 2周忌를 맞이하여

<동아일보> (1947.12.29)

古下先生! 선생께서 이 세상을 떠나신지 벌써 만2년이 되었습나이다. 재작년 12월 30일 早朝에 흥한들에게 遇害하신 후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가서 벌써 三喪이 다 지내게 되었습나이다. 시일이 지날수록 선생을 사모하는 생각이 간절한 것은 동인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전민족적이라고 하겠습나이다.

나는 작년 이 때에 선생의 1周忌를 당하였을 때에 선생을 추모하는 글을 썼습거니와 지금은 그 후의 경과를 대강 말씀드리려고 하옵나이다.

금년 1년간의 우리 민족적 대수확은 信託統治 撤廢라고 하겠습나이다. 재작년 12월 28일에 모스크바삼상회의 결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전하여 오지 아니 하였습니까? 그때는 아직 선생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이었나이다. 우리 삼천만동포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에 반대하였던 것이 아닙니까? 그때에 미국 국무장관 번스씨같은 이는 '한국인들이 신탁통치를 그와같이 싫어하면 시행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고 선언하였나이다.

그러나 한번 결정된 국제협정은 파기하기가 용이한 것이 아닙니다. 反託運動이 전국적으로 맹렬히 일어나서 그 파기를 주장하였지마는 美蘇共同委員會의 당국자들을 움직이기는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었나이다. 미국측 대표자들의 의견에 의하여 보더라도 三相會議결정이라는 것은 불가변의 것이라는 것이었나이다.

그런데 소련측에서는 신탁통치는 그 결정에서 결정적으로 결정된 것이지 결코 변경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나이다. 그래서 소련 수석대표 스티코프중장은 작년 3월 20일 美蘇共同委員會 벽두에 있어서 양언하기를 모스크바삼상회의 결정을 전면적으로 지지하는 정당이나 사회단체가 아니면 임시정부 수립하는 협의에 참가시키지 않겠다고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래서 信託統治支持로 포섭하였던 左翼分子들은 축연을 베풀고 정권의 독점을 축하하였던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미국측에서는 언론의 자유를 주장하여서 信託統治조항 그것 자체도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할 자유까지도 인정하자!고 주장하여서 소련과 충돌되어서 작년의 美蘇共委가 결렬되었던 것입니다.

금년의 美蘇共委도 동일한 원인으로 결렬된 것입니다. 소련측에서는 신탁통치를 반대하는 24개 정당단체를 협의대상에서 제거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금년 5월 21일 개최되었던 미소공위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信託統治문제를 가지고 싸웠던 것이외다.

그런데 信託統治를 반대하는 강력한 24개 정당단체를 제외하고 보면 남는 것은 민전산하의 남북정당단체와 그 추종군들이 있을 뿐인 고로 그렇게 되면 조선에 좌익정권이 수립될 것이 확실하여졌으므로 미국사람들도 그 齎來될 결과에 想到하고 놀라지 아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미국수석대표 브라운소장은 금년 8월 9일에 저 역사적 대성명을 발표하여 '주권을 침해할 수 있는 신탁통치를 한국인이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냐?'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브라운소장의 이 성명을 듣고 펍 기뻐하였나이다.

금년 8월 10일에 서울시내 풍문여자중학교 강당에서 '新聞記者協會'가 發會되었는데 나는 그 석상에서 연설하여 말하기를 '나는 1945년 8월 15일 정오에 일본천황의 무조건항복 선언을 들을 때에 기뻐고 오늘 신문지상에서 브라운 소장의 성명을 볼 때에 기뻐다'고 하였습니다. 이 미국수석대표 브라운 소장의 성명은 우리에게 우리 독립에 대한 현실적 희망을 준 것이었나이다. 해방이 되면 곧 독립이 되는가 하였더니 난데없는 광풍이 불어서 저 마의 38선이 생기고 소련세력에 의존하여 국토와 국민을 외국에 헌납하려고 하는 소연방 가입론자들이 생기고 추후해서 左右合作론자들이 생겨서 미소의 합작을 조선에서 실현하여 신탁통치를 延入하려고 하는 태세를 갖추려고 할 때에 우리의 독립은 영원의 꿈속에 사라지고 말려는 때도 없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금년 1월 20일에 立法議院에서 44대 1로 반탁결의안의 통과를 보고 이어서 反託鬭爭委員會의 결성을 보게 되고 하지장군의 2월 24일의 신문기자회견담이 발표되고 미국 국무장관보 힐드링중장의 3월 10의 대연설이 나오고 3월 12일의 미국대통령 트루만씨의 希.土 양국원조를 역설하는 반공산주의적 역사적 대연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였지마는 5월 21일에 미소공위가 다시

열리고 보니 소련대표 스티코프 증장은 여전히 자설을 고집하여 신탁통치를 지지하는 사람만 협의대상으로 하자는 것이었나이다.

그런데 브라운 소장의 전기 성명은 소련대표의 그 주장을 맹렬히 반격한 것으로서 유엔총회 정치위원회에서 46대 0으로 또 유엔총회에서 43대 0으로 소련측의 보이코트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 국문제가 통과된 것은 그 기초가 브라운 소장의 성명에 놓여진 것이었나이다.

古下先生! 나는 재작년 11월중에 靑雲洞 某氏宅에서 소련영사관원들을 초대하던 일이 지금 생각나나이다. 그때에는 滄浪 張澤相형도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였습니까? 오후 6시부터 오전 2시까지 가는 7, 8시간 동안에 선생은 1분간도 쉬지 않으시고 조선독립 이야기만 하시고 정치 이야기만 하셨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하였습니다. 참 입심도 좋으시고, 정열도 대단하시다고 하였습니다. 선생의 유일한 취미는 정치이었나이다. 선생은 자나깨나 정치를 생각하시고 앉으시나 누우시나 조선독립을 생각하시고 조선의 어느 일부분 문제만을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조선의 온갖 문제를 자기 책임으로 알고 생각하셨습니다. 선생께서 계셨으면 현하 우리 조선 국면을 여하히 보실는지요? 곤란한 가운데 있어서도 희망의 빛을 잃지 않으시고 터덕터덕 걸어나가실 줄 아옵나이다.

古下先生! 신탁통치 철폐를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은 광명면이올시다. 그러나 전조선문제를 총찰 하시려고 하시던 先生께는 암흑면도 또한 말씀드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古下先生! 금년 1년간의 우리 민족적, 최대 불행사는 雪山 張德秀형의 참변이외다. 雪山형이 그 풍부한 학식과 水湧山出하는 문장과 懸河의 辯으로써 韓國民主黨 政治部長의 요직에 있어서 당을 지도하고 따라서 국론을 지도하여서 국가민족의 棟樑之材가 될 터이니 그 손실이 크다고 하여서 애통하는 것 뿐만이 아닙니다. 雪山형의 참변은 우리 민족진영에 고쳐낼 수 없는 상처를 내인 통격을 주었다는 점에 있어서 나는 민족적 최대 불행사로 보는 것이외다.

서기 1947년 12월 2일 오후 7시경에 雪山형은 祭基洞 자택에서 현직경관 朴光玉이란 자에게 장총으로 저격당하여서 즉시 절명하였습니다. 12월 8일에 45愛國團體聯合葬으로 정중히 보냈습니다. 8일 오전 10시에 서울시청앞 광장에서 그 영결식이 거행되었습니다. 韓民黨副委員長 白南薰씨의 弔辭는 사람의 폐부를 찔렀습니다. 聲淚俱下하는 그 弔辭에는 만장이 숙연한 가운데 눈물을 흘린 사람들은 한민당원뿐이 아니었나이다. 나도 실큰 울었삽나이다. 식이 끝난 후에 동대문까지 도보로 행렬을 하고 거기서는 자동차로 가서 선생 누워계신 바로 뒷등척이에다가 매장하였습니다. 滿都의 士女는 숙연하게 도로 양편에 서서 고인을 보내었고 종로4정목 근처에서 어느 노부인은 나와서 합장하면서 '황천에 가서도 일 많이 하여 주십시오!'하고 목례하였습니다. 하늘도 슬퍼하심인지 때아닌 비가 내려서 사람의 마음을 더욱 산란하게 하였습니다.

'三韓從此長寂寞, 九原落落有餘哀'

이것은 滄浪 張澤相형의 雪山형을 보내는 輓章이외다.

古下先生! 雪山형의 참변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의 탑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 민족진영의 통일이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을 다시 쌓아야 하겠습니다.

雪山형의 참변, 信仰塔의 崩壞! 이것이 민족적 최대불행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수인들은 38시간만에 경찰에 의하여 체포되었습니다. 범인 朴光玉은 태극기 앞에서 사진을 백였습니다. 범인 체포후에 그 사진이 신문에 났습니다. 세인은 의아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추후에 國民會議 관계자 10여명이 그 사건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이어서 國民會議議長이고 韓國獨立黨 副委員長이고 臨政外交部長인 趙素昂씨 臨政 宣傳部長인 嚴恒燮씨의 양씨가 경찰문초중이라는 신문기사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인은 단안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事件은 좌익에서 행한 것이 아니라 우익에서 행한 것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에는 이것을 부정할 근거가 없습니다.

이래서 우리의 信仰의 탑은 무너진 것이외다.

古下先生! 놀라지 마십시오! 선생이 遇害하신 이들 뒤에 나는 韓國民主黨 2층에서 모씨에게서

‘이번 일은 임정 가까운 측에서 한 것인데 미구에 李博士도 해달 작정이라고 한다’는 말을 들었 습니다. 그러나 나는 期然, 期然, 豈其然乎 하고 모략인 줄 알았던 것이외다. 그후에 선생 가해 범인 韓賢宇의 입에서 某某氏의 이름이 나왔다고 하였으나 역시 모략으로 알았던 것이외다. 그리 하였더니 금번 雪山 사건을 보니 선생사건에 대한 의심도 새로 난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中國國民黨은 宋教人을 잃었지만 더 커졌습니다. 韓國民主黨에서는 首席總務이신 선생과 政治 部長인 雪山 張德秀형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층 더 노력하여서 당을 더 공고하게 하여 서 국가와 민족에 盡誠할 결심을 더욱 굳게하는 터입니다.

古下先生! 나는 지금까지 여러번 선생을 추모하는 글을 썼습니다. 死者를 추모하려니 자연히 어 조도 슬퍼집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선생을 추모하는 글을 쓰지 않고 우리 건설을 위해서 붓을 잡겠습니다.

(5) 大法官에게 보내는 抗議
- 宋鎮禹氏殺害犯判決에 관련하야 -

<동아일보> (1947.3.11)

서기 1947년 2월 14일 대법원에서 宋鎮禹씨 살해범에 대한 상고심 판결이 있었는데 재판장은 대법관 李相基씨였다. 제1심에서 무기징역의 선고를 받은 주범 韓賢宇 劉根培 양인에 대하여 각 각 15년과 5년(단기) 내지 10년(장기) 징역의 판결의 연도가 있었다.

나는 이 판결에 대하여 엄중히 대법관 李相基씨에게 항의하는 바이다.

사건의 판결전에 그를 논의하는 것은 재판에 간섭한다는 비난을 받겠지만 판결후에 그에 대 한 비평을 행하는 것은 吾人の 言論의 自由의 범위내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하여 둔다.

본건을 법률적 관점으로 볼 때에 대법관의 행한 판결이니 거기 대한 이유는 무엇이든지 있을 줄 안다. 그러나 그 점에 대하여서는 나는 원심에서 검사로부터 사형의 구형이 있었는데 무기징 역의 판결이 있었고 검사측으로부터 그것이 부족하다고 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여 다시 사형을 구 형하였다는 것을 지적하여 두고저 한다. 물론 상고심에서는 원심의 판결을 수정할 수 있는 것이 지마는 그들의 소위 법률론이라는 것도 그다지 확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법관이 이 판결을 정당하다고 주장하면 나는 그 반대를 주장하더라도 조리상 용허될 줄 안다.

그러나 본건을 정치적, 사회적 관점으로 볼 때에는 극악졸렬한 판결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 는 것이니 이 점에 있어서 대법관은 통절한 책임을 느끼지 아니하면 아니될 것이다.

宋鎮禹씨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존재이었던가는 만인이 공지하는 바이다. 포악한 일제시대에 獨也靑의 苦節을 지켜왔으며 8.15해방후에도 민족국가를 위하여 石傾天地를 한손으로 붙잡은 감 이 있던 위대한 존재이었다. 支柱中流, 百世淸風, 이것은 宋鎮禹씨를 두고 한 말이라고 할 것이다. 左右側을 물론하고 그 거대한 존재에 대하여는 경의를 표하지 아니하면 아니될 처지이었다. 建國 準備委員會에 대항하여 國民大會準備會를 만들고 人民共和國를 격파하기 위하여 韓國民主黨을 이 끌고 분전한 그 자취는 건국도상의 일대장관이었다. 그러므로 암살을 감행한 韓賢宇 劉根培 그 自身들도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死를 각오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와같이 흐지부지하고 말 어버린다는 것은 범인 자신들도 도리어 의외로 생각하는 바일 것이다.

일제시대에 부장판사로 있어 온실의 화초와 같이 곱게곱게 자라난 李大法官의 일인 고로 일본 의 선례를 들어서 내게 항변할 구실을 만들지도 알 수 없다. 原敬사건을 말하고 濱口사건을 말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나는 그에게 대하여 齋藤을 저격하려다가 그의 털끝 하나도 범치 못 하고 사형을 받은 姜宇奎의사가 있었다는 것을 말할 것이다. 더군다나 劉根培에게 대하여 5년(단 기)의 경형을 판정한 것은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그는 宋鎮禹씨를 호위하고 있었다는 점

으로 보아서 李大法官의 도덕적 표준이 아니고 우리네 도덕적 표준으로 한다면 가중할 필요를 인정하였으면 인정하였지 경감할 이유는 발견하지 못할 줄로 안다.

死者不可復生이라 한번 죽은 宋鎮禹씨를 다시 살려내는 수는 없겠지만 이와같은 중대한 사건을 잘 규명하여 사회를 진정시키는 것이 필요할 터인데 韓賢宇가 옥중에서 李某에게 친서를 보내서 宋某와의 관련관계를 말하고 검사측에서는 그것이 그 필적에 틀림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여 재판을 연기하여 신중 심리하기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급속처리하여 버렸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편파적 행동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니 '불유쾌하기 짝이 없다'는 것은 내 한사람만의 감상이 아닐 줄로 생각되는 바로서 이 사건에 관하여서 언제든지 다시 철저히 심리될 날이 있어야 할 것을 나는 절실히 느끼는 바이다.

최근의 소식에 의하면 북에서는 남으로 암살대를 자꾸자꾸 보내는데 '2, 3년 징역만 하면 나올 터이니 염려말고 단행하라'고 격려하여서 보낸다고 한다. 作者는 누구이고? 李相基 대법관이라고 나는 말하려고 한다. 우리 민족의 최고영도자 李承晚박사를 저격하고 치안의 최고책임자인 警務部長 趙炳玉씨, 首都警察廳長 張澤相씨에게 수류탄을 던진 범인들도 大法官은 다 흐지부지로 말아버려야 할 것이 아닌가? 彈雨下에서 친히 진두지휘를 행하여 수도의 치안을 확보함으로써 남조선 전체의 치안을 유지하게 하고 群議를 배제하고 쌀 한가마니 이하 자유반입을 허가하여 경성 시민을 기아에서 구제하여낸 것이 張澤相씨가 아니었는가. 李大法官이 배부르고 발뻎고 잠자는 것이 뉘 덕인 줄 아는가. 민족 국가를 해독하는 이러한 판결을 감행한 李大法官 자신은 井蛙의 見이 아니고 大鵬의 見이며 雕虫의 小技가 아니고 猛虎의 大技라고 자부할는지 알 수 없지만 수양을 더하여 대법전서만 떠들어 보지 말고 世間을 더 잘 알 필요가 있다. 나도 법률에 과히 무식하지 않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하여 대법관들도 잘 아는 일본의 형법학자 牧野씨에게서 들은 말 하나를 여기 附記하려고 한다. Weltfremdheit(世間忘却性)? 이것은 독일의 법학자들이 세간의 실정을 모르고 법률의 관념적 유희만 하고 있는 것을 조소한 말이었다. 나는 지금 이 말을 李大法官과 그 동료들에게 보낸다.

듣건데 李大法官은 근일중에 미국 시찰의 장도에 오른다 하니 견식을 넓혀 가지고 와서 우리 실정을 잘 아는 법률가가 되지 아니하면 아니되리라는 것을 一語하여 둔다.

(6) 古下 宋鎮禹先生을 追慕함
- 日帝必亡論과 東亞日報때의 이야기 -

<新太陽> (1957년 12월)

大策無策의 古下

古下 宋鎮禹씨는 전남 담양출신 庚寅生으로 仁村 金性洙씨보다 한살 위이다. 仁村과 함께 동경 유학을 하여 明治大學 法科를 졸업하고 病軀로 귀국하여 오랫동안 養病타가 완치된 후에 中央中學의 교장으로 靑年의 訓育에 종사하였고 제1차대전의 말기에 이르러 미국대통령 윌슨씨가 제창한 民族自決主義가 세계약소민족을 진흥케 하자 선생은 동지들과 相謀하여 3.1운동을 계획준비하였고 그 관계로 입국하였다가 1921년에 출옥하여 東亞日報社에 입사하여 文化向上 民族啓發에 헌신적 노력을 하고 해방후에는 國民大會準備會를 조직하고 이어 韓國民主黨에 가입하여 首席總務로서 활약하다가 1945년 12월 30일 오전 6시 15분 서울 苑洞에서 흥한들에게 피살 서거하셨다.

내가 古下선생으로부터 들은 말중에 가장 인상깊게 남아있는 말은 '大策無策'이란 말이다.

8.15해방 후인지 전인지 분명히 기억되지 않으나 어느때 타처에서 만찬을 같이하고 원동택으로

가는 도중에 창덕궁경찰서를 조금 지나 宮牆을 지나갈 때에 古下는 나를 부르면서 ‘朗山, 大策은 無策이요, 아시지요?’ 하였다.

나는 의미를 즉시 파악하였다. 그래서 나는 대답하기를 ‘네 - 알았습니다’고 하였다. 큰 방침을 한번 정하면 부동하여야 한다는 의미이고 또 큰 방침은 명백한 것으로서 그리 쉽게 변경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大策無策이란 말은 그 의미를 음미하면 참으로 맛이 있는 말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래서 전번에 어떤 친구가 국무총리가 된다고에 나는 이 말을 적어보낸 일이 있었다. 古下는 항일운동에 있어서나 반공투쟁에 있어서도 大策無策의 구호를 實踐躬行하였던 것이다.

그러면 古下의 입장과 태도를 이 한 말로 표시할 수 있을까?

나는 ‘大策無策’은 그 전략이고 그것을 실행하는 전술에 있어서는 임기응변의 책략을 구비하였다고 본다. 그래서 그 전술적 입장은 ‘臨事而懼 好謀而成’ 이 여덟자로 표시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혹은 古下의 성질이 호방함을 보고 謀事に 疎漏한 점이 있을 줄로 생각할는지 알 수 없지만 씨는 펍 치밀하고 물샷틈 없는 계획을 세우고 소관 매사에 부지런하기 짝이 없다. 씨가 일생의 힘을 경주한 것은 東亞日報 경영인데 3.1운동 후에 일어났던 수많은 주식회사가 거의다 쇠퇴하였지만 그 어려운 압박하에서도 동아일보사는 사업적으로 성공하였던 것이다.

물론 金性洙씨의 절대적인 후원이 중대한 요소가 되었던 것이지만 古下의 탁월한 식견과 경영 능력이 신문의 발전에 중대한 공헌을 하였던 것도 부인 못할 사실이다.

나는 1925년에 독일유학으로부터 고국에 돌아와서 처음에는 朝鮮日報社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 해인가 동아일보사로 옮겨갔다. 여기서 古下의 신문사 경영에 관한 활동태도를 보고 놀랬었다. 편집국으로 영업국으로 아랫층으로 윗층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빈틈없이 활동한다. 동아일보는 광고까지 한자 빼지 않고 정독한다. 또 博覽強記에는 누구든지 놀라지 아니할 수 없게 하고 세계정세에 통달하며 인정의 기미를 잘 살피 편집에나 영업에 관하여 항상 적절한 지시를 내려준다.

1926년 3월 1일의 3.1운동기념일을 당하여 모스크바 국제농민조합에서는 조선내의 각신문에 축사를 보내왔는데 다른 신문사에서는 조선총독부의 검열관계를 고려하여 어떤 부분은 삭제하고 발표하였는데 동아일보만 그대로 게재하게 되었다. 이 관계로 東亞日報 관계자들이 체형을 받게 되어 古下는 영어의 몸이 되게 되었다. 총독부측에서는 직접책임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선생은 기어이 명의상의 책임을 자진 부담하여 체형을 받았던 것이다.

受難의 2大事件

1936년 8월에 백림 올림픽대회에의 孫基禎선수의 마라톤 우승에 관련하여 일장기 말살사건이 동아일보에 발생되어 신문은 11개월간의 발행정지처분을 당하게 되었지만 古下는 총독부의 요구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동지 白寬洙씨를 사장으로 하는 조건으로 신문의 발행을 다시 계속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후 소위 日支事件이 일어나서, 일본제국주의의 최후발악은 동아일보의 존립을 불가능하게 함으로 발행금지를 승인하지 아니치 못하게 되었던 것이다. 古下는 20년 동안 東亞日報社를 육성하여왔다. 파란곡절은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지킬 것은 지켜서 민족의 체면을 유지하면서 民族의 表現機關으로 시종하여 온 공적은 古下의 불면불휴의 노력이 많이 관여한 바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나는 1928년의 東亞日報 편집국장 시대에 3차조선공산당사건 즉 세칭 ML당사건에 관련되어 7년간 서대문형무소에 있다가 1934년 7월에 나와서 다시 동아일보에 관계하게 되어 그 2년후에 孫基禎선수 일장기 말살사건 때에 이르렀다. 내가 재옥중의 동아일보사건으로 두가지 사건을 들

수 있다.

하나는 李忠武公遺蹟保存會事件이다. 또 하나는 萬寶山事件이다.

李忠武公遺蹟保存會事件은 1932년 5월 29일부 동아일보 지상에 상세히 보도되었다. 임진왜란에 상실할뻔한 3천리 강토를 건져낸 忠武公 李舜臣의 업적을 찬양하자는 것으로서 민족의 '얼'을 찾아내자는 것이었다.

이 사업의 추진에는 동아일보가 특별히 기여한 바 크거니와 古下의 노력이 막대하였던 것이다.

萬寶山事件은 만주 만보산에서 우리 한국인 농부와 중국사람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서 우리 동포가 박해를 당한 까닭에 조선내에서 군중운동이 일어나서 다수의 중국사람을 살해함으로써 야기된 사건이다.

그 당시에 朝鮮日報에서는 이 사건을 호외로 보도하고 대대적으로 선동선전하였다.

그리하여 全北參禮에서 호떡장수 중국인 1명을 살해함으로써 점차 조선각지에 파급하게 되었다. 그때에 평양에서만 중국인 2백여명이 살해되는 대불양사가 야기되었던 것이다.

이때에 古下는 동아일보에 침묵을 지키도록 명령하였다. 흥분된 군중들은 동아일보가 중국인에게 매수되었다고 비난하고 투석까지 하여 동아일보의 유리창을 깨뜨리기까지 하였다.

당시 부산 동아일보지국장 강씨는 서울로 장거리 전화를 걸어서 古下에게 힐문하고 침묵을 지키는 데 대하여 엄중히 항변하였다. 그랬더니 그저 덮어놓고 서울로 올라오라고 하였다. 그래서 강씨는 서울로 와서 古下를 만났더니 사리를 순순히 설명하여 줌으로 납득하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古下는 이 萬寶山 사건에 관하여 며칠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중국인을 박해하는 군중을 暴徒亂民이라고 지칭하여 양민족간의 고유의 친선관계를 지적하고 무모한 만행을 즉시 정지할 것을 요청하고 1면으로는 중국영사관을 방문하여 박해당한 중국인들을 위문하고 구호기관을 조직하여 이재민의 구호에 착수하게 하였다. 그리고 齊藤총독이 다시 조선에 내도함에 古下는 그에게 엄중담판하여 중국인 박해운동을 즉각 정지케 하였다.

내가 감옥에서 나온 후에 古下는 당시의 일을 회고하면서 내게 말씀하기를

“그때에 조선사람들이 감히 일본사람 상점의 유리창 하나를 부수지 못하는 때가 아니겠오? 그런데 조선사람들이 다수의 중국사람을 살해하여도 일본경찰이 간섭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오? 이런 사리를 판단하지 못하고 움직인다는 것은 참 딱한 일이 아니겠소? 뒤에 들은 바이지만 일본군부에서는 이 운동을 일으켜서 韓中 양민족간에 충돌을 조장하여 한인을 보호한다는 명목아래 만주에 출병하려고 한 것이었다고 하오!”

라고 하였다.

나는 얼마전에도 현 平安北道知事 白永燁씨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다.

“萬寶山事件때에 내가 山東省에 있었는데 그때에 중국인들이 펍 흥분하여 우리 한인들에게 보복적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기색도 보였다. 그러나 東亞日報 사설을 번역하여 그들에게 갖다 주고 중국사람들을 진정시킨 일이 있었다”고 하였다.

그래서 중국 蔣介石 총통도 古下에게 대하여 펍 고맙게 생각하였다고 한다.

민족적 과오가 무한히 확대될 것을 古下 宋鎮禹씨가 방지하였다고 대서특필 할 만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것은 春秋筆法으로 보아서도 타당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바이다.

나는 전술한 바와 같이 1936년 8월 손기정 선수 일장기말살사건에 관련하여 동아일보사를 그만두고 경원선 쏘골역에 가서 海東興業農場을 관리하게 되었다.

日本必亡論

1937년부터 1945년 解放되는 해까지 나는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

9년간의 긴 세월이었던 것이다. 그때에 한정거장을 철원쪽으로 가면 연천에 어떤 동무가 있고 서울서 떠나서 경원선쪽으로 한 정거장을 오면 倉洞에는 古下의 養嗣子 宋英洙군이 있고 또 街人 金炳魯씨가 있었다. 나는 9년간 雋谷에서 連川으로 서울로 倉洞으로 개미 체바퀴 돌 듯이 내왕하고 있었다. 古下도 내왕의 범위가 대개 그와같이 한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雋谷은 참 山明水麗한 곳이다. 내가 관리하던 농장은 면적이 약 60만평 되는데 양수기를 놓아서 금강산 전기를 끌어다가 임진강의 지류인 한탄강의 지류 장진천에서 양수하여 개간하는 논이다. 보성전문학교에 귀속되게 되어 있었던 것인고로 학교 관계자들이 관리하는 것이고 지배인격으로 농장에 주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전국에 있던 9년 동안에 가장 많이 만난 분은 古下와 仁村 두분이었다.

古下는 전국으로 오시기를 좋아하시고 나도 서울 오면 古下댁에 유숙하는 것이 통례이었다. 그 동안에 소위 日支사변을 거쳐 소위 大東亞戰爭이 벌어져 미.일간의 충돌이 일어나고 전국은 결말을 지었던 것이다.

南陽草堂에 누워서 諸葛孔明은 '草堂春睡足 窓外日遲遲 大夢誰先覺 平生自我知'라고 읊었다.

내가 京城高等普通學校를 졸업하던 20세 되던 해라고 생각되는데 그때에 내 평생을 점쳐본 일이 있다. 거기서 「大鵬時斂翮, 山谷養眞性, 一日因風起, 飛搏九萬程'이라는 시구를 얻었다. 그래서 전국에 와 있을 때에는 그것이 그리 될 운명이라고 생각하였고 서대문 감옥에 7년동안 있을 때는 거기가 역시 산곡인 고로 그리 될 운명이었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나는 이 전국에와 있는 것을 만족히 생각하고 여기서 眞性を 길러서 후일의 대비약을 준비한다고 자부하였던 것이다. 古下는 나와 世事를 의론할 때마다 입버릇처럼 철저한 분은 없었을 것이다. 古下의 日本必亡論은 감정에 서만 유래된 것은 아니었다.

민족적인 큰 감정이 발동되는 때에 모든 것은 그에 호응하려고 할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古下의 논리는 그 투철한 세계정세관에서 유래한 것이고 또 심오한 역사철학적 배경을 가졌던 것이다.

古下는 말씀하기를

“한일합병 당시에 어느 일본명사가 영국 런던에 있었는데 런던 대학 정치학 교수인 한 헝가리인을 만났었다. 그랬더니 그 교수는 말하기를 한국민족이 너의 일본민족보다 더 문화적으로 진보된 민족이라는데 그를 일본이 합병한 것은 큰 과오를 범한 것이다. 문화민족인 한국민족은 전력을 다하여 국권회복운동을 전개할 터이니 백방으로 일본에 반항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일본은 조선을 확보하기 위하여 만주에 손을 대야 할 것이니 그러자면 노서아와 충돌해야 할 것이고 만주를 확보하려고 하면 北支에 손을 대야 할 것이니 그러자면 미국과 충돌하게 될 것이다. 일본이 한국을 합병한 그 보복을 30년 후에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고 한다.

이와같이 생각하여 古下는 진주만이 습격당하고 영국 동양함대가 전멸당할 때에도 조금도 日本의 敗亡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럴수록 日本必亡의 이유를 발견하기에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였다.

그 신념이 이러한 고로 동포들이 혹 만주에서 혹은 중국에 가서 무슨 사업이나 경영하려고 하면 어디까지든지 반대하는 것이었고 조금이라도 일본사람과의 타협은 용허하지 아니하였다. 동아일보를 경영하는 동안에 일본사람과의 상종도 없지 않았지만 정세가 발전되어 갈수록 일본인과의 관계를 기피하였던 것이다. 이런 면에서 古下는 한국의 다른 소위 명사들과 판이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다. 때문에 조선총독부에서 백방으로 古下를 끌어내려고 하였어도 일체 불응하였던 것이다.

내가 기억하는 바로서는 古下는 단 한번 방송국에 가서 방송을 행한 일이 있었는데 '부지런히 일하여 저축을 하라!'는 말뿐이었던 것이다.

나는 숲속에서 각색 화초를 심기에 노력하였다. 더군다나 제2양수장에 심은 '코스모스'는 참으로 훌륭한 것이었다.

우리 집에 심은 쑤세미는 천하일품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다알리아며 백일홍 장미화 등은 참 화려한 것이다.

가을의 흥업은 금수강산의 이름에 부끄럽지 아니하였다. 물은 맑고 달은 밝고 대기는 청신하였다. 이런 중에 古下는 전국에 와서 세상사를 의론하기를 즐거워하였다. 전국이 가열하여짐에 일본 사람들은 한국사람의 物力 외에 人力을 적극적으로 동원하기로 하여 徵用, 徵兵에 별별 수단을 다 강구하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조선사람들을 달래는 체도 하였다. 그리하여 京城日報등 총독부 기관지에서는 학병권유강연을 시키기 위하여 명사를 시골에서 동원시켜 마치 남양초당에서 諸葛孔明이나 모셔오는 듯이 대서특서하고 사진을 게재하여 송양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면 그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것은 해방 1년전의 일이었다.

어떤 친구가 古下를 그 원동택으로 방문하고 악수하며 활동하기를 권하는 말끝에

“우리 청년들이 학병으로 나가서 죽은 그 피의 값을 받자!”고 하였다. 그러나 古下는 그에 응하지 아니하고 그 친구도 나서지 말라고 만류하였던 것이다. 그랬더니 그는 말하기를

“古下는 참으로 로맨틱(虛浪)하오.李박사가 미국 군함이나 타고 인천항에나 들어올 줄 아오?” 하였다. 그랬더니 古下는 변색하여 대답하여 말하기를

“피는 다른 사람이 흘리고 값은 네가 받는단 말이나?” 하였다.

그날부터 古下는 이불을 펴고 드러누워서 문밖에 나오지 않고 해방되기까지 1년 동안이나 계속 하였었다.

古下의 信念

1945년 8월 9일 소련군의 참전으로 고전을 거듭해오던 일본의 침략전은 결정적인 단계에 이르렀다. 이 기미를 짐작한 나는 신변의 위험을 고려한 끝에 시골보다 서울에서 피신함이 상책이라는 생각에서 이튿날 아침 서울로 올라왔다. 그리하여 며칠동안 이곳저곳으로 은신하였다. 13일에야 古下 덕을 찾았다. 古下는 그동안 4차례나 총독부측에서 자기에겐 뒷일을 담당하라는 교섭이 있었으나 불응하였다고 말하면서 경기도 岡경찰부장이 나를 만나자고 한다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古下는 일본사람의 손에서 정권을 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끝까지 거절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 이튿날 나도 生田 경기도지사를 만나서 장시간 담화하였지만 나역시 宋씨와 동일한 의견이라고 대답하였다.

바로 그때였다. 鄭柏군은 나에게 여운형 宋鎭禹 양씨의 합작을 알선해 달라는 것이었다. 古下는 그것을 거절하였다. 나는 14일밤에 내일 정오에 日本天皇의 중대방송이 있다는 말을 듣고 또 다음날 아침 7시반에 呂씨가 遠藤정무총감을 면회하러 갔다는 말을 들었다. 나는 그것이 정권이양에 관한 교섭인줄 알았다. 나는 古下덕에서 조반을 먹고 아침 10시경에 계동 張日換군택에 있는 鄭栢군에게 古下의 呂 宋 합작에 관한 거절 회답을 전하러 가는 길에 창덕궁경찰서 앞에서 남쪽으로부터 혼자 탈래탈래 올라오는 呂運亨씨를 만났다.

나는 대변에 遠藤 정무총감을 만나고 오는 길인 것을 알아챘다. 呂씨는 평소의 활발한 태도로 내게 악수하고 나서

“古下는 나오오?” 하기에 나는

“안나옵니다”하고 대답하였다. 그는 또 내게 물기를

“그럼 동무는 어떻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기에 나는

“나도 못나가겠습니다”하고 대답하였다. 그랬더니 그는 흥분한 어조로 말하기를

“그럼 나혼자 나서겠소. 공산혁명으로 일로매진하겠소!”

라고 하였다. 나는 그 뒤에 다시 뭍씨를 보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뭍씨는 결국 모스크바로 가는 길을 걸어가고 古下 宋鎮禹씨는 한양으로 오는 길을 걸어서 민주주의의 민족독립국가를 건설하기에 일로매진하였던 것이다.

나는 그 길로 鄭栢군에게 가서 古下의 거절의 회답을 하였다. 鄭군은 재고를 요구하면서 적어도 나만이라도 그들과 행동을 같이 하여주기를 요망하였다.

오후 2시경에 鄭군은 古下택에 있는 나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그리하여 말하기를

“아까 뭍씨를 만나서 확실히 이야기했다니 다시 송씨의 의향은 물어볼 필요도 없소. 다만 동무의 태도를 묻겠소. 소련군이 곧 경성으로 들어오고 우리가 곧 내각을 조직하겠소. 동무가 후회하지 않겠소?”

한다. 그래서 나는 “후회하지 않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古下는 미군이 9월 7일에 서울에 도착한다는 소식을 듣고 동지를 규합하여 國民大會準備會를 결성하였다. 在重慶 大韓民國臨時政府를 절대지지할 것과 미군정에 협조할 것의 두 슬로건을 내걸었다. 9월 16일에는 韓國民主黨이 결성되었는데 古下는 그당시 首席總務로 취임하셔서 民主建國으로 일로매진하다가 12월 30일에 흥한의 탄환에 쏘여지고 만 것이다.

해방후의 일에 관하여는 수차 발표한 바 있는고로 생략하려고 한다.

元漢慶박사는 古下의 영결식장에 와서 추모사를 하였는데 미국사람들이 링컨 대통령을 사모하듯이 한국사람들이 宋鎮禹선생을 ‘날이 갈수록 더욱 생각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나도 그와같이 생각하고 또 그와같이 하고 있다.

32. 古下와 秋汀

<秋汀 任鳳淳先生 小傳> (1969)

中央學校 시절

중앙학교는 외국 선교사나 국내 종교단체에서 경영하는 딴 학교와는 성격이 달랐다.

우선 순수한 민족재단으로서 개인의 사재를 희사해서 이루어진 점이 활기와 긍지를 주었다. 딴 학교처럼 까다로운 의식(儀式)으로 구속하지 않았으며 그 학풍이 민족의식에 충실했다. 더욱이 동경 유학시절 때 규합해온 항일투사의 그룹들이 팀웍을 짠 민족운동의 산실이며 본거지였다. 학생들이 이 학교를 선택한 동기가 강한 민족의식에서였지만 학교에 들어와서 더욱 굳어지는 풍토였다.

젊은 교장 고하 선생은 숙직실에 기거하면서 낮에는 강의와 교무에 분골쇄신의 정열을 쏟았고 시간이 파하면 일일이 학생집을 직접 방문해서 학생 단합의 조직에 나섰었다. 고하 선생의 사제 제일주의(師弟第一主義)와 민족일가주의(民族一家主義)가 바로 그 방법에 실효를 거두었다. 스승과 제자 사이의 간격이 좁혀지고 뜨겁게 밀착되면서 완전히 민족운동의 전위대로서 정수부대를 편성해 갔다. 여기서 추정과 고하 선생과의 깊은 관계를 상상하기에 어렵지 않다. 추정은 진작 이런 면에 예비지식이 충분한 학생이다. 그는 배영, 봉명에서 잔뼈가 굵은 학생이다. 조종대 선생이 어쩌다 상경하면 어김없이 추정을 찾아주곤 하는 사이였다. 두 사람 사이는 사제간이라기보다 연령을 초월한 우정이었다. 조종대 선생이 오셨다는 기별을 받으면 추정이 달려가기도 했다. 애국자의 마음에 당기던 추정의 인품이니 고하, 인촌 두 스승에게 바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다. 추정은

이곳 동창으로 좋은 선후배의 친구를 사귀게 되었다. 세속적인 친우(親友)가 아니라 뜻을 같이 한 지기지우(知己之友)를 얻었다.

일년 윗반에 이희승(李熙昇)씨가 있었고 일년 아랫반에 유홍(柳鴻)씨가 있었다. 인촌, 고하 두 선생과 함께 신명을 걸고 민족전선의 전우가 될 수 있듯이 이분들과도 굳게 서약할 수 있는 맹우였다. 추정은 거기다 스포츠맨이었다. 정구로 학우들의 인기를 모았다. 그는 검소한 복장에 성실했고 신념에 일관한 사나이였다. 배영과 봉명정신에 단련을 받아 중앙정신에도 투철한 학생이었고 대륙성 기질로 작은 일에 가볍게 움직이지 않았으며 큰 일로 묵직하게 행동하는 스케일이 큰 미장부였다. 그는 언제나 걸음을 느릿느릿 걸었다. 그의 슬로모션한 성격이 걸음걸이에서 여전히 나타나 보였다.(中略)

추정은 중학생 모자를 쓰고 다니면서도 장차의 웅지(雄志)를 구상하기에 바빴다. 더구나 고하 선생이 교장의 신분으로 삼백여명의 학생들을 일일이 하숙이나 가정방문하는 숨겨진 의도를 진작 눈치채고 있었다. 그것은 조직이요 결사(結社)라고 판단했다.

훈육을 명목으로 사상적인 결속과 인간적인 유대를 의리(義理)의 밭줄로 묶어가는 동지규합의 공작이었다. 고하 선생과 추정은 사적으로 마주 앉으면 이심전심(以心傳心)으로 무엇인가 기맥이 통한듯 했다.

1918년 겨울.

중앙학교를 거점으로 무엇인가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바빠 돌아가고 있었다. 미국 윌슨대통령이 주장한 민족자결주의(民族自決主義)는 이 나라에 한가닥 희망을 주었던 것이다. 불면증으로 피곤해 보인 고하 선생의 얼굴은 늘 굳어 있었다. 학생들 사이에도 단 학교와의 접촉이 빈번해지면서 하루하루 긴장과 압박감이 더해만 갔다.

추정은 어느 학생보다도 이 기미를 빨라 알아차렸다. 머리 큰 학생들 사이에는 공개된 비밀로 차츰 그 윤곽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고하 선생은 각계에 손을 뻗어 빈틈없는 조직력을 강화해 갔다. 동지 선달의 흑한에도 시내 각 학교의 학생 대표들은 연일 회합과 연락으로 추위 따위는 아랑곳이 없었다. 학생연락의 총책은 경성법률전수학교(京城法專)에 朱翼, 세브란스의전(世醫專)에 이용설(李容高), 경의전(京醫專)에 한위건(韓偉健), 경성공고(京城工高)에 이종선(李鍾宣), 그리고 중학교 대표로는 중앙에 장기욱(張基郁), 보성(普城)에 장채극(張彩極), 경신(敬新)에 강우렬(康禹烈) 등으로 되어 있었다.

이 조직을 움직이는 총참모의 주역은 뒤에 고하 선생이 맡고 있음을 아는 이는 알고 있었다.

고하 선생은 손병희(孫秉熙) 한용운(韓龍雲) 선생등 민족대표자 33인 선정과 이번 거사의 결의 촉구 상호 연락과 회합 알선 등을 면밀한 계획으로 진행해 나갔다. 중앙학교를 본부로 거사 기운(氣運)은 바야흐로 예정된 그날을 향하여 무르익어 갔다. 그리고 이때 진작 중앙학교 교사로 봉직하다 재차 동경유학을 떠난 백관수(白寬洙)씨의 밀사로 국내에 잠입한 송계백(宋繼伯)을 통하여 국내외(國內外)가 호응해서 꺾기기로 추진되어 온 것이다.

일이 급진적으로 구체화되기는 고종승하(1919년(己未) 1월 28일) 직후부터였다. 고종이 승하한 이면에는 일인(日人)들의 흉모로 필시 독살했으리란 혐의가 농후했었다.

드디어 그날은 다가왔다. 고종 국장일로 택한 독립선언의 봉화를 올린 그날 3월 1일의 정오는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추정이 중앙학교 4학년 졸업반에 있었던 약관 이십 이세의 일이다. 예정보다 두 시간이 지연된 두시 정각을 기해서 탑골공원에선 산천을 뒤흔드는 독립만세 소리와 함께 빛을 못보던 태극기로 하늘을 덮었다.

학생들은 노도와 같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호응하는 시민들과 합세해서 목이 터져라고 만세를 불렀다. 학생들은 미리 정해진 가두를 태극기를 흔들고 만세를 외치며 힘쓸었다. 한 줄기는 대한문에서 남대문으로 그리고 의주통(義州通)을 누비는가 하면 일부는 창덕궁 앞을 홍수와 같이 스쳐

가기도 했다. 또 다른 물줄기는 진고개(그 당시 本町 - 忠武路)로 쏟아져 밀렸었다. 쫓기고 채이고 총과 칼에 맞아 피흘리며 쓰러져도 만세 소리는 더욱 우렁찼다.

추정은 유홍(柳鴻)동지와 함께 진고개 쪽으로 달려가 일인 상점을 닥치는 대로 습격했다.

기마병에게 쫓기면서도 이들의 흥분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여간해서는 성낼 줄을 모르던 추정도 큰 일에 성질을 내면 맹수와 같이 무서웠다. 공분으로 피가 끓는 그는 겁이 없었다. 그렇게 느릿느릿 걸어다니던 추정이 어디서 그런 날센 동작이 나올 수 있었는가 곁에 사람이 놀랄 지경이었다. 이 엄청난 사태를 진압하기 위해 혈안이 된 일본 경찰과 헌병대는 가장 혹독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탄압했지만 군중의 흥분은 좀처럼 가라앉을 줄 몰랐다. 날로 더 파상되어가기만 했었다.

三. 一운동과 잣골파

추정은 이희승, 유홍씨와 함께 속칭 잣골파에 속해 있었다. 자하골파(紫霞洞派)라는 뜻이다. 3.1운동의 거친 파도는 방방곡곡으로 거세게 번져만 갔고 기어이 독립을 쟁취하고자 말 기세로 끈덕지게 들고 있어났다. 거리에서 만세를 부르고 함께 몰린 잣골파는 통의동(通義洞) 108번지 세도있던 이 모(李鴻默)씨의 사랑에 숨어 버렸다. 깊숙한 방에는 밤늦도록 20여명의 학생들이 수군대고 있었다.

다만 모의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태극기를 그리기에 바빴고 등사판을 놓고 독립선언문을 복사하기에 여념이 없기도 하였다. 이들은 출출하면 호떡을 사다 밤참으로 먹어가며 밤을 새기도 했다. 방은 넓어서 그다지 불편이 없었다. 이 집에는 한인(韓人) 순사가 경비원으로 있어서 오히려 경찰의 눈을 속일 유리한 조건도 있었다. 주인은 유홍씨의 대고모부가 되었다. 여기 모인 학생들을 통솔한 대표격은 이희승, 임봉순, 유홍이었다. 이 세사람은 상부에서 내린 지령을 하부로 전달하는 전령과 동원 그리고 조계사(曹溪寺)에서 찍어낸 독립신문을 비밀리에 배부하는 전위대였다. 혹시 어느 한 사람이 경찰에 발각되면 전책임을 혼자서 감당하고 조직의 전모나 계획을 사전에 누설않는다는 굳은 신조로서 활동했다. 잡히면 일체 함구하기로 각오가 서 있었다. 이들은 등사판이 없어서 인촌 선생의 계씨 김연수(金季洙)씨가 창설한지 얼마 안되는 경성직유(京城織紐)에서 훔쳐다 복사의 임무를 다했었다. 이 등사판을 이희승이 훔쳐온 것이다. 또 추정도 고향 회천면사무소에서 가져온 일도 있다.

그러나 이 잣골파의 숨은 투쟁처도 그다지 오래 가지는 못했다. 하도 많은 학생들이 출입을 하니까 혈안이 되어 수색에 나섰던 일본 경찰의 눈을 언제까지 피할 곳은 아니었다. 어느 날은 추정이 밖에 나갔다가 대문밖에서 용변을 보다가 힐끔 안을 보니 형사들이 와서 조사를 하고 있었다. 어찌할까? 당황한 그는 재빨리 옆에 서있는 오동나무에 올라가 큰 입새 사이에 숨어서 방안 기색을 살피면서 안전하게 피신하였다. 그러나 그날 잣골파는 각자 분산하기로 결의했다. 3.1운동의 봉화를 올린지 여러 주일이 지난 후였다. 뿔뿔이 헤어진 동지들과 손을 나누고 이 집에서 나온 추정은 갈 곳이 막연하였다. 익선동(益善洞)집에 가면 당장 잡힐 몸이다. 궁리 끝에 그는 동묘(東廟)앞 전농동(典農洞) 141번지의 집을 찾았다. 그곳은 무관으로 일등 주계(主計)의 벼슬을 지냈던 임형준(任炯準)씨 덕이었다. 이분은 추정의 대부 항렬이 되는 분이다. 그래서 향관(鄕官) 할아버지 덕이라 불려온 집안이다.

추정이 들어서는 것을 보고 임형준씨 내외는 무척 반가워 하면서도 주위부터 살피기 시작했다. 추정은 이덕 뒷방에 숨어 바깥 정세를 관망했다. 이 집 노부부는 추정이 기거하는 방의 담장이 너무 얇아서 늘 그걸 걱정하는 눈치였다.

그동안 중앙학교는 고하 선생이 서대문 형무소에 투옥당한 뒤라서 그 자리를 이어 인촌선생이 교장직에 취임했었다. 추정에게는 졸업장도 간접적으로 수여되어 왔다. 이해에 졸업할 예정이던

추정이니 당연한 처사였다. 추정이 여기 숨어있는 몇 달동안 외부공기를 접하지 못하여 더운 여름날 얼굴은 파리했고 올백을 한 머리는 치렁치렁 땀아 내린만큼 길게 늘어져 있었다. 그러나 검거선봉이 심한 거리를 나설 수도 없고 감옥아닌 감옥살이를 해야만 했다.

어느날 갑갑한 마음에 친구의 하숙을 찾았더니 마침 외출하고 없었다. 책상위에 고향서 온 편지 한장을 뒤적거리고 있노라니 미행하던 형사가 들이닥쳤다.

“네가 누구냐?”

고 묻는 형사에게 태연히 조금전 편지봉투에서 본 이름과 주소를 댔다. 머리를 기웃하다가

“가자!”

하며 대문밖에 나가더니 벼락같은 큰 소리로

“이름이 뭐야!”

하는 통에 까딱 실수할 뻔 했으나 이내 정신을 바로 차리고 아까 봉투에 적힌 이름을 댔더니

“들어가!”

하고 가 버렸다.

그러던 추정이 하루는 일경에게 덜컥 붙잡히고 말았다. 이곳에 숨어 있는지 5개월은 추정에게 너무도 무덤고 지루한 나날이었다. 시일이 가자 다소 긴장도 풀렸고 흩어진 동지들의 소식도 궁금했던 그는 잠깐 밖에 나갔다가 집요하게 그를 찾아다니던 경찰에게 체포된 것이다.

서대문 형무소에 구금된 그는 혹독한 매질을 당하면서도 끝내 그 굳센 의지로 버티어 나갔다. 모진 고문을 이겨낸다는 것은 첫째 남에게 피해가 가지 않으며 자기 자신의 증벌을 면하는 결과도 되는 것이다. 아무리 얽어매어도 자신의 입으로 불지 않으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것이다. (中略)

東亞日報社를 무대로

젊은 청년중의 호프였던 추정은 무관의 제왕이 되었다.

1926년 10월이었다. 민족운동자의 규합처요 필봉으로 조국독립과 사회정의를 위해 싸우던 동아일보사(東亞日報社)에서는 그를 사회부 기자로 임명했다. 그는 집회에서 변설로 민중을 움직여 오다 이제는 붓으로써 민족전선의 투사로 가담한 것이다. 그의 초기 사상이 열렬한 사회주의인 것은 분명하나 그의 목적이 공산혁명에 있지 않고 어디까지나 민족자결독립에 투철했었다.

여기서 중앙고보 시절의 은사였던 인촌, 고하 두 선생과 재회한 것이다. 재회라는 뜻은 단순히 헤어졌던 인간관계의 결합이나 상봉이라는 말과는 다르다. 사상적인 해후요 동지적인 제후라는 뜻이다. 말하자면 정신과 육신의 완전한 재결속인 셈이다.

제자 때부터 유의해 두었던 추정을 원대한 백년지계를 세운 그분들이 놓칠 리가 만무했다.

여러가지 점으로 이 사제지간의 재회는 필연적인 귀결이었고 공적 의의가 컸었다. 지조있는 인재의 규합처인 이 기관에서 추정이 필요했겠고 추정 역시 옛 은사에다 민족지도자인 이 두분과 인연을 맺게 됐다는 것은 그의 진면목(眞面目)을 발휘하는 좋은 계기였을 것이다. 그리고 동아일보사에는 서울 청년회의 동지였던 박금(朴錦)씨가 한발 앞서 들어와 있었다.

추정이 동아일보에 입사할 당시는 인촌 선생이 사장으로 추대된 직후였고 고하선생은 남강 이승훈(南岡 李昇薰)선생과 고문으로 있으면서 주필을 겸직하고 있었다.

추정이 스물아홉되던 해다.

동아일보가 1920년 4월 1일에 창간했으니까 창간되지 6주년이 넘는 뒤였다. 추정이 입사하던 전해 7월에 현재의 위치 광화문(光化門) 139번지 신축 사옥을 착공하고 있었었다. 추정은 셋집으로 빌려쓰고 있던 화동(花洞) 138번지의 한식 구옥에서부터 기자생활의 첫 출발을 했었다.

동아일보는 세인이 주지한 사실로 인촌의 사재(私財)와 그분이 주선한 발기인으로 운영 멤버가 됐지만 인촌, 고하가 중심세력이 된 것이다. 실은 인촌과 고하는 동경 유학시절부터 계획한 사업의 하나로 손 꼽아왔고 그 시기만을 노렸던 터였었다.

주식회사를 목표로 발족한 이 신문사의 초대 사장에는 박영효(朴泳孝)씨였었다. 고하는 이무렵 3.1운동의 주동인물로 연좌되어 서대문 형무소에서 복역중이라 옥중에서 동아일보 창간을 맞이한 것이다.

동아일보 사시(社是)는

1. 조선민중의 표현기관으로 자임하노라.
2. 민주주의를 지지하노라.
3. 문화주의를 제창하노라.

이 세 가지였다.

동아일보는 처음부터 형극의 길을 걸어온 민족수난사의 동반자였다. 일본이 식민지 조선을 탄압한 발자취가 바로 동아일보 탄압의 발자취로 점철되어 왔기 까닭이다.

고하가 처음 사장이 된것은 1921년 9월 15일이다. 주식회사 사장으로는 초대였고 나이 32세 때였다.

초창기의 2년동안에 벌써 동아일보는 많은 파란을 겪어 왔었다. 사실에 일본 황실과 신기(神器)를 모독했다는 죄목으로 발간하지 1년도 못가서 무기정간을 당한 기구한 사운(社運)이었다.

고하가 초대 사장으로 취임한 후 추정이 입사할 때까지의 다사다난한 갖가지 사건도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다. 사장에서 고문으로 주필로 또 사장으로 이렇게 무수한 직위의 변천을 거친 것이다.

고하의 수난이 바로 동아일보사의 수난이었다. 고하는 공적 책임으로 제물이 되어 파란에 따라 부침하면서 동아일보를 굳건히 키워가고 있었다.

친일파 거두인 박춘금(朴春琴)이 백주에 권총을 차고 사장실에 나타나 고하를 위협했고 인촌과 고하를 다시 식도원(食道園) 요리집으로 유인해서 공갈하던 저 유명한 사건이 추정 입사 전 해에 벌어진 사건들이다. 추정은 입사 전에 벌써 이 사건을 소상하게 전해듣고 몸을 떨며 분개했었다.

추정이 입사한지 불과 한 달 후에 고하는 영어(囹圄)의 몸이 되었다. 그것은 소비에트.러시아의 국제농민 본부로부터 보내온 메세지의 전문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소위 보안법(保安法)에 걸린 것이다. 이해 3월 7일자로 정간되어 한 달 후인 4월에 속간되기는 했으나 이번에는 순종(純宗)승하로 인해서 6.10 만세사건을 책모했다는 죄목으로 고하 선생이 또 다시 심리를 받아오다 확정형의 선고를 받고 옥고를 치르게 된 것이다.

그런데도 동아일보는 계속 윤전기가 돌아갔고 추정도 사회부 민원기자로써 사회의 목탁을 간단 없이 두들겨 왔다. 추정이 입사한지 두달만인 12월 10일엔 완성된 새 사옥으로 옮기어 신문사는 더욱 활기를 띄웠다.

동아에는 쟁쟁한 베테랑급의 명사들이 자리잡고 있었다. 추정의 선배사우들로는 홍명희(洪命熹) 김준연(金俊淵) 이광수(李光洙) 주요한(朱耀翰) 박찬희(朴瓊熙) 박금(朴錦) 국기열(鞠琦烈) 현진건(玄鎭健) 양원모(梁源模) 제씨가 있었고 비슷한 해에 전후해서 입사한 동료사원으로는 이은상(李殷相) 설의식(薛義植) 이상범(李象範) 서항석(徐恒錫) 최형중(崔衡鍾) 이길용(李吉用) 등 여러분이 있어 친교를 맺었었고 홍효민(洪曉民) 함상훈(咸尙勳) 고재욱(高在旭) 이무영(李無影) 송지영(宋志英) 등 몇분은 추정보다 몇년 혹은 훨씬 후배사원으로 인재동아(人材東亞)의 기업을 토했었다. 그후 10년 후배로서 곽복산(郭福山)씨가 있었으니 추정은 우리나라 언론계에 대 선배급의 서열에 끼어 있다.

추정은 총독부 경무부 출입기자로 활약했었다. 사건 취재차 자주 일본 경찰의 수뇌진과 접촉해야 될 입장이지만 속으로는 서로 증오하고 경계하고 감시당하는 처지였다. 그것은 개인끼리의 감정보다는 한 민족과 민족 사이에 얽힌 숙명적인 감정불화였다. 서로 아니꼽고 꺼려하며 탐색하고

견제하는 묘한 직업의식과 민족감정이 겹친 상극이었다.

그런 사이면서도 인간 추정에게는 때때로 호의를 보여주던 그들이었다. 추정의 인간됨이 그만큼 남을 동화시키고 흡수해 들이는 힘이 있었던 것 같다. 딴 사의 기자로서 같이 출입했던 동료끼리 취재에 경쟁을 하면서도 인화(人和)를 도모했던 것도 그의 원만을 입증하고 있다. 그는 민완기자라고 해서 행동을 민첩하게 한 것은 아니었다. 몹시 느렸었다. 걸음걸이부터가 느릿느릿했고 성질이 누굴누굴해서 조금하게 신경질을 낸다거나 사소한 일로 성내는 법이 별로 없었다. 그러면서도 알찬 일은 소리없이 다 해치우는 성실하고 끈질긴 태도였다.

1934년 경의 일이었다고 한다. 매일신보(每日新報) 이상철(李相哲), 중앙일보 이홍직(李鴻植 - 月南 李商在先生의 直孫) 이 셋이서 경무부에 들렀으나 그날따라 별로 기사거리가 없었다. 그래서 모두들 귀사했고 이홍직씨가 남아 있었다. 추정더러 인제 그만 나가자고 권했었다. 추정은 별 대꾸도 없이 기자실에 앉아 바둑만 두고 있었다. 의례 그런 사람이거나 생각하고 이씨는 총총히 사로 돌아왔다. 그런데 이튿날 동아일보에는 독립투사 '이동휘(李東輝) 선생 체포'라는 제목으로 2단 기사가 실려있지 않은가. 딴 신문에는 전혀 볼 수가 없었던 특종(特種)이었다. 추정이 일본 관리들의 수상한 움직임에서 미리 눈치를 채었던지 아니면 평소애 원만하고 인상이 좋은 추정에게만 기밀을 제공했는지 둘 중에 하나였으리라고 한다. 타사의 동료기자들은 의례 서로의 정보를 상통해 오던 불문룰이 있어 골탕 먹은 분풀이로 뉴스 소스를 대라고 추궁도 했고 원망도 했지만 추정은 싱글싱글 웃기만 했다.

추정은 술이 무량주(無量酒)였다. 친구가 좋아 술 마시도록 분위기도 되었지만 나라 잃은 그리고 압제받는 울분들이 자연 술을 마시게 했었다.

대주호(酒豪)라는 별칭을 듣던 현진건씨와 취하도록 마시는 일이 빈번했다.

추정은 원래 대륙성 기질이라 무슨 일이고 시작만 하면 바닥을 보고야 만다. 술자리도 그렇게 항상 긴 편이었다. 두주(斗酒)를 불사하고 마시는 술이지만 절대로 주정하는 법이 없었다. 농담도 곧잘 했지만 남의 험담을 하거나 고성으로 주흥을 깨는 일이 없었다.

그는 인촌, 고하와 두분과도 곧잘 술자리를 같이 했다.

“봉순이 우리 약주 한 잔 할까”

하면서 인촌이 청해오기도 했다. 사제의 정은 담소에서 무르익었고 국가민족에 대한 근심이나 앞으로 해야 할 일에 호흡이 맞았었다. 남들이 평하기를 인촌과 추정은 외유내강한 그 성격이 많이 닮았다고들 했었다. 그러지 인촌도 추정을 인간면에서도 펍 좋아했다.

그는 한 번 인연을 맺으면 끝까지 놓지 않고 한결같이 도와주기를 좋아했다. 그러면서도 상대방의 사람됨이나 사회적 위치를 고려하면서도 은근하게 도와주었다. 여담이지만 해방 후 6.25가 발발하자 옛 후배, 동료선배들이 부산서 어려운 피난살이를 겪어야 했다. 추정인들 넉넉할 리가 없었다. 그런데도 그는 옛 친구의 어려운 살림을 힘껏 보살펴 주었다. 당시 동아일보 편집국장이던 광복산씨가 조선운수 사장실로 옛 선배인 추정을 방문했더니 깜짝 반기면서 모 기관에서 광국장을 노린다니 주의하라고 걱정해 주었었다. 동아일보는 집권당의 탄압을 받아오던 대표적인 야당지로서 그 신문의 편집책임자의 신변이 위험한 건 뻔한 일이었다. 그뿐 아니라 한우정씨나 기타 여러 옛 친구들이 어려운 피난살림이 고되어 추정을 찾아가면 청하기도 전에 도와주곤 했었다. 혹시라도 그분들의 체면이 손상될까 염려하는 마음에서 비서까지도 모르게 도와주곤 하였었다. 이런 일이 한두번으로 끝나는데 아니라 몇년을 계속해서 도와주는 그였었다. 그는 인정이 많으면서도 걸 생색을 몰랐고 진실로 옛 후배나 옛 친구 옛 선배의 곤궁을 구해주는 데 인색치 않았었다.

그가 동아에서 사회부 기자로만 내리 10년을 꾸준히 근속했었다. 그동안 그가 다룬 굵직한 사건만도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고 직접 나서서 그 사건에 관여한 일도 허다하였다. 그는 반일투쟁이라면 무슨일이고 어느 때든지 서슴없이 나섰던 것이다. 그 당시 동아일보사는 정부(政府) 아닌

민중의 정부였다. 그만큼 민족을 위해서 일했고 그만큼 민중에 미치는 영향에 공신력과 권위가 있었다. 기자생활 자체가 그대로 항일이며 민족운동이며 독립투쟁이지만 신문사 밖의 일로도 민족의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그는 용감하게 선두에 나서는 정열을 가졌었다.

그 무렵 국내에는 민족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2대조류로 나누어져 항일투쟁에 자못 혼선을 가져 오기도 했다. 당시의 국제정세는 러시아혁명의 여파로 공산주의 사상이 강한 세력으로 침투하고 있어 그것이 집단을 이루어 민족진영과 맞서는 상태가 되었다. 공산주의자의 투쟁목표는 계급혁명이었다. 그러면서도 국민에게는 항일 투쟁의 인상을 주도록 되어있다. 물론 공산주의자 집단 자체내에서도 독립투쟁의 한 방편으로 그 운동에 가담한 사람도 적지아니 있기는 했었다.

일경은 국내 공산주의자들을 속속 검거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누락된 좌익노선을 걸어온 사람들은 드디어 민족진영과 합작하는 길을 모색하여 민족대동단결의 명분 밑에 단일전선을 펴기에 이르렀다. 민족진영에서도 이를 흔연히 받아들여 뭉쳐진 단체가 신간회(新幹會)였다. 이 신간회를 실질적으로 통솔해 나가는 인물이 고하(古下) 가인 김병로(街人 金炳魯) 허헌(許憲) 등이었다. 내분이 완전 불식된 건 아니지만 표면상으로나마 국내 항일세력을 하나로 뭉쳐 민족운동의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데 공헌이 컸었다. 추정도 이 신간회의 쟁쟁한 중견으로서 일하였다. 추정이 신간회에 있으면서 또는 사회부 기자로서의 활약상은 장진강(長津江) 일대의 토지 수용령 반대 투쟁이었다. 신간회가 발족한지 몇달 후에 마침 장진강 일대의 농민들이 꺾기하여 총독부 정책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장진강 수력발전소 건립을 위해 그 일대의 농토와 가대(家垵)를 헐값으로 강매(強買)하기 시작하자 이에 불응하고 봉기한 것이다. 신간회에서는 신간회대로 농민투쟁을 돕기 위해 언론계의 대표로서 신석우(申錫雨 - 朝鮮日報)사장과 동사 주필 민세 안재홍(民世 安在鴻) 법조계등 제씨가 사태수습에 나섰으며 동아일보사는 이해 8월부터 한달 동안 전국 수리조합 답사(踏查)로 착취와 억압당한 농촌실태를 대대적으로 보도케 하였었다. 여기에 김준연(金俊淵) 서춘(徐椿) 박찬희(朴瓊熙) 국기열(鞠琦烈)등 여러분과 함께 추정의 취재 활동은 실로 눈부신 바가 있었다. 그는 기자라는 직업의식에서 보다는 한 민족운동으로서의 사명감에서 이 사건을 취재보도 하는데 힘을 기울였다고 할 수 있다.

錦湖結義

또 하나의 큰 사건으로는 1929년 1월 14일에 벌어진 원산부두 노조의 총파업일 것이다. 이 총파업이 단행되기 전해에 추정은 박금씨와 더불어 금호결의(錦湖結義)라는 비밀결사를 해둔 일이 있었다. 이 금호결의는 1928년 2월 11일(음력)에 있었던 박금씨 회갑잔치에 맺어진 것이었다. 금호라는 명칭은 박금씨 고향인(元山北港에서 더 깊숙이 들어간다) 문천(文川)의 금성(錦城)호수에서 연유된 것이라 한다. 이 금호결의는 千명으로 하되 그 지도적인 두수(頭首)급 열두명이 걸으려는 의형제를 맺고 제2차 기미운동을 일으키자는 굳은 서약을 한 것이다. 이 12인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최경식(崔境植) 김두산(金頭山) 박금(朴錦) 임봉순(任鳳淳) 차주상(車周相) 이재갑(李載甲) 김동철(金東轍) 최등만(崔等萬) 이항발(李恒發) 한기수(韓琦洙) 김대욱(金大旭) 강반(姜反) 이상이었다. 이 12총사의 총무는 박금씨가 맡고 사상지도에는 추정과 북간도에서 공산운동을 해오던 김두산이 맡기로 했으며 조직담당에 차주상이었다.

원산 부두노조의 총파업이 이 멤버의 주동으로 단행된 것은 야마나시(山梨) 총독이 새로 부임한 다음 해가 되고 금호결의를 한 다음 해가 된다.

총파업의 슬로건은 일제(日製) 상품을 일체 보이코트하자는 내용이었다. 일본 제국주의는 조선의 주권을 강탈한 후 경제적 잠식(蠶蝕)을 강행하는 악랄하고 교활한 수법을 써오고 있어 이를 결사적으로 저지하려는 투쟁이었다.

독립의 3대요소인 정치 경제 문화의 세 부분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일본제국주의의 흥계를 분쇄하는 운동이었다. 일본 화물선이 산더미처럼 신고 들어오는 물품을 몰아내기 위해서 '일본물품 쓰지 말자!' 라는 구호를 외치며 장장 백일에 걸친 이 투쟁에 동원된 인원은 연 1만 5천명이었다.

元山埠頭 勞組의 罷業

원산부두 노조에서 전단을 끊자 문평(文平) 라이징구 석유회사 종업원 5천명도 즉시 호응했고 노조와 같이 번져가는 파업의 물결은 부산 군산 청진 진남포의 각 주요항구의 부두노조를 휩쓸었다. 이에 당황한 경찰은 총칼로 억눌렀으며 검거 투옥 선봉이 회오리바람을 일으켰다. 일본 아사히(朝日)신문사에서도 마쓰다히라(松平)라는 특파원을 급파시켜 진상을 보도케 했으나 그자도 노동자의 주장에 동정적인 기사로써 칭찬까지 표시했다. 날품을 팔던 노동자의 생활에 석달열흘을 임금을 못받고 싸웠으니 아무리 투쟁이 강하든 당장 생활의 궁핍을 견디기 어려웠다. 이 딱한 정상을 구원하기 위해 인촌 고하 두분이 숙의 끝에 만주 좁쌀을 사들여 후원하였으며 법조계에서는 김병로 김용무(金用茂) 김태영(金泰榮) 제씨가 달려가 법정투쟁으로 구금된 노동자 석방에 필사적인 활동을 했었다. 이 파업이야말로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거사였다. 그 규모에 있어 세계적인 파업에 비등할 만큼 대대적인 것이었다. 이것을 전기 금호결의 12용사가 주동자적 역할을 해왔었다. 그 당시 원산 특파원으로 가 있던 박금씨는 추정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며 노조투쟁에 적극적인 참획을 해 왔다. 생명을 걸고 싸운 이 노조투쟁은 공산주의 수법을 빌린 일대 민족항쟁이었다. 비록 정치적으로는 실운(失運)을 했지만 우리나라를 일제 상품의 시장화를 꾀하는 식민지 정책을 물리쳐 자립경제의 기틀을 확고히 지키려는 레지스탕스 운동이었다. 여기에 그 당시 정세로는 우파 좌파가 없었다. 일제히 총 공세로 결속했던 것이다. 이 원산 부두노조 총파업이 일어나기 전에도 추정은 많은 일을 했었다. 1928년 4월은 동아일보사의 8주년 푼맞이었다. 이때 동아일보사에서는 8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서 전국적인 문맹퇴치(文盲退治)운동을 전개키로 했었다. 이 운동의 기안(起案)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이가 추정이었다.

추정은 브.나로도(Vnarod) 운동으로 조선의 무지몽매를 퇴치하자고 주장했다. 민중 속에 파고 들어가 우매한 농촌의 눈을 뜨게 하자는 운동이었다.

그러나 총독부의 불허로 사고(社告)로 까지 공개한 이 사업은 좌절되고 만 것이다. 이 운동을 크게 해보려던 고하의 실망도 컸겠지만 추정의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비범한 민족지도자인 고하의 넓은 도량과 용기의 뒷받침을 얻어 모처럼 계획한 사업이 강압은 당했으나 항상 옛 스승이자 동지였던 고하의 좋은 참모요 조언자로 일해 왔었다.

이 운동이 비록 중단은 되었지만 추정에게는 이 해가 인생 일대의 경사가 있던 해이기도 했다. 즉 이 해 4월 초8일(음력)은 그가 설흔돌이라는 노총각의 생활을 청산하고 동지요 실천 여학교 교원으로 있던 황신덕(黃信德)씨와의 결혼날이었다. 황여사의 고향은 이북이기 때문에 남남북녀(南男北女)의 부러운 표본이라고 주위의 선망을 모았었다.

그날 동아일보 회의실에서는 고하선생의 주례로 조출한 혼례식이 있었다. 신랑은 모시 두루막을 입고 신부는 시간이 임박해서야 최은희씨가 빌려온 면사포를 억지로 쓰고 식이 거행되었었다. 힘에 겨운 허례를 싫어했던 두 부부는 지극히 간략하게 식을 마쳤다. 번거로운 피로연도 피했다. 그러나 당일 주례를 맡은 고하선생을 비롯한 몇분에게는 결례해서 안되겠다 싶어 대접한 비용이 50원 정도이었는데 그것마저도 요릿집에 외상으로 달아두었다고 한다. 군색한 신접살림이라 월급으로 갚아 나갈 길이 없어 몇달후 인촌 선생에게 두 내외가 함께 사정을 했더니 껄껄 웃으며 내어주었다는 일화가 있다.

추정이 결혼한 다음해인 1929년 11월에는 저 유명한 광주학생사건이 발생하여 또 한번 그의

피를 들끓게 하였다.

8주년 기념사업으로 문맹퇴치운동은 중단된지 4년만에 다시 재연되기 시작했다. 2천만 동포 가운데 8할을 점하는 1천 3백만 문맹자를 상대로 전개될 이 운동이야말로 먼 안목으로 볼 때 크나큰 의의가 있는 사업이었다. 일본 총독 야미니시가 갈렸고 그의 후임 사이또오(齊藤實)가 또한 갈리고 우가끼(宇垣)가 부임하자 약간 해이된 무단정치의 틈을 타서 들고나선 것이다. 그것이 1931년 7월이었다. 젊은 남녀학생들은 너도나도 이 운동에 가담하여 농촌을 가는 대열에 끼기를 자원했다. 이무렵 각 농촌에 야학당(夜學)이 세워지고 어두운 등잔 밑에서 '가가거겨'를 밤늦도록 배우게 하며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면.....' 하는 창가를 소리높이 부르게 한 것도 다 브.나로드운동의 덕택이었다.

이 운동을 제일 먼저 동아일보사에서 서둘렀고 이 운동을 주창한 중요한 인물이 추정되었건만 1929년에 조선일보사에 기선(機先)을 빼앗겼던 것도 사실이었다. 먼저 착안하고 뒤늦게 실천하게 된 것은 동아일보사의 대내적인 사정이라 어쩔 수 없었다. 그러나 일단 서막을 올리자 그 기세는 대단하였다.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농촌계몽을 자원해 가는 학생들의 대열은 그야말로 장사진을 이룰 형편이었다. 이 운동은 남녀 중학생과 전문학생을 분대 별로 편성해서 방방곡곡의 몽매한 농촌을 순회케 하였다.

1931년 기치를 올렸던 이 브.나로드운동도 4년만에 닳을 내리게 됨에 추정은 허전한 마음을 금치 못했다.

여기에 특기해 둘 또 하나의 엄청난 사건이 있으니 만보산(萬寶山) 사건이다.

1931년 7월 브.나로드운동과 겹치기로 겪어낸 사건이었다.

조선을 유린한 일본은 차츰 그 야욕이 커져서 이번에는 만주(滿洲) 대륙으로 마수를 뻗었다. 만주침략의 서막으로 이들은 끔찍하게도 만보산 사건을 유발한 것이다.

이 사건의 발단은 이해 7월 3일 길림성(吉林省) 장춘현(長春縣) 만보산 삼성보(三城堡)에서 수전(水田)을 개간하던 한국인과 중국인간에 사소한 충돌을 일으킨 것에서 비롯되었다. 이것을 과장 선전해서 중국인은 한국인을 집단적으로 습격 폭행을 가해왔다는 것이다. 이 소문이 국내에 전파되자 국민들은 그대로 이성(理性)을 잃고 말았다. 곳곳에서 화교(華僑)들에 대한 보복이 자행되었다. 전북 삼례(參禮)와 인천(仁川)에서 화교를 습격 타살한 불상사가 발생했고 전국 각지에 파급했다. 평양에서는 무려 90여명의 화교가 살해되었다. 국내 각 신문도 일제히 포문을 열어 화교보복에 대한 선동에 나섰다. 그러나 오직 고하만은 즉흥적인 감정의 표시가 없이 심사숙고 끝에 전혀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었다. 이번 만보산사건은 일본의 흉칙한 모략이요 음모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들은 한.일간의 이간책을 쓴 것이라고 그 진상을 투시했다. 동아일보의 만보산 사건에 대한 침묵이 국민들의 불만을 사기도 했으나 침착한 동아일보는 사태만을 주시해 오다가 드디어 사설로서 허무한 선전에 속지말고 이성(理性)으로 돌아가라는 요지로 국민의 흥분을 가라앉히면서 한편 피해입은 화교 구제회를 결성해서 이 사태의 수습에 만전을 기했던 것이다. 한편 박금(朴錦)씨는 만보산 사건의 진상을 파악키 위해 현지로 특파되었고 추정도 이에 보조를 같이해서 그 진압에 최선을 다했다. 그는 고하의 냉철한 판단이 옳다고 여겼다. 국내에서 8만명의 화교에게 피해가 가면 만보산에 있는 2백명은 물론 전 중국에 흩어져 사는 수백만 우리 동포의 생명은 어찌 되겠는가? 이것은 필시 침략으로 팽창해가는 일본 군벌이 뿌린 유언비어라고 국민의 설득기사에 팔을 걷고 맹활동을 한 것이다. 천만 다행으로 동아일보의 영웅적인 행동으로 국민은 이성을 되찾았고 만주에서 중국인도 보복행위가 무마되었으며 한.중 양국의 친선이 회복하기에 이르렀다. 이 사건이 평정하게 돌아가 중국 장개석(蔣介石) 총통은 박금씨에게 한.중 친선회복의 공로자로 표창되었으며 중산복(中山服)을 송정(送呈)해 왔다. 이 전달식은 중국 대사관에서 성대히 거행되었으며 이 사실을 추정은 대대적으로 보도하기에 주저치 않았다. 이 만보산사건이 수습된 후 9월에 만주(滿洲)사변이 발발하여 일본의 본색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말았다.

만주사변이 터지면서 동아일보사에서는 설의식(薛義植) 서범석(徐範錫) 특파원이 만주로 파견되어 조선인 거류민의 피난문제와 구호대책에 임하도록 하였었다.

여하튼 이 만보산 사건당시에 고하의 혼미한 정세에서 정확하게 내리는 판단력과 박금 추정은 이를 받들어 언론인으로서 남긴 공적이 무척 컸었다. 그리고 이것은 한.중 양국간에 우호를 맺는데 지대한 도움이 되어 정치적으로도 크게 이바지되는 일을 했다고 보아진다.

우리나라 임시정부도 제2차 대전중 중국 장정권의 원조를 받게 된 것도 만일 만보산 사건이 끝내 불행한 사태로 끝났다면 여러모로 곤란했을 것이다. 만보산 사건에 미쳐 발발한 만주사변은 일본 군국주의가 소위 대동아전쟁의 전단(戰端)을 끊은 침략 행위였다. 만주 침략이 조선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건 뻔한 일이었다. 식민지 국가의 탄압은 의례 언론기관에서 나타내기 마련이다. 민족의 지도자가 규합된 곳이요 민족전선의 최첨단인 언론기관을 무슨 형태로든지 압박을 가해오는건 그들 수단으로는 당연한 일일 것이다.

추정이 10년동안 사회부 기자로 근속하다가 지방부장이 된 것은 1936년 11월이었다. 그해 8월 1일 독일 백림(伯林) 올림픽에 일본 대표로 출전했던 우리 손기정(孫基禎) 선수가 마라톤에 一착한 것은 조선 남아의 기상과 체력을 세계 만방에 과시한 일대 경사였지만 원통하게도 코리아라는 국적을 뒤흔어 못밝힌 민족적 울분이 터지도록 만들었다. 손 선수의 앞가슴에 일본 국기 일장기(日章旗)가 그려져 있으니 신문사에서는 이것이 분했다. 세계를 제압한 마라톤의 영웅 손선수의 사진을 차마 우리 동포앞에 일장기를 그대로 드러내기가 원통하고 서러웠다. 신문사에서는 이 일장기를 지우기로 몇몇 실무자가 의논하고 기술적으로 말소(抹消)하는데 성공했다. 다행히 일경의 눈이 속아넘어가기를 바랐지만 그들은 신문 검열에 절대로 소홀하지 않았다. 당장 발각이 났고 신문사는 발각 뒤집혔다. 우선 그들은 몇 관계직원을 문초함과 동시에 보복조치로서 무기정간을 시켰다. 동아일보의 정간은 창간 이후 넷째번이 된다. 신문만 정간이 아니라 자매기관이던 신동아(新東亞)와 신가정(新家庭)은 아주 폐간을 시켰다.

그것이 8월 25일의 일이었고 총독부는 같은 해 11월 11일부로 고하 송진우 사장이 물러나도록 압력을 가했다.

신문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에서 고하선생은 만부득이 사임을 했으며 거기 따르는 부수조건으로 몇몇 사원의 사퇴까지도 보게 되었다. 즉 당국의 기피로 이길용(李吉用) 현진건(玄鎭健) 최승만(崔承萬) 박찬희(朴瓚熙) 등이 물러나야 될 처지였다. 미국에 가 있던 장덕수(張德秀) 부사장은 물론 주필 김준연(金俊淵).편집국장 설의식(薛義植) 제씨도 언론계에 머무를 수 없도록 강력한 명령을 내린바 있었다.

박찬희 지방부장의 후임을 추정이 맡은 것이 동아에 입사한 꼭 10년후의 일이다. 손선수 일장기 말소사건 후의 파동으로부터 생긴 사내 인사조치였다. 추정 마흔 살의 일이다.

송 사장의 뒤를 이어 백관수(白寬洙)씨가 제7대 사장이 된 것은 다음 해인 1937년(丁丑) 5월 31일이었다. 어수선한 일장기 말소사건의 여파는 국민의 불안을 더 한층 피부에 느끼게 하였다. 침략전이 차츰 열을 올리자 일본은 조선의 사상감시에 초조한 만큼 모든 면에서 구속과 억압을 전보다 더 심해가고 있었다.

근촌 백관수(芹村 白寬洙)사장은 20전후의 청년시절부터 인촌 고하 두 분과는 막역한 친분을 맺었고 뜻을 같이한 동지였다.

고하가 손 선수 사건의 일장기 말소사건의 책임을 지고 물러갈 당시는 조선총독도 우가끼(宇垣)가 갈리고 미나미(南次郎)가 새로 부임한 직후였다. 같은 군(軍)이요 무단정치를 하는 입장은 같았지만 사명을 맡고 온 임무나 성격이 달랐다. 미나미는 앞으로 있을 전쟁수행에 박차를 가할 인물로 등장한 것이니 식민지 조선을 억누르는데는 몇곱절 심하게 구는 존재였다. 그는 부임하자 그달로 동아일보를 무기정간을 시켜 첫 숨씨를 보인 셈이다. 물론 공교롭게 일장기 말소사건으로 그들에게 구실을 주었다고 하지만 비단 그일이 발생치 않았더라도 언론탄압으로 조선 민족의 눈

과 귀를 가리자는 음흉한 정책이 변할리가 없었다. 미나미는 부임한 그해 12월에 조선 사상범 보호관찰령(思想犯觀察令)을 내려 그야말로 걸핏하면 예비 구속이니 하여 사상감시와 그 취체를 강화하는 것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이듬해인 1937년 백관수 사장이 사무를 인계받은 해였다. 6월에는 수양동우회(修養同友會) 사건으로 안창호 선생을 비롯 국내에 있는 독립 지도층의 인물들을 검거하기 시작했다. 일종의 예비 검속이다. 그들은 비밀결사라는 검거명목을 붙였지만 탄압이며 사상 단속이다. 이 검거선풍이 있었던 다음달인 7월에 예상했던 중.일(中.日)전쟁은 터지고야 말았다.

추정은 무엇인가 자신의 피부에 조선이 당해낼 모진 혈풍의 전주곡이 느껴져서 마음이 괴로웠고 그럴때면 친구끼리 술로 달래었다.

중.일 전쟁이 발발한 다음해인 1938년 2월에는 소위 지원병제(志願兵制)가 실시되었다.

추정은 이제 시국은 오는 데까지 왔구나 하는 생각에서 앞으로 그가 처신해야 할 마음의 준비와 긴장해 가면서 붓을 총으로 생각하며 그날 그날의 임무에 충실했었다. 말이 지원병이지 조선의 건전한 남아들을 일본의 침략행위에 보충하자는 것이요 이것은 미명을 걸치레로 하는 강제 동원이다. 지원병으로 장정을 전쟁속에 몰아놓더니 이번에는 각 학교에 조선어(朝鮮語) 과목을 폐지하는데 이르렀다. 그 나라의 말과 글을 빼앗는 일은 문화를 말살하는 정책이니 언론기관을 그대로 두지 않을 것을 추정은 예견하고 최후까지 동아일보와 운명을 같이 하겠다고 이를 악물었다. 그는 신문사를 의식해결을 위한 직장이라 생각해본 적이 별로 없었다. 오로지 민족운동의 의무감에서 사운(社運)과 진퇴를 같이 하려니 하는 결심뿐이었다. 중.일 전쟁을 시작하여 파죽지세로 그 광활한 땅을 석권했다고 착각한 다음해인 1939년 9월에는 독일 히틀러가 파란(波蘭)을 진격하여 전운은 세계 제2차대전의 확대일로로 줄달음치고 있었다.

門담는 東亞日報

드디어 일본 제국주의는 그 잔인한 수법으로 동아일보사의 목을 조르는 것이었다. 앞으로 석달 말미를 줄테니 시국에 순응하여 자진 폐간하도록 종용해 왔다. 그것이 1939년 12월의 일이었다. 사내의 간부급 간에 이 소식이 전해지자 모두들 자기자신에게 자살권고를 내린 듯한 비분을 느꼈었다. 과묵하기로 이름난 추정도 이날만은 견딜 수가 없어 술집에 들러 쌓인 울분을 토했던 것이다. 그러나 문을 닫으라고 순순히 닫을 동아일보사가 아니었다. 가는 데까지 밀고 나가자는 뺑장이었다.

추정은 타고난 대륙성 기질로 거의 무감각한 상태로 지낸 듯했지만 속으로는 무엇인가 검은 그림자가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예감이 들어 전율을 느끼기까지 했다.

이 때, 고하는 사의 고문자격으로 동경(東京)에 건너가 정객들을 만나서 미나미(南次郎)의 횡포를 토틈히 따지고 들었다. 동아일보의 폐간은 부당하다는 항의도 별무효과였다. 그들이 조선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동아일보의 세력인데 그들이 실현시킬 소위 내선일체(內鮮一體)와 대동아전쟁 수행에 큰 암을 미리 제거하자는 방침을 변경할 리가 없었다. 고하는 귀국도중 부산에서 피검되어 서울로 이송해 왔다.

고하가 일본에서 미나미(南次郎)를 규탄한 후 총독부는 즉각 동아일보사에 보복으로 양값음을 했었다. 그것은 첫 단계로 신문용지를 적게 배급하는 방법이었다. 모든 물자가 걸핍하여 배급에 의존했던 형편이라 이것은 치명적인 타격이었다.

별써 고하가 피검되고 용지를 균색하게 만드는 건 동아일보의 숨통을 끊는 처사라고 추정은 단정했다. 그러던 차에 동아일보사는 하루아침에 썩발이 되고 말았다. 백관수(白寬洙) 사장과 임정엽(林正燁) 상무 그리고 국태일(鞠泰一) 영업국장 등을 경리부정(經理不正)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누명을 씌워 한 그물에 얽어 놓은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신문사 경영 책임자를 구금해 놓고 일경은 폐간을 강요하는 것이었다. 끝까지 대외적으로는 총독부의 손에 의해서 문을 닫게 하였다는 구실을 주지 않고 실질적으로 폐쇄시키는 간악한 수단이였다. 일이 이에 이르자 별 도리가 없었다. 민중과 함께 살아온 정의의 자명고(自鳴鼓)는 야수 같은 일제의 칼끝에 찢기고 말았다. 이것이 1940년 8월 10일이었으니 추정의 나이 장년기였던 마흔셋의 일이었다.

지령(紙齡) 6119호로써 민중의 참된 벗이었던 동아일보는 일제의 독아(毒牙)에 먹히고 만 셈이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조선일보(朝鮮日報)도 폐간 당한 비운에 있었다. 국가적으로도 슬프고 애석한 일이었지만 추정 개인에게도 크나큰 충격과 비애를 안겨다준 비극이 아닐 수 없었다.

그가 동아일보사에 입사한지 14년만에 당한 일이었다. 청춘의 황금을 아낌없이 뿌려온 곳이었다. 온갖 정열을 기울였던 마음의 고향이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하거늘 기나긴 14년을 춘풍추우 동아와 수난을 같이 겪어온 그였다. 슬픔을 억제하지 못하면서도 그는 입술을 깨물며 스스로의 마음을 달래기도 하였다. 동아는 죽고 여기 뭉쳤던 동지들은 사방팔방으로 흩어져 가지만 '마음만은 변치 말자!' 이렇게 그는 아픔을 참고 견디었다. 추정은 평소의 교류(交遊)에도 변덕을 무척 싫어했다. 변덕은 변절이나 배신할 수 있는 소질이 많이 있기 때문이었다.

이 점은 고하에게도 철저했다. 고하는 재주있는 사람을 오히려 크게 쓰지 아니했다. 재승박덕이라 하여 자기 재주를 누를 줄 모르면 쉽게 변한다 하여 큰 인재로 평가하지 않았다.

고하나 인촌 두 분이 추정을 특히 가깝게 했던 이유도 변할 줄 모르는 의지의 인이라 하여 가위 믿을만한 동지로서 간취했던 모양이다. 이것은 고하가 인물을 보는 안목이 남달리 비상했고 추정이 그런 인물로 꼽혀온 건 적중되었다. 인촌이나 고하가 사장실에서 초인종을 울리거나 급사를 보내 추정을 불러들이는 일이 종종 있었다.

'퇴근하면 다시 오게. 우리 한 잔 하세'

이렇게 친구처럼 대해오던 사이였었다. 고하나 인촌이 추정과 같이 마시면서 취중에 털어놓은 이야기가 절대로 새지 않겠고 이 다음 무슨 계기로나 한번 맺은 인연을 소홀히 할 위인이 아니라는 것을 익히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마음놓고 교류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그렇게 추정은 남에게 든든한 믿음을 주는 사나이였다.

중앙일보는 경영난으로 진즉 폐간이 되었지만 자의 아닌 타의로 동아 조선이 문을 닫게 된 후에도 한글로 찍어낸 신문이 하나 있었으니 이것이 매일신보(每日新報)였다. 비록 한글 신문이기는 하나 내용은 총독부의 어용(御用)기관지였었다.

추정이 동아일보사에서 사운과 함께 물러나게 되자 대신은 재빨리 유능한 기자 포섭의 공작에 나섰다. 몇번이고 추정더러 오라는 유혹을 하였다. 그러나 추정은

'남자가 거취를 분명히 해야지 나는 갈 수가 없다'

고 딱 잡아떼었다. 그는 동아일보의 폐간과 함께 붓을 꺾기로 작정한 것이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인촌 고하 두분은 물론 친히 지내던 친구들까지도 '역시 추정다운 처사'라고 입을 모아 말했다고 한다.

33. 暮歲의 回顧 - 古下 宋鎮禹 先生

<衣堂 柳鴻回顧錄> (1989)

古下 宋鎮禹 先生은 내가 18세 때 中央學校에 入學하면서부터 선생이 逝去하신 날까지 30년동안 모셔온 恩師이시다. 더욱이 古下先生과 仁村 金性洙先生은 나의 前途를 敎示해주신 지도자이며 내 一生의 갈 길을 가르쳐주신 師父이시다. 내가 여기에서 先生이 품으신 큰 뜻이나 선생이

지니신 國家觀을 슬회한다는 것은 마치 반딧불이 太陽을 論함과 같이 송구함을 금할 수 없다. 그 만큼 先生의 大志는 筆舌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깊고, 넓고, 높다.

先生은 嚴한 듯하시면서도 慈悲롭고, 銳利한 듯하면서도 多情多感하여 잘 알기 힘든 인물이었다. 선생의 일상생활은 순 한식으로 하는 철저한 민족주의자였으며 지극히 검소하고 소탈했으나 주관에 정립하고 신념이 확고한 민족지도자였다. 또 천성이 강인하고 판단력이 예리하여 아무리 어려운 난관에 부딪쳐도 당황하거나 실망하지 아니했으며, 그 소신을 굽히거나 신념을 꺾지 아니하여 毀節할 줄 모른 탁월한 독립투사요, 애국지사였다.

내가 중앙학교 3학년 시절의 어느날이었다. 修身(요즘의 도덕)시간에 헝가리 출신의 정치학자로 영국 런던대학 교수가 한 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셨다.

“한국민족이 일본민족보다 여러가지 면에서 더 진보된 문화민족이다. 그런데 이를 합병한 것은 불가한 일이며 한민족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20년 내외에 일본은 그 보복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병합을 유지하려면 만주를 차지하여야 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러시아와 충돌하게 되고, 또 만주를 지키려면 北中支를 도모해야 할 터이니 그렇게 되면 중국과는 물론 미국과 충돌되기 때문이다.

결국 일본은 끝없는 膨脹野慾 때문에 30년내에 美.英 등 열강과 정면대결하게 되어 패망할 것이고 한국의 보복을 받을 것이다”

이와같은 말을 인용하여 학생들에게 민족정신과 항일의식을 일깨워 주었을 뿐만 아니라 선생은 일본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여 별세하시는 날까지 日本必亡의 굳은 신념에 변함이 없으셨다.

나는 선생의 이와같은 독립신념의 말씀을 들을 때면 한편 겁이 나면서도 재미있었는데 그러한 선생의 예지와 판단력은 후에 모두 적중했던 것이다. 인촌 김성수선생이나 爲堂 鄭寅普 선생은 고하를 가리켜서 ‘獨立狂’이라고 말했듯이 그만큼 고하는 독립신념이 확고하여 그의 모든 언행과 모든 생활을 독립운동으로 歸着시켰던 것이다.

고하선생은 1890(庚寅) 5월 8일, 全南 潭陽郡 古之面 巽谷里(現 金城面 帶谷里)에서 부친 堯公과 모친 梁씨와의 8남매중 다섯째로 태어났다. 아명은 옥윤이요, 애칭은 그 모친의 태몽에 따라 ‘금가지’라 불렀다.

4세부터 한문을 배웠고, 7세 때부터 14세까지는 성리학자며 애국자인 奇參衍선생에게서 수학했다. 선생은 천성이 총명하고, 관찰력이 예리하며 집념이 강할 뿐만 아니라 凡事를 精察함이 비범하여 장차 대성할 인물임을 예견했다.

신문화가 조수처럼 밀려오던 1908(19세) 이미 국운이 기울고 있을 때 구국의 길은 우선 신학문을 배워야 한다고 판단하고 인촌 김성수 선생과 동반하여 부모님 모르게 渡日했다. 일본 동경 정칙영어학교를 거쳐서 ‘와세다’대학에 들어가 수학중인 1910년 8월, 이른바 한일합방이 발표되었다. 悲報에 접한 선생은 크게 충격을 받고, 침략자인 일본땅에 하루라도 머문다는 것은 치욕이며 수치라고 생각하고 귀국했다. 울분과 적개심이 충만하여 집에 돌아온 선생은 자결과 義擧의 갈림길에서 두문불출했다. 이와같은 선생의 심경을 눈치챈 부모님의 만류로 回天大業을 이루려면 먼저 知彼知己로 적에게서 적을 알아야 한다고 마음을 돌렸다. 그리하여 다시 渡日, ‘메이지’(明治)대학 법과에 들어갔다.

선생은 동경유학 중 유학생친목회를 조직하여 민족단합을 꾀했고, 일본유학생기관지 ‘學之光’을 정기 발행하여 애국심 양양과 국민단결에 기여하는 등 대일투쟁의 기틀을 세운 후 학업을 마치고 귀국했다.

고하보다 1년 앞서 와세다대학을 마치고 귀국한 인촌선생은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育英事業에 뜻을 두고 있었다. 마침 운영난에 빠진 중앙학교를 인수한 바 처음 고하는 學監으로 영입되었다가 곧 교장직을 맡고 중앙학교의 중흥에 힘을 쏟았다. 본시 인촌이나 고하는 확고한 민족주의자요, 독립주의자였으므로 전교의 선생님들도 濟濟多士가 모였으며 해방후 부각된 각계의 지도자들에게

서 능히 推察할 수 있다.

고하는 평소에도 학생들을 지도할 때 은연중에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排日독립사상을 주입하는 한편 유사시에 대처하여 학생들의 연락망을 조직하여 학생동원에 대비했다. 또 수시로 학생들의 가정이나 숙소를 방문하여 불우한 학생을 도와주기도 하고, 인자한 말씀으로 지도함으로써 師弟第一主義로 뭉치고 민족一家主義로 단결함에 힘썼다. 내가 기숙하고 있는 通義洞 108번지에도 들르신 바 있다.

선생이 3.1운동을 계획하고, 주동하고, 추진한데 대하여는 전장에서 기술했기로 생략하거니와 이 거창한 민족항쟁을 계획한다는 것은 고하가 아니고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被壓迫 민족으로서 全無後無한 3.1독립항쟁은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탄생시켰고, 현행 헌법에도 3.1정신을 받들도록 하였음을 오늘의 독립 또한 고하선생의 독립정신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무튼 고하가 이 독립운동을 성공하기까지는 숭한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다. 이 거사를 민족운동화하기 위하여 당시의 국내 2대 세력인 기독교와 천도교의 양 교단을 단합하여야 한다고 보고 이에 주력하였으나 뜻과 같이 되지 않으므로 한때는 실의에 빠진 적도 있었다. 그러나 선생은 좌절하지 않고, 불퇴전의 집념으로 이를 극복하여 성공으로 이끈 것이다.

선생은 일제가 말하는 소위 48인사건(민족대표 33인 외에 古下, 幾堂 등 16인-33인중 金秉祚는 상해로 망명-을 합한 48인)으로 1년반여의 옥고를 겪고 1920년 10월 1일 출감하였다. 선생은 곧 고향으로 내려가서 在獄中에 타계하신 모친의 산소에 성묘를 마치고 피로한 심신을 정양하고 있었다.

3.1의거로 표현된 한민족의 항쟁에 놀란 일제는 무단정치를 지양하고 문화정치를 표방하기에 이르렀다. 1919년 9월에 부임한 조선총독 사이토(齊藤實)는 언론, 집회, 결사, 출판의 통제를 완화하기로 함에 따라 민간신문의 발행이 허용되었다. 인촌과 고하는 동경 유학시절부터 민족을 대변할 언론기관의 필요성을 절감하던 차라 인촌은 마침내 숙원을 이를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 곧 동아일보의 창간을 추진했다. 천신만고 끝에 1920년 1월 6일자로 발행허가가 나왔고, 4월 1일자로 창간호를 발행했다(이때 고하는 在獄中이었다).

동아일보의 초대 사장은 春皐 朴泳孝, 주간은 靄山 張德秀, 편집감독은 石儂 柳瑾, 편집국장인 何夢 李相協씨 등이었고, 사옥은 花洞의 전 중앙학교 건물을 썼다. 동아일보의 창간이념은 다음 3대 主旨의 社是에서 볼 수 있다.

- (1) 조선민중의 표현기관으로 자임하노라.
- (2) 민주주의를 지지하노라.
- (3) 문화주의를 제창하노라.

즉 민족, 민주, 문화의 발현기관으로 출발하였으니 그 길의 험난함은 예측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그러기에 창간 1년 남짓 사이에 두차례의 筆禍事件으로 무기정간을 당하는 등 가시밭길을 걸어야 했다.

고향에서 심신을 요양하고 있던 고하선생은 동아일보사의 요청에 의하여 1921년 9월, 제3대 사장으로 취임하였다. 이로써 民族紙를 이끌고 민족과 더불어 형극의 길을 걸어야 했다. 때로는 親日走狗 朴春琴의 권총협박을 받기도 했고, 숭한 필화사건으로 투옥, 정간, 삭제, 발매금지 등 형언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걸어야 했다.

1925년 6월, 美洲 하와이에서 개최되는 범 태평양회의에 초청을 받고 민족대표의 일원 겸 동아일보 특파원 자격으로 참가했다. 이 자리에서 고하는 한민족의 억울한 처지를 호소하고 일제의 침략만행을 규탄했다. 이때 靄南 李承晚과도 만나서 장차 독립운동에 대하여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靄南은 고하에게 美洲에 남아서 같이 독립운동할 것을 권고했으나 고하는 국내에 남아서 동포들과 더불어 苦樂을 같이하며 투쟁할 것을 천명하고 귀국했다.

1926년 3월에는 소비에트.러시아의 국제농민본부가 보낸 3.1운동 7주년 기념 메시지를 게재하

였다가 필화사건으로 6개월간 옥고를 겪었고, 1929년에는 동경에 유학중인 極熊 崔承萬씨를 통하여 인도의 독립운동가이며 大詩人 라빈드라나트.타고르의 詩 '빛나는 아시아의 등불'을 받아 게재함으로써 한민족에 희망을 주고 민족의식을 고취했다.

1930년에는 충무공유적보존회를 결성하고 모금운동을 전개하여 은행에 저당된 位土를 찾았고, 현충사의 신축과 한산도 洗兵館 개수등 충무공의 유적을 보호하고, 그 일을 發揚함에 힘썼으며, 1931년 10월에는 임진왜란의 영웅 權慄 도원수의 戰捷地인 행주산성에 기공사를 重修함으로써 우리 한민족의 민족정기를 발양하고 또 은연중에 항일의식을 앙양함에 주력하였다.

또 선생은 단군, 세종대왕, 이충무공 등 세분의 靈을 모시는 三聖祠 건립에도 뜻을 가지고 있었다. 이리하여 우리 민족이 崇仰하는 표적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이 뜻이 이루어지면 여기서 기념식, 결혼식 등을 가져도 좋지 않겠는가 하였다. 선생은 이 三聖祠 건립의 예정 부지로는 남산을 지목하였으나 후에 일제는 이 자리에 朝鮮神宮을 세웠다.

선생은 또 '브나르도'(V.narod=民衆속예) 운동을 전개하여 농촌계몽과 한글보급의 선봉이 되기도 했다. 그리하여 近 10만명의 문맹을 퇴치하는 등 민족정신 앙양에도 큰 힘이 되었다. 또 일부 지식인과 언론인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상 처음으로 한글 맞춤법(철자법)을 신문에 채용하여 한글의 통일과 보급에 주력하였다.

그동안 한글학자들 사이에는 유파를 달리하여 서로 논쟁해오던 중 1933년 가을부터 다음해 봄에 걸쳐서 각파의 논쟁점을 정리한 끝에 당시 조선어학회(現 한글학회) 안을 채택하기로 하고 신철자를 수십만매 인쇄하여 전국 방방곡곡에 무료배포했다. 따라서 여러 방면의 반대를 물리치고 거금을 들여서 신철자를 鑄造하여 신문에 사용함으로써 우수한 우리 한글의 기반을 확립하고 신문화 발전에도 크게 기여한 바 있다.

1931년 7월, 萬寶山事件이 발생하자 일부 신문의 誤報와 악의의 허위선전으로 沸騰한 世論과 激昂된 민심은 일대 과오의 길로 들어가고 있었다. 이때 적의 계략에 빠지고 있음을 看取한 선생은 그의 예리한 기지로 일제의 흉계를 분쇄하고 위기에 직면한 在滿洲 동포를 구출한 바 있다(前 述).

적지않은 피해를 감수하면서 이 사건을 평온하게 수습한데 대한 사의로 후에 蔣介石 主席은 '親仁善隣'의 銀牌와 '東亞之光'이라 쓴 簇子를 보내온 바 있다. 1934년 평양 송실전문학교 학생들의 신사 불참배 운동이 일어나자 선생은 동아일보의 논설.사설을 통하여 옹호함으로써 同校 교장 미국인 선교사를 크게 鼓舞하고 성원한 바 있다. 그는 후일 태평양전쟁시 자국에서 우리 민족을 성원하고, 또 독립이 성취되도록 크게 활동한 바 있다.

1936년 8월, 독일 베를린(柏林)에서 열린 제10회 올림픽경기에서 한국의 孫基禎선수가 마라톤 경기에 출전하여 세계 신기록을 당당히 제1차 골인했다. 孫선수의 골인사진이 입수되자 체육담당 기자에게 암시하여 孫선수의 가슴의 일장기를 지워서 보도했다.

이 사건으로 동아일보는 무기정간되고, 여러 관련기자들이 투옥되는 등의 고난을 겪었다. 이때 선생은 정간처분의 해제와 구속된 기자들의 석방을 조건부로 사장직에서 사퇴하고 고문직을 맡고 제2선으로 물러났다. 후임에는 芹村 白寬洙씨가 사장으로 취임했다(일장기 말소사건).

1937년 7월 7일, 세칭 蘆溝橋事件을 조작하여 中日戰을 도발한 일제는 일거에 中原大陸을 석권하려 했으나 중국민족의 완강한 저항에 직면하여 마치 범의 꼬리를 잡은 격으로 진퇴유곡에 빠졌다. 이리하여 전쟁이 장기화하자 斷末魔의 일제는 동아일보를 강제폐간할 흉계를 꾸렸다. '비밀결사', 혹은 '경리부정'등 허구의 모함으로 강압하여 1940년 8월 동아일보는 강제로 폐간되었다(이때 조선일보도 함께 폐간되었음).

민족사업이며, 항일투쟁이며 또는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설립되고 투쟁해온 동아일보, 지난 20여년간 나라 잃은 한민족은 동아일보를 정부로 믿고 의지해 왔다. 그러한 민족의 구심점이 소멸된 것이다.

1941년 12월 8일,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함으로써 태평양전쟁을 도발한 일제는 반년이 못 가서 苦戰하기 시작했다. 남방에까지 진출한 일본군은 처처에서 연합군에 섬멸되니 시간이 흐를 수록 敗色이 짙어갔다. 전력보충에 혈안이 된 일제는 한국장정을 학병, 징병, 또는 징용으로 強徵하여 그들 전선에 투입하는 한편 국내 애국지사들의 협조를 조작하고 또 강요했다. 이때 선생은 “나의 눈이요, 귀요, 입인 동아일보가 폐간되었으니 소경이요, 귀머거리요, 병어리가 된 내가 무엇으로 어떻게 말을 하겠는가?” 하고 그들의 간청을 일축했다.

카이로선언, 알타협정, 태평양 헌장등 국제정세를 소상히 알고 있는 고하는 일제의 패망이 가까워움을 짐작하고 혹 狂暴한 그들이 한민족에 위해라도 가하지 않을까 하여 신병을 빙자하고 두문 불출했다.

1945년 8월 10일, 선생은 조선총독부 경무국 하라다(原田)의 방문을 받았다. 그는 일제는 美.英 측에 종전을 제의하고자 한다고 말하고 종전후의 뒷수습을 맡아줄 수 없는지 의향을 알아보라는 하명을 받고 왔다고 했다. 이때 선생은 稱病을 이유로 거절했으나 그들은 계속 4차나 교섭해 왔다. 마지막날 조선군참모 간사끼(神崎), 경기도지사 이꾸다(生田), 경기도 경찰부장 오까(岡) 등과 자리를 같이했을 때 선생은 그들이 요청하는 통치권 인수교섭에 대하여 “나는 중국의 汪兆銘이나 불란서의 페탕이 될 수 없소” 하고 거절했다(제2차 세계대전중 汪兆銘은 일본군의, 페탕은 독일군의 괴뢰였다).

후일 일부 史家나 論客中에서는 고하가 이때 정권인수를 거절했던 까닭에 左右翼의 대립이 격심해졌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 남북분단이 固着했다고 비방하기도 했다. 그러나 패자로서의 일본이 그들 마음대로 정권을 누구에게 줄 권한이 있을 수 없고, 설령 받는다면 그것은 잠정적으로 그들에게 이용당하는 것이다. 그것은 후(9월)에 인천에 상륙한 미군사령관의 포고에서 증명된 것이다.

고대하던 감격의 8.15해방은 왔다. 선생은 민족진영을 규합하여 민족대회준비회를 결성하고, 임정의 환국을 기다릴 때 일제의 요구를 수락한 呂運亨은 그 세력확보에 광분했다. 또 아직 환국하지도 않은 임정요인의 명까지 盜用하여 소위 인민공화국(壁報內閣)이란 虛構組織을 발표하는 등 초조와 조급으로 빈축을 샀다.

국가의 앞날을 걱정하는 민족진영에서는 난립된 정파들이 결집하여 한국민주당을 창건하고 고하를 중심으로 좌익타도의 기치아래 분연히 일어섰다. 선생은 이 시기에 미군정청에 요청하여 폐간된지 5년 3개월만에 동아일보를 복간하고 사장직에 취임했다.

같은 해 12월 27일, 莫府에서 열린 美.英.蘇 등 三相會議는 한국의 5개년간 신탁통치안을 결정 발표했다. 아연실색한 국내정계는 혼란이 일었다. 민족진영은 고하를 중심으로 단합하여 대대적인 반탁국민대회를 계획하고 시위준비에 여념이 없던 동 12월 30일 새벽 6시경, 韓賢宇등 6명의 자객으로부터 저격을 받고 長逝하니 고하의 춘추는 56세였다.

1946년 1월 5일, 온 국민의 비통속에 장례식이 거행되고, 서울 교외 忘憂里에 幽宅을 모셨으나 나는 항상 한적한 곳으로 遷奉하고자 고심했다.

1965년 12월 30일, 고하의 20주기 추도식이 신문회관에서 거행되었다. 식이 끝난후 몇몇분과 회식하는 자리에서 移葬문제가 구체화되어 곧 고하 송진우선생 遷葬推進委員會가 구성되었다. 위원장은 覺泉 崔斗善씨였고, 나는 총무직을 담당하고 준비에 임했다. 유족 宋英洙(고하의 嗣子)군과 상의하고 산소자리를 찾아 여러곳을 답사하여 물색한 끝에 양천구(舊 영등포구) 新亭洞의 내 所有 芝香山에 쓸만한 자리를 발견하고 이곳에 확정했다.

1966년 6월까지 천장을 끝내고 새로이 국한문 補譯의 비석을 위시하여 부속 石物 일체를 구비하여 이해 11월 11일 墓碑除幕겸 遷葬奉安式을 현장에서 거행했다.

그로부터 20여년이 흐르자 서울 인구의 팽창으로 至近距離까지 인가가 들어오고, 당국의 신시가지 개발계획 등으로 환경이 번잡하고 불결하여 송구함을 금할 수 없게 했다. 마침 유가족의 요

청을 받아들인 당국의 배려로 동작동 국립묘지내 애국지사 묘역으로 다시 천묘하게 되었다. 海葦 尹潛善씨를 遷墓葬儀委員長으로 추대하고 나는 부위원장직을 맡고 1988년 5월 3일 선생의 천묘 장의식을 거행하고 천묘를 마쳤다.

이보다 앞서 선생의 고매하신 애국지와 투철한 민족정신을 후세에 기리 전하고 또 배우게 하고자 1978년 기념사업회를 결성하고 동상건립사업을 추진했다. 동아일보사와 중앙학원 및 각계각층의 후학으로부터 기금을 도움받아 성동구 구의동 어린이 대공원에 동상을 건립하고 1983년 9월 23일 제막식을 가진 바 있다.

爲堂 鄭寅普선생이나 그외 史家 중에는 고하가 일제의 암흑시대에 불굴의 정신으로 민족을 이끌고, 민족에게 희망과 빛을 주어 갈길을 밝힌 공로는 壬亂時의 총무공의 공적에 비긴다고 했다. 壬亂時는 무력하나마 뒷일을 보살필 정부가 있었지만 선생은 오직 민족을 믿고, 민족에 대한 신념과 사명감으로 일생을 헌신했다. 수없이 많은 어려운 고비에도 고결한 知德과 탁월한 판단력으로 이를 헤쳐나가고, 끊임없는 유혹과 꾀에도 빠지지 않은 독야청청의 일생이었다고 설파했다.

국내의 일부 인사나 해외에서 환국한 일부 인사중에는 국내에서 그만한 일을 하면서 친일을 안 했을 리 없다는 毀評도 받은 바도 있다. 그러나 이는 선생을 잘 모르는 말이요, 격하하려는 악의의 언동이다. 선생은 일본을 알고, 일본인을 알고 있기에 투쟁할 수 있었으며, 민족불멸 일제필망, 獨立必至의 굳은 신념과 판단력이 확고했기에 萬古不動의 자세로써 흔들림 없이 민족을 지켜왔던 것이다.

일제침략의 암흑속에서 한 점의 등불이 되어 이 민족의 앞길을 비쳐주시던 선생의 勳業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더욱 빛날 것이다.

34. 普專.高大 35年の 回顧

<養虎記>

俞 鎮 午

結 緣

崔容達군의 부탁으로 내가 古下를 만난 것은 그때 내가 仁村과 아주 안면이 없기 때문은 아니었다. 실은 그보다 8년전 1924년 초가을에 나는 仁村을 뵈 적이 있었다.

京城日報(총독부의 일본어기관지) 사장을 지낸 阿部充家라는 '浪人'이 있었는데, 1924년 10월경 서울에 온 그는 나와 李鍾洙군을 조선히텔 만찬에 초대하였다. 나와 李鍾洙군은 맥도 모르고 초대에 응해 갔지만 나중에 알고보니 阿部는 東京 조선인 유학생들과 항상 접촉을 하며 지내는 사람이었다. 일본정부의 對조선인 - 특히 젊은 엘리트에 대한 고등정책을 은근히 알아보는 사람이 아니었던가 싶은데, 어쨌든 그는 사상경향의 여하를 가리지 않고 한국유학생 가운데 좀 똑똑한 사람이면 모두 접촉을 가지려 했다. 일본유학생 중의 某某하는 사람으로서 그와 접촉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할 정도였다.

나와 李鍾洙군이 선택된 것은 그해 봄에 창설된 京城帝國大學 豫科의 文科 A(學部로 올라가서 法科할 사람)에 내가, 文科 B(진짜 文科 계통할 사람)에 李鍾洙군이 각각 수석으로 합격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阿部씨의 덕택으로 나는 신축된지 얼마 안되는 호화찬란한(그때 나의 눈에는 정말로 그렇게 보였다) 조선히텔을 처음으로 들어가서, 본 일도 들은 일도 없는 '진수성찬'을 처음으로 먹어보고 했

는데, 그 자리에서 뜻밖에 仁村과 方台榮씨, 그리고 그때 한창 유명하던 소프라노 尹心惠양을 만났던 것이다. 尹양은 로비에서 한참 떠들다가 그대로 휙 나가버렸지만, 仁村과 方台榮씨는 식탁에 까지 동석한 것으로 보아 우리들 두 학생과 함께 미리 초대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19세의 청년인 나는 그날 저녁 그저 얼떨떨하기만 했지만, 仁村을 만난 인상은 그뒤 오래도록 선명하게 내 기억에 남았다. 만나 보니 온후하고 친절한 靑年紳士였지만(仁村의 나이는 그때 34세였다는 계산이 된다) 中央學院의 창설자요, 동아일보 사장을 지낸 분으로, 그분의 명성은 우리 사회에 그때 이미 그만큼 높았던 것이다.

仁村과는 그때 그렇게 한번 만난 일이 있을 뿐임에 반해 古下 宋鎮禹선생과는 자주 접촉이 있었다. 어떻게 해서 고하를 알게 되었는지는 지금 기억이 없으나 그때 동아일보 편집국장으로서 있던 春園의 발언이 아니었던가 싶다. 春園과는 내가 글줄이나 쓴다고 해서 전부터 접촉이 있었으니 말이다.

고하도 춘원도 나를 몹시 아껴 주었다. 특히 고하는 나를 만나면 으레 '꼭 吉野作造(길야작조라고 고하는 發音했다)를 보는 것 같다'고 했다. 吉野作造라면 그때 동경제국대학 정치학 교수로서 뿐 아니라 급진적 자유사상가로서 일본의 쟁쟁한 학자 - 사상가였으므로, 고하의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내가 어깨가 저절로 올라가는 것같이 느낀 것은 물론이다. 두 분의 부탁으로 나는 대학 3학년 재학시에 벌써 '李之輝'라는 펜네임으로 東亞日報 신춘특집에 당시의 이른바 민족단일전선인 신간회를 비판하는 글을 쓴 일도 있었다. 동아일보의 社是나 고하, 춘원 두 분의 주의주장과도 어긋나는 진보적 - 좌익적 입장에서 쓴 글이었으나 두 분은 쾌히 내 글을 신문에 실어주었을 뿐 아니라 '李之輝'란 者가 누구냐고 캐묻는 여러 질문에도 끝끝내 緘口로 一貫하였다.

고하와는 그렇게 지내던 처지였으므로 그때까지 누구에게 무슨 청탁이라고는 해 본 일 없는 나였지만 용기를 내서 나는 1932년 2월 어느날 동아일보사 사장실로 그를 찾아갔다. 그것이 내가 보성전문학교와 인연을 맺는 첫 걸음이 될 줄이야 어찌 알았으랴.

친구를 추천하기 위해 찾아간 것이니 친구의 훌륭한 사람임을 극구 늘어놓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나는 崔容達군의 인품과 학문에 관해 반시간 가량이나 장황하게 설명하였다. 대학입학은 나보다 1년 늦었지만 사실은 함흥고보 4년 수료시에 중학졸업검정시험을 통과했다는 것, 21단위면 대학졸업을 할 수 있는데 그는 법학뿐 아니라 정치.경제.철학.문학 등 여러 분야의 각가지 과목을 시간이 닿는 대로 履修해서 3년동안에 40여단위를 땀으니, 말은 법학사지만 학위를 한두개 더 가진 사람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 대학졸업 후에도 부지런히 연구를 계속해서 그때 독일에서 회사법의 신학설로 등장해 각광을 받던 '기업 그 자체' (Unternehmen-an-sich)의 理論을 소개는 커녕 정면으로 비판한 논문을 이미 완성해서 東京 일본대학에서 발간되는 '法律學研究'에 발표 중이라는 것 등을 말했다.

고하는 가끔 "음, 음"하면서 고개를 끄덕일 뿐으로 말없이 내얼굴을 건너다 보면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듯했는데, 내 말이 끝나자 그는 느닷없이

"거, 兪선생 와주면 어떻소?" 하고 엉뚱한 제의를 하였다.

너무나 의외의 반응이라 잠깐 머뭇거리다가 "나는 助手任期가 1년 남았으니 아직 급할 것 없고, 이번에 임기가 끝나는 崔군 일을 걱정해 달라고 온 것"이라는 말을 되풀이하였다. 그러나 고하는 崔容達군에 관해서는 여전히 可타 否타 말이 없이 "어쨌든 仁村을 한번 만나시오" 하였다.

그래서 仁村을 만나게 된 것인데,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지는 지금 기억이 없으나 仁村은 "처음 뵙습니다"라는 나의 인사에 "우리 전에 한번 만난 일이 있지요. 왜, 그, 조선히텔에서....."라 하여 7, 8년 전에 나를 만난 일이 있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나로서는 전연 예기하지 않았던 일이다.

그날 仁村의 말은 普成專門의 인사는 벌써 대강 내정이 되었지만 내가 普專으로 와줄 생각만 있다면 무리를 해서라도 자리를 내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나는 거듭거듭 崔容達군 이야기를 하였지만 仁村은 자꾸 나의 이야기만을 앞세웠다.

그러나 나 자신의 문제에 관해서도 그때는 고하를 만났을 때와는 달리, 崔容達군 문제만 해결된다면 나도 함께 普成專門으로 갈 생각을 굳히고 있었으므로, 나는 普成專門의 앞날에 관한 仁村의 구상을 좀더 따지고 들었다. 京城帝大 조수의 기간이 1년 남았다고는 해도 그 기간이 찬 뒤의 전망이 밝은 것도 아니므로, 普成專門으로 감으로써 학자로서의 생활을 계속할 수만 있다면 普專으로 갈 생각이었던 것이다. 명칭만을 가지고 말한다면 專門學校 敎員도 대학교원과 마찬가지로 교수라 불린다. 그러나 專門學校의 교수는 여간해서는 학자생활을 하기 어려운 것이, 전문학교에는 학자를 길러 낼 만한 시설이 없고, 세상도 또 전문학교 교수에게 학자되기를 기대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나는 普成專門을 대학으로 승격시킬 의사를 仁村이 정말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이 선결문제였다.

“물론 있다”고 인촌은 卽答하고, 자기의 뜻도 대학을 세우려는 데 있는 것이지만, 總督府治下에서 대학은커녕 전문학교 설립도 인가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 기존하는 普成專門을 인계받는 것이라 하였다.

그렇다면, 하고 나는 세 가지 조건을 내세웠다. 첫째 도서관을 지을 것, 둘째 교수마다 연구실을 마련해 줄 것, 셋째 연구논문집을 발간할 것의 세가지였다. 이 세가지만 구비되면 명칭은 전문학교를 면할 수 없더라도 내용상으로는 대학의 실질을 갖출 것이라 생각한 때문이었다. 즉석에서 인촌은 세가지 조건에 모두 적극 찬성하였다.

인촌이 기부한 五千石 秋收의 농토가 巨財인 것은 틀림없지만(그때 보통 50만원으로 평가되는 재산이었다) 대학을 제대로 경영하려면 최소한 매년 幾百萬圓의 經常費를 써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재산이 인촌이 기부한 재산의 최소한 10배 이상은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문제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한 질문에 대하여는 인촌은 얼굴을 흐리면서, 그야 그렇지만 우리 형편에 지금 당장 그런 것을 기대할 수야 없지 않느냐, 그러나 그 점은 앞으로 피차 노력해 나가도록 하자고 대답하였다.

그렇게 해서 나 자신의 문제는 끝이 났으나 해결되지 않은 것은 정작 崔容達군의 문제였다. 최군의 이름이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아서 仁村의 마음을 움직이기 힘들 뿐 아니라 나와 최용달군의 문제는 普專의 인사 문제가 대강 내정된 뒤에 일어난 것이어서, 사실은 나 하나를 채용하기 위해서도 仁村은 벌써 憲法, 行政法의 C모씨와 國際公法의 L某씨를 자르지 않으면 안되었는데, 거기다가 崔군까지 채용하게 된다면 불가불 이미 內定된 人員중 몇 사람을 더 잘라야 하는 어려운 문제까지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崔容達군을 추천하기 위해 나섰던 내가 崔군을 제쳐놓고 내 문제만 해결하고 말 수는 없는 일이므로 나는 그때 일본의 각 대학에서 행해지고 있던 관례와는 좀 다른 理論을 내세웠다. 국제공법과 국제사법은 성질상 거리가 멀어서 한 사람이 맡는 것이 이론상 옳지 않고, 더군다나 나는 법철학, 국가학, 형법학 계통의 공부만 해 왔기 때문에 민법, 상법에 정통해야 되는 국제사법은 담당할 능력도 없으니 국제사법은 崔군에게 맡겨야 하겠다는 것이었다. 나의 주장은 이유가 안서는 것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그때의 일반 관행에는 어긋나는 것이었는데, 인촌은 더 묻지 않고 그러면 그렇게 하자고 나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주었다.

국제사법을 내놓는 대신 나는 영어 원서강독을 신설해야 될 필요를 역설하고(이 과목은 대학에서나 두는 것으로서 그때 전문학교로서 이런 과목을 가진 예는 일본에도 아마 없었을 것이다) 자진해서 그 과목을 맡을 것을 건의하여 내 문제는 완전히 끝장을 맺었으나, 여전히 남는 것은 崔容達군의 문제였다. 일주일에 두 시간의 시간강사로는 생활의 방도가 서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문제도 곧 해결되었다. 그때까지 普專에 나와서 상법강의의 일부분을 맡아 보던 고등법원(지금의 大法院에 해당)판사 野村調太郎씨가 崔군의 딱한 사정을 듣고 자기가 맡고 있던 시간을 崔군에게 移讓하였기 때문이다. 그리해 崔군은 어렵게 일주 6시간의 普專 시간강사가 된 것이었다.

이것으로 나와 普專과의 결연은 성립되어 1932년 4월부터 나는 보성전문학교 전임강사로 부임하게 되었는데 그 예정은 城大 船田亭二(후나다 교오지)교수의 호의적인 조언을 내가 받아들임으로써 일년간 연기되었다. 그때 나는 京城帝大 法哲學研究室에 적을 두고 있었지만 法哲學의 尾高교수가 洋行中인 동안 船田교수에게 신분상 감독을 받고 있었는데 船田교수는 내 말을 듣고 普專으로 가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나 城大助手의 남은 임기 1년은 既得權이니 자진 포기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해서, 그의 말을 따라 말은 時間(1주 13시간)은 다하되 普專의 전임이 되는 것은 1년 늦추기로 한 것이었다. 그때 나는 城大研究室에서 船田교수 외 또 한 사람의 교수와 공동으로 레온.듀기(Léon Duguit)의 '憲法學提要'(Traité de Droit Constitutionnel)를 일본어로 번역중에 있었던 관계도 있고 해서 船田교수의 조언을 따르기로 한 것이었다.

그 때문에 기록상으로는 나는 1년동안 普專의 시간강사로 있다가 1933년 4월에 정식으로 專任이 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1932년 4월에 專任이 된 것이었다. 강의와 보수뿐 아니라 교수회에 참석하는 등 專任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1932년 봄부터 다했으니 말이다... (中略)...

石塔의 氣象圖

새 校舎를 말한 끝에 한 가지 덧붙여 둘 이야기가 있다. 仁村은 새 校舎 正面入口 양편 기둥에 화강암 호랑이 머리 한 쌍과 뒷문 기둥에 역시 화강석으로 오얏꽃 조각 한 쌍을 만들어 붙였는데 호랑이 머리에 관해 仁村은 우리나라에는 옛날부터 호랑이가 많다 하지 않느냐, 호랑이는 영특하고 용맹하고 기품이 있으니 민족의 상징으로 삼을 만도 하지 않느냐 하였다. 오얏꽃에 대해서는 특별히 인촌의 말을 들은 기억이 없으나, 생각컨대 李花는 李朝王室의 紋章이었으므로 仁村이 무어 李氏王朝의 復歸를 바랬을 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역시 일본의 손에 폐기된 민족의 상징의 하나로 그것을 새겨 붙였던 것이 아닌가 싶다(이 李花 彫刻에 관해서는 근래 無窮花라는說이 퍼져 있어서 이번에 다시 확인해 보았으나 역시 李花에 틀림없었다).

새 校舎로 들어온 후 학교의 분위기는 희망과 활기로 가득차서, 마치 봄이 되어 새싹이 파릇파릇 돌아나는 계절이 되면 사람의 마음이 까닭도 없이 들떠오르는 것과도 같았다. 교직원도 학생도 校友도 얼굴에 미소를 띠고 떼어놓는 발걸음은 가벼운 것 같았다.

그러한 활기는 學校事情이 一新하여 희망에 찬 새 출발을 한 때문임은 말할 것도 없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인촌을 비롯한 그때의 普專 관계자들이 모두 한창 일할 수 있는 젊은 나이였다는 사실이 크게 작용한 것 같다. 인촌은 민족의 일꾼으로서 그때 이미 거족적인 人望을 모으고 있었지만 사실은 44세의 한창 나이였고, 교수들은 1, 2인의 예외를 빼어놓고는 30세 전후로부터 40세 전후에 이르는 靑壯年이었으니 말이다(나는 그때 最年少인 29세의 청년이었다).

그 당시의 이야기를 하자면 우선 學校關係의 酒宴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학교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러니까 자연 酒宴이 잦았는데, 그때의 普專關係 酒宴은 요사이 세상에서 흔히 보는 것 같은 서로 눈치를 보아가며 상대방의 속이나 뽑아보려고 하는 조심스러운 자리와는 판이하게 무슨 同志들끼리의 허물없는 자축연이나 같이 선배고 후배고 양껏 먹고 마시고 거리낌 없는 氣焰을 토하는 즐거운 자리였다. 인촌 주변의 분으로는 金炳魯, 金用茂, 宋鎮禹, 白寬洙씨 등이 자주 젊은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 했는데, 그분들은 한결같이 술도 세려니와 젊은 사람 상대로 天下大勢에 관해 談論하기를 즐겼다.

酒席에서의 이야기는 사상문제가 되면 특히 열을 띠게 마련이었는데, 年長者 중에서도 특히 열렬하게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나서는 것은 仁村과 古下였다.

젊은 패들 중에는 진짜 共產主義者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대체로 좌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때의 경향이었기 때문에 자연 仁村이나 古下の 말에 대해서는 반대론을 펴기가 일쑤였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인촌은 평소의 인촌답지 않게 팔을 걷어붙이고 語聲을 높이기가

일수였고, 古下는 곧잘 주먹을 휘둘러가며 열변을 토하였다.

학교관계자들의 친목을 위한 모임이라기 보다는 憂國志士들의 비분강개하는 토론회장 같은 느낌이였다. 사실 酒席에서 학교관계의 사무적 또는 교육적인 일이 화제로 되는 일은 드물었고, 그 대신 민족의 현재나 장래에 관한 이야기라면 흥분된 토론이 밤늦도록 계속되는 것이 恒例였다.

인촌, 고하의 두분 중 정치문제에 관해 좀더 직선적인 의견을 펴는 것은 古下였는데, 古下는 언제나 민족은 自決해야 하니까 조선은 독립해야 한다는 簡明直截한 주장이였다. 그 주장에 반대할 사람은 없는 것이지만, 그 당시의 젊은 사람들의 생각은 약간 달랐다. 조선의 독립은 일본의 제국주의체제가 무너지지 않는 한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고하는 곧잘 자기의 뜻을 이해해주는 인물로 頭山滿, 大川周明등 일본의 極右系巨頭들의 이름을 들먹였지만, 그런 인물들이 입으로 아무리 민족자결의 원칙을 말한다 하여도 그것은 결국 입치레에 지나지 않는 만큼 정말 조선이 독립하려면 일본 자체의 정치체제가 공산혁명으로 넘어져야 하므로, 우리는 일본의 極右系人物에 기대를 걸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일본의 좌익을 두둔하여 일본 자체의 혁명을 도와야 할 것이라는 것이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였다. 당시의 老壯年層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았었다.

평소부터 그러한 의견의 차이가 있었던 관계로 한 번은 고하의 민족자결론에 내가 불쑥 이의를 제기하여 고하를 몹시 흥분시킨 일이 있다. 아무리 民族自決을 외쳐 보아도 日本帝國主義가 건재하는 한 조선독립은 無望하지 않으나 한 것까지는 좋았으나, 그 끝에 내가 설사 일본의 현체제가 유지되면서 조선의 독립이 이루어진다 하여도 資本主義體制를 바탕으로 하는 한 독립을 뒷받침할 민족자본이 없지 않으나,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한 것이였다. 그랬더니 古下는 흥분해서

“무어? 資本? 내 말 좀 들어보아요. 兪군”(仁村과 달리 古下는 가끔 ‘兪군’이라는 말을 썼다)하고서 주먹을 휘두르며

“資本家라니 富者말이지? 부자라면 閔泳徽가 朝鮮甲富 아냐? 그래 閔泳徽가 어쨌단 말이야. 閔泳徽가 우리나라 독립을 뒷받침해? 閔泳徽같은 건 巡査 한명만 보내면 그만이란 말이야. 안그래 兪군?”

하였다.

이 이야기를 지금 내가 꺼내는 것은 古下의 ‘朝鮮甲富도 巡査 한명이면 그만’이라는 철저한 政治優越論이 기발하고도 통쾌해서 그 후 近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내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기 때문뿐 아니라, 이 간단한 問答 속에 政府樹立 후 우리 민족이 안고 온 여러 가지 복잡한 問題들이 그대로 內包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독립은 내 생각과는 달리 古下의 생각하던 방향으로 이루어졌으나, 자본형성의 문제는 나와 古下가 말을 주고받던 그대로의 문제점을 안고 여태껏 몸부림치고 있으니 말이다.

그 당시의 酒席 이야기를 한다면 仁村의 普專인계 직후 前校長 朴勝彬 댁에서 있었던 조출한 酒席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다.

朴勝彬교장은 本職은 변호사였지만 ‘啓明俱樂部’를 조직하여 新生活運動에 앞장을 서는 한편, 한글學會의 맞춤법에 반대하여 ‘朝鮮語學研究會’를 조직해 가지고 독자적인 철자법을 끝까지 주장하던 신념과 氣慨의 인물이였다. 校長職을 물러난 후에도 여러 해 동안 老軀를 무릅쓰고 無報酬로 普專에 나와서 ‘朝鮮語’ 講義를 계속한 분이다.

늦은 봄의 어느날 仁寺洞 朴교장의 洋式저택에서 언제까지나 물러가지 않는 黃昏의 庭園을 바라보면서 열렸던 麥酒파티는 그분의 독특한 너털웃음과 함께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선후배가 한데 영킨 술자리에서의 기쁨은 밤이 늦어지면 으레 어른들의 獨壇場이 되는 것이 통례였다. 젊은 패들은 풋술이라 처음부터 마구 마시고 떠들고 하기 때문에 이내 기운이 지쳐버리는 데 반해 仁村, 古下, 街人(金炳魯), 金用茂 같은 분들은 주량이 센데다가 폭음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술자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기세가 점점 더 올라가는 것이였다. 그래서 자정이 가까워지

면 나는 곧잘 옆방으로 가 드러누워서 반쯤 꿈결에 어른들의 氣焰을 들곤 했는데, 한번은 그렇게 누워 있는 나를 보고 庶務의 吳一澈씨가 “무얼 벌써 그러슈. 저분들은 아직도 總論이요, 各論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소” 하였다. 그 후로 ‘各論은 아직 멀었나’ 하는 말은 酒席이 지루하도록 긴 때에 젊은 패들끼리 隱語처럼 주고받고 하는 말이 되었다...(中略)...

말없는 가운데도 저절로 통하는 師弟間의 理解 - 外部의 強壓이 심하면 심할수록 도리어 굳어지는 先後輩間의 애정 - 그것이 그 당시의 普專을 지탱하는 정신적 지주였다.

그러나 그렇게 우울한 가운데에도 그 나름대로의 즐거움도 또한 있었다. 그해(1940년) 9월말경 하루는 무슨 까닭이었던가 인촌과 함께 종로거리를 걷다가 우연히 鄭寅普씨를 만났는데, 그때 역시 倉洞인가에서 은둔생활을 하고 있던 爲堂은 病客같이 야윈데다가 입고 있는 옥색 모시 두루마기 자락이 무릎 위까지 말려 올라가서 초라해 보이기가 짝이 없었다. 그러자 인촌은 무슨 생각을 하였는지 갑자기 밝은 목소리로, “우리 어디 가 술이나 먹을까” 하더니 “金千代會館을 가면 지금도 술을 실컷 먹을 수 있단 말이야” 하였다.

그때는 벌써 돈을 가지고도 술을 사먹기 힘든 때이었다. 당당한 요리집을 가도 淸酒는 한 사람 앞에 半盞 조금 더 드는 소위 ‘도꾸리’ 한 병밖에 주지 않는 때이었는데, 인촌 말씀은 金千代會館(지금 서울 市警察局)은 朝鮮에서 제일 큰 양조장을 가진 齊藤이라는 일인이 직영하는 곳이라서 말만 잘하면 지금도 술을 얼마든지 얻어먹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아직 술 먹을 시간은 아니었지만 爲堂도 나도 당장에 仁村을 따라나섰음은 말할 것도 없다. 金千代會館에 이르러 조그만 방에 자리를 잡자 仁村은

“古下도 부르지. 古下도 요새 꽤 울적할 텐데”(東亞日報 폐간 후 古下는 쪽 집에 칩거 중이라는 것이었다)

하더니, 일어서 나가 손수 전화를 걸었다. 물론 古下는 곧 달려갔다.

나는 그날 그 술座席처럼 마음이 푸근했던 자리를 아직 알지 못한다. 李白의 ‘將進酒’ 末尾에 있는 ‘五花馬와 千金裘를, 아이 시켜 꺼내다가 술로 바꾸어, 그대와 함께 萬古의 시름을 끄리라’라는 表現 그대로의 술자리였다.

그러나 술로 울분을 달래는 것은 잠깐 동안의 일이고, 현실은 날로 각박을 더해갈 뿐이었다. 해가 바뀌어 1941년이 되자 인촌은 普專의 체제를 정비하여 신설된 副校長과 生徒監에 金泳柱씨와 張德秀씨를 각각 임명하였다. 인촌으로서의 전시체제를 갖춘 셈이다. 그때까지는 인촌이 몸소 第一線에서 모진 비바람을 겪어 왔지마는, 이제 인촌으로서는 한계점에 온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副校長은 창피하고 난처한 對總督府關係에서 교장을 대신할 것이요, 生徒監은 勞動動員이네, 학생지도네 하는 굵은 일, 뼈 빠지는 일에 교장을 도와 나설 것이다.

사실 雪山은 貫祿으로 보나, 縣河의 웅변으로 보나, 노고를 사양치 않는 성실한 성격으로 보나 非常時局下의 學生指導를 맡기에 적합한 인물이었다.

그해 6월, 나는 退溪院에 조그만 초가집을 지었다. 명목은 疎開터를 마련한다는 것이었지만 內心은 장차 필요할 은둔처를 장만하는 것이었다.

집 지을 못을 입수할 길이 없어 그때 平壤에서 조그만 제정회사에서 관계하고 있는 金洸鎭군을 찾아가(金君은 벌써 1939년 봄에 普專을 그만두고 있었다) 못 四貫을 얻어 가지고, 못도 통제물자라 남의 눈에 띄지 않도록 서울까지 들고 오던 것도 나로서는 잊혀지지 않는 일이다. 못 四貫이 그렇게 많고 무거운 줄 처음으로 알았다.

내가 집을 짓자 安浩相씨도 내 집 옆에 내 집보다 더 조그만 초가집을 지었다...(中略) ...

식사가 끝난 후 고이소는 이번에는 자기 차례라면서 한 시간 이상이나 조선학생들이 이 전쟁에 총을 메고 나가야 할 이유를 설명하였다. 그리고는 자신만만하게 학생들을 돌아보면서 “어떤가? 그만하면 알아들었겠지? 그래도 이의있나?”

하였다. 학생들은 이의가 없을 리는 만무하였지만 그때의 공기로 차마 무엇이든 입을 떼지 못할 판이었는데, 별안간 李哲承군이

“네, 이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저는 못 알아들겠습니다”

외치고 일어나 두벅두벅 걸어 나갔다는 것이다.

學兵문제에 관해서는 한 가지 더 남겨둘 이야기가 있다. 학병지원소동이 일단락되어 해당학생들이 대부분 학병으로 나가게 되자, 이번에는 모모하는 인사들에게 학병을 격려하는 글을 신문에 쓰라는 명령이 총독부로부터 내려온 것이다. 신문이라야 그때 우리말로 간행되는 것은 總督府기관지인 ‘每日申報’ 하나 뿐이었다.

나한테 그 명령을 전달해온 것은 每日申報 기자인 金秉達군이었다. 金은 日本에서 法文系학생들이 학병으로 끌려나갈 때 학업을 중단하고 돌아와 每日申報 記者로 다니고 있었다.

金의 말에 의하면 執筆者 명단은 경무국에서 직접 人選한 것으로서 金性洙, 宋鎮禹, 呂運亨, 安在鴻, 李光洙, 張德秀, 나와 그밖에 一, 二人이었다. 그때 朝鮮社會에서 영향력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인물을 총망라하다시피 한 것이었다. 모두 나보다 훨씬 年長者들뿐인데 어떻게 해서 내가 그 축에 끼어들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으나, 어쨌든 집필은 경무국의 명령이라는 것을 金은 강조하였다.

나는 어떻게든 쓰겠지만 글을 쓰지 않은 인촌이 문제였다. 金은 벌써 인촌을 만난 모양으로, 인촌의 글은 자기(金)가 代筆하겠다고 하였더니, 정 안 쓸 수 없는 것이라면 代筆은 하되, 쓴 것을 나에게 반드시 보이고 내도록 하라고 인촌이 말씀하였다고 전하였다. 전화로 확인해 보았더니 ‘창피한 글’이나 안되도록 주의해 달라는 인촌의 대답하였다.

같은 말을 해도 즐겨 ‘창피’한 표현을 쓰는 사람이 있다. 기왕 本意 아니게 쓰는 글이니 창피하고 안 창피하고가 어디 있을까마는 그래도 입을 열면 으레 ‘八紘一宇’니 ‘御稜威’니 해가며 과잉충성을 일삼는 사람들이 많은데 仁村은 그러한 ‘창피’를 특히 싫어하였다. 죽어도 더럽게 죽지나 말자는 뜻이었을 것이다. 金이 대신 執筆해온 仁村의 글 아닌 仁村名義의 글을 보니 秀才인 만큼 염려한 것 같은 ‘창피’한 表現은 거의 없는 조출한 글이었다. 나는 ‘朝鮮青年의 入營은 朝鮮人の 힘의 増大다’라는 취지의 글을 써서 仁村 명의를 글과 함께 金군에게 넘겨주었다.

내가 지금 그때 學兵격려문이 나가게 된 경위를 말하고, 특히 仁村명의를 글에 관해서는 진짜 執筆者的 이름까지 밝힌 것은, 그 글 때문에 仁村은 해방 후 심히 부당하고 억울한 비난을 받은 일이 있기 때문이다. 金秉達는 해방 후 左翼에 가담했는데 金 등이 작성해서 그해 九月에 주로 미군기관에 뿌린 Traitors and Patriots라는 팜플렛에는 仁村명의를 그 글이, 해방후 解放의 감격 속에서 行한 呂運亨씨의 연설문과 나란히 실리어, 左翼을 치켜올리고 右翼을 깎아내리는 데 부당하게 악용되었기 때문이다. 굳이 일제하의 글을 사용하였다면 呂씨의 것도 그때 每日申報에 仁村이나 나의 글과 나란히 발표되었던 것을 사용했어야 할 일이 아닌가.

35.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

<中央日報> (1975년 8월 28일)

李 哲 承

古下의 暗殺

反託의 불길이 활활 타올랐던 45년 12월 30일. 朝鮮독립에 앞장섰던 선각자 宋鎮禹선생이 反託

의 시련을 헤쳐나갈 經綸을 펴보지 못한 채 저격범 韓賢宇의 兇彈을 맞고 쓰러졌다.

평소에 古下를 따랐고 저격 이틀전인 28일엔 京橋莊에서 그의 反託戰略을 경청했던 나로서는 저격소식에 눈앞이 캄캄해오는 어둠을 느꼈다.

古下의 暗殺과 관련하여 당시 항간에는 별별 風說이 다 나돌았다.

암살범 韓賢宇의 自白처럼 해방후 政局을 昏迷하게 만든 세사람 - 宋鎮禹.呂運亨.朴憲永 - 으로 지목하여 죽였다는 이야기가 그 하나.

다른 쪽으로는 古下가 '信託統治를 찬성했다' 또는 '3년에서 5년간의 訓政期가 필요하다고 했다'는 말과 이에 따른 誤解, 그리고 共產黨이 민족진영의 훌륭한 政治家인 그를 미리 꺾어버렸다는 說 등이 나돌았다.

다시 상황을 회고해보면 反託의 방법론을 둘러싸고 民族陣營내부에서 異見이 노출됐던 것도 사실이다. 金九主席을 비롯한 臨政측은 反託運動을 '새로운 獨立運動'으로 규정하고 政局을 強硬一邊倒로 몰고가려했다. 美軍政과는 정면으로 맞서 一戰도 不辭하겠다고 나섰다.

이와같은 臨政측의 反託運動 전개와는 대조적으로 李承晚박사나 古下선생의 反託運動 방법은 침착했고 彈力성이 풍부했다. 韓國의 독립을 위해 美國 朝野人士와 오랫동안 접촉해 온 李박사는 美國務省극동국장 빈센트가 韓國의 託治를 누차 공언해온 바 있었으므로 이미 이러한 상황을 예견하고 反託의 효과적 대책을 비교적 차분히 세워왔다.

古下의 경우도 마찬가지.

그것은 '託治反對全國總動員委員會'가 京橋莊에서 열리던 12월 28일 밤 시종 強硬一邊倒로 치닫고 있던 臨政要人들의 主張에 맞서 융통성 있는 對應策을 내세웠던 그의 주장에서 잘 나타났다.

“反託운동은 효과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의 처지에서 아무런 자체적인 힘과 준비도 없이 무조건 美軍政까지를 敵으로 돌리면 蘇聯이나 共產系列은 美軍政을 逆利用해서 一時的 合作으로 나올 것이 분명하다”

古下는 말을 계속했다.

“그렇게 되면 우리 民族陣營은 도리없이 그들의 장기적 統一戰線전략에 말려들어 共產化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古下는 이미 공산주의 전략을 간파하고 있는 듯했다.

나는 古下의 주장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였다.

“美國은 여론의 나라이니 만큼 강력한 운동으로 국민의사를 표시하면 즉시 信託統治정책은 변경될 수 있다”

그는 냉철하고 조리있는 경륜을 밝혔다.

古下는 京橋莊회의를 마치고 그 이튿날 國民大會準備委員會 本部사무실에 나와 任永信.張澤相.尹致暎.元世勳 제씨가 모인 자리에서도 전날 밤의 상황을 보고하면서

“큰일 났어! 反託은 해야겠는데 그들은 美軍政과 정면으로 대결하고 靑心감발로 전국 坊坊曲曲으로 내려가 새로운 獨立운동을 전개한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國內治安과 國外情勢에 대한 效果的 代案은 아니내고서”

하는 등 자기나름의 時局觀을 피력했다.

古下는 彈力性있는 현실대응책과 長技的 眼目を 가진 巨視的 政治人임이 분명했다.

古下선생의 政治度量은 해방후 呂運亨이 建準과 人共을 선포하고 손잡고 일하자고 제의한 것을 거절한 데서도 잘 나타났다. 呂運亨이 '나도 臨政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인물됨과 力量을 잘 아는데 국내에서 고생한 나와 古下만 손잡으면 국민의 뜻에 맞춰 建國을 할 수 있다'는 유혹적인 제의를 한데 대해 도리어 '祖國의 독립만을 위해 기약없이 풍찬노숙한 海外 애국선배를 모셔다가 온 국민이 國民大會를 열고 받들어서 民族과 단결을 세계만방에 과시한 뒤에 그때가서 국민이 臨

政보다 夢陽을 원한다면 나는 온 정성을 다하여 夢陽을 받들겠다'라고 응수했다. 그러면서 古下는 愛國先輩指導者들을 海外에서 還國시키기 위해 美軍政과 적극교섭을 벌였고 끝까지 자기희생을 통해 臨政추대를 주장했다.

古下는 항상 李博士, 金九主席, 그리고 金奎植 박사를 3領袖로 모시고 國內派와 海外派의 團結과 合作을 모색했다. 그래서 國內民族勢力을 규합해 韓民黨을 만들 때도 自己는 스스로 幹事長格인 首席總務에만 머무르고 8道代表 1인씩을 총무로 앉혀 派閥을 떠나 大同協力の 기반위에서 建國의 準備를 마련했다.

하지 中將에게 韓服을 처음으로 준 사람도 古下였다.

어느날 내가 그 이유를 물어보았더니 古下는 "우리의 실정을 모르는 하지가 韓服을 입고 있을 때 우리와 진정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고 대답해 줬다.

그분의 주도면밀한 관찰이 없었던들 하지의 左傾化된 性向을 바로잡지 못했을 것이고 趙炳玉博士를 美軍政의 警務部長에 추천, 공산당의 발호를 막거나 臨政要人을 추방하려고 하였을 때 단호히 설득과 압력을 넣어 사태의 惡化를 막지는 못했을 것이다.

나는 46년 1월 5일 古下선생의 社會葬영결식에 참석해서 그분과의 관계를 회상하면서 그분의 명복을 빌었다.

36. 횡설수설

<東亞日報> (1970.12.30, 15148號)

古下 宋鎮禹선생이 이 세상을 떠난지도 벌써 스물다섯해가 흘렀다. 祖國과 民族이 異民族의 굴레를 벗어나고 國權回復이란 回天大業을 비로소 이루려고 하는 찰라에 선생은 막 그 雄圖와 深謀를 펴려 하다가 殉國의 鮮血을 뿌리고 말았다. 25년전 오늘의 일을 생각하면 이보다도 더 분통스럽고 원한스러운 일은 없을 것이다. 신음하는 民族에게 항상 보여주었던 그 회확대도(恢廓大度)의 아량과 日帝에게 던지시 뿔냈던 그 不屈의 抵抗精神은 날이 갈수록 뒷사람들이 본받아야 할 師表가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왕년에 있어 祖國의 獨立運動을 회고하면 이를 國內派와 國外派란 두 갈래로 나눌 수 있다고 본다. 어느 派나 큰 使命을 띠지 않은 것이 없겠으나 그중에서도 特色을 구태여 가려낸다면 國外派는 異域의 辛酸을 맛보지 않은 것이 없지만, 그래도 한결같이 獨立정신을 지탱할 수 있었다는 長點이 있었다. 그러나 國內의 뜻있는 人士들은 異民族과의 群居를 마다하지 않고 갖은 威脅과 유혹을 뿌리치면서 高潔한 志操와 抵抗精神을 유지하기란 여간 힘겨운 일이 아니었다.

당시 三千萬의 우리 民族에게 뿌리를 박고 길잡이가 되고 등불이 된다는 立場을 지키기는 더욱 어려웠던 것이다. 이렇듯 선생은 名分的인 것보다는 차라리 實利的인 獨立運動을 追求해왔다. 선생은 우리 동포들과 삶을 같이하면서 그 가려운 곳이 있으면 이를 긁어주었고 그 아픈 곳이 있으면 어루만져 주었는가 하면 또 동포들과 울음을 터뜨려야 할 때는 같이 울었고 웃음을 나누어야 할 때는 같이 웃었다. 아마 後世의 史家들이 선생에 대한 一節을 論할 때는 반드시 이 대목을 소홀하게 다룰 수 없을 것이다. 선생은 祖國의 獨立과 함께 그 雄志를 펴지 못했다는 것으로서 過연 좌절의 政治家라고만 불러야 마땅할 것인가. 선생은 57년 간이란 짧은 一生에 불과했지만 선생이 남겨놓은 솔한 逸話와 業績은 아직도 우리들의 窺前을 울리고 있다. 선생의 거룩한 발자취는 역시 民族의 代辯紙였고 啓蒙紙인 東亞日報 社長 재직시에 더욱 빛났던 것이 아닌가 싶다. 日帝가 소위 萬寶山사건을 저질렀을 때 이를 看破한 그 先見의 明, 1925년 汎太平洋會議에 참석한 뒤 本紙에 실린 '世界大勢와 朝鮮의 將來'란 大論說, 李忠武公 유적의 保存운동, 6.10萬歲 때의 獄

中 투쟁 등등에서 선생의 風貌가 歷然하게 드러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本社가 1926년 12월 現 위치에 新社屋을 짓고 이사할 무렵이었다. 그때 선생은 獄中에서 이 소식을 듣고 仁村 金性洙先生에게 다음과 같은 글월과 詩를 지어보냈다. "... 저 외로운 그림자를 벗삼아 嚴寒의 暴威에 저항을 계속할 뿐이오나 다행히 별고 없사오니 안심하옵소서..." "...옥중에 갇힌 몸 밤마다 잠못이루네. 나라근심에 상한 마음 몇몇 해나 쌓였던고"(獄中夜夜不成眠 憂國傷心幾積年) 오늘 선생의 25周忌를 맞아 民族의 巨人을 사모하는 마음 새삼 금할 길이 없다.

37. 自由와 獨立의 權化

- 古下 宋鎮禹先生 25周忌에 부쳐 -

<東亞日報> (1970.12.29)

李 仁

최근사상 우리 근역에 왔다 간 사람이 무수하지만 그중에도 겨레의 품안에 안기고 가장 그리워지는 사람은 古下 宋鎮禹先生이다. 古下는 東京에서 法學을 공부하던 弱冠시절부터 非命으로 돌아가기까지千가지 萬가지가 祖國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살아온 自由와 獨立의 權化였고 겨레로서는 잊어서는 안 될 위대한 巨木이 되었다. 과거를 돌이켜 볼 필요도 없이 앞에 놓인 國內의 情形과 닥쳐올 장래를 바라볼 때 古下가 계셨다면 우리의 가난과辛苦가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一念에서 古下에 대한 그리움은 더해 간다.

古下는 日本유학시절부터 배워야겠고 적을 알아야겠다는 신념으로 살았다. 그래서 古下는 日本유학생들이 조국이 침략됨을 비분강개한 나머지 二百명만이 남고 모두가 떠나간 뒤에도 항상 남아 있는 유학생들에게 主權회복의 의지를 불어넣기 일쑤였다. 그후 中央學校 교장으로 취임한 뒤에는 인재배양에 전력을 기울였고 3.1운동 당시만 해도 막후에서 은밀한 勸導과 막대한 노력으로 3.1운동을 도왔다. 이에 앞서 3.1운동의 前夜작업인 東京 유학생의 2.8사건이 일어난 것도 古下의 평소 사상고취가 열렬했던 점을 상기하면 우연한 일은 아니었다.

古下는 잃은 자유와 주권을 회복키 위해 東亞日報를 創刊, 겨레를 눈뜨게 했다. 東亞日報 창간 뒤 日帝의 탄압은 民族운동의 進원지인 東亞日報로 쏠려 東亞日報는 이유없는 정간 판매금지, 종말에는 폐간의 강권을 당하고 말았다. 그러나 겨레의 가슴속에는 東亞日報와 古下가 사라지지 않았다. 古下는 日帝의 학정이 가혹해지는 가운데도 교육 언론 문화 사회문제 등등에 하루도 자리를 따듯이 할 시간없이 분주했고 동지와 후배 학생 대중의 갈 길과 지침을 지시, 恒道했다. 그래서 民族主義者들은 古下의 주변에서 떠날 날이 없었다.

日帝가 물러가기 직전 古下가 生田清三郎 경기도지사의 治安담당 부탁을 받고 '무조건 항복으로 물러갔으면 물러갔지, 日帝의 뒷날의 韓國치안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부당한 일' 이라고 힐책, 일언지하에 거부했던 일은 이러한 古下의 민족 정기를 잘 보여준 일이었다.

해방이 되던 날 日帝의 탄압으로 방방곡곡에 散在, 숨어있던 애국지사들 百여명이 약속이나 한 듯 古下의 집으로 雲集했다. 그러나 그들은 해방의 기쁨을 나누기보다는 오히려 앞으로의 建國방향을 논의, 國會창설을 위한 國民議會 준비대회 준비에 분망했다. 나와 趙炳玉 白寬洙 元世勳씨 등이 주동이 되어 창당된 韓國民主黨은 古下를 위원장으로 추대, 古下는 더욱 建國작업에 몰두했다. 그 결과 공산세력과 建準세력은 격파되고 自由民主사상이 고취되어 民主共和國인 大韓民國창건의 盤石이 굳어졌다. 자손만대까지 自由民主로 일관토록 만든 것은 오로지 古下의 遺訓과 遺澤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던 古下가 25년 전 경교장에서 원서동 自宅로 돌아온 후 12월 30일 새벽 1개 폭한의 흉탄에 쓰러지고 말았으니 古下는 民族統攝의 大業을 이룩하지 못한 채 千古의 恨을 품고 숨지고 만 것이다. 古下가 가셨을 때 暗夜에 등화를 잃고 一朝에 民族의 恒道者를 잃어버린 겨레의 슬픔이 南北을 통틀어 江山에 가득했다. 25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民族統攝은 달성되지 못하고 北傀의 준동은 계속되고 있으니 古下에 대한 아쉬움은 금할 길이 없다. 지금 비록 民族統攝은 안됐다 해도 古下는 해방전후를 통해 民族的 不滅의 업적을 남기셨음에 이는 民族史上 白日貫虹이라 아니 할 수 없다.

38. 제1차 천장후 묘비제막식 式辭모음

(1) 式辭

古下 宋鎮禹先生 遷葬推進委員長 崔斗善

古下 宋鎮禹先生의 墓所를 이 자리에 옮기고 先生의 가장 親近하던 벗들과 先生을 崇仰하던 後學들이 敬愛의 徵表로 墓碑를 세워 오늘 여기서 除幕을 보게 되니 億萬가지 感懷를 누를 길이 없습니다.

先生은 1890년 5월 8일 全南 潭陽의 古比山下에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四年後에는 淸日戰爭이 일어났고 그로부터 다시 10年後에는 露日戰爭이 일어났습니다. 祖國은 列強의 角逐場으로부터 日本의 獨舞台로 轉落하여 亡國의 날은 刻一刻으로 다가서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韓日合併을 맞은 것은 先生이 滿 20歲되던 1910년이었습니다. 當時 日本에 留學中이던 青年 古下先生에게 이것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던가는 想像하고도 남음이 있겠습니다.

風雲속에서 태어난 古下의 一生은 그대로 가시밭길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故國에 돌아온 先生은 故 仁村 金性洙先生을 비롯하여 뜻을 같이하는 志士들과 힘을 합하여 人材養成에 젊은 情熱을 바쳤고 學生을 組織하여 民族魂을 鼓吹함으로써 後日 3.1運動에 重要한 一翼을 담당하였습니다.

遠大한 眼目으로 創刊된 民族紙 東亞日報를 두 어깨에 걸머지고 日帝 監獄을 無常出入하면서 民衆의 覺醒과 啓蒙에 主力하였습니다. 타고난 政治家로서의 先生은 世界大勢를 洞察하는 卓越한 眼識이 있어 20年代 이미 우리나라 獨立의 不可避性을 強調하였던 것입니다.

先生은 또한 보기 드문 樂天家였습니다. 明日에 대한 確固한 信念에서 우리나라 樂天性은 當時 暗黑의 구렁에서 헤매던 온 民衆에게 希望의 등대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絶望에서 오히려 光明을 찾은 先生은 글자 그대로 우리 民族의 先覺者였습니다.

先生은 天性으로 타고난 指導者이기도 하였습니다. 氣宇가 高大하고 無言中에 사람을 魅惑하고 이끌어가는 힘의 所有者였습니다. 先生의 膝下에서 奉仕한 人士들은 한결같이 그 넓은 度量과 指導力에 悅服하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先生이 그렇게도 渴求하고 苦待하던 解放이 왔을 때 우리는 모두 오로지 기쁨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先生만은 이 기쁨 속에서도 冷徹히 情勢를 把握하고 앞을 내다보는 明이 있었으며 混亂에 對處할 方案을 綿密히 檢討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해 12월 30일 새벽 뜻하지 않은 同族의 兇彈에 맞아 온 民族이 아끼고 崇尚하던 이 巨人은 千秋의 恨을 품은 채 波瀾 많은 一生에 幕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先生이 가신지 20년 그동안의 有爲轉變은 이루 말할 수 없고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先生이 계시지 않음을 안타까워하고 先生의 知慧와 勇斷과 指導力을 그리면서 오늘에 이르

렸습니다. 하늘이 古下에게 좀 더 壽를 누리게 하였던들 우리 歷史는 많이 달라졌으리라는 것은 많은 人士들이 認定하는 事實입니다.

先生이 나라를 사랑하고 겨레를 아끼던 至誠은 九泉에서도 變할 까닭이 없습니다. 忘憂里에서 이곳 新亭里로 옮긴 先生의 幽宅 여기 芝香山 기슭 양지 바른 언덕에서 古下 宋鎮禹先生은 祖國이 걸어가는 한걸음 한걸음을 永遠히 지켜보실 것입니다.

先生의 冥福을 빌어 마지않습니다.

(2) 追 念 辭

新民黨 代表委員 兪 鎮 午

古下 宋鎮禹 先生이 가신지 於焉 二十有二年. 그동안 忘憂里 초라한 幽宅에 계시던 先生의 遺骸를 有志들의 盡力으로 이곳에 遷葬하고 오늘 墓碑除幕式을 올리게 되오니 在天의 英靈도 이제는 永久히 安住의 地를 얻으셨거니와 先生의 遺德을 追慕하는 겨레의 가슴에도 또한 安堵의 感이 들을 느끼겠습니다.

民族이 外賊의 鐵蹄下에 呻吟하던 三十六年동안 先生이 民族의 先頭에서 燈불이되고 棟樑이 되어 惡戰苦鬪하신 일은 지금 온겨레가 다 알고 있는 바입니다마는 先生은 事實 一身을 祖國에 바치기 위해 이 世上에 태어나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祖國의 運命이 累卵의 危機에 處해있던 一八九〇年에 태어나신 先生은 一九歲의 青年으로 救國의 大志를 품고 一生의 同志 仁村 金性洙先生과 함께 日本留學의 길에 오르셨다가 不過 二年만에 庚戌 國恥를 당하셨으니 그때에 悲痛하셨던 先生의 心情은 짐작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마는 그때 先生께서 決然히 積極的 救國의 길을 擇하신 것은 생각할수록 머리가 숙여지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祖國의 悲運과 함께 스스로 貴重한 生命을 끊거나 祖國을 등지고 海外로 떠나신 義人烈士의 거룩한 精神도 百世의 敎訓이 될 것입니다마는 屈辱과 絶望과 無智와 貧困속에 헤매는 겨레의 품안으로 뛰어들어 모든 苦難을 겨레와 함께 겪어가면서 한편으로는 日帝의 壓迫에 抗拒하고 한편으로는 겨레의 前進를 爲해 피와 진흙투성이의 鬪爭을 繼續한다는 것은 愛國의 熱血以上으로 不屈의 鬪志와 不撓의 忍耐와 그리고 遠大한 經綸이 없이는 不可能한 일입니다.

先生은 普通사람으로는 不可能한 이 길을 擇하시고 그 길 하나로 日帝 三十六年間을 一貫해 나 오셨으니 先生의 그 偉大한 足跡은 다른 어느 先烈의 그것보다도 特異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己未獨立運動을 計劃組織하시고 東亞日報의 總帥로 民族精神을 代辯 鼓吹하는 동안 屢次의 獄苦를 介意치 않고 가시발길을 헤쳐나가신 것은 先生께 있어서는 처음부터 豫定되었던 일이나 다름없게 생각됩니다.

解放이 되자 衆望을 지고 先生이 建國創業의 거창한 業務외 中心에 서시게 된 것은 事理의 必然的인 歸結이었습니다마는 아깝게도 先生은 그 強靱한 鬪志와 遠大한 抱負를 펴볼 機會를 미처 잡기 前에 暴漢의 兇彈으로 世上을 떠나셨으니 이 무슨 運命의 作戲였습니까.

先生의 一生은 봄부터 여름을 통해 갖은 勞苦와 근심걱정을 다 겪어가면서 精誠들여 農事를 지은 農民이 打作 前夜에 갑자기 世上을 떠나버린 境遇에도 比할 것입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어데 또 있겠습니까.

先生이 가신지 이미 二十有餘年이 지났습니다마는 우리 겨레는 아직도 先生의 큰 뜻을 제대로 實現시키지 못하고 있으니 이것은 또한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國土가 兩斷될 줄 先生은 夢想도 안하였을 것입니다마는 우리는 아직도 國土統一을 이룩하지 못하고 있고 南韓에나마 自主自由의 獨立政府를 세우노라 해보았습니다마는 그것마저 제대로 運營되지 않아 지금 이 時刻에도 이 나라의 民主憲政은 올바른 軌道위에 서있지 못한 것이 오늘의

現實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며는 우리는 先生의 墓前에 얼굴을 들고 서 있을 수도 없는 形便입니다.

아! 古下 宋鎮禹先生, 先生이 좀 더 長壽하셨더라면 解放後의 歷史는 좀더 달라졌을 것이고 따라서 오늘 우리가 處해 있는 處地도 좀더 달랐을 것이 아닙니까. 못난 後輩들이 어려울 때를 당할 때마다 偉大한 先輩를 한층 더 追慕하는 우리의 衷情만은 살피 주시옵소서.

有志 몇분의 熱誠으로 오늘 이렇게 英靈이 길이 잠드실 安宅이나마 갖추어 드리게 된 것으로 겨우 自慰를 삼고저 하오며 이 이상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3) 追 念 辭

柳 光 烈

故 古下宋鎮禹先生 墓碑除幕式에 臨하여 數言의 蕪辭로 追念의 辭를 드리나이다.

先生은 1890년 庚寅 5월 8일에 全南 潭陽 巽谷里에서 나시어 1945年 乙酉 12月 30日에 刺客의 兇彈에 넘어지기까지 56歲의 一生은 實로 波瀾많은 一生이었습니다.

先生이 세상에 나시던 해는 아직도 女眞族 清朝에서 보낸 袁世凱가 이 나라 內政까지 干涉하던 중에도 오히려 나라의 自主權을 守護하려고 애쓰던 때이었습니다.

先生의 다섯살 때에 淸日戰爭이 일어나서 東洋의 정세가 한번 변하고 선생이 열다섯 되던 해에 일어난 露日戰爭에 日本이 이기고 그 이듬해에 日本은 所謂 韓日五條約으로 우리의 主權을 強奪하자 우리 全國民은 救國運動을 일으켰습니다. 이때 先生은 義舉하던 志士들에게 글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1908年 19歲이던 先生은 그때 志士들의 悲憤慷慨와 保守的인 抗日만으로는 救國이 어려움을 깨닫고 平生의 道義之交인 金性洙先生과 함께 日本留學을 떠났으니 “敵을 制하려면 먼저 敵을 알아야 한다”는 大志에서였습니다.

東京留學中에 學友會에서 發行하던 ‘學之光’에 우리 一部の 尊華思想을 痛駁한 글은 그때의 우리 儒林 碩學들에게 많은 衝擊을 주었고 그때에 國民輿論을 兩分한 觀을 이루었던 바입니다.

先生과 仁村先生이 1915年에 大學을 마치고 形影相隨로 故國에 돌아오자 먼저 教育救國을 생각하고 白山學校를 세우려 하였으나 그 이듬해에 財政難이던 中央學校를 맡아서 經營하게 되었으니 때는 正히 第1次世界大戰이 方酣하던 때입니다.

그때에 서울에는 六堂先生의 光文會와 中央學校 宿直室은 古下, 仁村, 幾堂 玄相允 等 青年志士들을 中心으로 한 愛國運動의 牙城이었던 것입니다.

果然, 이 두 牙城은 史上 曠古의 舉族的 運動인 3.1運動의 產室로서 登場하였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先生은 48인의 한분으로 囹圄의 몸이 되어 獄苦를 겪으셨습니다.

1921년에 先生은 東亞日報의 株式會社 成立과 함께 社長으로 就任하여 日帝의 牛毛같은 干涉, 때로는 親日惡黨들의 迫害 또는 그때 한창 初期의 共產主義가 휩쓸 때이라 이와 對決로 艱難이 뒤를 이었으나 先生은 곳곳이 民族의 大義를 지키면서 안으로 產業과 教育으로 民族的 基礎를 세우고 밖으로는 在外同胞慰問과 汎太平洋會議出席으로 孜孜히 쉬지 않았습니다.

先生은 恒常 先見의 明으로 앞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때 革命後, 얼마 안된 蘇聯의 情勢를 分析하여 이것이 일찍이 歐洲에서의 佛蘭西革命이 各國에 影響을 미치듯이 世界에 影響을 미치어서 우리의 將來에도 巨患이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1931년에 日帝의 滿洲侵略, 1937년에 中日全面戰爭이 일어난 후로 先生은 日帝가 반듯이 亡할 것을 豫言하였습니다.

先生은 日帝의 迫害中에서도 東亞를 固守하면서도 民族의 據點을 삼으려는 新聞을 繼續하는 중

에 4次の 無期停刊과 함께 數次の 獄苦도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斷末魔의 日帝는 太平洋戰爭을 앞두고 마침내 1940년 8월에 東亞日報를 廢刊시켰습니다. 이때에도 先生은 總督府와의 對決보다 日本의 中央政治家들과 그 無理를 詰難하다가 그 關係로 囹圄의 苦楚를 겪으신 일도 있습니다.

8.15에 日本의 無條件降伏과 함께 총독부는 선생에게 정권말기를 哀願하였으나 先生은 “政權을 너에게서 넘겨받을 것이 아니라”고 斷呼히 拒否하고 韓國民主黨을 結成하여 그 首席總務에 推戴되고 國民大會의 召集으로 民意에 依한 自主政權樹立을 推進하였던 것입니다.

모스크바 三相會議로 四國信託統治問題가 일어나자 先生은 그 反託運動은 舉族的으로 하되 그 方法으로는 美軍政과 正面對立을 避하자는 正論을 폈던 것입니다.

이 暴風雨같은 混亂中에 刺客의 兇彈은 先生을 壯途未半에 넘어뜨린 것입니다.

先生은 平素에 先輩를 尊敬하여 特히 李商在, 李昇薰 두 先生을 父兄같이 받들고 後輩에게는 和氣와 情感이 自別하였던 바입니다.

1923년 제가 上海에 가 있을 때에 社內에서 漢江邊에 祝宴이 있었는데 “그대가 없어서 섭섭하였다”고 長文의 편지를 주시고 社內, 社外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저의 寓居를 찾으면서 諒諒히 相議하시던 정다운 모습이 어제같이 뵈옵는 듯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纖細한 感情을 지니신 先生도 한번 大義를 위하여 主張을 내세울 때는 千萬人의 말에도 動하지 않는 毅然한 態度이시었습니다.

아! 말은 限이 있으되 情은 限이 없습니다. 二十餘年前 先生의 長逝를 回顧하니 先生이 즐겨 들려주시던 杜甫가 諸葛亮를 追念한 ‘長使英雄淚滿襟’의 詩句가 새삼 생각에 새롭습니다.

이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 先生의 碑文의 글자는 風雨에 사라지는 날이 있을지라도 이 나라 史上에 끼친 先生의 功績은 永遠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4) 追念辭

中央高等學校長 崔 炯 鍊

國運이 기울어 奇恥와 大辱으로 民生이 暗澹할 때 國光을 일으키고 民衆으로 하여금 矜持와 勇力을 일깨운 先烈과 志士가 어찌 한 두 분이시겠습니까마는 오늘 여기 幽宅에 모신 古下 先生께서는 永遠히 빛나고 熱烈한 巨迹이 많으셨으니 先生을 追慕하여 끊이지 않는 感懷가 深遠하옵고, 더욱 肅然함을 느끼게 합니다. 先生께서 生涯를 通하여 守義孤高하시던 衷情과 至純高潔한 行蹟은 이미 滿天下에 顯著한 바이므로 小生의 追念으로 미칠 바 아니오나, 先生께서 隆熙.庚戌의 國難에 즈음하여 깊은 衝擊과 激昂한 慷慨에 잠기시고 一念으로 國威의 恢復을 念願하시어 民族精氣와 獨立思想을 鼓吹培養함에 鬱然한 熱血을 傾注하시었고, 光復後 他界하시는 날까지 秋毫의 私念이 없는 公憤과 義氣로써 國家民族의 前程을 爲하여 獻身하신 바 至極하시니 이에 온 거래는 眞心으로 俯伏하여 그의 至誠을 仰慕하는 바입니다. 先生께서는 世亂을 克服하시고 危機를 救出하심에 義人으로서의 節操와 難事를 剔抉하는 明哲한 經綸을 兼備하셨다고 하며, 獨立의 達成과 國力을 伸張함에는 教育과 言論과 産業을 振作함에 있다고 看破하시고, 日本에서 弱冠에 學業을 마치신 뒤, 于先 教育에 投身하시고자, 同學이시고 知己이시던 仁村 金性洙先生과 中央學校를 引受經營하시게 되어, 難境에 處하였던 中央學校를 盤石의 터전에 놓아, 民族學校로서의 面目을 完成하였으니 그의 理念이야말로 仁村 先生님과 더불어 爲國竭力하는 民族의 正道를 涵養하셨음이야 再言을 要치 않을 것입니다. 仁村 先生님과 의會는 平生을 通하여 如一하였을 뿐 아니라, 國難을 開除하시려는 志氣마저 渾然하여, 中央學校 在職中, 몇몇 분이 宿直室에서 宿食을 같이 하시며 때마침 澎湃하던 民族의 鬱憤을 切感하신 나머지, 3.1運動이란 民族의인 抗拒를 直接 劃策하시

고, 先導하신 것은 이미 獨立運動史上에 燦然히 表徵된 바입니다. 仁村 先生님과 幾堂 玄相允先生님과 자리를 같이하여 熟議를 거듭하신 끝에, 天道敎.基督敎를 비롯한 各敎界와 國內外, 全民族의 總一的 意志를 糾合함에 成功하시게 되자, 跳梁하는 倭寇에 必死的 抗爭을 敢行하는 民族運動의 先鋒에서 左援右應하는 先導的 役割을 다하시어, 마침내, 거창한 민족蜂起로서 天地가 振動하니, 바로 이것은 民族正氣의 嚴存함을 闡明함이요, 이로써 滅敵의 烈을 밝히어, 光復의 曙光을 天下에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爾來 半世紀에 걸친 抗日鬪爭을 通하여 筆鋒을 높이 들어 倭帝의 抑壓과 虐政을 痛駁하시거나, 衆論을 이끌어 民意의 衝天함을 代辯하실 제, 그 不屈의 鬪志와 剛果한 氣慨를 이제 와 敢히 뒤 追從하겠습니까.

나라가 어지럽고 風浪이 드높으니 先生님과 같은 熱情과 正義의 志士가 더욱 欽慕됩니다. 先生님 가신지 스무해에 그 遺業을 이은 우리가 垂成의 大業을 完遂하여 國家民族의 繁榮과 慶福을 靈前에 告함이 마땅하오나, 여기 그 志操와 經綸을 이을 이가 적어 그를 完成치 못한 채 先生님의 遺訓을 다시 마음에 새길 뿐이오니, 이에 끼치는 悚懼하움은 가이 限量없습니다.

先生님을 이 幽宅에 모시는 자리웁기에, 生前에 우러러 뵈던 想思가 더욱 새로워, 오히려 슬프고, 아쉽고, 그리운 마음 懇切하오나, 在天하시는 先生님은 그 至高하신 義志와 不屈의 氣慨를 모든 國民들에게 드리우사 國家의 泰安과 民生의 福祉를 맞이하여 三千萬의 祈望이 하루 速히 이루어지도록 來來 돌보아 주소서.

삼가 靈前에 告하나이다.

(5) 횡설수설

<東亞日報> (1967.10.21)

한 나라에 잘되는 時代가 닥쳐올 때는 多士濟濟, 人材들이 구름같이 쏟아져 나온다. 나라가 잘 되고 보니 그것을 擔當해온 人樑감으로 보이는 것인지도 모른다. ◇ 東洋에서 일찍이 自主的인 近代化革命을 遂行한 唯一한 나라인 日本을 보더라도, 그들의 市民革命이라 할 수 있는 明治維新을 前後하여 人材들이 그야말로 구름같다. 어떤 이가 이런 假想을 해 본 것을 읽은 記憶이 있다. -- 만일 幕府末 明治初외 그 술한 人材를 한 平面에 놓고 組閣을 해 본다면 어떻게 될까 한다면, 首相에는 維新前에 橫死한 藤田東湖를 앉힐 것이라고 했다.

'水戶'學이라 불리던 日本 國學의 이 巨匠은 學者로서만이 아니라 經綸家로서의 커리어도 대단했던 모양이다. ◇ 우연히 옛날 '東光'誌를 들춰보다가 그 1931年 1月號에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 것을 發見했다. 당시의 人士들을 網羅해서 新聞社를 하나 새로 꾸며보면 어떤 陣容이 될까하는 想像下에 당시의 '東亞' '朝鮮' '中央' '每日' 各紙 記者 約 50名의 投票를 얻어본 것이다. 그 結果는 '現記者 及 前記者를 總括'한 '新聞人內閣'을 만든다면 社長감에 尹致昊.宋鎮禹.安在鴻이라 했고, '全혀 新聞에 關係 안해본 이'로 '外人內閣'을 만든다면 社長감에 呂運亨.安昌浩라 했다. ◇ 말이 新聞社長감이지, 總督府治下의 그 雜誌編輯者의 意圖는 바로 大統領감이나 首相감을 念頭에 둔 것일 것이다. 이 가운데, 어떤 이는 일찍 갔고, 어떤 이는 日政末에 總督府의 시달림으로 民衆의 信賴를 저버렸고, 어떤 이는 解放後의 路線이 民族의 期待를 저버렸다. ◇ 지난 20일 古下 宋鎮禹선생의 遷葬된 墓所에서 墓碑除幕式이 있었다. 解放되던 그해 12월 난데없는 信託統治說로 全國이 발각 뒤집혔던 그 渦中에서 兇彈을 맞고 쓰러진 뒤 20餘年만인 昨年 겨울, 원래의 幽宅이었던 忘憂里로부터 永登浦區 新亭洞으로 옮긴 것이다. 鄭寅普선생의 撰으로 된 墓碑原文 첫머리에 '世亂之久 士患不自樹 卽矜於節 又鮮克以幹獻濟 其兼而具者 以普朋遊 有古下宋君'(세상 어지러움이 오랄수록 선비는 스스로 바로서지 못할까 근심하여 節操로 자랑을 삼으나 능히 經綸으로써 大事를 이루는 이 적은데 이 節操와 經綸을 兼備한 이로 내 親舊에 古下 宋君이 있다)고 했다. ◇

節操와 經綸, 指導者로서의 要件을 한마디로 꿰어 뚫은 말이다. 解放이 되고 民族主義 勢力이 集結될 때 衆望이 古下先生에게 그 首領되기를 願했던 것도 바로 이 節操와 經綸에 대한 期待였을 것이다. 이 集結體에 羅列된 구름같은 人士들을 훑어보면 解放後 심지어 오늘날까지의 우리 政治가 바로 여기를 最大의 淵叢으로 삼았음을 直感케 한다. 그 指導力을 정작 獨立된 내 나라에서 펴보지 못한 것이 恨스럽지만, 古下先生은 과연 一代의 巨人이었다.

39. 古下 銅像 除幕式의 式辭集

(1) 古下 宋鎮禹先生 銅像 除幕式을 가지며

1983년 9월 23일

銅像建立委員會 위원장 俞 鎮 午

평생을 항일 反共民主鬪爭에 몸바치신 古下 宋鎮禹先生의 유지를 전승하고자 銅像建立委員會가 발기된지 반년만에 선생의 동상제막식을 거행하게 되니 실로 감격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고하 선생의 동상건립에 관한 소식이 보도되자 경향각지에서는 물론 해외에서까지 각계각층에서 뜻있는 인사들이 물심양면으로 지대한 성원과 지도를 해주셔서 오늘 선생의 동상을 제막하게 되었음은 실로 흐뭇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선 이 뜻깊은 일이 이처럼 결실된 데 대하여 국민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고하 선생은 구한말에 출생하시어 친구학문을 닦으신 후 中央學校 校長으로서 3.1운동의 조직과 전개에 모체가 되어 靑史에 빛나는 回天大業의 구국운동과 민족정신 양양의 일대계기를 만드셨고 동아일보가 창간된 후에는 인촌 김성수 선생과 함께 이를 이끌고 일제 암흑기에 국내에 우뚝 서서 이 겨레와 강토를 수호한 대표적 민족지도자이십니다. 이 시기에 선생은 민족교육 민족언론 민족문화 및 민족상업의 기반을 다지면서 즐기치게 민립대학 건립운동 물산장려운동.선열유족보존운동.문맹퇴치운동.한글맞춤법보급운동.과학 및 체육진흥사업 등 각종 계몽운동과 민족정기 함양을 위한 투쟁을 주도하시었고, 1931년 한.중 양민족을 이간하려고 일제가 조작한 저 만보산 사건 때에는 결연히 민족의 선두에 서서 민중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여 한.중 양민족간의 우호에 손상됨이 없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만주에 사는 우리 동포를 위기에서 구출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선생이 앞장서서 추진하신 재외동포 위문 및 독립군과 애국지사의 지원 등은 모두가 오늘날 발전된 조국이 있게 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8.15 해방 수일전 전후 4차에 걸쳐 일제의 政權移讓 제의를 받자 선생은 민족자결의 원칙을 고집하여 이를 단호히 거부하고 해방을 맞아 한국민주당을 領導하면서 광복조국의 공산화를 봉쇄하고 신탁통치반대대책의 수립에 奔走하시던 중 반민족적 폭력배의 저격으로 항일독립과 반공민주로 일관된 생애를 마치셨으니 해방의 기쁨이 위대한 지도자를 잃은 슬픔으로 바뀌어 민족을 嗚咽케 하였습니다. 선생의 그 굳은 지조, 웅대한 포부, 역사의 進運에 대한 탁월한 洞察力과 애국정신은 그분의 업적과 함께 우리 민족으로서 언제나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생이 가신지 38년만에 그 어른의 동상을 이 어린이 대공원에 세워 뒤를 잇는 세대에게 선생의 정신을 전하여 민족중흥과 조국 발전의 지표로 삼고자 합니다.

(2) 追 慕 辭

1983년 9월 23일

오늘 古下 宋鎮禹先生의 동상을 제막함에 즈음하여 추념의 말씀을 드리게 되니 깊은 감회를 금할 길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곳 어린이 대공원에 선생의 동상을 세워 자라나는 後進들에게 선생의 빛나는 위업을 길이 전할 수 있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은 일로 생각합니다.

고하 선생이 우리 민족에게 남기신 업적과 교훈을 이 자리에서 모두 열거할 수도 없고 몇가지만 간추려 추념해보고자 합니다.

고하 선생은 일제 36년간 敵治下에 국내에 남아서 숭한 고난을 당하시면서 민족의 진로를 개척 하셨습니다.

우리 항일투쟁사에 빛나는 전환점을 이룬 3.1운동 때에는 당시의 국내정세로 보아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각종 교육단체간의 제휴단결을 이룩하여 민족대동의 旗幟아래 항일투쟁을 할 수 있게 하는 데에 결정적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 다름아닌 그 분이었습니다.

고하 선생은 바로 이 때문에 옥고를 치르신 후 1921년부터 일생의 盟友인 仁村 金性洙 先生과 함께 동아일보를 이끌어 가면서 국내외에서 일제의 압박에 시달리던 우리 민족에게 부단히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셨습니다. 선생은 1940년 동아일보가 일제에 의하여 강제폐간될 때까지 4차의 무기정간과 一千餘回の 압수 삭제 발매금지 등 실로 형언할 수 없는 가시밭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사이 고하선생은 민족의 얼을 일깨우고 역사를 바로잡기 위하여 이충무공의 유적보존운동을 일으켜 牙山의 顯忠祠와 閑山島의 制勝堂을 重修하였고 행주에 있는 권율 장군의 紀功祠도 중건 하였습니다.

1931년 일제가 만주사변의 一前奏曲으로서 한민족과 중국인 사이를 이간시키려고 萬寶山事件을 조작해서 허다한 화교의 인명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발생케 했을 때 선생은 이것이 일본의 간악한 모략일 것임을 남달리 먼저 간파하고 연일 동아일보를 통하여 한국민중의 이성회복과 對中國人 활동중지를 호소하는 한편 在韓華僑에게 따뜻한 위문품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국내의 이러한 조치로 말미암아 60萬이 넘는 滿洲居留 동포들에게 닥쳐올 중국인의 보복위기를 모면할 수 있게 하였던 것입니다.

선생은 또 당시 고등 및 전문학생들을 동원하여 문맹타파 운동을 벌여 국어보급에 盡力하였을 뿐만 아니라 朝鮮語學會의 新綴字法을 동아일보에서 채용하여 한글 발전의 큰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1940년 8월 동아일보가 폐간된 후에는 稱病을 하고 일체 출입을 하지 않았으며 일제의 패망직 전에는 총독부로부터 치안유지 등의 통치권한까지 맡기겠다는 교섭을 수차 받았으나 선생은 이것을 단호하게 거절하였습니다. 권한을 넘겨줄 자격이 없는 패망자 일제의 손에서 무슨 권한을 받겠느냐는 것입니다. 고하 선생의 굳은 지조와 높은 기개를 뚜렷하게 나타내주는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千辛萬苦 끝에 해방을 맞게 되자 국내상황은 광복의 기쁨에 들떠 안정과 질서를 잃고 있었으며 이 기회를 틈타 공산계열과 여기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환란을 조장했던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일입니다.

이런 속에서도 고하 선생은 3.1운동의 법통을 이은 임시정부와 기타 외지에서 망명생활을 하고 있던 지사들의 귀국을 기다려 이들을 환영하는 國民大會準備會를 결성하고 한편 自由民主陣營 각파의 애국지사를 규합하여 韓國民主黨을 조직하고 그 수석총무가 되셨습니다. 이 한국민주당이 앞장서서 對共產鬭爭을 전개한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1945년이 저물어갈 무렵 모스크바 三相會議가 한국을 信託統治한다는 발표를 하자 이를 거부하고 反託運動 등 대책마련에 勞心하다가 반민족적 暴力徒輩의 흉탄에 殞命하셨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참으로 아쉽고 통탄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고하 선생이 좀더 생존하셨더라면 그분의 역량과 지도력을 미루어 보다 크고 많은 업적을 이 나라에 남기셨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고하 선생이 가신지 38년, 선생을 흠모하는 국내외 인사들이 뜻과 성금을 모아 이제야 선생의 동상을 세우게 된 것이 비록 晚時之歎은 있으나 이 동상을 통하여 선생의 유지가 자손만대에 거울이 되어 비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삼가 고하 선생의 명복을 빕니다.

(3) 祝 辭

1983년 9월 23일

國務總理 金 相 浹

우리 모두가 존경하고 추모해온 민족지도자이신 古下 宋鎮禹 先生の 동상을 오늘 이곳 어린이 대공원에 모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축하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선생은 韓末 국운이 위태로울 때 이땅에 태어나시어 한평생 항일 반공의 정신으로 나라의 自主 獨立과 民主發展을 위하여 신명을 바치셨습니다.

선생은 일찍이 民族.民主.民生.民文主義를 구국의 기본사상으로 삼고 일제치하에서 온갖 박해와 옥고를 겪으면서 민족의 독립투쟁을 주도하셨고 언론, 산업, 교육, 문화활동 등을 통하여 독립을 위한 민족의 힘과 열을 기르셨습니다.

광복후에는 국내외의 국민역량을 총집결하여 공산주의자들의 赤化劃策을 물리치고 이 강토위에 자유민주국가를 건설하는 터전을 닦아나가시던 중 불의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선생은 특히 역사발전과 민족진운에 대한 예리한 洞察力과 투철한 신념을 갖고 나라 위한 모든 일에 선각자로서의 지혜와 용기를 십분 발휘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선생의 높으신 유지를 받들어 민주독립국가의 기반을 튼튼히 하고 그 위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의 균형된 성숙.발전을 이룩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를 향하여 부끄럽지 않을 만큼 국력이 크게 신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국토는 여전히 남북으로 분단된 채 선생께서 걱정하시던 공산주의자들의 위협과 蠢動이 계속되고 있어 조국통일과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결의와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야겠습니다.

선생의 거룩하신 애국정신과 赫赫한 공적은 우리 앞길에 등불이 되어 길이 빛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동상을 우러러 볼 때마다 선생의 곳곳한 기상과 크신 유덕을 가슴속에 되새기며 보다 자랑스러운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우리의 각오를 가다듬어 나갈 것입니다.

이 동상건설을 위해 애써주신 尹潛善 명예회장, 兪鎮午 위원장을 비롯한 각계 유지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4) 關係記事 - 古下 宋鎮禹先生 銅像 國民성금으로 세우다.

<東友> 1983년 10월호

9월 23일 어린이 대공원서 1000여명 참석

抗日反共指導者 本社社長 세차례, 서거후 38년만에 銅像除幕式 성대

抗日反共民族指導者이시며 세차례에 걸쳐 本社 사장을 역임하시다가 8.15해방 직후의 혼란기에 反民族的 兇漢들의 저격으로 서거하신 古下 宋鎮禹先生의 銅像이 국민들의 뜨거운 성금으로 세워져 作故 38년만인 지난 9월 23일 오후 2시 서울 城東區 陵洞 어린이大公園 수영장옆 잔디광장에서 성대한 제막식이 거행되었다.

尹潽善 兪鎮午 蔡汶植 金相浹 李熙昇 金容完 金相万회장 참석

이날 제막식에는 尹潽善 전대통령을 비롯하여 蔡汶植 국회의장.金相浹 국무총리.高在淸 국회의장 등 3부요인과 兪鎮午 동상건립위원장.高在珽 건립위원회 부위원장.金容完 경방명예회장.전본사사장이며 국어학자인 李熙昇 박사.金相万 본사명예회장.金相琪 본사 회장.吳在環 본사 사장.宋英洙 본사 감사(宋鎮禹선생의 장남).金聖培 서울시장 등 각계인사와 시민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제막식에서 兪鎮午 건립위원장은 식사를 통해 “平생을 抗日反共民主鬪爭에 몸바치신 古下 宋鎮禹先生의 遺志를 전승하고자 銅像建立委員會가 발기된지 반년만에 선생의 銅像除幕式을 거행하게 되니 실로 감격함을 금할 수 없다. 古下先生의 銅像建立에 관한 소식이 보도되자 京鄕各地에서는 물론 海外에서까지 각계각층에서 뜻있는 인사들이 物心兩面으로 지대한 성원과 지도를 해주셔서 오늘 先生의 銅像을 제막하게 되었음은 실로 흐뭇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선 이 뜻깊은 일이 이처럼 결실된 데 대하여 국민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라고 말했다.

古下를 民族中興의 指標로 삼자

그는 이어 宋鎮禹선생의 위대한 抗日反共民主鬪爭 업적을 간략히 소개한 다음 “古下는 抗日反共民主鬪爭에 평생을 몸바치셨고 특히 東亞日報가 창간된 후 仁村 金性洙선생과 함께 民族言論 民族教育 民族文化 民族産業의 발전을 위해 진력, 오늘날 발전된 조국이 있게 되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先生의 그 굳은 志操, 웅대한 抱負, 歷史의 進運에 대한 탁월한 洞察力과 愛國精神은 그분의 업적과 함께 우리 민족으로서 언제나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선생이 가신지 38년만에 그 어른의 동상을 이 어린이大公園에 세워 뒤를 잇는 세대에게 선생의 정신을 전하여 民族中興과 祖國發展의 指標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高在珽 동상건립부위원장의 경과보고와 金相万 본사명예회장의 古下선생 약력보고에 이어 참석요인과 유족에 의해 동상이 제막되었다.

3.1運動 民族團結에 決定的 역할

이어 尹潽善 동상건립위원회 명예위원장은 추념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추모했다. “古下先生은 日帝 36년간 敵治下에 국내에 남아서 숭한 고난을 당하시면서 민족의 進路를 개척하셨다. 우리 抗日鬪爭史에 빛나는 전환점을 이룬 3.1運動 때에는 당시의 국내정세로 보아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각 종교단체간의 提携團結을 이룩하여 民族大同의 기치 아래 抗日鬪爭을 할 수 있게 하는 데에 결정적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 다름아닌 그분이였다. 古下先生은 바로 이 때문에 옥고를 치르신 후 1921년부터 일생의 盟友인 仁村 金性洙先生과 함께 東亞日報를 이끌어 가면서 국내외에서 일제의 압박에 시달리던 우리 민족에게 부단히 희망과 용기를 복돋아 주셨다. 선생은 1940년 東亞日報가 日帝에 의하여 강제폐간될 때까지 4차의 무기정간과 1000여회의 압수 삭제 발매금지등 실로 형언할 수 없는 가시밭길을 걸었던 것이다. ...(중략)...

日帝, 古下에 政權移讓交渉 4차례, '資格없는 者の 權限' 접수 단호거부

1940년 8월 東亞日報가 폐간된 후에는 稱病을 하고 일체 출입을 하지 않았으며 日帝의 敗亡直前에는 總督府로부터 治安維持 등의 統治權限까지 맡기겠다는 교섭을 수차 받았으나 선생은 이것을 단호하게 거절하였다. 권한을 넘겨줄 자격이 없는 敗亡者 日帝의 손에서 무슨 권한을 받겠느냐는 것이다. 古下선생의 굳은 志操와 높은 氣慨를 뚜렷하게 나타내주는 좋은 예라고 생각된다.

亡命人士 환영 國民大會 준비, 韓國民主黨 조직 首席總務로

해방직후의 혼란 속에서도 古下先生은 3.1運動의 法統을 이은 臨時政府와 기타 外地에서 亡命生活을 하고 있던 志士들의 귀국을 기다려 이들을 환영하는 國民大會準備會를 결성하는 한편 自由民主陣營 각파의 愛國志士를 규합하여 韓國民主黨을 조직하고 그 수석총무가 되었다. 이 한국민주당이 앞장서서 對共產鬪爭을 전개한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信託統治 反對運動 부심하시다 反民族的 暴力徒輩의 저격받다

1945년이 저물어 갈 무렵 모스크바 三相會議가 韓國을 信託統治한다는 발표를 하자 이를 거부하고 反託運動등 대책마련에 노심하시다가 반민족 폭력도배의 兇彈에 殞命하셨다.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참으로 아쉽고 痛嘆스러운 일이었다. 古下先生이 좀더 생존하셨더라면 그분의 역량과 지도력으로 미루어 보다 크고 많은 업적을 이 나라에 남기셨을 것으로 확신한다.

古下先生이 가신지 38년, 선생을 흠모하는 국내외 인사들의 뜻과 성금을 모아 이제 先生의 銅像을 세우게 된 것이 비록 晩時之嘆은 있으나 이 동상을 통하여 선생의 遺志가 子孫萬代에 거울이 되어 비출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삼가 古下先生의 冥福을 빈다

銅像보며 國家建設 의지 다질 터

이어 金相浹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고하선생은 특히 역사발전과 민족운동에 대한 예리한 洞察力과 투철한 신념을 갖고 나라 위한 모든 일에 선각자로서의 지혜와 용기를 십분 발휘하셨다"고 말하고 "우리는 이 동상을 우러러볼 때마다 선생의 곳곳한 기상과 크신 유덕을 가슴속에 되새기며 보다 자랑스러운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우리의 각오를 가다듬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바리톤 吳鉉明 교수의 고하추모의 노래에 이어 兪鎮午 건립위원장이 金聖培 서울시장에게 동상기부 채납증서를 전달했다.

古下銅像 모자 들어 군중에 답례

이어 宋英洙 本社감사가 유족대표 인사를 통해 銅像建立에 애쓴 각계각층 인사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했다. 그리고 내빈들의 헌화와 中央高等學校 악대의 주악으로 제막식은 끝났다.

이제 제막된 동상은 立像으로서 어린이 대공원 정문에서 왼쪽으로 약 200m 떨어진 곳에 서있으며 높이는 3.75m이다. 고하선생은 오른손에 중절모를 들어 군중들에게 답례하는 모습이며 왼손에는 지팡이를 짚고 있다. 옷은 망토를 걸쳐입고 한복바지에 구두를 신었다. 고하선생은 안경을 쓰고 멀리 남서쪽을 향해 서울시가지를 응시하고 있다. 동상을 받치고 있는 좌대는 높이 3.9m로 화강암이며 좌대 밑부분에는 용이 조각되어 있다. 그리고 좌대 밑부분 앞쪽에는 李承晩 박사가

지는 輓詩가 새겨져 있다. (義人自古席終稀/一死尋常視若歸/舉國悲傷妻子哭/臘天憂里雪霏霏=의인은 옛부터 자기 명의 죽음이 드물고/한번 죽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 마치 제집으로 돌아가듯 한다/나라안이 모두 슬퍼하고 처자도 우는데/설달 망우리에는 눈만 부슬부슬 뿌리는구나) 좌대의 바닥면적은 약37평, 전체 부지면적은 77평이다.

銅像뒤 병풍석에 一代記 쓰고 병풍석 양쪽에 抗日反共 조각새겨

동상 뒷편에는 병풍석이 따로 세워져 있는데 높이가 2.6m 길이가 12.1m이다. 병풍석 중심에 烏石을 붙여 고하 송진우선생의 一代記를 음각으로 깨끗이 刻字했다. 그리고 병풍석의 양쪽 끝에 조각이 있는데 오른쪽 조각은 선언서를 읽는 등 抗日救國鬪爭을 하는 장면이고 왼쪽 조각은 태극기를 앞세우고 행진하는 등 反共民主鬪爭을 하는 장면이다. 병풍석 뒷면에는 銅像建立委員會 위원명단과 성금기부자명단 그리고 동산 건립경위 등이 새겨져 있다. 병풍석 뒤에는 나무숲이 아늑하게 감싸고 있다. 고하선생의 동상설계 및 조각은 又湖 金泳仲씨가, 一代記의 글씨는 創玄 朴鍾會씨가 각각 맡았다.

金泳三씨 등 정계 학계인사 다수 참석

이날 제막식에 참석한 중요인사는 高在鎬 閔寬植 尹致暎 李元淳 李應俊(이상 원로인사) 金泳三 前신민당총재 李泰九 민한당부총재 李鍾贊 국회운영위원장 林鍾基 민한당원내총무 金炳午 金判述 李世基 趙舜衡 黃明秀(이상 현직 국회의원) 高泳完 高亨坤 金祿永 金東英 金相欽 文富軾 柳鴻 尹宅重 梁會英 李相敦 李晶來 李重載 全禮鎔 趙漢栢 陳馨夏(이상 前職 국회의원) 李成烈 대법원판사 李淑鍾 국정자문의원 安椿生 독립기념관건립위원장 尹天柱 전문교부장관 柳炯鎭 대한교련회장 權彝赫 서울대학교총장 車洛勳 전고대총장 玄勝鍾 전성군관대총장 金元基 高大교우회장 金致善 서울법대학장 崔承萬 전인하대학장 張志良 전공군참모총장 申秉鉉 무역협회회장 金龍周 全紡회장 朴仁天 금호그룹회장 趙錫來 효성그룹회장 慎鏞虎 대한교육보험회장 玄在賢 동양시멘트사장 金觀鎬(前동아일보사원) 詩人 梁相卿씨 등이다. 그리고 本社에서는 金聖悅 부사장 金炳瑄 전무 朴五鶴 이사 등도 참석했다.

한편 許政씨와 白樂濬씨는 비서를 보내 인사를 대신했다.

그리고 陳懿鍾 민정당의장 柳致松 민한당총재 金鍾哲 국민당총재 俞泰興 대법원장 鄭周永 全經聯회장 등 각계요인 50여명이 화환을 보내왔다.

自由黨 末期부터 銅像建立 논의

고하선생의 동상은 自由黨政權 末期때부터 그 건립문제가 논의되었다. 당시의 중심 인물들은 張澤相 金俊淵 崔斗善 高在旭 金相万 柳鴻씨 등이었다. 그러나 정치적 이유등으로 그 추진이 좌절되었다. 그리고 共和黨政權 末期에도 東亞日報社屋을 신축하는 계획의 일환으로 東亞日報社 정문에 仁村 金性洙선생과 古下宋鎮禹 선생의 동상을 나란히 세우자는 구상이 李殷相 金容完 柳鴻씨 등의 협력으로 활발히 논의되다가 그것도 여러가지 이유로 좌절되었다. 그러다가 82년말과 83년초에 걸쳐 고하선생의 鄉里인 全南 潭陽 등 全南지역 인사들 사이에서 自生的으로 고하선생의 동상을 光州근처에다 세우자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다. 그러자 서울에 있는 古下紀念事業委員會(위원장대리 柳鴻)가 全南지역추진인사들과 동상건립문제를 긴밀히 협의 동상건립장소를 서울로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지난 4월 2일 尹濬善씨를 명예위원장, 俞鎮午씨를 위원장, 高在珽씨를 부위원장으로 하는 '古下 宋鎮禹先生 銅像建立委員會'를 구성하기에 이르렀다.

46.1.5 社會葬으로 망우리에, 66.11.11 新亭洞에 移葬

고하 송진우선생은 1945년 12월 28일 信託統治 反對問題로 아놀드 美軍政長官과의 회담에서 反託示威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臨時政府要人들과의 회합에서 반탁의 방법문제를 논의한 이틀후인 12월 30일 새벽 6시 韓賢宇 劉根培 등 反民族的 兇漢 6명의 狙擊으로 서울 苑西洞 자택에서 향년 56세로 서거했다. 1946년 1월 5일 社會葬으로 서울 忘憂里 共同墓地에 안장되었다가 66년 11월 11일 崔斗善 高在旭 金相万 柳鴻 등 同志 後輩들의 발의로 서울 江西區 新亭洞 芝香山기슭에 遷葬하고 이듬해인 67년에 墓碑를 세워 제막했다.

遺族은 장남 宋英洙, 손자 宋相現

한편 고하 송진우선생의 유족은 장남 宋英洙(72세.동아일보사 감사) 손자 宋相現(43세.서울大法大교수.법학박사) 손부 金明信(36세) 증손 在燦(12세) 有鎭(10세) 등으로 단출한 편이다. 특히 宋相現교수는 서울法大를 졸업한 후 美 코넬大學에서 29세에 박사학위를 받았다. 宋교수는 1965년에 '古下先生傳記編纂委員會'가 편집하고 東亞日報社 出版局이 발행한 <古下 宋鎭禹先生傳>을 보완발간하기 위하여 그동안 전국에 걸쳐 자료를 수집했다고 말하고 적당한 시기에 增補版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 고하 송진우선생 추모의 노래

이 古下 追慕歌는 선생의 20周忌 추모식에 즈음하여 지은 李殷相의 詩에 다 銅像除幕式을 위하여 張一男 教授가 曲을 붙인 것임.

조국 되찾은지 스무 해
고하 가신지 스무 해
이 땅엔 비바람조차
어이 그리 많은 겁니까.

갈수록 흐린 세상이기에
갈수록 어둡기만 하기에
그 지조 아쉬워서
그 경륜 아쉬워서
여기 동지들 한데 모여
옛 모습 그리웁니다.

이 나라 바로 서는 길
이 겨레 편히 사는 길
행여 가르치심 받을까 하고
굳이 가르치심 받고 싶어서

40. 국립묘지 遷墓葬儀式 追慕辭

1988년 5월 3일

故 古下 宋鎮禹先生 遷墓葬儀委員會
委員長 尹 潛 善

古下 宋鎮禹先生이 가신지 어언 43년, 그동안 忘憂里의 초라한 共同墓地에 계시던 先生의 遺骸를 新亭洞 芝香山으로 遷葬한지 22년만에 다시 이곳 國立墓地에 옮겨 모시게 되었으니 在天의 英靈도 이제는 大韓民國과 더불어 永久히 安堵하실 곳을 얻으셨거니와 先生의 遺德을 추모하는 겨레의 가슴에도 또한 安堵의 후련함이 깃들 것으로 믿어집니다.

우리 民族이 外賊의 쇠사슬에 신음하던 36년동안 先生이 先知.先覺의 眼目으로 民族의 등불이 되고 棟樑이 되어 脈을 이어 오신 일은 온 겨레가 다 알고 있는 바입니다. 先生은 오직 祖國 光復과 民主建國 그 자체를 위하여 이세상에 태어나셨던 분이었습니다.

絶望과 無知와 貧困속에 헤메는 겨레의 품안으로 뛰어들어 日帝의 壓迫에 抗拒하고 겨레의 自主獨立을 위하여 先生이 이룩하신 온갖 業績은 愛國精神과 不掘의 鬪志와 偉大한 經倫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己未獨立運動을 計劃組織하시고 東亞日報의 總帥로서 그당시 形態없는 政府를 이끌면서 民族精神을 고취하는 동안 牛車의 獄苦를 介意치 않고 가시밭길을 헤쳐나가신 先生은 정말로 獨也靑靑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解放이 되자 衆望에 의하여 先生이 建國大業의 中心에 서시게 된 것은 事理의 必然이었습니다. 先生은 그 遠大한 抱負를 펴보시기도 전에 暴漢의 兇彈으로 世上을 떠나셨으니 이 무슨 運命의 장난이었습니까.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先生이 계시지 않음을 안타까워하고 先生의 智識과 勇斷과 指導力을 그리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하늘이 先生에게 좀더 壽를 누리게 하였던들 우리 歷史는 더 많이 좋아졌을 것입니다.

先生이 나라를 사랑하고 겨레를 아끼던 至誠은 九泉에서도 변할 까닭이 없습니다. 이제 이곳 銅雀洞 國立墓地 양지바른 언덕에서 先生은 祖國이 힘차게 내딛는 한걸음 한걸음을 영원히 지켜 보실 것입니다.

同志後輩 여러분들과 함께 先生의 冥福을 빌어마지 않습니다.

41. 南北의 對話

<東亞日報> (1972.1.13-2.19)

(1) 混亂속의 統一運動 -- 分散된 民族의 힘

(동아일보 1972.1.13)

해방의 감격은 百日이 채 못돼서 分裂의 비극을 잉태한다. 그것은 共產黨의 小兒病的 左傾 때 문이기도 하지만 또한 오랫동안 日本帝國의 武斷植民政策으로 인한 民族主體勢力의 말살과 국민 의 政治的 無知 無能 때문이기도 했다.

또 해방의 그날까지 獨立운동의 제1선에서 싸웠던 훌륭한 우리의 지도자들이 해방이란 政治的 眞空상태에는 충분히 대처할 힘을 組織, 集中시키지 못한 지도자들의 미숙 때문이기도 했다.

民族統一과 政黨統合운동이 실패한 원인에 관하여 현재 美國 펜실바니아大學 政治學 副教授인 李庭植씨(政治學博士)는 다음과 같은 글을 보내왔다.

- 編輯者에게

귀지에 연재되고 있는 '南北의 對話' 시리즈는 해방된 우리 弱小民族 韓國인들이 強大國의 파워 폴리틱스 속에서 어느 進路를 걸어갔어야 했고 또 걸어가야 하느냐는 문제에 관해 유익한 시사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나의 의견으로는 당시 남한에서의 左右對立이 너무 심했다는 것 또 朴憲永 등의 共產黨이 蘇聯 軍司令部 앞에 너무나 저자세였고 약했다는 것 등이 南北의 分裂을 조장한 국내적인 요소들이었다고 봅니다. 또 古下 宋鎮禹 등이 臨政의 國際的인 위치와 실력을 너무 과대평가했던 것도 잘못이었습니다. 國內에서는 臨政의 사정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臨政에 대한 기대가 클 수밖에 없었지요. 그 결과 古下의 마지막은 너무나 비통했습니다. 그런 뜻에서 李仁씨 등의 初期노력이 실패한 것은 民族的인 비극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夢陽 呂運亨이 좀더 강한 성격이었던들 사정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美國이나 蘇聯이나 확고한 對韓政策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韓國指導者들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정치지도자들이 左右로 갈라져 있었다는 것은 극히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해방전에도 左右를 망라한 統一戰線 형성을 위한 新幹會운동이 있었고, 그 운동이 처음에는 성공했다가 共產主義者들의 分裂행동으로 실패, 해방당시 左右가 分裂돼 있긴 했지만 해방후 左右가 大同團結할 수 있는 여지는 아직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共產黨재건파들은 해방후 左右合作이나 단결보다는 자기세력 확장에 주력하였고 특히 蘇聯軍의 서울進駐라는 데마(demagogy)로 광적인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小兒病的인 左傾을 범하여 共產革命을 즉시 달성할 듯 날뛴으로써 온건한 右翼民主主義 지도자로 하여금 그들을 소원하게 하는 결과를 빚었던 것입니다. 이 노선은 以北의 共產黨지도자들과 蘇軍政司令部까지도 잘못이라고 비판했지만 그들 역시 미구에 같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물론 해방직후에 夢陽 呂運亨이나 民世 安在鴻이 古下 宋鎮禹의 협력을 구하였을 때 古下가 응하였던들 左右의 분열이 격심해지지 않을 수 있지 않았느냐 또한 右翼진영에서 夢陽과 협조했던들 建國準備委員會가 共產黨과 협력하여 좌익 一邊倒로 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지 않았느냐 하는 의문을 항상 품게 됩니다. 그런면에서 이미 '南北의 對話' 시리즈에서 다룬 바와 같이 국내 지도자들의 통일운동은 그 의의가 자못 컸습니다만 헤게모니 쟁탈욕망 때문에 실패한 것이 아쉽습니다. 古下와 夢陽 사이에는 思想的 見解의 차이, 人間性的 차이, 海外亡命客들에 대한 인식의 차이 등과 對抗의식이 격심하여 協和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臨政이 귀국할 때까지 경거망동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臨政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古下의 持論은 물론 수긍할 수 있으나 해방의 소용돌이 속에서 臨政이 돌아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릴 수 있었던가요. 결과적으로 古下 자신도 그의 持論을 굽히고 韓民黨 조직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지 않았습니까.

우익의 보이코트로 夢陽은 共產黨측과 더욱 가까워졌다는 理論이 설 수도 있기는 하나 夢陽자신의 과거 親分관계로 볼 때 그는 역시 共產측과 同調할 수 있는 점이 많았습니다.

더욱이 '남북의 대화' 시리즈 二十九回에서 밝힌 것처럼 夢陽은 엔도(遠藤)政務總監으로부터 蘇聯軍이 漢江以北을 점령하여 통치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으므로 共產黨과의 밀접한 관계수립이 필요하다고 느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그의 성격으로 보아 첩첩이 그를 둘러싼 共產黨 간부들의 농간을 물리치고 독자적인 노선을 세워 나가기에는 그는 너무나 '好人'이었고 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 결과 建準은 점차로 共產黨의 도구가 됐고 民世 安在鴻마저 二十일만에 副委員長을

辭任하고 이탈하게 됐으며 그 직후인 九월 六일에는 共產黨의 압도적 우세 아래 소위 '人民共和國'이 선포됐습니다.

이 '인공'이란 단체는 아무런 理論的인 法的인 뒷받침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인공'의 설립은 朴憲永의 共產黨이 범한 小兒病的인 左傾오류중에서 가장 큰 오류였습니다. 이 '인공'의 설립으로 朴憲永 휘하의 再建派 共產黨은 長安派 共產黨에 의해 오랫동안 신랄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인공'이 설립된 며칠후 共產黨 평남지구확대위원회가 채택한 강령에서 첫째로 "人民代表會議를 소집하여 人民共和國를 수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 소련軍政당국도 서울에서 急造된 '인공'을 승인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연합니다.

어떻든 이 '인공' 선포는 左右세력간의 對話 또는 協商의 가능성이 아주 없어졌다는 것을 또한 선포한 상징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分裂된 가운데 平壤에 주둔한 소련軍政당국은 그들의 필요에 따라 朴憲永의 共產黨을 지지함으로써 南北韓의 分裂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만일 이무렵 소련軍政 당국이 朴憲永의 共產黨이 범하는 小兒病的인 左傾오류를 배척하고 그를 제거하여 온건한 노선을 명령하였다면 정세는 급격히 호전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國家를 가져보지 못한 韓半島의 悲劇은 꿈같은 國際共產主義의 환상을 심기에 알맞은 풍토를 제공했고 이런 여건아래 朴憲永의 共產黨은 新生獨立國家의 형태와 성격을 共產革命으로만 한정된 가운데 李承晩이나 金九의 統一統合운동까지도 분열로 맞서버렸다.

해방과 더불어 날뛰던 共產主義者들을 수수방관함으로써 요원의 불길처럼 퍼져갔던 共產黨세력을 방지했던 것은 분명 宋鎮禹 등 국내 民族진영인사들의 커다란 잘못이었다.

朝鮮總督府가 과연 民主主義진영 인사들에게 진정으로 政權引受를 요청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해서는 아직 객관적 자료가 불충분하다. 그러나 朝鮮總督府의 政權引受 요청이 있었는데도 이를 거부했다면 이는 해방후 최초의 政治的 이니시어티브를 오히려 呂運亨과 共產主義者들에게 스스로 넘겨준 民族진영 지도인사들의 소극적 수동적 보수적 성격이 저지른 잘못이었다고 볼 수 있다.

民族진영 인사들은 해방 당시 韓半島의 北端에 이미 소련軍이 진주하고 있었다는 것, 그 소련軍은 곧 韓半島를 석권할 기세였다는 것, 게다가 소련軍이 漢江이북을 점령할 것이라는 풍문이 나도는 가운데 정세를 방관하기만 함으로써 가장 중요했던 해방후 몇주간을 그냥 보내버렸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한편 이 무렵의 政治人들은 南北分斷문제에 관하여 사려깊은 대책을 강구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宋鎮禹 등 韓民黨이나 그후 李承晩 金九도 해방전에는 긴밀한 연락을 유지해왔던 曹晩植 등 北韓의 민족지도자들과의 공동보조를 취하기 위한 협의를 게을리 했을 뿐만 아니라 北韓의 민족지도자도 마찬가지로였다. 또한 政黨통합운동에 있어 李承晩과 金九는 물론 朴憲永의 共產黨까지도 해방 2개월만에 北韓의 실력자로 등장한 金日成이란 蘇聯軍政의 괴뢰, 그리고 金料奉 武丁 崔昌益 등 中國延安에서 들어온 獨立同盟계 인사들을 주목하지는 아니했고 그들을 포함한 民族統一과 政黨통합을 위한 左右 또는 南北의 對話를 시도해 보려하지 않았다.

南韓에서의 政黨統合운동이 혼란을 거듭하고 있을 동안 北韓에서는 金日成의 體制가 점차 굳어지면서 南北의 左右政黨과 政治지도자들은 韓半島를 分斷한 美蘇의 兩極化體制에 말려들었고 그 결과 韓民族의 內的 政治力을 集中, 極大化시켜 美蘇에 의한 영향력을 極小化 내지는 中立化시키지 못함으로써 韓民族을 分斷이라는 民族的 悲劇에 휘말리게 했다.

(2) '混亂속의 統一운동'에 대한 意見

柳 鴻

貴紙에 掲載中인 '南北의 對話' 1972년 1월 13일자 41회 記事 '混亂속의 統一運動' 題下의 內容에 대하여 몇마디 異見을 提示하고자 한다. 全記事中 東美 펜실베니아 大學 副教授인 李庭植博士에 依하면

1. "古下 宋鎮禹 등이 臨政의 國際的인 位置와 實力을 너무 過大評價했던 것도 잘못이었습니다. 國內에서는 臨政의 사정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臨政에 대한 기대가 클 수밖에 없었지요" 云云한 句節이 있다.

解放直後 古下가 政黨결성에 앞서 우선 國內에서 各界各層의 人士를 모아 國民大會準備會를 구성하고 臨政을 위시하여 海外에 亡命中인 獨立運動者, 志士의 還國을 迎接하는 준비를 하고 환국 후에 國民大會를 가져 國家民族의 向方을 결정하려 한 것은 古下가 臨政의 사정에 어두워서 한 것이 아니라 3.1운동의 主動勢力이었던 古下나 그 同志들은 臨政이 3.1운동의 소산이므로 사실상 그 法統을 간직하고 이어나오고 있었던 것이요 또 그래야만 한다는 歷史的 觀點에서 臨政을 지지하고 나섰던 것이다. 이는 古下의 臨政의 法統에 대한 의리에서 뿐만아니라 어려운 日政의 탄압 하에서도 國內에서 獄苦 등 苦難을 치른 志士들을 대접했듯이 海外亡命中의 先輩나 同志를 대접하고자 하는 古下의 人品의 一端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兼하여 이는 國內외의 指導者를 網羅한 民族의 總力量을 集結하여 建國에 當하려고 한 古下의 政治的 識見을 말한 것으로서 評價되어야 할 것이다. 李博士의 見解는 이러한 3.1운동과 臨政과의 關係를 歷史的 眼目에서 綜合적으로 考察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誤謬를 저지른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런 까닭에 解放前 出獄後 指導者로서 그 處世가 탐탁지 못했고 臨政의 法統마저 否認하려 하던 夢陽과 合作이 근본적으로 어려운 것은 추측하고도 남음이 있다. 더욱이 建準 發足 직전 共產革命의 길로 一路邁進할 것을 公言한 夢陽과 合作이 不可能하다는 것은 再言할 必要도 없다. 日政時 出獄後 夢陽의 處世가 탐탁지 않았다는 것은 가장 寬大한 人士들의 말을 빌린다 할지라도 그 당시로서는 夢陽에게는 不可避한 일이고 人間的이라고 할는지 모르나 民族의 指導者로서는 그 處世나 態度가 一般이 首肯하기 어려운 점이 많았다는 것은 左右를 莫論하고 國內指導階級의 人士들은 大體로 짐작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企業經營에 才略과 經驗이 不足한 關係인지 당시 中央日報 社長으로서도 成功을 거두지 못했고 그후 日本 東京滯在時나 歸國後 日政이 國內指導者를 한 올가미로 묶어서 戰爭에 直接間接으로 協力利用하려고 만든 소위 '時局對應思想報國聯盟(後日의 保導聯盟)'에 대한 協調的 態度라든지 등등을 고려해 볼 때 中國에 滯留時에 國內에서 빛났던 往年의 名聲과 人氣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것이다. 오직 向方을 모르던 若干의 젊은 青年學生層에게 人氣를 유지했던 이유는 그 能辯과 靑少年과 잘 어울리는 소탈한 점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기에 建準發足直後 8월 17일 來訪하여 古下에게 協力을 請한 夢陽에게 古下가 간곡히 海外亡命同志들의 還國後에 建國準備를 하고 그때가면 古下는 夢陽을 적극 추대하겠다고 거듭 말한 것을 보아도 古下가 3.1운동의 法統을 이은 臨政과 其他 亡命中의 여러 政客의 歸國을 기다려 內外指導者가 한데 뭉친 힘으로 建國方向을 設定하려던 것은 充分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夢陽의 建準은 發足한지 20일 內外간에 人共을 만들어 그 性格과 進路를 뚜렷이 한 바 있다. 여기에 이르러 建準이 애당초 내세운 名目과는 달리 急히 左傾함을 우려하고 또 自己名義 등까지 盜用當한 바도 있던 金炳魯, 白寬洙, 李仁 등 諸氏가 夢陽을 찾아 數次에 걸쳐 그가 建準發足 以來 言明한 民族總集結體의 代表機關이란 內容을 名實相符한 體制로 할 것, 卽 構成委員數에 있어서 民族.共產 兩陣營中, 民族陣營側의 數를 보다 많은 比率로 按配할 수 없다면 最少限度로 左右 同數로라도 構成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는 忠告가 있었다. 그러나 面談時에는 이를 同意한 夢陽은, 그때마다 번번히(二次) 自己가 言約한 바를 背信하였으니, 이에 民族主義者와 建準은 完全히 訣別하게 되었던 일, 이에 분개한 民世 安在鴻도 이때를 前後하여 建準을 離脫하고 말았다.

古下도 夢陽도 다 이 세상을 떠난 後日에 와서 史學者나 政治學徒들이 3.1운동의 歷史的 意義와 8.15解放 직후의 民族陣營의 指向方法이나 努力은 비교적 간단히 無視抹殺해버리려는 대신 共產陣營에서 夢陽을 前面에 내세우고 自派中心의 革命을 推進하던 結果만을 높이 評價하던 그대로의 論調나 態度는 公正을 잃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유독 夢陽에 寬大한 것은 역시 共產主義者들의 行蹟에도 寬大한 것을 意味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2. 다음에 李庭植博士는

“물론 해방직후 夢陽의 協力要請에 古下가 應하였던들 左右分裂은 격심해지지 않을 수 있고 右翼陣營에서 夢陽과 協調했던들 建準이 共產黨과 協力하여 左翼一邊倒로 나가는 것을 防止할 수 있지 않았느냐, 統一운동이 헤게모니 쟁탈욕망에 실패했고 古下와 夢陽사이 思想的 見解, 人間性, 亡命客들에 대한 認識 等の 諸差異에다 對抗意識이 격심하여 協和를 이루지 못했다” 云云하는 대목을 羅列했다.

그러나 李博士에게 世界 어느 나라에서 共產主義者가 民族主義者와 協和해서 政府를 이룬 例를 본일이 있는가를 묻고 싶다. 建準發足 직후 夢陽이 來訪하였을 때 古下에게

“古下가 나를 페탕이나 라우렐이라고 했다는데 사실이요?”

하고 質問을 했다. 古下는 이에 대해서 서슴지 않고

“夢陽은 共產主義者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共產革命으로 적극 추진할 것을 主張하고 또 이미 敗亡하여 政權을 누구에게도 주고 말고 할 수 없는 日政에서 政權을 받는 것은 페탕이나 라우렐과 다를 것이 없다는 말ियो. 더욱이 日軍이 降伏하기까지는 軍警의 힘은 日政에 있지 않소? 하고 準절하게 警告를 兼한 忠告를 하였던 일이 있다. 여기서 古下가 말했듯이 夢陽이 朝鮮 總督府로부터 선뜻 政權을 引受하여 페탕으로 轉落하는 경솔을 저질렀고 金炳魯氏 等과 言約에 대한 背信態度로 보아 民族陣營의 協調를 事實上 眞心으로 求하지 아니하였던 것도(사실 못했던 것인지 모르나) 사실이다. 民族陣營의 一部勢力을 代表한다고 믿고 協力出發했던 民世마저 建準을 離脫하게 되고 進駐한 美軍까지도 建準, 人共을 인정하지 않는데 이르러서는 더욱 말할 必要가 없다. 꼭 政權을 引受하고 따라서 權力을 잡은 줄 알았던 夢陽의 경솔과 識見이 얼마나 短見이었던가를 여기에 여지없이 露出하고 만 것이다.

李博士가 말한 바와 같이 美側의 對韓國方針도 두렵한 것이 아니었다면 夢陽이 政權樹立을 밀고 나갈 수 있는 機會라고 보는 것은 현실과 距離가 먼 것이었음을 말해준 것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여기에 이르자 夢陽은 共產黨마저 離脫되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한 나머지 더욱 共產黨과 密着하게 되었고 따라서 朴憲永 등의 南勞黨주류파에 발목이 잡혀서 진퇴유곡의 형편에서 公산당을 代辯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후 얼마되지 않아 할 수 없이 共產黨에서도 갈려 나왔다는 사실이 이를 證明하고도 남는다. 革命의 目的達成을 위해서는 그 手段과 方法을 가리지 않는 共產黨이라면 모르되 百步를 양보해서 夢陽을 共產主義者가 아니라 하더라도 前記한 바와 같이 解放前 出獄後의 處世나 解放後 여러가지로 그가 저지른 過誤에 대해서는 歷史가 그것을 嚴正히 가려내겠지만 이러한 見地에서 볼 때 夢陽은 指導者로서의 識見 等に 있어서 古下와 同一線上에서 評價될 수는 없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李博士가 民族分裂의 責任을 夢陽의 協調要請에 不應한 古下에게 주로 돌리고 있는 것은 公正한 見解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되풀이하거나 夢陽이 戰爭에 完敗하고, 우리 領土를 不法強占해서 아무 資格이나 權限도 없는 日政에게서 權力을 넘겨받았으나, 美軍은 進駐前에 撤布한 罷라를 통하여 進駐時까지는 日軍警이 治安을 확보하라고 指示하였다. 이렇듯 建準이 完全히 無視當함으로써, 自己 自身이 虛空에 뜨게 된 夢陽은 그의 政治的인 立場을 挽回하고자 共產黨과 약속하는 등 갈팡질팡 하지 않을 수 없었다. 夢陽이 빚어낸 混亂에 古下가 夢陽의 背信을 감당하면

서까지 同調해야만 混亂이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보아야 옳을 것인가?

몽양의 短見에 비하면 3.1운동 以來 自己의 位置를 지켜오면서 解放까지 刻苦受難의 길을 걸어 오면서 民族의 指導者로서 極左派 共產黨을 제외하고는 臨政을 포함한 海外 모든 民主勢力을 포섭하려 했던 古下의 經論과 手腕에 대하여 후세 史家의 보다 公正한 批判이 있어야 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더욱이 古下는 기회가 오면 夢陽을 지도자로 추대할 용의가 있음을 여러번 말할 바 있으니 兩人間에 헤게모니 쟁탈싸움 云云은 語不成說이 아닐 수 없다. 덧붙여 말한다면 夢陽이 出獄後 中央日報 社長 時代부터 解放까지 古下가 그를 아끼고 여러모로 協調한 바는 크다해야 할 것이다.

가령 百步를 양보하여 古下와 그 同志들이 建準에 協調하고 갔다면 당장 一時約으로는 表面上 協和 비슷한 양상이 이루어졌을는지 모르나(混亂을 일으킬 거리가 一時나마 없어지니까) 이는 결코 持續되지도 못했을 것이고 오히려 共產黨의 宣傳材料에 效果를 더해줄 뿐, 民族陣營은 支離滅裂하여 큰 敗北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이것은 左右合作의 이름아래 試圖한 여러나라의 共產革命史가 말하고 있는 것이다. 多幸히 古下의 巨視的이요 透視的인 判斷이야말로 民主主義 및 民族勢力의 命脈을 계속케 했고 難局에 對處하는 指針을 밝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국내에서는 오직 古下 한사람 밖에 없었다 해도 過言이 아닐 것이다.

古下와 夢陽의 人間的인 다른 差異는 且置하고라도 對抗意識이 격심 云云은 李博士만의 解釋에 그치기를 바란다. 古下가 作故한 後에 一部 新聞人中에는 美軍進駐 후에야 國民大會準備會를 發會하는 것은 古下가 비겁해서 그러한 것이라고 하는 訛傳까지도 公公然히 돌고 있기 때문이다. 共產化를 막기 위해서는 反共鬪爭은 不可避한 것이다. 그러기에 그 후에도 夢陽의 追從者인 一洲 金振宇 등은, 夢陽의 뜻을 받들어 古下에게 夢陽과 合作할 것을 書面이나 또는 面談 等으로 公갈 脅迫을 兼한 要請을 하였을 때에 古下는 毅然한 姿勢로, 夢陽이 共產黨과 손을 끊고 나설 것과, 그러한 文書에 署名捺印하고 態度를 明示하면 이를 고려할 수도 있다고까지 應酬했던 것이다.

3. "(가) 조선총독부가 과연 民族陣營 人士들에게 진정으로 政權引受를 要請하였는지 與否에 관해서 아직 客觀的 資料가 不充分하다"는 것과 "(나) 그러나 총독부의 政權引受要請이 있었는데도 이를 거부했다면 이는 最初의 政治的 이니시어티브를 呂氏와 共產黨에 스스로 넘겨준 民族陣營 指導人士들의 소극적 수동적 보수적 성격이 저지른 잘못이었다고 볼 수 있다" 云云하는 두가지 점에 대하여는 後者에 대해 보다 充分한 解明이 必要하다.

李博士와 동일한 見解를 갖는 것은 이러한 見解를 갖는 部類人士들의 自由일 수 있겠기에 이를 잠깐 미루기로 한다. 우선 前者의 경위에 대해서는 古下가 8월 11일부터, 여러차례 政權引受交涉을 받았지만, 이를 拒絶하자 그 다음으로 朗山 金俊淵이 8월 14일에 生田 京畿道知事로부터 交涉을 받은 바가 있었음은 古下傳記나 朗山이 남긴 여러 文獻에도 이미 記錄된 바이고, 古下 殺害犯人 公判記錄 等を 들추어보더라도 客觀的 資料不足 云云은 不可解일 뿐만 아니라 攻擊과 否認만을 일삼는 人士의 말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더구나 조선총독부가 과연 진정으로 民族主義陣營에 政權引受를 요청하였는지 云云하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李博士는 무슨 資料에 依하여 言及한 것인지는 學者로서의 良心과 公正을 喪失한 態度라고 밖에 볼 수 없다.

日政은 敗戰氣色이 짙어지자 오래전에 총독부 內務局長을 지낸 바 있는 老退役官吏를 조선의 首都行政 首班인 京畿道知事로 再起用하여 日本이 降伏後 예상되는 混亂狀態를 收拾하는 責任을 맡겼던 것이며, 이 老獯한 官僚인 生田(이구다)는 自己들 손에 統治權이 있는 것인지의 分別도 못하고 政權引受를 말했을 리가 없지 않는가.

古下는 名分上으로도 그렇지만 또한 그들이 一時的 危機를 糊塗하려는 술책임을 看破했던 까닭에, 引受를 끝까지 拒否했고, 夢陽은 無分別하게 덤벼들어 많은 잘못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混亂마저 李博士로 하여금 古下에게 混亂의 責任所在를 묻게 하는 것은 크게 유감된 일이 아닐 수 없

다. 一生에 걸쳐 日本必亡을 確信하고, 그것을 信念처럼 간직하고 있던 古下는 解放되기 오래 전부터 國內同志들에게, 日本이 危險해지면 朝鮮에 自治를 준다고 달랠 것이고, 더 窮地에 빠지면 獨立을 준다고 꾀일 것인데 그때가 가장 어려운 때일 것이라고 말한 것을 보면, 政權引受를 拒絕한 경위가 自然的으로 짐작될 것이다.

古下殺害事件 公判廷에서 證人으로 出席한 民世의 陳述에 古下. 夢陽이 合作하였다면 解放後 混亂은 좀더 적었을는지 모르겠다고 말한 바 있는데, 이는 建準 初創時에 적극 協助했던 民世로서는 있음직한 말이기도 한 것이다. 이것은 當時의 左翼과 많은 言論인들이 즐겨 내세우던 이야기다. 심지어는 一部實業人 및 바로 얼마전까지 日政의 宣傳에 同調하여 앞잡이 노릇을 하던 자들도 自意이건 他意이건, 共產黨의 교활한 宣傳에 同調까지 하였다.

極左 共產黨을 相對로 反共鬪爭을 두렵이 한 古下와 그가 組織한 國民大會準備會나 韓民黨에 대한 中傷謀略과 攻擊을 일삼아야만 소위 知識人으로 行勢할 수 있다고 한 虛僞와 悲劇을 20여년을 지난 今日에도 間間히 類似한 경우를 발견할 수 있다. 과연 이러한 誤謬와 虛僞가 내 民族과 내 國家를 위해 知識人으로서의 옳은 姿勢라고 봐야 할 것인가. 혹은 이같은 妄動은 참으로 所謂 知識人의 自己滿足에서 나오는 無責任한 言動인지, 또 그래야만 南北統一의 실마리라도 풀리는 길이 되는지 分別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내 나라 民族의 不幸을 걱정하는 立場에서의 見解라면 事實의 發生經緯와 背景 等에 대한 分明하고 公正한 判斷이 있어야 할 것이며, 政權引受 문제에 있어서는 세밀한 觀察이 있어야만 마땅할 것이다. 하물며 爭取아닌 授與라는 卑屈하기 짝이없는 方法에 있어서라.

4. “宋鎮禹 等 韓民黨이나 그후 李承晩 金九도 曹晩植등 北韓민족지도자들과 共同步調를 취하기 위한 접촉을 게을리 했고 北韓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로였다.”고 李博士는 말하고 있다.

解放直後 古下는 平壤의 古堂 曹晩植과 비교적 緊密한 연락을 가졌었다. 8월 16일 古堂 等으로부터 古下에게 電話가 걸려 왔고, 그 內容은 平南道知事가 治安行政을 맡으라 하는데 古下의 意見如何를 물어왔을 때 古下는 民衆大會를 열어서 委任을 받는 形式을 취하도록 하지 日人으로부터 直接 行政權을 맡지 않을 것이며 연합군 入國까지 治安을 維持하는 程度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自己意見을 말했던 것이다. 또 古堂의 同志인 吳胤善, 金東元 等과 그 家族들이 많은 危險을 무릅쓰고 古下와 연락차 往來하였던 것이다. 소련軍이 進駐한 8월말 9월초부터는 往來도 어려워졌고 勿論 公公然한 연락도 되지 않았던 것이다. 結果적으로 보아 연락이 杜絶된 것은 노력이 부족하고 게을리 했다는 責任을 묻게 될 경우 그러한 解釋도 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26, 27년이 지난 오늘날의 여러 與件을 기준으로 해서 보아도 李博士의 見解에 全적으로 首肯이 가지 않는다.

後日에 와서 歷史的인 悲劇과 失策을 빚어낸 責任을 누구에게나 지워야하겠다는 前提라면 더욱이 國內民族指導者에게 지울 수는 없다고 본다. 그것은 弱小民族인 韓國人이 어떠한 觀點에서도 強大國간의 政策的 흥정물이 되지 않을 수 없는 處地에는 더욱 그렇다. 北韓에서 소련군이 自己目的을 迅速히 달성하기 위하여 강력한 뒷받침을 하여 밀어준 金日成 政權과 美軍進駐後 3개월 후에야 겨우 民族陣營에는 新聞出版을 許容할 程度의 美軍政府의 施策사이에 處하여 古下 等 民族陣營指導者들의 苦衷이 얼마나 甚大하였던 가는 一顧조차 하지 않으려 하는 것은 참으로 理解하기 어렵다.

5. 끝으로 筆者는 歷史學者도 아니고 더구나 政治學者가 아니다. 오직 解放前後 國內에서 古下, 夢陽, 民世, 李承晩 等 여러 政治的 指導者를 實地로 접하며 보아온 사람으로서 그중에서도 古下의 周邊을 잘 아는 한사람으로서 祖國의 解放과 分斷의 소용돌이 속에서 모든 것을 體驗한 나머지 내가 아는 限度에서 李庭植 博士의 글을 대하였을 때 그 見解나 여러가지로 首肯되지 않는 點

들과 또 이러한 類似한 見解가 아직도 비교적 많은 것을 보고 筆者가 보고 겪은 바를 여기에 적어 보는 것이나 이는 조금이라도 이러한 問題에 關心이 있는 人士들에게 參考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이다.

(3) 反託과 贊託의 회오리 - 古下 宋鎮禹의 암살

(동아일보 1972.2.17)

反託운동으로 온 장안이 발각 뒤집히고 이에 놀란 하지와 아놀드가 "'信託'이 아니라 '援助' 또는 '諮問'이 잘못 전해진 것이며 또 한국민이 싫다면 그것을 한국민이 거부할 수 있는 내용의 것"이라며 설명에 바빴던 45년 12월 30일 새벽 6시 15분 해방후 줄곧 '人共' 打倒와 臨政봉대에 앞장섰던 古下 宋鎮禹가 암살자의 흉탄에 쓰러졌다.

이는 해방후 최초의 정치적 암살사건이었지만 宋鎮禹의 죽음은 정계를 더욱 혼란에 빠뜨리게 했다.

古下암살과 관련하여 항간에 별의별 풍설이 나돌았다. 이 풍설이 古下암살의 요인인지도 모른다. 그것은

“古下가 信託統治를 찬성했다”

“古下가 美軍政 延長을 주장했다”

“古下는 三年에서 五年의 訓政期가 필요하다고 했다”는 등등이다.

해방후 美軍政官吏로서 한국에서 일했던 리차드 E 라우터백(당시 海軍中尉)은 그의 <韓國美軍政史>에 “宋鎮禹씨는 이 모스크바 결정(信託統治)을 승인했는데 당일로 암살당했다”고 쓰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풍설에 대하여 日帝下 조선어학회사건으로 형무소생활을 했던 李熙昇교수(78.당시 京城大學교수.전서울大교수.東亞日報社사장.檀國大學교수)를 비롯하여 李晶來씨(73.전國會議員.현재 서울시 갈현洞 거주) 宋英洙씨(50.당시 宋鎮禹씨 비서.嗣子.현利川물산사장) 등은 한마디로 “근거없는 중상모략”이라고 단언한다.

사실 당시의 左右익계 각 신문 잡지와 宋鎮禹의 정치노선, 그리고 당시 하지가 美國務省에 보낸 公文書 등을 참고로 살펴보면 宋鎮禹의 反託자세는 명백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이미 45년 10월 20일 빈센트 美國務省 極東局長이 信託說을 발설할 때부터 反託태도를 명백히 하고 있었다. 12월 27日 모스크바 결정이 외신으로 전해졌을 때 그는 즉각 그가 지도하는 韓民黨이 反託을 결의하도록 했고 그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신문 정당 사회단체 및 청년 단체로 하여금 反託국민운동을 벌이게 했다.

그러한 그를 贊託 또는 訓政說 주장에 의한 軍政延長論者로 몰아 그를 중상모략한 것은 극렬한 共產계와 '人共'계열이었다. 그들은 古下가 암살되던 날인 12월 30일에도 '反파쇼共同투쟁위'를 결성하고 “美國의 극동부 책임자 빈센트 같은 사람은 공공연하게 조선을 신탁통치할 것이라 말했고 국내의 소수 매족매국적 반동분자들은 여기에 영합하여 혹은 당분간 軍政期가 필요하다고 하고 혹은 3년후가 아니면 독립되지 못한다고 하였다...” (朝鮮日報 46.1.1)며 풍설이 사실인 양 왜곡하여 선전했었다. 좌익계의 중상모략은 臨政요인의 귀국후 간혹 폭발된 臨政과 韓民黨의 불화를 파고들어 교묘히 유포되고 있었다.

사실 反託방법을 둘러싸고 宋鎮禹는 미군정을 배격하고 臨政이 직접 통치권을 행사하려는 臨政요인들과는 의견을 달리했다. 당시 경교장에서 臨政일을 봤던 張俊河씨는 다음과 같이 기억하고 있다.

--- 28일밤 각정당 사회단체대표들이 경교장에서 反託운동방법을 논의했습니다. 대표중에는 흥분해서 美軍政을 엮어버리고 臨政이 독립을 선포, 통치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모두들 울분과 분노로 흥분할 뿐 反託방법에 관해서는 차근차근하게 말하는 분이 없었습니다.

12시쯤 宋鎮禹선생이 金俊淵 張澤相씨를 대동하고 경교장 회의실에 들어오셨습니다. 특유의 망토를 입고 단장을 짊으면서 회의장에 들어온 宋鎮禹 선생은 흥분한 대표들에게 “내가 지금 하지를 만나고 오는 길인데 신탁통치라는 것이 여러분이 흥분해서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우려할 만한 것이 아니다. 反託을 하되 美軍政을 적으로 돌려서는 안된다. 다시 한번 여유를 가지고 냉정히 생각해보자”고 말하자 여기저기서 “집어치우라”고 하면서 세찬 반발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에 관하여 ‘古下先生傳記편찬위’가 엮은 <古下 宋鎮禹先生傳>은 요지를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 신탁통치안이 전해진 후 국내는 물끓듯 소연하기만 했다. 8.15해방의 기쁨도 사라지기 전에 한민족의 정치적 위기는 절정에 달했다. 한편 지도자 암살설이 시정(市井)에 떠돌았다.

12월 중순께부터 苑洞 고하집 주변에서는 이상한 공기가 감돌았다. 미군정에서도 이 기미를 알아채고 미군헌병을 파견할 것을 제의해 왔다. 고하는 거절했다. 12월 28일(밤) 고하는 朗山(金俊淵)을 대동하고 경교장의 임정을 찾아 신탁통치문제를 의제로 일련의 회의를 가졌다. 고하와 임정은 신탁통치반대에는 이론이 없었으나 반탁방법에는 서로 상당한 의견차이가 있었다.

임정은 반탁방법으로 즉시 미군정을 부인하고 민족독립을 선포하는 동시에 정권을 인수하고자 하는 반면 고하는 국민운동으로 반탁을 부르짖게 하고, 미군정과는 충돌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요컨대 고하는 미국은 여론의 나라이니만큼 국민운동으로 의사를 표시하면 즉시 신탁통치안이 취소될 수 있고 한국독립을 열렬히 지지하는 중국이 있음을 상기시켰다.

만일에 군정을 부인하고 임정 이름으로 독립을 선포하면 반드시 큰 혼란이 일어날 뿐더러 결국은 공산당이 어부지리를 취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고하는 만일 臨政식으로 사태를 수습하면 우선 미군정과 충돌해야 하고 미군정과의 충돌은 미국 및 민주주의 제국과의 충돌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 고하는 찬탁파요”

“찬탁이 아니라 방법을 신중하게 하자는 것이요. 반탁으로 국민을 지나치게 흥분시킨다면 뒷수습이 곤란할 것이니 좀더 냉정하게 생각해서 시국을 수습해야 하지 않겠소”

“무슨소리요. 반탁 뒤에 오는 모든 사태는 우리가 말지”

고하와 임정간에는 격론이 벌어졌다. 깊은 밤중의 회의는 異論의 조정을 못보고 29일 새벽 4시에 산회하고 말았다. 고하는 두어시간쯤 눈을 붙이고 일어나 찾아온 몇 손님을 차례로 맞았다.

“박헌영군에게 이번만은 제발 영웅적 태도를 취해 달라고 전해 주시오. 내가 그러더라고.....”

고하는 아침상을 받으면서 공산당측에 연락이 닿는 측근에게 말하기도 했다. 고하는 상을 물린 뒤 곧 韓民黨숨로 발길을 옮기고 오후엔 또 임정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왔다. 저녁 7시경 元世勳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고하와 임정간에 의견이 달라졌다는데 사실이요?”

“글쎄 임정에서는 모두 짚신감발을 하고 걸어다니면서도 반탁을 한다 합니다. 반탁이 문제가 아니라 군정과 충돌을 일으켜놓고 임정이 뒷수습을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 나도 알 수가 없소”

고하는 밤 10시께 취침했다.

“안으로 문을 걸까요?”

“문은 왜 거느냐 내버려 두어.....”

조카 英洙는 정국이 흐려지고 이상한 풍문이 돌 뿐만 아니라 집주위가 어수선하기에 문단속을 제의했었는데 고하는 응하지 않았다. 고하집 관습으로는 문을 안으로 잠그지 않는 것이 버릇이다.

이튿날 새벽 돌연 고하의 침실 밀창문 여는 소리와 함께 총소리가 들렸다. 새벽의 고요한 공기를 찢어댔다. 뜰 아랫방에 기거하던 英洙와 호위경관이 황급히 고하의 침실에 뛰어갔을 때에는 이미 兪漢의 총탄에 쓰러져 있었다.

담장을 넘어온 흥한은 도합 6명으로 연속 13발을 쏘았다. 그중 6발이 명중했다. 고하는 56세를 일기로 45년 12월 30일 오전 6시 15분 자객의 흉탄에 넘어진 것이다---

孫世一씨(東亞日報 論說委員.駐東京)는 그의 <李承晩과 金九>에 당시 李承晩의 비서였던 尹致暎 尹錫五 양씨와의 面談錄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 宋鎮禹의 죽음은 李承晩에게 크나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그가 가장 의지했던 정치세력의 주축을 잃은 그는 손으로 방바닥을 치면서 영영 울었다. 이날의 그의 울음은 이성을 잃은 어린애의 그것과 같았다---

古下 宋鎮禹 암살은 정계에 크나큰 충격을 주었다. 그의 죽음으로 韓民黨(宋鎮禹)과 國民黨(安在鴻) 人民黨(呂運亨) 및 온건파인 長安派共產黨(金鑠洙 李英 崔益翰)을 중심으로 진행되오던 左右 통합운동과 임시정부의 正統을 이을 國民大會(國會) 개최의 계획은 무산되고 말았고 朴憲永까지를 포함한 反託운동을 전개하려던 그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만다.

(4) 反託과 贊託의 회오리 - 古下의 政治路線

(동아일보 1972.2.19)

해방후 古下 宋鎮禹의 주변에서 줄곧 古下 夢陽 民世 등 여러 정치지도자를 직접 접한 柳鴻씨 (74.전 國會議員.현재 서울시 노량진洞 거주)는 다음과 같은 글을 보내왔다.

--- '南北의 對話' 시리즈중 지난 1월 13일자 '分散된 民族의 힘' 項은 古下의 해방직후 정치노선에 관해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제 古下도 夢陽도 다 세상을 떠난 지금 굳이 夢陽을 비판할 뜻은 추호도 없지만 후일의 기록을 위해 사실을 밝히려 합니다.

먼저 "古下 宋鎮禹 등이 臨政의 국제적 위치와 실력을 너무 과대평가했던 것이 잘못이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三.一운동의 주동세력으로 四八人의 한분인 古下는 三.一독립운동의 소산인 臨政의 法統을 新生 韓國에 계승시켜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 臨政의 국제적 위치와 실력을 파악하지 못하여 臨政을 영접하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古下가 각계 각층의 인사를 모아 國民大會準備會를 구성한 것은 臨政을 위시하여 해외에 망명했던 독립지사들의 환국을 영접하는 준비를 하고 그분들이 환국한 후에 國民大會를 가져 국가민족의 향방을 결정하려는 뜻에서였습니다. 이것은 臨政에 대한 義理에서 뿐만 아니라 古下가 국내독립지사를 대접한 것과 마찬가지로 해외망명중인 선배나 동지를 대접하고자 한 古下의 인품의 일단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또한 古下는 이렇게 해야만 국내외지도자를 총망라한 민족의 총역량을 건국사업에 집결시킬 수 있다고 예견했기 때문입니다.

또 "해방직후 夢陽의 협력요청에 古下가 응하였던들 左右분열은 격심해지지 않을 수 있었고 우익진영에서 夢陽과 협조했던들 '建準'이 공산당과 협력하여 좌익일변도로 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의문을 갖게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古下가 夢陽의 협조에 응할 수 없었던 이유는 첫째 夢陽이 臨時政府의 法統을 부인했다는 것 둘째 줄 수도 받을 수도 없는 政權을 민족의 적이었던 총독부로부터 夢陽이 받았다는 것 셋째 夢陽은 공산혁명으로 일로매진하겠다고 공언한 점 등입니다.

古下는 이처럼 원칙과 명분없는 정치노선에의 협력은 혼란만 더욱 가중시키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가령 일례를 들어 古下가 夢陽에게 협력했다면 臨政도 소위 夢陽의 '人共'을 떠받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또한 총독부로부터 政權引受교섭을 받고도 거절한 古下가 총독부로부터 政權을 수여받은 夢陽과 合作할 수 있을까요.

夢陽의 정치노선으로는 해내외의 민족 민주세력을 총망라할 수 없었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며 그러기에 古下는 8월 17일 夢陽이 찾아왔을 때 그의 잘못을 누누이 설명하고 臨政의 法統을 존중할 것과 건국준비는 독립지사의 환국 후에 國民大會를 열어 결정할 것을 종용한 것입니다. 夢陽이 古下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共產黨과 합세, 독주함으로써 혼란을 빚어내자 金炳魯 百寬洙 李

仁 등 제씨가 민족총집결체로서 명실상부한 체제를 갖추어 해외독립지사들이 한국할 때까지는 치안유지 정도로 하고 민족 공산 양진영의 구성비율을 최소한 左右同數로 구성할 것을 충고했는데 夢陽은 이에 일단 동의하고서도 두 번이나 번번이 공산당 일색으로 재구성함으로써 민족진영을 배신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古下가 夢陽의 잘못된 정치노선을 협력으로 중화시키려 노력했지만 夢陽이 반아들이지 아니했고 古下가 夢陽의 협력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夢陽에게는 진정한 마음에서 협력을 요청할 의사가 없었던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 夢陽자신의 뜻이 아니고 夢陽을 둘러싼 극좌파들의 압력에 夢陽도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자 처음에 夢陽과 협력하던 民世까지도 '建準'에서 이탈하였고 夢陽도 갈팡지팡하지 않았습니까. 백보를 양보하여 夢陽의背信을 감수하고서도 夢陽에 동조 협력하였다면 일시적으로 協和 비슷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할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이지요, 臨政을 받든다는 원칙하에 '人共'을 해체하지 않고서는 결국 민족진영의 패배를 자초했을 것임은 명명백백합니다.

夢陽이 민족진영과의 통일은 구하지 아니하고 곧 政權을 잡는 듯한 착각에 사로잡혀 소위 '人民共和國'을 선포하자 민족진영은 부득이 '人共' 타도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같은 夢陽의 정치행각과 정치적 식견을 古下와 同一線上에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또 "헤게모니 쟁탈욕망 때문에 (통일운동이) 실패한 것이 아쉽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실패의 원인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左右同數比率로 동의해놓고 夢陽의 헤게모니 쟁탈욕망 때문에 夢陽이 번번이 공산당 일색으로 재구성했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古下는 해방전에도 夢陽을 아끼고 도왔으며 夢陽이 臨政의 法統을 존중, 자중하면 기회가 왔을 때 지도자로 추대해주겠다고까지 했습니다.

또 "朝鮮總督府가 과연 민족주의진영 인사들에게 진정으로 政權引受를 요청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해서는 아직 객관적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하는데 이미 '南北의 對話' 시리즈 23회에서 밝힌 것처럼 총독부가 古下에게 政權引受를 교섭했지만 끝까지 거부한 사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이에 반해 夢陽은 분별없이 덤벼들어 많은 잘못과 혼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三.一운동을 지도 획책하고 옥고를 치른 다음 계속 東亞日報社長으로서 국내에서 독립운동에 몸바쳐온 古下 宋鎮禹로서는 사실 '人共'계의 좌익인사들과의 협력을 위해서 臨政을 버리기는 어려웠던 것 같다. 그에는 臨政과 臨政을 부인하는 '人共'의 둘중에서 臨政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자연 그는 臨政을 부인하는 '人共'타도의 최일선에 섰고 좌익계에서는 그러한 그에게 총공격의 화살을 던진 것도 물론이다. 그런 가운데도 宋鎮禹는 분열의 결과를 염려하여 國民黨의 安在鴻, 人民黨의 呂運亨, 共產黨의 온건파인 金鋳洙, 李英, 崔益翰 등과 함께 계속 정책의 통합을 모색, 臨政 환국을 기다렸다.

그러나 宋鎮禹가 기다리던 臨政은 각자가 하나의 黨보따리를 갖고 있을 만큼 분열돼 있었다. 金元鳳 등 좌익계를 포함한 左右聯立인 臨政은 韓民黨과 선뜻 긴밀한 제휴를 가질 것을 주저했다.

臨政재정부장 趙琬九가 宋鎮禹 등이 보낸 還國志士後援會기금 九百萬圓을 돌려왔을 때 宋鎮禹가 흥분한 어조로 "政府가 받는 稅金속에는 양민의 돈도 들어있고 죄인의 돈도 들어있는 것이요. 이런 큰일에 그것을 가지고 알가알부할 필요가 없을 줄 아오"라고 말해 해결한 일이 있었다. 또 國一館에서 베푼 귀국 환영연에서 申翼熙, 池青天, 趙素昂 등 臨政요인들이 친일을 하지 않고 국내에서 어떻게 생명을 부지해 왔겠느냐면서 친일인사 숙청론을 폈을 때 듣다못한 宋鎮禹가 "여보 海公(申翼熙) 국내에 발붙일 곳도 없이된 臨政을 누가 오게 했기에 그런 큰 소리가 나오는 거요. '人共'이 했을 것 같애? 해외에서 헛고생을 했군. 더구나 일반에게 모두 臨政을 떠받들도록 하는 것이 三.一운동 이후 임정의 法統관계지 노형들 위해서인 줄 알고 있다. 여봐요, 中國에서 궁할 때 뭇들 해 먹고서 살았는지 여기서는 모르고 있는 줄 알어? 국외에서는 배는 고팠을 테지만 마음의 고통은 적었을 거 아니야. 가만히 있기들이나 해..... 하여간 한국했으면 모든 힘을 합해서 건국에 힘 쓸 생각들이나 먼저 하도록 해요. 국내숙청문제 같은 것은 급할 것 없으니....."라고 정

면으로 공박한 일도 있었다.<註 - 古下 宋鎮禹 선생전>

그러나 宋鎮禹가 생존해 있을 때에는 李承晚 金九 韓民黨의 관계는 그런대로 그가 유지했지만 그의 암살사건 이후로는 臨政과 韓民黨의 관계는 급속히 악화되어 민족진영까지도 분열돼버리고 만다.

42. 祕話 - 宋鎮禹의 暗殺

<東亞日報> (1973.6.26-7.5)

한해도 거의 저물어가는 年末의 어느날 새벽. 祕苑 돌담을 낀 苑洞의 골목길을 따라 두명의 젊은 청년이 오버코트속에 얼굴을 푹 파묻은 채 말없이 북쪽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다.

서복풍이 몰아치는 쌀쌀한 새벽길엔 아직도 어둠이 깔렸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두 사나이가 얼어붙은 눈길을 밟는 발짝소리만이 사박사박 적막을 깨뜨렸다.

새벽 5시 50분. '鍾路區 苑洞 74番地'라고 쓴 주소 팻말이 나붙은 한식 기와집 문앞에 다다른 이들은 집 주위를 몇차례 배회하다가 뒤미처 계동쪽 골목길을 따라 나타난 세명의 다른 청년들과 합류, 그집 뒷골목 언덕배기에 있는 老松밑에 모였다. 둘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인기척을 살폈고 셋은 무엇인가 귀엣말을 주고받았다.

1945년 12월 30일이니까 해방을 맞은지 불과 4개월 남짓 美軍政초기의 정국은 대소정당이 우후죽순처럼 난립하는 가운데 上海臨時政府요인들이 막 還國을 했고 左右翼의 대립 등으로 격동을 치르고 있었다. 더구나 信託統治說로 물끓듯 소연해가고 있을 때였다.

딱 벌어진 체구에 중절모자를 깊숙이 눌러쓴 사나이를 가운데 두고 귀엣말을 주고받던 두 청년은 그들이 배회하던 한식 기와집 담을 단숨에 뛰어넘어갔으며 중절모의 사나이도 뒤따라 담을 넘어 들어갔다. 두 사나이는 여전히 밖에서 망을 봤다. 어디선가 과중시계가 정각 6시를 치는 소리가 가냘프게 들려왔다. 돌층계를 몇계단 돌아 대문이 굳게 잠긴 이 조선 기와집이 바로 韓國民主黨 수석총무 古下 宋鎮禹의 집이었다.

난데없이 13發 亂射

宋鎮禹는 전날도 아침상을 물리자마자 韓民黨숨로 발길을 옮겼고 美軍政廳을 찾아가 하면 오후엔 같은 韓民黨의 金俊淵과 같이 죽침莊(뒤의 京橋莊.지금의 高麗病院 자리) 임정회의에 참석, 金九 등 임정요인들과 信託統治문제 등을 장시간 논의했다. 돌아오는 길에 同行하던 金俊淵을 병원으로 보내고 저녁 10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마침 여러날 묵고있던 외사촌동생 梁仲默(53)이 출타하고 없어 혼자 저녁상을 받은 宋鎮禹는 梁仲默이 돌아온 후 자정이 넘어서야 梁仲默과 같은 방에서 잠이 들었다.

“만일 가족이나 경비원이 나오면 서슴지 말고 폭탄으로 해치워버려”

중절모의 사나이가 나지막한 소리로 명령하며 허리춤에서 권총을 뽑자 다른 두 청년도 권총과 단검을 꺼내 들었다. 宋鎮禹는 山亭別채에 기거하고 있었다. 철조망을 넘어든 세 사나이 중 한명이 재빨리 山亭밑으로 내려가 본채를 감시하는 사이 중절모의 사나이와 다른 한 청년은 곧바로 山亭別채로 향했다. 이들은 이 집의 내막과 구조를 잘 알고 있는 듯했다.

두 청년은 미닫이식 유리문이 닫혀있는 별채앞 신발둘위에 멈춰섰다. 중절모의 사나이가 유리문에 손을 대려할 찰나

“게 누구요”

하는 나지막한 목소리가 방에서 들려나왔다. 중절모의 사나이가 유리문을 드르륵 열고 마루위로 올라온 청년이 전기스위치를 올려 방안에 전등불이 켜지는 순간 宋鎮禹는 벌떡 일어나며

“아니 웬놈들이냐”

고 소리쳤다.

방문을 열어젖히며 “탕탕탕.....” 연속으로 쏘아대는 도합 13발. 총소리는 고요한 새벽공기를 찢었다.

범인들은 같은 방에서 자다 놀라 깨어 이불을 뒤집어쓰고 부들부들 떨고있는 梁仲默에게도 총을 쏘았다. 총탄1발이 梁仲默의 오른쪽 대퇴부를 뚫었다. 뜰아래 방에서 자던 宋鎮禹의 조카 英洙(33.宋鎮禹 작고후 양자로 입적)와 경호원 鄭鍾根(26)이 총소리에 놀라 깨어 방을 뛰쳐나왔다. 山亭별채에 불이 켜져있는 것을 보고 무슨 변이 일어났음을 직감한 이들이 山亭으로 황급히 올라가려하자 총알은 이들에게도 날아왔다.

鄭鍾根의 다리 사이와 宋英洙의 머리 위를 스치고 지나갔다. 범인이 연속으로 쏘아대는 총탄은 행랑방 기둥을 뚫고 나갔다.

범인이 가까운 거리에 있다고 판단한 鄭鍾根은 “누구냐”고 소리치며 호신용 브라우닝권총을 꺼내 방아쇠를 잡아당겼으나 불발, 몸을 벽에 착 붙이고 범인의 총탄을 피했다.

조카 英洙와 경호원 鄭鍾根이 山亭으로 올라갔을 때는 宋鎮禹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었고 梁仲默도 오른쪽 대퇴부에 관통상을 입고 넘어져 있었다.

宋英洙는 황급히 몇몇 친지들에게 이 변을 전화로 알렸다. 전날밤에도 늦도록 宋鎮禹와 담소를 하고 돌아갔던 익선동의 姜柄順이 근처 金雄奎 외과 의사를 데리고 허겁지겁 달려왔다.

“이미 숨을 거두셨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흉탄은 심장과 안면하관절에 각각 1발과 복부에 3발 등 도합 6발이 관통했다.

1945년 12월 30일 아침 6시 15분. 宋鎮禹는 이렇게 해서 숨을 거두었다. 宋鎮禹의 나이 55세였다. 급보에 접한 종로경찰서 형사들이 출동, 현장을 보존하고 현장검증에 나섰다. 넓은 정원 안과 집주위를 샅샅이 조사했으나 증거가 될 만한 것이라고는 범행에 쓰인 권총탄피와 山亭뒤편으로 난 발자국뿐 범인들이 장갑을 끼었는지 지문조차 찾을 수 없었다. 새벽에 일어난 사건이라 범행 현장 주위에서 수상한 사람들을 보았다는 목격자도 나타나지 않았다.

대퇴부에 관통상을 입고 근처 외과병원에 입원한 梁仲默은 다음날 아침에야 정신을 가다듬고 宋鎮禹와 한방에서 자다가 흥변을 겪은 악몽같은 그날 새벽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건 전날밤 宋鎮禹는 자정이 넘어서 梁仲默과 같이 잠자리에 들었다.

“안으로 문을 걸까요”

하고 宋英洙가 물었더니

“문은 왜거느냐, 내버려두어.....”

하며 宋鎮禹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12월 중순께부터 시정에는 지도자 암살설이 떠돌았고 苑洞 宋鎮禹집 주변에도 이상한 공기가 감돌아 조카 英洙가 문단속을 제의했으나 宋鎮禹는 응하지 않았다. 문을 안으로 잠그지 않는 것이 宋鎮禹집의 관습이었다.

宋鎮禹는 새벽 4시경 깨어 일어났다. 梁仲默도 함께 일어나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시국담을 하다가 담배를 한 대씩 피우고 새벽 5시경 다시 잠을 청했다.

허전 착잡한 李承晩

아침 6시쯤 해서 梁仲默이 잠이 어렵듯이 들려는데 인기척이 뒤곁에서 들렸다. 이때 宋鎮禹가 “누구요”하고 평상대로 말했으나 아무 대답이 없더니 잠시후 마루 유리문이 갑자기 열리고 영창문이 활짝 젖혀지면서 순간적으로 괴한들이 총을 쏘아댔다.

“형님은 흉탄에 쓰러지신 후 아무 말도 못하셨습니다 태연자약한 모습으로 최후를 마치셨어요.....”

梁仲默의 말이었다.

경무국장 趙炳玉과 張澤相이 홍보를 듣고 맨먼저 달려왔고 뒤미처 金性洙가 잠옷바람으로 황망

히 달려와 이미 숨을 거둔 차디찬 宋鎮禹의 손을 붙잡고

“깨끗한 일생을 마쳤구려”

하며 침통해 했다.

돈암莊의 李承晩도 홍보에 접하자 마음이 허전하고 착잡했다. 한때나마 韓民黨총재 추대문제와 좌우합작문제의 이견으로 다소 소원했던 宋鎮禹지만 얼마전 자기에게 “지금 시국으로는 李承晩박 사밖에 政局을 맡을 인물이 없으니 사소한 일에 낙심말고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던 것을 상기했다.

宋鎮禹암살을 공산당의 소행으로 판단한 京畿道警察部長(후에 首都廳長) 張澤相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사건의 犯人만은 체포해서 공산당의 음모를 백일하에 폭로하겠다고 결심, 美國陸軍特務隊(CIC)와 서울지방법원 검사국에 수사협조 의뢰를 하는 한편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범인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단서가 될 物證이라고는 사건현장에서 발견된 日本제 99식 권총탄환과 탄피뿐 도움이 될 만한 다른 증거품이 없어 수사는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사건 전날밤 宋鎮禹가 金九의 숙소인 죽점莊에서 늦게 돌아온 사실을 눈여겨 우선 사건 전날밤 죽점莊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수사를 폈다.

그러나 宋鎮禹암살에 관계될 만한 아무런 단서도 떠오르지 않았다. 보름이 지나도록 수사에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한 張澤相은 초조한 나머지 수사과장겸 官房長인 盧德述을 불렀다.

“수사과장, 어떻게 속한 시일내에 犯人을 체포할 묘안은 없소. 내 생각으론 공산당의 所行이 분명한 것 같으니 수사과장 책임하에 그 방향으로 철저히 수사해보시오”

張澤相의 이같은 명령에 한참 생각에 잠겼던 盧德述은

“‘6人組’를 풀어 수사하겠습니다”

고 말했다.

‘6人組’란 당시 盧德述수사과장의 직속조직으로 強力事件을 전담해온 高英煥 張昌海 朱哲淳 金順華 崔蘭洙 金壬銓 6명의 민완형사를 말하는 것이었다. 큰 強力事件은 모두 이들이 척척 해결해 냈다.

나는 새도 떤다는 ‘6人組’가 수사에 투입되자 수사는 전보다 훨씬 活氣를 띠었다. 우선 많은 情報가 이들을 통해 입수됐다.

일제때 高等系 刑事를 지낸 수도청 知能主任 崔蘭洙는 정보를 얻기 위해 西北青年團 등 이북에서 내려온 청년들이 들끓는 韓美호텔(현 대원호텔)에서 노상 살다시피 했고, 동대문경찰서 사찰계 金壬銓형사는 주로 共產계열 내부에 의심을 두고 朝鮮共產黨의 朴憲永일파를 뒤쫓았다.

그러던 어느날 ‘6人組’앞으로 이상한 情報가 날아들었다. 서울 赤十字병원의 어느 간호원이 宋鎮禹살해범을 알고 있다는 情報였다.

형사대들을 급히 赤十字병원으로 보냈으나 문제의 간호원은 1개월전에 사직해버려 이미 없었다. 그러나 다른 간호원들을 통해 情報를 캐던 형사대는 의외로 중요한 단서를 잡았다.

문제의 간호원 尹鳳三(31)은 宋鎮禹암살사건이 있기 바로 한달전인 11월 병원에 再歸熱로 입원한 白모라는 환자를 간호하다가 사랑을 속삭이게 됐는데 그 환자는 병원에 입원한지 2주일가량 되어 완치가 됐는데도 퇴원을 앓고 근 2개월이나 입원해 있었다는 것이다. 그 사나이가 독방으로 쓰고 있는 3층 28호실에는 여러 청년들이 자주 드나들었다. 환자는 때로 尹간호원의 양해를 얻어 외출을 하곤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白모라는 그 사나이에게 妻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尹간호원이 다소 쌀쌀해지자 그 자는 어느날 尹간호원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인지 “宋鎮禹를 죽인 것은 우리편에서 한 것이야. 우리들은 이렇게 큰 일을 하고 있다”며 뽐냈다.

환심은 커녕 尹간호원이

“그런 끔찍한 일을 당신네들이 저질렀단 말예요”

하며 크게 놀라는 빛을 보이자 白은

“우리에게는 武器가 있으니 함부로 어디가서 입을 놀리면 재미없어”

하며 위협을 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총각인줄 알고 白모라는 환자와 한때 사랑을 속삭이던 尹간호원은 결국 풍기를 문란시켰다 하여 병원에서 축출당했고 고향인 鎭南浦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였다.

古下경호원에 端緒

수사진은 우선 白이라는 성을 가진 宋鎭禹 주변인물을 찾아보았으나 선뜻 떠오르지 않았다. 46년 2월 13일 또 다른 정보가 날아들었다. 宋鎭禹의 신변경호자로 있던 청년이 海岸警備隊에 입대하게 됐다는 것이었다. 당시 해안경비대 입대자는 美軍의 인술을 받게 돼 있었으므로 張澤相 수도청장은 美軍당국의 협조를 얻어 盧勳慶 경위와 李만중 형사를 京城驛(서울역)에 급파했다. 두 형사는 미군 2명의 안내로 열차를 기다리고 있던 입대자 가운데서 宋鎭禹의 경호를 맡은적이 있던 金日洙를 찾아내 임의동행을 시켰다.

宋鎭禹의 신변경호책임을 맡은 적이 있던 白南錫 金義賢 申東雲 朴閔錫 劉根培 등이 사건이 나기 한달전 宋鎭禹와 ‘主義主張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호직을 물러났는데 金日洙가 종로통에서 한번은 金義賢을 만나 “宋鎭禹를 누가 암살했냐”고 물은즉 金義賢은 “그런걸 왜 내게 묻느냐. 누구면 알아서 무엇 할테냐”면서 당황한 표정으로 사라졌다는 것이다. 金日洙는 “申東雲과 白南錫을 잡아 물어보면 진상을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진술했다. 수사진은 金日洙가 말하는 白南錫과 赤十字병원에 입원했었다는 白모가 동일인물일 것으로 보았다.

‘6人組’의 崔蘭洙는 당시 정치에 관심을 둔 청년들의 동태를 훤히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 용의자 검거는 떡먹기였다. 다음날 崔蘭洙는 아침밥을 먹고 있던 白南錫과 申東雲을 검거했다.

“너희들이 宋鎭禹를 살해했지”

“직접 범행은 하지 않았소”

두 용의자는 끝까지 자신들의 범행을 시인하지 않을 뿐 아니라 범인을 모른다고 딱 잡아땀다.

“용의자들이 전혀 배후를 불지 않고 있습니다”

盧德述수사과장의 보고를 받은 張澤相은 무슨 다른 방도가 없느냐 하고 물었다.

“한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자칫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까 해서.....”

“그 방법이 무엇인데”

張澤相은 다그쳐 물었다.

“용의자를 석방해 주고 미행을 하는 겁니다”

가만히 듣고 있던 張澤相은

“옳지, 그거 좋은 생각이야. 그러나 용의자까지 놓치지 않도록 하라구”

나흘 뒤 수사본부는 申東雲과 白南錫을 “혐의가 없다”고 풀어주고 형사대를 따라붙였다.

한편 韓美호텔에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며 명백한 용무없이 호텔을 드나드는 사람을 조사하던 崔蘭洙형사는 돈을 물쓰듯하며 호텔을 무상출입하는 韓賢宇란 사나이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하루는 이 자를 미행기로 했다.

韓賢宇 등 일망타진

韓이 도착한 곳은 성동區 신당洞 304 2층집이었다. 청년은 주위를 한번 살펴본 뒤 무엇에 쫓기는 사람처럼 황급히 들어가 버렸다. 崔蘭洙는 이 집에 대한 情報를 이웃사람들로부터 수집, 우선 이 집이 일본군 대좌가 살던 적산가옥이라는 사실과 매일 이 집속에서는 총소리 같은 것이 들린

다는 것을 알았다. 문틈으로 집속을 기웃거리보니 널따란 마당 한가운데 고목나무 한 그루가 서 있고 거기다 표적을 만들어 청년들이 권총사격 연습을 하고 있었다. 의심이 짙게 가는 집이었으나 당분간 관찰만 하기로 했다.

白南錫과 申東雲에 대한 형사대들의 미행도 계속됐다. 1개월 반이나 끈덕지게 미행하는 동안 수사본부에 각종 정보가 날아드는 가운데 이들 두 용의자가 드디어 신당洞 韓賢宇의 집에 드나드는 사실이 포착됐다. 수산선상에 오른 劉根培는 仁川부두에 잠복중이라는 정보도 입수됐다. 盧德述은 '6人組'와 각 수사진들에게 범인들의 일망타진을 명령했다. D데이는 4월 8일. 2개반의 형사대중 한패는 仁川으로, 한패는 용의자들이 밤에 모이기로 된 신당洞 韓賢宇의 집 주위에 잠복했다.

이날밤 8시 30분 仁川 화평洞에 숨어있던 劉根培가 체포되었다. 10시 20분 韓賢宇집에서는 韓과 金義賢 李昌希 金仁成 등이 검거되었다. 宋鎮禹가 살해된지 3개월 8일만이었다.

韓賢宇(28)는 태연자약하게 범행을 시인했다. 劉根培(19) 金義賢(20) 金仁成(20) 李昌希(18) 등과 함께 범행을 했다는 것이었다.

韓賢宇일당을 검거한 수도경찰청은 그 배후에 共産黨의 사주가 있지 않나 하는데 搜查의 초점을 돌렸다. 우선 韓賢宇의 처 李鳳得(22)을 소환했다. 만삭이 된 李鳳得은 春川女高출신, 취조형사 앞에서 그는 "그이가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리라고 생각할 수 없다"면서 울음을 터뜨렸다.

韓賢宇의 처 李鳳得이 숨이 찬 목소리로 말하는 犯人 韓賢宇는 이런 사람이었다.

고향은 平北 中江鎭. 4형제의 장남으로 비교적 넉넉한 집안에 태어나 日本에 유학했다가 해방 바로 직전인 45년 2월에 귀국했다.

고향에서 세 동생들과 살고 있는 홀어머니를 잠깐 찾아보고난 韓賢宇는 바로 春川으로 내려와 '啓蒙義塾'이라는 사설학원을 차리고 청년계몽운동을 벌였다. 그가 하는 청년운동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많은 청년들과 어울려 강의 토론 등으로 밤을 꼬박 새우기도 했다.

아내가 본 韓賢宇

자신이 韓賢宇를 사귀게 되고 장래까지 약속한 것은 이 무렵이었다.

해방 뒤 韓賢宇는 자기와 함께 서울로 올라와 한때는 鍾路의 어느 친척집에 묵다가 남산洞 신당洞 등으로 주거를 옮겼으며 신당洞의 2층적산가옥으로 이사한 후로는 다시 청년들과 접촉이 많아졌다.

"이때부터 어디서 벌어오는지 생활비도 많이 갖다주곤 했어요"

李鳳得은 이렇게 회상했다.

"그러나 남편은 밖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생활비는 어디서 벌어오는지 일체 밝히려 하지 않았고 수시로 청년들을 자주 집에 몰고와 저녁과 술대접을 했다"

고 말했다.

李鳳得은 한참 생각에 잠겼다가

"그이가 늘 일제때 고향(平北 중강진)의 경찰서사법주임인 요코야마(橫山)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말한 점으로 보아 그이도 본래 공산주의자가 아니었던가 싶다"

고 의외의 진술을 했다. 李鳳得의 진술에 귀가 번쩍 뜨인 취조형사가 다그쳐 물었다.

"평소 주인에게서 무엇인가 이상하다고 느낀 점은 없소"

"글쎄요. 서울에 온 후로 그이는 권총을 늘 몸에 지니고 다녔어요. 그런 위험한 무기를 왜 차고 다니느냐고 물은 적이 있어요"

李鳳得은 의문에 싸였던 지난 일을 되살렸다.

한편 형사대는 犯人の 한사람인 劉根培의 부모가 살고있는 서대문區 천연洞 120번지를 찾았다. 서대문 밖 동명여학교옆 고불고불한 골목길을 한참 걸어올라가니 예배당 둘째골목 셋째집에 劉昌浩란 문패가 붙어있다.

재목상을 하는 劉根培의 아버지 劉昌浩는 仁川 친척집에 가고 없었고 어머니 金慶順(43)이 문을 열었다. 劉根培의 집에서는 이렇다 할 수사의 뒷받침이 될 자료를 얻지 못했다. 왜냐하면 내성적인 성격의 劉根培는 집에서는 일체 밖에서 하는 일을 입밖에도 내지않았을 뿐만 아니라 집을 등지고 주로 밖에 나가 살았기 때문에 집안식구들조차 그의 動靜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역시 卞北이 본적인 劉根培는 培材中學시절 총검술 선수였으며 17세에 중학을 졸업하고 日本陸士에 지원했으나 낙방하자 체신국과 공산연구소 등에 한때 취직했었다. 日帝말엽 폭격이 두려워 江原道 운천에 소개(피난)를 갔다가 해방 뒤 서울로 돌아온 劉根培는 정치운동에 흥미를 갖고 매일 밖에서 살았다. 宋鎭禹 암살 직전인 45년 12월초 “선생집에 간다”면서 집을 나간 후 소식을 몰랐다는 것이 어머니의 말이었다. 하지만 ‘선생’이 누구인지는 분명치 않았다.

背後搜查는 오리무중이었다.

首都警察廳 수사과장 盧德述은 韓賢宇를 달래가며 그의 배후조종자가 누구인가를 캐고 들었다. 韓賢宇는 시종일관 背後관계를 부인하면서 자신들의 독자적인 범행임을 주장했다. 수사과정에서 떠오르는 범인들의 공통점은 모두 日本에 가있었거나 學兵출신들이라는 점이다. 浩然之氣가 대단한 것처럼 보였고 자신들은 民族主義者요 愛國者라고 자부하는 것이었다. 또 이들은 모두가 사격의 명수였으며 韓賢宇를 제외하고는 모두 팔팔한 20대전후의 미혼자들이었다.

수도청장 張澤相은 背後수사가 난관에 부딪치자 회유책을 쓰도록 지시했다. “범인들을 특별대우 하라”고 그는 수사관들에게 타일렀다. 범인들은 경찰에 신병이 확보돼있는 동안 특별주문한 좋은 음식에 잠은 침대에서 자도록 했다.

어느날 張澤相청장이 취조실로 직접 韓賢宇를 찾아갔다.

“어떤가? 만약 자네가 배후관계를 솔직히 자백하면 자네들의 죄는 가벼워지네. 솔직히 말해봐”

“뭐요. 애국지사를 존대는 못할 망정 자네가 뭐니까”

韓賢宇는 발끈 화를 내며 외면을 했다.

“그래 韓同志 미안해. 다음부턴 자네라고 안그러지”

張청장은 이렇게 얼버무리고 말았다.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

“그래 지금 심정은 어떤가”

수사과장 盧德述이 韓賢宇에게 묻자 그는

“체포되고 보니 마음은 편안하다”고 태연했다.

“나를 共產主義者로 아는 모양이나 그것은 나를 모르는 때문이오. 사실 나는 宋鎭禹 암살 을 노린 것이 아니라 呂運亨 朴憲永도 함께 죽일 생각이었소”

하고 천만뜻밖의 말이 오랜만에 터져나왔다.

진짜 犯行動機는

“그럼 범행동기는.....”

“나는 東京유학시절부터 철저한 民族主義者로 자부했소. 그런데 해방직후 상경하여 각방면의 정세를 살펴보니 자주독립을 표방하는 정당이 속출하여 ‘자유해방’이다 ‘자주독립’이다 말들만 떠들고 의견통일이 되지 않는 것을 보고 치가 떨렸소”

“그렇다면 宋鎭禹 朴憲永 呂運亨씨 등을 죽이면 그런 정치풍토가 개선되리라고 생각했단 말인가”

“물론입니다. 말로만 애국자인 체하고 뒷구멍으로 야심만 채우려는 정치인은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古下를 암살한 건 어떤 근거에서인가“

盧德述은 집요하게 캐물었다.

“訓正을 주장하다니 될 말입니까“

韓賢宇는 분명하게 대답했다. 宋鎮禹가 ‘信託統治를 받을 바에야 차라리 美軍政이 더 연장되는 편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이른바 訓正說을 주장했다는 풍문이 나돌았었다. 그것이 사실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좌익계에서 그런 풍문을 조작해 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말도 나돌았다.

全栢이라는 새 人物

수사진의 끈덕진 취조결과 韓賢宇의 背後에 全栢(41)이라는 새 人物이 수사선상에 떠올랐다.

다음은 韓賢宇가 자백하는 범행모의와 경위.

- 해방직후 서울에 올라와 東京유학시절 동지인 李龍奉의 소개로 성동區 신당洞 333 全栢을 찾아갔다. 韓賢宇와 全栢은 時局觀에 뜻이 맞자 그후 자주 만났다.

이들은 “정치적 야심가를 제거해서 정치풍토를 바로잡자”는데 합의, 全栢은 우선 무기와 자금은 자신이 조달하고 韓賢宇는 심복부하를 물색하는 책임을 맡기로 했으며 거사일을 정해 그들 나름대로 정치적 야심가라고 규정한 宋鎮禹 呂運亨 朴憲永을 차례로 암살할 계획을 꾸몄었다.

그해 12월 29일 오후 5시경 신당洞 全栢의 집에는 全栢을 비롯하여 韓賢宇 金義賢 劉根培 金仁成 李昌希 申東雲 白南錫 등 8명의 청년이 모여앉아 음모를 꾸몄다. 全栢은 거사자금으로 10萬圓과 中國에서 돌아올 때 가져온 일제 99식 권총 한자루를 韓賢宇에게 내놓았다.

“이것은 환자에 대한 독약과 같은 것이니 신중히 사용해야 하오“

거사 성공을 비는 뜻에서 그들은 축배를 들었다. 宋鎮禹가 이들에게 피살된 것은 다음날 새벽이었다.

새 사실을 밝혀낸 盧德述수사과장은 형사대를 풀어 서울시내 모처에서 이들이 숨겨두었던 권총 세자루 단도 네자루 권총실탄 200여발과 사제폭탄 2개 등 범행에 쓴 무기를 압수하는 한편 행방을 감춘 全栢을 전국에 지명수배했다.

首都警察廳은 범인일당 5명을 20일동안 취조하면서 배후에 全栢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있었다는 사실과 韓賢宇는 범행직후인 1월 17일 서울에 돌아왔다는 사실밖에는 다른 배후관계는 밝혀내지 못했다.

韓賢宇는 끝까지 다른 배후는 없으며 범행동기는 순수한 愛國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건직전 宋鎮禹와 臨政사이에 심한不和가 있었다는 설도 없지않아 경찰은 臨政의 주변까지 수사각도를 돌려 보았지만 역시 아무런 단서도 잡지 못했다.

“그래 배후가 안 나온다면 미친놈들의 소행이란 말인가“

수사과장 盧德述의 수사결과 보고를 듣고난 首都廳長 張澤相은 답답한 심정에서 불끈 역정을 냈다.

“全栢이란 자를 검속하면 다른 배후관계가 나올지 몰라도 지금단계론 狂亂者들의 소행으로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盧德述 수사과장의 결론이었다. 그해 4월 29일 수도경찰청은 결국 韓賢宇 등 5명만을 殺人과 布告令3호 및 5호 위반으로 京城地方法院 檢事局에 송치했다. 全栢은 잡지못한 채 수사는 일단 종결했다.

主犯 韓賢宇의 과거

“정부수립이 이렇게 지연될 바에야 하루빨리 이세상을 떠나서 모든 것을 잊는 것이 편할 것 같습니다”

韓賢宇가 담당 金占錫검사에게 하는 말이었다.

主犯 韓賢宇는 어떤 사람인가. 41년 12월 와세다(早稻田)大學 정경과를 졸업했다는 韓賢宇는 43년 5월경 東京에서 국수주의자인 일본인 나카노 세이코(中野正剛)와 알게되어 그를 숭배하고 따르다가 나카노의 권유로 재일조선인 유학생을 모아 '朝鮮獨立聯盟'이라는 비밀결사를 조직, 지하독립운동을 한 적이 있다고 그는 경찰과 검사국에서 말했다.

그는 나카노의 지도아래 '일본국제연구소'라는 간판을 내걸고 일본황실중심주의를 표방하다가 도조히데끼(東條英機)首相의 암살을 음모한 혐의로 日警에 체포되어 44년 3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일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韓賢宇의 주장은 앞뒤가 잘 맞지 않았다. 검사국 조사결과 당시 일본에서 정말로 韓賢宇가 나카노 세이코의 지도를 받았다면 그가 조직한 '도요렌메이(東洋聯盟)'에 가담했었을 것이 분명했고 그당시 조선독립연맹이란 조직이 있었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말이었다.

또 나카노는 국수주의자가 아니라 좌익계인물로서 도요렌메이는 조선독립과는 전혀 무관한 '동양인은 동양인들끼리'라는 동양주의를 표방한 좌익성을 띤 단체였다. 또한 일본내각총리 도조首相을 살해음모하고도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주장은 더욱 납득이 가지 않았다.

檢事局의 金洪燮 검사와 金占錫 검사도 10일간 범인들을 수사했으나 경찰에서의 수사보다 이렇다 할 다른 사실을 캐내지 못한 채 5월 9일 韓賢宇 등 5명을 殺人 및 布告令위반으로 기소했다.

宋鎮禹暗殺事件 공판이 京城地方法院에서 李天祥판사 주심으로 진행되고 있을 무렵 수도경찰청의 끈덕진 수사 끝에 7월 5일 背後人物로 지목된 宋栢도 체포되었다.

한편 7월 19일 오전 10시 40분. 公判廷인 4호법정에는 金俊淵(韓民黨 民主議員)과 咸大勳(漢城日報 編輯局長)이 증인으로 나왔다.

먼저 咸大勳이 증언대에 올랐다.

“韓賢宇피고인이 범행직후 黃海道 海州로 가서 당시 朝鮮民主黨 사무국장으로 있던 증인을 만났다는 게 사실이요?”

“네 사실입니다”

“그때 韓賢宇 피고인이 宋鎮禹씨 암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일이 있소?”

“宋鎮禹씨를 누가 죽였을까 하고 물어보았더니 '아마 右翼쪽에서 저지른 범행일 것'이라고 韓賢宇가 말하더군요”

“韓賢宇피고인이 西北지방을 다녀온 것은 바로 범행직후인데 증인은 韓피고인이 누구 명령을 받고 西北지방을 다녀왔는지 알고 있소”

“海州에서 만났을 때 韓의 말이 臨政의 嚴恒燮씨가 시킨 것이라고 말했으나 나중에 알고보니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金俊淵에겐 宋鎮禹가 생전에 建國準備委員會 등을 배척하고 韓民黨을 만든 사상의 동기와 당 운영 상황에 대해 물었다.

動機까지도 베일에

檢察은 求刑을 앞두고서도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殺人也 犯人 자신이 自白하고 있고 또 증거가 뚜렷하지만 殺人の 背後나 動機는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담당 金占錫검사는 金溶燦검사장을 찾아갔다.

“宋鎮禹씨를 범인들이 죽인 동기와 배후가 뚜렷하지 않은 이상 사형구형은 공소유지상 어렵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총장과 상의를 해봅시다”

金溶燦검사장은 金占錫검사와 같이 檢察總長 李仁 방을 두드렸다.

“주범에게도 사형구형만은 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사형을 구형하라구”

李仁은 명령하듯이 딱 잘라 말했다.

“이 사람들아, 치안확보가 제대로 안돼 야단인데 설사 지도자 살해가 아니더라도 사람을 살해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용납할 수 없어.....”

宋鎮禹와 친분이 두터운 李仁은 宋鎮禹가 암살되던 날 현장으로 달려갔던 일이 생생한데 자신이 직접 이 사건을 지휘하게 되는 것이 벅찼다.

李仁의 명령대로 金占錫검사는 다음과 같이 求刑했다. 韓賢宇 사형, 劉根培 무기징역, 李昌希 金義賢 단기 5년 장기 10년 징역, 金仁成 징역 10년.

“한 개인의 테러로 인하여 위대한 朝鮮의 지도자를 살해한 주범 韓賢宇의 행위는 무기징역형으로도 일반사회가 용서치 않는다”

는 金占錫 검사의 사형구형 이유의 한토막이다.

그러나 判決은 구형보다 훨씬 가벼웠다. 8월 2일에 열린 판결공판에서 李天祥판사는 韓賢宇와 劉根培에게 무기징역형을, 金義賢과 金仁成에게 징역 10년을, 李昌希에게는 단기 5년에 장기 10년을 각각 선고함으로써 담당 金占錫 검사가 예측한 대로 주범 韓賢宇에게도 극형은 피했다.

檢察總長 李仁은 법원판결에 불만이였다. 檢察이 즉시 불복항소를 제기하자 피고인측에서도 모두 항소했다.

한편 韓賢宇등 5명에 대한 1심판결이 끝난 뒤인 8월 19일 살인방조 및 불법 무기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문제의 인물 全栢은 어떤 인물이었던가.

본명은 全秉龜, 全栢은 永和기업사라는 해운회사 사장으로 돈도 제법 있었다. 그는 慶南 양산郡 양산面 중부리 출신으로 中國 廣東省에 있는 建國廣東大學 문과와 철학과를 나와 귀국후에는 趙喆鎬 方定煥 등의 소년운동에 참가한 일도 있었다는 것이다. 어릴 때부터 모험심이 많았다는 全栢은 中國에 있을 때 중국정부의 첩보기관인 ‘藍衣社’에서 일한 일도 있었다고 한다.

“韓賢宇의 범행 직전 全栢은 韓賢宇를 만나 韓民黨의 宋鎮禹와 建準의 呂運亨 共産黨의 朴憲永 등에 대한 암살계획을 듣고 이 계획에 찬의를 표시, 일본 99식 권총 1자루를 내주며 ‘이것은 환자에 대한 독약과 같은 것이니 신중히 다루어야 한다’고 암살계획을 협조 내지 방조했으며 범행직후에는 韓賢宇를 불러 범행경위를 듣고 ‘용감하게 처치했다. 그 애국정열을 끝까지 잊지말라’고 칭찬했다”

檢察은 이와같이 起訴狀에서 全栢을 殺人을 방조한 人物로 지목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全栢에 대한 공소사실은 全栢과 韓賢宇의 자백에 따른 것이었지만 역시 다른 정치배후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맥빠진 내용이었기 때문에 韓民黨과 宋鎮禹 측근에서는 매우 불만스러웠다.

왜냐하면 배후수사에 큰 기대를 걸었던 全栢마저 그것도 공범으로서가 아닌 단순한 살인방조혐의로 기소된 데 대한 불만이였다.

全栢 檢察진술 반복

46년 9월 3일 全栢에 대한 제1회 공판, 재판장 李天祥, 배석판사 李奉奎 沈同求, 검사 姜錫福.

“피고인은 범행 직전 韓賢宇를 만나 ‘朝鮮은 중병환자고 그대는 독약이 든 주사기를 소지한 의사라고 볼 수 있다. 그 주사를 잘못 사용하면 환자는 급사할 것이니 경솔히 쓰지말고 주사액의 분량과 시기를 잘 택하라’고 말했다는게 사실인가”

“그런 말은 韓賢宇에게 직접 한 일은 없고 경찰에서 취조받을 때 그 당시의 나의 심경을 말한 것뿐이요”

이렇게 全栢이 경찰에서 진술한 사실을 반복하자 李天祥 재판장은

“한 말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면 되는가”

하고 준엄하게 꾸짖고 全栢이 부인하고 있는 범죄사실의 핵심부분인 ‘독약든 주사’ 발언내용 여부에 대해 계속 추궁했다.

“피고인은 韓賢宇에게 독약도 적당히 쓰면 효과가 있다는 의미로 말한 것인가”

“그렇습니다”

“韓賢宇가 요인암살 계획을 상의할 때 왜 말리지 않았는가”

“벌써 결심이 굳게 된 것을 말린들 소용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권총은 韓賢宇에게 언제 주었는가”

“작년 10월 상순입니다”

“권총을 왜 주었는가”

“권총이 고장난 것 같아 수리해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범행전후에 피고인은 韓賢宇에게 10萬圓의 현금을 준 사실을 경찰에서 자백했는데 그 돈은 무엇에 쓰라고 주었는가”

“‘啓蒙義塾’을 만들어 청소년들을 훈련한다기에 그 자금으로 주었습니다”

全栢은 경찰과 검사국에서의 진술 내용을 재판관 앞에서는 번번이 부인하고 반복했다.

10일 뒤인 9월 13일에 다시 열린 제2회 공판예선 全栢에 대한 공소사실중 제일 중요한 부분인 ‘무기대여’ 여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全栢은 법정에서 “韓賢宇에게 당시 수리를 부탁했던 권총을 宋鎭禹 암살 직전 도로 받아 경찰에 맡겼기 때문에 범행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딱 잡아땀었으나 이 진술의 증인으로 출정한 수도경찰청 盧勳慶경위는 “全栢이 권총을 경찰에 납입한 일은 있으나 그 날짜가 범행후인 금년 2월 23일”이라고 증언, 무기납입 기록카드까지 제시함으로써 중요한 범죄사실 부분을 부인하려던 全栢의 안간힘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피고인은 韓賢宇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한 사실을 자백했고 宋鎭禹 呂運亨 朴憲永씨 등 살해계획에 찬의를 표시한 사실도 자백했다. 피고인은 어느 점에서나 지도자적 입장에 있으며 국내외에서 조국을 위하여 투쟁한 데 대해서는 본직으로서도 동정에 넘치는 바나 피고인이 역사적 조국재건의 위대한 지도자들의 암살계획을 찬양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사실이다. 만약 피고인이 범죄 직전 韓賢宇의 그런 악착스런 계획을 지도자로서 방지했다면 이런 비참한 사실을 발생시키지는 않았을 것이다. 살인에 있어서는 방조나 교사에 죄의 경중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의 형을 구하는 바다”

간여 姜錫福검사의 논고였다. 그후 선고공판에서 全栢에게는 살인방조 및 무기불법 소지죄가 적용돼 징역 5년이 선고됐다.

한편 韓賢宇 등 5명의 범인은 2심에서도 1심대로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불복상고, 그후 대법원(李相基대법관 주심)에서 韓賢宇와 劉根培에게는 징역 15년씩이 확정됐고 全栢은 대법원에서도 원심판결대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그러나 이들의 수감은 判決보다는 짧았다. 48년 8월 15일 정부수립 및 광복절 특사로 모두 풀려난 것이다.

韓賢宇는 옥중수기에서 “피와 땀이 없이 자유를 획득하여 행복을 차지할 수 없다. 피를 아끼고 땀을 아끼는 민족에게 무슨 행복이 있을 것인가. 노력치 않고 싸우지 않는 자에게 승리는 없다”고 그럴듯한 말을 썼다.

당시 이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관들 대부분의 견해는 韓賢宇나 全栢은 일종의 정치방랑자로 자

기형성을 타인의 제거로 피하려던 鐵面皮들로서 이와 같이 전율할 암살범들의 범행은 사회가 안정돼 있지 못하고 모든 것이 어수선하여 자리가 잡혀있지 못할 때 청년들이 흔히 품게 되는 범죄 심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았다. 또 다른 배후가 宋鎮禹 암살사건에 관계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이다.

韓賢宇는 출옥후 한때 일본에 건너갔다가 韓國에 다시 돌아왔으나 張澤相이 국회에서 “살인범이 서울에 와서 활개치고 다니는데 무엇들 하느냐”고 소리를 친 후로 다시 韓國에서 자취를 감추었는데 현재 日本에 살고 있다는 말도 있다.

金性洙와 同苦同樂

55년 동안의 宋鎮禹의 생애는 한국 역사상 일찍이 겪지 못했던 혼돈과 격동의 시대였으며 그의 일생은 마지막 순간마저 이렇게 순탄하지 못했다.

어려서부터 깊이 사귀 仁村 金性洙와 구한말기 日本유학을 함께 다녀온 후로 “독립을 찾기 위해 국민의 무지를 깨우쳐 주어야 한다”고 판단한 宋鎮禹는 金性洙와 一心同體가 되어 교육 언론 문화 등 크고 작고 간에 同苦同樂하여 왔으며 특히 中央學校 교장으로서 3.1운동에 참여했고 東亞日報 사장으로서 民族精神 고취와 民族文化 발굴에 앞장서 왔다.

월슨의 민족자결주의원칙에 힘입어 1919년 3월 1일 己未獨立宣言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3년간의 옥고를 치르기도 한 宋鎮禹는 日警의 탄압과 재정난 등 갖가지 수난을 겪으면서도 節操를 지켰다.

해방 직전 연합군에 대한 무조건 항복을 각오한 總督府당국이 日本이 항복하고 나면 유혈사태를 빚지 않을까 우려한 나머지 宋鎮禹에게 治安權이양을 교섭해왔을 때 宋鎮禹는 “내가 中國의 汪兆銘이나 프랑스의 페탕이 되고자 한다면 벌써 됐을 것이다. 내가 만일 그대들의 청을 받아들여 汪兆銘이나 페탕이 돼버린다면 당신네가 日本으로 떠나버린 뒤 나는 조선민족에게 발언권이 없게 된다”면서 이를 거절했다는 것은 너무도 유명한 이야기다.

반면 夢陽 呂運亨이 朝鮮總督府로부터 治安權을 이양받아 해방을 맞은 이틀 후 安在鴻과 제휴해서 ‘建國準備委員會’를 조직하는 등 어수선한 가운데도 宋鎮禹는 어디까지나 上海의 大韓民國臨時政府를 추대하기 위한 ‘臨政奉戴論’을 내세웠다.

民族主義세력을 묶어 韓國民主黨을 이끈 宋鎮禹는 呂運亨 朴憲永 등의 左翼勢力和 對決하였으나 信託統治반대의 회오리바람속에서 背後조차 분명치 않은 정치테러의 희생이 되고 만 것이다.

43. 解放政局의 主役들

<東亞日報> (1982.6.3 - 83.3.22)

1945년부터 1948년까지 이땅에서 실시된 美國의 軍政은 보는 측에 따라 두가지 의미를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美國측에서 볼 때 軍政은 전후처리의 한 과정이었다. 반면에 韓民族의 입장에서 보면 미군정기간은 또다른 독립투쟁의 세월이었고 그러다 보니 자연 건국을 향한 민족내부의 치열한 정치적 갈등이 불가피한 계절이었다.

이같은 민족내부의 정치적 갈등은 45년 9월 7일 勝戰美軍이 이땅에 진주하기 훨씬전 8월 15일 해방당일부터 이미 본격적으로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따지고 보면 이 갈등은 벌써 日帝치하에서부터 독립운동의 방법론을 둘러싸고 인물과 파벌간에 배태된 것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갈등이 8.

15를 기점으로 본격화됐다고 보는 것은 主權탈환이라는 日帝下의 보다 거족적이던 목표가 이날을 기해 政權장악이라는 보다 정파적 목표로 세분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갈등들이 48년 정부수립 때까지 어떤 양상으로 진행되었느냐 하는 것은 그 이후, 가깝게는 지금까지 韓國現代史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할 것이다.

(1) 古下와 夢陽

(동아일보 1982.6.3 - 6.11)

우선 이 갈등에는 많은 주역들이 등장했다. 일반적인 평가를 기준으로 할 때 이들 주역들의 노선과 지략 그리고 개인적인 성격 등은 혹은 판이하고 혹은 애매했는데 이 모든 요소는 결국 民族史의 향방은 물론 그들 개인의 운명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들은 나름대로 新生近代國家를 만들겠다는 영롱한 꿈들이 있었다. 종국적으로 누가 승자였고 패자였든간에 아마도 독립이라는 목표에서 볼 때 이들 대부분이 가졌던 동기는 이 시점에서 함부로 의심치 않는 것이 역사의 공정한 평가에 유익하리라고 본다.

개인이 가진 가장 현저한 속성을 기준할 때 李承晩은 독립을 국제관계 속에서 이해했던 최초의 韓國人이었다고 할 수 있다. 金九는 민족의 力動性을 믿고 농부가 토지에 대한 애착을 갖듯 강렬한 강토애를 가진 인물이었다.

金奎植은 현상인식과 '勸力에의 意志'가 일치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다. 呂運亨은 목표감이 뚜렷치 않은 불철저한 이데올로그였다고 할 수 있다. 朴憲永은 국제정세에 둔감했던 지역공산주의자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가 하면 宋鎮禹는 인간이 갖는 思想의 함축성과 개연성을 先知한 지략의 정치인이었다.

그러나 해방당일 이 모든 사람이 국내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즈음 국내에 있던 宋鎮禹 呂運亨 朴憲永 중 呂運亨이 제일 먼저 공개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光州벽돌공장에 은신했다 上京한 朴憲永은 유령처럼 上京說만 퍼뜨리면서 일단 궁금증을 배가시키는 전술의 구사에 착수했다.

이 소란을 대기하면서, 혹은 그 속에서 宋鎮禹는 사태를 조용히 지켜보면서 深思熟考하고 있었다. 그래서 얘기는 이들 3인의 최초 동정과 그 주변에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45년 8월 14일 밤, 古下 宋鎮禹는 苑西洞 집에서 朗山 金俊淵(72년 작고.前 법무장관)과 자리를 같이하고 있었다. 金俊淵은 全南 靈巖 출신으로 東京帝大 獨法科를 나와 東亞日報를 통해 宋鎮禹와 인연을 맺었다. 1927년 宋鎮禹 東亞日報 사장은 金俊淵을 편집국장에 발령했다. 그런데 金俊淵은 당시 공산주의운동에 투신, 'ML黨'(마르크스 레닌黨)의 책임비서였다.

古下, 理念 달라도 포용자세

日本경찰은 즉각 宋鎮禹를 불러 따졌다. 그러나 宋鎮禹의 대답은

“그는 성격이 온순하고 학문과 덕망이 있고 新思想을 이해하는 좋은 사람이어서 썼소”

라는 간단명료한 것이었다.

사실 宋鎮禹는 청년들의 개인적 이념이 무엇이든간에 그 자질을 포용했다. 다른 얘기지만 뒤에 조선공산당의 朴憲永도 東亞日報 영업부에서 잠시 몸을 담은 적이 있었다.

아무튼 金俊淵은 이 때문에 제3차공산당사건으로 이듬해인 1928년 체포되어 7년형을 살았다. 宋鎮禹는 출옥한 그를 다시 東亞日報 주필로 복귀시켰다. 이때 日帝는 다시 金俊淵의 입사경위를 따졌는데 古下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그것은 우리 東亞日報社가 그대들을 위해서 한 것이나 다름없소. 만일 우리가 그 사람에 직장

을 주지 않으면 日本정부가 그를 등용할 리 만무하니 그때에 朗山은 부득이 上海나 다른 곳으로 亡命하게 될 것이 아니오. 그렇게되면 朗山은 일본에 던질 폭탄을 만들게 될 것이오. 朗山은 전부터 東亞에 있던 사람이고 해서 다시 돌아온 것이니 거기에 대해 너무 성가시게 굴지 마시오”

뒤에 金俊淵은 日章旗抹消사건으로 사임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앞서 그는 宋鎮禹의 이같은 人格的 感化로 그의 좌익적인 사상도 抹消했다. 그 뒤 그는 京畿道 全谷에 묻혀 있다가 8월 9일 소련의 對日선전포고 뉴스를 듣고 화급히 상경한 것이다.

“古下, 낮에 鄭栢을 만났습니다”

“.....”

宋鎮禹는 시큰둥한 표정이었다. 金俊淵이 ML黨 당시의 동지인 鄭栢과 만났다면 그 얘기 내용은 요즘 돌아가는 정세로 보아 뻔한 것이기도 했다.

日本天皇의 중대방송이 15일 정오에 있으리라는 것은 이미 예고되어 있었다. 鄭栢은 이미 夢陽 呂運亨의 측근으로서 뛰고 있음을 宋鎮禹는 잘 알고 있었다.

“그래 뭐라고 하던가”

宋鎮禹는 당시 55세, 金俊淵은 50세였다.

“鄭의 말이 夢陽도 좋은 지도자고 古下도 그러니 이 두 지도자가 합작을 하면 여기에 대항할 세력이 없을 것이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古下의 의중을 떠보라고 하더군요”

宋鎮禹는 말이 없었다. 金俊淵도 무슨 대답을 들으려고 그 말을 한 것은 아니었다.

宋鎮禹는 정세를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다. 해방은 될 것 같은데 이 民族에 대한 聯合國의 대접이 무엇인지 좀처럼 짚이지가 않았다. 일단 항복후의 日本人과 한국인의 관계도 걱정이었다.

벌써 좌익은 발호하는데 해방후의 민족분열도 걱정이었다. 더욱이 좌익이 이미 징후를 보이고 있지만 日帝下의 親日여부를 두부 자르듯 소아병적으로 구분하기 시작할 때 주로 有志들이 중심인 민족진영의 전도문제도 宋鎮禹를 괴롭혔다.

이같은 모든 요소들을 종합 고려한 宋鎮禹는 결국 中國 重慶에 있는 金九 중심의 임시정부를 奉戴하는 것만이 민족진영이 살 수 있는 명분과 현실이라고 결론짓고 있었다.

“그만 잡시다. 내일 오정 때면 다 결정날텐데.....”

宋鎮禹는 金俊淵의 또 이어지는 얘기를 막았다.

“그만 주무십시다”

金俊淵도 동의했다.

두사람은 잠을 청했다. 그러나 버릇대로 宋鎮禹는 새벽3시에 잠이 깼다. 그 기척에 金俊淵도 덩달아 깼다.

“夢陽이 잘못하면 이 민족에 큰 피해를 입힐지도 몰라.....”

宋鎮禹는 크게 한숨지었다.

苑西洞집에서 민족진영의 거두 宋鎮禹가 잠을 설치면서 解放前夜를 맞고 있을 때 뒤에 운명처럼 좌익의 ‘얼굴마담’이 된 夢陽 呂運亨은 아예 밤을 꼬박 세우고 있었다.

呂運亨은 14일 오후 京城보호관찰소장 나가사키(長崎祐三)의 방문을 받았다. 용건은 15일 아침 8시까지 총독부의 엔도(遠藤柳作) 정무총감 관사에 와달라는 내용이었다.

呂運亨으로서는 예기하고 있던 용건이었다. 왜냐하면 呂運亨은 이보다 앞서 龍山에 주둔하고 있던 日本軍 정훈참모부의 가바 소좌로부터 15일 정오에 日本의 무조건 항복방송이 있다는 전갈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총독부측이 며칠 사이에 宋鎮禹 金俊淵 등과 접촉, 패전후의 사태를 협의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못했음을 알고 있었다.

사실 조선총독부나 조선주둔 日本軍측이 日本의 항복과 항복절차를 제대로 알 된 것은 14일 오전 11시경이었다.

이때 포츠담선언 수락에 관한 日皇의 '詔書' 원고전문이 同盟통신사 京城지국에 도착했다. 이 뉴스는 제일 먼저 총독부의 니시히로(西廣) 경무국장과 제17방면군검 朝鮮軍管區참모장인 이하라(井原)에게 보고되었다. 니시히로는 이를 엔도 정무총감에게 보고했고 엔도는 패전후의 사태수습을 위한 마지막 韓人상대로 呂運亨을 지목한 것이다.

古下 일갈에 日側 협상포기

엔도가 나가사키 京城보호관찰소장을 보낸 것은 呂運亨이 思想犯前歷者였기 때문이다. 呂運亨은 엔도를 찾아가서 면담하는 것을 쾌히 승낙했고 그 뒤에도 日本측과 적극 협상하게 된다.

한편 총독부가 呂運亨과 접촉하기 전에 최초로 접촉한 상대는 宋鎮禹였고 그 다음이 金俊淵이었다. 총독부와 宋鎮禹의 접촉은 8월 10일 하라다(原田) 경무국사무관과의 접촉부터였다. 그러나 宋鎮禹가 이 사태를 어떻게 보는가는 8월 11일 이쿠다 京畿道지사와의 면담때였다.

이쿠다의 걱정은 패전후의 在韓日本人의 안전문제였고 조건은 필요하다면 경찰권을 포함, 주요 권력을 宋鎮禹에게 이양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宋鎮禹의 입장은 간명했다.

“생각해보시오. 내가 中國의 汪兆銘이나 프랑스의 페탕이 되고자 했다면 벌써 됐을 것이 아니오. 이것은 내가 사양한다느니 보다 만일 내가 汪兆銘이나 페탕이 되어버린다면 당신네가 日本으로 떠난 뒤에 나는 발언권이 없어지지 않겠소. 그리고 멀지않아 조선은 일본과 국교도 맺어야 할 것인데 지금 목전의 이익만 생각하다가는 도리어 앞으로의 큰 경륜을 잃을 염려가 없지 않소. 한사람의 올바른 知日인사라도 남겨두어야 하지 않겠소”

1940년 東亞日報가 강제폐간된 이래 宋鎮禹는 병을 칭하고 두문불출, 파리한 모습이 돼있었다. 그러한 宋鎮禹의 일갈에 이쿠다는 모든 것을 포기했다. 뒤에 金俊淵도 이쿠다를 만나지만 그도 같은 얘기를 했다. 때문에 鄭栢이 金俊淵을 만나 '呂.宋 合作'을 제의한 것은 呂運亨에게도 마지막으로 연락이 왔을 때다. 따라서 金俊淵의 대답도 자연 이랬던 것이다.

“총독부와의 면담은 古下도 했고 나도 했소. 저네들의 저의가 불투명하므로 우리는 고개를 돌려 버렸소. 夢陽이 어떻게 응했는지 그분 나름이겠지만 아무튼 夢陽의 뜻은 오늘 古下에게 전하지요”

그리고 전하나마나한 결과가 되었다.

어쨌든 呂運亨은 나가사키가 다녀간 뒤 옆집에 사는 언론계출신의 좌익 洪瓚植(越北.64년 '조국 통일민주주의전선' 선전부장)을 불렀다. 洪은 기질상 謀士였다. 뒤에 朴憲永의 조선공산당이 좌익의 주도권을 본격적으로 장악할 때까지 呂運亨의 노선은 이 洪의 머리에 많이 좌우된다. 洪은 이 같은 속성 때문에 그의 머리는 해방초기에 三國志를 서른번이나 읽었다는 金九계의 趙琬九나 韓民黨의 '보석'이었던 雪山 張德秀의 智謀와 잠시 대결한 바 있다.

“誠友는 號外 찍으시오”

呂運亨과 洪은 많은 얘기를 나눴다. 呂運亨도 宋鎮禹와 마찬가지로 美蘇 등 승전국의 한반도 해방방법에 대해서는 깜깜이었다. 그 시간까지 呂運亨은 韓半島를 美軍의 점령지역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呂運亨은 그 시간에 '진보적 지식인'과 '일제하의 투쟁경력자'를 중심(결국 左翼)으로 해서 日帝로부터 정권을 인수한다는 원칙은 정했다.

呂運亨은 洪과의 얘기중에 雲泥洞 宋圭桓의 집에 머무르고 있던 동생 呂運弘(작고.전참의원)을 전화로 불렀다.

呂運弘은 美國 우스터대학을 나온 지식인으로 동생이라기보다 차라리 그의 동지였다. 呂運弘은 宋圭桓을 깨워 桂洞으로 향하다 安國洞 네거리에서 整骨醫院을 하고 있던 張權(당시 YMCA유도사

범.建準 청년대장.越北後 사망)을 불러 같이 갔다.

이들을 맞은 呂運亨은 자초지종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우리가 일생을 두고 원하고 투쟁하던 조국해방은 왔다. 엔도가 내일아침 8시에 자기 관저로 와달란다”

이어 呂運亨은 엔도와의 면담도 있기 전인데도 다음과 같이 주위에 지시했다.

“誠友(洪增植의 號)는 신문에 경험이 많으니 每日新報社를 접수하고 號外를 수백만장 찍어 서울은 물론 지방의 각도시와 향촌에 이르는 모든 국민에게 해방의 기쁨을 알리도록 하라. 그리고 運弘이는 방송국을 곧 접수하여 우리말은 물론 영어로도 방송하여 전세계 인민에게 朝鮮의 독립을 알리라”

日帝下에서 宋鎮禹나 呂運亨은 다같이 독립투쟁의 경력을 갖고 있다. 全南 潭陽출신인 宋鎮禹는 日本 早稻田을 거쳐 明治大 法科를 나왔다. 그는 3.1운동에 적극 참여했다가 옥고를 치렀다.

呂運亨은 京畿道 楊平출신으로 中國 南京의 金陵대학에서 공부했다. 그도 역시 1929년 上海에서 체포, 본국으로 압송되어 3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43년에 재차 투옥되어 해방전해인 44년까지 있었다.

宋鎮禹는 1921년 仁村 金性洙에 이어 東亞日報 제3대 사장에 취임한 이후는 주로 민족의 내부 역량 도모에 주력하는 ‘非戰鬪的 路線’을 취했다.

呂運亨은 44년 출옥후에도 建國同盟이란 것을 만들어 해방에 대비하는 한편 中國延安의 무장독립단체와도 연락을 취했다. 따라서 해방이라는 사태를 해석하는데 있어서도 두사람은 판이했다.

宋鎮禹가 臨政奉戴로 주로 民族의 法統性을 존중한 데 반해 呂運亨은 투쟁의 실적에 충실했으며 스스로도 참여했던 臨政에 대해서는 오히려 냉담했다.

둘 다 獨立鬪爭.....성격은 판이

누구나 회고하듯이 呂運亨은 당대의 웅변가였다. 그의 품모도 한때 만주에서 日警에게 쫓길 때 터키인으로 변장할 만큼 서구적이었다. 그는 사교인이기도 했다. 臨政시절에 그는 소련에서 中國 共産黨을 지도하기 위해 파견된 보이딘스키와도 교유했고 中共黨의 陳獨秀, 國府측의 蔣介石과도 교분을 맺는 등 발이 넓었다. 그런가 하면 마르크스의 共産黨선언을 최초로 번역하기도 했다. 그러나 부류를 나눈다면 이데올로그라기 보다는 스타에 속하는 사람이었다. 그가 평생을 두고 누구보다도 크고 작은 테러의 대상이 된 것은 그의 이같은 중횡무진한 성격 때문인지도 모른다.

宋鎮禹는 呂運亨과는 판이한 사람이었다.

이 두사람의 성격이 解放政局에 미친 영향은 다대하기 때문에 기회있을 때마다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呂運亨은 解放이 태평양전쟁이라는 외부현상의 직접적인 결과라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다. 그러나 呂運亨은 해방에 이르는 한국인의 독립투쟁 실적도 외부현상과 같은 비중으로 병렬시키고 싶어했다. 그것은 국가장래에 대한 呂運亨 나름의 숙고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한 그의 지나친 집착은 有志급이 중심이 된 우익과 氷炭不相容의 관계를 형성시켰으며 결국 그는 가속적으로 좌익에 업히는 결과가 됐다. 정치인으로서 呂運亨의 비극은 거기에 있었다.

呂運亨이 宋鎮禹와는 정반대로 政權을 日帝로부터 인수할 만하다고 생각했던 것도 그의 이같은 사고방식과 기질적 ‘英雄主義’에 기인한 것이었다.

夢陽 ‘독립선언서 초안 만들라’

뒤에 '人共組閣'을 발표한 뒤 가진 기자회견 때도 呂運亨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도대체 朝鮮독립은 단순한 연합국의 선물은 아닌 것이다. 우리 동포는 과거 36년간 유혈의 투쟁을 계속해온 혁명에 의하여 오늘날 자주독립을 획득한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呂運亨의 해방전 동작이 또 하나 있다. 즉 8월 11일 呂運亨은 연합국에 제출할 4개항의 요구조건을 초안했다. 그 내용의 주요골자는 '日帝로부터 朝鮮이 해방되는 데 있어 연합국의 도움에 감사한다. 그러나 朝鮮은 朝鮮人의 것이어야 한다. 연합국은 朝鮮의 內政에 대해 엄격한 중립을 지켜주기 바란다'는 것들이었다.

그는 또 建國同盟 간부에게 독립선언서를 초안하도록 지시했는데 그 내용은 3.1독립선언문을 기초로 하도록 지도했었다.

그러나 8월 15일 아침까지, 아니 그뒤에도 상당기간 呂運亨은 연합국의 韓半島에 대한 의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몰랐다. 그 점에서는 宋鎭禹도 마찬가지였고 日帝도, 심지어 美國까지도 큰 차가 없었다.

이 와중에서 呂運亨은 15일 아침 7시 50분 鄭亨默(당시 京城서비스사장)이 내주는 리무진을 타고 大和町(지금의 筆洞)으로 엔도 정무총감을 만나러 갔다.

엔도는 단조직입적으로 말을 꺼냈다. 그러나 태도는 공손했다.

"금일 정오에 포츠담선언을 수락하는 詔勅이 있습니다. 자세히는 모르나 朝鮮은 漢江을 중심으로 북은 소련군이 남은 미군이 점령할 것으로 압니다. 지금 소련군의 남하속도로 보아 늦어도 17일 새벽까지는 京城에 도착할 것 같군요. 소련군은 이미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하고 있고 형무소의 사상범을 석방하게 될 겁니다"

다른 얘기는 흥미가 없었다. 그러나 漢江을 중심으로 韓半島가 양단된다는 얘기에 呂運亨은 '아 별싸'했다.

엔도의 말은 계속됐다.

"우리로 볼 때 우선 당장의 문제는 사상범 석방입니다. 그때 朝鮮민중이 부화뇌동해서 폭동을 일으키고 그래서 양민족이 충돌할까 우려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미리 형무소의 사상범이나 정치범을 석방하고 싶은 겁니다. 물론 연합군이 올 때까지 치안유지는 총독부가 담당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의 측면협조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엔도는 거듭거듭 呂運亨의 협조를 요청하면서 民世 安在鴻에게도 협조를 얻어달라고 부탁했다. 엔도의 얘기를 다 들은 뒤 呂運亨은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 ① 全朝鮮의 정치범 경제범의 즉시 석방
- ② 京城의 3개월분 식량확보
- ③ 치안유지와 건설사업에 대한 총독부의 불간섭
- ④ 학생의 훈련과 청년조직에 대한 총독부의 불간섭
- ⑤ 日本노무자들의 지속적인 협력

엔도는 모두 승낙했다. 여기서 엔도는 내실로 들어가고 니시히로 경무국장의 呂運亨과 좀더 얘기를 나누었다.

니시히로는 呂運亨에게 "치안유지협력에 필요하다면 조선인 경찰관을 이관해주겠다"는 등 좀더 구체적인 제의를 하고는 △ 식량문제는 10월까지의 문제가 없고 △ 치안유지법 위반자는 석방하겠으며 △ 집회의 자유를 허락하겠다고 약속했다.

呂運亨은 크게 감격했고 니시히로를 스포츠맨이라고 칭찬했다.

呂運亨은 약 30분간의 면담을 마치고 桂洞집으로 돌아왔다. 呂運亨은 그때 무엇보다도 서울이 蘇軍治下가 될 것이라는 엔도의 말을 곰곰 생각했다.

그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공산주의자 鄭栢만을 불러 약 20분간 얘기를 나눴다. 동생인 呂運弘이 참다 못해 들어갔다.

“어찌됐소, 방송국을 접수하리까”

“정세가 달라졌다. 엔도의 말이 漢江을 경계로 美蘇양군이 분할점령한다니 그리고 보면 우리의 모든 계획이 거기 따라 변경되어야 한다. 방송도 영어로 할 필요가 없을 터이니 서두르지 말고 신중히 하자”

呂運亨은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는 표정이었다.

古下 연합국환영대회 구상

한편 일본천황의 무조건 항복방송이 있고 두시간 뒤인 15일 낮 2시 苑西洞 宋鎮禹의 집에는 민족진영의 金炳魯 白寬洙 尹潛善 玄相允 白南薰 張德秀 金俊淵 高羲東 등 30여명의 인사들이 모였다.

仁村 金性洙는 이때 漣川에 내려가 있었다. 분위기는 도도했으나 전쟁말기의 피폐해진 경제사정으로 마실 것은 냉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모두들 연거푸 마셨다. 모두들 美國의 거대한 힘을 찬양하고 독립과 건국에 대한 구상으로 애기의 꽃을 피웠다.

자연히 日帝로부터 치안유지를 위임받았다는 呂運亨에 대한 비판도 터져 나왔다.

“우리도 이려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는 의견도 나왔다.

그러나 집주인인 宋鎮禹는 일의 순서를 생각하고 있었다.

(연합군이 들어온다. 日本의 무력은 아직 이땅에 남아있다. 승전국의 한반도에 대한 구상을 아직은 알 수 없다. 自重自愛할 시기다) 宋鎮禹는 우선 희미하게나마 국민의 總意도 여과하고 아울러 연합국도 환영할 국민대회를 혼자 구상하고 있었다. 宋鎮禹는 걱정과 냉철을 거의 같은 분포로 하여 그의 人格성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인물이었다. 그는 京畿도 楊州군 德亭리에 은거하고 있다가 불편한 다리를 이끌며 얼마전 서울집으로 돌아온 참이었다.

宋鎮禹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呂運亨의 얘기가 또 나왔다. 李仁은 격해졌다.

“古下, 夢陽의 합작제이는 民族大事인데 동지들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독단으로 거절한 것은 잘못이요. 만일 夢陽이 혼자서 조선독립을 하고 있는 양 민중들에게 선전되면 큰일이 아니요”

宋鎮禹는 아무말없이 버릇처럼 눈만 고먹거렸다. 그가 이런 상황에 매양 짓는 그 표정이었다. 옆에 있던 白寬洙와 金俊淵이 거들었다.

“愛山(李仁의 雅號)이 양쪽 (宋鎮禹와 呂運亨 安在鴻)을 다 잘 아니 중간에서 한번 더 절충을 해보시지요”

白寬洙는 抗日 운동사건을 간혹 변호한 일이 있는 李仁의 경력에 기대했다.

이때 전화벨이 울렸다. 金俊淵을 찾는 鄭栢의 전화였다.

鄭=아침에 夢陽을 길에서 만나 朗山이 했다는 말을 잘 들었소.

金=古下는 움직이지 않을 테니까 그리 아시오.

鄭=소련군이 곧 서울에 온다 하니 우리는 이제 組閣을 해야겠소. 朗山도 끼었으면 하는데.....

조각에서 빠져도 후회하지 않으시겠소?

金=당신들 마음대로 해보시오. 나는 후회하지 않을테니.

金俊淵과 鄭栢간의 전화통화에 나오는 '呂運亨과 金俊淵과의 아침대화'는 金俊淵에 의해 기록되어 定說化되다시피 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呂=古下는 어떻게 하오?

金=古下는 나오지 않습니다. 仁村은 어제 漣川으로 떠났기 때문에 이야기 할 틈도 없었구요.

呂=그렇다면 동무는 어떻게 하겠소?

金=나도 나서지 않을 겁니다.

呂=그러면 좋소, 나 혼자서 나서겠소. 공산혁명으로 일로매진하겠소.

呂運亨은平生을 통해 思想문제에 대해 言行이 부주의했던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다. 특히 呂運亨이 바야흐로 개인의 사상이 그 개인의 생사는 물론 국가적 운명까지를 결정하는 그 시기에 한사람의 지도자로서 이같은 파행성을 버리지 못한 것은 뒤에 그의 운명과 더불어 음미해볼 만하다.

진짜 공산주의자는 따로 있는데 呂運亨은 자신의 다소 '진보적 생각'을 상대와 상황에 따라 무절제하게 구사한 듯하다.

동생인 呂運弘의 회고에 따르면 그의 경력은 유달리 산만하다. 上海시절인 1921년 呂運亨은 모스크바에서 열린 '遠東피압박민족대회'에 참석, 레닌과도 만나고 日本의 공산주의자 카타야마(片山潛)와도 교류했다. 1920년에는 당시 소련이 中共黨지도를 위해 파견한 보이딘스키의 권유로 李東輝의 '고려공산당'에 협조했으며 모스크바대회 때 中國대표로 온 瞿秋白의 알선으로 中共黨員의 대우도 받았다.

그런가 하면 孫文 등 國民黨 사람들과도 친교를 맺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어떤 일정한 노선으로 정진한 적이 없는 하나의 '社交人'이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그의 경력과 대부분 아시아에서 지낸 그의 경험은 그 자신 한반도의 독립문제를 소련중심으로 보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각도에서 8월 15일 아침 엔도 정무총감으로부터 蘇軍의 서울점령설을 들은 呂運亨이 공산당 경력을 가진 金俊淵에게 '동무'라고 호칭하면서 '공산혁명' 운운한 것은 적어도 心情的으로는 있을 법한 일이었다.

이는 브루스 커밍스가 그의 저서 <韓國戰爭의 기원>에서 '金奎植이 그의 반대파인 공산주의자들보다 唯物論에 대한 이해가 오히려 깊었다'고 지적한 점에서도 보듯이 소수의 골수공산주의자를 제외하고는 당시 汎左翼내부에는 呂運亨과 같은 증상의 이념적 방향이 비일비재했던 것이다.

古下 '국민의 뜻 외면 안될 일'

呂運亨이 解放政局의 一番走者가 되고 있을 때 苑西洞의 宋鎮禹는 어떤 기색도 보이지 않았다. "새 나라도 꾸며야겠지만 새 살림부터 마련해야겠소"

宋鎮禹는 물려드는 동지와 손님을 대접할 쌀을 구하려고 사람을 이곳저곳에 보내고 있었다. 무엇인가를 해야한다는 주변의 재촉에 대해 宋鎮禹는 계속 같은 얘기를 되풀이했다.

"아직 日本이 연합국측에 항복하겠다는 것뿐이지..... 日本의 세력은 국내에 엄연히 남아있소. 이러한 때에 정권을 받는다는 것은 프랑스의 페탕이나 日本에 잡혀있는 필리핀의 라우렐 정권이 나 무엇이 다른 것이 있겠소? 日本이 정식으로 항복을 하고 우리의 입장을 정당당당히 주장할 수 있는 때가 와도 우리는 국민의 뜻을 받들지 않고 자기의 정치적 利慾만 취해서는 안되는 것이오. 연합군이 들어오고 日本이 정식으로 항복한 후에 연합국과 논의해서 건국을 한다 해도 조금도 늦을 것이 없어요. 또 지금 날뛰는 것은 국외에서 오랫동안 風餐露宿하던 선배동지들에 대한 의리가 아니라고 보오. 더욱 日本세력을 이용해서 정권을 세운다는 것은 日本세력의 연장이며 日本의 뜻을 받들어 뒤치다꺼리나 하는 데 불과한 것이 아니겠소"

宋鎮禹는 세계정세를 이해하는 近代的 신사이자 명분을 중시하는 전통적인 儒者이기도 했다. 1937년 中日戰爭이 터지자 宋鎮禹는 세계대전을 예언했다. 일생의 친구 金性洙는 그런 宋鎮禹의 先見之明을 '六味湯'이라고 부르면서 답답하면 宋鎮禹와 의논하고 다른 이들도 경청하도록 권했다.

中日戰爭이 터지던 날 宋鎮禹는 큰잔으로 술을 들이켜고 自作詩를 읊었다.

'詩慾驚人恒固癖 酒雖病我更多情'

(시는 항상 사람을 놀라게 하려고 고집하는 버릇이 있으나

술은 아무리 나를 병들게 하여도 다시 다정하구나)

그리고 거나해지면 곧잘 남을 물어뜯었다. 그는 견딜 수 없는 울화를 이렇게 표현했다. 시국이 시끄러워지자 宋鎭禹는 東亞日報의 社說에서 '파리를 잡자' '산보를 하자'고 쓰는 등 便法을 쓰면서 日帝의 압제에 항거적 자세를 취했다.

李仁의 회고에 따르면 宋鎭禹는 東亞日報 폐간후 잔무처리를 하던 중 어느날 동저고리 바람으로 李仁집에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때 日帝는 군부가 직접 전쟁을 지휘하기 위해 東條英機를 首相에 앉혔을 때다.

동저고리 바람에 의아해 하는 李仁에게 宋鎭禹는 넌지시 한마디 했다.

“東條니 동저고리야. 급하면 두루마기도 안입고 동저고리 바람으로 뛰어나간다는 말 못 들었나.”

43년 宋鎭禹는 나들이길에 金俊淵을 만나 이렇게 말했다.

“朗山, 日帝는 꼭 망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궁박하게 되면 自治라는 미끼로 우리를 유혹할거요. 형세가 더 궁하면 독립을 許與한다고 할거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움직여서는 안돼. 사실은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거든. 朗山, 그래서 大策은 無策이오”

“지금은 無策이 大策이오”

44년 7월 宋鎭禹는 平澤에 소개해있던 安在鴻의 방문을 받았다.

“古下, 기왕 조선사람들이 군인으로 나가서 피를 흘리고 있는 바에야 그 피값을 받아야 할 것 아니요. 그러니 무슨 운동을 일으켜 다소 권리라도 얻어야 하지 않겠소?”

“民世(安在鴻의 號), 그 무슨 소리요, 긴박한 이 시국에 오직 침묵밖에는..... 만일 우리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日帝의 손아귀에 끌려들어갈 뿐.....”

“古下는 참 로맨틱도 하시오. 침묵만 지키고 앉아 있으면 李承晚박사가 美國군함이라도 타고 仁川港으로 들어올 듯싶소?”

“그건 안될 말이오. 피는 탄사람이 흘리고 그 값은 당신이 받는단 말이오”

두사람 다 같은 목표를 갖고 있었으나 運身방법에 대해서는 사고방식의 차이가 있었다.

아무튼 解放政局은 宋鎭禹와 呂運亨이라는 양대산맥으로 본격적으로 나뉘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들만이 다는 아니었다. 공산주의자들이 또 도사리고 있었다.

呂運亨의 심정은 복잡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운 것 같았는데 여의치가 않았다.

우선 그의 지시로 民世 安在鴻이 16일 京城中央放送을 통해 동포에게 행한 연설이 日帝, 특히 조선주둔 일본군사령부에 의해 문제가 됐다. 安在鴻은 이 연설에서 建準이 구성될 것임과 建準 밑에 치안대를 설치하고 나아가서 정규 군대를 갖게 될 것이라고 천명했다. 그는 또 통화안정정책과 米穀공출방침을 설명했다 하면 對日協力者대책 등 광범위한 당면문제에 두루 언급했다.

安在鴻의 방송으로 조선주둔 일본군은 呂運亨과 엔도 정무총감간에 회담이 있었음을 처음으로 알았다. 그들은 大怒했다. 특히 젊은 장교들은 軍刀를 빼들고 흥분했다. 그날로 朝鮮軍管區사령부는 '官內 一般民衆에게 告함'이란 포고를 발표하고 '人心을 교란하고 치안을 해치는 일이 있으면 군은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군부의 위세에 눌린 엔도 정무총감도 17일 '建準의 활동은 치안협력의 한계를 넘지 않아야겠다'고 부탁했다.

呂運亨은 또 자신이 해방전에 조직한 建國同盟 멤버와 지금 자신을 따르고 있는 자들간의 갈등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다. 이미 내정한 建準의 조직에는 建盟의 멤버가 거의 소외되어 있었다.

또하나의 골치는 建準준비에 민족진영을 제외하고 있는 데 대한 李仁 등 민족진영 인사들의 질

타였다. 이밖에 '呂運亨'이 日帝에의 협력 대가로 거금을 받았다' '附日경력이 있다'는 풍설 등도 呂運亨을 괴롭혔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呂運亨은 17일 오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宋鎮禹를 만나 직접 담판키로 결심했다. 모든 것을 분명히 해놓겠다는 呂運亨 나름의 생각이 있었다.

두 '주역'의 회담은 굉장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두 사람이 단독으로 대좌하고 있는 시간에 宋鎮禹 집밖에는 人波가 넘실거렸다.

방문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古下는 나를 폐탕이라고 했다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한 말이었소?"

"夢陽을 가리켜 한 말은 아니오. 이런 시기에 정권을 물려받으면 폐탕이 되기 쉽다고 했소. 정권은 국내에 있던 우리가 받을 것이 아니라 연합군이 들어와서 일본군이 물러나고 해외에 있던 선배들과 손을 잡은 뒤에 절차를 밟아서 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오. 그때가 되어 夢陽이 생각이 있다면 내가 극력 夢陽을 추대할 것이니 지금 정권수립은 보류했으면 싶소"

古下.夢陽 담판후 行路갈려

두사람의 時局觀이 충돌하는 순간이었다.

"어째서 꼭 해외에 있는 사람들과 정권을 받아야 하오. 古下와 내가 둘이 손만 잡는다면 그만한 세력은 없을 것이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세력도 우리들 속에 흡수될 것이고 해외 인사라고 해도 별로 문제가 될 만한 사람은 없소"

"夢陽, 의리상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소"

"그렇다면 그동안은 국내를 진공상태로 둘 생각이란 말이오?"

"夢陽은 내가 보기에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오. 그러나 자칫하면 그들에게 휘감기어 공산주의자도 못되면서 공산주의자 노릇을 하게 될 위험성이 없지 않소. 내 말을 잘 들으시오"

宋鎮禹는 냉엄하게 말했다.

"내가 무엇이 되든 두고 보시오"

呂運亨은 약간 신경질적으로 받았다.

회담은 끝났다. 아니 日帝下에서 대단한 친교는 없었지만 그래도 서로를 아꼈던 두사람은 이 會同을 끝으로 行路를 완전히 달리했다.

신문기자들이 몰려들었다.

"만나신 결과를 얘기해 주시지요"

呂運亨은 미소만 띠었다. 宋鎮禹가 짝막하게 반마디만 했다.

"별로....."

"아니 발표할 것이 없다니요"

"아무말도 없다는 것도 훌륭한 기사야"

前東亞日報 사장인 宋鎮禹는 기자들에게도 냉엄하게 한마디 했다.

苑西洞 宋鎮禹 집을 나와 승용차에 몸을 실으면서 呂運亨은 결심을 했다.

(할 수 없다. 이제는 서둘러야겠다)

그러나 결심한 것은 呂運亨만이 아니었다. 宋鎮禹도 방향은 달랐지만 결심을 했다. 바로 '국민대회준비회'에 착수한다는 것이었다.

그뒤, 그러니까 建準이 '人民共和國'으로 탈바꿈한 뒤에도 呂運亨은 한차례 더 宋鎮禹와의 악수를 청한 적이 있었다. 이때는 呂運亨측에 가담하고 있던 화가 一洲 金振宇가 중간에 섰다. 그러나 宋鎮禹는 듣지 않았다.

宋鎮禹는 呂運亨이 모든 것을 원점에 돌려놓을 때 악수가 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그 과정에

서 다급했던 金振宇가 '후일 민족간의 互相出血이 있게되면 그것은 古下의 책임'이라고까지 대들었지만 宋鎮禹는 끝내 듣지 않았다.

宋鎮禹는 이제부터의 싸움은 과거 日帝와의 그것과는 유가 다르게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될 것임을 내다보고 있었다. 日帝下에서 개인이 가진 이념에 관계없이 누구보다도 동족을 관대히 포용했던 宋鎮禹는 해방조국이 되자 누구보다도 路線의 애매성을 배척하게 되었다.

呂運亨은 宋鎮禹와 헤어져 桂洞 집으로 돌아와 建準의 1차 부서 결정을 다음과 같이 완료했다.

△위원장=呂運亨 △부위원장=安在鴻 △총무부장=崔謹愚 △재무부장=李奎甲 △조직부장=鄭栢
△선전부장=趙東祐 △武警부장=權泰錫

呂運亨은 建準골격을 잡아감과 동시에 張權에게 下命한 치안대의 조직을 구체적으로 확충했다. 이 建國青年治安隊는 학생을 주축으로 한 청년 2천명을 동원하여 급한대로 서울치안을 맡게 하고 전문학교 이상 학생 2백명을 전국곳곳에 파견해서 지역별 치안대를 조직토록 하는 것이었다. 이밖에 식량대책위원회도 조직, 긴급대책을 수립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呂運亨은 독자적인 구상대로 나간 편이다. 물론 가장 핵심부서인 조직선전, 무경부를 차지한 鄭栢 趙東祐 權泰錫은 공산주의자였다. 그러나 아직 이들의 참여방식은 개인적인 형태였으며 특히 長安派공산당원이 많았다. 때문에 呂運亨은 자신이 해방전에 지도해 온 建盟출신들을 많이 기용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한편 여기서 建盟과 建準의 관계를 살필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 이유는 이들 두 단체가 建準수립과정에서 혼란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呂運亨의 사업스타일'을 읽을 수 있는 하나의 심증도 되기 때문이다.

建盟내부 初建派.再建派 갈등

呂運弘의 회고에 따르면 呂運亨은 44년 8월 建國同盟이란 세포조직으로 된 비밀결사를 만들었다. 이 결사에 처음 참여한 사람은 좌익계의 老壯層이라고 할 수 있는 趙東祐 金振宇 李錫玖 등이었다. 이 결사는 각 道에 책임위원을 두고 중앙에서는 李錫玖 玄又玄 黃雲 李傑笑 金甲文 등이 연락책임을 맡았다.

그러나 8월 4일 이를 눈치챈 日警에 의해 建盟員의 다수가 체포되었다. 이때의 建盟員을 '初建派'라 부르고 그 이후에 조직된 盟員을 再建派라고 불렀다. 그러나 비밀결사였기 때문에 해방이 되자 初建派와 再建派는 서로 초면이었고 제각각 놀았다.

呂運弘은 이같은 혼란은 呂運亨이 8월 18일에 테러를 당해 양파를 미처 인사시킬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같은 혼란이 표면화된 것은 呂運亨이 建準사업을 再建派중심으로 진행한 데서 표면화됐던 것이다.

또하나 呂運亨은 45년 建盟을 조직하면서 八堂근처인 京畿道 楊州군 奉安에서 은거하던 중 엔도 정무총감의 방문을 받은 적이 있다. 엔도는 그에게 中.日화평을 中國에 가서 주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때 呂運亨은 여러 이유를 들어 애매한 대답을 했는데 한때는 엔도의 요청을 이용해서 國外탈출을 생각하기도 했다.

아무튼 呂運亨의 그러한 八方美人같은 자질은 종종 그에게 오히려 逆境이 되어 돌아오기도 했다. 왜냐하면 해방후 민족진영의 일부에서는 '呂.엔도' 면담을 이렇게 비꼬았기 때문이다.

'浮舟遊於八堂之下' (八堂에서 배를 띄우고 놀았다)

宋鎮禹의 냉엄한 시국관에도 불구하고 呂運亨에게 기선을 제압당한 민족진영은 대체로 초조했다.

물론 민족진영 내부에도 여러 갈래가 있었다. 때문에 통일된 전략은 당초에는 있을 수 없었고

우선 先發한 좌익과 거리를 단축하는 것과 스스로의 정당조직에 나서는 움직임이 있었다.

8월 16일 낮 李仁(초대법무부장관.79년 작고)은 桂洞집으로 呂運亨을 찾았다.

日帝下에서 변호사를 지낸 李仁은 左右의 인사들을 두루 잘 알고 있었다. 李仁은 한때 淸進洞에서 金炳魯와 뒤에 좌익으로 넘어간 許憲과 함께 합동법률사무소를 차린 적도 있었다. 15일 白寬洙가 宋鎮禹 집에서 李仁에게 呂運亨과의 협상에 나서라고 제의한 것도 李仁의 그같은 인간관계를 알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李仁은 그날 기분이 좋지 않았다. 呂運亨의 서두르는 품도 보기 싫었지만 宋鎮禹도 그저 팔짱만 끼고 있는 것 같아 마음에 들지 않았다. 무더운 날씨 탓인지 단장은 짙었지만 불편한 다리가 더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았다.

慶北 大邱출신인 李仁의 한쪽 다리는 열두살 때부터 못쓰게 됐다. 그 자신의 회고에 따르면 엉덩이에 종기가 나서 침을 맞다가 통증이 심해 몸을 심하게 흔들어 脫骨이 됐다는 것이다. 그 뒤 脫骨된 뼈가 근육을 압박하는 통에 다리근육이 발달하지 못해 절게 되었다는 이야기다. 15일 해방 당일에도 李仁은 조카가 끄는 자전거 공무리에 붙어 은거지인 倉洞에서 서울로 들어왔다.

아무튼 李仁을 맞은 呂運亨집에는 마침 安在鴻도 와 있었다. 呂運亨은 펍 반가워하는 눈치였다. 그러나 李仁은 첫마디부터 대들다시피 했다.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들입니까. 첫째, 夢陽이 日帝말단관리의 위촉으로 당면치안을 담당한다는 의도 자체가 불순하게 보여지고 있어요”

李仁은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계속했다.

“그리고 建國이라는 것은 민족적 역사적 聖業이 아닙니까. 이런 聖業을 단 몇 사람이 사랑방에서 소곤대며 해치우겠다 이 말입니까”

李仁의 ‘돌격’에 呂運亨과 安在鴻은 당황한 눈빛이 역력했다.

“古下.仁村에 다리 좀 놔주세요”

“愛山(李仁의 雅號), 愛山 얘기대로 그런 것은 아니요. 愛山이 얘기하는 그런 의도로 일이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사태가 워낙 급하다보니 그리 된 것이 아니겠소. 이제부터 동지들과 상의하려던 참이었소”

그러면서 呂運亨은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 얘긴데, 愛山은 양쪽을 다 잘 알지 않소. 古下와 仁村에게 중간다리를 놓아주세요”

李仁은 오히려 呂運亨으로부터 白寬洙가 자기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부탁을 받았다.

“잘들 생각해 보세요. 나는 갑니다”

李仁은 그 길로 苑西洞으로 宋鎮禹를 찾아가서 呂, 安과의 면담내용을 자세히 얘기했다.

宋鎮禹는 잠자코 들으면서 눈을 끄덕거렸다. 썩 기분이 좋지않을 때 짓는 그의 독특한 표정이 다. 그러면서 宋鎮禹는 댕돌 위에 비켜놓은 李仁의 단장만 유심히 바라다보고 있었다.

“돌아갑니다”

李仁은 일어섰다. 울화만 치밀었다.

“愛山, 단장끝이 다 닳았구료”

“이 시국에 단장끝이 문제입니까”

“내가 언젠가 金剛山에 갔을 때 사둔 것이 있는데 그걸 쓰시오”

宋鎮禹는 벽장을 뒤져서 단장 하나를 꺼냈다.

“다리도 성치 않으면서..... 단장이나 하나 튼튼한 것 가지소”

李仁이 짚어보니 썩 좋은 것은 아니지만 튼튼하기는 했다. 단장을 얻어 짚고 李仁은 돌아갔다.

민족진영의 일부가 벌인 建準과의 一面協商작전은 다음과 같은 경로를 거쳐 결국 무산된다.

李仁의 1차 움직임이 있은 후 金炳魯 白寬洙 李仁 등은 建準측의 安在鴻부위원장을 공격목표로 삼았다.

安在鴻(2代의원.拉北後 사망)은 京畿道 平澤출신으로 언론인 경력을 가졌는데 본질적으로 민족주의자였고 성품상 온건한 신사였다.

金炳魯 등은 우선 '全國有志者大會'를 安在鴻에게 제의했다. 민족진영의 방법상 1차로 민족진영이 대거 建準에 참가하여 성격변화를 일으킨 뒤 궁극적으로는 建準을 '全國有志者大會'로 전환시킨다는 전술이었다. 이 제의는 安在鴻에 의해 받아들여져 한때 명단 작성을 하는 단계에까지 갔다.

그러나 建準내의 李康國 崔容達 鄭栢 등 좌익은 민족진영의 기미를 알아차리고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했다. 우선 그들은 합의사항은 뒷전에 두고 시일을 끌다가 민족진영이 초조한 기색을 보이자 2단계 작전을 통해 이 최초의 '左右合作'을 깨뜨려 버렸다.

즉 그들은 우선 민족진영 추천인사는 서울 거주자로 한정할 것을 요구했다. 다급한 민족진영은 이를 받아들이고 추천에 응했다. 그러자 그들은 이번에는 민족진영 추천인사보다 더많은 자파인사를 이 '擴大委員'에 추천했다. 이에 민족진영이 심하게 반발하자 安在鴻은 좌익의 반대를 무릅쓰고 5명의 민족주의 인사를 추가했다. 그러자 좌익은 呂運亨을 들쭉서 이들 擴大委員에게는 발언권을 제한해 버렸다.

결국 左右 1차 합작은 깨지고 말았다. 이 때문에 建準은 呂運亨 위원장 安在鴻 부위원장이 사표를 냈다가 반려되는 등 극절을 겪었다.

이 소동은 결과적으로 建準이 좌익 위에 자리잡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한편 민족진영이 얻은 것은 '저들과는 안되겠다'는 확신뿐이었다. 굳이 더 얻은 것이 있다면 이 때 安在鴻이 建準을 떠날 결심을 하도록 환경조성을 한 것이라고나 할까.

민족진영의 정당창당은 여러 갈래로 진행되었다. 그중에 한 갈래를 잡을 수 있는 것으로 許政씨(前과도정부 내각수반)의 회고가 있다.

許政은 8월 16일 普成전문학교로 雪山 張德秀를 찾아갔다. 張德秀와 許政은 미국 유학시절 뉴욕에서 <3.1신문>라는 신문을 내면서 서로를 아끼게 되었다. 張德秀는 달변이고 일을 꾸미는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許政의 인상에 뚜렷이 남아있는 인물이었다.

人脈으로 볼 때 張德秀는 宋鎮禹계의 사람이었고 許政은 李承晚계의 사람이었다. 그러나 張德秀는 呂運亨과도 특별한 사이였다. 그들의 관계는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許政은 張德秀에게 政黨창당에 대한 평소의 소신을 밝혔다. 두 사람은 곧 의기투합했다. 만난 김에 몇가지 창당원칙도 정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汎階層정당을 만든다는 것과 臨政을 奉戴한다는 것이었다. 행동가인 張德秀는 이내 움직이기 시작했다. 물론 呂運亨도 만났다. 呂運亨은 日帝下에서 특별한 관계를 가졌던 張德秀에게 솔직히 심중을 털어놓았다. 주위를 살피면서 그래도 삼갔던 얘기를 呂運亨은 張德秀에게는 했던 것이다.

“雪山, 나도 上海에 있어보았지만 臨政에 도대체 인물이 있다고 할 수 있겠소? 누구누구 하고 지도자를 꼽지만 모두 노인들뿐이고 밤낮 앉아서 파벌 싸움이나 하는 無能無爲한 사람들뿐이오. 臨政요인중 몇 사람은 새 정당이 수립하는 정부에 개별적으로 추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臨政의 法統은 인정할 수 없소”

(2) 解放政局의 '폭탄' -- 朴憲永

(동아일보 1982.6.14)

해방후 민족진영과 좌익은 각각 세력을 조직화하는 방법이 판이했다. 좌익은 민첩했고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반대로 민족진영의 움직임은 굼뜨고 산만했다.

民族진영 느린 속도로 연합

민족진영은 당초 여섯 갈래가 있었다. 우선 元世勳계가 있다. 桂洞 韓學洙(舊韓末 韓圭高의 孫子)의 사랑방을 거점으로 자주 모여온 이 그룹에는 李炳憲 朴明煥 宋南憲 등이 속했다. 이 계통은 社會民主主義를 신봉하는 색채가 있었다.

元世勳은 1910년 庚戌國恥 때 東滿洲를 거쳐 沿海州로 들어가 항일운동을 벌였다. 그 뒤 日警에 체포돼 2년간 복역을 했는데 출옥후에는 <批判> <大衆時報> 등을 발간하면서 총독정치에 대항했던 사람이다. 元世勳은 민족진영 중에서는 가장 빨리 8월 18일 高麗民主黨이라는 정당을 창당했다.

다음으로 金炳魯계가 있었는데 建準과의 합작을 시도했던 인사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으며 주로 湖南출신들이 많았다. 白寬洙 金用茂 羅容均 鄭光好 등이 이 계통이다.

日帝때 新幹會 京城支會 멤버를 주축으로 한 洪命憲계에는 趙憲泳 李源赫 朴儀陽 金武森 등이 속해 있었다.

또한 李仁 趙炳玉 朴瓚熙 咸尙勳 申允國 등이 한 모임을 형성하고 있었고 그 밖에도 共產主義者로서 전향한 金若水 兪鎮熙 등도 있었다.

이들이 뒤에 韓國民主黨이 되어 하나로 합쳐가는 과정은 그리 복잡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들의 개별모임은 본질적으로 친소관계나 지역적 연고에 따른 것이었는데다 좌익의 발호가 워낙 심했기 때문에 공동의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또한 개별적인 친소관계에 관계없이 大同小異하게 이들이 모두 宋鎮禹나 金性洙를 국내인사 중에서는 최고지도자로 꼽고 있었다는 점 때문이기도 했다.

그같은 환경하에서 元世勳이 발기한 高麗民主黨은 金炳魯 등 다른 계파와 협조해서 朝鮮民族黨으로 통합되고 朝鮮民族黨은 다시 金度演 許政 尹致暎 尹潛善 등 歐美유학생이 주축이 된 韓國國民黨과 연합하여 뒤에 韓國民主黨을 결성하게 된다. 그리고 결국 宋鎮禹를 끌어들이는 데 성공한다. 그러나 이 과정은 매우 느리게 진행됐다.

呂運亨이 建準에 열을 올리고 長安派 공산당이 간판을 내거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반면 민족진영은 아직도 사랑방 좌담회만 벌이면서 우왕좌왕하던 무렵이었다. 全南 光州에서 한 사나이가 서울에 숨어들었다. 안경을 끼고 작달막한 볼품없는 외양의 이 사나이는 美軍政 3년은 물론 뒤에 韓國戰爭을 전후하여 이땅에 폭풍을 몰고왔다. 바로 骨髓공산주의자 朴憲永이었다.

朴憲永은 1939년 출옥하고 얼마 뒤부터 光州 어느 벽돌공장에서 金成三이란 가명으로 인부노릇을 하면서 몸을 숨기고 있었다. 그가 해방을 맞아 언제 어떤 방법으로 上京했는지에 대해서는 定說이 없다. 8월 19일 上京說이 있으나 金南植씨는 <實錄 南勞黨>에서 다음과 같이 異見을 제시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朴憲永이 5년동안 光州에서 피신하고 있다가 해방과 함께 트럭을 타고 光州를 출발, 全州로 와 형무소에서 출옥한 ‘콤 클럽’의 중심인물 金三龍을 만나 19일에야 서울에 올라왔다고 말한다. 그러나 朴憲永이 그의 옛 동지들을 규합하는 한편 8월테제라는 꽤 긴 政治路線을 작성하여 20일에 黨再建委를 발족시키면서 같은 날로 이를 공포하는데 과연 그가 19일 上京하여 단 하루만에 그같은 일을 할 수 있었겠느냐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하기야 이론에 밝다는 그가 멀지않아 해방이 되리라는 생각을 하고 미리 테제를 구상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나올 법하다. 하지만 이것도 8월테제를 읽어보면 수긍할 수 없음을 알게 된다. 8월

테제에서 차은 '解放後의 상황'을 논하고 있을 뿐 아니라 '長安派공산당의 派閥主義'를 비판하고 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볼 때 차은 8.15직후 아마 늦어도 16일에는 서울에 와 있었던 것 같다. 믿을만한 기록에도 41년부터 李順今(李觀述의 妹)을 통해 朴憲永을 알게 됐다는 尹淳達이가 서울에서 17일 朴憲永을 만난 것으로 되어 있다"

'朴憲永선생 나오시라' 벽보

아무튼 上京한 朴憲永은 明倫洞 金海均의 집을 아지트로 삼고 공산당 조직사업에 착수했다. 金海均의 집은 주위에서 '阿房宮'이라고 불릴 만큼 당시 수준으로는 韓洋式 절충의 '호화주택'이었다.

그런데 '근로대중의 전위'라고 하는 공산당이 이같은 저택을 아지트로 삼은 것은 두고두고 解放政局의 화제가 되기도 했다.

金海均이란 인물은 이런 사람이다. 金은 해방 당시 35세로 全北 益山の 土豪출신이다. 그는 東京유학후 普成專門 교수로 있었는데 그때부터 공산주의자들에게 많은 재정적 지원을 했다. 그는 6.25전에 越北, 停戰會談때는 人民軍大佐로 북한측의 영어통역을 맡게 된다.

8월 18일 서울거리에는 괴벽보가 군데군데 나붙어 행인들의 눈길을 끌었다.

'위대한 지도자 朴憲永 선생은 어디 계신가'

'위대한 지도자 朴憲永 선생은 나오시라'

마치 尋人광고같은 이 술법은 朴憲永의 출현에 고무된 콤플렉스의 대중적 분위기조성 전술이었다. 이같은 분위기를 일단 깔아놓고 朴憲永은 李觀述 金三龍 李鉉相 李康國 등을 불렀다. 대개 콤플렉제이면서 呂運亨의 建準쪽에 침투한 자들이다. 이 계파는 하나의 강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日帝下에서 끝내 전향하지 않고 지하에서 서클활동을 하면서 나름대로 '소규모 투쟁'을 계속해 왔다. 따라서 이들은 주로 전향한 자들로 구성된 長安派쪽을 우습게 보고 있었다.

李觀述의 상황보고가 있었다. 그 요지는 대개 다음과 같았다.

"建準은 우익의 지도급들이 대부분 배제된 가운데 지방조직을 계속 확대중이다. 建準의 조직과 선전부서를 과거 공산주의자들이 장악했고 따라서 조직원칙에 따라 사업중이다. 남은 문제는 建準과 미구에 재건될 우리 당과의 관계형태를 확정하기 위해 建準사업에 대한 우리 당의 공작 원칙을 정하는 것이다. 長安빌딩에서 李英 鄭栢 高景欽 李承燁 등 서울계 火曜會 ML系 등이 모여 조선공산당 간판을 내걸었다. 東大門에서 공산당 서울시당부를 조직하고 대기하던 崔益翰 李友狄 河弼源도 결국 長安派에 합류했다. 이들은 轉向者 그룹인데다 창당의 형태를 취함으로써 조선공산당 沿革의 정통성을 위배했다. 그러나 우리 당은 재건에 즈음하여 이들에 대한 공격과 병행하여 그들을 처우하는 일정한 원칙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朴憲永은 코웃음을 쳤다. 적어도 차의 관점에서 볼 때 日帝때 1차검거로 간단히 공산주의운동을 청산하고 광산브로커나 하던 자들이 대부분인 長安派는 가소롭기 짝이 없었을 것이다. 또한 '변절자'에 대한 끌어오르는 적개심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朴憲永은 황망한 가운데서도 일을 순서대로 꾸며나갔다. 그는 수하인물들에게 기간조직인 콤플렉을 再生토록 지시했다. 長安派에 가담한 李承燁 趙斗元 趙東祐를 포섭해서 와해공작을 시작토록 했다. 그리고 그 자신은 방문을 단아걸고 再建共產黨이 제시할 종합적인 路線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바로 조선공산당에서 南勞黨에 이르기까지 南韓의 공산주의자들의 교과서가 된 유명한 '8월테제'였다.

(3) 民族진영의 結集

(동아일보 1982.7.6-7.7)

建準이 人共으로 발전하는 소동을 먼 발치에서 보면서 민족진영의 宋鎮禹는 좌익과는 전혀 다른 계산법으로 時局에 대응하고 있었다.

宋鎮禹의 建國구상의 1단계는 국민대회였다. 그는 국민대회를 통해 두가지를 국민의 總意형식을 밝아 확정시킬 생각이었다.

그 하나가 重慶임시정부의 법통성을 확정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연합국에 감사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하는 데는 宋鎮禹 나름의 생각이 있었다.

전개되는 내외정세를 볼 때 視界는 불투명했다. 美軍의 서울진주가 통고됐지만 그들의 점령정책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宋鎮禹는 겉으로야 어쨌든 내심 建準에는 대항해야 한다고 확실히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建準에 대한 대항조직이자 우익의 공동광장으로 국민대회를 구성해서 밀고 나갈 결심이었다. 옆에서 민족진영 정당을 구성하자고 보냈지만 宋鎮禹의 생각은 달랐다.

좌익에 비해 조직력 동원력과 응집력이 미약한데다 또 非理念的인 우익이 정당부터 손대다가는 좌익의 통일된 공세를 당할 수 없다고 그는 계산했다. 더욱 建準이 우익일부를 '日帝협력자' '反動'視하고 있는 마당에 선부른 행동은 우익의 자멸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宋鎮禹는 建準의 움직임을 눈여겨 보면서 左右가 구분되기를 기다렸다. 민족진영의 對左翼 적개심이 한 방향으로 집결되기까지 기다렸다.

이런 정세관을 기반으로 해서 宋鎮禹는 국민대회가 내세울 두가지 명분이 결과할 實益을 냉정하게 계산하고 있었다.

'첫째, 국민대회가 연합군환영을 주도할 때 점령군과의 관계에 있어 우익은 좌익을 제칠 수 있다.

둘째, 臨政 奉戴는 법통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좌익도 함부로 반대할 수 없을 것이다.....'

宋鎮禹는 金性洙와 모든 것을 의논했다. 소년시절 昌平 英學塾 때부터 맺어진 두 사람은 평생을 같이 지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東京유학도 같이했고 日帝下에서 東亞日報를 운영하면서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의 後見人이었다.

대체로 金性洙는 뒤에서 일을 기획하고 만들어왔다. 宋鎮禹는 이를 받아 전면에서 마무리 지었다. 때로는 반대의 경우도 있었다.

古下, 仁村과 대응책을 논의

두 사람의 성격은 판이했다. 宋鎮禹가 열화같은 성격의 일면을 가진 데 반해 金性洙는 차분하고 온건했다. 이 두 사람은 살얼음판 같은 日帝下에서 서로의 처신을 보호했다. 해방후 宋鎮禹가 국내 민족진영의 지도자로 옹립될 만큼 위치를 가다듬은 것도 金性洙와 宋鎮禹간의 이같은 우정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1962년 兪鎮午씨는 東亞日報에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겉보기에는 풍모나 뱃심이나 활동에 있어서 古下가 兄格 같았지만 내용으로는 仁村이 兄格이 아니었던가 생각된다. 古下는 호방하고 仁村은 諧謔을 좋아해서 酒席 같은 데서 두 분이 맞붙으면 사뭇 혈돋는 것 같은 농담이 벌어지는 때도 있었다. 이를테면 古下가 '仁村은 돈으로 社長을 했지 나는 내 몸뚱이로 社長을 했단 말이야'하고 내던지면 '여북 미련해야 몸뚱이로 社長을 한담'하고 仁村이 받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번 仁村이 정색을 하면 古下는 눈만 껌벅껌벅 하는 것이었다.

日帝말기 때다. 仁村 古下 爲堂(鄭寅普) 세 분과 나와의 酒宴이 있었다. 日人 경영의 음식점이었다. 그러나 잔을 거듭함에 따라 古下의 음성은 높아졌다. 물론 時局談이었다. 日警이 옆에 있

으면 잡아가기라도 할 판이다. 그때 '이제 그만해'하고 날카로운 仁村의 말소리가 떨어졌다. 古下는 말을 툇 그치고 약간 원망스러운 눈으로 仁村을 바라보고 그리고는 씩 웃고 또 술잔을 들었다.

다음은 東亞日報사장 직무대리를 지낸 梁源模씨의 회고.

"두분은 가끔 대중들을 일으켜서 그때마다 옆에서는 이제 영영 절교가 되는가 걱정을 하기도 했지만 그 이튿날 桂洞사랑에 가보면 언제 왔는지 古下선생이 仁村선생과 머리를 맞대고 무엇인가 열심히 숙의를 하는 장면을 보게되곤 했지요"

해방 때도 두 사람은 역할을 나누고 있었다. 8월 14일 이쿠타(生田) 京畿道지사와의 회담을 마치고 宋鎮禹는 金性洙에게 이렇게 말했다.

"오늘 내일이 고비가 될 것 같으니 자네는 漣川에 내려가 있는 것이 좋겠어"

日帝의 단말마적인 발악을 걱정해서였다.

"자네는 어떻게 할 생각인가?"

金性洙가 물었다.

"나야 세상이 뒤바뀌는 것을 지켜봐야 하지 않겠나"

漣川驛 앞에 있는 崔楠의 농장에서 해방을 맞은 金性洙는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다.

"政治는 古下와 동지들에게 맡기고 나는 학교를 하겠으니 당신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해방초기에 정당결성을 서두르지 않는다는 데 대해서는 宋鎮禹나 金性洙는 생각이 같았다.

宋鎮禹는 국민대회라는 원거리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9월 4일 金性洙와 함께 '大韓民國임시정부 및 聯合軍환영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은 權東鎮, 부위원장은 金性洙 許憲 李仁이었다. 이 과정은 임정의 귀국을 쉽사리 예상할 수 없다는 표면적 이유와 建準의 人共결성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 단계인 국민대회준비회로 자연스럽게 발전했다.

말하자면 宋鎮禹는 임정 및 연합군환영준비회 과정을 통해 민족진영의 동원력을 사전 진단해본 것이다.

宋鎮禹는 국민대회준비회의 구성을 위해 동분서주했다. 우파는 물론 온건좌파에까지 손을 뻗었다.

9월 7일 宋鎮禹는 東亞日報사옥에서 국민대회준비회를 결성했다.

이날 대회는 위원장에 宋鎮禹.부위원장에 徐相日 元世勳.고문에 權東鎮 吳世昌 金昌淑을 뽑고 총무 金俊淵.조직 宋必滿.정보 薛義植.외교 張澤相.지방 金智煥.조사 尹致暎.경호 韓南洙 등으로 조직을 짰다.

국민대회준비회는 당면사업으로 △人共이 공산당과 그 동조자들의 모체 역할을 하는 데 대하여 국민대회준비회는 민족진영의 모체 역할을 한다 △해외에서 환국하는 志士와 그 동포에게 편의를 베푼다 △연합군에 대해 국민의 대변을 한다 △민심안정과 치안유지에 협력한다는 것 등을 제시했다.

또 상당히 장중한 어조의 취지서를 발표했는데 그중 국민대회의 취지가 선명하게 나타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강도는 잃었다 하더라도 3천만 민중의 심중에 응집된 國魂의 표상은 庚戌 國變 이래로 망명지사의 氣魄과 함께 해외에 엄존하였던 바이니..... 우리의 국가대표는 己未獨立 이후로 구현된 대한임시정부가 최고요 또 유일의 존재일 것이다. 파당과 색별을 초월하여서 이를 환영하고 이를 지지하고 이에 歸一함이 現下의 내외정세에 타당한 大義名分이니....."

宋鎮禹의 국민대회준비회 발족과 발맞추어 민족진영의 정당창당 운동도 그 맥을 찾기 시작하고 있었다.

9월 4일 서울 종로국민학교에서 韓民主黨으로 대동단결한 민족진영은 美軍의 진주와 때를 맞춘 9월 8일 人共에 대해 포문을 열었다. 발기인 1천여명의 명의로 발표된 對人共성명서는 상당히 격하고 다소 감정적인 면도 없지 않았다.

宋鎮禹, 수석총무로 참여

韓民主黨은 9월 16일 天道敎회관에서 창당했다. 국민대회준비위 조선민족당 한국국민당 등 민족진영의 3대 분파가 하나로 통일된 韓民黨은 한마디로 汎右派 정당이었다.

민족진영의 결속력이 自生되기를 기다리던 宋鎮禹도 이에 참여했다. 金性洙도 당초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았지만 측면에서 韓民黨을 도왔다. 韓民黨은 곧 部署를 결정했는데 領袖에는 李承晩 金九 李始榮 文昌範 徐載弼 權東鎮 吳世昌을 추대하고 수석총무에 宋鎮禹 그 밑에 元世勳 白寬洙 徐相日 金度演 許政 趙炳玉 白南薰 金東元 등 8총무를 두어 운영했다.

韓民黨의 정치적 좌표는 16일 채택된 강령과 정책보다는 8일 발기인 명의로 발표된 對人共성명에서 더 잘 나타나고 있다.

“그들(人共)은 이제 반역적인 인민대표자대회란 것을 개최하고 朝鮮人民共和國정부란 것을 조직하였다고 발표하였다. 可笑타 하기에는 너무도 사태가 중대하다. 출석도 않고 동의도 않은 國內知名人士의 명의를 盜用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해외 우리 정부의 엄연한 主席 副主席 領袖되는 諸英雄의 名을 자기 어깨에다 같이 놓아 某某위원 운운한 것은 인심을 현혹하고.....”

그런 다음으로 임정에 대한 人共의 輕視태도를 나무라고 呂運亨 개인을 비난했다.

“嗚呼라 邪徒여! 君等은 현 대한임시정부요인이었으며 그후 上海사변 태평양전쟁 발발후 中國國民政府와 美國정부의 지지를 받아 重慶 華盛頓 사이판 沖繩 등지를 전전하여 지금에 이른 사실을 모르느냐. 同政府가 카이로회담의 三巨頭로부터 승인되고 桑港會議에 대표를 파견한 사실을 君等은 왜 일부러 은폐하려는가..... 일찍이 汝等은 小磯 총독관저에서 합법운동을 일으키려다 조소를 당한 도배이며..... 日本의 압박이 소멸되자 政務總監 京畿道 警察部長으로부터 치안 유지 협력의 위촉을 받고 피를 흘리지 않고 政權을 탈취하겠다는 야망을 가지고 나선 日本帝國의 走狗들이다. 吾等은 장구히 君等の 행동을 좌시할 수 없다. 吾等の 正義의 快刀는 破邪顯正의 義舉를 단행한 것이다.....”

여기서 흥미있는 것은 韓民黨 인사들이 重慶임시정부가 국제적인 승인을 받고 있는 것으로 誤認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정도와 종류의 차이는 있었지만 바깥정세에 대한 부분적인 無知는 비단 韓民黨만이 아니라 어느 정파나 다소는 있었던 것이다. 아무튼 이 성명은 해방후에 각종 정파가 내놓은 것들로는 그 성격에 있어서 상당히 과격한 범주에 들어가는 것만은 사실이다.

韓民黨의 성격에 관해서는 그때는 물론 지금도 다양한 견해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韓民黨을 평가함에 있어서 현실적인 기준은 어느 정도 뚜렷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즉 韓民黨은 建國의 기간세력이었고 反共의 실질적인 힘이었으며 한국정당사상 오늘까지도 一脈을 통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당시 좌익은 공식대로 韓民黨을 험담과 함께 反動세력으로 몰아붙였다.

‘反動勢力으로서 가장 먼저 기치를 들고 나타난 것이 韓民主黨이다. 이 당에는 온갖 反動要素가 섞여있다. 朝鮮에 있어 세칭 우익진영을 우리는 反動勢力이라고 규정한다’ (民主主義民族戰線 편찬 朝鮮解放年報)

그러나 이것은 좌익이 비단 韓民黨뿐만이 아니라 非左翼 일반에 상투적으로 적용하는 시각이어서 별다른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宋南憲씨의 분석이 韓民黨성격을 보다 균형있게 설명하고 있다.

“창당 당시 韓民黨의 지도부는 총무단이나 중앙집행위원들의 면면을 보더라도 확실히 다양한

인물로 구성되었다. 3.1운동을 전후하여 국내외에서 민족해방운동에 앞장섰던 인사 및 공산주의 운동에 투신하였던 인사, 1920년대 후반으로부터 1930년대 전반에서 국내에서 노동운동 내지 농민운동 사회주의운동에 이르기까지 투신하였던 인사, 심지어 당시 전문학교 강단에서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을 강의한다고 '붉은 교수'로 지목되었던 교수 출신, 구미지역에서 전형적 자유주의 교육을 받은 인사, 고루한 민족주의자 등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日帝에 충성을 바친 親日分子만은 아니었다. 혹 하부조직에 그러한 인물이 몇 사람 참가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韓民黨 전체의 성격 규정은 될 수 없는 것이다"

이같은 논의를 우익과 좌익간의 투쟁에서 더 선명하게 부각시킨 것으로 47년 新太平洋誌에 실린 李相敦씨(制憲의원)의 글이 있다.

"과연 진정한 '親日派'와 '民族反逆者'는 어느 진영에 많은가를 음미하여 보자.....親日派 民族反逆者는 오히려 공산진영에 압도적으로 많음을 부인치 못할 것이다. 共產黨 간부인사 朴憲永씨 李觀述씨 등을 제외하고서는 거개가 親日派이며 附日協力者이며 소위 '轉向派'로서 민족반역행위를 한 자들이다. 다만 그들의 친일행위와 附日반역행위가 표면적이 아니고 이면적이고 양성적이 아니고 음성적이었기 때문에 일반이 잘 몰라서 그렇지 참된 親日派의 집단은 공산당이라고 단언하지 않을 수 없다.日帝시대에 每日新報 京城日報에서 倭敵의 전쟁수행을 위하여 '言論報國에 挺身하였고 倭軍의 전쟁살인철학을 정당화시키기에' 文筆報國을 하던 악질언론인과 신문기자가 공산당원이 되어 賊反荷杖格으로 大聲叱呼하는 것은 양심의 자살행위가 아니고 무엇이라..... 日帝에 충성을 다하던 분자들이 民戰산하의 문학가 동맹의 중요직을 차지하여 人民文學을 운운하며 反動文學타도를 절규하는 奇觀奇相이야말로 世紀的滑稽劇의一幕이 아닐 수 없다"

朴憲永도 共產黨 전격 재건

한편 민족진영이 韓民黨을 결성하고 있는 사이에 공산당의 朴憲永도 공산당 재건사업에 여념이 없었다.

朴憲永은 이미 9월 8일의 長安派 열성자대회를 재건파에 대한 항복대회로 둔갑시킨 바 있다. 차은 이같은 여건을 기반삼아 9월 11일 자파의 재건준비위원회를 해체하고 조선공산당을 전격적으로 재건했다. 물론 총비서는 朴憲永이었다.

정치국은 朴憲永 金日成 李舟河 武亭 姜進 崔昌益 李承燁 權五稷, 조직국은 朴憲永 李鉉相 金三龍 金炯善, 서기국은 李舟河 許成澤 金台俊 李龜壩 李順今 姜文錫 등으로 구성되었다.

재건공산당의 초기단계라는 이유도 있었지만 朴憲永은 총비서와 정치국원 조직국원을 겸함으로써 일단 親政體制를 확립했다. 또한 그의 직계중의 직계 李鉉相 金三龍 金炯善을 조직국에서 집중 배치함으로써 조직확대에 대비했다.

공산당은 14일에는 '朝鮮共產黨은 끊임없는 피투성이의 투쟁과정을 통하여 중대한 政局下에 마침내 통일된 형태로 지난 11일에 재건되었다'고 공식 선포했다.

한편 이보다 앞서 9월 12일 정오 공산당은 朴憲永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재건대회를 열었으며 대회가 끝난 후에는 鍾路 乙支路 光化門 등지를 시위하면서 횡쓸었다. 물론 구호와 플래카드는 '조선공산당재건 만세'였다.

찌는 듯 무더운 8월 한낮의 이 엄청난 시위를 중앙청 창가에서 유심히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다. 9월 8일 하지장군의 부대를 따라 서울에 들어온 軍政 정치고문 머렐 베닝호프였다.

(4) '信託'의 소용돌이

(동아일보 1983.3.22)

反託의 절규는 45년 세월을 온통 흔들여 놓으면서 행동으로 옮겨지기 시작했다. 12월 29일 군정청 한국인 직원들이 가두시위에 나선 뒤를 이어 법원도 총파업에 들어갔다. 歌舞가 그치고 영화관도 휴관했다. 상가는 철시했고 곳곳에서 反託 가두시위가 잇따랐다.

‘삼천만아 살았느냐. 독립전선에 生血을 뿌리자’라는 구호가 터져나오면서 그것은 곧 ‘독립운동’의 열기로 전국에 번져갔다. 그런 가운데 金九의 臨政은 그동안의 정치적 부진을 씻고 당연 정국의 선두주자로 나섰다.

신탁통치에 대한 거국적 불만을 ‘독립운동’으로 연결시킨 金九의 착안은 엄청난 설득력을 발휘했고 열띤 호응속에 京橋莊을 정치활동의 震源地로 부상시켰다. 12월 28일 金九의 사회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는 臨政 지휘아래 ‘신탁통치반대 국민총동원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이날 金九의 개회사는 이러했다.

“해외에서 30년 동안 싸우다가 고국의 강토를 밟게 되어 3천만 동포를 해후케 될 때 이사람은 3천만 동포와 독립운동을 계속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언명한 바 있습니다. 불행히도 이사람의 말이 들어맞아서 지금부터 새출발로서 독립운동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대치 않은 託治라는 문제가 3천만의 머리 위에 덮여 쓰워졌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물리치기 위하여 덮어쓰우려는 託治의 보자기를 벗어날 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臨政은 이날 4개항의 결의를 발표했다.

- 본정부는 각층 각파 및 교회, 전국민으로 하여금 신탁제에 대하여 철저히 반대하고 不合作運動을 단행할 것.

- 즉시로 在京 각 정치집단을 소집하여 본정부의 태도를 표명하고 선도정책에 대하여 절실히 동의합작을 요하며 각 신문기자도 열석케 할 것.

- 신탁제에 대하여 中美蘇英 4개국에 반대하는 전문을 急電으로 발송할 것.

- 즉시로 美蘇 군정당국에 향하여 질문하고 우리의 태도를 표명할 것.

‘본정부’라는 당당한 표현까지 동원한 臨政의 이러한 태도에 가장 당황한 것은 臨政 자체를 ‘정부’로 보지 않으려 했던 하지였다.

결국 하지는 金九 주석 이하 臨政요인들을 국외로 추방하겠다고 펄펄 뛰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후술기로 한다.

그러나 反託의 소용돌이 속에는 많은 우여곡절도 없지 않았다. 그 대표적인 것이 反託의 방법론이었고 韓民黨 宋鎮禹 총무의 암살도 그 여진속에 일어났던 일이다.

28일밤 京橋莊에서 있는 각정당사회단체 대표들의 비상대책회의에는 열띤 논의가 벌어졌다. “미군정을 엮어버리고 臨政이 독립을 선포하여 통치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논의가 한창 열을 띠어갈 무렵 宋鎮禹가 입을 열었다.

“내가 지금 하지를 만나고 오는 길인데 신탁통치라는 것이 여러분이 흥분해서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우려할 만한 것은 아닌 것 같소. 반탁을 하되 미군정을 적으로 돌려서는 안됩니다. 다시 한번 여유를 가지고 냉정히 생각해 봅시다”

宋鎮禹의 말에 여기저기서 “집어치워라”는 반발이 터져나왔다.

그러나 宋鎮禹는 계속했다.

“만약 臨政식으로 사태를 수습하면 우선 미군정과 충돌해야 하고 미군정과 충돌은 미국 및 민주주의 제국과의 충돌을 일으킬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古下는 찬탁파요?”

“찬탁이 아니라 방법을 신중하게 하자는 것이오. 반탁으로 국민을 지나치게 흥분시킨다면 뒷수습이 곤란할 것이니 좀더 냉정하게 생각해서 시국을 수습해야 하지 않겠소?”

“무슨 소리요? 반탁 뒤에 오는 모든 사태는 우리가 말지.....”

宋鎮禹와 臨政간의 결론은 29일 새벽 4시까지 계속됐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宋鎮禹는 실제 反託운동에 共産黨의 朴憲永까지 포함시키려는 계획을 세웠었으며 29일 아침엔 “朴憲永 군에게도 이번만은 제발 영웅적 태도를 취해달라고 전해주시오. 내가 그러더라고.....”하고 한 측근에게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운명의 12월 30일 오전 6시 15분 宋鎮禹는 서울 苑西洞 74 자택에서 자객이 쏜 6발의 총탄을 맞고 56세를 일기로 他界했다.

宋鎮禹의 死去로 해방정국의 소용돌이는 더해갔다. 宋鎮禹의 죽음을 전해들은 李承晩은 손으로 방바닥을 치면서 어린애처럼 영영 울었다.

反託의 방법론을 놓고 宋鎮禹가 臨政요인들과 의견을 달리하자 일부에서는 宋鎮禹에 대한 모함과 중상이 있었으나 宋鎮禹는 이에 개의치 않고 의연히 臨政의 극한 투쟁론을 제동하기 위한 노력을 포기치 않았다. 비상대책회의에 앞서 宋鎮禹는 金九와의 단독요담에서 극한론의 자제를 요청했다.

“반탁국민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대한사람이면 누구나 반대 못합니다. 열화같은 반탁의사를 군정 사령관이나 미국대통령 귀에 찌렁찌렁 울리도록 해야지요. 그렇지만 미국을 반대하고 미군정을 적대시하여 무모하게 머리로 받아넘기려 하다가는 작은 것을 얻고 큰 것을 잃게 됩니다.”

宋鎮禹는 金九에게 차근차근 말했다.

“市井의 필부들이 주먹을 높이 쳐들고 고함을 칠 때 그 주먹을 가상히 여기면서도 정치지도자는 사태의 앞 뒤 진전을 헤아리면서 물굽이를 잡아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強硬의 굽이에 들어선 臨政의 궤도를 돌려잡기엔 역부족이었다.

臨政의 이러한 강경노선에 누구보다도 놀란 것은 하지였다. 하지는 그것을 軍政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다. 난처한 입장에 빠진 것은 군정청 경무부장인 趙炳玉이었다.

趙炳玉은 宋鎮禹가 암살되기 직전 그를 찾아가 방안을 협의했었다.

“京橋莊에서 붙은 불은 黨(韓民黨)에서 잡아보시오. 코쟁이들은 내가 말해보리다”

그런데 모스크바 三相會談 결정을 반대하면서 이른바 ‘반파쇼 공동투쟁위원회’까지 조직했던 좌익진영은 46년 1월 3일 갑자기 조선공산당의 태도를 표변시키면서 신탁통치찬성 쪽으로 급선회했다.

이즈음 朴憲永의 모습이 한동안 보이지 않았는데 反託운동을 벌이려 했던 朴憲永이 서울의 소련영사관으로 불려가 폴리안스키 영사로부터 호된 야단을 맞고 찬탁으로 돌아섰다는 이야기도 있다.

결국 託治결정은 해방정국을 건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다.

戰後의 무질서를 더욱 악화시켰고 민족분열을 가속시켰다. 국토에 이어 사람까지도 반으로 자르는 칼이 되고 만 것이다.

44. 사라진 政治指導者群像 : 宋鎮禹論

- 오늘의 時點에서 본 古下의 思想과 業績 -

<政經研究> (1965년 9월호)

李 桓 儀

解放이후 20년간의 韓國政治史를 살펴보면 비록 優劣盛衰의 起伏은 있을지언정 그 가운데는 꾸준히 흐르고 있는 二大思想의 根幹이 있다.

그 하나는 '上海臨時政府 奉戴'와 '美軍政 支持'의路線 위에서 韓國民主黨을 세워 李承晩박사의 大韓民國 건립에 推進力이 된 古下(宋鎮禹) - 仁村(金性洙)의 뿌리요, 다른 하나는 '建國同盟'과 '建國準備委員會'를 구성하여 美國一邊倒의 李承晩씨나 蘇聯을 맹신하는 左翼共產勢力的 朴憲永 등을 배격하면서 自律的 獨立 즉 民主的 社會主義를 표방하던 夢陽(呂運亨)의 '이즘'이다.

前者인 古下 - 仁村의 뿌리는 性分上 湖南의 土着地主層으로서 우리나라의 民族資本家.新興財閥 등과 함께 保守政黨을 形成하여 혹은 與의 位置에서 혹은 野의 隊列에서 前後 20年間 우리나라 政治史를 주름잡은 主人公役을 했고 後者인 '建同' '建準'의 亞流 즉 民族主義 또는 民主社會主義를 표방한 夢陽 '이즘'은 中産層以下の 庶民大衆과 一般의인 浮動 인텔리階層에 파고들어 가면서 建國準備委員會를 만들었고 그 餘勢로 一部 右翼人士를 포함하여 朝鮮人民共和國을 수립했거나 臨時政府 推戴派와 美軍政 견제탄압으로 결국 三日天下의 운명을 겪고 말았다.

그러나 이 '建準'의 씨 夢陽의 民主社會主義的 '이즘'은 그후 우리나라 憲政史의 흐름속에 때로는 進歩黨이란 形態로 때로는 統社黨.社大黨.民社黨이라는 이름으로 保守野黨과 함께 꾸준히 明滅했으며 오늘날 그 殘命은 公교롭게도 民族的 民主主義와 後進國 近代化를 주장하고 있는 執權黨의 一隅에서 아니면 親進歩 反保守속에서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 政治史의 二大潮流 속에서 볼 때 解放직후 암흑정치시기에 臨政還國歡迎準備委會를 결성하여 呂運亨씨의 '建準'세력과 朝鮮人民共和國을 形成한 左傾的 勢力을 牽制 除去시키고 臨政派를 봉대하여 韓民黨을 구성, 大韓民國 建立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한 古下 宋鎮禹씨의 思想과 업적은 保守領域의 政黨史面에서는 단연 鼻祖的 存在요 높이 評價할 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解放직후 暗黑政治時期를 거쳐 美軍政과 大韓民國 建立을 하는 古下가 내건 과정에서 '臨政 奉戴'라는 名分下에 民族的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日帝下에 親日派와 일부 地主階級들이 그 그늘에서 서식 조락하였고 그것으로 인하여 尙後 20年間的 이 나라 政治風土와 官僚紀綱 등이 퇴폐화하게 했다는 '過'도 없지 않다.

그러나 모스크바 三相會議에서 韓國의 信託統治가 결의되고 서울의 美蘇共同委員會가 결렬된 후 재빨리 提唱한 '自律政府運動'의 方向을 設定했고 후일에 仁村(金性洙)으로 하여금 韓國民主黨을 이끌고 臨時政府와 路線을 달리하면서까지 大韓民國 建立에 一役을 하게 길을 닦아놓은 것 등은 保守政治領域에서나마 확실히 先驅者的 역할을 하였고 어느 意味에서는 선견지명이 있었다고 評價할 수 있다.

이 나라 保守政黨의 舵手였고 오늘의 野黨根幹을 이루고 있는 舊韓國民主黨의 鼻祖格인 古下 宋鎮禹씨의 政治經綸과 그의 思想을 다음의 몇가지 分野로 나누어 분석 비판해 본다.

倭政 引繼를 拒否한 宋鎮禹

聯合軍에 대한 無條件降伏을 각오한 日本의 軍國主義者들은 카이로 會談과 포츠담 宣言에서 확인된 朝鮮獨立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天皇의 降服宣言이 내려지기 전에 미리 先手を 쓰려했다.

즉 1945년 8월 10일 '日本이 國體護持의 조건부로 포츠담 선언을 수락할 것을 聯合國에 通告했다'는 사실을 東京政府로부터 비밀히 연락받은 朝鮮總督府 당국은 終末에 이르는 朝鮮統治가 流血사태로 끝나는 두려움을 미리 除去하기 위해 朝鮮內의 지도급 人士에게 8.15前 治安權 이양을 교섭한 것이다.

總督府側은 맨 먼저 東亞日報社長을 지낸 바 있는 宋鎮禹씨에게 그 교섭을 해 왔다.

1945년 8월 9일 당시 朝鮮總督府 政務總監 엔도(遠藤柳作)는 宋鎮禹씨를 京畿道警視廳에 초청하여 戰勢의 급박함을 알리고 行政委員會같은 것을 조직하여 獨立準備를 하도록 권유했다.

8월 10일과 11, 12일에는 朝鮮管區軍參謀인 神崎, 京畿道知事 生田清三郎 警察部長 岡久雄 등

이 宋鎮禹씨를 知事室로 초청하여 “總督府가 가진 權力의 四分之 三을 내놓겠다. 그리고 憲兵.警察.司法.通信.放送.新聞을 넘겨주겠으니 朝鮮人들끼리 行政委員會를 하되 日本人의 生命財産은 保護해 달라”고 간청했다.

이때에 古下는 이를 거절한 것이다. 그때 古下가 倭政 引繼를 拒絕한 이유로서 내세운 것을 現役 某 政治人의 傳言으로 소개해 보면 대개 이런 것이었다.

“내가 中國의 汪兆銘이나 佛蘭西의 페탕이 되고자 한다면 벌써 되었을 것이다. 만일 내가 그대들의 청을 받아들여 汪兆銘이나 페탕이 되어 버린다면 당신네가 日本으로 떠나 버린 뒤 나는 朝鮮民族에게 發言權이 없게 된다. 앞으로 朝鮮도 日本과 國交를 맺어야 할 텐데 한 사람의 올바른 知日人士라도 남겨 두어야 하지 않은가”

朝鮮총독부는 부득이 治安權 이양교섭을 당시 地下에서 獨立쟁취를 위한 祕密組織(建國同盟)을 하고 있던 呂運亨씨에게 돌렸다.

夢陽 呂運亨씨는 8월 14일 밤과 8월 15일 새벽 각각 두 차례에 걸쳐 遠藤과 神崎를 만나 治安權 인계를 교섭받은 끝에 다음 五個項의 조건을 걸어 이를 수락했다.

- <1> 政治.經濟犯의 即時 석방
- <2> 三個月間의 食糧을 확보할 것
- <3> ‘建同’이 추진하는 獨立運動을 妨害하지 말 것
- <4> 青年 學生들에 대한 軍事訓練을 許容할 것
- <5> 勞働者 農民의 動員을 방해하지 말 것

이렇게 해서 治安權 引受를 條件附 수락한 夢陽은 朗山 金俊淵씨를 통하여 古下에게 協助할 것을 의뢰했다.

그러나 당시 古下는 “日本은 기왕 망해가는 정권이니 倭政이 완전히 패망될 때까지 治安權이양은 안하는 것이 좋다”고 거절, “머지 않아 돌아올 重慶臨時政府를 正統政府로 추대해야 한다”고 은근히 夢陽의 建國준비에 先手쓰는 것을 견제하였다.

이때부터 벌어진 古下와 夢陽간의 政治的 識見과 判斷의 기준 差異는 後日의 政治추세를 결정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曷을 가져오게 하였고 나아가서는 美軍政 治下의 정치질서 확립과 民國수립후의 정치판도를 형성하는 데까지 큰 영향을 끼치게 했다.

즉 후일의 左右대립의 시초적 근원은 이미 이때 古下와 夢陽 간에 벌어진 日本治安權의 이양문제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建準에 대항하는 右翼陣營의 領首級으로서의 古下

朝鮮總督府로부터 治安權을 이양받은 呂運亨씨는 8.15를 맞은 이틀 후(8월 17일) 民政長官 安在鴻씨와 제휴하여 建國準備委員會를 조직하고 治安유지와 건국준비에 분망했다. 夢陽은 즉시로 ‘建同’의 核心同僚인 李如星을 古下에게 보내어 “그대 보기에 나의 出發이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國家의 大業이니 虛心坦懷하게 나와서 大衆의 信望을 두텁게 하고 차질이 없게 하라”고 권고했으나 宋鎮禹씨는 “경거망동을 삼가라. 우리는 重慶臨政의 還國을 기다려 臨政을 法統政府로 추대해야 된다”고 끝내 協同하기를 고사했다.

夢陽은 金俊淵.張德秀 양씨에게도 建準에 協助할 것을 요청했으나 朗山과 雪山 역시 “우리는 古下의 路線과 分離할 수 없다”하여 宋鎮禹씨의 노선을 따라갔다.

右翼陣營의 中心人物들로부터 協助를 거절당한 夢陽의 ‘建準’은 그해 9월 6일의 소위 全國人民代表者會議를 거쳐 하룻밤 사이에 ‘朝鮮人民共和國’을 수립하기에 이르렀다. 夢陽이 이토록 9월 6일로 서둘러서 ‘朝鮮人民共和國’을 수립한 것은 맥아더 摩下의 美軍이 9월 8일이면 仁川에 上陸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自律的인 獨立國家의 政治가 形成되어 있어야 美蘇 兩軍의 干涉을 받지 않

을 것이라는 判斷에서였다. '民族叛逆者'의 土地沒收와 이의 '無償分配' '非沒收土地의 小作料를 3.7制로 한다' '日本帝國主義와 民族叛逆者들의 鑛山.鐵道.船舶 등의 國有化조치' 등 朝鮮人民共和國 이 내건 改革的인 施政方針이 對外的으로 발표되자 國內財産家들은 물론 日帝下에서 암암리에 總督府에 協力했던 大小地主.商工人들은 은근히 私有財産의 侵害를 두려워했고 右翼陣營의 政界人士들은 夢陽의 '建準'과 朝鮮政府를 左翼으로 규정하게까지 했다.

뿐만 아니라 9월 8일에 仁川에 上陸한 美軍은 10월 10일 軍政長官 아놀드의 이름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38度 이남에의 朝鮮땅에는 美軍政府가 있을 따름이고 그 이외 다른 政府가 존재할 수 없다"고 朝鮮人民共和國을 正面으로 否認하고 나왔다.

이때에 古下 宋鎮禹씨를 중심으로 한 臨政 봉대파들은 夢陽의 '建準'과 '朝鮮政府'에 대항하여 '大韓民國臨時政府 還國歡迎委員會'를 結成하고 9월 7일에는 國民大會準備會로 發足, 宋鎮禹씨는 國民大會準備委員長이 되었다.

이로부터 古下의 政治的 活動의 첫 걸음은 시작되었으며 左翼團體의 領首로서 革新派인 夢陽에 對抗하는 行動이 개시된 것이다. '國民大會準備會'의 主要멤버로는 宋鎮禹 金性洙 徐相日 金俊淵 張澤相 金東圭 李慶熙 安東源 姜柄順 薛義植 金東元씨 등이었다.

이에 앞서 8월 28일에는 金炳魯 白寬洙 趙炳玉 李仁 羅容均씨 등의 이름으로 朝鮮民族黨이 發起되었고 9월 4일에는 白南薰 金度演 許政 張德秀 尹潛善 尹致暎씨의 이름으로 韓國民主黨이 발기되었다. 뿐만 아니라 古下가 지금의 東亞日報 社屋에서 國民大會準備會를 結成하던 9월 1일 같은 날 安在鴻씨가 '建準'에서 離脫하여 朝鮮國民黨을 結成함으로써 右翼陣營의 조직활동도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當時의 實情으로 보아 右翼陣營의 政黨政治團體의 추세는 安在鴻씨의 國民黨, 白南薰 金度演씨의 韓國國民黨, 任永信씨의 朝鮮女子國民黨, 宋鎮禹씨 등의 國民大會準備會의 4個 團體가 두각을 나타냈으며 이들 右翼단체 중에서도 인물면에 있어서는 古下가 단연 탁월했고 영수급으로 지지받고 있었다.

韓民黨 首席總務로서의 宋鎮禹

建國準備委員會와 朝鮮人民共和國에 자극되어 古下를 중심으로 한 右翼단체가 차츰 '臨政 推戴'의 旗幟를 높이고 集結하였으나 8.15 직후부터 治安과 建國準備 등 政治활동에 선수를 치고 나온 夢陽의 建準勢力에 正面 대항하기에는 大衆의 지지와 조직이 미흡했다.

그리하여 9월 8일에는 金炳魯.白寬洙씨의 朝鮮民族黨의 白南薰.張德秀씨 등의 韓國國民黨發起體가 합쳐 韓國民主黨을 發起하였고 宋鎮禹씨는 일약 首席總務로 추대되었다. 이 때에 편성된 韓國民主黨의 部署를 보면 領袖에 李承晚 金九 李始榮 徐載弼 吳世昌 文昌範 權東鎮씨를 옹립해 놓고 中央執行委員의 人選에서 오늘날 各政黨의 幹事長이나 事務總長格인 首席總務에 宋鎮禹씨를 추대하였으니 이때부터 韓國民主黨의 실질적인 운영권은 古下의 手中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다.

참고로 이때 韓國民主黨의 中央執行委員部署를 보면

總 務 元世勳 白寬洙 徐相日 金度演 許 政 白南薰
事務總長 羅容均 黨務部長 申유局 組織部長 金若水 外交部長 張德秀
財政部長 朴容善 宣傳部長 咸尙勳 情報部長 朴瓚熙 勞農部長 洪性夏
文教部長 李寬求 厚生部長 李 雲 調查部長 兪鎮熙 連絡部長 崔允東
青年部長 朴明煥 地方部長 趙憲泳 訓練部長 徐相天
中央監察委員長 金炳魯

등으로 右翼陣營의 巨物級은 거의 망라되었다.

9월 16일 天道教강당에서 열린 政綱과 8개 항목의 當面정책을 채택했는데 이 정강정책은 9월 7일 東亞日報사옥에서 구성된 國民大會準備會의 中心 멤버인 宋鎮禹 金性洙 徐相日 金東圭 李康熙 金俊淵 安東源 薛義植씨 등에 의해서 주로 작성 검토되었기 때문에 그 대부분이 古下의 經綸과 政治觀이 그대로 反映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政綱에서 본 古下路線의 政治指標를 보면 <1> 朝鮮民族의 自主獨立國家완성 <2> 民主主義의 政府수립 <3> 勤勞大衆의 福利增進 <4> 民族文化를 양양하며 세계문화에 공헌 <5> 國際憲章을 준수하여 世界平和의 확립 등 五個항목을 표방하면서 정치지표의 초점을 內國의으로는 日本과 美軍政으로부터 완전한 獨立획득에 치중하면서 다음으로는 韓國의 自主獨立을 國外에 선양 인식시키려는 데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五個項目的 政綱中에 가장 중요한 經濟政策을 빼면서까지 '勤勞大衆의 福利增進'을 강조한 것은 夢陽의 建準과 人民共和國이 反民族者 親日派의 土地.工場의 沒收와 이의 無償分配.國有化 조치, 그리고 勞働者.農民을 위한 最低限의 賃金 보장문제를 정책 속에 어필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에 對應하는 항목으로써 설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8個政策에 표시된 施政目標를 보면 <1> 國民기본생활의 확보 <2> 互惠平等의 外交 정책수립 <3> 言論.出版.集會.結社.信仰의 自由 <4> 教育.保健의 기회균등 <5> 重工主義의 政策 <6> 主要産業의 國營 또는 統制管理 <7> 土地制度의 合理的 再編成 <8> 國防軍의 창설 등을 내세움으로써 前記 五個項의 政綱에 비하면 한결 進取的이고 大衆的인 方面으로 나가려고 애를 썼다.

施政公約에서 드러난 이 保守政黨의 고민은 戰後의 無秩序와 황폐 속에서 어떻게 하면 國民의 最低기본생활이 영위되도록 경제정책을 시행하느냐와 모든 國民사이에 거의 맹목적으로 조성되어 있는 親日派 民族反逆者 大地主계급들에 대한 설욕과 복수感情을 如何히 完화 充足시키느냐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土地의 合理的 재분배와 主要産業의 國有化조치를 내걸었고 社會福祉의 향상책으로서 教育.保健의 기회균등에 큰 볼륨을 둔 것으로 보인다.

古下와 夢陽의 時局觀, 韓民黨과 人民共和國의 政策比較

古下의 時局觀과 政治思想을 理解하는 데는 항상 그의 相對的 位置에서 왔던 夢陽의 政治權과 思想을 對照시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成長과정에서 본 두 사람의 환경은 한 사람이(古下) 湖南地方의 순탄한 여건하에서 日本 留學을 한 政治人인데 反해 한 사람(夢陽)은 기독교의 영향력을 받으며 國內에서 여러 학교를 전전하다가 大衆속으로 파고 든 차이가 있을 정도이지만 이 두 사람이 가진 政治觀과 思想의 根幹은 本質的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民國樹立 이전에 兩者가 펴고 나간 政治路線을 보면 古下는 그의 思想的 바탕을 西歐的 自由民主主義에 두고 美軍政의 協助下에 半封建的인 上海臨時政府의 法統을 그대로 이어 받으려는 穩健한 保守主義者인데 비하여, 夢陽은 그의 思想的 기초를 社會民主主義 또는 民族主義에 두고 建國過程에 있어서도 美.蘇 양세력을 排擊하여 朝鮮의 獨立은 朝鮮民族의 손으로 이룩해야 한다는 進歩主義者이었다.

때문에 夢陽은 美軍政의 비호하에 重慶臨政을 推戴하려는 親日派 反民族者들을 그대로 감싸주는 過誤를 犯한다고 判斷하여 臨政歸還을 기다리지 않고 美.蘇兩軍이 進駐해 오기 이전에 國內의 進步的 人士들로서 朝鮮人民共和國을 수립, 그대로 밀고 나가려는 勇氣를 낸 것이다.

兩者의 時局觀은 朝鮮總督府末期에 있었던 治安權 引受交渉과정에서도 현저한 差異를 나타냈다. 解放에 따르는 時局收拾의 節次에 있어서도 古下 宋鎮禹씨는 日本이 降服을 하면 聯合軍이 즉시 進駐하여 日本軍의 무장을 해제하고 重慶의 임시정부가 들어와 政權을 담당할 것으로 斷定한데 비해, 夢陽 呂運亨씨는 日本이 敗戰하면 美蘇兩軍이 同時에 서울에까지 들어오되 그 이전에

國內의 政治勢力을 규합하여 民族代表기관으로서 과도정부를 구성하면 一切의 建國은 우리 民族 自體의 힘으로 完成된다고 믿었다.

그리하여 古下는 倭政의 引繼를 거부하고 解放직후의 혼란한 治安收拾에 建準과의 協助를 外面 한채 右翼陣營을 糾合, 臨政봉대를 위한 國民大會準備에 골몰했고 夢陽은 '建同'과 '建準'을 기반으로 하여 美軍의 仁川上陸 직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의 政府形態인 朝鮮人民共和國를 구성했던 것이다.

결국 戰勝軍의 支持를 받은 古下 - 仁村의 韓民黨 勢力은 그들이 目標했던 臨政推戴가 多少의 方向을 바꾸어 美國으로부터 혜성처럼 歸還한 李承晩씨의 初代政權을 수립하는데 밀거름이 되었지만 古下 - 仁村 勢力으로부터 牽制받고 美軍政으로부터 호된 서리를 맞은 夢陽 勢力은 夢陽 自身이 極右테러의 兇彈에 쓰러진 뒤 얼마동안 그 形體를 감추어 버린 것이다.

“獨立戰線에 귀중한 鮮血! 30일 早朝 兇彈을 맞고 古下 宋鎮禹先生殉國!”

12월 28일 모스크바 三相會議에서 '朝鮮에 대한 五個年 信託統治案'이 결정되어 三千里 강토가 왈각 뒤집힌지 2일 後인 12월 30일 새벽 宋鎮禹씨의 暗殺兇報는 또다시 全疆土를 뒤흔들었다.

後日의 公判기록에서도 犯人 韓賢宇의 政治的 背景은 끝내 가려지지 못했지만 古下가 암살될 무렵 서울 장안에는 공교롭게도 韓國民主黨 首席總務 宋鎮禹씨가 “우리는 아직 自治能力이 없으니 五年間의 訓政期를 거쳐 自主獨立을 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는 流言이 삼시간에 퍼지고 있을 때였다.

이 流言의 根據가 사실이건 아니건 간에 古下의 暗殺은 信託統治案이 발표된 3日後의 일이고 보니 古下는 信託騷亂에 쓰러진 同族 테러의 첫 희생자가 된 것이다.

오늘의 時點에서 본 古下의 思想

保守의 카테고리 안에서 본 古下의 思想은 확실히 온건한 自由民主主義者이었다. 政治다운 政治活動을 開始해서 테러의 兇彈에 맞아 숨지기까지 不過 4個月동안 그가 남긴 政治行積과 路線은 지극히 짧지만 이를 要約해서 하나의 줄거리로 엮어 본다면, 倭政 引繼拒否 - 重慶臨政 推戴 - 法統主義建國 - 美軍政과의 協助 - 親進歩勢力의 排除 - 右翼勢力의 糾合 - 韓國民主黨의 結成 - 李承晩씨 初代建國의 基礎構築으로 連結된다.

奸惡한 倭政末期의 뒤치다꺼리를 끝까지 거부한 것이라든가 日帝가 敗亡하면 聯合軍이 進駐하여 一定한 기간동안 軍政을 실시할 것이라는 先見之明을 가진 點이라든가, 亂立하는 右翼政黨의 統合을 꾀하여 民族勢力의 大同團結을 지향한 것 등이 古下의 현명한 經綸이요 政治的 功勞라 한다면 '臨政'推戴만을 주장함으로써 그 그늘 속에다가 親日派, 民族叛逆者의 서식온상을 길렀다는 것과 民族勢力의 大同團結을 표방하면서도 共產主義가 아닌 親進歩勢力인 夢陽의 '建準' 參與를 끝까지 拒否 견제함으로써 民族分裂의 遠因을 造成케 한 點, 五年間의 訓政期間이 不可避하다는 持論을 내세웠고 그것이 莫府三相會議의 決定으로 나타나리라고 豫見했으면서도 自身이 이끄는 國民大會派와 韓民黨은 후일에 反託으로 一貫케 하는 二律背反의인 路線을 걸어왔다는 것은 政治哲學의 빈곤이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 古下 - 仁村이 구축한 基本勢力인 舊韓國民主黨과 그 後續들이 혹은 李承晩 政權에 或은 張勉 政權에 個別的으로 參與하기는 했어도 去令 20年동안 떳떳한 執權黨으로서 단 한번도 政權을 잡아 보지 못하고 오늘날의 野黨속에 그 殘命을 유지케 했다는 것은 어디인가 그 政治理念과 經綸의 바탕에 결함과 誤謬가 있지 않았는가?

이 나라 保守政黨의 鼻祖요 태두인 古下의 政治思想을 分析하는데 있어서 이 점에 대해서만은 늘 一沫의 懷疑를 품게 하고 어딘가 政治哲學의 빈곤성을 느끼게 한다.

45. 쓰러진 巨木 - 宋 鎮 禹

<新東亞> (1977년 8月號)

前國會議員 李 相 敦

暗黒속에서

8.15광복 이후의 古下 宋鎮禹의 행적을 추적하자면 무엇보다도 먼저 東亞日報가 강제폐간된 (1940.8.10) 이후의 시대적 배경과 사회적 양상의 윤곽을 말해야 될 것이다.

당시는 日本제국주의가 中國大陸까지 침략하여 中日전쟁이 한창인 때였고, 日本軍閥의 화신인 조선총독 南次郎은 1936년에 총독으로 부임한 이후 공석상에서 조선말 사용을 엄금하고 日本語만 쓰게 함은 물론, 조선사람에게 日本式으로 創氏改名까지 강요하였다(1940.2.11). 그리고 각급학교를 비롯하여 각종 직장 단체소속 조선사람들에게 강제로 日本神宮 神社에 참배시킬 뿐만 아니라 전국 기독교 목사 장로 신부 敎區長들에게 神社참배를 강요하고 불응하는 기독교인과 신자는 가차없이 구속 투옥하였다. 소위 皇國臣民誓詞를 전국민에 암송토록 강요하고 조선청년에게도 徵兵制를 실시(1943.8.1)하여 수십만의 청년들을 죽음의 전장으로 끌어갔다. 전세가 日本에 불리하자 조선학생을 '學兵制'라는 명목으로 강제징집하여(1943.10.20) 전선으로 내몰았다.

이와 같은 植民地 暴政과 암흑시대에 古下는 철두철미 反日獨立主義者이고 총독부정치에 거부하는 反骨人物이었다. 南총독이 東亞.朝鮮 두 신문을 강제 폐간할 때만 보더라도 당시 東亞日報社 고문인 古下는 비밀리에 日本 東京에 건너가서 평소 古下와 친분이 있는 日本貴族院 議員과 衆議院議員을 만나 東亞日報 강제 폐간의 부당성을 역설하여 정치문제화시켜 총독정책에 정면으로 항거하였다. 그러나 力不足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치 못하고 돌아오자 서울역에서 대기하고 있던 鍾路경찰서 형사에 의하여 연행.구속당했다가(1940년 5월초) 3개월 후에 東亞日報 폐간이 결정되자 석방되었다.

그 당시 필자도 東亞日報 기자로 있다가 신문이 폐간되는 바람에 실직자가 되어 간혹 苑西洞 古下宅을 찾아가면 "日本은 中日戰爭과 太平洋戰爭에서 반드시 패망할 것이니 낙심말고 적당한 직장에 가서 은신하고 있다가 재기를 도모하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古下말에 따라 보신책으로 나의 개성과는 거리가 먼 天一藥房(天一製藥株式會社)에 취직하여 2년간을 보냈다.

日本이 군벌독재체제를 강화하고 獨逸 이탈리아와 軍事同盟을 맺어 美國.英國 등 세계 자유국가를 상대로 제2차 세계대전을 도발하게 되자 조선식민지통치는 필설로 형언키 어려운 폭정이 자행되었다. 國民總動員, 內鮮一體, 皇國臣民化 등의 구호밑에 그 당시의 지도급인사와 지식인 등을 강제로 동원하고 협력하게 만들었다. 본의든 본의 아니든간에 많은 교육자 언론인 문인 종교인 등이 일제에 아부하는 연설을 하고 글을 쓰고 시를 쓰는 등 추잡한 世流가 우리 사회를 뒤덮게 되었다. 철석같이 믿었던 민족의 지도급인사가 변절하여 일본제국주의 침략전쟁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작업에 동원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일제에 충성을 다하는 표징으로 創氏改名까지 하여 설치고 다니는 판이었다. 물론 일제의 간혹한 정략에 의한 위협과 협박, 회유 등으로 본의 아닌 변절을 한 사람도 없지 않았지만, 시국에 대한 誤判으로 자기의 지조와 정치 신조를 헐값으로 팔아버린 사람이 많았다.

울분의 세월

日帝는 古下에게도 전쟁에 협력하라고 회유도 하고 위협도 하였다. 그러나 古下는 創氏改名을 거부한 것은 물론이고 그들의 회유와 협박을 지혜스럽고 슬기롭게 회피하는 것이었다.

언제인가 여름철에 나는 苑西洞 古下宅을 방문하였다. 古下는 別堂 넓은 방에서 모시 고의적삼을 입고 혼자서 골패짝을 맞추고 있다가 나를 반가이 맞아 주는데, 風爐에 藥湯반이 놓여 있기에 나는 어디가 편치 않으시냐고 물었다. 古下는 나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고 요사이 달갑지 않은 손님이 자주 찾아와서 즐라대는 것이 있어 견딜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잠시 후에 그때 유행하던 國民服을 입고 머리도 까까머리로 깎은 손님이 찾아왔다. 명함을 보니 조선 사람으로 총독부 課長자리에 있는 사람이었다. 나는 잠시 자리를 피하여 옆 대청마루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戰局이 점점 심각하게 되니 宋선생께서 나오셔서 협력해주셔야겠습니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듣고 古下는 “보시다시피 나는 신병이 있어서 현재 한약을 長期服用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나보다는 더 역량과 기량이 있는 분이 많이 있는데 굳이 나같은 인간이 나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라고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이었다. 그는 하는 수없이 아무쪼록 服藥하고 몸조심 잘 하시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가는 것이었다. 그제서야 나는 풍로에 한약을 달이는 것이 古下의 위장전술인 것을 깨닫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1944년 봄이라고 기억된다.

내가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 지도급 인사로서 총독부기관지 每日新報에 글을 한번도 쓰지 않은 사람은 萬海 韓龍雲과 古下와 維石 趙炳玉, 碧初 洪命憲 등 몇 사람뿐인 줄 안다. 古下는 여러 가지 협박과 회유도 물리치고 전쟁을 찬양하는 본의 아닌 글을 끝내 쓰지 않았다. 그런데 총독부 당국에서 古下에게 너무도 집요하게 방송을 하라고 강요하자 古下는 하는 수 없이 방송국에 나갔다. 10분 이내로 방송시간이 제한된 것을 기화로 해서 古下는 마이크 앞에서

“전국의 동포 여러분! 시국이 날로 중차대하고 전쟁의 양상이 날로 심각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은 각자 생업에 충실하고 생산력 증강에 가일층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웃과 화목 단결하고 보건위생에 주의하여 신체를 단련하고 유언과 비어에 조심하여 법망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기 바랍니다.”

라고 간략하고도 의미 심장한 몇마디 말로 방송을 끝맺고 말았다. 이 방송을 듣고 나서 日本人 모 고관은 “宋鎭禹란 자는 참으로 상대하기 곤란한 자다. 간단히 다룰 수 없는 인간이다”고 말하더라는 것을 그 당시 每日新報 총독부 출입기자인 郭福山에게 들었다.

日帝총독부에 의해서 東亞日報가 강제폐간된 후에도 古下는 東亞日報社屋을 日本企業體에 매각하라는 총독부의 권유를 일축하고 仁村 金性洙와 상의 후에 東本社라는 간판을 붙이고 日本人 大企業體에 賃貸해주어 임대료를 매월 또박또박 받았다. 古下는 未久不遠해서 日本이 패전하면 조선이 독립될 것이고, 그 때에는 東亞日報도 복간되고 東亞日報社屋도 요긴하게 사용될 것이라는 先見의 明과 확신을 가지고 金佑成(前東亞日報社 經理社員)에게 東本社의 관리책임을 맡겼다. 古下 자신도 유서깊은 東亞日報 건물 한 귀퉁이 東本社 사무실에 간혹 나와서 친구도 만나고 저녁에는 옛날 東亞日報 관계자들과 만나 요리집에 가서 술을 마시고 실의를 달래기도 하였다.

古下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민족의 정기가 사라지고 正과 邪가 혼란된 암담하기 비할 데 없는 식민지 암흑暴政하에서 정치적 신념과 지조를 변치 않고 호방한 기개와 불굴의 투혼으로 날이 갈수록 패색이 농후해가는 戰局을 응시하고 있었다. 때로는 上京하는 옛날 東亞日報 地方支局長들과 저녁에 술을 나누며 서로 위로도 하고, 때로는 仁村 金性洙, 芹村 白寬洙, 街人 金炳魯, 南崗 金用茂, 朗山 金俊淵, 爲堂 鄭寅普 등과 서울 교외 倉洞에 나가 東亞日報社 株主이고 친구인 張鉉重宅에서 술을 마시고 그 특유의 고담준론으로 울분을 달래기도 했다.

日帝의 治安權引受 요구 거절

1945년 8월 13일께로 기억한다. 나는 東亞日報 기자생활을 같이 하던 梁在廈로부터 8월 15일에 일본이 항복한다는 극비소식을 들었다. 당시 梁은 역시 東亞日報社 調査部長을 지낸 바 있는 李如星과 친교가 있고, 李는 夢陽 呂運亨과 친교가 있어 극비외국정보를 입수하여 나에게 일본의 무조건 항복 소식을 주었다.

나는 곧바로 苑西洞으로 古下를 찾아갔다. 來客이라고는 시골서 올라온 古下의 친척으로 보이는 몇 사람이 있을 뿐이었다. 평상시와 다른없는 정적인 분위기였다. 梁在廈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함부로 할 수는 없고 해서 십여분동안 이 말 저 말 하다가 작별인사를 하고 나오는데 古下가 別堂 돌층계까지 내려오면서 “李君, 무슨 소식 못들었나? 이런 때일수록 말조심하고 輕舉해서는 안 돼! 며칠 후에 다시 한번 찾아와. 15일 오후에 만나!”자고 말하며 나의 손을 힘주어 잡는 것이었다. 나는 직감적으로 古下가 일본의 무조건항복소식을 알고 있으면서도 나에게 직선적으로 말하지 않고 언행을 조심하라는 간접적 표현으로 일본의 항복을 암시하는 것을 알았다.

古下는 器局이 크고 그 성격이 호방하고 담대하면서도 한편 세심하고도 추호의 허점이 없는 주도면밀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그리고 古下는 아무리 난처한 경우 또는 혼란한 국면에 직면해도 냉정 침착하게 사태의 추이와 진전을 예의주시하고 달관하는 동시에 小我의名利와 영달보다는 大我에 대한 명분과 大義를 존중히 여기는 것이었다. 8.15광복 직전의 총독부 당국과 古下와의 사이에 오고가던 治安權引受에 대한 古下의 의연한 태도가 바로 그것을 증언하여 주고도 남음이 있다. 1945년 8월 11일 저녁 일본총독부 警務局 次席事務官 하라다(原田)가 古下를 만나자고 요청했다. 古下는 이미 그 전날 친교가 있는 젊은 변호사 姜柄順의 정보를 통해서 日本이 8월 15일을 시한으로 무조건 항복한다는 소식을 듣고 있었던 바이지만, 시치미를 떼고 日人 하라다가 지정한 현 忠武路(그때는 本町)에 있는 일본인 모의 사택으로 갔다.

古下가 그 집에 가보니 그 자리에 朝鮮軍司令部 參謀 간사끼(神崎)와 총독부 警務局 保安課長 이소사끼(磯崎)가 古下를 고대하고 있었다. 하라다는 開口하자마자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은 자기들 개인의사로 된 것이 아니라 총독부 고위층의 지령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蘇聯軍이 8월 9일에 두만강을 건너 조선에 침입한 만큼 앞으로 朝鮮의 치안관계가 중대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말과, 총독부로서는 朝鮮의 치안책임을 朝鮮사람의 신망이 많은 朝鮮人 지도자에 일임하고 싶은데 당신이 그 책임을 맡아주면 좋겠다는 말과, 그런 경우 우리는 당신에게 상당한 권한을 위임하겠다는 말을 했다. 古下는 그들의 속셈을 다 알면서도 “天下無敵의 막강한 日本關東軍이 건재한 이상 蘇聯軍쯤이야 무슨 걱정이 되어 치안 문제를 걱정하는가”라고 그들의 요청을 그 자리에서 거절하였다.

그 다음날 즉 8월 12일에 전기 日人 하라다는 경기도 保安課長과 동행으로 苑西洞 古下자택을 방문하고 또 다시 朝鮮치안책임을 맡아줄 것을 간청하였다. 그러나 古下는 냉혹하게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였다. “내가 만일 당신들 말대로 치안 책임을 맡는다면 나는 총독부의 앞잡이에 불과할 것인즉 민중이 나의 말을 믿어줄 리 전무하지 않는가” 하라다는 하는 수없이 돌아갔다.

총독부에서는 초조하여 항복 하루 전인 8월 14일에 京畿道知事 이쿠다(生田)가 古下에게 면담을 요청하였다. 古下는 경기도 도지사실(지금 중앙청앞 치안국자리)에서 그를 만났다. 그 자리에는 경기도 경찰부장 오까(岡)도 동석하였다. 그 때에 비로소 그들은 日本이 포츠담선언을 수락하여 무조건 항복한다는 말을 하면서 조선에 있는 60여만 일본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달라는 말과 만일에 古下가 치안책임을 저준다면 치안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권한을 맡기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古下는 기왕지사 日本帝國主義가 패망하면 필시 聯合國이 進駐할 것이 틀림없는 판국에 총독부의 앞잡이로서 비록 단시일간이라도 치안책임을 진다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판단하여 그들의 제의를 단호히 거절하였다.

여기에서 총독부 당국은 古下를 단념하고 제2차로 夢陽 呂運亨에 접촉하여 8월 15일 아침 총

독부 政務總監 엔도(遠藤)가 夢陽을 자기 관저로 초대하여 치안유지의 책임을 맡아달라고 요청하고, 夢陽은 즉석에서 政治犯과 經濟犯석방과 향후 3개월간의 식량 확보 등 5개항의 조건을 제시하여 합의를 보고 치안책임을 맡을 것을 수락하였던 것이다.

우리는 託治를 拒否한다

1945년 8월 15일 정오! 日本天皇의 떨리는 목소리로 포츠담선언을 무조건 수락한다는 항복방송을 듣고 나는 흥분을 억제치 못하고 苑南洞 芹村宅을 거쳐 桂洞 仁村宅에 갔으나 仁村은 漣川 畚谷農場에서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苑西洞 古下宅으로 발을 옮겼다. 古下宅에 가보니까 별당으로 올라가는 대문이 활짝 열려 있고 古下가 쓰고 있는 응접실은 각지에서 모여든 來客으로 꽉차 있었다. 古下는 來客과 인사를 나누기가 바쁘게 앞으로의 시국에 대한 전망과 정확한 정보의 입수에 큰 관심을 갖는 듯 보였다. 滄浪 張澤相, 朗山 金俊淵, 小梧 薛義植, 心崗 高在旭, 변호사 姜柄順 등 십여명의 평소 古下와 친분이 두터운 사람들이 찾아와 감격의 악수를 나누는 것이었다. 그래도 古下는 비록 일본이 패전 항복하였지만 아직도 조선의 군권, 경찰권이 일본인 수중에 있는만큼 경동해서 무용한 희생을 당해서는 안된다고 역설하는 것이었다.

1945년 9월 8일 美國의 제8군이 온 국민의 열렬한 환영을 받고 서울에 진주한 3일 후로 기억된다. 나는 苑西洞 古下宅을 방문하였다. 때마침 中國 有力紙 '大公報'지 기자가 찾아와서 古下와 회견을 하는 중이었다. 軍服차림으로 권총까지 차고 온 大公報社 기자와 古下의 회견을 나도 그 자리에서 지켜보았다. 中國語통역은 丁來東 李相殷 두 교수가 하였다. 그때 회견내용 중에서 지금까지 내가 기억하고 있는 몇가지만 적어보기로 하자.

문(大公報 記者)---36년간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통치하에 있던 朝鮮의 장래에 대한 귀하의 전망과 소신은?

답(古下)---비록 일본에게 주권을 뺏겨 36년간 식민지통치를 받았지만, 우리 민족은 5천년의 역사와 고유의 전통을 견지해 온 단일민족인 만큼 카이로선언에 의해서 연합국의 후원과 승인을 받아 독립국가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우리 조선독립에 대하여서는 貴國 蔣介石총통의 배려함이 크다는 것을 우리 온 국민이 감사히 여기는 바이다.

문---조선이 독립국가가 되는데 주동적 역할을 할 사회계층은 어떤 것인가?

답---비록 식민지교육일지라도 전문학교 이상 대학교육을 받은 수십만의 지식 계급과 해외에 나가서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항일투쟁을 해온 혁명세력이 주축이 되어 독립국가 건설이 달성될 것으로 믿는다.

문---36년간이라면 긴 세월인데 더욱이 잔인무도한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노예생활을 해온 조선이 일약 독립국가로 발전한다는 것이 그다지 簡易한 것으로 보는가? 몇해동안 國際聯습의 후견 또는 信託統治를 받는 과도적 과정을 밟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 아닌가?

답--귀하는 카이로선언에 '적당한 시기에 조선이 독립될 것이다'는 조항을 염두에 두고 질문하는 모양인데, 나와 우리 국민은 어느 국가 또는 어느 국제기구의 신탁 또는 후견도 원치 않고 있다. 美國 中國 英國이 경제적으로 또는 군사적으로 원조만 해주면 우리는 독립국가로 훌륭히 자존 자립할 수 있다. 이것이 나의 확고한 신념이다.

문---이곳에 와서 나는 조선 共產黨首 朴憲永에 대한 벽보가 여러 곳에 붙어 있는 것을 보았다. 朴憲永이는 어떤 인물이며 조선에 共產黨세력은 현재 어느 정도인가?

답---朴憲永이라는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왔는지 땅에서 솟아올랐는지 나는 잘 모른다. 크게 관심을 가질 필요조차 없는 인물로 안다. 현재의 조선 共產黨세력도 보잘 것 없는 줄로 안다. 출옥한 극소수의 공산분자를 중심으로 철모르는 젊은 아이들이 부화뇌동해서 만든 것이 조선공산당이다.

문---귀하의 앞으로 정치적 구상과 활동목표는 무엇인가?

답---우리 국민은 하루 바빠 中國에 있는 망명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가 환국하기를 바라고 있다. 임시정부의 혁명원로를 중심으로 굳게 뭉쳐서 民主主義 新生獨立國家를 세우자는 것이 나의 정치구상이다. 그리고 시급한 것은 언론기관의 부활이다. 東亞日報는 日本제국주의의 야만적 탄압으로 1940년에 폐간되었는데, 그것을 복간시키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건전한 신문과 방송국만 우리 수중에 있다면 共產主義를 두려워할 바가 못된다고 생각한다.

눈부신 政治工作

8.15해방 직후 국내정국은 혼란의 극에 달했다. 夢陽과 民世 安在鴻이 중심이 되어 建國準備委員會를 발족시켜 8월 17일에는 그 중앙조직을 완료하고 방송과 신문을 손에 넣었고, 共產黨은 전국 각지에 인민위원회를 조직하고 각지에 保安隊 治安隊 學徒隊 등이 결성되었다. 美軍이 진주하기 전, 그리고 美國 극동군사령부에서 南朝鮮에 軍政을 선포(9월 7일)하기 하루 전인 9월 6일 共產黨 朴憲永과 建準의 夢陽이 합작해서 朝鮮人民共和國를 수립 선포하였다.

이렇게 정국이 격변하자 古下는 공산당과 人民共和國과 民主主義民族戰線을 타도하기 위하여 美軍政宣布日에 國民大會準備委員會를 결성하고 그 위원장에 취임하였다. 9월 8일에는 美8군 24군단이 서울에 진주하고 9월 11일 美軍政시정 방침을 발표하였다. 古下는 그 때 벌써 美軍政에서 人民共和國를 부인하는 성명이 미구에 발표될 것을 예상하고 美軍政고문에 취임하고 美軍政 人選작업에 깊숙이 관여하여 자기와 막역한 친구 金用茂를 司法部長에, 趙炳玉을 警務部長에 추천 명령케 하였다.

한편 古下는 國民大會準備委員會 각 지방조직을 결성하는 동시에 人共반대 세력인 민족주의 정당 韓國民主黨을 결성(9.16)하고 首席總務에 취임하였다. 그런데 8.15해방 후 美軍政 초기에는 방송국과 신문사에는 共產좌익계가 침투하여 사상적 혼란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데다가 11월 23일 每日新報가 서울신문으로 개제 속간되자 그 사실과 논조가 좌경화되고 雨後竹筍 같이 발행되는 공산당기관지('人民日報' '解放日報' 등)가 판을 쳐 세상이 온통 共產黨 천하가 되는 느낌이었다.

이때에 古下는 東亞日報의 복간을 서둘러 12월 1일에 東亞日報社간판을 서울 公印社에 붙이고 사장에 취임하였다. 共產黨의 최대의 적인 한국민주당 수석총무가 되고 반공신문인 東亞日報사장이 되고 美軍政고문이 된 古下를 비난 공격하는 共產黨의 모략중상 벽보와 傳單이 서울 시내에 범람하게 된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해외에서 돌아온 臨政派에서까지도 古下를 질시하고 중상하는 것은 참으로 의외의 사태로, 臨政절대지지를 위해서 분골쇄신하며 공산당과 투쟁한 古下로서는 정치무상과 냉혹한 현실을 개탄치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하기가야 海外派가 국내에 돌아와서 古下의 탁월한 식견과 그의 폭넓은 정략가로서의 역량과, 그리고 강대한 정치적 기반 등을 종합해볼 때 미구에 전개될 정권쟁취에 가장 무시못할 적수라고 보았을 것만은 사실이다.

아닌게 아니라 古下의 기개는 北岳과 漢江水를 삼킬 큰 야망과 불타는 의욕을 갖추었다. 격동하는 정세를 예의 응시하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정치적 기반을 整地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자기의 영도하에 있는 韓國民主黨의 지방조직을 강화하는 한편 初代執權者로 공인된 李承晚 측근에 古下 자기 사람을 배치하고 美軍政 要職에 韓國民主黨 간부를 추천하는 등 빈틈없는 정치 공작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와 같은 판국에 古下에 대한 정적도 많고 古下에 대한 질시와 중상모략도 심하였다. 巨木일수록 強風에 닿는 면이 많은 것과 같이 정치적 거인일수록 정적의 중상과 모해가 큰 것이다. 古下에게도 예외가 있을 수 없었다.

쓰러진 巨木

12월 27일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조선5개년신탁통치안이 결정 발표되자 정국은 극도의 혼란상태로 들어갔다. 전국 각지에서 신탁통치반대의 波高가 높게 치솟았다. 이 때에 古下가 신탁통치를 찬성한다는 중상과 모락이 海外派(臨政派)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지만 古下는 앞에서 말한 中國 '太公報' 기자와의 회견내용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신탁통치는 절대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다만 신탁통치를 반대투쟁하는 그 방법과 수단에 있어서 海外派(臨政派)와 의견을 달리할 뿐이었다. 臨政派에서는 신탁통치를 반대하는 방법으로 美軍政을 반대하고 臨政機構가 접수하여 臨政이 곧 新生大韓民國의 정식정부로 그 주권행사를 하자고 주장하는데 반해서, 古下는 어디까지나 美軍政과 협력해서 共産黨을 타도하고 신탁통치를 반대하자는 현실론을 앞세웠던 것이다. 古下는 본디 성격이 호방하여 측근들이 신변보호를 권고하였지만 聽而不聞하고 침실의 덧문도 잠그지 않고 자는 습성이었다. "仰天俯地해서 민족과 조국에 죄를 짓지 않았는데 누가 감히 나를 죽이겠는가!" 이와 같은 신념과 자신이 古下로 하여금 자기생명을 무방비상태로 방치하여 정치테러의 희생이 되고 만 것이다.

古下가 苑西洞 자택 別堂에서 韓賢宇의 흥탄에 쓰러지던 날 즉 12월 30일 밤 8시쯤 나는 鍾路 YMCA강당에서 古下를 만났다. 그때 각 정당사회단체연합으로(左右翼 전부 참석) 시급한 식량대책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古下가 뒤늦게 韓服에 인바네스 외투를 입고 참석하였다. 내가 인사를 하니 臨政要人들과 京橋莊에서 신탁반대 대책회의를 끝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잠시 들렀다고 말하고 중도에 퇴장하였다. 그것이 내가 古下를 만난 마지막이었다.

만일 古下가 음험한 정치테러에 희생이 되지 않았다면 大韓民國 수립 전후의 우리나라 정치판도가 달라졌을 것이다. 古下는 확실히 정치적 거인이었다. 정치에서 잔꾀와 술수를 배제하고 '無策이 大策'이라는 정치신조와 철학을 과감하게 실천하다가 경륜을 펴보지도 못하고 55세를 일기로 아깝게 쓰러진 巨木이었다.

46. 解放前後 縱橫觀

<新東亞> (1987년 8月號)

前國會議員 李 相 敦

熱氣 고조되는 현대사연구

벌써 8.15광복 42주년이 되었다. 반세기에 가까운 세월, 8.15해방 전후를 중심한 현대사에 대한 연구와 국민의 관심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것 같다.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한편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각 언론기관에서 해방전후의 현대사에 대한 연구토론회와 심포지움이 있어 국민의 관심과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필자도 그런 모임과 토론회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중의 한사람이다.

그러나 해방전후사에 대한 토론회와 심포지움에서 발표되는 주제와 토론내용 중에는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전혀 상반된 것이 역사적 사실인 양 제시되고 토론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해방전 일제치하 1910년에서 45년 사이의 침략기와 해방 후 45년 8월 15일에서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수립 사이의 갖가지 역사적 사실을 사실 그대로 추적 재조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오랜 시일이 지났을 뿐만 아니라 8.15광복과 6.25동란을 거치

는 과정에서 모든 문서와 자료가 소실 또는 분실되었기 때문이다.

필자는 일제 군국주의의 폭정으로 1940년 8월 10일 강제폐간될 때까지 민족지 동아일보의 기자로 있었고, 8.15광복 후에는 곧바로 정치 제일선에 몸담고 나름대로의 정치생활을 체험한 사람이다. 말하자면 해방 전후에 있었던 사건과 당시 지도급 인물들에 대한 행동반경을 비교적 잘 알고 있는 사람중의 한사람이라고 자부한다. 그래서 '신동아'지의 부탁을 받고 해방전후사에 대한 몇가지 사실을 지면이 허하는 대로 단편적으로 써볼까 한다. 나의 줄고가 해방전후사 재조명에 있어서 참고가 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다행한 일이 없겠다.

그러나 본고를 집필함에 있어서 미리 말하여 둘 것은, 나는 편견독단이나 당파성을 가지고 사안을 분석하고 묘사하지 않겠다는 사실이다. 어디까지나 구체적 사실과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그리고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논리를 전개할 것을 다짐하여 둔다.

또 한가지, 비록 보잘 것 없기는 하나 나의 지난 70생애를 돌아볼 때 나는 일제치하는 물론이고 8.15해방 이후 지금까지 반골정신으로 살아왔다고 자부한다. 내가 몸담고 있는 조직 또는 정당일지라도, 맹종하지 않고 是와 非를 따지고 흑과 백을 가려 정론을 고집해왔다고 생각한다.

新幹會는 민족운동단일체

지난 3월 3일 모 일간지가 주최한 '한국민족운동과 신간회'라는 학술회의가 있었다. 나는 그 주제발표논문의 내용에 대하여 비판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신간회의 활동'이라는 제목의 이 주제발표에서 이문원 교수는 다음과 같이 신간회의 강령을 분석 발표하였다.

"조선일보 간부들이 만든 신간회 강령을 분석하면, 첫째 조선민족의 일제의 지배로부터의 정치적(제국주의) 경제적(식민주의) 각성을 통해 독립운동의 필요성을 인식, 독립의지를 강화하고, 둘째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로 나뉘어져 있던 당시 조선인들의 독립운동 역량을 하나로 집결 단일화하여 항일 투쟁을 강화하고, 셋째 宋鎮禹 崔麟 중심의 타협적 자치운동을 배격한다는 내용이다"

먼저 지적할 것은 이 논문이 일제식민지치하의 민족운동 단일체로서 일제의 감시와 박해속에서 그야말로 천신만고 끝에 결성되었다가 4년만에 일제 총독정치의 간교한 책동으로 해체된 신간회의 성격과 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특정인에 연관시켜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필자는 당시 고등보통학교 재학생으로서 신간회 창립에서부터 해체에 이르기까지 현장을 목격한 사람으로서 그에 대한 반론을 펴보고자 한다.

첫째 신간회는 몇사람의 조선일보 간부들이 만든 민족운동단체라는 이론이다. 향우회 또는 친목회를 만드는 데도 말이 많고 힘겨운 일인데, 하물며 막강한 일본제국주의 총독정치 하에서 '우리는 일체의 기회주의를 배격한다'는 전투적 정강을 내걸고 발족한 항일독립운동단체가 어떻게 한 신문사의 간부 몇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질 수 있었겠는가.

신간회 발기인 50명중에 언론인은 15명이었는데, 이들은 조선일보 12명, 동아일보 2명, 중앙일보 1명이었다. 따라서 조선일보가 신간회 창립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모두 인정하는 바이다. 그렇다고 1920년대 말기에 脫식민지이념으로 합법적 항일민족운동단체로 나선 신간회가 조선일보 간부 몇 사람의 구상과 노력으로 결성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 수 없다. 그 당시의 사회정세와 실정을 생각해보면 자명해질 것이다.

내가 알기로는 신간회는 간교한 일제 총독부 고등경찰(지금 정보경찰)의 온갖 방해공작과 이간분열공작이 있었지만, 천도교를 비롯한 기독교와 불교 그리고 법조계 교육계에서 동참했고, 지방조직은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지국장과 지방에 잠재한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 일부가 중심이 되어 있었다. 이들이 며칠동안의 진통을 겪으면서 1927년 2월 15일 마침내 서울 YMCA강당에서 창립대회를 열었던 것이다.

진짜 自治派의 정체

다음 이 교수가 “송진우 최린 중심의 타협적 자치운동을 배격한다는 내용이다”라고 풀이한 것도 무리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우선 한 조직과 정당단체의 강령에, 정책적인 내용이 표현될 수는 있지만 어떻게 특정인의 이름을 연관시켜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또 자치와 친일, 그리고 항일에 대한 구분이 불명확함을 느끼게 한다.

본디 일제의 강점으로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방조약이 공포돼 조선이 일본 식민지가 되고 총독정치가 실시되는 과정에서, 비분순절한 사람도 있었지만 매국친일한 사람도 많았다. 이용구 송병준의 일진회는 물론이고 합방을 합리화하고 국민을 기만하기 위해 온갖 단체가 생겼다. 1910년 3월 29일 閔元植이 중심이 되어 대한제국 황실존영과 한일친선 등 7개 강령을 내걸고 '정우회'라는 친일어용단체를 만들었다. 그 후 민원식은 '정우회'를 '국민협회'로 개칭하여 조선에 자치권과 참정권을 줄 것을 요구하는 자치운동을 전개하였다. 이것이 조선사람의 항일 독립정신을 말살 또는 둔화시키려는 친일 행위임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이것이 자치 운동의 시발이다.

민원식은 기미 3.1독립운동 다음해인 1920년 2월 5일 '조선인 참정권 청원서'를 일본국회인 중의원 의장에게 제출하고, 다음해인 21년 2월 16일 또다시 동경에 가서 제국 호텔에 머물면서 친일활동을 벌이고 있었다. 그날 일본대학 유학생 梁權煥(28세)이 李吉寧이라는 가짜 명함을 가지고 민원식이 묵고 있는 호텔방에 찾아가 참정권과 자치운동을 중지할 것을 요구했으나 梁이 오히려 폭언과 함께 재떨이로 梁을 갈기자, 梁은 미리 준비해 가지고 있던 단도로 梁을 단칼에 살해하고 2층 창문을 열고 아래로 도주하였다.

본적이 황해도 연백인 양근환은 민원식을 살해하고 그길로 일본인 목수 옷으로 변장하였다. 그는 일본 남쪽 나가사키(長崎)항에서 배편으로 중국 상해로 탈출하려다가 승선 일보직전에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 후 그는 살인죄로 무기중신형을 받고 감옥생활을 하다가 몇차례 감형을 받아 20년 형기를 마치고 40년에 출옥하였다. 당시 필자는 조선에 돌아온 양근환을 만나 보았는데, 키는 비록 작으나 눈매와 몸가짐에 살기가 있어 과연 친일파를 죽일 만한 인물로 보였다.

어쨌든 양근환이 민원식을 죽인 후 즉 20년 이후부터는 자치운동가가 자취를 감추고 노골적인 친일 매국세력이 판을 쳤다. 그런데 어떤 근거로 송진우 최린 등의 '자치운동가'들을 제외하고 신간회를 창립하였다고 주장한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최린과 최남선은 뒤에 상술하겠지만 그 당시 이미 민족을 배신한 변절자로 친일파의 선봉적 위치에 있었다.

여기서 고하 송진우의 항일투쟁기록을 대충 적어보기로 하자.

고하는 1915년 일본 明治대학 법학과를 마치고 돌아와 16년 인촌 김성수가 사립중앙학교(지금 중앙고등학교)를 인계할 때 교장에 취임하였다. 19년 3월 1일 기미독립운동을 계획하고 추진한 산실이 바로 중앙학교 숙직실임은 잘 알려진 일이다. 고하는 33인 서명자는 아니었지만 48인 사건으로 투옥되었다가 20년 10월 30일에 출옥하였다.

고하는 22년 33세에 동아일보사장에 취임하였다. 26년 3월 7일 모스크바 공산당 국제 農民本部에서 '조선농민에게 보내는 3.1독립운동 기념사'를 동아일보에 게재한 탓으로 신문 무기정간과 동시에 고하와 발행인 金鐵中씨가 구속기소되어 징역 6개월의 실형선고를 받고 1927년 3월까지 서대문감옥에서 복역한다.

신간회 창립 당시인 27년 2월 15일에는 고하가 우리나라 언론사상 처음으로 일제재판에 의하여 실형선고를 받고 복역중에 있었다. 만일 고하가 친일파로 자치운동을 했다면 그 유명한 친일 강패 박춘금이 고하와 인촌을 백주에 부하 10여명을 데리고 집단 폭행을 할 수 있었겠는가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25년 이후부터는 일제의 식민지통치가 강화되어 자치운동조차 말할 수 없었고 오직 친일이 판을 치고 있었을 뿐이다.

宋鎮禹의 先見之明

3.1독립운동의 주동인물이고 33인의 한사람이었던 如庵 崔麟은 필자도 여러차례 만나 잘 아는 사람인데, 그 지모와 언변, 인품 그리고 외모가 당당하여 한때 義庵 孫秉熙가 죽고 난 후 천도교의 실질적 지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민족진영의 거목이었다. 그러나 27년 그가 50세때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약소민족대회에 조선대표로 참석하여 연설하고 돌아오는 길에 프랑스 파리에 들렀을 때 그곳에 유학중인 유부녀(친일파 金모부인)와의 스캔들이 그곳 일본대사관에 탐지되었다. 조선총독부에서는 그 약점을 최대한 이용 협박하여 崔는 마침내 변절하고 時中會를 조직, 34년에는 총독부 中樞院參議가 되고 그 후 총독부기관지 每日申報 사장까지 되었다.

40년대에는 臨戰報國團長을 역임하는 등 온갖 친일과 반민족적 행위를 하였다. 해방 후 대한민국이 수립된 후 반민특위에 의해 구속 수감되었으나 73세의 노령이라 석방되었다. 요컨대 최린은 자치운동가가 아니라 거물 친일파였다.

최남선 역시 3.1독립선언서를 집필하고 그의 학식과 천재적 역사관으로 조선민족혼과 조선주의 조선정신을 확립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공지의 사실이나, 그는 중년기부터 변절하여 총독부 역사편수관이 되어 日鮮同祖同根論이라는 반민족적 학설을 창출하는 등 용서받지 못할 반역 행위를 했다. 뿐만 아니라 일제말기인 43년 10월 20일 조선학도병제가 공포되자 일본 동경까지 가서 조선유학생을 모아놓고 일본제국을 위하여 기꺼이 출정하여 황군에 응답하라고 열변을 토하였다. 이같은 반민족적 친일행위로 광복 후 역시 반민특위에 구속수감되었다. 말하자면 최린과 최남선은 극단적 친일운동가이지 소극적 자치운동가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필자는 당시 고하를 비롯한 몇몇 우익진영의 민족주의 지도급 인사들이 신간회에 대해서 냉담하고 일종의 거부반응을 보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 이유를 추적해본 일이 있다. 신간회 서울(당시 京城)지부 위원장으로서 29년 11월 3일 光州학생항일투쟁 사건때 서울에서 민중대회를 열어 항일시위를 벌이려다가 일경에 체포되어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받고 만기출감한 維石 趙炳玉에게서 들은 말이 있다.

유석의 말에 의하면, 고하가 말하기를 신간회가 민족운동 단일체로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 또는 공산주의자와 일시 연합전선형식으로 결정한 것까지는 전술적으로 수궁이 가지만, 머지 않아 공산주의자의 생리와 그 이질적 성분 때문에 내부분열을 일으켜 조직이 외해될 것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것은 고하의 탁견이고 선견지명이라는 것이었다.

이와같은 고하의 공산주의자와의 합작불가론은 8.15해방정국에서 고하가 끝까지 좌우합작의 비현실성을 들어 夢陽의 인민공화국 참가를 반대한 사실에서도 잘 나타났다.

아무튼 29년 11월 3일 광주에서 학생항일운동이 일어나자 신간회본부에서는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 민중대회를 열어 전국 각지에서 항일운동을 전개하자고 민족주의자들이 주장하였다. 그러나 낡은 부르주아 민족해방보다는 무산계급의 사회주의혁명이 앞서야 한다는 공산주의자들의 이론이 맞서 합의를 보지 못하였다.

하는 수 없이 許憲 洪命憲 趙炳玉 李灌鎔 李源赫 金武森 등이 주동이 되어 대규모 민중대회를 열기 위해 비밀계획을 추진중 일경에 밀고한 자가 있어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주동자인 許 洪 趙 李 金 등 6명이 투옥되었다.(許憲은 그때까지만 해도 철저한 민족주의자로 변호사였으며, 한때 동아일보 감사역과 사장서리까지 역임하였다. 다만 그의 외동딸 許貞淑이 철저한 공산주의자로, 해방후 소위 인민공화국 首相명단에 올랐다가 越北) 당시 신간회중앙본부에 자리잡고 있던 공산주의자들은 한사람도 투옥된 일이 없었다.

新幹會 解體의 내막

민중대회사건으로 신간회 중앙본부위원장을 비롯하여 핵심적 인물들은 모두 투옥되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좌익분자들은 신간회의 영도권을 잡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썼다.

1930년 신간회 제3회 중앙위원회는 우파 민족진영의 변호사 金炳魯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때마침 1928년 제6차 국제공산당대회 결의에 따라 조선공산당은 종래의 제국주의 해방투쟁전술로 민족주의 우익진영과의 협동전선 또는 연합전선에서 탈퇴하여 독자적으로 노동근로자와 농민대중을 중심으로 한 순수한 프롤레타리아 계급투쟁으로 전환하라는 지령을 받게 되었다. 이때부터 공산주의자들로부터 그야말로 민족개량주의 반동집단이라고 비난하는 공식론이 조선사회에 풍미하게 되고, 좌익 소아병자들이 때를 만난 듯이 신간회 해체론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이때 조선총독부에서는 항상 눈에 가시 같은 소위 불온단체인 신간회를 조선사람 스스로의 손으로 압살 해체시키는 고등전술을 짜냈다. 동아일보를 제외한 각 신문과 잡지에 풋나기 공산주의자들과 철모르고 날뛰는 문인들이 신간회 해체론을 떠들게 방임하였다.

아무튼 총독부 경무국에서는 그간 신간회의 전국대회 집회를 금지하고 있던 때인데도 불구하고 31년 5월 10일에 서울 YMCA강당에서 신간회 전국대회를 열도록 허가해 주었다. 그리고 가장 교묘한 수단으로 지방에 있던 해체파위원들에게는 서울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비용까지 지출하였다는 설도 나돌았다.

그때 필자는 광주학생운동에 관련되어(학교당국에 제출한 요구서 집필) 公州공립고등보통학교에서 쫓겨나 휘문고등보통학교 5학년에 재학중이었는데, 5월 10일 신간회 전국대회를 방청하였다. 회순에 따라 신간회 해체결의안이 상정되었는데, 발언자 거의가 젊은 좌익계 공산주의자들이었고, 해체를 반대하는 이론가로서는 중앙위원장 金炳魯 혼자서 고군분투하던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해체결의안의 선봉에 나선 사람이 당시 '카프'시인으로 날리던 26세의 林和였다.

흥미로운 에피소드 한 토막을 소개한다. 애당초 좌익공산주의자들은 신간회를 해체해버리고 자기네끼리만 그 자리에서 새로운 계급주의 좌익단체를 결성할 구체적 플랜을 세우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막상 신간회 해체결의안이 거수표결로 다수표로 결의되어 임시의장이 신간회가 해체되었음을 선포하자 그 자리에 임석했던 종로경찰서 고등계 주임 요시노(吉野)가, "신간회 전국대회는 신간회가 해체소멸된 이 순간부터 집회의 주체가 없어졌으니 집회해산을 명령한다"고 선언하고, 그 장소에 모인 사람을 내몰아 강제해산시켰다. 좌익계와 공산주의자들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5월 10일 신간회를 해체하지 한달도 못되어 신간회 해체에 앞장섰던 임화 金南天 등 세칭 '카프'(조선 프롤레타리아 문학동맹)에 무자비한 철퇴를 내려 전국적으로 70여명을 투옥시켰다. 임화 등 심약한 문인 거의가 옥중에서 전향서를 쓰고 석방되어 친일문학으로 변신하게 된다.

아무튼 1931년 5월 10일 신간회가 소아병적 공산주의자와 총독부 경무국의 간교한 공작에 의해서 해체된 후 8.15해방 때까지 조선사회에는 좌우익을 막론하고 항일사회단체의 그림자조차 볼 수 없게 되었다. 말하자면 그때부터 일본군국주의의 말기적 암흑기에 접어든 것이다.

필자는 해방 전인 43년 가을 우연한 기회에 한때 동아일보 조사부장도 지내고 조선민속학을 연구하던 李如星(越北)의 서울 옥인동 집에서 임화를 만난 일이 있다. 그때 임화는 소위 전향파 시인으로 건강도 좋지 않았다. 나는 임에게 31년 신간회 해체의 배경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그의 대답은 간단했다.

“놈들(총독부)에게 속고 이용당한 것뿐이다. 우리가 어리석었다”

거듭 말하거니와 신간회 창립 당시는 물론이고 그후 8.15광복 때까지 고하와 인촌은 절대로 자치운동과는 거리가 먼, 소극적이거나 항일독립운동가였다는 사실이다. 일제 말기, 즉 1944년 2월 총독부에서 조선사람 3명을 일본 貴族院으로 추천했는데, 인촌만이 끝까지 거절하고 수락하지 않

았다고 한다.

동아일보가 폐간될 때

일제식민지 통치 36년동안 가장 암담하고도 불안과 공포에 떨던 시대는 1936년 8월 5일 육군 대장 미나미(南次郎)가 조선총독으로 부임한 때부터라고 본다. 이 동안에 우리 민족이 겪은 수난과 박해는 그야말로 以筆難記 以口難說이다.

미나미총독은 부임한지 한 달도 못된 8월 27일에 日章旗말소사건을 구실로 동아일보를 무기정간시키고, 동아일보기자과 편집국 책임자 10명을 구속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40년 8월 10일 민간지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를 강제폐간시켰다.

1939년 연말에 총독부 경무국장이 동아일보사장인 芹村 白寬洙를 국장실로 불러놓고 戰時下 물자부족(신문용지 부족)을 이유로 40년 2월까지 자진폐간할 것을 강요하였다. 백사장은 즉석에서 경무국장의 요구를 거부하였다. 당시 총독부의 압력에 의해 동아일보사장직에서 고문으로 물러나긴 했으나 실권자였던 고하는 총독부의 폐간요구는 부당하다고 판단, 최후까지 반대투쟁할 것을 사주인 인촌과 합의하고 버티었다.

그런데 총독부에서 제시한 40년 2월 기한을 넘기게 되자 경무국에서는 백사장을 불러 노골적으로 자진폐간하는 것이 국책에 순응하는 길임을 강조했다. 그는 同業紙 사장은 자진폐간하기로 이미 승낙하여 동아일보와 같은 날 폐간하겠다는 승낙서를 받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동아일보사에서는 최후까지 버티기로 하고 고하가 극비밀리에 일본 동경에 가서 일본 정계와 의회, 언론계와 접촉하여 총독부의 언론말살정책의 부당성을 선전하고 진정하였다.

고하가 동경에까지 가서 문제를 일으키자 미나미총독은 노발대발했다. 7월초에 고하는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서울 종로경찰서 형사에 의해 연행, 한여름 복중에 종로경찰서(지금 제일은행본점 자리)에 구금되었다.

고하와 인촌 등 중역들이 완강히 자진폐간을 반대하자 경무국에서는 '신문파지'를 판매가격을 위반하여 요식업자(명월관)에 팔았다는 것을 트집잡아 경리사와 과장을 구속하고, 영업국장과 이사 등 10여명을 구속하였다. 7월 중순에는 백사장도 구속하였다. 사주인 인촌(당시 보성전문학교장)도 경기도 경찰부에 불러다니며 며칠을 두고 엄중한 조사를 받았다.

경찰에서는 신문파지 불법처분사건을 단순한 경제사범으로 처리하지 않고 전시 입법인 國家總動員法위반(최고형은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다스리겠다고 위협하였지만, 발행인 백사장은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끝까지 버티면서 자진 폐간에 서명날인을 거부하였다. 경찰에서는 하는 수 없이 최후수단으로 서울시내 각 경찰서에 분산유치시킨 중역 전원을 종로경찰서 고등계주임실에 불러 중역회의를 소집시켜 놓고, 중역회의 결의로 동아일보 발행인을 林正燁상무에 넘기라고 강요, 임상무가 발행인이 되었다. 임사장은 하는 수없이 40년 8월 10일에 동아일보를 "국책에 순응하여 자진 폐간하겠다"고 서명날인하였다.

이렇게 해서 20년의 역사를 가진 민족의 대변지 동아일보는 8월 10일 문을 닫고 광화문 사옥에 게양된 동아일보사 기도 내려졌다. 구속됐던 고하 인촌을 비롯한 여러 중역들도 풀려나고, 8월 12일 동아일보 해산식이 5층강당에서 거행되었다. 해산식은 전국에서 올라온 지국장과 본사 사원, 공장직원들의 울음바다가 되어 인촌의 해산 식사를 들을 수 없었다. 당시 필자는 동아일보 기자로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古下, 日帝의 정권인수要請 거부

8.15해방 직전 직후인 45년에서 46년 사이의 역사적 사실은 필자가 비교적 잘 알고 있다고 자

부한다. 왜냐하면 45년 당시 필자는 33세로 해방정국의 주역인 고하와 인촌을 비롯, 夢陽 呂運亨, 民世 安在鴻, 維石 趙炳玉 등과 평소부터 잘 알고 있는 처지였기 때문이다. 사람의 대인관계에는 上交 中交 下交가 있는데, 나는 어이 된 셈인지 학생시절부터 웃어른들과의 교제, 즉 상교를 하였다. 물론 친구와 동지간의 중교도 있었지만, 비교적 선배와 지도자들과의 상교를 많이 하였다.

고하와 인촌은 내가 동아일보 기자생활을 하였으니까 당연하거니와, 몽양은 내가 와세다(早稻田)대학 유학 때 몽양의 조카 呂駟九(와세다대학 공과졸업, 해방 후 월북, 김일성대학 교수)와 친하게 지내어 그 소개로 여름 방학에는 몽양을 만나곤 하였다.

민세는 돈암동 성신여학교(지금 성신여대) 밑에 살고 있었는데, 나도 그 이웃에 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민세의 측근인 梁在廈(동아일보기자, 해방 후 한성일보 주필, 6.25때 납북)와 절친한 사이라 자주 만날 수 있었고, 유석은 나와 동향이라 역시 해방전부터 친교가 있었다.

내가 일본의 패망과 일제가 미국 영국 중국 등 연합국에 대하여 무조건 항복한다는 소식을 들은 것은 8월 12일 밤 자정 무렵 집에 찾아온 양재하에게서였다. 그날 나의 이웃에 살고있던 梁은 밤늦게 집으로 찾아와 좋은 소식을 알릴테니 술이나 한잔 내라고 했다. 나는 별 생각없이 집에서 담근 술을 나와 돌이 술을 나누는데, 梁은 좀처럼 특별한 말을 꺼내지 않고 술만 마시는 것이었다.

밤이 늦어 자정이 가까워지자 내가 도대체 기쁜 소식이 무엇이나고 말을 꺼냈다. 梁은 내 식구들이 다 자느냐고 확인한 다음에 작은 목소리로 15일 정오 일본 천황이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는 중대방송을 한다는 것과, 15일 정오 그 중대방송을 듣기 전에는 절대로 발설하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양은 그 소식을 몽양에서 들었다고 말하면서 고하와 민세도 이 소식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나는 양에게서 충격적인 비밀뉴스를 듣고 흥분이 되어 밤잠도 설치고 다음날 아침 일찍 원서동 고하집을 찾아갔다. 평시와 다름없이 시골에서 온 듯싶은 친척 손님이 있어 할 말도 삼가고 있다가 “내일(14일) 고향인 천안에 가서 있다가 일주일 후에 상경하겠다”고 하직인사를 했다. 그랬더니 고하는 특별한 사정이 아니거든 15일까지 서울에 있어보라고 말하는데, 무슨 뜻이 있는 듯한 표정이었다. 후에 안 일이지만, 고하는 張徹壽(일본동경대학출신으로 조선사람으로는 유일한 외교 고시합격자로 일본 주불대사관참사 역임)를 통해 일본이 연합국의 포츠담선언을 무조건 수락한다는 소식을 이미 듣고 있었다.

그리고 그 때 총독부에서는 고하에게 15일 이후 잠정적으로 정권을 인수하라고 교섭을 진행중이었다. 즉 8월 10일 총독부 경무국 사무관 하라다(原田)가 고하댁을 찾아와 극비사항이라고 전제한 다음, 일본이 영국 미국 중국 등 연합국에게 종전을 제의하여 전쟁이 곧 끝날 경우 조선의 시국수습과 치안권을 맡아줄 것을 교섭했던 것이다. 고하는 거절하였다.

8월 11일 하라다는 조선군사령부 참모 간사키와 함께 또다시 고하를 찾아와 8.15이후 조선의 치안권.정권을 맡아달라고 권고하고, 좀더 구체적으로 총독부가 가지고 있는 권력의 4분의 3, 즉 경찰 사법 통신 방송 신문 등을 넘겨줄터이니 수락하라고 했다. 고하는 초지일관 거절하였다. 그 다음인 13일 고하는 경기도 경찰부장 오카(岡)의 안내로 경기도지사 이꾸다(生田)를 김준연과 함께 경기도지사실에서 만났는데, 역시 조선의 과도적 치안권과 기타 권한을 인수할 것을 교섭받았으나 거절하였다는 것이다.

고하가 정권인수를 거부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번 전쟁의 승리자인 연합군이 적법절차를 거쳐 그 나라 국민에게 정권을 줄 수는 있지만, 패전국 일본총독이 어떻게 개인에게 정권을 줄 수 있으며, 내가 참월하게도 그것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해서 고하는 끝내 총독부의 정권인수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와 같은 뚜렷한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현대사 연구가 중에는 고하의 정권인

수론이 사실이 아닌 조작극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들의 논거인즉 당시 총독부 사무관으로 있던 친일관리 崔모가 모 월간지에 쓴, 정권인수론은 자기로선 듣지도 보지도 못한 무근한 사실이라고 잘라 말한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필자는 먼저 고하가 무슨 필요가 있어서 사실도 없는 정권인수론을 허위조작해야 했나를 묻고 싶다. 필자는 그 사실을 고하로부터 직접 들었을 뿐만 아니라, 8월 14일 총독부 관리로서 가장 비중이 높은 金大羽(당시 경북도지사)가 원서동 고하집에 찾아와 총독부 엔도(遠藤)정무총감 말이라고 전하면서 몽양과 협조해서 시국수습에 나서줄 것을 말하자, 고하는 일언지하에 거절하면서, 김에게 “노형은 지금 그런 처신을 할 사람이 못되니 자숙하라”고 냉정히 충고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리고 둘째로 그 당시 일황의 8.15 정오 중대방송을 일본이 무조건 항복하는 내용임을 안 사람은 총독부 일본 고관 중에서도 몇사람뿐이었고, 여타는 일본이 미국 본토라도 상륙 점령한 발표나 아닌가하고 태평세월인 형편이었다. 하물며 조선 지도급 인사와의 정권인수교섭 내용을 사무관에 불과한 최모에게 알려야만 할 이유가 있었겠는가.

좌익 주도의 '建準'과 '人共'

1945년 8월 15일 해방 후의 한국의 국내정세는 글자 그대로의 혼돈과 무질서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였다. 한반도가 38도선으로 남과 북이 갈라진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 이때 몽양 여운형은 8월 15일 오전에 총독부 엔도 정무총감과 만난 후 정치범석방 식량확보 치안유지 등 몇가지 합의를 보고난 후 곧바로 朝鮮建國準備委員會(建準)을 발족시켜 위원장에 몽양, 부위원장에 민세가 취임했다.

이 '건준'은 이름부터가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한 준비조직이라는 점에서 국민의 호응을 받아 남북조선에 걸쳐 1백45개 지부가 결성되었지만, 내용은 거의가 공산당 조직이고, 핵심에는 공산당의 엘리트인 李康國 崔容達 등이 주도권을 잡고 있었다. 민족주의자 민세는 느낀 바 있어 9월 1일 '건준'에서 탈퇴하였다. 그리고 해방 후 우익정당 제1호로 國民黨을 창당하였다.

9월 6일 박헌영을 중심한 공산당이 주도하여 소위 '인민공화국'이 선포됨과 동시에 건준은 창건 20일만에 발전적으로 해체되고 말았다. 건준 발족 후 필자도 당시 건준본부로 쓰였던 徽文소학교(지금 德成女大)에 몇차례 가보았는데, 그야말로 도떼기시장이었고 건준의 조직은 완전 공산당에서 틀어쥐고 있었다. 조직에 대한 경험과 투쟁력이 없는 우익진영 인사들은 들러리에 지나지 않았다. 민세가 부위원장을 그만둔 것도 공산당 때문이고, 그 자리에는 그때 이미 공산당에 들어간 許憲이 자리잡고 있어 몽양은 완전히 꼭두각시에 불과했다.

8월 25일 美軍선발대 일부가 인천항에 상륙하고, 38도선을 기준으로 미·소 두나라 군대가 분단 점령한다는 미국방송이 처음 있었다. 그리고 9월 8일에 미군이 정식으로 서울에 진주한다는 소식도 들어왔다.

한편 해방 전 광주 벽돌공장에서 노동일을 하고 있던 박헌영이 서울에 나타나 공산당을 재건하였다. 그들은 미군이 서울에 진주하기 전에 좌우합작을 위장한 인민공화국 정권을 세워 기정사실로 만들어 미군으로 하여금 승인케 하려는 전략을 세웠다. 그리하여 9월 6일 밤 당시 경기여고(지금 昌德女高) 강당에서 날치기로 전국 인민대표자대회를 열어 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했다. 인민위원 55명과 후보위원 20명, 고문 12명을 선출하였다.

9월 14일에는 인공내각 구성을 발표했는데 미국을 의식해서 그때까지 미국에서 돌아오지도 않은 李承晩을 인공의 주석에 앉히고 몽양을 부주석에 앉혔다. 또 그때까지 중국에서 돌아오지도 않은 臨政요인과 국내에 있는 우익인사들을 멋대로 임명했다.

그런데 인공 각료명단을 보면 참으로 공산당의 기만전술과 모략에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즉 내각 13개 부장 중에서 수상에 許憲, 군사 金元鳳, 보안 崔容達, 선전 李觀述, 경제 河弼

源, 농림 康基德, 노동 李胃相, 서기장 李康國 등 가장 핵심적인 권력부서에는 전부 박헌영계인 재건파 공산당원으로 메꾸고 있다. 그리고 내무 金九, 외무 金奎植, 재정 曹晚植, 사법 金炳魯, 문교 金性洙, 체신 申翼熙를 임명했다. 김구에게 내무를 주었지만, 내무행정에서 제일 중요한 경찰권은 보안부에서 떼어가 공산당 중추인물인 최용달이 차지했다. 내각의 서기장 역시 공산당 핵심인 이강국이 맡은 것이다.

韓國民主黨 창당

조선공산당이 주체가 되고, 그에 이용당한 몽양과 합작해서 9월 6일 우익민족진영의 의표를 찢러 인공정권 수립을 선포하자 민족진영에서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더욱이 인공정권 내각명단에 오른 우익인사들은 누구 한사람 사전에 연락과 상의도 없이 이름을 도용당했지만 변명과 호소할 방법이 없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유일하게 남아 있던 총독부 기관지 每日申報는 출판노조와 좌익기자들로 공산당에서 장악하고 있었다. 9월 8일에는 공산당에서 '人民報'를 창간했다. 9월 19일에는 '奎評'기관지로 '解放日報'까지 창간되었다. 언론은 완전 공산당에서 장악하였다. 그러니 인민공화국 출현과 함께 민족진영에서 당황하는 것도 우리가 아니었다. 우익의 선전매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때 필자가 고하를 찾아갔다. 내가 인공세력이 날로 강대해진다고 말하자 그는 동아일보만 복간되면 아무 염려없다고 말하면서도 약간 당황하는 모습이였다.(동아일보는 그해 12월 1일에 복간되었다) 街人(金炳魯) 愛山(李仁) 芹村 維石 元世勳 尹潛善 許政 金度演 白南薰 徐相日 등이 중심이 되어 한국민주당 창당작업을 추진 중이었는데, 9월 6일 인민공화국이 선포되자 창당대회까지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 부랴부랴 발기인 2백명으로 인민공화국을 부인, 그 정체를 폭로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때 크고 작은 신문은 전부 좌익공산계에서 장악하고 있어 그 성명을 국민에게 알릴 방법이 없었다. 하는 수 없이 그 성명서를 백만장 전단으로 작성해서 서울과 지방에 뿌렸다. 이 인공타도 성명서는 雪山 張德秀가 집필한 것으로 명문이었다. 성명서는 공산당의 위계와 사술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정중한 표현으로 그들의 비도덕성과 간책을 꾸짖었으며, 국민에게 그들의 속임수에 말려들지 말도록 경고했다.

아무튼 9월 16일 국내에서 적극적으로 항일운동을 한 세력과 비록 소극적으로나마 교육과 언론, 그리고 종교를 통해서 일제에 항거하고 附日하지 않은 민족주의자들이 중심이 되어 천도교기념관에서 韓國民主黨 창당대회를 가졌다. 특기할 것은 공산당의 습격이 있을 것에 대비해 천도교기념관 주위를 한국민주당 청년당원이 물샐틈없이 엄중 경계한 것이다.

한국민주당은 지도체제는 집단지도체제로 하되 한 도에서 한사람씩 총무 9명을 뽑고, 수석총무에 고하가 추대되고 해외의 독립운동 원로 李承晚 金九 李始榮 등은 고문으로 추대되었다. 총무는 金度演(경기) 趙炳玉(충청) 白寬洙(전북) 宋鎮禹(전남) 徐相日(경북) 허정(경남) 백남훈(황해) 원세훈(함경) 金東元(평안) 9인이었다. 가인 김병로는 자격으로 보아 총무가 되고도 남는 인물이지만 호남에 치우친다는 인상을 씻기 위해서 서울시당 위원장이 되었다.

또 한가지 특기할 것은 한국민주당(한민당) 발기인과 중앙당 인사에 있어서 일본정치하에 부일하고 친일한 사람은 제외했다는 점이다.

韓民黨의 功과 비극

고하는 한국민주당 당무부장에 李仁을 임명하고 가장 요직인 조직부장에 제1차 조선공산당사건의 주모자로 체포되어 6년의 형기를 치른 金若水를 임명하여 세상을 놀라게 하였다. 공산주의를

가장 싫어하는 반공주의자 고하가 김약수를 조직부장에 임명한 데는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다고 본다. 물론 김약수를 한민당에 입당시킨 것을 애산이었다. 변호사 애산은 공산당사건을 변론하여 김약수를 잘 알고, 김약수도 애산의 신세를 많이 졌었다. 인간으로서는 믿는 처지였다. 필자도 김약수와는 자주 만나고 술도 같이 나누었는데, 전형적인 반골투사로 정치에 대한 식견과 경륜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제헌국회부의장으로 있던 중 국회프락치사건에 관련 구속되었다가 6.25때 북쪽으로 끌려갔다.

여기서 필자는 한민당의 공과를 논하기에 앞서 만일에 8.15해방 직후 조선천지가 인민위원회와 공산당 등쌀에 못견딜 때 한민당이 없었다면 45년 10월 16일 우남 이승만이 미국에서 돌아와 누구와 더불어 상의하고, 하지중장과 정면대립하고, 임정 김구와도 불화가 조성될 때 어디다 등을 대고 존립할 수 있었겠는가.

솔직히 말해서 8.15해방 직후 공산당과 한민당이 피투성이가 되어 싸울 때 기회주의자와 정상배들은 일신의 안전과 실리를 위하여 안전지대에서 기회만을 보고 위선을 가장하고 있었다. 이런 때에 한민당이 감연히 반공이념과 민족주의에 대한 투철한 신념을 가지고 공산주의와 정면에서 투쟁하여 대한민국을 세우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한민당은 고하와 설산 두 지도자를 건국의 제단에 바치기까지 하였다.

이 정치적 암살사건은 그야말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일대 통한사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동족끼리 國家棟樑之材를 무사려하게 살해하는 행위는 민족의 이름으로 단죄해야 한다. 백범 김구 같은 경우만 해도 일제가 36년동안 그 목에 현상금까지 걸고 체포하거나 죽이려고 한 혁명의 원로가 아닌가. 그가 원수 일본의 손에 죽었다 해도 슬픈 일일텐데, 조국이 독립된 마당에 철 모르는 군인의 총에 목숨을 잃었다는 것은 얼마나 비통한 일이고 저주받을 일인가.

고하 역시 마찬가지다. 일제 치하에서 여러차례 투옥되고 끝까지 지조와 신념을 굽히지 않고 살아왔고, 해방 후에는 인민공화국 타도를 위하여 선봉에서 공산당과 싸운 식견과 경륜을 겸비한 정치지도자인데 무슨 철천지원수라고 직업적 테러리스트를 시켜서 암살하는가 말이다.(당시 56세)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고하는 해방 전이나 해방 후에도 일관해서 임시 정부를 정통정부로 추대하고 지지했는데, 그의 살해범 韓賢宇가 임정 엄모와 접촉했다는 공판 기록을 보고 필자는 큰 충격을 받았었다. 고하는 결코 신탁통치를 찬성한 일이 없고 지지하지도 않았다. 다만 미군정 하에서 미국과 정면으로 맞서서 정권을 내놓으라고 강요하느니보다는, 우리로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합리적으로 독립정부를 세우고 정권을 인수해야 된다는 것이 고하의 지론이었다. 이것을 찬탁파로 몰아붙인 것은 큰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고하는 항상 정치는 고등상식에 불과하고 無策大策이라는 신념과 투지로 살다 56세에 흉탄에 쓰러졌다.

雪山 張德秀의 최후

설산도 그 풍부한 지식과 식견은 물론이고 현하의 웅변과 큰 도량을 갖춘 민족의 거목인 것만은 틀림없다. 다만 일정말기 보성전문학교 교수 재임중에 학도병출정 권유연설을 한 것이 흠이라면 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각 학교에서 연사를 차출하되 평소 학생간에 인기가 있고 말 자하는 교수를 지명하라는 총독부 학무국의 엄한 지시가 있어 만부득이 징발당하여 강연한 것뿐이었다.

아무튼 설산을 암살한 이면에는 가장 치밀한 계획과 계산이 있었음을 알아야 한다. 설산은 정치를 알고 실천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지도자임에 틀림없었다. 제1차 조선공산당 거두 김약수가 8.15해방 직후 한 말이다.

“지금 해방조선에서 내노라 하고 설치고 날뛰는 군생들은 모두 가소로운 존재다. 머리가 텅 빈 허깨비들이 잘난 체하고 떠벌이고 있다. 설산은 명실상부한 정치가로 그 학문과 식견 그리고

경륜이 깊은 인물이다. 게다가 오랫동안 미국 유학 경력이 있어 미군정에서도 크게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설산은 목을 노리는 세력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김의 말은 정곡을 찌른 말이다. 설산은 한민당 정치부장으로, 특히 대 미군정 활동에서 인촌을 대신하여 누부시게 활동하였다. 그 때 필자는 한민당 선전부차장으로 있어 조석으로 설산을 만나 일을 하였다.

46년 3월 20일 제1차 미소공위 때만 해도 이승만 김구 등이 참가를 반대했지만 애국단체총회에서 설산이 그 해박한 지식으로 국제정치와 외교 문제의 실례를 들어 일생 일대의 대열변으로 설득, 각 애국단체가 미소공위에 참가하였다. 그 후 미군정에서 남조선 과도입법의원 선거를 실시할 때에도 미국의 전통적 정책은 입법의원선거를 거쳐 입법회의를 두거나 정책이 법제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을 설산이 주장, 인촌과 설산은 서울에서 입법의원예 입후보하여 당선되었다.(좌우합작파의 작용으로 재선거)

1947년 들어 설산은 48년에는 정식 입법회의 즉 국회가 보통선거법에 의해서 구성될 것을 예견했다. 그리하여 정당은 정권을 잡는 것이 1차적 목표이고 정권을 잡자면 국회의원을 많이 확보해야 되고, 국회의원을 많이 확보하려면 정당의 지방조직을 강화하고 덕망있는 후보자를 확보하는 동시에 선거자금을 확보해야 된다고 선거대책본부를 구성하는 실무진을 만들어야 한다고 해서 암살당하던 날 저녁 돈암동 劉洪鍾 박사집에서 제1차 모임을 갖기로 하였다. 그런데 그날 유의 집에 사정이 생겨 부득이 제기동 설산택에서 모이기로 하였다.

呂運亨에 대한 기억

그날 모임에는 필자도 참석키로 되었다. 그런데 나 역시 그날 저녁 고향에서 찾아온 몇 사람 친구가 있어 집에서 저녁대접을 하느라고 설산택 모임에 참석치 못하였다. 그날 저녁 설산은 정복 경찰복장을 하고 찾아온 朴光玉을 mam놓고 현관에서 맞아 찾아온 용건을 묻는 순간 카빈총 저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숨을 거두었다.

범인 朴光玉 裴熙範 崔重夏 등이 체포되었고, 한독당 조직부장 金錫璵 외 여러사람이 공범으로 체포되어 미군정재판을 받게 되었다. 미군정재판은 군정청(기금 국립박물관)안의 임시법정에서 국내외의 주목을 끌면서 여러차례 열렸는데, 백범 김구도 몇차례 증인으로 출정하였다. 박광옥에게는 무기형이 선고되고 김석황 등에게도 15년형이 선고되었다.

한편 47년 7월 19일 대낮 몽양 여운형이 탄 자가용차가 혜화동 로터리에서 창경원쪽으로 돌아가려고 속도를 늦출 때 韓智根이가 자동차 뒤쪽 범퍼에 올라 차 속의 몽양 뒷머리에 몇 발의 권총을 발사, 몽양은 서울대학병원에 가기 전에 차 속에서 숨을 거두었다. 사건 직후 범인은 혜화동 주택가로 월장 도망쳤다. 그 후 공산당기관지 人民報와 解放日報 등 좌익계 신문은 그 사건 배후에 首都廳 고위인사가 관련됐을 것이라는 추측 기사를 게재하였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범인이 담을 넘어 도망간 그 집이 해외에서 돌아온 모 요인이 자주 드나든 집이라는 것을 좌익계 신문에서 사진과 함께 보도하였다. 경찰당국에서는 조선인민보가 解放日報 편집부와 기자들 20여명을 구속하였다.

몽양은 필자가 해방 전 해방 후에 여러 차례 만나 그의 인품과 정치지도자로서의 탁월한 점을 잘 알고 있다. 더욱이 우람한 풍모와 대중을 열광케 하는 열변과 개방적인 제스처는 청년학생층에 절대적 인기를 독점하였다.

다만 흠이라면 지나치게 정치적이고 인기본위로 행동하여 팔방미인이라는 평을 받은 것이고, 더욱이 공산당과 협력하여 인민공화국에 참여한 것은 그의 과오라고 생각한다.

사실 해방정국에서 몽양은 확고한 방향설정 없이 민족진영의 전열을 흐트러 놓았다는 평을 받을 수 있다. 몽양은 결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다. 다만 공산주의자를 자기 품안에 안아보려 하다

가 도리어 공산주의자들에 업혀 이용만 당하고 만 것이다. 고하가 “몽양이 자필로 인민공화국을 탈퇴한다고 선언, 도장 찍어 신문에 발표하면 만나겠다”고 한 것은 일리가 있다고 본다.

테러, 즉 폭력은 그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배격해야 한다. 더욱이 정치적 암살행위는 역사와 양심 지성의 이름으로 근절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건의 배후를 철저히 조사해서 그 진상을 만천하에 알려 역사적 심판과 단죄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암살사건의 진상과 배후관계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래가지고는 정치적 암살 사건은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京城百勝

1929년 10월 20일 발행 정가 50전
편집겸 京城府 光化門通 139番地
발행인 宋 鎭 禹

인쇄인 京城府 堅志洞 32番地
 金鎭浩

인쇄소 京城府 堅志洞 32番地
 漢城圖書株式會社

발행소 京城府 光化門通 139番地
 東亞日報社出版部

<註> 원칙적으로 당시의 표기대로 收錄하였으며,
다만 '된ㅅ'은 된소리(보기:ㄸ→ㄸ, ㅃ→ㅃ)로 표
기하고, 읽기에 편하도록 대체로 띄어썼다.

京城百勝차례

緒言	橋北洞	獨立門
鐘路 鍾閣	東崇洞	駱山
安國洞 感古堂	瑞麟洞	拘置監
公平洞 裁判所	崇仁洞	關王廟
苑洞 모기	天然洞	天然池
壽松洞 騎馬隊	宮井洞	卍祥宮
桂洞 衛生所	蓮建洞	갓바치
昭格洞 宗親府	蓬萊町	貧民窟
嘉會洞 翠雲亭	體府洞	돌함집
花洞 북주옴물	崇三洞	成均館
松峴洞 殖銀村	積善洞	琮琛橋
三清洞 성제옴물	昌信洞	昌信宮
授恩洞 捕盜廳	玉仁洞	松石園
雲泥洞 쫄쫄옴물	竹添町	'굴'
齋洞 白松	靑葉町	孝昌園
敦義洞 나무장	通義洞	司宰監
堅志洞 閔公舊宅	清雲洞	清風溪
八判洞 청기와집	武橋町	穢塵
慶雲洞 閔子爵邸	四大門町	興化門
寬勳洞 忠勳府	惠化洞	風車
樂園洞 測候所	平洞	網巾房
仁寺洞 泰和館	二村洞	水害
茶屋町 妓生	昌成洞	씩은다리
臥龍洞 宗簿寺	崇一洞	앵도밭
仁義洞 煙草工場	新橋洞	宣禧宮
三角町 굽은다리	玉川洞	硯滴洞
水標町 水標橋	麻浦洞	穢浦
益善洞 줄항랑	社稷洞	社稷壇
都染洞 模型塔	樓上洞	白虎亭址
觀水洞 觀水橋	峴底洞	刑務所
清進洞 內外酒店	弼雲洞	돌거북
薰井洞 어수옴물	需昌洞	內需司
並木町 갈보	貞洞	西洋人村
羨芹洞 초리옴물	諫洞	宮人家
禮智洞 東門市場	水下町	日人貧民窟
勸農洞 經板閣	崇二洞	自動車修繕工場
長橋町 설렁탕	中林洞	天圭教堂
孝悌洞 화나무	崇四洞	月沙舊基
杏村洞 은행나무	通義洞	東拓舍宅
館洞 獨立館	梨花洞	長生殿

西界洞	'편삼터'	
苑南洞	捲草閣	
忠信洞	白菜圃	
內資洞	內資寺	
樓下洞	'삼지'	
中學洞	舊中學	
桃花洞	煉瓦工場	
蓮池洞	'개구리 소리'	
義州通	'독감이골'	
孝子洞	內 侍	
松月洞	月 巖	
光熙町	'파리'	
蛤 洞	春 香	
橋南洞	'대장간'	
冷 洞	休紙都家	
貫鐵洞	東床塵	
長沙洞	妙心寺	
紅把洞	던내집	
唐珠洞	'와다시'	
通 洞	林檎園	
鍾 路	蠟石塔	

緒 言

이 '내 동리 名物'은 지금으로부터 四年前 여름에 京城府內의 一百洞町을 추리어 一百名物을 마련하여 寫眞과 아울러 當時의 本報(동아일보) '中央版'에 五十餘日間을 連載하여 讀者의 大歡迎을 맞든 '寫眞記事'의 全部를 收錄한 것입니다.

'名物'의 題材는 多種多樣으로 或은 嚴正한 見地에서는 適當치 못한 것이 만홀듯하나 苦熱에 지질린 讀者에게 趣味와 實益의 清凉劑를 提供하려든 當時의 編者와 執筆者의 心境을 그대로 保存하기 爲하여 題材의 改正, 文句의 修正等を 하지안코 그대로 收錄합니다.

當時 編輯의 責任은 予가 擔當하였고 執筆은 社會部 記者一同이 擔當하였으나 材料의 大部分은 洪命憲, 鄭寅普 兩氏의 提供이었습니다.

내 고을 名物과 내 동리 名物은 性質上 가름으로 이제 姊妹篇으로 收錄하거니와 出刊을 際하여 當時 同人들의 努力을 謝하면서 當時의 '社告'를 그대로 記錄하여 緒頭에 부칩니다.

丁卯(1927년) 4月 23日

編 者 識

鍾路 -- 鐘閣

종각은 원명이 보신각(普信閣)입니다. 그 안에 있는 종은 외국사람들이 조선 오백년간 예술의 대표가 될 만하다고 합니다. 이 종을 경주 있는 종에 비교하면 기교가 부족하나 크기가 더 지나다고 합니다. 그 전에는 이 종이 식전 저녁으로 울었는데 식전 우는 것을 파루(罷漏)라고 하여 사대문이 열리고 저녁에 우는 것을 인명(人定)이라고 하여 사대문이 다치었습니다.

사대문을 열린 채 내버려두게 되니까 종도 울리지 안케 되었습니다. '종각에 있는 종이 어떤 사람들에게 저녁을 알외려나'하고 시인의 탄식거리가 되든 것이 삼일운동때 잠깐 울영찬 소리를 내서 울어 보았습니다.

울영차다니 말이지 그 전에는 종 미틀 깊게 파논 까닭에 우는 소리가 삼사십리 밖게까지 들렸더니 대원군의 척화비를 무더서 그 허공이 메인 뒤에 울림이 줄었었습니다. 이 다음에 이 종이 '뽀스톤' 작은 집에 노혀 있는 깨어진 종가티 울영차게 제 힘껏 울어볼 날이 업스란 법이야 어대 잇습니까.
(鐘路二丁目 忙 中 生)

安國洞 -- 感古堂

감고당은 력사잇는 집이올시다. 네전 숙종(肅宗) 배우인 현후 민씨(閔氏)의 본택이올시다. 왕후께서 장희빈(張禧嬪)의 참소를 만나 궁중에서 나오셔서 륑년동안 거쳐하시든 방이 지금도 남아 잇습니다. 왕후께서 거쳐 하실때에 빗게 돈대 우에 잇든 소나무 가지가 담을 뚫코 들어가서 그늘을 들이워 들엿다는 신통한 소나무 이야기까지 잇습니다.

지금은 이 집이 빈민굴가티 되었습니다마는 네전에는 문압해 거마 추종이 물끌툷하든 집이올시다. 이 집이 려양부원군(驪陽府院君)택으로 잇슬 당시에 항랑방에서 늦요강 업질른 것이 려양의 중씨 봉눈에게 들켜서 려양이 그 중씨께 너의 집 항랑에서 늦요강을 쓰니 너의 안방 요강은 무엇이나. 한때 부귀를 밋고 그러케 사치하다가는 집안이 망하리라고 꾸지람을 바든 일이 잇섯다고 합니다.

선조의 조심을 후손이 본바덧드면 오늘 이 집을 차저온 우리로 변화령락에 늦김이 업게 하얏슬 지도 모를 것이 올시다. 혹 복소(覆巢)알에는 완란(完卵)이 업는 법이라고 말씀하는 이도 계십니다.
(懷古子)

公平洞 -- 裁判所

종로 네거리를 지나자면 피뢰침 꼬친 큰집이 잇습니다. 우부 우부라도 싸움을 하다가 수틀리면 '이애 재판을 하러 가자'하고, 마진 편도 '재판을 하거나 문지판을 하거나 하렴으나' 하는데 이 집이 그 재판하는 집입니다.

지금은 경성디방법원(京城地方法院)과 경성복심(覆審)법원이 되었스나 이 집을 짓기는 이전 한국시대 룡희(隆熙)이년에 평리원(平理院)으로 지은 집입니다. 그후 통감부 시대에는 대심원(大審院), 공소원(控訴院), 디방재판소가 되었다가 대정원년 사월에 총독부 재판소령으로 디방법원, 복심법원이 된것이오 근년에는 등기계(登記係), 공탁국(供託局)도 두게 되었습니다.

이 재판소가 생긴 이후로 의병대장으로 유명하든 허위(許蔦), 리강년(李康年)도 이곳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가슴을 찢스며 사내(寺內) 총독 시대의 백오인 사건도 여기서 판결이 낫고 조선 산하를 진동하든 OO운동사건도 거의다 이곳에서 판결이 낫고 재등총독에게 폭탄을 던진후 힌 수염을 빼

치고 강개히 재판장을 론박하든 강우규(姜宇奎)도 이곳에서 재판을 하였다. 그러나 이런 간소한 법정에도 때때로 꽃가튼 미인이 신세한탄을 하며 어엿은 얼굴에 눈물을 흘리고 '아모래도 저는 살수업서요' 하는 리혼재판도 근년에는 만습니다. (公平洞 木 兎 生)

苑洞 -- 모 기

원동은 '모기'가 명물이랍니다. 원동 모기는 한동리 명물 노릇을 하는 까닭인지 여간 주제 넘지 아니하여 디테를 대단히 본답니다. 그래서 계동 모기와는 혼인도 아니한답니다. 그러치만 이것은 우물안 고기처럼 세상이 넓은 줄을 모르는 까닭입니다. 멀리 신대륙에는 모기 나라가 있는데 거기 모기는 목숨 해치기를 네뚜리로 안답니다.

그 근처에 '파나마'라는 나라가 잇다나요. 거기도 모기의 세력 범위인듯 합니다. '파나마' 운하가튼 세계적 대공사도 한참 동안은 모기의 방해로 진행을 못하얏섯답니다. 종류는 삼백종, 목숨은 약 사일, 날기는 일마일 가량은 험그럽게 나는 모기들이랍니다. 또 좀 우리에게 갓가운 중국 소주 디방에도 모기세력이 굉장하다는 사담(史談)이 전합니다. 이 사담은 별것이 아니라 어느 처녀가 남녀가 석기어 잘 수 없다고 로숙하다가 모기에게 목숨을 바쳤다는데 살을 다 뜻겨서 힘스줄이 들어 낫드립니다. 거기 사람이 불상히 녀겨서 로근비(露筋碑)를 세워 주엇답니다. 이런 이야기를 원동 모기에게 들려주면 그 주제 넘은 것이 아마 좀 줄겠지요? (苑洞 李 秉 穆)

壽松洞 -- 騎 馬 隊

경성안에 무슨 일이 잇을 때마다, 사람이 혼잡할 때마다 말탄 순사가 나와서 말굽으로 사람을 쫓고 최근에는 언론 압박에 분개하여 일어난 민중의 진정한 부르짖음까지 이 기마순사대의 말굽으로 짓밟았습니다. 그러면 이 기마순사는 어대서 나오는 것입니까.

경기도경찰부 소속으로 시내 수송동(壽松洞)에 있는 기마순사할소(騎馬巡查詰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들은 웨 두느냐 그것을 둔 경찰부 편이 말을 그대로 소개하면 무슨 큰 사건이 나든지, 높은 량반이 지나 갈 때에 순사의 힘으로만 도저히 균중을 정리할 수가 업슬 때에 말로 헤치는 것이요. 일업슬 때에는 기마 순사들이 교통순사 사무를 보며 시내로 다닌답니다.

조선에 기마순사가 처음 생기는 정미년군대해산(丁未年軍隊解散 1907년)이 되어 물골뿔 하는 경성을 진정키 위하여 지금 광화문통 위생시험소에 한성부경시청(漢城府警視廳)이 잇을 때 당시 한국경찰의 고문이라는 환산중준(丸山重俊)의 창안입니다. 처음에는 네명을 두어 경기근처의 의병토벌까지 한 일이 잇섯다 하며 기미년까지는 열명이 잇다가 OO운동이 일어나니까 벗석 늘리어 현재는 말이 삼십여필이요 순사가 이십여명이라 합니다. (壽松洞 一 小 生)

桂洞 -- 衛 生 所

네전 룡궁(六宮)의 하나인 경우궁(景祐宮)이 계동에 잇섯습된다. 지금은 그 궁이 어대로 갓느냐? 궁집은 업서졌지요. 그러치만 그 터야 어대로 가겏소 남아잇지. 북부 위생소란 것이 그 터를 통차지하고 지내더니 작년인가 그 절반은 휘문학교에 운동장 하라고 주엇지요.

경우궁이 한번 란리를 톡톡이 치른 일이 잇지요. 란리 이야기는 나중에 하리다. 그 란리 뒤에 포병대(砲兵隊) 영문이 되어서 노랑테를 돌른 모자가 어린 아이 작난감 비슷한 금뢰박을 끌고 들

락 날락 하얏습니다. 세월이 변하더니 이 영문이 위생소가 되어 위생소 인부가 쓸에기통, 뚱뚱 마차를 끌고 들락 날락하디다 그려.

지나간 갑신년(甲申年)에 김옥균(金玉均) 홍영식(洪英植)가튼 젊은 인물이 정치를 개혁하려고 변을 꿈엇습니다. 그네가 임검을 혼동하여 이 경우궁으로 모시고 와서 조녕하(趙寧夏) 민영목(閔泳穆)가튼 시임장신들을 이 안에서 짓조겨 냅지요. 원세개(袁世凱) 등살에 일은 필경 랑패하얏습니다. 이게 경우궁안 란리란 것이요. 이런 풍상을 격근 늙은 나무가 휘문학교 운동장 닥글 때까지 남아 잇든 것을 보섯지요?
(桂洞 S H K)

昭格洞 -- 宗親府

종친부는 무엇입니까. 지금 조선총독부 서고(書庫)를 하려고 미리 준비한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합니다. 종친부는 알기 쉽게 말하면 종친을 위하여 설치한 것입니다. 그러나 은(殷)나라 대궐터가 기장밭 되는 것이야 괴자(箕子)의 한탄 거리만 되겠습니까. 종친은 무엇입니까. 지금 후작(侯爵) 백작(伯爵)하는 조선귀족이 되려고 미리 등대한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합니다. 종친은 즉 황실지친이라 예사 신민과 달른 것입니다. 그럼으로 조자양(趙子昂)가튼 명사로도 송나라 종친으로 원나라를 섬긴 까닭에 후세에 말거리가 된 것입니다.

남은 듯기 실코 나도 하기 실흔 이야기 고만두고 우리나라 종친이야기 중에 우수한 것 하나를 골라서 소일거리로 들려 들이겠습니다. 세종대왕(世宗大王)이 종친부에 종학이란 것을 맨드시고 종친을 글을 읽기섯습니다. 그때 순평군(順平君)이라는 둔한 종친 한분이 잇서서 글자 두자쯤 배워 가지고 찢찢 매었다 합니다. 이 분이 돌아갈 때에 자긔 처자에게 한 말씀 또 진국입니다. 죽는 것이 설지만 종학예를 아니 가게 되니 시원하다고 하얏답니다.
(昭格洞 金學洙)

嘉會洞 -- 翠雲亭

바람이 물소리나 물소리가 바람이나 가회동 깃흔 골에 송풍이 시원하고 샘물 소리 줄줄하니 이것이 취운명이랍니다. 지금은 초동목수(樵童牧叟)의 짓밧히는 바가 되고 시인묵객(詩人墨客)의 놀이터가 되었지마는 넷날을 캐어 보면 회고의 감이 적지 안흔 것이엇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칠팔십년전 창덕궁 뉘하의 장인되시든 민표명공(閔杓庭公)이 한참 세도를 부릴 때에 취운명 명자와 사모명 명자와 백락동 명자를 지어 노코 꽃피는 봄과 달밝은 가을에 한가한 사람들과 더불어 취흥을 도두든 곳이랍니다. 창생은 변하는 법이라 어찌 한사람의 즐거움이 오랄 수 잇겠습니까.

그후 대원군의 첩되든 소위 백락동 माम님이 며태 동안 살다가 죽은 뒤에 일시 리왕뉘하의 어료가 되었다가 다시 한성구락부가 되었다가 나라가 망할 때에 소위 귀족들의 활쓰고 노는 터가 되었더니 창생은 다시 변하여 조선 귀족회의 소유가 되었다가 요사이는 시민의 소유디가 되었더니 며출전 부터는 동맹휴학 하는 학생들의 회의디가 된듯합니다. 세월이 변함에 딸아 주인은 갈리지마는 취운명 명자는 의구히 넷날을 말하는 듯하고 청린동뉘(靑麟洞天) 바위 미테서 흐르는 약물만 쫄쫄.....
(嘉會洞 朴世俊)

花洞 -- 북주움물

화동은 넷이름으로 '화개동'입니다. 그래서 화개동의 복주옴물이라 하면 서울사람 치고 모르는 사람이 업슬 것입니다. 맹현(孟峴)동산 알에의 이 죽으마한 복주옴물은 물 맛이 조코 약물로 신통할 뿐만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이십칠팔년전에 돌아가신 덕수궁 고종데(高宗帝)께서 어수(御水)를 봉하시고 이 물을 하로에 세번씩 갖다가 잡수섯답니다.

그리하여 그 당년에는 순검청까지 그 업헤 지어노코 파수를 보았다 합니다. 그리다가 고종데께서 돌아가시자 어수는 봉하지 아니하얏스나 워낙 물이 조흔고로 춘하추동 사시를 두고 사람이 고칠 날이 업습니다. 더욱 여름철에는 차고 시원하고 맛있고 약되는 이 복주옴물물을 먹기 위하여 산애, 안악네, 로인, 어린아이 할 것 업시 구름가티 모여들어 화개동 바닥에는 사람의 바다가 됩니다.

그 맛업고 밍밍한 수도물만 잡수시는 어른들이 한번만 우리동리 복주옴물물맛을 보시면 참 기가 막히게 조타고 탄복을 한답니다. 누구시든지 여름철 더운 때 우리 동리에 유명한 이 물을 한번 잡수러 오십시오. (花洞 崔 民 吉)

松峴洞 -- 殖 銀 村

송현동 일대는 식은사택(殖銀舍宅)이 차지하고 말았습디다. 이것만 가지고도 조선인 경성의 물락을 알 것이 아닙니까. 이 집의 전신(前身)은 부원군보다도 대갈장군의 아우로 유명한 윤택영(尹澤榮)씨의 집이 되어 한참은 들석 들석 하얏스나 형데가 시새가면서 넘우 과분하게 떠들고 지낸 까닭인지 이 집을 지니지 못하고 학생기숙관으로 세를 노하 먹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식산은행으로 들어밀고 말았습디다.

식은에서 이 집 부근의 팔천오백여평을 사서 헐고 미국에서 류행하는 근대식으로 설은네채의 굉장한 사택을 짓기에 삼년의 세월과 칠십만원의 금액이 들엇다 합니다. 붉은 집웅만 보고 감옥 갖다고 하는 사람도 잇스며 속에 들어가 보면 리상덕으로 된 문화 주택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 집은 뉘돈으로 지엿슬가요. 쓸어져 가는 초가집 업헤서 사는 그네들도 좀 미안한 생각이 잇스리다. 경비를 절약하노라고 하급행원을 도태하면서도 명원 압헤는 괴석과 화초가 하나씩 둘씩 늘어 감도 이상하다 하겡습니다. 그런데 이 사택으로 덕 본 것은 안국동 댤차가 속히 된 것이라 합니다. 성은 피가라도 관자맛에 산다고 댤차 타는 맛에 견딜까요. (松峴洞 李 龍 求)

三清洞 -- 성 제 옴 물

북악산(北岳山) 미테 잇는 성제옴물은 우리 삼청동의 명물입니다. 넷날에 이 옴물에서 무당들이 북두칠성(北斗七星)을 제사하얏다 하야 성제옴물이라고 하얏답니다. 력사가 오래서 유명할 뿐만 아니라 약물로 신힬하야 더욱 유명합니다. 가슴알이 십년을 알튼 사람도 이 물 몇번만 먹으면 낫고 그의 외모든 속병 잇는 사람도 대개 이 물을 먹고서는 낫는다고 합니다.

화개동 복주옴물이 어수(御水)를 봉하야 물이 조타고 하지마는 맨 처음에 어수를 봉하기는 성제옴물데다 봉하얏드랍니다. 그러나 북악산 밋 험한 길을 하로에도 몇번씩 올라 다니기가 어떡케 어렵든지 고종데께옵서도 물길러 다니는 사람을 생각하시고 조흔 물은 못먹드라도 갓갑고 고힬편한 복주옴물을 가져 오라 하셔서 나중에 복주옴물로 어수를 봉하게 된 것이랍니다.

다른 보통물은 만히 먹으면 배를 알른다 하지마는 우리 성제옴물 물은 만히 먹을수록 몸에 리로워서 오는 사람들은 짜고 짠 암치쪽을 가지고 와서 뜨더먹어가며 물배를 채운답니다. 요새 가티 더운 때는 사람이 어찌 만흔지 이 물 한박아지 어더먹자면 한나절이나 기다려야 먹게 되지요.

어떠든지 우리동리의 명물입니다.

(三清洞 一 遊 客)

授恩洞 -- 捕 盜 廳

수은동을 지나자면 국민협회(國民協會)란 문패 부튼 집이 눈에 띄일 것입니다. 이 집이 그전 그 전에 포도청이었답니다. 포도청에도 좌우가 잇섯는데 이것이 우(右)포도청이었다고 합니다. 포도청이 경무청(警務廳)이 되고 포도대장이 경무사가 된 뒤에는 이 집은 육군법원(陸軍法院)이 되었섯습니다.

포도청에서 마튼 직무는 간세도적(奸細盜賊)을 잡포(緝捕)하고 또 밤을 경(更)으로 난호아 야순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경찰서와 비슷한 것입니다. 문화정치 알에의 경찰서 속에도 참혹한 사실이 만히 잇스니 그전 포도청 안에야 기막히는 일이 업슬 리가 잇습니까. 포도대장이 벼슬계제로는 아장(亞將)에 지나지 못하지만 이세상 염라대왕(閻羅大王)이라고 불러도 조हत섯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이야기가 한두가지가 아니나 적을 틈이 업서 그만 둡니다.

지금 국민협회 회원이라는 것 그전만 가트면 포도청에서 학치를 끈허도 죄가 남을 것인데 세상이 세상이라 포도청 집에서 제멋대로 노니 늙은이 아니라도 한숨짓기 알마즌 일입니다.

(白眼生)

雲泥洞 -- 쫄 쫄 움 물

나제도 쫄쫄 밤에도 쫄쫄 가물에도 쫄쫄 장마에도 쫄쫄 사시장춘 한 모양으로 쫄쫄 흐르는 것이 동구안에서 유명한 운니동 쫄쫄움물이랍니다. 동구안 사는 사람치고는 삼척소동으로 칠팔십세로인까지 이 쫄쫄움물을 모르는 사람이 업다고 합니다.

쫄쫄움물이 물이 깊고 맑아서 유명한 것도 아니랍니다. 움물이 아니라 돌다리 및 개울에 돈넙가튼 족으마한 구녕에서 샘물가티 쫄쫄 흐르는 말하자면 움물이라기는 주제 넘은 것이지요. 아마 샘통이라면 조켓습니다. 이것을 움물이라니 무슨 곡절이 잇겠지요.

넋날도 넋날 이 쫄쫄움물 자리에 크다란 정말 움물이 잇섯드랍니다. 그 동리 사는 점 잘치는 장님이 잇섯는데 어느날 이 압흘 지나다가 발을 헛드되어 움물에 풍덩 빠져 죽고 말앗답니다. 그 후에 동리사람들이 모이어 움물을 메워 버렸더니 맨 자리에서 샘물이 쫄쫄 흘러 나오는 것을 쫄쫄움물이라고 이름지엇다 합니다. 이 쫄쫄움물은 그 장님의 령이 부터 이 물에 알른 눈을 씨스면 신통하게 눈이 낫는 답니다. 그래서 요사이도 밤마다 밤마다 밥도 지어가지고 돈도 갖다가 바치고 눈을 씻고 가는 눈알른 사람이 만답니다.

(雲泥洞 韓 潤 明)

齋洞 -- 白 松

우리 재동에는 장안에서도 '유명'한 '백송'이 잇습니다. 백송이라는 것은 글자대로 흰 소나무라는 뜻입니다. 흰 소나무니까 솔넙까지 흰 줄로는 아지 마십시오. 솔넙은 다른 소나무나 마찬가지로 사시장춘 푸르고 나무줄기가 보통소나무와 달라서 허여합니다.

이 백송은 지금 경성녀자고등보통학교 재동데이괴숙사(京城女高普校齋洞第二寄宿舍) 안에 잇는데 몇백년전부터 그곳에 그러케 흰몸을 버티고 섯답니다. 그리고 이 백송의 고향은 중국입니다. 그때가 아마 리조시대(李朝時代)이것지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마는 그때에 우리나라에서는 청국에

조공 바치려 늘 들어다 냅습니다.

이 백송이 즉 그때 청국에 들어갔든 어느 사신이 나무가 하도 괴이(奇異)함으로 족으마한 백송 하나를 가지고 나와서 심고 길른 것이 지금 재동 그 백송이지요. 세월은 가고 세상은 빗구이어 사모 풍잠한 정승 판서가 거닐든 그 소나무 미테는 지금은 검은옷 입은 일본 사람과 녀학생들이 요새가티 더운 날에 그늘을 차저 그 백송 미트로 와서 책을 읽는 답니다. 참 세상 변하는 것이란 물을 것입니다. (齋洞 金 淑 子)

敦義洞 -- 나 무 장

동구안 대궐 큰길로 올라 가다가 외인편으로 열빈루(悅賓樓)라는 료리 집이 있습니다. 그 료리 집 뒤에 잇는 나무장이 우리 돈의동의 명물인 나무장입니다. 나무장 문 어구에 부튼 문패에는 '돈의동 공설 시탄시장'(敦義洞公設柴炭市場)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나무장에 생긴 햇수는 벌써 이십년이 갓가워 옵니다.

서울 안에도 나무장은 여러 곳에 잇지요 마는 우리 돈의동의 나무장 가티 력사가 오래고 터가 넓고 흥정이 만흔 곳은 드물줄 압니다. 이 나무장의 현재 주인은 일본 사람이라는데 그 전에는 나무바리가 이 장터 안으로 들어 가자면 몇푼씩 주고 표를 사고야 들어갓스나 지금은 그대로 들어가서 흥정이 되어 팔게 된 후에야 거간에게 십전 가량씩 준다 합니다.

터가 상당히 넓어서 바리 나무가 꼭 가득이 차는 날이면 거의 천바리 갓갓게 들어 갈 수 잇다 합니다. 이만하야도 우리동리의 나무장이 얼마나 넓은가를 알수가 잇겠습니다. 요새는 여름이라 농군들이 일하기가 빗버서 나무를 가져오지 아니하며 나무장이 매우 쓸쓸하나 가을 겨울 봄에는 료칠십리 빗게서 모여 들어 참으로 굉장하답니다. (敦義洞 金 貴 轍)

堅志洞 -- 閔 公 舊 宅

민충정공(閔忠正公)이라면 누가 모르겠습니까. 지금은 모다 변작되었습시다마는 이 터로 말하면 이 어른 계시든 넷집자리입니다. 그런데 단도로 매운 피를 흘리시기는 다른 집입니다. 그러나 피바든 옷을 둔 마루에서 생각도 하지 못한 푸른 대가 솟기는 이 집입니다. 이 어른 돌아가실 때 년세는 오십에 삼년이 부족하얏습니다. 순결한 결심을 하시든 전날 저녁에 신도약 거절할 희망이 끈침을 보시고 가티 상소하든 여러분더러 잠간 집에 감을 말하섯드랍니다

그리고 집으로 오셔서 그 어머니께 계신 방으로 들어가시니까 부인과 두 어린 아들이 다 그리로 모였습니다. 전부터 어머니께 효성이 지극하신 터이지마는 이날은 더 유난스럽게 자조 겨트로 닥아 안지시며 참아 나가시지 못하시는 것 가덧습니다. 과자를 가져 오라 하셔서 두아들을 주시고 작은 아들이 더 달라니까 부인에게 어서 갓다 주라 하시고 자조 두아들의 머리를 어루만지섯습니다.

상소하는 데로 가신다고 일어나시며 잇다 또 오실 터인데 어머니께 절하시는 것을 다 이상히 알앗습니다. 이날 저녁에 이 문밧글 나서신 뒤로는 기리 이집을 떠나섯습니다.

(堅志洞 撫 古 子)

八判洞 -- 청 기 와 집

청기와는 넷것입니다. 맨드는 법이 어느때 발명되었든지까지 분명치 못한 넷것입니다. 이 청기와 표본을 보시라거든 팔판동(八判洞)을 가십시오. 그 동리에는 집웅 용마루에 청기와 입힌 집이 있습니다. 입혔다 말한다고 몇천장 몇백장으로는 알지 마십시오. 단지 한장입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입혔다느니 보다 노했다고 할 것입니다.

그 집이 무슨 래력 있는 것도 아니것만 그 청기와 한장이 유표한 까닭에 근처서는 청기와 집으로 이름이 낫답니다. 래력이 업다고 명물되지 말라는 법은 업습니다마는 청기와 가튼 넷 것을 집웅에 노흔 집이 래력이 업다는 것은 좀 섭섭한 일입니다. 청기와 한장이 팔판동을 대표하는 명물이 된다니 팔판동을 위하여 더욱 섭섭한 일입니다.

저가진 재조를 저혼자만 써먹고 남 아니가르쳐 주는 사람을 청기와장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동양, 동양 중에서도 우리 조선은 청기와 장사가 만해서 그러케 되었는지 한번 세상에 발명된 것으로 서양처럼 점점 발달되기는 고사하고 한때 반짝하고 업서진 것이 만습니다. 이것은 섭섭하니 보담 설고 분한 일입니다. (八判洞 吳 俊 容)

慶雲洞 -- 閔 子 爵 邸

이 집 넷 주인은 철종(哲宗)때 당국하든 대신 김좌근(金佐根)씨입니다. 지금 주인되는 자작대감도 세도하든 량반이요 또 부호입니다. 부귀하는 주인만 마저들이는 이 집이야말로 참으로 호기 부릴만합니다. 그러나 지나가는 늙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성쇠의 늦김이 저절로 일어납니다.

그 이야기는 이러합니다. 허! 이전 김정승댁 적에야 저 대문으로 재상 명사들이 구름가티 모였섯지. 지금도 들어가는 사람은 만치마는 아마 '마름' 아니면 은행원이겠지. 집말이 나니 말일세마는 지금 무슨 집이니 무슨 집이니 하야도 라주마마를 당하겠나. 저 집 작은 사랑채가 처음에 놓게 지었더니 서모가 남산을 못본다는 바람에 이약 김병기(金炳冀)씨의 기벽으로 헐어 다시 지었네. 김정승 대감은 돈을 몰랐섯지. 세도야 참세도지 저 대문이 후근했섯지.

이게 늙은이 망녕 이야기가 아닌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집 이 대문이라고 성쇠가 업겠습니까. 다시 생각하니 망녕 갖습니다. 부호요 자작인데 무엇이 넷적만 못하겠습니까.

(一 老 人)

寬勳洞 -- 忠 勳 府

안동 네거리서 사동으로 내려가자면 얼마 아니가서 왼손편에 허수하게 문이있고 그 대문안으로 들어가면 얼마 아니가서 넷집 한채가 있습니다. 이 집이 무슨 집입니까. 사십이상 인물은 충훈부(忠勳府)라 하고 한 이십여세된 사람은 표훈원(表勳院)이라 하고 지각업는 아이들은 사동대문회집이라고 합니다.

사동대문회(斯東大文會)라니 하고 들어보지 못한 회다 하면 '대문이 사동에 잇는데 회가 그 대문안에 잇스니까 사동대문회랍니다' 하고 아는 체까지 합니다.

태조(太祖)때 공신도감(功臣都監)이 태종(太宗)때 충훈사(忠勳司)가 되고 충훈사가 충훈부로 되기는 세조(世祖)때 일이라 합니다. 이 충훈부는 훈신(勳臣)과 및 훈신의 덕장손(嫡長孫)에 대하여 국가에서 대우하는 모든 일을 마트든 관부(官府)라고 합니다. 국가에 훈공(勳功)이 잇는 이의 일을 보든 이러한 집에 유문(儒門)에 훈공을 세우라는 회가 들어잇스니 우연치 안흔 연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아이들말로 사동대문회, 정작 대동사문회는 의리 아는 선비의 회라 유문이외 다른 무엇에 대하여 훈공을 세우라고 한다는 말은 순연히 풍설일 것입니다. (一 笑 生)

樂園洞 -- 測候所

어느 신문을 보든지 신문에는 대개 텀기예보(天氣豫報)라는 것이 있지요. 그런데 서울신문의 텀기예보는 다-이 락원동에 있는 측후소(測候所)에서 발표하는 것이랍니다. '래일 텀기가 어떠케다' 하는 것은 풍우를 마튼 귀신이 아닌 다음에야 어찌 알겠습니까마는 이 측후소에서는 래일텀기를 대개 짐작한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사람의 하는 일이라 귀신의 재조를 배운 측우소도 하는 수 업서서 가끔 셋밝안 거죽말을 쉽살이 한답니다. 어쩔든지 몇십년을 하로가티 장안사람을 보고 '래일은 비가 오케다 눈이 오케다 흐리케다 개이케다'고 게으르지 안코 꾸준히 보고하야 준다는 것으로도 명물이며 능청스러운 거죽말 잘 하기로도 한동리의 명물될 자격이 넉넉합니다.

이 측후소 안에는 여러가지 기계(機械)가 노혀 잇서서 현재와 장래의 텀기를 기계가 전부 가르쳐 주는데 단지 업는 기계라고는 디진계(地震計)뵈게 업고 그 남아지는 다-잇다 합니다. 디진계가 업는 것은 우리 조선은 강산이 조하서 일본가티 디진하는 법이 업스니까 그까진 것은 잇스나 업스나 상관이 업다 합니다. (樂園生)

仁寺洞 -- 泰和館

이 집은 래력이 만흔 집입니다. 이 집은 안동 김씨(安東金氏)중에 리문안 대신으로 유명하든 김흥근(金興根)씨 댁이엇답니다. 이 대신은 량미간이 넓기로 유명하얏고 풍류에 범연치 안키로 유명하얏고 직언(直言) 잘하기로 유명하얏답니다. 이 대신 뿐인가요 그 아들 영평(永平)대신 김병덕(金炳德)씨도 일시에 물망이 잇든 대신이엇답니다.

이 집이 유명한 대신댁으로 헌종귀빈(憲宗貴嬪) 순화궁(順和宮) 김씨의 궁이 되어 순화궁 순화궁하고 불으게 되엇습니다. 세월이 변하더니 이 북촌갑테가 일시 남부끄러운 주인을 맞게 되엇섯습니다. 리완용 후작이 이 집을 팔아서 료리집이 되기 시작하야 태화관(泰和館)이 되엇고 명월관 지덤이 되엇섯습니다.

이 집이 태화관으로 잇섯슬 때 삼일운동(三一運動)에 큰 관계를 맺게 되엇섯습니다. 지금은 녀자교육기관이 되어 료리집 되엇든 흔적도 업게 되엇스나 그 안에 잇는 덩자 태화명(泰和亭)을 지금도 양파명(陽坡亭)이라 별명삼아 불으는 것은 료리집으로 잇슬 당시에 기생들이 정양파(鄭陽坡)의 휘짜를 어대서 어더뵈고 변삼아 불은 것입니다. 이만하면 한집 래력으로는 상당히 만치안습니까. (仁寺洞 金福順)

茶房町 -- 妓生

다방골은 본래 부자 만키로 장안에서 유명하얏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넷날 일이오 지금은 부자 대신으로 기생 만키가 장안에 데일입니다. 기생은 조선의 명물이라. 이 한나라의 명물이 한동리에 모였스니 어찌 다방골의 명물이 안될 수 잇겠습니까. 좌우간 한나라의 명물이 다방골에 모였스니 명물중에도 짹짹하고 감비싼 명물입니다.

서울 안에 기생이 대략 삼백명이 잇는데 다방골에만 룉십명이나 잇다하니 어찌헛든 굉장하지 안습니까. 이 명물을 차져, 달밝은 밤마다 들창문으로 새어나오는 은방울 소리 가튼 노래를 차져

문압해 대령해야 보는 것도 꽃을 탐하고 버들을 꺾는 풍류남아로 한번 해야 볼만한 놀음일 것입니다.

기생도 조선의 명물인만큼 그 력사도 당당하얏지요. 정승판서도 슬슬 기엿지요마는 이것도 넷날 일입니다. 지금은 한시간 얼마씩 팔리는 갑싼 몸으로 뜻도 안둔 손압해서 웃음을 팔게 되었습니 다. 웃음을 팔고 한숨을 사는 가련한 그들의 신세 - 어느곳 사람이 업스리오마는 색향으로 련 상되는 평양(平壤)기생이 데일 만타입니다. (茶房町 鄭 煥 奭)

臥龍洞 -- 宗 簿 寺

창덕궁 돈화문(昌德宮 敦化門)압해서 파조교를 향하고 몇걸음 내려오자면 올은손편에 큰 솟을대 문이 잇습니 다. 전주리씨 종약소(全州李氏宗約所), 종친청년회(宗親靑年會)라는 패가 문 량편에 걸 리었는데 종약소패 머리에 잇는 금리화표가 풍우속에 떨어진 꽃송이가티 보입니 다. 이것은 물론 보는 사람의 맘에 달린 것이겠지요.

이 솟을대문 안에 잇는 집이 그전 종부사랍니 다. 종부사는 무엇을 마뎡든 곳인고 하니 종친의 보첩(寶牒)을 관리하얏섯고 종친의 과실을 규탄(糾彈)하얏섯답니 다. 오백년간의 데일 명군 세종이 종친의 집 사람들이 민간에 작폐가 심한 것은 규탄하는 관원이 업는 까닭이니 이후로는 종부사에서 이것을 마뎡하라고 명하섯답니 다.

세종말슴이 낫스니 말이지만 세종의 형님 양녕대군(讓寧大君)은 호방쇄탈(豪放灑脫)한 행동이 유명하고 효녕대군(孝寧大君)은 돈후근실한 인품이 또한 유명합니 다. 충년대군(忠寧大君)이나 세종 대왕만 성인이라는 말슴을 들으신 것이 아입니 다. 사가로 말하면 되는 집안이란 달르다 하겠습니 다. 지금 종친청년회는 어떤 인물들이 모이는지요.

仁義洞 -- 煙 草 工 場

인의동 명물은 전매국 분공장이지요. 넷날 이 집은 국가의 간성을 양성하는 병대청이엇습니 다 마는 오늘의 이 집은 머리가 썩는`니코친'중독자를 길러내는 담배 만드는 공장이외다.

이러한 집이 어찌 조선안에 하나만 잇겠습니 까. 서울만 하야도 두 세곳이 잇고 평양에나 전주 에도 잇습니 다. 이 여러곳에서 만들어내는 담배갑이 매년 이천만원 이상이라 하니 방금 굶어 죽 는다는 조선사람 주머니에도 아주 몇푼씩은 남아 잇는 모양입니 다. 그러기에 귀한 돈을 주고 비싼 독(毒)을 사서 먹지요. 어리석은 백성이지요.

귀한 돈을 주고 비싼 독을 사먹는것 쯤이야 어뎡케 되었든지 저 조하서 하는 짓이니 상관할 것 업거니와 이안에서 일을 하는 직공들이 불상해서 못보겟다는 말이외다. 여기에만 천여명이 잇는 데 그가운데 십오륙세 미만되는 어린 아이들이 오백명이나 된답니 다. 이 어린 것들이 하로에 열 시간씩이나 로동을 하고 겨우 오륙십전에 목을 매다니 어찌 가련하지 안켓습니 까. 남들은 글을 배울 때에 고약한 담배스내가 머리에 배여 얼굴이 노래집니 다. 참말 가련한 명물이지요.

(長 歎 生)

三角町 -- 굽 은 다 리

삼각명에 잇는 명물이 무엇이나 하면 두말할것 업시 굽은 다리를 내여세겟습니 다. 그런데 이

다리가 한 곳은 수하명으로부터 잇스니까 혹은 수하명 친구가 자괴동리 명물이라고 주장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굽은 다리는 세모진 동리에 알맞다고들 합니다.

굽은 다리는 활동가티 휘움한 것도 아니오 낫노코 기억자 보는듯이 중간이 꺾긴 것도 아니오 실상은 네귀 번듯하고 바닥이 판판하게 굽기만 고든 다리로 사람으로 말하면 구설복이 잇서서 공연히 굽다는 루명을 쓰고 잇습니다.

굽다는 루명을 어찌하야 어덧느냐 하면 소광고 남천변에서 오간수교를 향하는 길이 곳곳하게 내려가다가 삼각형 수하명을 검얼잡이하고 잇는 이 다리에 와서 제물에 살짝 앵돌아진 까닭에 못된 바람은 수구문으로 불어온다는 것가티 굽다는 이름은 다리로 넘어왔습시다.

그러나 이 다리의 꼭 한가지 허물은 변명할 수가 업는데 그것이 무엇이나 하면 홀아비 독가비를 부쳐두고 어두은 밤에 지나다니는 부인네를 톡하면 떨어지게 하는 못된 버릇이 잇답습시다.

(曲 橋 人)

水標町 -- 水 標 橋

이 다리는 오래된 다립습시다. 수표를 다리 옆에 세워서 이 이름을 어든 것입습시다. 명물은 좀 으속한 것이 조흔데 이 다리는 날마다 밟고 다니는 곳이라 혹 등한하게 생각할 사람도 잇습습시다. 이 다리 이름은 생각나지 안습습시다. 다리라는 것은 건너는 것이 아납니까. 다리를 건너서 다리 북편쪽 이야기를 할가 합니다. 장희빈이라는 량반은 경종(景宗) 사친입습시다. 그런데 이 량반의 본집이 이 다리 근처에 잇섯답습시다.

숙종(肅宗)대왕께서 영희년 거동을 하시는데 어로가 이 다리로 지나시게 되엇드립습시다. 그때 구경하는 사람이 길가에 련하얏는데 이 다리 북쪽 길가에 어느 집이든지 상감 지나실때 별안간 큰 바람이 불어서 창에 걸엇든 발이 떨어지며 그안에 안즌 어느 색시 한분이 상감 맘에 드시게 보여서 마춤내 궁으로 불러 들이시엇는데. 이가 다른이가 아니오 곳 장희빈이립습시다.

그집이 지금 중국사람 가게 어느 집인지 혹은 다리 막 지나서 북으로 오라면 옆헤잇는 약국집이 아납지도 모르겟습습시다.

(水 標 橋 人)

益善洞 -- 줄 향 량

익선동에 별로 명물이랄 것이 업습습시다. 내외주렴이 만코 밀매음녀가 어지간하니 이것으로나 명물을 삼을는지. 그러나 내외주렴으로는 청진동만 못하고 매음녀로는 병목명 갈보에야 머리도 못들 터이니 이것도 저것도 다 명물감이 못됩니다. 그러니 할수업시 향량만흔 루동궁이나 들추어 보려고 합니다.

익선동 줄향량이라 하면 그 동리 사람은 어느집 향량인 줄을 다 안다고 합니다. 이 집은 지금 으로부터 칠팔십년전에 철종대왕의 백씨되는 곰배대감의 별명을 잇는 영평군이 흥판서의 집을 사고 든 때부터 루동궁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얏답습시다. 지금 주인 후작 리해승각하는 곰배대감의 오대손이라고 합니다.

곰배대감의 후손으로 리해승대감도 한때는 세력이 빨랫줄 가탯겟지오. 그러나 요새는 조선총독 대감에게 세력을 빼앗기고는 령락하기 가이 업답습시다. 닥쳐오는 운명에야 임검의 형님이든 곰배대감의 후손인들 어찌하겠습니까. 남중녀종이 드나들든 향량방에는 인연도 업는 못 사람의 차지 한 바가 되고 오즉 비스물이 고여잇는 압마당에 노힌 인력거 한채가 그래도 후작대의 테면을 유지하는듯 합니다.

(慷 慨 子)

都染洞 -- 模型塔

조선총독부 테신국 뒷골목으로 가자면 회칠한 동구라한 탑(塔) 하나이 괴물가티 서잇습니다. 그리하여 누구든지 그 골목으로 지나 다니는 사람들은 그 힌탑을 한번씩 쳐다보고 지나갑니다.

이 탑가티 옷둑 서잇는 것이 무엇인지는 별로이 아는 사람이 업습니다. 누구의 말을 들으면 등대(燈臺)의 모형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이의 말을 들으면 기상대의 모형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무슨 모형인지 우리가 알 턱이 잇습니까. 그저 밤이나 낮이나 힌 몸이 옷둑 서 잇는 것만 하야도 우리 동리의 이야기 거리오 또 확실히 명물로 치기에 넉넉합니다. 어떤 로인의 이야기를 들으면 며태 전에 캄캄한 그믐밤이나 구진 비 축축이 오는 날은 이 모형탑 부근에서 이상한 바람소리와 물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이것은 며태전 일이니까요 지금은 그럴리가 만 무합니다.

하여간 문명한 사람들이 만들어 노흔 이 괴물이 우리동리 사람들의 이야기거리가 착실히 된답니다. (都染洞 趙 漢 鳳)

觀水洞 -- 觀 水 橋

광고부터 시작하야 다리 이름을 상고하며 동편으로 내려가겡습니다. 첫재가 광고. 광고는 원명 광제교, 속명이 광충다리라 하고요, 광고 다음에 장교. 장교는 원명이 장통교, 속명이 장차골다리. 장교 다음에 수표교, 수표교는 원명이나 속명이 다 가트나 속명은`교'(橋)를 새김으로 불러서 수표 다리라고 할 뿐이랍니다.

수표다리가 수표명 명물이 되엇스니 수표다리 다음에 잇는 관수교가 관수동 명물이 되어서 부끄러운 것이 업슬줄 압니다. 관수교는 새로 만든 다리라고 업수이 녀기지 마십시오. 외양이 새로 되니만치 다른 다리보담 낫습니다. 네전 말을 들으면 수표다리 알에 새다리라는 이름을 가진 다리가 잇섯답니다. 이제는 이 관수교가 새다리라는 이름을 차지하야도 조흘 것입니다.

이 관수교가 새로 훌륭하게 된 것은 창덕궁과 조선총독부 왕래길에 잇는 까닭이랍니다. 요사이 가튼 더운 날은 저녁이 되면 다리우에 바람쏘이는 사람이 대단히 만습니다. 이것으로만 하야도 광고, 장교, 수표교 따위는 못당할가 합니다. (觀水洞 過 橋 人)

淸進洞 -- 內 外 酒 店

청진동 명물은 부랑자들의 조하하는 내외주덤이외다. 호수 룡백호에 내외주덤만 열한집이 되고 보니 이동리의 대표 명물로는 당당하지 안습니까. 이 당당한 명물이 작년에는 삼십여호, 재작년에는 사십여호나 잇섯드랍니다. 참 그때야 굉장하얏겡지요. 열집에 내외주덤 하나씩 - 장관이엇겡습니다.

내외주덤의 역사를 캐여 보면 넷날에는 이름과 가티 안악네들이 술상만 차려 내보내고 내외를 착실이 하든 술집이엇드랍니다. 이것이 차차 개명하야진 탓인지 내외법이 업서지고 술상 엽헤 부터안저 웃음을 팔고 놀애를 팔더니 자연히 매음까지 하게 되어 요사이에는 내외주덤 하면 밀매음이 련상되게 되엇답니다.

내외주덤을 차저 가면 의례히 기름때가 피죄죄 흐르는 젊은 계집이 한둘씩 잇지요. 이 계집들

이 이제 말한 그것들인데 넘우 풍기를 괴란함으로 경찰서에서는 내외주덤 허가를 안내여 준답니다. 이 까닭으로 해마다 해마다 내외주덤이 줄어들어 가서 요사이에는 이미 서산의 비경에 들었답니다. 일동의 명물 내외주 도 칼찬 나으리 세력에는 꿈적을 못하는 모양입니다.

(淸進洞 朴 萬 根)

薰井洞 -- 어 수 움 물

란초가 귀엽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잡풀 틈에 잇서도 향긋로운 까닭입니다. 런꼴이 귀엽다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진흙 속에 낫서도 깨끗한 까닭입니다. 훈정동 어수움물을 명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가가 주밀하고 녀함(低陷)한 바닥에 다른 물들은 찻질하되 이 물 혼자 청렬한 까닭입니다.

삼청동 성제움물이 제간에 명물소리를 듯나 봅니다마는 무당집의 `넉의메' 소용, 장안사녀(長安士女)의 놀이터 소용, 허영퓌어 흐르기 때문에 훈정동 어수움물가티 려염속에 숨어서 남이야 알거니 말거니 차고도 맑은 본성을 죽음도 변치안코 사시장철 한모양인 군자임으로 보아서는 비루한 친구라고 이웃하기도 실혀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은 이름과 가티 넷날 어수로써 화개동 복주움물 가튼 것은 후생소년으로 볼뿐 아니라 참소를 밧고 방축을 당하여 대궐안에 들어가 본지가 어느때인지 모르지마는 외로운 충심은 그대로 남아서 풍마우세(風磨雨洗)의 하마비를 짝하여 종묘 압흘 떠나지안코 섰습니다.

(薰井洞 下 馬 生)

並木町 -- 갈 보

다방골 기생만 명물이나고 병목명 갈보가 큰 불평이 잇습니다. 이것은 그네가 넘우 조급한 탓이지오. 우리도 병목명에는 갈보가 명물이라고 합니다. 밤낫업시 그 근처로 지나기만 하며는 부끄러운줄 모르고 지나는 사람을 손찢하야 불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잇스나 그네인들 사람이지 생각이야 없겠습니까.

눈물은 북바쳐 올라오는데 웃음을 억지로 내이고 남자를 보면 대덕갯건만 반가운듯이 맞는 것을 보시오. 명물이 다른 명물이 아니라 불상하기로 첫재가는 명물입니다.

이 명물은 한편으로 보면 병목명 명물이 아니라 전세계의 명물이라고 할 수 잇습니다. `론던'가튼 큰 도회에는 팔만여명이 잇고 `파리'가튼 화려한 도회지에는 오만여명이 잇답니다. 인구비례로 보면 `파리'가 수효로 데일이랍니다.

이 명물은 사람의 피를 빨아 먹는다고 갈보라는 별명까지 잇습니다마는 실상은 사람에게 피를 빨리는 것이랍니다. 그 증거는 갈보가 사람 이백명가량만 치루고나면 피가 말라서 껍질만 남은 빈대가티 된답니다.

(並木町 柳炳圭)

漢芹洞 -- 초 리 움 물

미근동 초리움물이라 하면 서울사람 치고는 모를 이가 업슬만치 이름이 높흔 움물이올시다. 넷날 어느때 나라에서 성안 성밖게 조타는 물은 하나도 빠지 안코 모조리 길어다가 저울로 달아본즉 이 물이 데일 무거워서 어수(御水)를 봉하얏드립니다. 그때쯤이야 번듯한 대문에 큼직한 잠을

長橋町 -- 설령탕

삼각명에서는 굽은 다리를 명물이라고 자랑하였고 관수동에서는 관수교가 명물이라고 내세웠습시다마는 그까짓 싸고싼 다리 가튼 것이 무슨 명물이겠습니까? 그까짓 다리는 우리 동리에도 잇답니다. 장교명의 장교라 하면 그따위 굽은 다리나 수표교에 지지 안켓지요.

그러니 우리 장교명에서는 다리는 거더치우고 설령탕을 명물로 내세우고자 합니다. 이러케 말하면 장교명에만 설령탕이 잇는가 하고 들고 나설지도 모르겟습시다마는 장교명 설령탕은 맛조케 잘하기가 다른 설령탕에 비길바가 아닌 까닭이외다. 경성사람치고는 장교 설령탕이 조흔줄을 다 알지요. 그러나 요사이에는 설령탕 장사의 배가 불렀는지 전보다 못하게 되었다는 말이 만흐니 명물이 일종 일본비행기 갓소이다.

설령탕말이 낫스니 설령탕 역사를 말하야 봅시다. 설령탕은 선농탕(先農湯)의 와전인데 이 선농탕이 생기는 넷날 어느 임검이 적편을 할때에 임검 모신 만흔신하와 수천군중에게 덕심을 나릴때에 소를 그대로 함부루 죽여너코 국을 끝인 일이 잇서서 국 이름을 선농탕이라고 하얏답니다.

(長橋町 曉 海 生)

孝悌洞 -- 화 나무

이 동리에는 세상에 이름난 명물은 그러케 업습시다마는 다른 동리에 별로 업는 화나무 한개가 이 동리의 이야기 거리오 또한 명물입니다.

이 화나무가 며태나 묵은 고목인지 이 동리에서도 확실히 아는 사람이 업다고 합니다. 하여간 크기는 그리 크지 안하도 여러해 묵은 것은 동리사람중에서 이 나무가 언제 심은 것인지 그것을 본 사람이 업는 것만 보아도 확실히 오래된 고목입니다.

이 나무가 오래 묵은 까닭에 명물이란 말은 아닙니다. 이 동리 안악네의 말을 들으면 이 화나무에는 신통한 신이 부터서 고사만 지내면 고사지낸 집에는 우환이나 질고 가튼 것이 얼신도 못하고 복이 장마에 비쏘다지듯 한다 하야 해마다 부인네들이 복비는 고사지내기로 유명하얏답니다.

그러나 근년에 이르러서는 화나무가 신통력을 일허버린 까닭인지 안악네가 못된 미신의 생각을 버린 탓인지 하여간 고사지내는 사람이 업게 되어 이 화나무도 생활난이 막심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화나무는 고사야 지내거나 말거나 넓다란 원두밭 가운데 웃독서서 타는듯한 바닥에 그늘을 던지고 잇습니다.

(孝悌洞 朴 貴 鍾)

杏村洞 -- 은행나무

사직골 성터진 넘어 남향판 언덕우에 은행나무 하나가 웃독 서 잇습니다. 맑은 바람이 불 때마다 가지와 입사귀는 속살속살 넷날 이야기를 하는 듯합니다 이 은행나무는 행촌동의 명물이오 행촌동의 이름은 이 은행나무가 잇는 까닭이올시다.

이 은행나무의 춘추는 얼마나 되었는지 자세히 아는 이가 업스나 로인네의 전하는 말을 들으면 사직(社稷)안에 잇는 태조대왕 수식송(太祖大王手植松)과 벻할 나무가 아니오 년치존장은 단단하다 합니다. 그리고 물구죽신(物久則神)이라더니 낫살이 만하서 아는 일이 만흔지 보통 해에는 열매가 열지 안타가 나라에 큰일이 잇스려면 한번씩 열린다는 말도 잇답니다.

며태전까지는 영클어진 뿌리를 들어내어 오고가는 사람을 붓들어 안치고 구름가튼 그늘로 덮혀

주며 `내가 너희들 몇대조부터 이러케 정답게 굴었다'하는듯 하더니 지금은 코큰 량반의 울타리속에 들어가서 네전 인연을 다 끈허버리고 `어느 몫술 놈이 나를 팔아먹었노'하고 구진 비를 눈물삼아 뿌리고 잇습니다. (杏村洞 李順 이)

館洞 -- 獨立館

이 독립관은 넷적 모화관(慕華館)입니다. 여러가지를 다 이야기 하면 무엇합니까. 서늘한 저녁에 재미있게 보시다가 넷 부끄러움과 새 서름이 함께 쓰다지시겠지요.

다른 말 할 것 업시 독개비 이야기나 하겟습니다. 모화관 독개비라면 서투르실는지도 모릅니다. 마는 무아관 독개비라면 누가 모르겟습니까. 무아관이 모화관입니다. 넷날에 소년 몇사람이 이 대청에서 자는데 독개비들이 나오더니 에크 무슨 판서 무슨 대감 무슨 정승이시로군 하드립니다. 그 말을 듣고 담력 세인 소년 하나가 자기는 무엇을 할가 하고 밤중에 모화관을 갔더니 독개비가 굉장히 모이어서 들이지 안트립니다. 주먹으로 두드리며 들어가노라니까 여러 독개비들이 억지 대감 들어오신다 하드립니다. 그뒤에 그가 대감은 되었지만 간신이 되었드랍니다.

독개비가 지금껏 잇스면 물어볼 일이 만치오. 첫째 물어보고 심흔 것은 아마 다 생각하리다. 그런데 그 사람 독개비 등살에 귀신 독개비는 어대로 밀려 갔나보외다. (館洞 金光鉉)

橋北洞 -- 獨立門

교북동 큰 길가에 독립문이 잇습니다. 모양으로만 보면 불란서 파리에 잇는 개선문(凱旋門)과 비슷합니다. 이 문은 독립협회가 일어났을 때에 서재필(徐載弼)이란 이가 주창하여 새우게 된 것입니다. 그우에 새겨잇는 '독립문'이라는 세 글자는 리완용이가 쓴 것입니다. 리완용이란 다른 리완용이가 아니라 조선 귀족령수 후작 각하올시다.

이 독립문께는 그전에 대국척사라는 것이 왕래할 때에 연조문(延詔門)이란 홍살문이 잇섯드랍니다. 연조문이 영은문(迎恩門)으로 개명된지가 벌써 오래건만 속명으로는 근년까지 연주문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연주문 석주(石柱)는 지금까지 남아 잇습니다. 전에는 돌려 매엇든 쇠사슬이 잇섯는데 독립문이 선 뒤에 누가 끈허 버렸답니다. 속박(束縛)당하든 것이 해방되었스니 쇠사슬이 끈허진 것입니다.

년전 삼일운동때 독립문 우에 태극기가 뚜렷이 솟아나서 경찰서에서 씻어버리랴고 `폼푸'질까지 한일이 잇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그리지 못할 곳이라 독개비 좃이라고 그당시 떠들엇습니다.

(橋北洞 金載民)

東崇洞 -- 駱山

이 산은 모다 낙산이라고 불읍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락타산(駱駝山)이라고 하얏습니다. 락타는 다른것이 아니라 동물원에서 약대를 보섯지요. 약대는 이름이오 락타는 자(字)이랍니다. 이 산이 중턱이 움속하야 약대등 갖기 때문에 락타산이라 한 것 갖습니다. 혹 격구루 부쳐서 타락(駝酪)산이라고도 하나 아마 락타산이 원이름이겠지요.

글씨 잘쓰고 글 잘하고 그림까지 그리는 강표암(姜豹菴)선생이 이 근처에 살앗섯드랍니다. 근세로 말하면 부재 리상설(溥齋 李相高)씨의 별장이 잇섯지요. 을사년 도약된 뒤에 어느날 밤인지 달

이 낮가티 밝은데 이 별장에서 술을 취하도록 마시고 표현히 밧그로 나가서 고만 자취를 감추었
답니다. 이십년동안 류리표박하면서 괴로운 맘이 귀신을 울릴만한 경력을 생각하면 첫걸음을 내
노흔 이 산밧 동구도 길게 강개한 기념이 될 것입니다.

이 잔디에 표암의 지평이 자국이야 잇겠스니까마는 이 슬나무의 푸른 그들은 부재의 걸음을 여
러번 멈추엇을 것입니다.

瑞麟洞 -- 拘 置 監

서린동 구치감은 넷날 댐옥(典獄)입니다. 국초적 일은 별별 와전(訛傳)이 만흐니까 다 밧기는 어
렵시오마는 서울안 생왕방터로는 댐옥이 테일이오 댐옥을 생왕방에 짓기는 죄인을 위하여 어대까
지든지 살아 나가게 하려는 뜻이랍니다. 참 그런지야 누가 압니까.

이 옥속에서 죄로 죽은 사람도 만켓시오마는 이름은 세상에 놓고 몸은 이 속에 빠졌든 명신 의
사인들 적겠스니까. 세상이 이러케 된 뒤로 더욱이 죄지은 사람만 가두는 터라고 할 수가 잇습니
까.

디옥은 옥이 아닙니다. 이 생왕방 괴운이 옥속에만 가치어 잇기가 실혀서 널리 좀 퍼져볼가 한
것인지 원체 엄청나게 큰 옥이 담 아니싸코 락성되엇스니까 이까짓 옥은 다 업서지게 되는 것인
지 어찌하얏든지 이 옥은 업서젧습니다. 이것 저것 이야기하야 무엇합니까. 담도 업는 이 큰 옥이
야말로 생왕방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디술 미더 무엇합니까 어떡케든지 살아야지요.

崇仁洞 -- 關 王 廟

임진왜란을 지난뒤 일입니다. 명나라 사신 만세덕(萬世德)이란 사람이 와서 신종황테의 명을 전
하는 말이 관공은 본래 령검이 장하고 임진왜란에도 음조(陰助)가 만흐스니 나라에서 사당을 세워
공을 갑흐라고 하얏습니다. 그래서 동대문 밧게 터를 잡고 경자년부터 역사를 시작하야 삼년만에
필역하얏습니다. 이것이 칙건현령 소덕왕 관공지묘(勅建顯靈昭德王關公之廟)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곳 송인동 명물 관왕묘입니다.

관왕묘 이야기를 하자면 보통 떠도는 것만 하야도 괴가 막히게 만흐니까 다 고만두고 남대문
밧게 잇는 남관왕묘가 이 송인동 관왕묘만 못한것이나 잠간 적어 보겠습니다. 우선 남관왕묘는
명나라 장사 진인(陳寅)이란 사람이 개인으로 세운 것이니 나라에서 세운 송인동 것만 할 수 잇겠
스니까 또 남관왕묘에 잇는 관공상은 털로 만들고 흙을 바른 것이니 송인동 동상(銅像)만 할 수
잇스니까 이 유명한 남관왕묘도 이 송인동 명물만 못한 것이니 안동, 성주, 남원, 강진등 여러 시
골 잇는 것들에야 비교할 여디도 업습니다. 그리고 보니 이 송인동 관왕묘가 우리나라에 잇는 여
러 관왕묘중에 테일 가는 것입니다.

天然洞 -- 天 然 池

서울서 이만 때면 련꼳 구경을 나서지 안습니까. 약도업시 모이는 데는 새문밧 턴연명이지오.
턴연지가 다른것이 아니라 턴연명압 련못이지오. 이 련못의 나히를 세이면 우리의 십사오대조 친
구입니다. 별별풍상도 여러번 격것지만 조흔 일도 여러번 지나 보얏답니다.

송평시절에 풍악석근 바람이 가비엽게 련못 물을 흔들든 것이 어제 일이 아닙니다. 낮설은 타

국사람의 회관(會館)이 명자대신 련못우에 비추일 뿐입니다. 그러나 련화는 군자라 넷적 향기는 그래도 변치 안합니다. 훈정동(薰井洞) 어수움물과 만나지는 못하야도 바람결에 통정은 서로 할 줄로 압니다.

한참 편론(偏論)을 할적에 련못이 다 편색이 잇섯지요. 이 련못은 서인편이 되엇드랍니다. 이 련못 련이 잘되면 서인이 잘된다 하얏섯지요. 꼭꼭 마저왔다는 사람도 잇습니다. 남문 밧게도 련못이 잇섯는데 이는 남인의 련못이라 하얏섯지요. 그러나 말이 낫스니 말이지 점잔흔 이들이 이런 말을 하얏섯습니까. 넷일을 지금 누가 말할수 잇섯습니까. 서늘한 저녁때 련꽃 구경이나 나가시지요.

宮井洞 -- 毓祥宮

숙종대왕(肅宗大王)때 일입니다 자하스골 최씨(崔氏)집안에서 부인 한분이 꺄내에 들어갓습니다. 비빈도 아니요 녀관도 아니요 궁비가튼 나즌 소임으로 들어갓드랍니다. 이 부인이 몸은 천하나 마음은 곱고 얼굴은 밍도록 어엿브지 아니하나 덕성은 부럽도록 만트랍니다.

숙종대왕이 어엿브 장희빈에게 일시 반하셔서 부드러운 민중연을 내쪼치신 일이 잇습니다. 최씨는 민중연을 잇지 못하야 밤마다 사람몰래 축수를 하얏답니다. 어느날 밤에 상감 눈에 들켜답니다. 넷주인 위하는 것을 신통히 여기서서 갓가이 하섯답니다.

낫말은 새가 듯고 밤말은 쥐가 듯는 법이라 슯색시 최씨의 배가 괴상히 불러가는데 까닭을 아는 사람외 말이 한입 두입 건너 희빈 귀에 들어갓드랍니다.

어느날 숙종이 낫잠을 주무시니 비몽사몽간에 내뎐 마당에 노힌 독미테 룡한머리가 나오려다가 못나오고 죽게 되드랍니다. 깜작 놀라시어 내뎐으로 들어가서서 독을 들라 하시니 슯막혀 거의 죽게된 최씨가 독미테 잇드랍니다. 그뒤 최씨 몸에서 영조대왕이 나섯습니다. 이 궁이 최부인 본궁으로 오늘날 궁정동 명물까지 되엇습니다.

蓮建洞 -- 갓바치

련동 갓바치는 네부터 유명합니다. 구쓰인지 구두인지 그것이 들어오더니 소년들의 태사혜, 늙으신 이의 뒷발막, 부인네의 당혜, 아이들의 반결음 이모든 것이 고만 세월이 업서져 지어내는 갓바치가 파리를 날리지요. 나무밋 으스스한 집들이 그네의 생활을 그려냅니다.

중종조때 조정암(趙靜菴)이 피장이 친구가 잇지요. 피장과와 갓바치는 그게 그게랍니다. 지금도 그네들중에 조정암가튼 친구가 몇명이나 잇는지 한번 차저가 볼것입니다. 또 고려(高麗)가 망한뒤에 왕씨(王氏)네가 갓바치 노릇을 만히 하얏답니다. 땅은 왕씨네 땅이 아니니까 땅밧을 신이나 왕씨의 손으로 만들려고 이 노릇을 하얏든가 봅니다. 정암친구 피장이가 왕씨나 아니든지요.

갓바치 한(限)이라고 네부터 유명합니다. 모레 오라면 그글피나 가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러치는 안됩니다. 일거리가 적은 바에 한한날 안될리가 업지요. 그들이 불상하야 광고겸 말이지요.

蓬萊町 -- 貧民窟

안다 안다하니 염천교 건너서서 뚝가튼 이십여채 집에 월세는 삼원씩이요 지어논 주인은 경성

부, 든 사람은 대개 빈민이니 이것이 무엇일가. 알지요. 봉래명 빈민굴! 빈민굴 빈민굴 하니까 다 빈민으로 아지 마십시오. 여기든 사람으로 월수입 칠팔십원되는 사람도 잇답니다. 다시 생각하면 칠팔십원이 무엇이 만습니까 그도 빈민이지요. 그러나 단수입 구원되는 사람도 잇다하니 말이외다. 빈민이라는 칭호가 이사람을 안고 도니까 칠팔십원 수입되는 사람을 끄어들어 오기가 어렵습니다.

구원을 벌어가지고 세식구가 한달을 살았는데 십여전이 남았드란 소문을 들었겠지요. 어떠케 살았는지 암만 생각하여도 알수가 업습니다. 그더러 물어보면 우리야 사는것이 사는것이 아니라고 할것입니다. 한끼 밥은 꿈 밧기라 중국 밀가루 두어줌이면 남비알에 연기가 일어납니다. 이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로력은 데일 만히 한답니다.

고생이야 고생이지오마는 그들은 한울을 우를어 보아야 부끄러움이 업고 땅을 굽어보아도 부끄러움이 업슬것입니다.

體府洞 -- 돌 함 집

백제(百濟)때 서울이든 부여(扶餘)를 가서 들으니 옛바위 근처에 무친 돌함이 잇는데 그속에 백제력사가 들었다고 합디다. 무안(務安)사람의 말을 들으니 신라(新羅)때 최고운(崔孤雲)이 력사와 기타 귀한 책을 돌함에 너허서 무안 어느 절압해 무든 것이 잇다고 합디다. 이 부여, 무안뿐 아니라 각처에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돌아다닙니다.

서울안에는 테부청골에 돌함집이라고 별명잇는 집이 잇습니다. 이집이 그전에 어느 공주댁이드립니다. 그 공주가 병들어 돌아갈 때에 가진 보물을 돌함에 너허서 대청미테 무덧다고 합니다.

이 집의 주인이 갈릴 때마다 대청미를 파 보앗답니다. 족음 욕심이 심한 주인이 오면 압 대스 돌밧과 뒤스마당까지도 파헤쳐답니다. 그 돌함 주인이 될 사람은 한울이 아시는 이라 집에만 잠시 주인노릇하는 사람들이 헛 애만 쓰고 돌함은 구경도 못하얏답니다. 이 돌함의 주인될 사람과 돌함이 주인 밧날 때를 나는 대강 짐작합니다. 텨긱루설하면 텨벌을 밧는 법이라 자세히는 말할 수 업고 어림פות이 말하면 테부동 돌함이 부여, 무안 돌함보다 일이년 뒤쯤 세상에 나올 것입니다.

崇三洞 -- 成均

지금 경학원이 전날 성균관임은 다 아시는 것이 아닙니까. 태학(太學)이라고도 불렀섯고 반궁(泮宮)이라고도 하얏섯지요. 알성장원 경상감사라는 말이 잇지안습니까. 알성과라는 과거를 여기서 보앗드랍니다. 알성은 성인을 뵈옵는다는 뜻이라 상감께서 공자위패에 절하신 뒤에 보이시는 과거랍니다.

경학원이라는 것은 다른 것입니까. 조선총독부 소속 유교본부이지요. 대태학이 잇고 부태학이 잇고 사성이 잇서 늙은이 젊은이 할것 업시 벼슬밧 잘아는 분네는 머리가 터져가며 다툰답니다. 떼타고 바다에 뜨고자 하든 어른이 이 꼴을 보시고 계시겟습니까. 공자님 제사는 헛된 일이 아닐지도 모르지요.

동맹파업 하는데는 이전 성균관 진사님들이 전세계에 전신으로 항렬을 따지면 십대조 뺄이나 되지요. 관진사가 관을 버리고 한강 모래벌만 넘어가면 나라가 망한다 하기 때문에 관진사의 동요가 생기면 온 조령에 큰 소동이 일어나드랍니다. 성균관에 잇는 진사들까지 이러케 권위가 잇섯스니 성균관이야 여간 존송을 바뎛겟습니까. 이러튼 데가 지금 총독부 경학원이 되엇답니다.

積善洞 -- 琮 琛 橋

적선동에 유명한 돌다리가 있습니다. 이름은 종침다리라고 합니다. 성종(成宗)때 허종(許琮)이라는 정승이 있었습니다. 문무겸전하고 풍신이 비범하고 신장이 거의 십이척이나 되는 키다리 정승이 드랍니다.

그 아우 허침(許琛) 허정승은 성종때 동궁 강관(東宮講官)으로 연산군(燕山君) 글을 가르쳤습니다. 달래가며 글을 읽히기 때문에 글을 원수로 여겨 강관까지 미워하든 연산군에게도 허침은 대성인(大聖人)이라는 칭찬을 바뎠습니다.

연산군 어머니 윤씨(尹氏)가 성질이 좀 암상스럽고 세자(世子)난 자세로 좀 방자스럽든지 성종대왕 얼굴에 손톱으로 생채기까지 내었습다. 나중에는 궁내에서 쫓겨나서 약사발까지 안았습다.

윤씨 일이 낫을 때 허종과 허침 두 형제분이 매사에 지각잇든 그 누님에게 처신할 꾀를 물은즉 아들이 세자요 그 어머니가 애매히 죽으면 뒤에 무사할리가 업다고 말하얏습니다. 형제가 사직골 집에서 말을 타고 나오다가 돌다리우에 와서 다가티 락마를 하여 조반참례를 못 하얏습니다. 나중에 허씨집안이 망하지 않기도 락마덕이오 이 돌다리가 종침이란 이름으로 유명하기도 락마덕이랍니다.

昌信洞 -- 昌 信 宮

창신동에는 기막히게 굉장한 집 하나가 있습니다. 이 집이 사가는 사가지오마는 대궐에 지지안는 집이라 아무개 집이라 하기는 흘한듯하야 못쓰겟고 또 송석원인지 솔돌원인지 하는 것 가튼 별호는 업는 모양이니까 동명을 딸아서 창신궁이라고 불러두겟습니다.

우리나라는 넷날 신라때부터 보통사람은 집을 이러케는 세우지 못하는 법이다. 집을 저러케는 치fp하지 못하는 법이다 하야 집에 대하여 대단히 까다라웠습니다. 삼문을 못세우고 두리기둥을 못세우고 부연을 못달고 채색을 못쓰고 하든 것은 여러분도 다 기억하실것이 아닙니까. 지금은 돈만 잇스면 못할것 업는 세상이니까 죽음도 상관업습니다. 이 창신궁을 세웠다고 경찰서가 포도청 대신으로 잡어야 가겟습니까.

이집 주인은 강사람 림씨(林氏)랍니다. 못해보든 놀음을 해보는 김이니 남보담 잘 해본다는데 새로 되는 사람의 기개가 보입니다. 이집 주인이 사돈집 하인에게 집타박을 당하고 골이 나서 그 사돈집 덜미에다가 삼십만원 돈을 들여서 이 대궐가튼 집을 짓고 첩을 두엇습니다.

玉仁洞 -- 松 石 園

착한 이만 사람입니까 악한 자도 사람입니다. 충신효자만 명인입니까 란신적자도 명인입니다. 이름나니 명인이지요. 북부위생소는 똥냄새로 명물이오 새문밭 텅연지(天然地)는 련향(蓮香)으로 명물입니다. 청택을 가릴것 업는 바에 윤자작(尹子爵)의 송석원인들 명물이 아닙니까.

독일식을 모더서 별별 사치를 다한 집이라 대궐도 못떨으겟지요. 그런데 어린아이라도 이집은 떼악마(惡魔)가 얼어부튼 것처럼 흥하게 보아서 저집 참 조타고 부럽게 알지는 안습다. 더구나 뽀죽한 머리를 어떠케 밍게 보앗든지 이 집에 잇는 피뢰침만 보아도 만가지 흥한 수단이 그리로 솟을 것가티 안답다. 이집 마당 련못이 어느 해인가 장마에 터져서 압동리 초가집들이 물벼락

을 마졌는데 손해는 대궐안에서 물어주셨답니다. 그러기에 충심이 그리 가락하지요.

화동은 구선복(具善復)이 다리가 잇고 계동으로 올라가면 서쪽 골목이 홍술해(洪述海)골이랍니다. 문압 다리와 살든 골목이 무슨 죄입니까. 이집을 송석원이라 말고 윤자작터라고 하시지요. 푸른솔 힌돌이 원통하다 할것입니다.

竹添町 -- '굴'

누구든지 서대문밖 감영 네거리에서 마포(麻浦)가는 뉘차를 타고 얼마 아니나가면 그전 팔각명(八角亭) 부근에서부터 땅이 점점 높아가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며 이와 한가지로 뉘차길 밋을 가로지나 돌린 그다지 작지안흔 `터널'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남부럽지 안흔 우리동리 명물입니다. 어찌 `터널'이 한두개에 그치며 한 두곳에만 잇겠습니까마는 이것이 특별히 남다르게 동리 한복판을 뚫코 나간 거기에 명물감이 잇다는 것입니다. 조선에도 `터널'이 꽤 만히 잇지마는 동리 가운데로 뚫코 나간 것은 아주 하나도 업답니다.

그나 그뿐입니까 하로도 십여차씩 길고도 긴 그차바퀴가 들고 나고 할때마다 동리 사람들은 모다 한번씩은 치어다 보고야 만답니다. 전에는 경의선 철도가 룡산을 지나서 가든 것이 이제는 바로 이구멍으로 다니게 되었지요. 이 `터널'은 참으로 거리가 일천이백오십사척(呎)이 되고 총공비가 이십삼만 칠백칠십이원이나 들엇답니다. 시작하기는 지금으로부터 여섯해전 서늘한 구월 일일인데 근 삼년이나 걸려서 한참 더운 룡월 이십오일에야 준공되었답니다.

靑葉町 -- 孝 昌 園

이 효창원은 순조황제(純祖皇帝) 형님 문효세자(文孝世子)의 원소입니다. 홍살문밖과 잔디밭 넓고 또 솔나무 그늘이 조키때문에 이맘때는 놀라 오는 사람이 만습니다. 원소인 효창원을 가르침이 아니라 효창원 해자안에 사람 만히 모여드는 솔알에 잔디밭을 명물이라 한 것이겠지요.

내동리 명물이라니 말입니다. 한동리에서 명물노릇하는 명물이 알뜰은 하지오마는 세상이 다아는 명물을 가진 동리라야 참 기운잇게 명물자랑을 할 것입니다. 빨래하는 녀인네, 작난하는 아이들까지 효창원이라면 누가 몰르겠습니까. 여긔 와서 노는 이들이 가끔 소낙비에 경겁을 하면서도 그래도 또 모여드는 이 효창원이랍니다.

달밤의 솔밭경치는 참으로 형용할 수업시 좃습니다. 그런데 으스스한 곳이엇마는 자살하는 사람은 하나도 아니오고 죽으려다가도 오장까지 서늘한 솔바람에 잡념이 살아진답니다. 한강 털교가 튼 사위스러운 명물과는 향여나 비교하지 마십시오.

通義洞 -- 司 宰 監

사람이 사는데 업서서 못쓸 요긴한 물건이 만습니다마는 어염시수(魚鹽柴水)가 데일이 아닙니까. 그러기에 살 땅을 골르자면 첫재 이네가지가 조흐냐 언짢흐냐 못습니다. 물은 흔한 것이니까 고만두고 어염시가티 요긴한 물건은 또다시 업다고 말할수 잇습니다. 그전에 이 요긴할 물건을 궐내에 공궐하든 관청이 사재감입니다. 데일 존귀한 곳에 데일 요긴한 물건을 공궐하는 관청이니 관청중 데일가는 관청이 이 사재감이라고 말할수 잇습니다. 이것이 우리 통의동 명물입니다.

사재감이 사재감 노릇을 못하게 된 뒤에 잠간 마대(馬隊)가 들엇섯고 또 오랫동안 공청으로 잇

섯답니다. 지금은 되지 못한 채 하나만 남아있고 모다 빈 터전이 되었는데 이 터전주인이 고리대금업하는 일인입니다. 외, 호박 덩굴지고 수수 또는 옥수수때 웃둑웃둑선 밧모통이를 돌아서 늑은 회화나무 미테를 가며는 전에 부군당이 잇든 터전이 잇습니다. 이 부군당의 부군은 고려 공민왕(恭愍王)이드랍니다. 이 부군이 령검이 잇서서 부군당 물건을 훔쳐가는 도적놈은 담에다 꼭 부쳐노트랍니다. 그 령검도 지금은 물을 곳이 업게되고 회화나무그늘이 동리 늑은이의 조름터가 될 뿐입니다.

淸雲洞 -- 淸 風 溪

효자동 큰길로 한참 올라가면 맑은 내수물이 시원한 소리를 내고 북산으로부터 불어 내려오는 바람이 흐르는 물과 가티 맑습니다. 청풍계라는 이름이 참으로 부끄럽지 안치오.

그러나 맑은 바람 맑은 물이야 그리 귀할 것이 잇습니까. 청풍계가 명물되기는 물과 바람보다도 내수에 잇는 넷집하나 까닭에 명물이랍니다. 넷집인들 다 명물이겠습니까 이 집은 명축년(丁丑年) 강화(江華)란리에 절사한 선원 김상용(仙源 金尙容)씨 구택입니다. 이 집이야 명물에 빠질수 잇습니까. 농암(農巖)의 '청풍로수금상재'(淸風老嫂今尙在)라는 글귀가 잇습니다. 농암이 이집에 오면 과거하는 로인 수씨가 술을 내보내 들입니다. 혈혈한 부인 한분이라도 이 집을 지키어가기에 족음도 부족함이 업든 것을 보면 고금의 늦김이 자연히 일어납니다.

이집이 지금은 일본사람의 집이랍니다. 태황데 계실때 이 집이 궁중소속이 되게 된 것을 특별히 돌우 내어 주섯섯지오. 그뒤 일이야 말할것 잇습니까. 맑은 바람 맑은 물까지도 고금이 달랏스면 오히려 우리의 늦김이 덜할것 갓습니다.

武橋町 -- 櫛 塵

누구든지 무교명 큰길로 다녀본 사람은 길거리에 장단이 만흔 것을 보앗을 것입니다. 이 장단 만흔거야 말로 이 동리의 명물이고 겸하여 자랑거리입니다.

그 큰 거리에 장단이 즐비하게 잇는것이 장관도 장관이지오마는 그러한 의미보다도 이 동리에서 만들어내는 장과 조선사람 생활과의 관계가 더욱 자랑할 만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십히 장이라는 것은 조선 고유의 물건입니다. 결코 외국물건이 아니오 조선사람의 손으로 되는 생산품입니다. 물산장려를 떠드는 오늘날에 이 동리에서 조선고유의 물건을 생산한다는 것도 결코 범연한 일이 아닐가 합니다.

물론 돈업는 사람에게는 비싼 물건을 사서 물산장려한다는 것이 돌이어 까닭모를 일이겠습니다 마는 이 동리의 장으로 말하면 외국'의거리'에 비하여 값이 매우 싸니까 물산장려 되고 값싼것을 살수가 잇습니다.

아름다운 색시가 시집갈 때에는 반듯이 꿀가튼 새살림을 꿈꾸면서 이동리 장단을 차저와서 한번 자기의 고흔 얼굴을 장식경에 비추어보고 희망에 넘치는 맘으로 장을 사가지고 갑니다. 이것도 다른 동리에 업는 이 동리 자랑거리의 하나입니다.

西大門町 -- 興 化 門

이 흥화문이 한동리 명물이 될 줄이야 생각이나 하얏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일본사람 중학교

만 알겠지요마는 이십세 이상이야 누가 새문안 대궐을 모르겠습니까. 흥화문은 이대궐 정문이드랍니다.

이전에 달렸든 현판글씨가 어찌 잘 씻든지 밤이면 광채가 나드립니다. 야조가라는 이름이 어찌 하여 생기었습니까. '밤야'비칠조' 밤에 비추인다고 야조가라 하얏답니다. 임진란리에 이 현판이 불속으로 들어간 뒤로 이 광채를 차츰차츰 업습니다. 불속에 조출하게 살아진 것이야 오히려 어 떤것습니까마는 지금 달려잇는 현판 글씨야말로 참 가엽게 되었습니.

명종조께서 이 대궐에 만히 계셨는데 어느날 새벽엔 싸락눈이 와서 길로 지나가는 신발소리가 자박자박 들리드립니다. 그 사람을 불러들여다 보시니까 문밖 어느 선비가 괴별(官報)어들어 보내는 하인이드립니다. 선비가 글은 아니읽고 이것은 보아 무엇하느냐고 그 선비를 잡아다가 걱 정을 하시니 그 선비가 상감께서 안녕히 주무셨나 궁금하야 이를 알려고 이를 어들어 보냈습니 다 하고 능청스러운 대답을 하얏섯답니다.

惠化洞 -- 風 車

동소문안 혜화동에 덕국사람들이 사는데가 잇습니. 그안에 공장이 잇고 학교가 잇고 괴숙사 가 잇고 나물밭이 잇고 가진 각색 것이 다 잇고 교당까지 잇습니. 아니올시다. 덕국을 줄여다 노흔 것입니다. 물산장려를 주장하고 자작자급을 말슴하는 이들이 본떠올만 합니다.

덕국남부 '뮌헨'이라는 곳에 잇는 로마구교(羅馬舊敎) '쌍오텔리'라는 본부에서 사람과 돈을 보내 어 이것을 경영한답니. 대전쟁중에는 미국에 잇는 로마구교에서 돈을 대엇답니. 로마법황에게 서 이것은 법국사람을 주고 원산(元山)으로 가서 다시 괴초를 닷그라는 명령이 잇섯다 하니 이 덕 국촌이 얼마안가서 법국촌이 될듯합니다.

아즉은 덕국사람의 촌으로 잇는 이곳에 괴상야릇한 물건하나 잇습니. 이것이 풍차(風車)인줄 아는 사람은 덜어잇스나 무엇에 쓰는 것인지 아는 사람은 드믄 모양입니다. 아는 사람의 말을 들 은즉 이것이 무자위랍니다. 바람의힘을 리용하야 깃흔 움물에서 물을 자아올리는 신식 들에박이 랍니다. 세포(洗浦)사람은 눈이 시도록 보는 것이지마는 서울서는 이 혜화동(惠化洞)것이 희귀한 명물노릇을 한답니.

平洞 -- 網 巾 房

새 문을 나서서 성을 끼고 북으로 돌면 놉다란 언덕우에 성황당가튼 외따른 집 하나가 잇지 아 니합니까. 평동 망건방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집도 여러번 집을 밧구엇겠지요마는 망건일하는 사람만 잇섯기때문에 년세로 보든지 꾸준한 것으로 보든지 평동 망건방을 명물에 빼일수 업습니 다.

망건은 명나라 물건입니다. 명태조(明太祖)가 텨자된 뒤에 어느 도관(道觀)을 갖더니 어떤 도사 하나가 머리동이는 물건을 만들어 두고 쓰드립니다. 이것이 망건력사의 첫 '폐지'이지요. 도사의 만든 것이 텨자의 위엄을 빌어서 하로 아츰에 텨하사람의 머리를 꼼작못하게 묵것답니. 만만한 조선사람이라 할수업시 딸아 당하얏섯지요.

망건이 우리것도 아니요 편한것도 아니겠지마는 세월이 오램으로 자연히 정이 들어서 머리가 압흐지만 모자를 밧구지안는 이도 잇습니. 제머리는 깝거 버리고 남만 골리려고 중대강이로 망 건을 뜨고 안즌사람도 잇습니. 이 집주인은 중대강이나 아닌지요.

二村洞 -- 水 害

명물명물하니 이촌동의 수해처럼 유명하고 지긋지긋한 명물이 어대 잇겠습니까. 이촌동! 하면 세상사람은 벌써 장마때 수해나는 곳인 줄을 련상합니다.

말씀하십시오. 해마다 수해라면 지긋지긋합니다. 심술 사나운 싯범언 흙탕물이 추녀곶까지 몰려 들어와서 참혹히 죽어 떠나려가는 사람, 집을 떠내보내고 의지가업서 쏘다지는 비속에서 주리고 벗은 몸을 떨고잇는 사람, 모든 참혹한 광경이 눈압헤 선합니다. 수해도 한두번이지 이촌동의 수해처럼 해마다 당하는 수해야 넓은 텃하에 또 어대 잇겠습니까.

조선사람이 사천명이나 사는 이촌동에 이러케 해마다 수해가 나서 인축의 사상과 피해가 적지 아니하되 아즉도 완전한 뚝(堤坊)하나 업습니다. 구룡산 원명(舊龍山元町) 일본사람들 사는 곳에는 경성부에서 수백만원 돈을 들이어 뚝을 완전히 싸하 한달 장마가 저도 꼼짝 안하게 하야노코, 떠나가고 남은 이촌동의 움막살이들은 울여름에 비가오면 또 물야단이 나겠습니까.

명물이라니 말이지 이런 끔찍한 명물이야 또 어대 잇겠습니까.

昌成洞 -- 썩 은 다 리

백이(伯夷)는 개결하기 짝이업는 이라 탐천(貪泉)물을 마시지 아니하고 증자(曾子)는 효성이 출턴한 이라 승모리(勝母里)를 들어가지 아니 하얏답니다. 그러나 샘이야 무슨 힘이 잇스며 동리야 무슨 죄가 잇겠습니까. 이름지은 사람의 심사가 고약할 뿐입니다.

서십사각 모퉁이에서 룡상궁을 바라보며 올라가려면 영추문을 막 지나서 돌다리가 하나가 잇습니다. 튼튼하고 보기 조흐나 썩은다리라는 이름을 갖기 때문에 창성동 명물이라 합니다. 이름은 썩은다리라도 누가 보든지 성하니까 곤달의 알지고 성밋 못가는 사람도 맘노코 다닌답니다.

삼각명 굽은다리는 곳고도 굽다는 이름을 었고, 창성동 썩은다리는 성하고도 썩었다는 이름을 어덧습니다. 과부설음은 과부가 안다고 두 다리를 한데 모아 노흐면 설은 사정이 만홀 것업니다. 그러나 그 다리 미테는 병아리 죽은것, 강아지 죽은것 가지각색 썩은 물건이 떠날 때가 업서서 그런 이름을 어덧답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씻고 까불을 뿐이지 다리야 무슨 잘못이 잇겠습니까.

崇一洞 -- 앵 도 밧

'옥창앵도오견화(玉窓櫻桃五見化) 님 못본지 다섯 해라' 놀애가락에 올른 앵도꽃이 꽃으로는 보잘것이 업습니다. 옥련몽 보신 이는 알으시리다. 양창곡이 집안식구가 각기 자기 맘에 드는 꽃을 주어달 때 어느 계집아이년 대답이 앵도꽃이 조타고 하지 안햇습니까. 왜 조흐냐? 꽃에다가 힘을 다 들이지 아니하고 열매를 꽃보다 더 조케 맏는다고 하얏다지오.

납사귀로 꽃보다 조키는 서리마즌 단풍납이요, 열매로 꽃보다 조키는 앵도열매가 아닙니까. 그 렷키에 시짓는 사람, 그림그리는 사람의 조흔 재료가 되는 것업니다. 푸른 입미테 붉은 구슬가튼 열매가 달린 것을 생각만이라도 해봅시오 시꺼리, 그림꺼리 못되겠습니까. 게다가 옥가튼 손으로 따는 것까지 너허보면 맛이 더 잇겠지오.

서울안의 앵도꽃은 송동이 데일이라. 앵도철에는 송동에 오고가는 사람이 꼬치지 안습니다. 녀전 송동이 지금 이름으로 송일동이랍니다. '대한'이라는 나라이름이 '조선'으로 변한 오늘날에 동리 이름인들 거저 잇슬리가 잇겠습니까.

新橋洞 -- 宣 禧 宮

이 선희궁(宣禧宮)은 장조황태사친(莊祖皇帝私親) 영빈 리씨(映嬪李氏) 궁이랍니다. 궁이라니 그 량반이 궁에 나와서 지내든 것이 아닙니다. 사가로 말하면 사천모양으로 범백일용을 모다 이궁에서 바치든 것입니다.

한업시 불상하신 자데님을 두신 어머님이라 이 량반도 여간 불상한 량반이 아니랍니다. 등창으로 돌아간 것만 보아도 가슴에 싸힌 슬픔과 뼈속에 사모친 한이 어뎠던 것을 생각할 수 있지요. 슬픈 명정이 유경원(綏慶園)을 향한 뒤로 이 궁은 폐하얏답니다.

영친왕이 태중에 잇슬 때에 순헌귀비(淳獻貴妃)가 꿈에 영빈을 뵈었는데 폐한 궁을 다시 만들어 달라고 말씀하드랍니다. 그리고 영친왕이 나니까 명명중 도으신 은혜와 력력하게 부탁하신 말씀을 생각하여 태황태께 엿줍고 이 궁을 다시 만들엇답니다.

세상이 꿈입니다. 어느듯 다시만든 이 궁이 지금은 맹아원(盲兒院)이 되었답니다. 순헌귀비도 이 세상을 떠난지 오래니 꿈에 뵈옵든 영빈을 모시고 지내일 것가트면 꿈가튼 세상 일을 눈물석거 말씀할 것입니다.

玉川洞 -- 硯 滴 橋

명물이란 명짜가 이름 명짜가 아닙니까. 명물에는 이름뿐인 명물이 알짜 명물이랍니다. 옥천동 연덕교는 실물로는 맹랑하나 명물로는 상당하지요.

지금 잇는 뛰엄다리 돌맹이가 전에는 복판에 구멍이 나서 한귀로 통하얏섯드랍니다. 흘러오는 산골물이 풍풍거리며 복판구멍으로 들어가서 한귀구멍으로 쭈쭈 흘러 빠지는 것이 마치 연덕 갖기 때문에 이 돌을 밟고 지나는 사람마다 연덕교 연덕교 하얏드랍니다. 언제부터 깨어지고 떨어져서 연덕 가튼 형태가 업서져는지는 모릅니다 마는 이름은 지금까지 전합니다. 이름만 남앗스니 알짜 명물이 아닙니까.

연덕교는 잇든지 업든지 흐르는 물은 옥가티 맑습니다. 이름모르는 푸른새가 날라오고 날라갑니다. 문인묵객의 흥치나게 되었지요. 언덕은 업슬망정 벼루물은 좃습니다. 그러나 경치는 실물이라 아모리 조트라도 지금 명물노릇하는 연덕교가티 이름만 남은 알짜명물이 아니기에 다 말씀아니합니다.

麻浦洞 -- 麻 浦

마포는 속명으로 부르면 삼개라고 합니다.삼개는 룡산서 보면 물 알에요 서강(西江)서 보면 물 우입니다. 그전에 대동배 올라다닐제 룡산에 경상도, 충청도, 물우 경기도 배가 와서 닷고 서강에 황해도, 전라도 물알에 경기도 배가 와서 닷섯는데 삼개에는 와서 닷는 배가 업섯드랍니다.

삼개는 네전 이야기나 잇서야 명물갑슬 올릴 터인데 원수에 잇서야지요. 네전 이야기야 잇겠지요 마는 원수에 알아야지요. 탈났습니다. 탈이 낫다니까 물탈로는 알지 마십시오. 몇백호가 물란리를 맞나는 것이 탈이 아니겄습니까 마는 명물인 우리 삼개를 재미있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이 탈입니다.

새가 날려면 날개를 움으리는 모양으로 짹짹한 이야기가 나오려니까 승거운 말이 만습니다. 소

곰배도 여기와 닳고 새우젓, 조끼젓 잔득 실은 배들이 빈틈업시 들어서면 온동리 사람은 맨밥만 먹어도 송겨운 줄을 모른답니다. 그러타고 삼개에 사는 사람들은 충주 자린곱으로는 알지 마십시오. 짜디짠 이야기를 짜고짜서 내는것이 요뿐입니다.

社稷洞 -- 社 稷 壇

우리 조선 태조(太祖)께서 즉위하신 이듬해에 도읍을 한양에 명하시고 또 그 이듬해에 사직을 세우고 춘추로 제향을 지내게 하셨습니다. 이 사직이 있는가닭에 동리 이름을 오늘날까지도 사직골이라고 불르게 되었드랍니다.

사직은 단(壇)이 둘인데 주위(主位)로는 각각 석주(石主)를 모셨습니다. 동편에 있는 것이 사(社)라는 것이니 후토씨(后土氏)로 배위를 삼고 서편에 있는 것이 직(稷)이라는 것이니 후직씨(后稷氏)로 배위를 삼았답니다.

이 사직의 력사로는 재미있는 이야기꺼리 될만한 것이 업습니다. 그러하니까 재미업는 것이나 마 하나 적어보겠습니다. 선조(宣祖)때 가을제향을 지내려고 관헌이 들어가보니 후직씨 위패가 업서젓드랍니다. 갑자기 차wmf 수도 업고 맨들 수도 업서서 허위(虛位)에 제향을 지낸뒤에 여러가지 수단을 다 부려서 차저분즉 위패가 사직단근처 어느 나무미테 무쳤드랍니다. 채근해본 결과 수복이가 사직서(社稷署)관원을 모함하려고 훔쳐다 무든 것을 알고 그 수복이를 대역률로 죽였답니다. 이야기는 송겁지마는 고만입니다.

樓上洞 -- 白 虎 亭 址

루각골 막바지에 백호명이라는 사명(射亭) 터가 있습니다. 락산 청룡명터, 새문안 황학명터에 활시위 소리가 끈허진 뒤에도 이 백호명터에는 갓금 가다가 관혁에 살맞는 소리와 지화자 소리가 석겨 들렸섯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바위우에 섰는 소나무의 바람소리가 들릴 뿐입니다.

그전의 사명주인은 '활량'들이엇습니다. 활량은 근년의 무관학도와 비슷한 것이니 사명을 구식 사격장이라고 할 수 잇슬 듯합니다. 하여튼지 '활량'이 업는 세상에 사명이 잇서 무엇하겟습니까. 지금도 활쏘는 이들은 덜어 잇스나 이것은 운동으로, 소일로, 쏘는 것이니까 그전 '활량'들처럼 무기(武技)를 공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넛날에 가장 유력하든 병장기 활이 지금 반 작난감빚게 아니되니 넛일을 밀우어 지금 일도 알지오. 만국공법이 대포한방만 못하다는 대포도 지금 활신세가티 될 날이 잇슬 것입니다. 벌서 살인광선이니 무엇이니 발명되엇다는 것을 들으면 그날이 그리 멀지도 안홀 것 갓습니다. 그날이 오면 오늘 룡산 턴병장가튼 것이 루각골 백호명터가티 쓸쓸하게 될 것입니다.

峴底洞 -- 刑 務 所

현덕동에는 다른 동리에 별로 업는 형무소라는 무서운 명물이 잇습니다. 형무소라는 말은 시테 말이고 녀전 이름은 감옥소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무엇이 불행하니 무엇이 불행하니 한들 형무소 안에서 고생하는 사람들보다 더 불행한 사람들이 어대 잇겟습니까.

그네들도 어머니 배속에서 나올제야 나도 한번 세상에 나아가서 복잇고 팔자조케 땡땡거리고

살아보려고 나왔겠지요마는 어찌어찌하다가 고만 그러케 자기몸하나 맘대로 가지지 못하게 되고
긋게 다친 쇠문, 높히 싸흔 벽돌담 속에서 눈물과 한숨으로 보낸답니다.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기는 일반이엇만 어떤 사람은 팔자 조하 고량진미에 실증이 나서 자동
차 타고 산보다니고 어떤사람은 먹고 입을 것 업서 목구멍이 원수라 맘을 잠간 이상히 먹고 무엇
을 어쩔다가는 감옥소 콩밥에 머리가 세이게 됩니다 그러.

세상은 밤낮 경찰서니 감옥소니하는 살풍경한 세상이니 말하면 무엇합니까. 언제나 한번 세상
이 화평하야져서 경찰서니 감옥소니 하는 무서운 물건이 업서질는지요.

彌雲洞 -- 돌 거 북

필운동 돌거북은 네부터 유명합니다. 지금은 통칭으로 필운동이라고 합니다마는 돌거북이 있는
곳은 거북골이라 하얏지요. 단청한 집을 지어서 이 명물을 그안에 위하야 노코 복비는 사람들이
절을 시작하면 곳이 업섯드립니다. 이왕은 령검하얏다는데 돌거북도 늙엇든지 빈 절만 얼마뵈다
가 차차 절이 줄어들며 산수병풍을 치게 되엇답니다.

등우에 비스물 박엇든 흔적이 잇스면 비바침이라고 하겠는데 아조 흠업는 등어리니 이것은 분
명아니지요. 거북을 돌로 새겨서 길가에 노핫스니 이무슨 까닭입니까. 이전에 경회루(慶會樓)압 련
못에 돌거북이 잇섯는데 임진왜란때 경회루에다가 암만 불을 질러도 타지를 안트립니다. 이 무슨
조화가 잇는가 하야 련못속을 뒤져서 돌거북을 끌어내니 그때에야 불이 붓드립니다. 필운동 돌거
북이 경북궁안 돌가북이 아닌지 모르지요. 명물은 명물이나 래력이 불명하니 불명할스록 별별 와
전이 만습니다. 들은 말은 만치오마는 돌거북이 말하기 전에는 언제든 의심만 납니다.

需昌洞 -- 內 需 司

수창동 내수사는 업서진지 오래입니다. 오즉 넷대문이 남아잇고 넷현판이 달려잇슬 뿐입니다.
내수사 안 움물이야 참으로 유명하지요. 체증 잇는 사람이 이 동리에 와서 얼마를 지내면 약 먹
을 것업시 속이 시원하다합니다.

내수사라는 것은 궐내에서 소용되는 쌀, 포목, 다른 잡색 물건과 남녀 노비까지 마튼 데드랍니
다. 우리는 후생이라 넷일을 자세히는 모르나 구실 하나를 다니드라도 내수사가 무던히 움푹한
데드랍니다. 만사가 창상(滄桑)이라 내수사는 대문이나마 남앗습니다마는 자최도 차질 수 업게 된
데가 얼마인지 모르지요.

대신집 큰 잔치에는 장악원에서 악공이 나오고 내수사에서 교자가 나왔지요. 태평세월 조흔 때
에 내수사, 장악원이 어대 가든지 조흔 짝이드립니다. 명동에 잇는 동양척식회사 집이 장악원 넷
터인데 자최나 잇습니까. 그러나 내수사 대문이 알음이 잇다 하면 남아잇는 그 한이 오작 하겠습
니까. 물은 어느 때든지 새 물이라 이 한 저 한 몰르겠지요. 물까지 한이 잇스면 먹어선들 시원하
겠습니까.

貞洞 -- 西 洋 人 村

처음 서양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는 썩 오래전 일입니다. 로마구교 선교사들이 선교하러
들어온 것이 그 시초라고 합니다. 선교사가 중국으로부터 들어와서 몰래 몰래 선교하다가 대원군

때에 와서 한번 몹시 서리를 마젓답니다. 그뒤 얼마 지나지 안아서 세상이 변하야 은자국(隱者國) 별명을 들든 우리나라가 외국과 통상도약을 맺게 되어 서양사람이 우리나라 안에서 맘을 턱노코 돌아다니게 되었습시다.

우리조선에 영환지략(瀛寰志略)이란 책과 곤여전도(坤輿全圖)라는 디도나마 본 사람이 만치 못 하얏슬 때 우리사이에 서양사람에 대한 별 웃으운 이야기가 돌아다녔답시다. 추어 말하면 '양대인', 낫비 말하면 '생국놈'들은 꿈지가 잇다고도 하고 연어새끼가 사람된 것이라고도 하얏섯드랍시다. 별별 이야기가 다 만흐나 지금 생각나는것은 모두 길어서 손을 대지못하고 내버립시다.

서양사람이 만히 모여사는 데가 서울 안에는 정동입니다. 정동거리를 지나자면 류리창 열린 곳에서 '피아노'소리가 흘러나오고 뜰나무 별려선 사이에 사옷(紗衣)자락이 날립시다. 이것은 참 서양사람의 촌이로구나 하고 누구나 생각하게 됩시다.

諫洞 -- 宮 人 家

네부터 동양시인은 궁인을 두고 지은 글이 만습시다. 어려서 곱흔 궁중에 들어가서 봄바람 가을달에 설음이 몸과 가티 자라는 그들이라 그 정경이 글에 울으면 곱고도 곱흔 정한(情恨)이 한업시 일어납시다. 데왕(帝王)의 한번 불음을 바라고 일생을 거울 압해서 녹이어버리는 그 설음을 생각하면 정만흔 시인이 심상하게 볼수 업습시다.

바람이 허사라도 그 임검이 계신 때면 혼자 안저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한편으로는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의지가 되어 오히려 설음이 덜할 것업시다. 한울가티 미뎃다가 꿈가티 여인 뒤에 그 설음이 어뎡하겠습니까. 간동 골목안에 새로지은 두집이 잇시오. 이 집은 다 - 태황데 계실 때 궁중에 잇든 궁인의 집이랍시다. 지날 때마다 그들의 설음을 한번씩 생각하야 봅시다. 은총(恩寵)을 못입엇다 하드라도 그 설음이 곱흐려든 갖가이 모시든 궁인이면 더욱이 어뎡하겠습니까.

우리는 시인이 아납시다마는, 이 몇줄을 보시고 늦기시는 이가 잇다하면 이 몇줄도 시노릇을 할것업시다.
(諫洞 朴 漢 鎭)

水下町 -- 日 人 貧 民 窟

수하명에는 일본사람의 빈민굴이 잇습시다. 진고개 구경하고 오는 길에 들어가보면 빈민굴인 것이 분명합시다마는 보통 조선사람 사는 것만 보든 눈에는 빈민굴이라면 쇠통 고지 들리지 안홀만큼 홀륭합시다.

형무소(刑務所) 안에서 무서운 나으리 노릇하는 간수(看守)들도 이 안에 만히 살고 창덕궁(昌德宮)이나 총독부(總督府) 가튼데서 출입하고 관람하는 사람들을 총찰하는 수위(守衛)들도 이 안에 만히 산답시다. 이 안에 사는 사람중에는 지금 이러한 조흔 구실 가진 이들이 만히 살뿐 아납시다. 장래에 큰 부자사람도 생길 것이오 큰 공명할 사람도 생길 것업시다. 이런 것을 생기게 하느라고 인심조흔 조선사람이 죽을 지경이랍시다.

조선사람으로는 빈민굴이라고 하기 황송한 이 빈민굴에는 집이 여러 채가 잇고 집한 채에 여러 가구가 산답시다. 여러 집들을 지은 재목은 대개 새 재목이 아니오 헌 재목인데 헌 재목으로는 홀륭합시다. 이런 조흔 재목이 어대서 나온 것이냐 하면 다 - 경복궁(景福宮) 대궐안에서 뜨더넌 것이랍시다. 물론 경복궁이 이 빈민굴집 지으라고 뜻긴 것은 아니겠지요?

(水下町 尹 熹)

崇二洞 -- 自動車修繕工場(京城工業社)

뽕뽕거리면서 부연 문지를 제 키보다 왕존장치에 일으키는 자동차야말로 참 기운조코 위풍잇는 물건이지오. 병에는 장사가 업나 푹디다 송이동에 자동차 수선공장이라는 자동차병원이 잇지 안 습니까. 이것만 보아도 병에는 장사가 업는 것입니다.

이 공장은 서양사람의 공장인데 조선사람과 일본사람 심부름군도 잇다고 합니다. 무쇠힘줄 돌 몸으로 병업슬 건축이랍니다. 이 동리는 한가하고 정결한 동리이라 구경하려고 업슬 곳인데 골고로 가티 당하라고 자동차 수선공장인지 병원인지 청하지 안흔 손처럼 어느 겨를에 와서 잇습니다. 가튼 자동차 문지라도 여기 오는 자동차 문지는 제 몸의 왕존장은 되지 못하지오.

탕자음부를 밤낫업시 더리고 다니는 것을 보면 자동차도 여간 불량자가 아닙니다. 불량객들이 남을 꼬이어 내려면 단꿀가튼 말이 여간 만치안컷마는 이 불량객은 어느 뽕뽕 소리뿐인데 한번만 가티 다녀보면 밤낫업시 훌리니 이것도 이상한 일입니다. 자동차의 병은 이 집에서 고치려니와 탕자들의 집 망하고 몸 망할 큰병은 어대가야 고칠는지오.

中林洞 -- 天主教堂

서울서 텨주교당 하면 대개는 종현 뽕죽집으로만 녀깁니다. 그러나 새문뽕 중림동에도 텨주교당이 잇습니다. 텨주교당은 종현 작은 집뽕뽕게 아니됩니다. 내 동리 명물에 큰집을 빼고 작은집을 녀흔것은 큰집의 안진 자리가 명물 골르는 요건에 맞지안는 까닭이랍니다. 이왕 큰 집이 빠졌스니까 이 작은 집이 큰 집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종현교당이 대표가 되고보면 의례히 조선안 모든 텨주교당의 대표가 될 것이 아납니까. 그러기에 이 중림 교당이 내동리 명물중에서 우리 조선안 모든 텨주교당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조선대표 텨주교당 이야기로는 전조선 텨주교 력사가 가장 상당할 것이오 텨주교 력사로는 피흘린 력사가 가장 귀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텨주교가 우리조선에 들어와서 피흘린 이야기를 하렵니다. 처음 피흘리기는 순조 원년(純祖元年) 일입니다. 그때 피흘린 사람중에 우리 조선사람으로는 리가환(李家煥) 리승훈(李昇薰) 덩약중(丁若鍾) 가튼이가 유명하고 외국사람으로는 청국인 주문모(周文謨)가 유명합니다. 그뒤 태황데 삼년에도 만흔 사람이 피를 흘렸는데 유명한 조선사람은 남중삼(南鍾三) 리신규(李身達) 흥봉주(洪鳳周) 가튼이오 외국사람은 법국선교사 십여명이 잇섯답니다.

崇四洞 -- 月沙舊基

월사라는 량반은 삼백년이전 명망잇든 대신입니다. 풍신 조코 글 잘하고 문벌 숭상할 때 처디까지 명문인 까닭에 더욱이 인망이 높혔드랍니다. 지금 총독부의원 동팔호텔 뒤에 일본 사람의 화초 심그고 채소 길르는 밭이 잇습니다. 아모리 우거진 입사귀와 버든 덩굴이 온뽕을 덮혔다 하야도 이 밭이 월사의 구기(舊基)인 것은 가리지 못하야 명물에까지 올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조선은 단엽홍매(單葉紅梅)가 업드랍니다. 월사가 중국사신을 갔다가 명나라 임검에게 단엽홍매를 어더가지고 와서 뜰압헤 심었는 이 홍매의 자손이 거의 월사 후에 만치나 번성하야 명예잇는 종족이 각처에 피졌섯답니다. 이뽕 어느땅에 이 홍매를 심었섯든지 전일을 물을 곳이 업 습니다마는 이뽕은 일부가 꽃뽕이라 지금 꽃을 보니 넷생각을 아니할 수 업습니다.

구기말이 낫스니 말입니다. 우리는 어쩌한 일인지 넷량반의 구기를 보면 한업는 늦김이 있습니다. 작은 구기 큰 구기 구기란 구기를 다 찾기 전에는 이 늦김으로나 문서대신 품속에 품어둘가 합니다.

通義洞 -- 東 拓 舍 宅

동택인지 도척인지 하는 회사가 어떤 의미로 조선의 명물이라 하면 그회사 사람들이 들어있는 동 사택이 우리 통의동의 명물이라 하면 좀 창피는 하지마는 당연하다고 할수있게 업습니다.

그네들은 불상한 소작인의 땀으로 지은 농사와 채무자들의 바치는 돈을 힘안들이고 바다서 이 러케 훌륭한 집을 짓고 산답니다.

이런 집들 때문에 남부녀대하고 사랑하는 고국을 떠난 사람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 집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살리노라고 조석을 걱정하면서 거리로 방황하는 형태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 러케 의리가 업는 일을 하는 것들은 속히 물리쳐 우리 동리의 이름과 가티'의에통'하고 리치에 사 모칠 날이 언제 잇슬는지오.

더운날 속상하는 말은 구만두고 웃으운 이야기나 하나 합시다. 이 사택중에는 들기만하면 상 처하는 흥가가 있다고 하여 그에 혈고 말앗답니다. 소작인에게는 영악한 그네들도 미신에는 설 설 기는 모양입니다. (通義洞 吳 八 龍)

梨花洞 -- 長 生 殿

네전부터 임검이 즉위하는 날 곳 재궁(梓宮)을 만들어서 해마다 칠을 하는 법이 잇섯습니다. 재 궁이라면 열른 알기 어렵지오. 임검의 관(棺)이 재궁이랍니다. 중국 한나라적에 관은 도성 동쪽에 집을 짓고 너허 두엇섯는데 그뒤에 대개는 이 전례를 조차서 우리나라도 재궁 두는 집을 서울 동 쪽에 지엇섯습니다. 이 집에 재궁만 두는 것이 아니라 판재가 한업시 만합습니다.

궐내 소용도 하고 대신이나 대신이하에도 큰 공로가 잇는 량반이 돌아가면 전교가 나서 이 집 에 잇는 판재가 나리엇답니다. 이 판재를 동원부기(東園副器)라고 하지오. 동쪽이라 동원이오 여 별 것이라 부기랍니다. 근세에도 조충정, 민충정이 다 - 이 판재에 누어 계시답니다.

만사가 모다 변천한 오늘날 이집은 네턴듯 그대로 잇습니다. 해마다 칠하는 전례도 아즉까지 변하지 아니하얏습니다. 밝기 검은 칠은 아모나 다 하야도 안의 붉은 칠은 재궁 이외에는 못하는 법 이엇섯는데 지금은 안칠까지 하는 자가 만습니다. 이야기는 이때껏 하얏는데 정작 말할 것은 이엇습니다그려! 이 집은 리화동에 잇는 장생殿이야요. (梨花洞 具 仁 洙)

西界洞 -- '편 싹 터'

서계동에는 굴개라는 유명한 편싹터가 잇습니다. 편싹터가 명물에 올리게 되엇스니 편싹 이야 기나 하겡습니다. 서울서 편싹터로 유명하기는 이 남대문밖 굴개 이외에 서소문밖게 녹개천이 잇 고 새문밖게 모화관이 잇고 동대문밖게 무당개울이 잇고 공덕리도 잇고 또 동대문안 조산도 잇습 니다. 종친부 개천가 편싹터는 폐한지가 오래라 아는 사람도 지금은 드뭅니다.

인제는 유명한 편싹군 얘기를 해보겡는데 허락마튼 지면이 얼마 못되니 들은대로 성명이나 적 겡습니다. 편싹은 네전 전쟁실습이라 이알에 나오는 사람은 말하자면 명장감들입니다. 인사동 사

람으로 리호보(李虎甫) 문성문(文聖汶)이, 김수동(金壽同)이, 사직골 사람으로 손개똥이 서석길(徐石吉)이 김만식 윤수복(尹壽福)이, 관골 사람으로 리흥문(李興文)이 홍진흥(洪鎭興)이, 우대사람으로 태곰보 최명길(崔命吉)이 윤희영(尹熙永)이 손천만(孫千萬)이고, 강태진(姜泰鎭)이는 왕십리 사람, 박산흥(朴山興)이는 남문밖 사람이드립니다. 하도일(河道一)이는 편쌈꾼 대접 잘하기로 유명하얏고 길한영(吉漢永)은 편쌈부치기 잘하기로 유명하얏습니다. 이 역시 편쌈 력사에 낫지못할 사람들입니다.
(西界洞 老 將 軍)

苑南洞 -- 捲草閣

중궁뎡(中宮殿)에서 태기가 계시면 산실청(産室廳)이 안씨오. 세자가 나십니다 그려. 태는 태봉(胎封)에 뭇고 거적 자리는 권초각에 둡니다. 태가지고 태봉에 가는 직임을 안태사(安胎使)라 하고 거적을 거더서 권초각에 갖다 두는 직임을 권초관(捲草官)이라 하얏습니다. 여간으로 이런 직임을 하겡습니까. 디위도 놓아야 하려니와 복수가 조하야 한답니다.

원남동 명물로는 우에 말슴한 권초각이 잇습니다. 태봉 다음에는 이 집도 소중한 데랍니다. 권초각은 지금도 대궐서 관할하는 집이라 이 집에 딸린 작은 향랑채 가튼 집들은 대개 넷신하의 가난한 이들이 들어 잇고 권초각 압마당에는 저녁때면 서늘하기 때문에 늙은이 젊은이가 만히 모인답니다.

권초각을 보시랍니다. 종로서 뎡차를 타고 종로 사뎡목 네거리에서 나리지 안습니까. 본뎡으로 가시지 말고 창경원 가는 길로 올라가시다가 왼손뎡쪽 셋재 골목으로 들어서서 물을 꺽 업시 꺽음만 가면 권초각이라고 쓴 현판이 보이시오. 하도 더우니까 참말 차져가시기는 어렵습니다.

(苑南洞 韓 秉 俊)

忠信洞 -- 白菜圃

'배채'뎡뎡으로 배추는 원래가 중국 북방에서 나뎡 물건인데 우리 조선으로 들어오고 또 일본으로 건너가서 오늘날까지 동양에 넓히 퍼지게 뎡 것이랍니다 중국 뎡에서 나뎡 종류로는 산동배추, 지부배추, 만주배추, 금주배추 가튼 등속이 잇는데 그중에 산동배추가 가장 유명하고 우리 조선것으로는 송도배추, 일본것으로는 나가사끼배추가 각기 데일 간답니다.

배추는 채소중에 데일 조흔 것인데 그것을 화학뎡으로 분석하면 성분(成分)이 알에와 갓답니다. 수뎡(水分)이 백뎡에 오십구뎡마 팔십구요 추한 단백질(蛋白質)이 일뎡마 이십륙이요 추한 지방질(脂肪質)이 공뎡마 팔이요 녹을 만한 무질소물(無質素物)이 역시 공뎡마 공팔이요 회뎡(灰分)이 공뎡마 오십구랍니다. 뎡지 못한 쯤들을 과학지식을 내노타가 수뎡이니 회뎡이니 일뎡마니 공뎡마니 적기가 성가십니다. 서울안 배추뎡 이야기나 적겡습니다.

그뎡 서울안 배추뎡으로는 방아다리와 훈련원뎡이 유명한 곳입니다. 훈련원뎡은 지금 거의 업서지다 십히 뎡고 방아다리만 남은 모양인데 방아다리 배추뎡이 다른 것이 아니라 곳 이 충신동 명물입니다.
(忠信洞 金 亨 濟)

內資洞 -- 內資寺

내자시라 하면 알으시는 이가 대개 적을겡 갓습니다. 업서지든 해 는 사람이 지금 서른살뎡 사

람보다 열세해가 우입니다. 자연히 우리 귀에 설지 안할 수 업지요 대궐안에 술, 기름, 국수, 지렁, 꿀, 실과, 나무등속을 내자사에서 바치는 법이랍니다. 넷적은 이 대문안이 들석들석 하얏답니다. 내자시는 업서졌스나 그 집은 그저 잇서서 세상이 이러케 된 뒤에 여러 사람의 세스방이 되엇답니다. 양말짜는 사람도 잇섯는데 지금은 떠났지요. 과부설음은 동무과부가 아는 법이라 내자시 업헤 잇는 장흥고(長興庫)가 설어한다면 가티 설어할 것입니다.

자미는 업슬지 모르나 내자시 력사말씀이나 하려합니다. 고려 목종(高麗穆宗)때 태관서(太官署)를 처음 두엇섯는데 충렬왕(忠烈王)이 이를 고치어 선관서(膳官署)라 하고 공민왕 때에 돌우 태관서가 되엇다가 또다시 선관서라고 하얏섯지요. 나라이름 고쳐진 뒤에 선관서가 내자시로 변하얏스니 이는 태종때 일이랍니다.

樓下洞 -- '쌘 지'

시골 어떤 량반이 무엇 가튼 것이란 말을 어찌 잘하든지 제사스날 하인을 시켜서 장흥정을 하러 보냈는데 북어가튼 것, 전복가튼 것을 사오라고 하얏드랍니다. 진실한 하인이라 가튼 것을 종일 차차 다니다가 쌘지가 전복 갖고 갓모가 북어가튼 것을 보고 두 가지를 사왓드랍니다. 지금 루하동 명물의 쌘지 이야기를 하자니까 이 생각이 먼저 납니다.

루하동은 전날 유각골 이랍니다. 유각골하면 누구든지 쌘지장사 만흔데로 알지요. 이제와서는 이 노릇도 세월이 업답니다. 이 사진에 박힌 로인이 쌘지장사로써 썩 오랜 령감인데 비단쌘지 잘 만들기로 유각골서도 데일이랍니다. 동그러타고 동그래 쌘지요 병부쪽 갓다고 병부 쌘지요 손에 쥘다고 쥘 쌘지요 비빔 쌘지는 노끈 쌘지랍니다. 이중에 비단 쌘지가 데일 조치요. 데일 조흔 것을 데일 잘 만드는 이 로인은 명물중에 더욱 더욱 명물입니다.

쌘지나 갓모나 한데서 만들 것만 갓모는 명물차지를 못하지요. 쌘지는 늘 차는 것이나 갓모야 늘 씌니까. 갓모는 별 이름이 업스나 쌘지 이름이야 여간 만흔니까. 또 북어가 어찌 전복을 당합니까.
(樓下洞 李 雲 坡)

中學洞 -- 舊 中 學

중학다리(中學橋) 중학동(中學洞), 네전에 중학이 이곳에 잇섯든 표적입니다. 네전 중학은 지금 중학교와 가티 중등정도 학교란 말이 아니요 서울 중부에 잇는 학교란 말입니다. 도령도설로 전하는 소리를 들으면 국초쩍에 정도전(鄭道傳)이란 이가 이 중학터를 잡았는데 현송(絃誦)소리가 끈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하얏답니다.

이 예언이 도령도설일망정 과히 헛 말은 아니든지 중학이 업서진 뒤에 중교의숙(中橋義塾)이란 강습소 비슷한 학교가 생겨서 이 집안에서 낮에는 '에이, 뵘'와 '아이우에오' 오이는 소리가 나고 밤에는 성학잡요(聖學輯要), 대명률(大明律) 읽는 소리가 낮섯드랍니다. 이 강습소 가튼 학교가 업서진 뒤에는 또 관진학교(觀鎭學校)라는 열치기 소학교가 생겨서 '곤니찌와', '재왈'하는 소리에 이집이 떠들석 하얏드랍니다.

열치기 소학교 업서진지가 벌써 언제인지 몰를만치 오랫동안 그 뒤를 이어 생기는 학교는 업고 묵은집 넓은 대청만 적적하게 남아 잇답니다. 이 중학터가 오백여년이나 묵엇스니 인제는 명기가 다 빠졌는지 모르지요.
(中學洞 中 學 生)

桃花洞 -- 煉瓦工場

서울안에 양제집이 경성드못한 오늘날 벽돌 맨드는 공장이 업시 될 수가 잇습니까. 그래서 새 문밖 도화동에 련와공장이 생겼습시다.

도화(桃花)에는 힌끗 피는 벽도도 잇것마는 보통 도화라 하면 붉은 빛을 생각하고 벽돌에도 여러가지 빛이 잇것마는 보통 벽돌이라 하면 붉은 빛으로 녀깁니다. 벽돌맨드는 공장이 도화동에 안즌 것은 벗어도 어울린다고 할 수 잇슬듯 합니다.

이 도화동 련와공장에서 로동하는 직공들은 다른 공장 직공과 다릅시다. 붉은웃 입은 직공들입니다. 붉은 웃입은 직공들이 붉은벽돌 만드는 것도 역시 빛으로 어울린다고 할수 잇습시다. 이 붉은 웃입은 직공은 두 사람이 한데 쇠사슬을 매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물론 일할 때는 쇠사슬이 풀립시다. 그러나 총든 사람이 망대우에 서고 칼찬 사람이 뒤를 딸은답니다. 직공중에는 딸아지 신세 직공들입니다. 이중에는 붉은 엄통의 끝는 피를 눈물삼아 뿌릴 뜻잇는 사람이 덜어 잇슬 것 입니다. 이것은 빛으로 어울린다가가 참아 어려워 고만두겟습시다. (桃花洞 梁光烈)

蓮池洞 -- '개구리 소리'

련못골 하면 명물이 나무신이 될 줄 아시지요. 아닙니다. 좀더 좌뜚 명물입니다. 동리 이름에 꼭 들어맞는 명물입니다. 이 명물이 무엇이냐. 개구리 소리라는 명물입니다. 요새가튼 여름철 비 지낸 저녁이나 달밝은 밤에 한번만 련못골 오서서 요란한 개구리 소리를 들어보시면 나무신가튼 명물을 제치고 명물노릇할만한 갑을 대강 짐작하시리다. 그전에는 이 련못골에 큰 련못이 잇섯드라니 그 때쯤은 '파귀 놔뉘'합창소리에 귀가 따거웠슬 것입니다.

개구리 소리를 잘 들어주기로 유명하든 사람은 진(晉)나라 필탁(畢卓)이랍니다. 이 술꾼 천명한 이는 이 소리를 삼현륙각 맛잡이로 들엇답니다. 개구리소리를 잘못들어 주기로 유명한 사람은 고려(高麗) 강감찬(姜邯贊)인가 합니다. 이 이인(異人)별명 뜻는이는 소리듯기가 성가시다고 부적으로 병어리 개구리를 맨들엇답니다.

진나라 혜제(惠帝)라는 이는 개구리소리를 들으면서 엽해 잇는 사람에게 저것이 관사(官事)로 우느냐 사사로 우느냐고 물엇답니다. 이것은 잘 들어준 것도 아니오 잘못 들어준 것도 아니오 이 명물갑만 울리는 이야기 거립시다. (蓮池洞 林奉洙)

義州通 -- '독감이골'

우리 조선에 떠도는 독감이 얘기는 만습시다. 그러나 독감을 본 사람이 흔치안흔 까닭으로 독감이는 업는 것이라고 되지못한 과학지식을 내세우는 사람이 업지 안습시다. 그런 사람을 가르쳐 주랴면 언제 심령학(心靈學)이 발달되기를 기다릴 수 잇습니까. 의주통 독감이골로나 더리고 가보지요. 구즌 비는 부실부실 뿌리고 밤은 들어 사방이 고요한데 독감이 골로 들어서면 난데업는 키다리 장승이 우뚝우뚝 압해 서서 가는 길을 막는 답니다. 이런 때는 섯불은 과학지식이 다 - 날라가고 등에 소름이 쪽쪽 끼치며 이마에 찬땀이 솟을 것입니다. 어둔 밤에 귀신이야기 마라 귀신이야기 하면 귀신이 온다는 넷사람의 말을 올케 녀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사람이 물려와서 살기 시작한 뒤로 독감이골 독감이도 잘 나서지를 안는다니 일겐 더리고까지 갔다가 허행 할까보아 걱정이 됩니다.

독감이 잇슬만한 데를 갈 때는 왼손 바닥에 주사로 '甕'자를 쓰고 주먹을 쥐고 가다가 독감을

보고 그 주먹을 펴면 독갑이가 내뺀답니다. 귀신이 죽으면 '甞'가 되는 법이라 사람이 귀신 무서워하는 것처럼 귀신이 '甞'를 무서워 한답니다. (義州通一丁目 趙重立)

孝子洞 -- 內侍

중국으로 말하면 통지(通志)가 잊지오마는 우리나라도 읍지(邑誌)가 있습니다. 읍지에는 유명한 루대(樓臺)와 특별한 풍속을 다 쓰시오. 더욱이 그 땅에서 난 인물을 중요하게 기록하는 법입니다. 넷 자하스골이 지금 효자동 아닙니까. 효자동 인물지(人物誌)를 만들려면 내시(內侍)를 뺄수가 없시오. 다시 말하면 효자동 주인은 곳 내시입니다. 내시네중에 유명한 인물이 만트랍니다.

몇사람의 조치못한 이름도 잊섯지오마는 근일에 보아도 태황데 말씀만 하면 고만 눈물이 쓰다지는 이들이 만답니다. 홍택주(洪宅柱)씨의 행검과 김한정(金漢貞)씨의 문학과 황윤명(黃允明)씨의 절조가 다 - 각각 이름이 있는데 저 눈물은 다가티 흐른답니다. 그러나 이네는 오히려 예사사람들이라 내시의 대표적 인물이 되지 못합니다. 열다섯 해 전에 교하(交河) 삼다리에서 배갈라 돌아간 반학영(潘學榮)씨야말로 굉장한 량반이지오. 그 이름이 우리 민족과 가티 길을 것입니다.

절 조하하면 자하스골 사느냐 말은 실업슨 말입니다. 승전색(承傳色)이 전교를 전하는 까닭에 절을 만히 바뎸섯지오마는 조하한다는 말은 맹랑한 말입니다.

松月洞 -- 月巖

새문밭게서 독립문쪽으로 가면 석다리 북쪽으로 큰 바위가 들여다 보이지오. 이 바위는 얼롱바위라고 부르는데 얼롱은 와전이오 원이름은 월암입니다. 월바위가 얼롱바위로 되기도 어찌 생각하면 그럴듯 합니다. 그러자니 이 얘깁니다. 적에 올라티 가면 때면 명산대천에 괴우제를 지내고 또 광통교 미테서 도롱룡에게 제사를 지내드립니다. 그 축문은 간단하지오. "척석척석 흥운토무" 여덟자인데 척석은 도롱농이오 흥운토무는 구름을 일으키고 안개를 토하란 말이지오. 그런데 다리미를 누가 잘 들어잡니까. 탁배기잔이나 자신 구중네들이 "철석철석아 흠을흠을해라" 이러케 맹랑하게 읽드립니다. 척석이 철석이 되는 것을 보십시오. 월바위가 얼롱바위되기가 어려울 것이 있습니다.

이름 이야기가 넘우 길엇습니다. 그러나 다시 또 말씀할 것이 있습니다. 이 바위에 월암동이라는 세 글자가 있는데 시속글씨가 아닙니다. 넷적 어떤 운치잇는 이의 자취 갖습니다. 그 글시만 하야도 얼롱바위는 명함도 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松月洞 鄭宗洙)

光熙町 -- 파 리

광희명사람 말이 내동리 명물은 파리라. 어느집을 가보든지 사람의 집이라느니 보담 파리의 집이라고 하는것이 상당할 만큼 파리가 숫하게 만타고 합니다. 파리는 추한 곳에 만히 생기는 물건이니 파리를 명물로 내세우는 것은 동리가 추하다고 자백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못된 바람 부는 곳에 무슨 조흔 명물이 차저 가겠습니까.

파리가 느진 가을에 알을 배고 그대로 과동을 한답니다. 봄새 날이 따뜻하야지면 일백사오십개 새끼파리를 낳는데 그 새끼파리가 얼마 동안만 지내면 또 알을 배게 된답니다. 그래서 봄에 처음으로 세상에 나온 암파리 한마리가 가을까지 가면 칠십구억 사천백이십칠만 가량되는 파리의 조

상할미가 된답니다. 이 파리가 만일 잡히지도 안코 죽지도 안코 몇해동안만 지내면 이세상은 파리의 물건이 되고 말것입니다.

세계에 파리만키로 데일 갈만한 곳은 아마 압록강 건너 안동현인가 합니다. 안동현 거리를 지나가자면 거리의 문지가 떼를 지어 날립니다. 이 문지는 참말 문지가 아니오 파리가 문지를 뒤어 쓴 것입니다. 광희명 파리짚은 아마 명함도 못들일 줄 압니다. (光熙町 尹 基 炳)

蛤洞 -- 春 香

숙종대왕 즉위초 전라좌도 남원(全羅左道南原) 퇴기 월매의 꽃가튼 딸이 서울 삼청동 리승지택 옥가튼 도령님과 삼생연분을 굳게 매즌 뒤에 송죽가튼 그 절개가 몹쓸 풍상을 격글수록 더욱이 굷고 변치 아니하여 꽃다운 이름을 후세에 전하게 되었답니다. 춘향전 뒤풀이는 아니하는 것이 똑똑한 일이지요 고만 두겠습니다.

춘향의 사실이라고 전하는 말을 들으면 춘향이란 계집애가 텃하박색이라 시집을 가지 못하고 죽었는데 원한이 구텃에 사모쳐서 남원에 비가 오지 아니하여 큰 한재가 들었드랍니다. 그래서 춘향전을 지어서 한풀이를 해주었더니 비가 왔다고 합니다. 지금 합동에 춘향이 하나가 있는데 조막손이 거지랍니다. 바퀴달린 궤짝 속에 들어안져서 사내를 시켜 밀리고 이집저집 다니며 한푼 두푼 엷는답니다. 이 춘향을 위해서 글 잘하는 분이 새 춘향전 한권을 지어두면 몇백년 뒤에 꽃가튼 춘향이 또하나 생길것 같습니다. 리도령의 성춘향이 참말 박색이든 것으로는 미지를 마십시오. (蛤洞 李 道 令)

橋南洞 -- 大 장 간

교남동에 '대장간' 하나가 있습니다. 이 대장간은 언제 시작한 것인지 동리 로인들도 아는 이가 업답니다. 이 대장간 주인은 우리 동리에서 윤대장이라고 유명합니다. 더운 날이나 치운 날이나 죽음도 구별업시 풀무 압헤 안져서 벗어케 단 쇠에 무거운 마치를 먹인답니다.

이 로인은 열다섯살 되는 소년으로 대장일을 시작하여 칠십 로인이 되도록 한결가티 손에 마치 못이 빠진적이 업답니다. 이 로인 말이 자그가 대장일을 시작할때 이 근처의 호수(戶數)가 얼마 아니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교남동 로인들중에 이 대장간 시작하는 것을 본사람 엷는 것이 괴상 할 것 업습니다.

임오년에 구군총 란리, 갑신년에 개화당 란리, 갑오년에 동학당 란리, 을미년에 경복궁 란리, 을사년 오도약 소동, 텃미년 칠도약 소동, 경술년 합방 소동, 기미년 만세운동 세상에는 이런 란리 저런 소동이 만हत건만 이 로인은 한결가티 똑똑똑 소리로 날을 보냈답니다. 이러케 세상을 지내온 로인이것만 세상이야기가 나면 한숨을 쉬고 눈물까지 먹음을 때가 잇답니다.

(橋南洞 姜 順 五)

冷洞 -- 休 紙 都 家

장안안 물은 오간수로 빠지지요. 휴지란 휴지는 랑동 휴지도가로 대개 들어간답니다. 집은 족오마한 초가이나 휴지장사로는 데일 큰 장사의 집입니다. 휴지를 무엇하러 샅니까. 도배의 초배도 하고 신 만드는데 속창 너는 백비도 하지요. 그러나 데일 만히 소용되는 것은 물에 풀어서 다시

조히 뜨는 것이랍니다.

이 휴지속에 귀중한 책도 만히 들어가서 업서저 버리었습니다. 문지 못고 좀먹은 남저지가 흑력사의 큰 자료가 되것마는 팔아먹는 사람이 몰르고, 사서 파는 사람이 몰르니 초배감, 백비감, 조히 뜰 감빳게 더 될수 잇습니까. 이것으로 보면 이 휴지도가에서 우리 넷문명의 자취가 얼마쯤 업서졌는지 알수 업지요.

지금은 이 도가에서 한탄이 갓금 난답니다. 간지휴지, 락복지는 말할 것도 업거니와 백지쪽 구경도 할수 업수니 쪽쪽 찌어지는 조히쪽이라 무엇을 하든지 조치못한 까닭이랍니다. 뉘집 뉘집하는 넷집에서 간간 몽텅이로 쓰다저 나오는 것이 이 도가의 요용거리가 되지요.

(冷洞 金宗洙)

貫鐵洞 -- 東床塵

여보 이 량반 무엇을 사료. 갓, 망건, 탕건 다 여기잇소. 안경을 사료 풍잠 관자를 사료 무엇을 사료. 이 량반 이리 갑시다. 이편에서 이러케 불르면 저편에서 또 불릅니다. 이것을 여러라고 하고 이 노릇하는 이를 여러꾼이라고 하지요. 불르는 대로 딸아가 보면 동쪽은 동상전이요 서쪽은 서상전이드랍니다. 이전 저전 할것 업시 풍파를 격고 난 뒤로 넷 형모가 만히 변화얏지요. 동상전은 아즉도 넷 현판을 걸고 넷 장사를 하는 까닭에 명물로 뽀히게 되엇답니다. 한가지 다른 것은 여러꾼의 소리가 귀에 들리지 안코 각 신문의 광고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상전(床塵)이라는 것은 지금 잡화상과 갓습니다. 동서상전은 우에도 말하얏거니와 이외에도 남쪽상전은 남문을 발아본다는 뜻으로 '발알망 문문' 망문상전이라고 하지요. 수동 건너라고 수진상전이랍니다. 여러꾼이 물건을 주서 세이듯이 상전을 세이고 나니 별자미는 업습니다마는 상전력사로는 업지 못할 것입니다.

(貫鐵洞 林浩俊)

長沙洞 -- 妙心寺

장사동 골목으로 뺑뺑 돌아 들어가면 긴 담이 잇지요. 이 긴 담이 돌리인 속에는 일본사람이 지은 묘심사(妙心寺)라는 절이 잇습니다. 법당 뒤에는 선방(禪房)이 잇답니다. 이 절을 처음 지을 때 김운양(金雲養)이 상량문을 지엇지요. 이 글을 본 사람은 이 절 이름을 생각할 것입니다.

화개동 꼭대기에 복주움물이 잇지 안습니까. 임오군란때 곤년(坤殿) 민비께서 피란하시든 집 터에다가 비를 세우라고 던각까지 지어 노חת섯지요. 이 던각을 헐어다가 이 절을 지엇답니다. 들어누은 이 비스들은 비바람을 가리지 못하고, 끌어안즌 저 중들은 이 때에도 더위를 몰른답니다.

선방이라는 데는 말을 아니하는 법이지요. 일본 중들이 구걸다닐제 보면 딱딱 뚜드리기만 하지 안습니까. 선방 생각을 하니 일본 중들 구걸하는 모양이 보이는 것 갓습니다. 길로 다니면서도 선(禪)공부를 하는 그들이라 선방 속에서는 어떠케 하는지요.

(長沙洞 好古生)

紅把洞 -- 甸 내 집

눈이란 것은 끔막히게 무서운 요술꾼입니다. 이것이 재주를 부리면 못하는 것이 업는 모양입니다. 시비흑백(是非黑白)을 혼동해서 구별업시 맨드는 것은 레사하는 짓이요 올흔 것을 글으게, 힌 것을 검게 맨들어보기도 일수합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이 눈가튼 요술꾼은 다시 업슬 것 갓습니

다.

이세상은 사람다운 눈으로 보면 사람사는 세상이지오마는 파리란 놈 눈에는 파리세상으로 보일
는지도 모르고, 개눈에는 똥세상으로 보일는지도 모릅니다. 멀정한 이세상을 귀신세상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귀신인지 또는 귀신을 팔아먹는 사람인지 이것은 똑똑
이 몰르니 부질업시 말할 수 업습니다.

이 귀신세상으로 보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간곳마다 귀신이 잇답니다. 산천이나 목석에는 말할
것도 업고 집에는 터주, 성주 집속에도 부엌에는 부엌귀신, 뒤간에는 뒤간귀신 보통 이름만 주어
대도 뜬 것, 물귀신, 원귀, 아귀, 무명손각씨, 동자보살, 덩신, 호구별성 가진각색 것이 다 잇답니
다. 이 흥파동 명물은 이런 귀신세상에 사는 사람의 집이랍니다.

唐珠洞 -- '와 다 시'

당주동 명물은 '와다시'입니다. '와다시'가 무엇인고. 이상히 생각하시겠습니까마는 알고 보면 당
주동 이십팔번디 향랑방에 사는 리경선(李慶善)의 별명입니다.

당주동에 명물로 '와다시'가 들었스니 그까짓 것이 무슨 명물인가하고 의심하실 이도 업지 안켓
지오마는 옥인동 아방궁이 명물이오, 경운동 민영휘씨집이 명물에 들었스니, 당주동 '와다시'는 빼
어놀 수 업는 명물입니다.

다른 동리 명물은 집이 커서 명물이오 돈이 만해서 명물이오 력사가 잇서서 명물이지마는 '와
다시'는 돈업서 명물이오 술 잘먹어 명물이오 그 계집이 못나 명물이오 배스심 조하 명물입니다.
이사람의 직업은 막별이꾼인데 하로에 밥 세끼는 못 먹어도 넉넉히 견대지마는 술 한잔 업서서는
못사는 사람이오. 텃하에 못났다는 놈이 만흐되 '와다시'가 못났다면 큰일날 사람이외다. 하로에
십전 벌어서도 술! 일원 벌어서도 술! 술만 먹으면 안하에 잘난 놈이 업고 부자 놈이 업습니다.
술만 먹으면 나뻑게 업다하야 '와다시'라고 이름을 지엇답니다. (唐珠洞 金 永 根)

通洞 -- 林 檉 園

서울서 능금밭으로 유명하기는 창희문 밭깁니다. 창희문밧게 사는 사람은 요맘 때가 되면 손에
돈푼이나 쥐게 됩니다. 창희문 밭글 가보면 이 모통이 저모통이 모다 능금밭입니다. 참말 유명한
능금스곳이란 다르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송동의 앵도밧보담 더 만흐면 만하치 적지는 안힐 것입
니다.

'경능금' 즉 서울 능금은 창희문밧 능금이 아니오 통동 능금이랍니다. 이 통동에는 능금밧이 한
군대 뿐이것만 능금은 서울서 대표가 될만큼 품이 조트랍니다. 그래서 그만흔 창희문밧 능금을
이 얼마 안되는 통동 능금만치 못녀것답니다. 량(量)보다 질(質)을 더 숭상하든 세상에서는 그러한
것이 예사 일이엇겠지오.

창희문 밧게서는 여전히 능금이 만히 나고 이 만흔 능금으로 여러 사람들이 벌어먹고 사는데
지금 이 통동 능금밧은 일본 사람의 물건이 되엇답니다. '경능금'이란 말까지 아는 사람이 드물게
되엇습니다. 질을 량보담 더 숭상하면 이런 폐가 혼이 생기는 모양이야요. 그러기에 지금 세상은
질을 량보담 더 숭상하지 안흐랴고 한답니다. 이런 의미로 보면 통동 명물 능금밧은 참말 력사상
명물밧게 아니됩니다.

鍾路 -- 蠟石塔

명물 명물하니 서울안 명물에 탑골공원 납석탑이야 뽠 수가 있습니까. 이 탑은 고려 충렬왕비(高麗忠烈王妃) 원(元)나라 공주가 시집을 때 가지고 온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만흐나 그 반대로 우리 조선에서 맨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탑을 원각사탑(圓覺寺塔)이라고 하는 것은 세조대왕 구년에 이 탑골에 원각사라는 절을 지었든 까닭입니다. 원각사는 종종때 헐어서 반정공신들의 집을짓고 탑만 오늘까지 그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아니 원각사 비도 남아 있습니다.

이 탑 우의 세층을 내려 노흔 것은 임진란에 일본 병정이 가져 가라고 내려 노타가 무거워 고만두었다고 합니다. 전하는 말이니까 꼭 미들 수는 업습니다. 갑오년이후에 어느 일본사람 개인이 훔쳐가라고 한일도 잇섯습니다.

이 탑의 자매탑(姊妹塔)이 있습니다. 이것은 풍덕(豐德) 경천사탑(敬天寺塔)입니다. 이 탑은 년전에 궁내대신 면중(田中)이란 이가 집어갓습니다. 지금도 일본 면중의 뜰 구석에 서 잇슬 것입니다.